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갑오조선내란시말 甲午朝鮮內亂始末
천우협 天佑俠
남정여록 南征餘錄
동학당시찰일기 東學黨視察日記
일청교전록 日淸交戰錄
일청전쟁실기 日淸戰爭實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간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만민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 혁명이며,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반일구국항쟁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이 유실(流失)·멸실(滅失)되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 한국 민족민주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치적 억압과 통제가 완화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 과거사 정리를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사업'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순수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개되어 한국사적 차원에서 그 의미와 위상이 재정립되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이만열)를 구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7년「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하였고, 마침내 2023년 5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가 창립되었고, 그 산하에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가 발족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전30권, 1996)를 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대부분이 원문인 한자여서 일반인들이 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3.5)에

따라 2004년 9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에 수록된 사료를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전 6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체부 특수법인)이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13권)를 발간하였습니다. 나아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로 발굴된 자료를 모아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수록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14권)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한 일본 측의 자료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및 청일전쟁 직전 동학농민군의 정세를 파악하고 조선의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이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제국주의적 야욕이 담긴 일본 측의 자료 『천우협(天佑俠)』, 『남정여록(南征餘錄)』,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를 번역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를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자료는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에도 탑재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어려운 자료를 번역해 주시고 교정·교열·감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 순 철

일러두기

1. 수록 자료 및 체제
   1) 자료 성격 :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 6종 :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인이 작성한 자료
   2) 대상 자료 :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 6종『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천우협(天佑俠)』,『남정여록(南征餘錄)』,『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의 영인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3) 자료 구성 :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 6종
   4) 체제
      ① 체제는 번역문, 입력문 순으로 구성하였다.
      ② 목차는 원본의 내용 순서에 따르되, 일부 변형하였다.
      ③ 내용은 원본의 문서 체제를 그대로 따르되, 일부 변형하였다.
      ④ 책의 첫머리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록 자료의 해제를 실었다.

2. 편집 원칙
   1) 동학농민군을 지칭하는 용어는 원문 그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대어로 다듬고 고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국한문 병용을 원칙으로 하되, 반복되는 용어는 한 번만 국한문 병용을 적용하였다. 또한 간단한 용어 해설은 함께 표기하였다.
   4)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로, 긴 역주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6) 번역문에서 쓰인 주요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 ” : 1차 인용
      ② ‘ ’ : 2차 인용
      ③ ■ : 원문에 글자가 있으나 안 보이거나 번역 불능인 것을 표시한다.
      ④ ( ) : 일부 한자 원문을 병기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내용 설명한 것을 표시한다.
      ⑤〔 〕: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경우 또는 일부 한자를 병기하거나, 문맥상 구분이 필요할 때 표시한다.
      ⑥ 소자(小子) : 원문에 있는 작은 글자와 괄호 안에 글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작은 글자로 표기한다.

3. 기타
   1)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책 말미에 인명, 지명 등에 대한 색인을 실었다.
   2) 본 책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www.e-donghak.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례

발간사 | 4

일러두기 | 6

해제 | 21

갑오조선내란시말 | 국역 | 원문

폭민 봉기의 원인 | 51 | 411

동학당의 실력 | 53 | 412

동학당의 근거 | 54 | 413

지방관의 도주 | 55 | 414

동학당의 선언 | 56 | 415

동학당의 군기(軍旗) | 59 | 417

동학당의 무기 | 60 | 418

전라도의 동학당 | 61 | 419

여산(礪山)의 전투 상황 | 63 | 420

백산(白山)의 교전 | 63 | 421

정토군(征討軍)의 출발 | 64 | 421

조선 조정〔韓廷〕의 공황(恐慌) | 65 | 422

전주 영장(營將)의 내응(內應) | 66 | 423

이경호(李景鎬)의 전사 | 67 | 424

전라도 수괴의 명령	68	425
동학당의 민망(民望)	68	425
화약고가 불에 탐	69	426
목사 일가의 조난	70	426
김옥균의 잔당	70	427
동학당, 소와 말을 약탈하다	70	427
공미(貢米)가 동학당의 소유가 되다	71	427
정토군(征討軍)의 상륙	72	428
동학당, 제방을 터뜨리다	72	429
추토군의 탈주	72	429
전라도 전주	73	430
국왕전하의 교시	74	430
이경호(李景鎬)의 증관(贈官)	75	431
김세풍(金世豐)의 아들과 조카가 적에 투항하다	75	431
전라감사의 적 상황 보고	76	432
적 포로의 큰 기염	77	433
조선 조정의 미봉책	78	434
초토사의 급보	79	434
초토사가 양공(陽攻)을 시도하다	79	434
전라도 감사의 근심	79	435
편장(褊將)의 행방불명	80	435
경군(京軍)의 담한(膽寒)	80	435
적도(賊徒), 병사를 훈련함	80	436

영관(領官) 이하의 사망자 | 80 | 436
초토사의 급한 청, 원세록의 무사함 | 81 | 436
영광군(靈光郡)의 적세(賊勢) | 81 | 437
동학당의 한 부대가 영광성에 농성하려 하다 | 82 | 437
순창부사의 서한 | 82 | 437
외국 군대를 빌리는 망의(妄意) | 84 | 439
원군(援軍)의 출발 | 85 | 439
전주의 함락 | 85 | 440
장성의 전황 | 86 | 441
경상도의 동학당 | 87 | 442
충청, 평안 양도의 동학당 | 88 | 443
정토(征討) 착수 | 89 | 444
동도(東徒)의 총기 | 90 | 444
동서의 호응 | 90 | 444
관군 소수 | 90 | 445
세력이 점차 창궐 | 91 | 445
관리 도주 | 91 | 445
총검 약탈 | 91 | 445
동학당, 유동(幼童)을 위무하여 군기를 크게 진작하다 | 91 | 445
순변사(巡邊使)와 염찰사(廉察使)의 출발 | 92 | 446
국왕전하, 종묘의 땅을 생각하다 | 93 | 447
경성의 군대 | 94 | 447
현임 당상관(堂上官) | 94 | 448

경성의 사채(四寨)	96	449
경성의 무기 및 탄약	96	450
행상이 갑자기 병사로 변하다	96	450
몰래 소총 탄약을 주다	97	450
아산(牙山)의 지리	97	451
파견 청군의 실제 수	98	452
이조(李朝) 5백 년의 난	99	452
요란휘보(擾亂彙報)	101	455
전주성 안에 병사 한 명 없다	101	455
초토사와 감영	102	455
국왕의 역린	102	455
중국 쌀의 수입	102	455
조선 조정의 내정(內情)	102	456
순변사(巡邊使) 이원회(李元會) 씨	103	456
망국의 역신	104	457
목멱산의 봉화	104	457
국왕의 피난지	105	458
조선 조정의 미봉(彌縫)	105	458
형세 조금 절박	106	459
조선의 위기	106	459

천우협

천우협(天佑俠)	113	465
중원에서 패권을 다시 다투니 붓을 던지고 싸움터로 나서다	117	466
부산 대본영의 동정	126	473
자산수명각(紫山水明閣)의 회의	127	474
두 명의 박(朴)씨, 산길로 동학당 사정을 탐색하다	128	475
요시쿠라(吉倉) 먼저 출발할 결심	129	476
두 사람의 선발	130	477
본대(本隊)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행하다	132	478
김산(金山) 습격의 논의를 정하다	134	479
김산 야습(夜襲)의 실정	134	480
화약을 나누어 가짐	139	484
유례가 없는 야간행 기책(奇策)	140	485
함안(咸安) 객사에서 한 명의 장부를 만나다	143	487
폭탄의 시험	145	489
들판의 작은 전투	146	490
야만인에 대한 결심	148	491
자자손손 일본에 무례를 가하지 않겠다	148	492
진주성의 형세	150	493
천우협의 깃발이 처음으로 진주성 앞에 펄럭이다	152	495
병사의 행진을 시끄럽게 하다	152	495
조선인 관리를 질책하여 물리치다	153	496

말을 줄지어 타고 포도아문으로 가다 | 154 | 497
침착하게 포성 아래를 가볍게 달리다 | 155 | 498
위기일발 속에서 기책을 마련하다 | 156 | 499
우레와 같은 포탄 한 발이
성에 가득한 사민(士民)을 놀라 죽게 하다 | 158 | 500
유유하게 진주성을 나가다 | 160 | 501
남강 부두의 풍광 | 161 | 502
산림과 하류(河流) | 162 | 503
밤에 낡은 정자에서 숙박하고 어둠 속에 강을 건너다 | 162 | 504
마을의 폭민(暴民)을 물리치고
강변의 나쁜 마부를 응징하다 | 165 | 506
들판의 작은 잔치 | 167 | 507
삼사(三士)의 용기가 산청(山淸)의 태수를 복속시키다 | 168 | 509
수촌(水村) 잉어를 구해 배불리 먹다 | 171 | 511
산빛이 곱고 강물이
맑은 시골에서 유랑하는 미인을 보다 | 172 | 512
호랑이가 사는 지리산의 신령한 장소 | 174 | 513
영담(靈潭)에서 목욕하고
행군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 버리다 | 175 | 514
팔도 제일의 음료수 | 177 | 515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 177 | 516
운봉성(雲峰城) 유수(留守)의 환영 | 178 | 517
정왜대총독(征倭大總督)의 비를 깨부수려 하다 | 179 | 517
병자가 소변을 마시다 | 180 | 519

버드나무 둑에서 참외를 잘라 탁주를 마시다 | 181 | 519
남원성 아래에서 천우협의 활동 | 183 | 520
부사(府使) 아문에서
양사(兩士)가 관인(官人)을 설파하다 | 183 | 521
경필(警蹕) 소리 속에 제후의 태도를 취하다 | 185 | 523
광한루의 첫날 밤 | 186 | 524
관리가 밤에 진귀한 술을 가지고 오다 | 188 | 525
광한루의 제2일 | 189 | 526
영주각(瀛州閣) 위에서 삼사가 급히 격문을 기초하다 | 191 | 528
영웅이 큰비를 뚫고 당군(黨軍)을 두드리다 | 192 | 529
입당전권사(入黨全權使)의 선정 | 194 | 530
전권사의 유언(留言) | 195 | 531
당사(黨使)가 삼사(三士)를 안내하다 | 196 | 532
삼사(三士)가 침착하게 시위군 앞을 지나가다 | 197 | 533
대장은 어디에 있는가 | 198 | 534
전(全) 총독 앞에서 우격(羽檄)을 읽다 | 200 | 535
격문의 주요 내용 | 201 | 536
삼사(三士), 크게 전(全) 총독과 담판하다 | 207 | 541
의가 없다면 비록
살아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는가 | 208 | 542
전(全) 총독, 크게 삼사를 대접하다 | 209 | 543
동학당 속의 첫 번째 일본인 | 210 | 544
천우협이 동학당의 진영으로 옮기다 | 211 | 545

전봉준과의 정식 첫 대면 | 212 | 546
넓은 방에서 4인, 전봉준과 밀의를 나누다 | 213 | 547
연맹위원, 대대적으로 총독을 설득하다 | 214 | 547
병력을 4방향으로 나누어 경군을 맞아 토벌하다 | 221 | 553
천우협의 작전 계획 | 224 | 555
동면군의 진퇴 | 226 | 557
남면군의 진퇴 | 230 | 559
서면군의 진퇴 | 231 | 560
유격군의 진퇴 | 231 | 561
진격군의 진퇴 | 233 | 563
첫 전투의 전체 국면 관찰 | 236 | 565
제2일째 이른 아침의 동면군 | 237 | 565
제2일째 이른 아침의 서면군 | 238 | 566
제2일째 이른 아침의 북면군 | 238 | 567
세 번째 전투의 야습, 경군을 분쇄하다 | 240 | 568
만마관(萬馬關)의 소년 영웅 | 243 | 571
삼가 조칙의 뜻을 받들다 | 244 | 571
강화의 조건 | 245 | 572
사람들이 피곤해져서 다시 전쟁을 말하지 않다 | 246 | 573
일대 영단으로 칙사를 참수하려 하다 | 247 | 573
3명의 지사, 칙사의 거처를 방문하다 | 248 | 574
동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 249 | 575
가짜 칙사의 정체를 밝히다 | 249 | 575

전봉준, 여러 차례 천우협을 위로하고 타이르다	251	577
야밤에 영웅은 크게 재거를 의논하다	254	579
의거를 세계 만민에게 알리기를 바란다	256	581
깊은 밤 진지에서 주문(咒文) 소리가 높다	257	582
고별의 증답(贈答)	257	582
전(全) 총독, 당군(黨軍)을 검열하고 옥과(玉果)를 떠나다	260	584
패왕대(覇王臺) 위 천우협의 감개	261	586
순회(巡回)정부로서 동학군	262	587
약탈자를 총살형에 처하다	263	588
전봉준, 원수〔仇敵〕의 가족을 후히 보호하다	264	588
우치다의 유술(柔術), 당군(黨軍)을 진율(震慄)하다	265	589
천우협, 일본군을 위해 아산의 청군을 견제하다	266	590
도망간 관리가 점차 돌아오다	266	590
샛길에서 경군(京軍)의 본영을 살피려 하다	268	592
다나카가 닭 머리를 잘라 촌민에게 유고(諭告)하다	269	592
전주성의 철문을 부수다	270	593
적의 안내장을 들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다	270	594
화기(禍機)가 점차 나타나다	272	596
마부의 도망과 협도의 곤란과 재액	273	596
관철영(觀察營)에서 크게 관리를 설득하다	274	597
다시 일어나 관찰사를 포로로 삼다	276	599
양사(兩士) 문루(門樓)에 누워 적의 정세를 살피다	277	600

서문의 수비병을 물리치고 돌파하다 | 279 | 601
아아, 이것이 천우(天佑)이다 | 282 | 604
천우협 일행을 포로로 삼다 | 283 | 605
강을 앞에 두고 추적하는 기병을 막으려 하다 | 284 | 606
삼례역(參禮驛)의 대회의 | 284 | 606
적의 첩자로 하여금 짐을 운반하게 하다 | 286 | 607
청군 장수 전주영에서 천우협을 괴롭히다 | 286 | 608
협도 청국 황제의 칙유를 벗겨 버리다 | 287 | 608
협도가 글을 남겨 현령을 깨우치다 | 288 | 609
상국대인행진선정비(上國大人行陣善政碑)를 부수다 | 290 | 611
산사(山寺)를 방문해 대미륵불(大彌勒佛)을 매도하다 | 290 | 611
새 다리에서 밤에 숙박하며 익살극으로 밤을 지새우다 | 292 | 613
130도의 타는 듯이 뜨거운 지옥을 달리다 | 293 | 613
계룡산의 농성 | 294 | 614
호남감사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다 | 295 | 615
한밤중에 단상(壇上)에서 영웅의 뜻을 말하다 | 297 | 616

남정여록

남정여록 | 305 | 623

동학당시 찰일기

7월 5일	314	632
6일	314	632
7일	315	632
8일	315	633
9일	316	633
10일	316	633
11일	317	634
12일	317	634
13일	318	635
14일	318	635
15일	319	635
16일	320	636
17일	321	637
18일	324	639
19일	324	640
20일	325	640
21일	332	646
22일	333	647
23일	334	647
24일	334	647
25일	334	647

26일 | 335 | 648
27일 | 335 | 648
28일 | 335 | 648
29일 | 336 | 649
30일 | 336 | 649
31일 | 337 | 649
8월 1일 | 337 | 649
2일 | 338 | 650

일청교전록

1호 일청교전록 발간의 주요 취지 | 343 | 655
일청교전록 제1호: 일청개전론 | 344 | 656
조선의 신흥과 동양의 평화 | 347 | 659
한경(韓京)의 작은 전투(일본군과 조선군의 충돌) | 351 | 662
일본, 청, 조선 충돌의 원인 | 351 | 662
우리 일본 군대 | 357 | 668
일본군이 조선군을 내쫓다 | 357 | 668
우리 군 왕성 부근을 진정(鎭定)하다 | 359 | 669
조선군이 고전한 장소 | 359 | 669
교전지 | 359 | 670
조선군의 실제 숫자 | 360 | 670
피아 사상자 수 | 360 | 671

전승(戰勝) 여담〔餘聞〕 | 361 | 671
오토리 공사의 참궐(參闕) | 361 | 671
6호 일한 양국 공수동맹 | 361 | 671
일한 양국 맹약 | 361 | 672
일한 양국 공수동맹조약 | 362 | 673
동학당 관계 기사 | 364 | 674
조선의 폭도 | 364 | 674
동학당의 동정 | 364 | 674
한민(韓民), 일본 병참관(兵站官)을 살해하다 | 364 | 674
동학당의 습격 | 365 | 675
12호 동학당 수령 방문기 | 365 | 675
대원군과 개혁 | 370 | 679
13호 | 372 | 681
동학당 사방에서 일어나다 | 372 | 681
동학당 추토(追討) | 372 | 681

일청전쟁실기

전라도의 보리농사 | 375 | 685
동학당의 술회시(述懷詩) | 375 | 685
전라도 남부 동도(東徒) 진압 보고 | 376 | 686
대한정책(對韓政策)과 각 파(各派) | 379 | 688
한산(韓山) 개혁의 풍운(이전 글의 계속) | 381 | 690

한산개혁의 풍운(제16편의 계속) | 388 | 696
동도(東徒) 토벌 보고 | 401 | 709

원문 | 405
찾아보기 | 713

해제

1894년 봄,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편으로는 본국 내의 료닌(浪人)을 조선에 진출케 하고 농민군과 접촉시켜 이들의 재봉기를 부추기고자 하였다. 이는 거류민과 상인 및 공사관 보호, 조선의 '내정개혁'·'동양평화' 등의 명목으로 일본군의 조선 출동을 합리화하는 한편, 조선을 넘어 만주까지 침략하려는 군부의 의도를 숨기기에 좋은 명분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가 자신의 외교 비망록 『켄켄로쿠(蹇蹇錄)』에서 "나는 처음부터 조선 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외 하등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1]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내정개혁은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히 일본 정부의 배후 지원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된 '의협(義俠)의 혁명군(革命軍)'을 자처한 천우협(天佑俠; 텐유쿄우)을 비롯한 일군의 낭인배들은 자신들이 마치 동학농민군 지도부에 결정적인 힘을 부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2] 이들은 히로시마 전시 대본영의 참모차장 육군 중장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이른바 '불 지르는 역할'을 하는 별동대로, 동학농민군을 도와 사태를 조장하여 증폭시킴으로써 일본 정부가 대사를 결정하는 데 '씨'를 뿌리고자 했던 것이다.[3] 그러

1 陸奥宗光, 『蹇蹇錄』, 岩波書店, 1941, 47쪽.

2 강창일,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2.

나 천우협은 전주화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본군의 조선 진출과 청국과의 개전 명분이 빈약해지자 이에 새로운 빌미를 마련하려고 부심하였다.

그간 일부에서는 '천우협'이 동학당과 연루하여 청일전쟁 개전의 단초를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과 일본 측의 공식 기록 속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의 행로에는 미심쩍은 바가 많지만, 청일전쟁 직전 동학농민군의 정세 파악을 위해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 등은 농민군을 방문, 이들의 의견과 목적을 정탐하고,[4] 이를 일본 정부와 히로시마의 전시 대본영(戰時大本營)에 보고하여 전쟁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만은 명백한 것 같다. 천우협과는 별도로 우미우라 아쓰야(海浦篤彌)와 그의 동행인 곤토 겐키치(近藤賢吉)·야마가타 이노스케(山縣伊之助)도 6월 18일 전봉준과 회견하여 그에게 재봉기를 촉구하였다. 우미우라 아쓰야는 『아사노신문(朝野新聞)』 조선특파원을 겸무하고 있었다.[5] 『주오신문(中央新聞)』 조선특파원 가와사키 사브로(川崎三郎)와 『니로쿠신보(二六新報)』 주필 스즈키 덴간(鈴木天眼)도 전봉준 회견기를 기사화하였다. 스즈키는 『니로쿠신보』에 「마시검명록(馬嘶劍鳴錄)」이라는 제목으로 1894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6] 이들 외에도 각 언론사별로

3 藤本尙則, 『巨人頭山滿翁』, 文雅堂書店, 1942, 447~448쪽.

4 『二六新報』, 1894년 11월 20일자.

5 櫻井義之, 「朝鮮に於ける邦字新聞の發刊: 靑山好惠とその事業」, 『明治と朝鮮』, 龍溪書舍, 1995, 138쪽.

6 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 전봉준 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전봉준과의 회견기도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기록자 미상'이라면서 10월 2일 동학당의 수령 김봉균(金鳳均: 전명숙・전봉준)이 있는 전주 감영을 방문하여 동학당이 봉기한 이유 등 필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7]

1.『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갑오조선내란시말』은 1894년 6월 16일 제1편, 7월 25일 제2편을 오사카의 신신도우(駸々堂)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1편은 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은 부제가 '청국과의 관계'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전쟁 준비 과정, 조선의 정치 상황과 청국의 지형 및 주요 지역 상황 관련 내용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저술한 니시지마 간나미(西島函南, 1870~1923)는 메이지~다이쇼 시기의 중국어 통역관이다. 그는 시즈오카현(靜岡縣) 간나미무라(函南村)에서 출생하였는데, 본명은 니시지마 료지(西島良爾)로 또 다른 이름은 시라이 소메노스케(志良以染之助), 필명은 간나미 하야토(函南逸人)다. 흥아론(興亞論)을 제창하던 일청무역연구소(日淸貿易研究所)를 설립한 아라오 세이(荒尾精) 등에 호응하여 1890년 시즈오카현 선발생으로 중국 상하이의 일청무역연구소에 입학하여 중국어를 학습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성 통역으로 종군하였

7『讀賣新聞』, 1894년 10월 5일;『東京朝日新聞』, 1894년 10월 5일;『郵便報知新聞』, 1894년 10월 5일;『國民新聞』, 1894년 10월 5일.

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만총독부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오사카(大阪) 공소원(控訴院) 및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중국어 통역관으로 근무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소환되었고 전쟁이 종결된 1905년에는 고베(神戶) 지방재판소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 중국 사정, 중국어에 관한 저작이 많다. 1923년 병사하였다.

『갑오조선내란시말』에서 필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적 침략 논리를 은폐하기 위해 생산한 담론인 '동양평화' 유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동학농민군을 '폭민(暴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오합지졸의 소동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의 소란이 한국 혁명의 시기를 일보 전진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 책에서 동학농민군 우두머리 즉, 폭민의 통령 최모는 경상도 안동에 사는 정가를 추대하였고 권력을 장악한 정가는 진천주(眞天主)를 자처하고 무리를 지휘하여 상당한 세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동학당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지난여름 봉기 시와 같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서양식 훈련을 모방하였고 학정과 수탈을 싫어하는 인민이 앞다투어 이에 가담하여 군사를 일으킨 후 그 수가 늘어나 거의 8도를 석권하려는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동학당의 근거인 고부군은 28개 촌락으로 토지가 풍요롭고 농산물이 풍부한 조선 팔도의 중요 지역의 하나로, 그중에서도 동학당의 핵심 근거지는 고부와 전주 사이에 있는 백산이라고 한다. 고부농민봉기와 군수 조병갑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갑오년 정월 10일(양력 2월 15일)에 한 무리의 폭민의 침입 계획 소식을 들은 조병갑은 단신으로 도주하

여 전주 감영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봉기한 농민군이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한 선언문 전문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暢義) 등을 크게 쓴 동학당의 군기(軍旗)도 소개하였는데, "항복한 자는 애무한다〔愛撫降者〕, 순응하는 자는 경복한다〔敬服順者〕,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投濟困者〕, 굶주린 자는 먹을 것을 준다〔飢者饋之〕, 탐욕스런 관리는 쫓아낸다〔貪官逐之〕,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없애 버린다〔姦猾息之〕, 도망하는 자는 쫓지 말라〔勿追走者〕,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曉諭逆者〕, 가난한 자는 도와준다〔賑恤貧者〕, 병자에게는 약을 준다〔給藥病者〕,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不忠除之〕, 불효한 자는 형벌을 내린다〔不孝刑之〕"와 같은 12개 조항의 격문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내용은 『오사카아시히신문(大阪每日新聞)』 1894년 6월 3일자 및 『고쿠민신문(國民新聞)』 6월 11일자에도 전재되어 있다. 니시지마는 이를 인민의 환심을 얻으려 애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의 폭거는 종래의 봉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조정의 문란에 싫증을 느낀 지방민들이 환호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 동학당의 무기와 지역별 전투 상황, 정토군의 출발, 조선 조정의 인식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동학당은 여러 가지 규제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에 복종하여 규율을 이행하고 범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가운데는 흡연을 금하고 주색에 빠지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라감사의 상황 보고를 인용하여 농민군의 군대 편성과 엄격한 기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진은 8개소 소진은 19개소로, 큰 것은 각 수천 명 작아도 5~6백 명 이상이었다. 진에는 대장(大將)을, 부에는 대장(隊長)을 두었는데 주간에는 군법을 조련하고 야간에는 경문을 암송하였다. 대장은 "전장

에 임할 때 가능한 인명을 손상하지 마라. 죽이지 않고 이기는 자를 최고의 공으로 삼을 것이다. 또 읍리 등을 지나더라도 결코 조금도 약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명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당 무리에서 내쫓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 책에서 니시지마는 '조선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들을 폭도로 보아 가볍게 간과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관리의 가렴주구와 압제에 저항하여 봉기한 이른바 '국민적 대동맹군'으로, 이것은 그들의 충정과 고심의 결과이자 결국 큰 파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선은 순치(脣齒)의 관계이고 조선은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기 때문에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이목이 이에 쏠려 그 성패 여하에 주의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니시지마 간나미는 청일전쟁 시기 『시즈오카신문(靜岡新聞)』 촉탁으로 1894년 9월 20일부터 1895년 11월 16일 개선 시기까지 도쿄-히로시마 대본영-우지나(宇品)-부산-인천-대동강-기진포-이호포-용천-처관관-의주-구련성(九連城)을 거쳐 중국 관내 진입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종군만록(從軍漫錄)』(청어강화회회우회淸語講習會會友會, 大阪, 1901)을 저술한 바 있다.

2. 『천우협(天佑俠)』

『천우협』은 메이지 36년(1903) 10월 신진사(新進社)에서 간행된 것으로 편집 겸 발행자는 세이토 코시치로(淸藤幸七郎)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필자는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이다. 러일전쟁 전 흑룡회 연

구에 필수적인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본래 1901년 잡지 『흑룡(黑龍)』에 연재되었던 『한산호수록(韓山虎嘯錄)』(1~11)을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요시쿠라는 '길주우(吉州牛)'라는 필명으로 연재한 바 있다. 이른바 천우협의 '쾌거'를 주장한 것은 이 『한산호수록』이 처음이다. 1981년 도쿄 초료서림(長陵書林)에서 『일본사상사자료총간(日本思想史資料叢刊)』(5)으로 복간하였다. 『천우협』 1903년판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디지털 자료로도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발췌본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사료아카이브 통합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저술한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 1868~1930)는 이시카와현(石川縣) 가나자와(金澤)의 번사(番士) 출신의 메이지~다이쇼우기의 저널리스트로 민권운동 퇴조 후 천우협에 참여하였다. 그는 한때 제국대학(帝國大學)의 예비 학교였던 시이리쓰가쿠슈(成立學舍)에서 공부했으며, 청일 개전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 아래 조선으로 건너가 시찰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른바 대륙 낭인의 한 사람이었다. 1892년 가을 그는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에게 조선을 방문할 것을 권하였다. 오사키는 요시쿠라가 제국대학 법과대학에 진학하려고 시이리쓰가쿠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친구이다. 오사키는 호세이대학(法政大學)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었다. 오사키는 이때 요시쿠라의 제의에 동의했고, 이들 두 사람은 센다이 출신 지바 쿠자부로(千葉久三郎)와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오사키가 생계를 위해 연 법률사무소는 나중에 천우협의 집결 장소가 되었다.

1894년 요시쿠라는 오사키 법률사무소에 출입하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혼마 규스케(本間九介), 그리고 일본에서 달려온 우치다 료헤이・

스즈키 덴간 등과 함께 천우협을 조직하였다. 이들이 후에 흑룡회(黑龍會, 고쿠류카이)의 중추를 이루게 된다. 그러던 중 동학농민군이 척왜양・계급 타파・보국안민・인권 신장을 내걸고 전라도에 농민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천우협은 조선에서 동학당을 원조하고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표방하고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천우협은 동학당을 돕기 위해 부산에 사무소를 둔 오사키 마사요시와 스즈키 덴간이 토야마 미츠루 등에게 압력을 가해 겐요샤(玄洋社)의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와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를 참여시켰고, 다른 여러 명이 가담하여 총 14명으로 결성되었다. 천우협 인사 중 요시쿠라(동아무역신문 기자), 스즈키(니로쿠신보 주필), 오하라(후쿠료우신문福陵新聞 기자), 혼마(니로쿠신보 기자), 아키야마 테이스케(秋山定輔, 니로쿠신보 사장) 등 저널리스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8] 아키야마를 제외한 4명의 기자들은 청일전쟁 시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천우협』은 먼저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全琫準)에 대한 세평부터 소개하고 있다. 즉, 호남 태인 지역의 향사(鄕士) 전봉준의 연령은 40세로 지식이 박학하고 대담하며 신중하며 기개가 있어 과감하게 결정한다. 어려서부터 동학의 시조 최제우(崔濟愚)의 가르침을 듣고 당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망(衆望)이 커서 마침내 접장(接長)으로 추대를 받아 남부 3도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인접 고을인 고부(古阜)군수가 백성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하자, 친한 사람과 당인들이 모두 그의 곁에 모여 빨리 봉기할 것을

8 강창일, 앞의 책, 90~91쪽.

권하였지만 그는 아직 쉽게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천우협 가담자를 계파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나카 지로(田中侍郎)・세키야 오노타로(關屋斧太郎)・혼마 규스케(本間九介)・사바타 고마지로(柴田駒次郎) 등은 경성파로 1891~1892년경부터 경성에 있으면서 1894년 봄에 사정이 있어 부산파와 합동한 자들이라고 한다. 부산파는 1893년 요시쿠라 오세이가 조선에 다시 건너올 때 동반한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 등이다. 이들은 이른바 '부산의 양산박(梁山泊)'을 자처하면서 이곳에서 2년 동안 있었다. 지쿠젠파(筑前派)는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구즈오 슈스케(葛生修亮) 등으로 겐요샤(玄洋社)의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와 함께 앞서 조선으로 갔다. 다음 니로쿠파(二六派)로 경성・부산 양파가 합의하여 오사키 마사요시를 파견해 스즈키 덴간 등을 불렀고 도키자와 우이치(時澤右一)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청일전쟁을 기회로 민간에서 동학당을 도와서 조선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었다. 전봉준을 만나기 전 천우협에서는 다케다 한시와 치바 규노스케를 성주와 김산 지방으로 보냈는데, 이들은 각기 박선오와 박선칠이라는 약장수로 분장하고 밀양에서 청도・대구부를 거쳐 창원 금광에 도착하였다. 천우협은 폭약 담당, 총포 담당, 군수품 담당, 의약품 담당 등으로 각기 임무가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현 출신 일본인 우마키 겐조(馬木健三) 소유 경상도 창원 금광에서 2~3백 개의 광산용 다이너마이트와 수십 관목의 화약, 몇백 개의 도화 및 내관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일한 내용은『주한일본공사관기록』등에도 소개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

면, 천우협 일행은 부산의 일본영사관 창고의 총기 탈취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고, 2단계로 다나카 지로의 주장에 따라 창원 금광 습격사건을 단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행은 진주성을 거쳐 전라도 서북쪽으로 향했다. 이때 다나카 등 낭인들은 총칼로 마부를 위협하면서 산청과 운봉을 거쳐 남원에 도착하였다. 남원 광한루에 여정을 풀면서 동학농민군 진영 방문을 준비하는 한편 요시쿠라・스즈키・다케다는 동학군에게 줄 격문을 기초하였다. 일행은 김보현이라는 농민군 사절을 따라 본영이 설치된 순창으로 갔다. 이때 요시쿠라는 격문을 '동도팔대장의 총독, 미래의 개남국왕, 호남 태인의 영웅인 전봉준'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천우협』에 따르면 요시쿠라가 완성한 격문은 동학도 사이에 유포되었고 이후 일본군의 아산 점령 시 청국 장수의 진중일기 속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널리 전라・충청 양도의 주요 지역에 전달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그와 같은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우협』에서는 다케다・스즈키・다나카・요시쿠라 4인을 '담판위원'으로 삼아 사전 논의한 후에 전봉준의 본영을 방문하고 필담으로 밀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때 전봉준은 "애당초 우리 무리의 의를 고부에서 주창한 주요 내용은, 본래 백성 구제의 염원이다. 불민하게 단지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함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진을 치고 병사들을 이끌 때라 할지라도, 아직 연도에서 무고한 단 한 사람도 일찍이 해치지 않았고 추호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다. 이후 지금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관찰사에게 호소하거나, 격문을 사방에 전하여 우리들의 인의(仁義)의 뜻을 밝혔다."라고 한다. 이에 천우협

담판위원들은 약간의 농민군 병력을 빌려 주면, 호서지역 50개 성을 10일 안에 모두 항복시키겠다고 호언하고, 담판 결과 총독을 전봉준, 다나카, 스즈키, 요시쿠라를 군사로 하는 본영과, 한국인 장군 김씨・배씨・전씨・최씨・안씨・이씨・조씨・박씨・정씨와 천우협도들이 각기 공동으로 대장이 되는 유격군, 동면군・서면군・남면군・북면군・치중군・적십자군 등의 부서를 거느리고 대체적인 작전계획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세 번째 전투의 야습에서 경군을 분쇄한 이후 전봉준과는 한 달 후 재봉기를 굳게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전봉준과 결별한 이후 잠시 계룡산 한 사찰에 머물렀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천우협 멤버 14명 중에서 조선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쿠라 혼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통역을 대신했다. 천우협이 동학당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격문은 요시쿠라와 다케다・스즈키가 공동으로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요시쿠라는 청일전쟁 이후 우치다 료헤이가 창립한 우익단체 흑룡회(黑龍會) 창설 회원으로 중국 대륙 진출을 주장한 대륙 낭인이기도 하다. 우치다 료헤이의 『노서아론(露西亞論)』의 실제 집필자로도 알려져 있다.

3. 『남정여록(南征餘錄)』・『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남정여록』과 『동학당시찰일기』는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초재유고(初齋遺稿)』에 수록되어 있다. '초재(初齋)'는 우미우라 아쓰야의 호로 이 책은 그의 유작이다.

우미우라 아쓰야(海浦篤彌, 1869~1924)는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대륙 낭인이다. 그는 1869년 무츠국(陸奧國) 쓰가루군(津輕郡, 현 아오모리현青森縣) 출신으로 1881년 토오기주쿠(東奧義塾)에서 공부하고 1887년 졸업 후 동경으로 가서 영국법률학교(현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하였다. 1890년 조선에 도항하여 4년 동안 체재하면서 그곳의 형세를 시찰 연구하였다. 1893년 서울 남산 아래 진고개〔泥峴〕의 조선 가옥을 빌려 거주하였다. 조선을 왕래하는 정객・군인・기자 등 출입하는 자가 많아 그의 집은 '경성의 양산박(梁山泊)'으로 불렸고 항상 그들의 집합 담론의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실상을 정찰하기 위하여 그 근거지를 방문하고 당수 전봉준과 회담한 후 돌아와 그 내용을 일본 당국에 제공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그 후 일본군이 청병을 압록강 연안까지 압박하고 청국 관내 안동현(安東縣)에 민정서(民政署)를 둘 때 장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아래서 민정 사무에 1년간 종사한 바 있었다. 1924년 56세로 병사하였다.

『남정여록』은 순서상 『동학당시찰일기』의 전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미우라와 곤도 겐키치(近藤賢吉)・야마가타 이노스케(山縣猪之助) 세 사람의 충청도 농민군 탐색을 위한 짧은 내용의 기행문이다. 청주에 도착한 일행은 지난해인 1893년 동학교도의 모임 중심지인 보은으로 들어가 '동학 선생' 즉, 최시형의 소식을 물어보았으나 후환이 두려워서인지 읍민 모두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행은 옥천 인근을 지나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글 제목도 '나머지 기록〔餘錄〕'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짤막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망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당시찰일기』는 본격적인 동학농민군 활동 추적을 위한 답사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농민군 집결지를 추정하고

있다. 일행은 충청도 청주·보은 지방은 예로부터 동학도가 무리를 지어 있던 곳으로 이곳을 일단 가 보면 동학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전라도를 살핀다면 동학도의 소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우미우라 아쓰야는 의사이자 검객인 곤도 겐키치, 곤도의 약국에서 생활하면서 조선어를 약간 하는 야마가타 이노스케를 동행인으로 하여 1894년 7월 5일 도검을 어깨에 메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일행은 7월 10일 속리산에 도착하였다. 이때 보은에서 가까운 오남이라는 곳에 동학 선생 박원칠이 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그를 방문하였으나 사라지고 없었다. 이어 보은에서 20리 거리에 또 다른 동학 선생 황하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그 역시 자리에 있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박원칠과 황하일은 청산과 보은의 북접계 동학농민군 대접주를 말한다. 7월 15일 일행은 전주에 도착하였으나 외무아문에서 발급한 공문을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성문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하여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장두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동학도 수괴의 성은 전(全)이고 이름은 명숙(明叔)으로 고부에서 태어나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전투 이후 도망하여 전주 이남에 있고 남은 무리는 금구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행은 7월 16일 금구, 17일 원평에 도착하였다. 우미우라는 금구 원평의 도소(都所) 현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황건을 머리에 두르고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오는 자를 만나 도소가 있는 곳을 물어 그의 인도로 소나무가 우거진 도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곳에는 노란 두건을 멘 자, 보라색 두건을 멘 자, 녹색 두건을 멘 자 대략

40~50명이 있었는데 모두 화승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총과 두건을 갖고 있지 않은 자도 대략 120~130여 명이었다는 것이다. 일행이 도착하자 가장 높은 곳 중앙에서 세 명이 앉아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원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일의 대소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대도소의 명에 따른다. 그대들이 만약 알리고 꾀할 것이 있다면 바라건대 대도소에 가서 말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도소는 지금 옥과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금구 회소의 도소는 조원집과 김윤호 두 사람이 통령을 하였고, 그 밖에 도찰·성찰·일포·이포 등의 직책이 있어 병력 1천 명으로 이를 금구 회소가 통솔하였다고 한다. 조원집과 김윤호는 금구의 남접계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다.

일행은 18일 담양에 도착했다. 7월 중순경 태인·담양 등지의 동학농민군은 집강소의 농민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이 지역 대다수 농민은 농민군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동학당시찰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인으로부터 담양에 이르는 사이 계속 촌락이 이어졌다. 그리고 토민은 대개 동학도인이 아닌 자가 없었다. '도인이 아니라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찰을 문 위에 걸어 둔 집이 두세 곳 있었다." 19일 담양을 출발하여 20일 대도소가 있는 능주에 도착하였다. 대도소에서는 사람과 말이 빈번하게 왕래하였는데, 본영은 하얀색 막을 문 앞에 두르고 자수로 새긴 '영(令)'이라는 글자의 깃발을 정원에 세워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우미우라는 전라도 능주(綾州)에서 동학농민군 영수 전봉준과 회견한 것은 1894년 7월 20일이었다고 알렸다. 이곳에서 김봉균(金奉均)과 필담하였는데 그는, "우리들에게는 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잠시

가을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 거사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전봉준 등은 적어도 가을에 다시 봉기하려고 계획하였고, 대일전 준비에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9월의 제2차 농민전쟁에 대비한 전봉준 진영의 준비 상황은 크게 3가지 방향 즉, 30여 명의 장교로 농민군 무장대를 훈련시키고, 재정적 준비, 민심의 수습을 통한 물리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었다. 일행은 나중에 병사를 통해 그가 대도소의 수장인 전명숙(全明叔) 즉, 전봉준임을 확인하여 비로소 숙지(宿志)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후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미우라 아쓰야 일행은 7월 21일 능주를 출발해 나주 영산으로 갔다. 28일 군산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8월 1일 인천에 도착함으로써 총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일 용산에 도착하였다.

4.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여기서 소개된 기사는 1894년 8월과 10월 일본 도쿄 순요도(春陽堂)에서 발간한 『일청교전록』 제1호와 제12, 13호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잡지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일전쟁 당시 국민협회 계열의 『주오신문(中央新聞)』 파견 종군특파원 가와사키 사브로(川崎三郎, 1864~1941)가 저술한 것이다.

참모본부 편찬 『명치 27·8년 일청전사』에 의하면 청일전쟁 당시인 1894년 7월부터 1895년 11월 사이(일본군의 조선 출병부터 대만 평정 선언까지) 일본 육군에 종군한 신문기자의 총수는 66개 사, 114인에 이르렀다. 그 외에 화공 11명, 사진사 4명도 종군하였다. 『주오신문』은 1894년 12월 9일부 사고(社告)에 경성 가와사키 시잔(川崎紫山), 인천

망양생(芒洋生), 조선 내지 시찰 나카다 쓰루시로(中田鶴城), 해군 미즈다 히데오(水田榮雄), 제1군 후쿠다 시치로(福田七郎), 풍도생(風鳥生), 쌍송생(双松生), 제2군 오오카 지카라(大岡力), 나카지마 나오키요(中島直淸), 상하이 원양생(遠洋生), 오키나와(琉球) 탄용생(呑龍生), 히로시마 대본영 아베 만지로(阿部万次郎), 무라마스 쓰네로(村松恒郎), 모지(門司) 고검생(孤劒生), 사세보(佐世保) 우에다 하타로(植田旗郎) 등 모두 15명의 취재진을 들고 있다.

미토번(水戶藩) 출신으로 호가 시잔(紫山)인 가와사키 사브로는 청일전쟁 직전 유력 기자로서 1893~1894년 대외경운동에는 '신문기자동맹' 리더로서 이른바 대외경파(對外硬派)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같은 기간 조선의 동학농민봉기에는 도야마 미츠루 등과 천우협을 후원하였다.[9] 청일전쟁 개전 직전인 1894년 7월 초에는 『조선혁신책(朝鮮革新策)』 일명 '일청개전론(日淸開戰論)'을 박문관에서 발행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인 이민의 조선 이식론을 주장하였는데, 개전의 결과 청국 세력을 조선으로부터 추방한 후에 구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이왕가를 추방하고 조선의 명족(名族) 중에서 조선공(朝鮮公)을 선정하여 조선공국(朝鮮公國)을 만들고 이를 일본의 보호 아래에 두어 내정개혁을 실시하자는 방책을 제기하고 있다.

『주오신문』 특파원으로 가와사키는 1894년 9월 5일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일행과 동행하여 8일 히로시마 우지나에서 조선으로 향하였다. 인천과 서울을 경유하여 9월

9 大谷正,「忘れられたジャーナリスト/史論家/アジア主義者川崎三郎: 日淸戰爭以前」『專修史學』29, 1998.

16일 북방으로 향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후 평양전투와 제1군의 진군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보냈는데 '종군일기' 13회, '북정(北征)' 21회 등 2개의 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질〔赤痢病〕에 걸려 종군을 단념하고, 다음 해인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서울에서 기사를 계속 작성하였다. 가와사키는 본국 귀국 후 저작에 집중하여 『일청전사(日淸戰史)』 전7권(博文館, 1896~1897)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의 저작 중에서는 가장 절 정리된 청일전쟁 통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01년 『주오신문』 주필, 1905년 『시나노마이니치신문(信農每日新聞)』 주필을 역임하였다. 그간 국수주의 진영에서 도야마 미츠루(頭山滿)・우치다 료헤이(內田亮平) 등과 흑룡회(黑龍會)와 일진회(一進會)의 창설에 참여한 바 있다.

평양전투 취재를 가던 도중인 1894년 9월 18일 가와사키는 경기도 장단에서 「조선 보호에 관한 소견(所見): 조선은 이미 망했다」라는 제목의 『주오신문』 본국 송고 기사에서 조선의 개혁은 '공명(空名)'일 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어째서 조선은 이미 망한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인민은 국가와 서로 보합 일치하는 것이 없고" "조선 인민은 처음부터 국가적인 정신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 보호'를 위해서는 1. 일본으로부터 담대한 지식과 덕량을 겸해 우수한 인물을 가려 뽑아 조선 국왕의 고문관으로 삼고, 그에게 조선의 폐정(弊政)을 개혁시킬 일, 2. 일본으로부터 능력이 있는 인물을 조선의 요로에 세워 고문관을 보좌케 할 일, 3. 이때 다수의 일본인을 조선의 내지에 이식시켜, 황무지를 개척하고, 부원(富源)을 개발시킬 일, 4. 속히 부산・인천・경성 간에 철도를 부설하여 병사(兵事) 및 무역의 민첩함을 도모할 일, 5. 금일의 기회를 이용하여 1개 사단 이상의 군사를

조선에 주둔시킬 일. 단, 그 사단장을 상임총독(常任總督)으로 삼아 조선에서 병마의 대권을 위임받아 '조선을 보호'할 일을 주장하면서, 이 5개 항목이 그 실효를 거두게 된다면 즉, 조선 개혁과 같은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논설 '일청교전록 발간의 주요 취지'에 대해 가와사키 사브로는,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청일전쟁이 동양의 흥패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과 애국의 큰 감정과 적개의 큰 정신을 고무하는 것, 제국 신민의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일청교전록』 제1호 논설 「일청개전론」에서 그는 일본과 청국의 교전은 '동학당의 변'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일본과 청 양국 30년간의 세력 경쟁의 결과로 청국을 응징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호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30년 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일본도 청국과 싸우는 '의전(義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조선의 신흥과 동양의 평화」에서는 일본제국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 청국의 간섭을 배척하고 독립을 보호하려고 하고, 조선 정부도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혁에 착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은 조선 부활의 시기이고 조선의 혁신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일본은 조선을 깨우쳐 인도하고 보호하고 독립의 내실을 올리도록 해야 하며, 조선도 스스로 정치・경제・군사 등에서 혁신을 꾀하여 독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앞의 논설에 이어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전기(戰紀)」에서는 경복궁 점령을 '한경(韓京)의 작은 전투(일본군과 조선군의 충돌)'로 규정하면서, 일본군과

조선군이 서울에서 충돌하여 일본군이 조선군을 공격해 몰아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청국, 조선 충돌의 원인,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 정부에 제의한 내정개혁의 대요, 8월 26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어 조선이 일본의 병참기지가 되는 것을 규정한 「대일본 대조선 양국 맹약」의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동학당 관계 기사에서는 농민군을 '폭도'로 규정하면서 안동과 봉산에서 3천 명의 동학도가 일본군 정찰병을 습격한 사실 외에 여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일청교전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12호 『일청교전록』의 '동학당 수령 방문기'이다.

가와사키에 따르면, 이 기록은 동학당의 상황을 탐색할 목적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9월 10일 전주로 가서 동학당 수령을 방문한 아무개가 필기한 것이라고 한다. 즉, 아무개는 9월 2일 용산을 출발해, 광주・이천・죽산・진천・청주 등을 거쳐 9일 전주에 도착해 동학당의 수령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봉균(金鳳均)이 있는 전라감영을 방문했다. 다음날인 9월 10일 안내를 받아 포정국(布政局)의 뒷방에서 일명 전명숙(全明叔)이라고 하는 김봉균을 면회하고 3시간 필담을 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김봉균과 전명숙은 김봉집(金鳳集)과 함께 전봉준의 또 다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때 그에게 김봉균은, "그런데 우리들의 거병이 뜻밖에도 매개가 되어 오늘날 일본과 청국의 전쟁을 조선에서 보게 된 것은 우리들이 천추(千秋)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에서 물러난 것은 경군(京軍)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학도가 재기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주현(州縣)을 횡행하는 자는 우리 동지의 이름을 훔친 자로 우리들과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가면 전봉준과 농민군에게 조선

영토에서의 청・일 간의 전쟁은 '천추의 유감'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으며, 농민군의 반봉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일 전면전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날인 11일 아침 김봉균은 아무개의 숙소에 찾아가 청일전쟁의 이유와 경과에 대해 필담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8월 우미우라 아쓰야와의 대담에서는 가을 제2차 거병을 거론하였지만, 9월의 아무개와의 대담에서는 농민군 재기를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면담자는 이날 전주를 출발하였다. 보은을 지나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9월 15일 상주에 있는 최시형(崔時亨)을 방문하였지만 부재중인 고로 전봉준의 소개장 한 통을 남기고 문경을 지나 연풍, 충주를 거쳐 20일 오후 5시 경성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본 전봉준의 인물 묘사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세 정도, 얼굴은 조금 각지고 수염을 늘어뜨리고 눈에서는 일종의 이상한 광채가 있었다. 식견은 넓지 않지만 한국인으로는 드문 박식가이다. 또한 매우 담력이 있고 또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보통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마음이 깊다. 군자가 아니고 영웅이 아니고 또 간사한 사람도 아니다. 겉으로 차갑고 속으로 뜨거운 일개 좋은 남자라는 것이다.

일반에 회자되던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과의 관련성도 자주 언급되는 기사 중 하나였다. 가와사키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밀사 파견 문제도 소개하고 있다. 즉, 평양전투 직전 대원군은 심복 정운붕으로 하여금 동학당 수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해 허엽을 통해 이를 전달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중화는 대군이므로 반드시 평양에서 승리할 것이다. 중국군이 평양에서 승리해 남진한다

면 그 당은 무리를 모아 입경하여 왜군을 남북에서 협격하여 크게 위세를 떨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수구파의 속마음을 통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대원군은 농민군을 조종하여 서울 진격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당시의 또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일청교전록』 제13호 '동학당 사방에서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동학당은 진정되지 않고 경상·충청·전라 각 도에서 다시 봉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5.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1894~1895년 일본 하쿠분칸(博文館)에서 매달 간행한 『일청전쟁실기』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필자는 알 수 없다. 이 잡지는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당시 일본에서 발간한 여러 서적에서도 똑같이 언급된 바 있던 조선 후기 민간소설 『춘향전(春香傳)』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을 '동학당의 술회시(述懷詩)'라며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혁명 시기 자유를 갈망하는 프랑스 인민의 노래와 같이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자가 밤낮으로 연이어 외치며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현 정부를 타도하고 혁명을 행함으로써 정치의 대개혁을 꾀하려는 기개는 조선 국민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다음으로는 1894년 말부터 1895년 봄까지에 이르는 동안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상황에 관한 기록과 조선의 정치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전라도 남부 동도(東徒) 진압 보고'는 '1895년 1월 10일

낙안에서 오원기 효수 외 8명 총상'이라는 부산에서 전라도 남부 보성 일대에 파견한 제4중대장 스즈키 아키라(鈴木彰) 대위의 보고이다. 이 사실은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작성한 '일청전쟁 준비 서류'인 『폭민동학당(暴民東學黨)』과 『동학당의 상황(東學黨ノ狀況)』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일청전쟁실기』는 참모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산 개혁의 풍운' 2건은 하쿠분칸 편 『일청전쟁실기』 20호(1895년간)의 기사를 옮겨 실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대원군이 청나라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동학당을 교사하여 안팎으로 협력해 일본군을 축출하려는 증거를 동학당에게 보낸 왕복 서한 등에서 찾아 축출하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민씨 가운데 동학당을 교사하여 잃어버린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이에 공사는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궁중 개혁을 비롯한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고 또 민씨 척족의 왕궁 출입을 금지할 것을 상신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후비 보병 제10연대 제2중대장 미야케 다케요시(三宅剛義)의 '동도(東徒) 토벌 보고'에서는 충청도 영동 종곡(鐘谷) 부근의 전투에서 동학당 수령 정대준(鄭戴俊)과 인규홍(仁奎洪)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정대준과 인규홍은 다른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 기록에서만 처음 나오는 충청도 내륙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이 『일청전쟁실기』는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그동안 잊힌 동학농민군 활동상을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청일전쟁 초기 일본인들의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

은 제1차 봉기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대체로 히로시마 대본영으로부터 보도 내용을 받아 적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본군 출동과 성환전투 직전부터 일본 전국 각 신문사에서 특파원을 대거 파견하면서부터 이후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동학당 토벌 지원을 위해 인천에서 파견된 중대가 아산에 상륙하여 공주와 해미로 진군하는 상황, 일본군 동로분견대장과 청풍 및 영천의 동학농민군의 전투, 인천 특파원 아오야마 고헤이(青山好惠)의 괴산 동학농민군과의 전투 상보, 황해도 황주와 평산・재령・안악・신천・해주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평양수비대와의 연합작전과 그로 인한 참살 및 생포 내용, 순천을 본거지로 한 농민군과의 전라좌수영에서의 접전 및 경상도 하동의 동학당과의 전투 관련 특보, 강원도 평창과 영월의 동학당 토벌과 사상자, 충청도 동학농민군 봉기 시 작성된 격문 내용,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지도부의 동향과 각 분견대를 파견한 농민군의 진압, 전봉준 등의 체포와 일본공사관 압송, 농민군 '거괴(居魁)' 생포와 일본군의 서울 귀환, 1895년 초반 전봉준・손화중・최경선 등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과 처형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

우미우라 아쓰야・요시쿠라 오세이・스즈키 덴간처럼 일부는 동학농민군을 직접 탐문하여 필담한 경우도 있지만, 전봉준 회견을 기회로 자신들이 이른바 '2차 봉기 추동'을 기획하였다는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농민군 추동설'은 실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으며 그들의 권유에 따라 농민군이 재봉기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들은 제2차 봉기 이후 일본군의 본격적인 동학농

민군 토벌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조선 주재 일본 기자들은 '특종'을 의식한 경쟁적인 취재 과정과 상업 저널리즘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많은 과장된 기록들을 남겨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일 사안이라도 특파원 기자로서의 수준과 상황 인식과 필력, 비교적 정확한 취재원인가 아닌가, 전시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던 육군성과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기사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청일전쟁 시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유력 일간지 종군기자들에 의해 왜곡된 조선상은 이후 식민지를 거치면서 하나의 역사상 즉, 식민사관으로 귀결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조선 이미지'는 실체적 진실처럼 분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시 일본 신문과 저널리스트의 기사 내용은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재곤(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국역본

國譯本

갑오조선내란시말

甲午朝鮮內亂始末

간나미 하야토 편

函南逸人

현재의 대세, 세계의 관심은 오로지 동아시아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적어도 세상에서 지사(志士)라 칭하고 정치가라 불리는 자들이 동양정략(東洋政略)과 동양상략(東洋商略)에 매달려 그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왜소한 하나의 작은 반도로, 나라가 약하고 백성은 야만스럽다. 그렇지만 일거수일투족 동아시아의 대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서 각국이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정무(政務)가 정체되어 입국(立國)의 기초를 더욱 무너지게 하고, 국가재정의 결핍과 민심의 부패는 깊숙이 박혀 있는 고름과 같다. 독립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 내실이 없고, 오늘날 겨우 한 가닥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실로 조선은 동양의 발칸반도에 해당한다. 사방에서 발톱을 갈고 고기를 노리는 것이 오래되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러시아는 결코 조선을 병합할 수 없다. 영국은 굳이 조선을 침범할 수 없다. 중국 또한 조선을 자신에게 예속시킬 수 없다. 우리 일본 역시 용이하게 이를 움직이기 어렵다. 이것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되돌아서 이 나라 내부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각종 불평당이 숨어 있는 세력이 이제 겨우 걸음을 시작해 정부의 기강이 세워지지 않은 틈을 타 혁명을 열망하며 내지 여러 곳에서 봉기하고 있다. 안으로는 간신을 물리쳐 충량(忠良)으로 나아가고 밖으로는 척왜(斥倭), 척양(斥洋)주의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그 행위는 매우 착실하여 망거(妄擧)를 피하여 오로지 지방 사민(士民)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중앙 정무(政務)의 정체와 지방정치의 적폐 등에 의해 조정을 싫어하고 있던

사민이 앞다투어 이에 부응하였다. 그 기세는 매우 창궐하여 감사를 살해하고 군수를 내쫓고 관군을 패배시켜 크게 들고일어나 서울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러한 때에 통상 각국은 모두 자기 나라의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속속 출병하였다. 청국이 먼저 군대를 보내고, 러시아가 그다음을 이었다. 일본 역시 약간의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조선은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위험하게도 거의 누란(累卵)과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관군의 힘이 반도(反徒)를 진압할 수 있을지에 조선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의 관군에 기대를 걸 수가 없다고 본다. 관군의 힘이 반도에 대항할 수 없어 주변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실로 조선[1]의 안위(安危)와 흥폐(興廢)에 연결되는 하나의 큰 관건이다. 그리고 이번에 폭민의 거동을 개관해 보면, 종래 그 내지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던 서절구도(鼠竊狗盜)[2]처럼 일어나면 수그러드는 오합지졸의 소동과는 약간 다른 바가 있어 보인다. 명령 아래에 ■■■■■■ 지휘하고 그 진퇴하는 법이 조금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 의문이 들게 하는 점이 있다. 아마도 몇 년 동안의 폭거에 의해 어느 정도 병사의 사기를 단련시킴에 따라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흑막(黑幕)이 있어서 병사들을 지휘 알선하게 된 것인가. 어쨌든 이번의 소란이 조선 혁명의 시기를 일보 전진하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1 조선 : 원문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으나, 이하 '한국'은 '조선'으로 표기한다.

2 서절구도(鼠竊狗盜) :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비유한 말이다. 『사기(史記)』의 「숙손통열전(叔孫通列傳)」에서 유래하였다.

반도(反徒)의 주동력인 동학당을 잘 대체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거동을 통해 볼 때 그 뜻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은 것 같다. 풍성학려(風聲鶴唳)[3]로 조정 신하의 간담을 빼앗기에 족하다. 동요참어(童謠讖語)로 민가(憫家)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선 조정이 과연 이에 잘 대처하는 방책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어야겠다. 지난해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3개월 동안 내지 75개소에서 폭민(暴民)의 봉기가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씨 조선 5백 년의 천하를 대신하는 것은 정(鄭)씨라고 하는 예언은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폭민의 통령(統領)인 최(崔)모의 위로 경상도 안동부에 사는 정가(鄭哥)를 추대하여 군대 일체의 권력을 장악하게 하였다. 정가는 진천주(眞天主)를 자처하고 당중(黨衆)을 지휘하여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부회(附會)의 근거 없는 말〔臆說〕을 하여 그다지 믿을 수 없지만, 오늘날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것 또한 다소의 이유가 없지는 않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애초에 조선의 말로(末路)가 그러한 것인가. 이번 폭민이 봉기한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현상에 관해 다음에 차례로 상술하려고 한다.

○ 폭민 봉기의 원인

원래 이번에 조선 전라도 일대에 폭민이 봉기하여 많은 소란을 야기

3 풍성학려(風聲鶴唳) : 바람 소리와 울음소리란 뜻으로, 겁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이나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람을 비유한다. 『진서(晉書)』「사현재기(謝玄載記)」에서 유래하였으며, 원문에는 풍성학루(風聲鶴淚)로 되어 있다.

하게 된 시초를 생각하면, 온전히 인민의 분노가 쌓인 나머지 나온 것이다. 특히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들 폭민이 말하는 바를 들어 보면, 전라도 고부군(古阜郡)이라는 곳은 지난가을 수확 당시 뜻밖의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인 조병갑(趙秉甲)[4]이 갑자기 그 부하에게 방곡령을 발포하여 미곡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였다. 인민 일동은 기이하다고 생각했으나, 그 뒤 조병갑은 자신의 측근에게 명해 미곡 수천 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시세의 변동을 이용해 횡재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미(租米)를 징수할 때에는 인민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가렴주구하여 탐욕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 중 그 비의비도(非義非道)함에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더해 이 시기에 이르러 공미(貢米) 운송사업을 위해 이운사(利運社)를 만든 이후부터는 정규의 공미를 독촉할 뿐만 아니라, 선박 수선비 및 정박비 외에 조선 범선과 운임의 차금(差金)[5]까지 함께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인민의 불평은 더욱 쌓였다. 마침내 인민들이 삼삼오오로 무리를 이루어 지방 관청에 몰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하고 손꼽아 기다리며 조선 조정의 당시 정치에 불평당의 깃발을 올린 저 동학파 무리는 고부에서 폭민의 봉기를 보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여겼다. 자기 당원 중 한 명이 포박되었을 때 고문을 받고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갑자기 각지의 당원에게 연락하고 당 안의 장정을 모이게 하여 위의 폭동에 가세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번과 같은 큰

4 조병갑(趙秉甲) : 원문에는 조예갑(趙隷甲)이라고 되어 있다.

5 차금(差金) : 차액을 말한다.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난민이 주인이었고 동학파는 객(客)의 지위에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뒤 기세가 더욱 왕성해짐에 따라 형세가 일변하여 동학파가 주동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동학파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당하게 되었다.

○ 동학당의 실력

동학당 일파가 고부의 난민과 합세하여 그들의 기세는 더욱 창궐해졌다. 먼저 고부 관아를 습격해 지방관을 내쫓고 무기와 양식을 빼앗아서 입각의 기반을 정하고, 각지의 공미(貢米) 창고를 훼손하여 이를 약탈하였다. 그리고 보병의 군세 외에 기마부대를 갖추고, 또 사람을 계속 투입할 때에는 이를 2열로 나누어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4열로 만들고 또 나누어 1열을 이루는 등 늠름하게 진행하는 모습은 조선 관병과 비교할 때 몇 배 우수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 진퇴와 조종에 거의 서양식 훈련을 모방하여, 결코 지난해 여름철에 봉기한 것과 같은 가볍게 일어난 오합지졸이 아니다. 특히 동학당이라고 하면 불평불만의 무리를 흡수하는 자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학정과 수탈을 싫어하는 인민이라면 앞다투어 이에 가담하였다. 군사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거의 팔도를 석권하려는 듯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다면 돈을 좋아하는 문관과 죽기를 꺼리는 무관이 어찌 잘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지방 관청에서 봉직하는 이교(吏校)와 포장(捕將) 등의 하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동학당과 내통하는 자가 적지 않다. 전라, 충청 양도의 지방

장관인 부백(府伯)과 수령(守令) 등으로부터 그들이 통솔하는 부속(部屬)에 이르기까지 과연 아군인가 또는 적인가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 동학당의 근거

이번 변란의 근원지인 고부군은 28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가 매우 풍요로워 농산물이 풍부하다. 인천항 및 부산항과의 관계는 매우 희박한 지역이지만 조선 팔도 가운데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동학당이 금성철벽(金城鐵壁)[6]으로써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고부와 전주 중간에 있는 백산(白山)이라고 한다. 이 산 높이는 약 25칸〔間〕[7]으로 노송이 드물게 서 있고 삼면은 절벽과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한쪽 길을 통해 겨우 기어올라가 보면 안쪽에 깊은 계곡이 있어 능히 수천 명이 숨어 있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또 며칠 전까지 전라도에서 동학당이 점령한 지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력이 엄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

나주(羅州) 수비병 800여 명(경성에서 66리 24정(丁)의 거리)
광양(光陽) 수비병 1,100여 명(동, 72리 16정)
부안(扶安) 수비병 300여 명(동, 50리 24정)

6 금성철벽(金城鐵壁) : 쇠로 만든 성과 철로 만든 벽이라는 뜻으로, 방어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출처는 서적(徐積)의 『화예복(和倪復)』

7 25칸 : 칸은 길이의 단위. 1칸은 6척으로, 25칸은 150척에 해당한다.

흥덕(興德) 수비병 1,040여 명(동, 56리)

고창(高敞)[8] 수비병 600여 명(동, 56리 32정)

부산(釜山) 수비병 800여 명(동, 40리)

또 수장(首將) 및 부장(副將)의 병영은 보성(寶城) 근방에 있고, 총 세력이 약 1만 600~700명이며 여전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 지방관의 도주

음력 갑오년(甲午年, 1894) 정월 10일(양력 2월 15일)에 한 무리의 폭민이 군수의 성문에 침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은 이를 몰래 알아차리고 단신으로 도주하였다. 도중에 복장을 바꾸어 주복야행(晝伏夜行)하여 겨우 전주 감영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이 세간에 전해지자 서너 명의 지방관이 맥없이 적의 독이 묻은 칼에 쓰러졌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 수많은 조선 관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겁쟁이에 지조도 없는 지방관들은 크게 낭패하여 마치 짠 것처럼 사실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모두 약간의 재화를 소지하고 처자식과 친척을 챙겨서 재빨리 어디론가 숨었다. 장관이 이미 이와 같으니, 그 밑의 속료(屬僚)들도 앞다투어 관아 안의 재화를 품에 가지고 한두 명씩 사라졌다. 이렇게 차례로 도주하여 관아는 완전히 동학당에게 넘겨준 상태가 되었다. 반도(反徒)의 입장에서는 자유자재로 병사들을 진퇴시

8 고창(高敞) : 원문에는 고뢰(高瀨)로 되어 있다.

키더라도 도리어 싸울 상대를 잃어 무료함에 괴로운 상황이었다. 제각각 관아로 몰려가 무기와 양식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빼앗아 기세가 한층 더 강대해졌다고 한다. 풍성학려를 듣고 대군(大軍)이 진격한다고 의심하고 산 위의 초목을 보고 적 부대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한 차례 전투도 해 보지 않고 군대가 흩어져 도망갔다. 옛날보다도 열등해진 조선 관리의 현상을 보면 웃어넘기기에도 가여운 바이다.

○ 동학당의 선언

동학당이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진퇴하는 것은 오늘날 조선 관병(官兵)이 결코 미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관리를 상대할 때는 가차 없이 포박하여 수반(首班)인 자는 살육하고, 관아를 보면 파괴하거나 또는 불을 지른다. 비축되어 있는 무기와 금곡(金穀)을 약탈하여 군용으로 사용하고 의류와 가구, 집기 등은 모두 빈민에게 나누어 주어 오로지 민심을 수람(收攬)하는 데 노력한다. 그들은 척왜척양(斥倭斥洋)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코 일본인을 물리치고 구미(歐美)인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진의(眞意)는 아니다. 원래 동학당이라는 것은 학파의 차이에서 생긴 하나의 붕당(朋黨)이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조선의 현 정부, 즉 민씨 일족의 시정에 대한 불평당이 되었기 때문에 민씨 일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설령 한때 진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재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폭발한 이래 무장(茂長, 고부에서 일본 리(里)로 8리 남짓)에서 인민에게 포고한 격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 사이의 인륜이 가장 큰 것으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바르고 부모는 자비롭고 자식은 효를 행한 이후에야 국가가 만들어지고 한없는 복(福)을 세울 수 있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신통력 있는 명확함과 성스러운 명석함을 지니셨다. 현명하고 어질며 바르고 강직한 신하가 전하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는다면 요순(堯舜)의 화(化), 문경(文景)의 치(治)[9]의 날을 손꼽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신하인 자는 나라에 보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헛되이 녹위(祿位)를 탐하고 총명을 가리며, 충성을 간(諫)하는 선비의 말을 요언(妖言)이라 말하고, 정직한 사람은 비도(匪徒)라고 말한다. 안으로 보국(輔國)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다. 인민의 마음이 날로 더욱 변하여 안으로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생업이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전할 방책이 없다. 학정이 날로 방자함에 원성이 그치지 않는다. 군신 사이의 의리, 부자 사이의 윤리, 상하의 분별이 마침내 무너지고 남는 것이 없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10]를 펼치지 못하면 나라는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공경(公卿)부터 이하 방백(方伯)이나 수령(令守)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9 문경(文景)의 치(治) : 중국 한나라 문제(文帝)와 그 아들 경제(景帝)를 말한다. 부자가 모두 어진 군주로서 통치를 잘하였기 때문에 '문경지세(文景之世)'라고 한다.

10 사유(四維) : 예의염치(禮義廉恥). 예의와 올바름,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한다.

위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이 자신을 살찌우고 집안의 윤택함을 꾀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문호를 재물이 생기는 길로 만들고, 시험을 보는 장소는 교역을 하는 시장과 같아졌다. 허다한 뇌물은 왕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나라의 빚은 쌓여서 이를 갚을 길을 찾을 수 없다.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탕한 일〔驕侈淫逸〕[11]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팔도는 모두 어육(魚肉)이 되고 모든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학이 참으로 그대로이니, 어찌 백성이 곤궁해지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바, 근본이 쇠약해지면 나라도 쇠약해진다. 나랏일을 도와 백성을 편안하게 할〔輔國安民〕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집을 지어 오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만을 찾고 녹봉과 지위를 도둑질하니, 이것을 어찌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들은 초야에서 사는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팔도가 한마음으로 수많은 백성과 의논하여 오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 맹세하였다. 오늘의 상황이 비록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안으로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다 함께 태평한 세월이 오기를 기원할 뿐이다. 운운.

11 교치음일(驕侈淫逸) : 방자하고 사치하고 음란함을 탐하다.

○ 동학당의 군기(軍旗)

동학파는 모두 머리에 흰색 천을 둘러매어 이를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휘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기로 사용하는 깃발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금건(金巾)[12]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무명으로 만든 것이다. 금건으로 만든 것은 폭이 약 2척 4촌 정도이며 길이는 7척 남짓이라고 한다. 또 무명으로 만든 것은 폭이 2척 정도이며 길이는 5척 남짓이다. 모두 그 깃발 표면에는 보국(輔國), 안민(安民), 창의(暢義) 등을 크게 썼다. 또한 전진(戰陣)으로 향할 때에는 반드시 12개의 군기를 펄럭이며 여러 가지 글자를 써넣어 인민의 환심을 얻으려 애썼다. 당시 사용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크게 썼다고 한다. 만일 당에 속한 자가 이 명령을 침범했을 때는 바로 투옥하는 규칙을 세웠다고 한다.

항복한 자는 애무한다.〔愛撫降者〕
순응하는 자는 경복한다.〔敬服順者〕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投濟困者〕
굶주린 자는 먹을 것을 준다.〔飢者饋之〕
탐욕스런 관리는 쫓아낸다.〔貪官逐之〕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없애 버린다.〔姦猾息之〕
도망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勿追走者〕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曉諭逆者〕
가난한 자는 도와준다.〔賑恤貧者〕

12 금건(金巾) : 카네킨. 옥양목을 말한다.

병자에게는 약을 준다.〔給藥病者〕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不忠除之〕
불효한 자는 형벌을 내린다.〔不孝刑之〕

적도(賊徒)의 맨 앞에 내세운 이들 12류(旒)의 군기(軍旗)는 얼마나 많은 지방민의 희망을 걸게 하였는가, 그들의 방편 또한 매우 교묘했다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전력(全力)[13]에 있어서도 상당한 준비가 있었으므로 굳이 지방 토민(土民)의 미량(米糧)을 약탈하지 않았다. 필수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고 토민에게는 조금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의 폭거는 종래 때때로 일어난 봉기(蜂起)와는 전혀 달랐다. 특히 조정의 문란에 싫증을 느낀 지방민들이 보다 더 환호하며 이들 반도를 환영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동학당의 무기

동학당이 무기로 사용한 물건은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총포나 탄약 기타 여러 무구(武具)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지난해 초여름 때 한 차례 소란을 일으켰지만 총포와 탄약 등이 준비되지 않아서 곧바로 진압된 것을 거울삼아 그 이후 은밀하게 준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번에 많은 총포를 구하려고 궁리하다가 겨우 하나의 방책을 생각해 냈다. 각 지방의 완민(頑民)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려 대량으로 꿩

13 전력(全力) : '금력(金力)'의 오자로 보인다.

을 구입할 것이라고 하고 그 가격을 상당히 고가로 언급하니 원근에 있는 사냥꾼들이 크게 기뻐하며 서로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적도(賊徒)는 이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혹은 권유하여 백방으로 사냥꾼들을 설득하여 교묘히 자신들의 당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당초 일을 거행할 때에 이미 2천여 정의 총포는 준비되어 있었다. 게다가 각지에서 약탈한 것을 합하면 4~5천 정 이상이었다고 한다. 또 적도가 미리 오늘날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해 둔 것은 단지 무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양식, 금전 등을 비롯해 여러 군용품 등을 갖추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봉기할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들 적도의 진퇴와 공방을 자유자재로 하여 절도를 맞추고, 명령 또한 당 안에 잘 전달되어 그 거동을 좀처럼 업신여기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한 점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까지 은밀하게 전투 방법을 강구하고 연병(鍊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용맹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방탕함과 안일함에 빠져 기율 없이 관(官)으로부터 부여된 총검까지도 전매(轉買)하고 한잔 술의 쾌락을 탐하는 조선 군대에게는 정말로 깔볼 수 없는 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도의 동학당

고부(古阜)를 근거지로 정하고부터 당의 세력으로 끌어들인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최법헌(崔法軒)[14]이 그 수괴이다. 경상도 안동부

14 최법헌(崔法軒) : 동학의 2세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다.

(安東府)에 거주하는 정가(鄭哥)라는 자가 군사(軍師)의 임무를 맡아 당중(黨衆)을 지휘하여 질서정연하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이 때문인지 부서(部署)를 정하고 침략의 방략을 짜내 먼저 서쪽의 부안(扶安) 땅으로 돌입하여 이교(吏校)를 죽이고 현감을 포박한 후 군의 창고를 약탈하고 무기를 빼앗고 돈과 곡식도 빼앗았다. 나아가 동쪽으로 진군해 전주를 포위했다. 관군이 사력을 다해 방어했음에도 결국 이를 물리치고 성병(城兵)을 20여 리 밖으로 도망가게 했다. 그 예봉(銳鋒)은 더 남쪽으로 향해 정읍(井邑), 무장(茂長) 등지로 쳐들어가 관사를 훼손하고 서리를 내쫓아 무기와 양전(糧錢)을 빼앗고 관아에 붙잡혀 있는 죄수를 풀어 주었다. 연전연승하여 이르는 곳마다 대항하는 적이 없고 개선가를 부르며 고부의 근거지 성으로 물러나는 등 그 거동이 매우 기민하였다. 근방 각 지방관은 한 차례 전투도 하지 못하고, 일단 처자와 친척을 챙기고 재물과 보화를 품고 당황하며 몸을 숨겼다. 심하게는 거꾸로 적도에게 항복하는 자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아! 임금의 선비로 태어나 임금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감히 일신을 바쳐 임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일신일가의 보안을 꾀하는 자, 이것이 조선 관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항상 듣기를 조선 관리가 일을 일으키고 업무를 보는 것은 결코 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 일국의 독립은 기강이 엄숙한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의 여하에 따라 선미(善美)를 다한다고 하지만, 기강이 엄정하지 않다면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을 내리는 법제만으로는 통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여산(礪山)의 전투 상황

여산은 전라, 충청 양도의 경계로 부치(府治)가 있는 곳이다. 음력 3월 28일은 이번 소란에서 관과 적의 양군이 첫 번째로 개전한 날인데, 전주 감영에서는 전날부터 탐정을 대거 보내 동학당의 거동에 관해 비밀리에 그 동정을 탐문하였다. 그런데 동학당의 예봉을 좀처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이번에도 본영까지 밀려 들어올 기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급보를 보내 경성(京城)에 강청하여 친군(親軍)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또 보부상(평시에 행상을 하다가 전시에 병사가 되는 자) 등에 통문을 보내 이리저리 모여 도와주게 했다. 여기에 본영에 있는 병력 약간을 더해 전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여산의 영내(領內)에서 갑자기 동학군과 마주쳐 양군이 잠시 전투를 주고받았다. 동학당에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관군에게 공격당해 고부로 되돌아갔다. 결국 이 첫 번째 전투는 관군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이는 부상(負商) 및 보상(褓商) 등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 백산(白山)의 교전

여산의 첫 번째 전투에서 동학파의 패주는 뜻밖에도 동학당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여 더욱 그 열기를 더한 것 같다. 그리고 음력 4월 2일은 바로 두 번째 접전일로 동학당의 기염(氣焰)을 한층 강하고 맹렬하게 만들었다. 즉, 동학당은 험준한 백산에 웅거하고 관군은 그 전면에 진영을 펼쳤는데, 어두운 밤 3경(밤 11시~새벽 1시)쯤 되었을 때 관군이 대거 동학당의 요충을 공격하려 하였다. 동학당은 미리 예

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군이 쫓아오는 대로 도주하는 모습을 보여 패배한 군대의 모양을 취하면서 십수 정(丁)[15]의 거리까지 도망을 갔다. 그 때문에 관군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진짜 패주한다고 생각하고 우쭐대며 끝까지 추격하였다. 동학당은 충분히 그 계략이 맞았음을 기뻐하며 때를 기다려 신호를 하였더니 갑자기 좌우 및 후방의 세 방향에서 당중(堂衆)이 크게 일어나 함성 소리가 천지를 움직일 정도로 죽을힘을 다해 관군 속으로 쳐들어갔다. 지금까지 패주하는 상태를 가장하고 있던 동학파의 한 부대도 되돌아왔기 때문에, 관군은 이제 사방에서 적군을 맞이해 매우 낭패하여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마치 주머니 속의 쥐와 같이 별 도리 없이 산산이 쓰러져 대부분은 반도의 군문(軍門)에 항복하였고, 사상자는 무려 이백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 정토군(征討軍)의 출발

고부군에서 폭민(暴民)과 동학파가 합동함으로써 기세가 더욱 강대해지고 사방의 당의 무리가 앞다투어 모여 참여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감사는 살해당하고 군수는 내쫓기고 소속 군 창고는 약탈당하고 병기와 무구(武具)는 빼앗겼다. 지금은 더욱 세력을 키워 동쪽으로 올라가려는 상태이므로 도저히 전라 지방의 병력만으로는 진정(鎭定)하기에 불안하다는 지방관으로부터 급보를 접하고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조정에서는 원래 방침에 따라 드디어

15 정(丁) : 일본의 척도. 1정은 60칸〔間〕으로, 약 109m에 해당한다.

정토군을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홍계훈(洪啓薰)을 정토군의 총독으로 삼고 8백 명의 친군을 출발시켰다. 이운사(利運社)의 창홍(蒼鴻), 해룡(海龍)이라는 조선 선박 2척과 청군의 군함 평원호(平遠號)를 빌려 3척의 배에 나누어 싣게 하고 국포(麴包) 천 근, 야전포 4문, 탄약 4백 상자를 준비해 음력 4월 8일에 전라도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이 해로(海路) 출병 외에 친군영 약 200명을 육로로 수원부를 거쳐 출발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 조선국에서 병졸의 상태를 보면, 구식으로 훈련을 받은 부대는 여러 도(道)와 여러 부현(府縣)에 주재하고 수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미미한 것으로 화승총과 도검 등을 사용해 전시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뿐이다. 또 신식, 즉 양식으로 훈련했다고 칭하는 것도 그 수가 불과 4~5천 명에 그치고, '스나이더' 소총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눈앞의 안일만을 도모하고 고식적인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죽음을 걱정하는 무관이 과연 이 소란을 진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크게 걱정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 조선 조정〔韓廷〕의 공황(恐慌)

전라도에서 동학당의 세력이 더욱 창궐하여 인민 가운데 참가하는 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관군은 계속해서 패해 전라도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급보가 계속 도착했지만, 유유자적한 조선 조정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자 비로소 사태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고 정토군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조선 조정은 내심 정토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진정될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도 소용없이 조선 조정의 뜻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지난해 초여름 무렵 한 차례 소동을 크게 일으킨 동학당이 하나의 윤지(綸旨)와 어윤중(魚允中)의 안무(按撫)에 의해 마침내 해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 사례에 따라 설유(說諭)하면 진무(鎭撫)될 것으로 보았으나 전혀 그 효과가 없었던 것은 정부가 의외로 느끼는 바였다. 또한 설령 설유하여 복종하는 일이 없더라도 8백 명의 정토대군이 일단 그 땅에 도달하면 그들 오합지졸은 두려워하며 무너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도리어 더욱 폭위(暴威)를 드러내자 정부는 이것을 의외로 느꼈던 것이다. 폭민의 행동거지가 늠름하고 질서가 있고 대오(隊伍)가 엄숙하고 범할 수 없는 기풍이 있어 믿음직스러웠다. 정토군 가운데 일부는 싸우지 않고 적군에게 항복하였고, 남은 부대에서도 탈주하거나 혹은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일이 날마다 생겨 군기가 크게 상실되었다. 게다가 정토 총독이 원군(援軍)의 파견을 청하는 글을 조선 조정에 보내자, 뜻밖의 상황에 묘당(廟堂)이 크게 놀라 민영준(閔泳駿)을 비롯해 여러 대신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적을 토벌할 평의(評議)에 지혜를 짜내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 전주 영장(營將)의 내응(內應)

전주의 영장(營將)인 김시풍(金始豐)은 수년 전 화적(火賊)이 봉기했을 때 그 토벌에 공이 있었으므로 영장이라는 중책에 발탁된 자이다. 그 권위는 매우 대단해서 감사(監司)라 하더라도 한 발자국 물러날

정도였다. 그런데 항상 정부의 시정에 불만을 품고 때때로 이를 입 밖에 내기도 하였는데, 이번에 동학당이 일어나고 나서 이에 내응하였던 증거가 발견되어 초토사(招討使) 아래의 병사에게 포박을 당해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다. 원래 김시풍은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강담(剛膽)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법정에 끌려 나오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조선 조정의 부도(不道)를 비난하고 민씨의 전횡에 분노하였다. 마침내 '천도(天道)는 악인을 돕고 선인(善人)을 버리는가'라며 방약무인(傍若無人)으로 조롱과 비난을 계속하였다. 나중에 포박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자 스스로 포승줄을 끊고 검을 휘둘러 탈주하였으나, 다시 관군에게 추포(追捕)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타살(打殺)되었다고 한다.

○ 이경호(李景鎬)의 전사

전라도의 영장(營將) 이경호는 어느 날 척후(斥候) 영졸(營卒) 30여 명을 인솔하여 산길을 오르던 중, 동학당의 한 부대가 갑자기 산 위에서 일어나 격렬히 기와와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달려왔다. 그 때문에 이경호가 인솔하는 병사 가운데 죽은 자도 있고 부상을 당한 자도 있는 등 한 사람도 남김없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경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분진(奮進)하여 난군(亂軍) 속으로 돌입하여 창검을 휘둘러 적도(賊徒)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역시 중상을 입고 마침내 적에게 포위되어 전사했다고 한다. 이경호와 같은 자는 조선군 가운데에는 보기 드문 용사라고 한다. 실로 이자와 같은 경우, 많은 평범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만록총중홍일점

(萬綠叢中紅一點)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 전라도 수괴의 명령

전라도에서 동학당의 수괴인 최법헌(崔法軒)이 한 편의 훈령을 당 안에 전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9대(隊)의 진영 및 2백 당원, 기로(岐路)의 병사는 이전에 지세의 이점, 시기의 가불가(可不可)를 잘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나주 땅으로 진입하여 보부상 등 오합(烏合)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이로 인해 아군의 당원 20여 명은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 당의 체면을 매우 손상시켰기 때문에 우리 명령을 위반한 기로의 여러 장수는 군율에 따라 참죄(斬罪)에 처하고 각각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군을 3로(路)로 나누어 진군시켜 나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잠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제1로의 장수는 본부(本府) 부하 5천 명을 영유하고, 제2로의 장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부의 부하 5천 명을 데리고 함께 진영을 설치하고, 제3로의 장수는 본부 부하 5천 명을 감독하여 사방으로 파견하고, 각 장수는 멋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산성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 동학당의 민망(民望)

동학당 내부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당원은 반드시 이에 복종해야 해서 모두 규율을 잘 이행하고 감히 범하는 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흡연을 금하고 주색(酒色)에 빠지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 모름지기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한다는 일

종의 헌률(憲律)이 있었다. 이번의 폭거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농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주지(主旨)로 삼는 바를 묻는 자가 있을 때는, 안으로는 정부의 비정(非政)을 개혁하고 얽혀 있는 정실(情實)을 깨부수고, 밖으로는 거류하는 외국인을 추방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꾀함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말하는 바를 항상 실천하였다. 앞서 고부에서 전주로 진행할 때에는 구경꾼이 몰려들어 도리어 이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 논밭을 짓밟는 것을 보고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고, 또 어떠한 잡품이라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지방민에게 다소 이익이 되게 하였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반 완민(頑民) 사이에서는 매우 평판이 좋다고 한다.

○ 화약고가 불에 탐

고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화약을 저장해 둔 큰 창고가 있었는데 지방관이 도주한 뒤 동학당이 이를 빼앗았다. 창고 안을 살펴보았더니 매우 낡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장난으로 불을 붙였는데 굉음을 내며 폭발하여 재로 변했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관군이 사용해 온 것은 대부분 이 창고 안의 화약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관군은 화약이 부족해 매우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 목사 일가의 조난

나주의 목사(지방관) 민종렬(閔種烈)은 동학당이 봉기했을 당시 풍성학려(風聲鶴唳)로 놀라서 도망간 자 중 한 명인데, 그 가족 5명을 그대로 버리고 가 동학당이 그 가족 모두를 붙잡아 살해했다고 한다. 민종렬은 전 외무독판 민종묵(閔種默)의 친형으로 민씨 일족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대단한 자로, 이 지방의 인민은 그를 끔찍이 싫어할 정도여서 동학당은 먼저 인민이 가장 원한을 품고 있던 곳을 제거했던 것이라고 한다.

○ 김옥균의 잔당

민씨 일족의 전횡을 꾸짖고 정강(政綱)의 부패를 개탄하며 동지들과 혁명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려고 하였으나,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요,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이역 땅의 고객(孤客)이 되어 고생하기를 거의 10년, 하루아침에 자객의 독칼에 쓰러져 허망하게 황천에서 원한을 마시고 있다. 조선 망명객 김옥균의 잔당은 만일을 대비해 충청도에서 잠복했는데, 김씨가 독칼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더 이상 성패(成敗)를 일거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삼삼오오 상의해 최(崔)의 막하(幕下)로 모여들어 사력을 다해 운동을 돕고 있다고 한다.

○ 동학당, 소와 말을 약탈하다

전주 지방의 동학당은 드디어 맹렬한 기세를 드러내며 근방 일대의

소와 말을 남김없이 약탈함으로써 관군의 물자 운반 방도를 차단했기 때문에 관군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경성에 보고했더니 조정의 관리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현익선(顯益船)을 통해 병력을 증발(增發)함과 동시에 일본인이 사용하는 짐수레 15량을 구입하여 휴대하게 했다고 한다.

○ 공미(貢米)가 동학당의 소유가 되다

조선 팔도 가운데 전라 지방은 쌀의 산출이 가장 많고, 정부의 조세는 대개 곡물로 상납하는 것이 관례여서 매년 봄철에서 초여름 시기에 이르는 동안은 공미의 시기이다. 이 때문에 좌수영, 우수영, 목포, 고금도(古今島), 군산의 여러 항구에 모인 공미의 수량은 매우 양이 많다. 그런데 이를 배로 운송하기 위해 한양호(漢陽號)를 타고 출장한 운전위원[16] 김덕용(金悳容)은 동학당에게 생포되어 군산항 밖에서 적에게 공미를 모두 약탈당했다. 또 이보다 앞서 음력 4월 1일 고부에서 2리 남짓 떨어진 죽산포(竹山浦)라고 부르는 곳부터 강물을 따라 신창진(新倉津)에 이르는 강의 배 15척은 모두 공미 50~60표(俵)[17]를 적재하고 있었는데, 동학당이 이를 모두 약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양식이 충분하여 앞으로 몇십 일이 지나더라도 당분간 양식이 부족할 우려가 없으므로 동학당으로서는 한층 강해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6 운전위원 : 전운위원(轉運委員)의 오기이다.

17 표(俵) : 가마니에 들어 있는 것을 세는 일본식 단위이다.

○ 정토군(征討軍)의 상륙

중국 군함 평원호(平遠號) 이하 군함 두 척에 탑승하여 군산을 향해 출발한 8백 명의 정토군은 도착 후 잠시 상륙을 보류하면서 흉도(凶徒)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적의 기세는 더욱 창궐해져 유시(諭示) 등으로는 도저히 진정시킬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관군이 연패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일각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의 명령으로 마침내 음력 4월 7일에 전군이 군산에 상륙하였고, 홍계훈이 전보를 통해 토벌의 명을 정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 즉각 진격의 움직임에 착수했다고 한다.

○ 동학당, 제방을 터뜨리다

전라도의 김제(金堤) 및 만경(萬頃)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크고 넓은 논이 있다. 강물을 따라 긴 제방을 쌓아 두었는데 동학당이 군산에서 나와 고부로 향해 진군하는 관군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방을 무너뜨려 청전(靑田)에 물이 흘러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근방은 푸른 호수로 변해 버렸다. 또 충청도에 있는 소야광문(召野廣門)이라 불리는 넓은 논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호수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실로 이번 동학당의 조치는 매우 민첩하여 자주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

○ 추토군의 탈주

동학당 진압을 위해 홍계훈이 인솔하여 군산으로 출장을 간 8백 명의

친군 병사는 최초 선발할 당시 모두 접전하는 것을 싫어해 직을 사퇴하려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전쟁터로 향하더라도 결코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맺은 뒤 억지로 파출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산에 도착한 이후 단지 폭도의 상황을 지켜본다고 칭하고 광일미구(曠日彌久)로 쓸데없이 각지에 주둔할 뿐이었다. 그사이 일부에서는 무기의 반을 빼앗기고 일부에서는 과반수의 병사가 도망가고 양식이 이어지지 않아 연일 묽은 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완전히 용기가 없고 조금도 전투의 의지가 없으며 간간이 용기가 있는 자가 있더라도 관군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군을 위해 사력을 다하려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중에는 진군의 명령이 내리자 동시에 도주하여 검은색 제복을 벗고 흰색 옷을 입고 적진에 섞여 들어가 관군에게 총검을 향하는 자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 전라도 전주

전라도 전주는 경성에서 60여 리 떨어진 곳으로 전라도 가운데 제일의 도회지이고 감영(監營)이 있다. 토착 병사 4백 명과 신식 훈련을 받은 병사 7백 명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감사(監司)는 김문현(金文鉉)이라고 한다. 이 감사라고 하는 직책은 행정, 사법 및 군권을 장악하여 그 위력이 매우 강대하였다. 이번에 동학당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이를 의례의 폭도라고 보고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동학당의 군략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헛되이 지방 침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거에 전주 감영 함락을 꾀한다는 풍문이 정부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는 크게 낭패하여 수백 명의 원군을 보내 이를 추

토하였다. 그렇지만 동학당의 기세는 매우 강력하여 마침내 전주 감영을 함락시키고 창고를 열어 무기와 양식을 약탈하고 더욱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감사 밑에 속한 병사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마침내 동학당의 군문(軍門)에 투항하여 그들의 편이 되어 관군을 적대하기에 이르렀다. 동학당이 거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라도 전체를 석권하고 또 쉽게 석성(石城)을 함락한 것은 온전히 위와 같이 무기를 획득한 것과 관군 병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 국왕전하의 교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실정으로부터 마침내 이번의 큰 난(亂)을 초래한 데 대해 조정의 대신들이 연서(連署)하여 상주한 바가 있다. 국왕전하 또한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1. 고부군수 조병갑은 격식을 갖추어 잡아들여 남문(南門)에 가두어라.
1. 지방의 수령 가운데 탐학한 자는 일일이 그 죄를 따지고 민심을 평정하라.
1. 대신 이하 말관(末官)에 이르기까지 이 판탕(板蕩)[18]한 때에 어찌 수수방관할 것인가. 특히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바쳐라.
1. 전라감사는 특히 월봉(越俸)[19]의 조치를 하라.

18 판탕(板蕩) :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워짐을 말한다.

1. 도주한 각 수령은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하라.

○ 이경호(李景鎬)의 증관(贈官)

백산(白山)의 일전(一戰)에서 분격(奮激)하여 전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적의 손에 쓰러진 용장(勇將) 이경호에 대해 지난 음력 4월 13일에 발포된 시례창효(時例彰效)[20]의 조치는 이씨로 하여금 지하에서 편히 잠들게 하기에 족할 것이다. 이를 요약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초토사(招討使)로부터 받은 전보에 완영(完營) 우영관(右領官) 이경호는 화살과 돌을 피하지 않고 적군에 용감히 돌진해 수십 명을 베고 자신은 국난에 순국하였다. 그 의용(義勇)의 기개는 매우 칭찬할 만하다. 이번에 기례포효(技例褒效)[21]의 조치를 통해 특히 병조참의의 직책에 추증한다. 운운.

○ 김세풍(金世豐)[22]의 아들과 조카가 적에 투항하다

동학당이 봉기하였을 때 내응(內應)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주륙(誅戮)된 김세풍[23]의 아들과 조카 등 일가 10여 명은 전주 남문루(南

19 월봉(越俸) : 괄호 안에 罰俸이라고 적혀 있다. 즉, 감봉을 말한다.

20 시례창효(時例彰效) : 고부 백산전투에서 전사한 완영 우영관 이경호(李景鎬)에게 병조참의를 추증한 사실을 말한다.

21 기례포효(技例褒效) : 이경호가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운 사실을 포상한 것을 말한다.

22 김세풍(金世豐) : 앞서 언급한 바 있던 영장 김시풍(金始豊)의 오기이다.

23 김세풍 : 김시풍의 오기이다.

門樓)에 글을 게시하고 도주하여 동학당에 투항했다고 한다. 이번에 그 글의 주요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사태는 헛되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 최근 이른바 집권한 대신이라는 자는 모두 민(閔)씨 성을 갖고 있다. 민씨 일족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밤새도록 사욕(私慾)으로 배를 채우며 이를 영위하고 있다. 아! 이 백성을 어찌할까. 이른바 초토사라는 자 역시 무식하고 겁이 많고 나약하며 우물쭈물하여 군대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멋대로 현량하고 공이 있는 선비를 죽인다. 이는 곧 명성을 얻어 사악함을 꾸미는 것으로 오래가지 않아 반드시 독형(毒刑)을 받을 것을 모르는가. 3년 뒤에 필시 나라가 러시아에 귀속되고 사람들은 서양화될 것이다. 동도(東道)의 대장은 이를 우려해 의병을 일으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운운.

○ 전라감사의 적 상황 보고

전라감사 김문현이 감영의 장교를 사방에 파견하여 동학당의 정황을 탐지한 뒤 이를 조선 조정에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요점을 들어 보니 동학파가 각처에 모여 있는 것이 대소 합쳐 27개소라고 한다. 그 가운데 대진(大陣)이라고 칭하는 것이 8개소, 소진(小陣)이라고 칭하는 것이 19개소이며, 대진은 각 수천 명이 있고 소진 역시 5~6백 명을 밑돌지 않는다. 각 진(陣)에 대장(大將)이 있고 각 부(部)에 대장(隊長)이 있다. 주간에는 군법을 조련하고 야간에는 경문(經文) 같은 것을 외워서 읽는다. 그리고 대장(大將)은 항상 각 대장(隊長)을

훈계하여 말하기를, 전장(戰場)에 임할 때 가능한 인명을 손상하지 마라. 죽이지 않고 이기는 자를 수공(首功)으로 삼을 것이다. 또 읍리 등을 지나더라도 결코 조금도 약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명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당 무리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총대장은 정도령(鄭道令), 좌대장은 서총각(徐葱角), 우대장은 최대아(崔大雅)이다. 또한 그들 동학당이 진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흰 천의 장막(帳幕)으로 전면을 가리는데 탄환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동학당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무장(茂長), 영광(靈光) 두 군데이지만 항상 자유자재로 출몰하므로 용이하게 추적하기 힘들다. 또 그들의 운동은 매우 비밀을 지키므로 당 밖의 자로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 운운.

○ 적 포로의 큰 기염

초토사의 한 부대가 어느 날 산간에서 통행하는 수십 명의 동학파와 마주쳐 즉각 이를 붙잡아 진영으로 와 포박하고 심문했다. 그들은 항변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충효를 근본으로 삼아 만조(滿朝)의 간적(姦賊)을 제거하려 할 뿐이고 굳이 다른 뜻이 없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역명(逆名)을 붙여 우리를 부르려 하는가. 모름지기 역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일 뿐이다. 우리들의 거괴(巨魁) 동도(東道)대장군 이세(李世)는 연령이 불과 14살이지만 위로는 천문에 정통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밝다. 게다가 사람들의 화복(禍福)을 잘 판단한다. 또 정(鄭)과 서(徐) 양 원수는 모두 영웅호걸로서 옛날의 명장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미 10만의 정병(精兵)이 있다. 초토사 8백의

약졸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초토사가 묻기를, "너희들이 관군과 항전할 때 흰 천을 한 차례 휘두르면 화살과 돌, 포탄도 이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물은 불을 이기는 것으로 화포(火砲)가 어찌 수백(水白)을 능히 범할 것인가."라고 하며 매우 의기양양하여 기꺼이 가수(枷囚)[24] 처분을 기다리는 자 같았다고 한다. 이번의 동학파는 진정으로 능히 사졸(士卒)의 마음을 착란시킬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다.

○ 조선 조정의 미봉책

이번 소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간단히 논할 수는 없지만, 각 지방관의 가렴(苛斂)과 무거운 세금이야말로 실로 최대의 요소라고 인정되므로 조선 조정의 관리들도 크게 이를 돌아보는 바가 있었다. 아울러 난이 일어난 지방의 감수(監守),[25]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감(縣監)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경질을 단행하여 다소 난민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일의 요행이라도 기다리는 것 같다. 먼저 그 첫 번째 조치로, 정부는 현임 전라도 감사를 파면하고 새로 외무협판 김학진(金鶴鎭)을 그 자리에 임명하여 급히 부임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당년 이미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긴 노인으로 그다지 칭할 만한 재능은 없다. 그러나 과거 조선 조정 안에서 청렴결백함으로 조야(朝野)의 존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부임은

24 가수(枷囚) :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 걸 말한다.

25 감수(監守) : 감사(監司)의 오기이다.

전라도 지방민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원망을 풀 수 있게 할 것인가.

○ 초토사의 급보

동학파의 진퇴는 신출귀몰하여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듯하다. 그리고 정토사인 홍계훈(洪啓薰) 및 전라감사로부터 조선 조정에 올린 전보를 살펴보면 모두 위급함을 알리지 않는 것이 없어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몹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초토사가 양공(陽攻)을 시도하다

양력 5월 13일 정오 홍(洪) 초토사는 편장(褊將) 원세록(元世祿)을 파견하여 경군(京軍)을 인솔하여 전주에서 5리 떨어진 차마산(車馬山) 아래에 진을 치고 깃발을 늘어놓고 포를 쏘게 했다. 아마도 이것은 시위적인 양공(陽攻)일 뿐이었다. 초토사는 또한 양호(兩湖)의 적이 창궐함을 보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각 지역에 산거(散居)하는 적병(賊兵)은 향병(鄕兵)으로 하여금 붙잡도록 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경군은 오로지 적의 대둔소(大屯所)를 상대할 준비를 하게 했다.(음력 4월 10일 초토사 발신 전보)

○전라도 감사의 근심

적도(賊徒) 수천 명이 남쪽 나주로 향했다. 감사는 여러 목사(牧使) 및 근처 고을에 공문을 보내 엄하게 수비할 것을 바랐지만, 여러 고을에 비어 있는 벼슬이 많아 심히 고뇌하고 근심하고 있다.(음력 4월 13일 감사 발신 전보)

○편장(褊將)의 행방불명

초토사는 부관 원씨(元氏)로 하여금 적의 허실을 정찰하게 하였는데, 도중에 동군(東軍) 천여 명과 마주쳐 산산이 괴로움을 당하여 크게 패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감영의 장교를 보내 백방으로 수색하게 하였으나 원씨 및 부하 50여 명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아 경군은 벌벌 떨며 놀라워했다.(같은 날 초토사 발신 전보)

○경군(京軍)의 담한(膽寒)

출진의 차림을 하고 경성을 출발한 8백 명은 군산에 상륙한 이래 도주하는 자가 날로 이어져서 경군은 지금 불과 4백여 명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도주하는 자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어 경군의 위세는 없는 듯하다. 조정에서는 신속히 병졸을 추가로 보내지 않아 사태를 예측할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증원 병력이 파견되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한다.(같은 날 초토사 발신 전보)

○적도(賊徒), 병사를 훈련함

전라도의 동학당은 산을 등지고 진지를 만들고, 때로 깃발을 세우고 진법과 포술을 훈련하고, 어떨 때는 깃발을 숨기고 보였다 안 보였다 출몰하여 적정을 예측할 수가 없다.(14일 전라도 감사 발신 전보)

○영관(領官) 이하의 사망자

전라도 감사의 계문(啓聞)에서 말하기를, 영관 이하 사망한 자는 모두 114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감영에서 탐지한 것은 부상(負商), 잡상(雜商), 평인(平人), 영병(營兵) 등의 수에 그치고, 경

군(京軍) 외에 각 읍의 포군(砲軍)은 산재하여 실상을 알기 어렵다. 현재 각 고을에 타일러 조사하게 했더니, 침탈을 받은 각 고을 모두 무기는 동도(東徒)에게 빼앗기고, 지금은 보부상 등에게 급여할 무구(武具)도 없다. 그렇지만 아직 적의 습격을 받지 않은 황토산(黃土山) 같은 곳은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지출하여 방수(防守)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쓰고 있다.(같은 달 13일 전라도 감사 발신 전보)

○초토사의 급한 청, 원세록의 무사함

초토사는 원병을 재촉하고 또 원세록이 무사함을 알리며 말하기를, (1)심영(沁營) 즉 강화영(江華營)의 양정(兩丁)은 언제쯤 내려올 것인가. (2)품질이 좋은 군도(軍刀) 열 자루를 송부해 달라. (3)원세록은 어제 귀영(歸營)하였다. (4)이두황(李斗黃),[26] 이학영(李學永)[27] 등에게 명령해 군병 두 부대를 인솔하게 하여 금구, 태인, 고창, 흥덕 등의 지방으로 향하게 하였다. 운운.(같은 달 13일 초토사 발신 전보)

○영광군(靈光郡)의 적세(賊勢)

동학파 만여 명이 영광군에 모여 있다. 5리 지점에 복병이 있고 30리 지점에 선봉 2천 5백여 명이 있다. 적병이 산야에 널리 퍼져 있어 세력이 더욱 창궐하다. 사방의 양민이 서로 적에게 투항하고 관군의 위급함을 알리는 서신이 비와 같이 도래한다. 초토

26 이두황(李斗黃) : 장위영 영관 이두황(李斗璜)의 한자 오기이다.

27 이학영(李學永) : 대관 이학승(李學承)의 오기이다.

사의 고심이 더욱 깊다.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같은 달 15일 초토사 암호 전문)

○동학당의 한 부대가 영광성에 농성하려 하다

적 만여 명이 영광을 습격하였다. 군수 민영수(閔泳壽)는 배를 띄워 칠산진(七山津)으로 갔다. 적병이 승리한 기세를 이용해 성안에 들어와 무기와 화약을 빼앗고 부(府)의 창고를 잠그고 사문(四門)을 봉쇄하여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조정언(曺正言), 김 진사(金進士)는 무리에 의해 살육당했다. 살피건대 적병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완강히 버틸 것으로 보인다.(같은 달 15일 전라도 감사 암호 전문)

○ 순창부사의 서한

순창부사(淳昌府使) 이성렬(李聖烈)이 민영준(閔泳駿)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3~4일경 동학당은 금구, 태인 지방으로부터 물러나 부안, 고부 지방으로 향했다. 관군이 이를 쫓아 고부, 정읍 두 지역을 경계로 삼았는데 동도(東徒)는 험한 승두산(僧頭山)에 버티고 관군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승두산은 그 형세가 복반(伏盤)과 같아 그 무리는 산 위에 진을 치고 외면에는 흰 천으로 된 장막을 펼치고 토루(土壘)를 쌓았고, 안으로는 짚을 묶어 두고 몸을 그 속에 숨긴 채로 발포하였다. 관군의 진지는 그것과 불과 몇 궁(弓)의 거리에 있었고 지형이 약간 내려갔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자주 관군을 위쪽에서 저격하고 사력을 다해 전투를 도발했다. 관군은 원래 오합지졸로 그들의 급습을 받아 무너지고

패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살해당한 자를 헤아릴 수 없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괴리하고 군기가 갑자기 상실되었다. 승평일구(昇平日久)하여 병정은 쓸모가 없어 정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동학당 무리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지만 어쩌면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또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민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여 민심이 흉흉해졌고, 늙은이는 도랑과 웅덩이에 쓰러지고 어린이는 도로에서 울면서 대부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어찌 도적이 아닐 것인가. 전라도의 몇 읍은 이미 공허한 곳이 되었다. 만일 아직 조정이 무안(撫綏)의 법을 세우지 않으면 어쩌면 지자(智者)도 역시 마침내 공을 세우기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다. 동학당은 부적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휘파람을 불며 당을 모아 양왜(洋倭)를 내쫓자는 이름을 빌리고 수령의 탐욕함을 미워하는 마음에 의탁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인다. 이것은 아마도 일조일석의 이유가 아니다. 이 무리는 왕법(王法)으로 원래부터 죄악을 벗어날 수 없지만 어찌하랴. 병력에 의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면 일단 무엇보다 방백(方伯)의 임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탐학한 수령은 모두 징계하여 다스릴 수밖에 없다. 부렴(賦斂)의 폐해를 완전히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급히 선무(宣撫) 특사를 파견하여 군대를 통해 이에 임하고, 의(義)를 통해 이를 논하고, 은(恩)을 통해 이를 다독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저항한다면 즉 벌을 가하는 것이 어쩌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이다. 그런 뒤 적괴(賊魁)를 포획해야 한다. 원래 궁한 적을 급히 추궁하면 그 기세가 더욱 단결하여 풀기 어렵고, 완만하게 하면 교만하고 사나와져 복속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무엇보다 협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기(軍器)는 약탈당해 남은 물품이

없고 적이 다시 석권하여 오는 날에는 우리가 이 열읍(列邑)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매우 비분강개한 문장이었다고 한다. 아! 이 이성렬 같은 자는 대세에 잘 통하는 명사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 외국 군대를 빌리는 망의(妄意)

동학당의 폭거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관군은 연전연패하여 한 번도 공을 세운 적이 없다. 초토사는 원군이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을 독촉하고, 사졸(士卒)은 날이 갈수록 적문(賊門)에 투항하고 양식이 이어지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적병(賊兵)이 매우 창궐하여 곧바로 경성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보고하는 자가 있어 경성의 위급함이 매우 절박해졌다. 이에 이르러서 조선 조정 내에 많은 속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이러한 까닭으로 외국 군의 차입 논의는 일찍이 조정 내부에서 일었다. '영국에서 빌릴까, 러시아에서 빌릴까 또는 중국에서 빌릴까, 일본에서 빌릴까'라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내란을 진정하는데 외국 군을 빌리는 것은 단지 자주자호(自主自護)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때마침 외국 간섭의 단서를 여는 것이니 그 후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주변의 병력을 남김없이 모아 정토군을 증발(增發)하는 것만 못하다. 마침내 이 경직(硬直)한 주장이 승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외국 군 차입의 망의(妄意)는 일시 중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형세가 날로 나빠진 결과 마침내 조선 조정은 청국에 출병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다.

○ 원군(援軍)의 출발

동학당 창궐, 관군 연패라는 보고가 조선 조정에 도달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조정은 강화도의 병정을 징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화유수(江華留守) 해군총제사(海軍總制使)인 민응식(閔應植)은 왕명을 받들고 강화로 내려가 영병(營兵) 5백 명을 징발하고 대오를 훈계하였다. 중군 서병훈(徐炳薰)을 총장(總將)으로 삼고 면포(麪麭) 천 근, 탄약 4천여 발을 갖추고 현익(顯益)과 해룡(海龍) 두 선박에 탑승해 인천에 도착하였고 다시 전주 감영을 향해 발진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성으로부터는 별도로 2~3백 명의 병정을 징발해 육로로 남도를 향하게 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총공격해 전라의 땅을 압박하려고 계획한 제2의 출병도 대수롭지 않아, 양군은 아직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군기는 상실되어 쓸모가 없었다. 익산에서 혹은 임애(臨崖)에서 패전한 소식이 속속 도달하였고, 동군(東軍)은 마침내 대거로 북상 길에 올라 지금은 경성에서 50리 혹은 30리 정도 떨어진 밖에 집결하여 세력을 이루고 있어 형세가 좀처럼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 전주의 함락

초토사는 8백 명의 친병을 인솔하고 있지만 전사 또는 도망 등으로 남은 수는 적어 보이므로 군산에서 임시로 민병을 징발하려고 하였다. 공문 한 통을 보내 각 읍, 각 리로부터 30~40명씩을 소집하기로 착수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150여 명의 민병이 진문(陣門)으로 와서 은근히 징발에 응해 달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그 증거로 위 공문을 보였기

때문에 초토사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크게 그 뜻을 칭찬하고 융숭히 취급한 뒤 이를 부대 안에 편입했다. 그로부터 초토군은 장성(長城)에 있는 동도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여 장성 근방의 월평(月坪)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공교롭게도 맞은편에서 오는 동도와 마주쳐 바로 개전하였다. 분격하여 돌진할 때 위의 150여 명의 민병은 일성(一聲)의 신호와 함께 갑자기 두 편으로 나뉘어 좌우로 협격하였기 때문에 경군은 세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군이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치고 산산이 차례로 쓰러졌다. 어지러이 쓰러진 자가 4백여 명에 이르고 약간 남은 패병(敗兵)도 구름처럼 도망쳤다. 이로부터 동도는 승리의 기세로 전진해 전주로부터 3리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다. 그날 오후에 전주 감영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동학당이 민병을 가장하여 숨어 들어온 계략이라고 한다.

○ 장성의 전황

관군은 영광에 임시 병영을 설치하였고 적군(賊軍)은 장성 주변의 산허리를 점거하여 단지 양군이 서로 거동을 살필 뿐이었다. 그런데 관군이 부대를 두 개로 조직하여 한 부대는 2백 명으로 편성하여 대포 2문을 배치하고 고창을 거치고, 또 한 부대는 50명의 인원에 대포 2문을 갖추고 삼계(森溪)를 거쳐 모두 적진(賊陣)을 목표로 출발한 것이 5월 27일 오전 4시경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같은 날 오후 6시경 적군의 진영인 장성에 도착했는데 적군은 그 수가 겨우 백 명을 넘지 않아 매우 허점이 있는 듯하였다. 양군의 거리는 불과 3~4정(丁)으로 마침내 총격을 시작하였는데 적병은 차례로 다수가 되었다.

특히 좌우 양쪽으로부터 복병이 궐기하여 그 인원수가 수천 명에 달하니 마치 파죽지세와 같았다. 관군은 겨우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대패하여 포병의 사관 1명은 생포되었고 또 대포 2문을 빼앗기고 사상자는 실로 백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한다.

○ 경상도의 동학당

경상도 김해부(金海府)는 부산포(釜山浦)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하나의 진(鎭)인데, 전라도 고부의 폭거를 전후해 이곳에도 하나의 소란이 일어났다. 이 지방에서 협객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윤자익(尹子益)의 지휘 아래 무수한 당여(黨與)가 모여 마침내 봉기하여 부사(府使)를 내쫓기에 이르렀다.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면, 최초 이 지방의 한 부락의 인민이 오랫동안 학정에 괴로워한 나머지 마침내 당여를 모아 거사를 계획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평의를 꾀했는데 윤자익의 명성을 듣고 마침내 그를 수령으로 추대하여 근방에 격문을 보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폭관(暴官)과 오리(汚吏)의 전횡을 주륙(誅戮)하고 인민을 도탄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의 의거를 도우려고 하는 자는 각호당 한 명씩 부역(賦役)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거부하는 자는 폭관오리의 일파로 간주해 즉각 그 가옥을 파괴하고 약간의 벌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원래부터 조정의 불평함을 참지 못한 인민이었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바람을 기대하고 모인 총수가 7천여 명이라고도 말해지는데, 그 세력을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윤 두령(尹頭領)은 부하에게 호령을 내려 발진을 독촉하였기

때문에 7천여 명의 난민은 각각 자신이 자신있게 다루는 무기를 휴대하고 부리(府吏)의 건물에 난입하였다. 불의의 공격을 받고 낭패하고 있던 부사 조준구(趙駿九)를 붙잡아 포박하고 고묘(古廟) 속에 유폐하였다. 그리고 또 속리와 속관 등 여러 명을 포획하고, 마침내 부사를 다시 고묘 속에서 끌어내 부성(府城)의 북문 밖으로 내쫓고, 속리 이하의 자는 일동을 모아 신발을 신은 채 차고 혹은 얼굴에 침을 뱉고 혹은 머리카락을 뽑는 등의 행위를 가하고 마침내 머리에 칼을 채우고 감옥에 투옥했다고 한다. 한 무리는 이미 부사를 내쫓고 속리를 책망하였기 때문에 일단 속이 풀린 상황이었으므로 윤 두령은 여기에서 우선 장정을 해산해 각각 귀농하게 하였고, 관찰사가 오는 것을 기다려 무언가 전의(詮議)를 받을 것을 각오했다고 한다. 윤자익의 몸에는 과연 한편으로 협골(俠骨)의 훌륭한 기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상도에서 동학당의 소요는 음력 4월 11일발 경상도로부터의 보고에 따르면, 진주성에서 10리 떨어진 덕산(德山)에는 근래 동학당의 난민이 집합해 있어 수천 명에 달해 병사영(兵使營)에서는 같은 날 5백여 명의 병력을 보냈다. 현재 주성(州城)에서 서북쪽에 해당하는 지방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한다. 또 그 뒤의 보고에 따르면, 마침내 5월 29일에 이르러 당인(黨人) 수만 명이 불의에 습격해 와 병사(兵使)가 방어할 수단이 없어 전보를 보내 경성에 원병(援兵)을 요청했다고 한다. 진주는 부산 거류지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한다.

○ 충청, 평안 양도의 동학당

충청도에서 동학당은 그 종적(踪跡)을 정하지 않고 오늘은 옥천(沃

川)에 있다면 내일은 문의(文義)에 있고 어제는 회덕(懷德)에 있었다면 지금은 진잠(鎭岑)으로 달려,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파악할 수 없다. 전곡(錢穀)을 뿌려 궁민을 구휼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를 허술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관들이 자제와 노복(奴僕)을 인솔하여 당원 및 농민의 집에 난입하거나 혹은 이에 방화를 하는 일이 있었다. 때문에 당인(黨人)은 이를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여 지방관은 갑자기 궁지에 몰린 형세가 되었다. 당인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 보은현을 공격해 현감을 몰아내고, 다시 병력을 사방으로 파견해 공략하였기 때문에 청주 병영도 지금은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또 평안도 평양 지방에서도 폭민이 봉기했다고 한다. 원래 기강이 부패해 권세 있는 한두 가문이 묘당(廟堂)을 장악하고 폭관(暴官)과 오리(汚吏)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원망이 끓어올라 팔도 산하에 가득 찼다. 때마침 동서남북에서 각각 짠 것처럼 재난이 일어날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어찌 천마귀신(天魔鬼神)이더라도 참을 만큼 참고 뜨거워질 만큼 뜨거워진 민중의 한과 백성의 원망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인가. 실로 두려운 것은 백성의 원한이다. 지금 충청도 충주 감영에서 조선 조정으로 보낸 전보는 모두 다 그 위급함을 보고하고 있다. 풍성학려(風聲鶴唳)에 담력을 잃은 조선 조정이 그 방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 **정토(征討) 착수(4월 8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전보 발송)**

지금 들은 바에 따르면, 공주와 진잠의 인민이 동도를 물리치기 위해 두 읍의 경계인 성전평(星田坪)에 집결했고, 동도는 공주와

회덕의 경계인 사조(沙鳥)에 불러 모았다. 사조는 성전평과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비장(裨將)과 영교(營校) 및 포군(砲軍)을 동도의 소재지로 보내 신호를 정해 함께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 보부상들에게도 명을 내려 궐기하게 했다. 그렇지만 경내에 있는 자가 불과 백 명에 지나지 않아 매우 걱정이다.

○동도(東徒)의 총기(같은 날 유시(酉時, 오후 5~7시) 전보 발송)

이어서 회덕의 보고문을 보니, 동도는 각종 총기를 휴대하고 문지리(文旨里)에 모여 있다고 한다. 그곳은 사조로부터 2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어제 비장을 보내 전반적으로 수색해 체포하도록 했다.

○동서의 호응(같은 달 9일 진시(辰時) 발송 전보)

방금 탐정 영교(營校)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도 수천 명은 각지에 산재하고 한 부대에 2~3백 명 또는 4~5백 명으로 촌리(村里) 사이를 통행할 때 수미가 상응하고 호흡이 서로 통한다. 그 무리 가운데 최법헌이라는 자의 통문(通文)에서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동학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 대소 부대가 모두 청산(靑山)에서 만나자."라고 하였다. 그 거동을 헤아릴 수 없다. 매우 통탄스럽다.

○관군 소수(같은 날 오시(午時, 오전11시~오후1시) 발송)

회덕의 일은 직책을 더럽힌 것으로 원래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저 무리 수천 명이 각 곳에 모여 각 읍에 엄식(嚴飾)하고 이민(吏民)을 불러 모은다고 하는데, 원래 이들은 어중이떠중이로

보이지만 본영(本營)의 군인 수도 역시 적어 병정(兵丁)을 조달하여도 불과 2백 명이다. 그러므로 경군(京軍)을 나누어 보내줄 것을 추토사(追討使)에게 전보로 알렸으나 행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저 무리가 점차 만연하여 마음이 아픔을 금할 수 없다. 충분히 살펴 헤아려 지휘해 주시기를 바란다.

○세력이 점차 창궐(같은 달 10일 미시(未時, 오후 1~3시) 발송 전보)
적의 무리가 남포(藍浦)에 직접 들어가 무기와 양식을 모두 약탈하고 사라진 일에 관해 탐정을 파견하였는데, 그 무리 3천여 명이 본현 수두리(水頭里)에서 일박(一泊)하고 간 곳을 모른다.

○관리 도주(같은 날 술시(戌時, 오후 7~9시) 발송 전보)
각 읍의 관리 중 쫓겨난 자 10여 명이 도주하여 모두 본영으로 왔다. 각 읍 모두 공관(空官)이어서 매우 고민스럽다.

○총검 약탈(같은 달 11일 발송)
이전에 성전(星田)에서 집회한 인민은 회덕(懷德)에 모여 있는 동도(東徒)를 격파하고 이를 추적해 환도(環刀) 40자루, 조총(鳥銃) 12통을 노획하였다. 이로써 회덕이 조용해졌다.

○ 동학당, 유동(幼童)을 위무하여 군기를 크게 진작하다

요즘 동도의 한 부대가 정렬하여 전라도의 한 촌락을 통행하였는데 마을 전체가 적막하고 인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중에 소년 한 명을 만났는데 연령이 불과 14~15세로 힘없는 모양으로 잠깐 멈춰 서

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같이 보였다. 동도의 선봉부대가 이상하게 생각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소년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집은 원래 매우 가난해서 의복과 음식을 지급하지 못했고, 어린아이가 겨우 이문이 없는 장사를 해서 양친의 입에 풀칠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크게 장삿길이 막혀 또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무슨 면목이 있어 다시 부모를 뵐 수 있을 것인가." 아이의 생각은 이미 결정되었다. "깨끗하게 칼에 찔려 죽으려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고 침착하여 안색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동도는 모두 감격하여 소년의 옷에 위해(危害)를 입히지 말라는 인장(印章)을 찍고 특별히 10냥의 돈을 주고 여러 방도로 위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이 일이 각지로 전해지자 원근의 장정이 그 뜻을 경모하여 찾아온 자가 매우 많아 동도의 군세가 갑자기 늘었다고 한다.

○ 순변사(巡邊使)와 염찰사(廉察使)의 출발

조선 조정은 전주의 함락 이전에 그 위급함을 듣고 대호군(大護軍) 이원회(李元會)를 양호(兩湖, 전라도와 경상도)[28]의 순변사로 삼아 임기응변하여 진무에 진력할 것을 명했다. 또 행호군(行護軍) 엄세영(嚴世永)을 염찰사로 삼아 국왕의 윤지(綸旨)를 받들어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민정을 시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순변사 이원회는 평안 감영의 병정 5백 명, 통어관(統御官)의 병정 2백 명을 인솔하여 6월 2일 경성을 출발해 육로로 전지(戰地)로 향했다. 병사들이 경성을 떠나자 슬

28 양호(兩湖) : 호남과 호서, 즉 전라도와 충청도를 말한다. 필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픔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많았다. 모두 이번의 출정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 겨우 위무하여 출발하게 했다고 한다. 출진할 때에는 기쁨이 용솟음쳐 뛰면서 춤추고 시체를 밟고 나아가는 것은 용사(勇士)의 보통 일인데, 조선의 관리는 지금 이와 같다. 군진(軍陣)의 피 축제〔血祭〕에 불결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동도에게 일격을 당해 파쇄(破碎)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니다.

○ 국왕전하, 종묘의 땅을 생각하다

전주는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단지 위급하다는 급보가 화살을 쏘듯이 계속 도착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국왕전하는 종묘의 땅에 난민이 침입하게 될 것을 우려해 예당(禮堂)[29]을 보내 그 사정을 시찰하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 비류(匪類)의 무리가 바로 완부(完府, 전주)에 돌입한다고 들었으나 정황이 어떠한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묘전(廟殿)을 경봉(敬奉)하는 땅에서 이 소요가 있음은 매우 놀랍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바로 예당을 파견해 실황을 시찰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 예당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주는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왕의 진심 또한 헤아릴 수 있다.

29 예당(禮堂) : 예조판서를 말한다.

○ 경성의 군대

경성 안에는 근위병이라고 칭할 만한 것이 4천 명 정도 있다. 영(營)에는 친군총위영(親軍總衛營), 친군통어영(親軍統禦營), 친군경리영(親軍經理營)이 있다. 친군총위영의 병사는 신식 훈련병으로 포와 총을 다루는 데 다소 능하다. 통어영은 구식 병사로 조직한 것이고, 또 경리영은 세자궁 부속 병사로서 민영준이 설치한 것이다. 이상의 세 영(營)의 병사가 대략 4천 명 정도이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유사시에 있어 죽음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가 없어 이름뿐이고 거의 그 내실을 상실한 것뿐이라고 한다.

○ 현임 당상관(堂上官)

현임 조선 중앙정부 및 8도의 현관(顯官)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우포장(右捕將)	이봉의(李鳳儀)
좌의정	조병세(趙秉世)	호아사(扈衙使)	김환사(金煥使)
우의정	정범조(鄭範朝)	통아사(統衙使)	민영준(閔泳駿)
이조판서	민영환(閔泳煥)	경리사(經理使)	위와 같음
호조판서	박정양(朴定陽)	장아사(壯衙使)	이종건(李鐘健)
병조판서	이승오(李承吾)	총어사(總御使)	한규설(韓圭卨)
형조판서	이정로(李正魯)	해군통제사(海軍統制使)	민응식(閔應植)
예조판서	홍종헌(洪鐘軒)	총제사(總制使)	민영왕(閔泳王)
공조판서	김학진(金鶴鎭)	우전총판(郵電總辦)	조병직(趙秉稷)

외독(外督) 조이직(趙秉稷) 광무발판(鑛務發辦) 민영익(閔泳翊)
내독(內督) 민응식(閔應植) 전환국총판(典圜局總辦) 성기운(成岐運)
좌포장(左捕將) 신정희(申正熙) 전운총무관(轉運總務官) 조필영(趙弼永)

팔도 감사
경기감사 김규홍(金圭弘) 경상감사 이용직(李容直)
충정감사 조병호(趙秉鎬) 평안감사 민병협(閔丙夾)[30]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 황해감사 홍순형(洪淳馨)
강원감사 민정식(閔亭植)[31] 함경감사 박기양(朴箕陽)

위에 적은 사람 가운데 충청감사 조병호는 변란 때문에 도주하였고,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 감사 김문현(金文鉉)이 도주한 뒤 새로 임명된 자이지만 변란 때문에 임지에 부임할 수 없어 난을 피해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다. 또 위 중앙관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자는 통아사 겸 경리사인 민영준으로 모름지기 지방관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먼저 민영준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실로 조선에서 민씨의 발호(跋扈)가 극심한 것은 종이에 다 적을 수 없다. 한 가문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해 거의 민씨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국 팔도의 감사 이하 유사(留使),[32] 부사(府使), 목사(牧使), 현감(縣監) 등에 이르는 지방관의 총수는 대략 3백 명 정도이고 그 가운데 160명 이상이 민씨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30 민병협(閔丙夾) : 민병석(閔丙奭)의 오기이다.
31 민정식(閔亭植) : 민형식(閔亨植)의 오기이다.
32 유사(留使) : 유수(留守)의 오기이다.

하니, 민씨 일족의 세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미루어 알 수 있다.

○ 경성의 사채(四寨)

경성에 사채(四寨)가 있다. 그것은 광주(廣州), 춘천, 강화도, 개성부를 가리킨다. 이 4채에는 항상 유수(留守)라고 칭하는 조관(朝官)이 주재하고 있는데, 동학당이 경성을 공격하려 한다면 그 출입구에 해당하는 앞서 기술한 4채 가운데 광주(경성에서 일본 리(里)로 5리 정도 거리이다.) 및 그곳과 비슷한 수원을 공격하지 않으면 침입할 수 없으므로 이 두 채(寨)는 요충지여서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공격할 수 없다고 한다.

○ 경성의 무기 및 탄약

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경성에서 조선 정부의 수중에 있는 총포는 마티니 2천 정, 레밍턴 1천 정, 스나이더 750정, 소형 크라프 10문이 있고, 탄약은 마티니 20만 발, 레밍턴 대략 5만 발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티니는 과거 세창양행(世昌洋行)을 거쳐 독일국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 행상이 갑자기 병사로 변하다

청국 정부는 조선에 대해 꾀하는 것이 두루 미쳐 빈틈이 없고 책(策)하는 것이 치밀함은 항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점이 있다. 이전

에 내지의 동정을 탐색하기 위해 혹은 이번과 같은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어떨 때는 행상으로 몸을 바꾸거나 어떨 때는 매약(賣藥) 상인의 모습으로 변장해 조선에 숨어 들어가게 하는 일이 실로 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경성 한 곳만 해도 3백여 회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청상(淸商)은 지금쯤은 모두 상인 복장을 벗고 군복을 입은 병사로 변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 몰래 소총 탄약을 주다

동학당이 봉기하고 나서 정토군(征討軍)이 파견되었고 재차 원병(援兵)이 파견되었지만 무기와 탄약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청국 공사 원세개(袁世凱)에 의뢰해 청국으로부터 병기 탄약의 대여를 애타게 요청하였고, 원세개가 이러한 내용을 본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한다. 그것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칠 전 청국 정부는 모(某) 군함을 통해 은밀히 소총 탄약을 조선 조정에 보냈다고 한다.

○ 아산(牙山)의 지리

이번에 청군이 상륙했다는 아산의 지리를 생각해 보니 충청도의 서북 해안으로 경기도에 가까운 만(灣) 안에 있다. 작년 중국 군함이 한 차례 이곳에 입항했던 적이 있지만 선박 등이 항상 입항하는 곳은 아니다. 이번에 청군이 이곳에 상륙하려 한 것은 동학당이 경성을 향해 진군하는 요로(要路)를 막기에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이곳은

경성에서 대략 2백 한리(韓里, 1한리는 일본의 약 4정(町)) 떨어져 있어 경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택, 진성(振城),[33] 과천 등을 거쳐 한강을 건너는 것으로 진로는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이지만 도처에 작은 산이 있다. 특히 과천과 한강 사이에는 작은 세력으로 큰 무리를 막기에 충분한 요해(要害)의 산이 있다. 이어서 넓은 강은 강폭이 1정(町)[34] 남짓이나 된다. 그리고 경성으로 이어지는 강변은 넓은 모래사장이므로 나룻배를 제거하고 지키면 용이하게 부대를 건너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일단은 조선 내에서 지세가 험하여 방어하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 파견 청군의 실제 수

이번에 동학당의 요란(擾亂)에 관해 조선 조정의 힘이 이를 잘 진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국을 향해 원군의 파견을 간절히 요청하기에 이른 바인데, 청국 정부가 그 청구에 의해 출발한 병력 수는 1만 명이라고 하지만 약간 과장된 말일 것이다. 사실은 6~7천 명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원래 이홍장(李鴻章) 통독(統督) 아래에 있는 군대는 대략 유럽식 훈련을 받은 자로서 그 총기는 모두 정교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실제로 볼 때는 결코 그다지 두려운 것은 아니다.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폐가 있다. 특히 장관(將官)이란 자는 항상 정원 안에 얼마를 줄여 그 비액(費額)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만

33 진성(振城) : 진위(振威)의 오기이다.

34 1정(町) : 일본의 척도. 1정은 60칸〔間〕으로, 약 109m에 해당한다.

이라고 칭하더라도 대개 6~7천 명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또한 그로부터 추측해 볼 때 그 실수는 6~7천 명 정도로 짐작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 이조(李朝) 5백 년의 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씨(王氏)를 대신해 자립한 것은 기원 1392년, 일본의 메이토쿠(明德) 3년으로 고코마쓰 천황(後小松天皇) 때이다. 또한 조선이라고 개호(改號)한 것은 기원 1397년, 일본의 오에이(應永) 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5백 년 전이다. 이씨의 왕조 5백 년에 일대 변혁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참언(讖言)이다. 이 참언은 이른바 바보의 꿈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누구도 이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이언(俚言)이나 속요(俗謠)라도 역시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 올해 여름에 이르러 동학당의 변란이 일어나 조선 조정의 낭패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왕실에까지 일대 우환을 주는 불행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참언이 반드시 적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 기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조선의 초대, 즉 이조 제1세부터 제30세 현재 왕에 이르는(연수로 502년) 이 나라 군주의 칭호, 등위(登位)의 연차 등을 다음에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칭호	선고(先考)	등위
태조고헌왕(太祖考獻王)	자춘영록태부(子春榮錄太夫)	1392년
정종공정왕(定宗恭靖王)	태조 2남	1398년

태종공정왕(太祖恭靖王)	태조 5남	1400년
세종장헌왕(世宗莊憲王)	태종 3남	1418년
문종공순왕(文宗恭順王)	세종 1남	1450년
단종공의왕(端宗恭懿王)	문종 1남	1452년
세조혜장왕(世祖惠莊王)	세종 2남	1455년
덕종회간왕(德宗懷簡王)	세조 1남	미상
예종양도왕(睿宗襄悼王)	세조 2남	1468년
성종강정왕(成宗康靖王)	덕종 2남	1469년
연산군(燕山君)	성종 1남	1494년
중종공희왕(中宗恭僖王)	성종 2남	1505년
인종낙정왕(仁宗樂靖王)	중종 1남	1544년
명종공헌왕(明宗恭憲王)	중종 2남	1545년
선조소경왕(宣祖昭敬王)	중종 9남 덕흥대원군 3남	1567년
광해군(光海君)[35]	선조 3남	1608년
인조공량왕(仁祖恭良王)	선조 6남	미상
인조혜문왕(仁祖惠文王)	광해군 1남	1623년
효종선문왕(孝宗宣文王)	인조 2남	1649년
현종영효왕(顯宗影孝王)	효종 1남	1659년
숙종원효왕(肅宗元孝王)	현종 1남	1674년
경종선효왕(景宗宣孝王)	숙종 1남	1720년
영종현효왕(英宗顯孝王)	숙종 4남	1724년
진종효장왕(眞宗孝章王)	영종 1남	미상

35 광해군(光海君) : 원문에는 광안군(光安君)으로 되어 있다.

정종장효왕(正宗莊孝王) 영종 2남 사도세자 1남 1776년
순조성효왕(純祖成孝王) 정종 2남 1800년
익종효명왕(翼宗孝明王) 순조 1남 미상
헌종철효왕(憲宗哲孝王) 익종 1남 1834년
철종영효왕(哲宗英孝王) 전계대원군 3남 1849년

금왕(今王) 이름은 희(熙), 자(字)는 성림(聖臨), 호는 성헌(誠軒)으로 흥전대군(興全大君)[36]의 2남, 1852년〔일본의 가에이(嘉永) 5년〕 7월 25일 탄신, 1863년〔일본의 분큐(文久) 3년〕 등위.

왕비 민씨,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치록(致錄)의 딸, 1851년〔일본의 가에이 4년〕 5월 29일 탄신.

세자궁 이름은 척(坧), 호는 군방(君邦), 궁의 비는 민씨이다.

○ 요란휘보(擾亂彙報)

○전주성 안에 병사 한 명 없다

전주 감영이 동군(東軍)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5월 31일의 일이다. 당일 오후에 이르러서는 감영 안에 병사 한 명도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사(給仕) 등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도망갔다고 한다.

36 흥전대군(興全大君)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오기이다.

○초토사와 감영

전주가 함락된 뒤 초토사(招討使) 및 완백(完伯)[37]이 행방불명되었는데, 아마도 완백은 도망쳤고 홍(洪) 초토사는 전사했을 것이라고 한다.

○국왕의 역린

관군이 패했다는 보고가 자주 도착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은 감추고 이를 국왕에게 상주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주가 함락되었을 때 비로소 국왕에게 이를 상주하였는데 국왕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어서 조정의 신하들을 어전에 불러내어 견책(譴責)하였다고 한다.

○중국 쌀의 수입

청국 정부가 국금물(國禁物)인 쌀을 세금 없이 조선에 수출하는 것을 특별히 허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일로 만기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해(上海)로부터 수입한 수량은 일본 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의 요리토모마루(賴朝丸)에만 탑재된 것으로 약 1만 포대가 있다. 또 그 밖에 독일 선박 및 나원기선(那原渜船) 등을 통해서도 모두 만재(滿載)하여 입행했다는 것이다.

○조선 조정의 내정(內情)

새로운 병력이 구원을 오는 것은 오로지 민영준의 알선에 의한 것인데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많다. 특히 청군과 전후하여 일본군이 내경(來警)을 보기에 이른 것은 완전히 청국 병력의 내원(來援)을 요청한

37 완백(完伯) : 전라감사를 말한다.

결과라고 해서 조선 조정 내에 여러 이론(異論)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인(韓人)이 평소 자주 말하는 것으로 일인(日人)이 뭐가 있냐며 오만하게 굴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 함선이 잇달아 늘어서 인천에 정박한 것을 보고 게다가 용맹한 모습의 일본 병사가 조만간 경성에 들어올 것이라고 선전하며 갑자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은 매우 가소롭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폭도가 용맹하고 굳세 관군이 자주 패하고 추토군(追討軍)도 역시 공을 올릴 수 없어 조정이 모두 매우 낭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 말을 꾸미고 각국 공사들에 대해서는 동도(東徒)의 수괴는 이미 살육되었다든가 혹은 경군이 대승리를 하였다고 빈번히 강한 척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일청 양국 병사가 입경하는 것을 두려워해 이를 막으려는 방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

○ **순변사**(巡邊使) **이원회**(李元會) 씨

전주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이를 진정하는 중임을 맡아 이번 달 2일 밤에 출발한 경군(京軍) 1천여 명, 포병 160명을 이끌고 전지로 향한 이원회는 이전에 한성의 이군(利軍)이었던 사람으로서 한인(韓人) 가운데에는 매우 활발하고 또 용기가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올해 70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늙어서도 정정하구나. 이 늙은이가 가서 모름지기 불후의 큰 공을 세울 것이다. 만약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시신은 바로 말가죽에 싸일 뿐이다.[38] 이 또한 일생의 큰 기쁜 일로

38 시신은……뿐이다 : 마혁과시(馬革裹屍). 말가죽으로 시체를 싼다는 말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생이 얼마 없으니 어찌 애석해할 것이 있을까.

○망국의 역신

입으로 충군애국을 외치면서도 마음속에는 한 점의 진충(盡忠)의 적성(赤誠)이 없다. 겉으로 양신현재(良臣賢才)의 모습을 가장하고 뒤로는 한 조각 보국(報國)의 단심(丹心)이 없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이 터지는 날을 맞이해 낭패하고 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 조정의 여러 관리가 이번의 패전 보고를 접하고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질질 도망치고 싶어 하고 그중에는 비밀리에 집안의 재산을 고향 등으로 운반하게 한 자가 많다고 한다. 임금의 녹을 먹는 정신(廷臣)으로서 임금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꾀한다. 아무리 조선의 말로(末路)가 그렇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평할 것인가. 사자 몸속의 벌레란 그들을 말하는 것인가.

○목멱산의 봉화

목멱산(木覓山)은 경성의 남산이다. 이 주변에서 동쪽은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있어 그 풍취의 아치(雅致)가 있다. 소객운사(騷客韻士)가 때때로 지팡이를 끌고 오는 곳이라고 한다. 산줄기에는 많은 봉우리가 튀어나와 있고 높은 정상에는 5개의 봉화대가 있어서, 국내 팔도의 포선(炮線)은 여기서 만난다. 모든 조선에서는 사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데는 반드시 봉화를 사용하는데, 등대를 설치해 조선 팔도에 대략 365개소가 있고 간봉(間烽)의 수가 280여 개소 있다. 등화는 야간에 한 점의 불이 있으면 무사하다는 소식이고, 두 점이 있으면 이변이 있는 것이고, 또 백주(白晝)에는

장작 등을 태워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신호로 삼는 방법이라고 한다. 과연 이 목멱산의 등대에 두 점의 연화(烟火)가 하늘에 떠오르는 때를 보는 일이 없다면 조선의 다행이다.

○국왕의 피난지

조선국에서는 일단 비상한 일이 있을 때 국왕의 피난지로 지정된 곳이 있다. 종전에는 강화도가 그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영병(營兵)이 없으므로 만일 동학당 등이 경성에 침입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국왕은 먼저 궁궐의 후방에 위치한 북한산의 산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산성은 수목을 벌목하고 암석을 깎아 주위 1리에 견고하고 두터운 담을 쌓고 뒷산의 골짜기로부터 용수(用水)를 가져와 마치 절구를 쓰러뜨리고 그 윗면을 뚫어 가옥을 지은 것 같다. 언뜻 보면 포대를 방불하는 성채이기 때문에 양식과 탄약이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한 명이 이를 지킨다 해도 만 명의 병졸로도 어찌하기 어려운 요해지(要害地)이므로 용이하게 침입할 수 없다고 한다.

○조선 조정의 임시변통

조선 조정이 허세를 부리고 한편으로 관군의 용맹을 가장하고 한편으로 여러 외국에 대해 그 위세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적은 첨지(貼紙)를 경성의 사문에 붙였다고 한다. 조선 조정의 고심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지난 22일 초토(招討)와 심영(沁營)의 양군이 함평의 적도를 습격해 20여 명을 살육하고 또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마침내 최(崔), 정(鄭) 두 거괴(巨魁)를 생포하였다. 적군은 떨고 두려워 밤에 도주하는 자가

있었다. 전주의 불안정한 상황은 조만간 진정될 것이다.

○ 형세 조금 절박

전지(戰地)에서 날아온 전보는 추가로 우리에게 수많은 근황을 제공했는데 다음과 같다.

- 청군은 아산에 모여 있는데 대략 1천 5백 명이다.
- 러시아 상비함대, 조선 근해에 오다.
- 영국 군함, 거문도에 있는 것이 대략 3~4척.
- 이홍장은 위해(威海), 대고(大沽) 양 병영으로부터 추가로 병사 3천여 명을 징집하였고 계속해 출병 준비 중이다.
- 동학당이 경성 8리 밖에 다가오고 있다.
- 적도(賊徒)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경성 각 문의 수비병을 늘렸다.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즉각 봉화를 올릴 준비를 하였다. 경성의 상업은 완전히 쉬고 있고 인심은 흉흉하다.
- 경군(京軍), 장성(長城)을 압박하다. 동군(東軍)은 싸우지 않고 전주로 달려가 농성하는 병사들과 합쳐 억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경군은 이를 독촉하였으나 도무지 되돌아보지 않는다.

○ 조선의 위기

가볍게 이를 간과할 때는 사사로운 도적의 봉기일 뿐이고 폭도의 봉기일 뿐으로 허풍스럽게 말할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무겁게 이를 바라볼 때는 실로 동아(東亞)의 교섭사건이다. 계림팔도(鷄林八道)만의

일이 아니다. 대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남방이 가장 개발되어 있고 인구가 조밀하므로 물산이 풍부한 점에 이르기까지 원래 북방이 미치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요란(擾亂)의 주동자인 동학당이라는 것은 실로 남방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일어났다. 특히 인지(人智)의 진보의 점에서도 역시 지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라, 충청 양도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조선 정부로서는 이를 봉기하는 폭도로 보아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동학당이 최후의 결심으로 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그들의 행동거지로 볼 때, 굳이 북상해서 왕도(王都)인 경성으로 육박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또 왕사(王師)를 볼 때는 이를 피하여 항거하지 않는 듯한 거동은 아직 때가 아니므로 잠시 유예하는 것인지, 어쩌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지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연구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그들이 척왜(斥倭), 척양(斥洋)의 깃발을 내세우고 안으로는 정치의 적폐를 개량할 것을 기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적인 정신을 빌려 명목을 크게 한 흔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 내실은 크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실로 그들은 가렴주구하고 포학하기 그지없는 이권(吏權)의 압제에 반항하여 왕성하게 봉기한 것으로, 이른바 국민적 대 동맹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대개 전제국의 관습으로 위로부터 아래에 대해서는 엄밀히 제재하여 이를 압복(壓伏)하게 할 수 있지만, 아래 백성이 장상(長上)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에서 민심의 불평이 폭발하여 봉기가 되고 나아가 혁명군화되기에 이르는 것은 전제국에서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제 눈을 돌려 조선국 내부의 상황을 관찰해 보면 또한 말을 참을 수 없는 점이 있다. 고식(姑息)하고 안일함을 탐하는 것은 이 나라 온 조정의 정책이고, 관기 문란은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정권은 모두 한두 권문이 우롱하고 있고, 관리들과 궁첩(宮妾)의 무리는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고, 아래로는 폭관오리(暴官汚吏)의 지방관이 있어 탐학함에 질릴 줄 모른다. 아! 상하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가 위태롭다는 말은 제쳐 두니 조선을 위해 한심함을 참을 수 없는 바가 있다. 동학당이 분연히 궐기하여 정실(情實) 타파를 진두에 내세우고, 그들이 꿈에 취해 잠들어 있는 조정을 향해 일대 타격을 가해 임금 곁의 간사한 무리를 일소함으로써 요운괴무(妖雲怪霧)를 없애 버릴 것을 열망함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그들의 충정과 고심의 결과 왕성하게 일어난 천장(千丈)의 기염(氣焰)은 큰 파도를 불러일으킬 때라고 믿는다. 아! 팔도 1천만의 인민 가운데 어찌 다혈성을 지닌 한 사람의 영웅 남자가 없을 것인가.

동학당은 매우 큰 세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거의 팔도의 초목이 널리 바람에 쓰러지듯이 퍼졌다. 그들의 수령은 최모(崔某)라 칭하고 또 정모(鄭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파괴적인 대동단결이다. 당 사람들의 의견은 능히 실행으로 나타났다. 오합의 약졸이라며 경멸할 수 없는 것은 실로 여론을 응결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관군은 연전연패하였고 추토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제2의 원군은 양군이 아직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찍이 이미 군기를 상실하고 혹은 익산에서 혹은 임피에서 패전 소식이 계속 이어졌다. 동군(東軍)이 크게 일어나 북상 길에 올랐다는 보도는 그렇게나 권세가 높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씨 일문(一門)의 무리로 하여금 얼마나 낙담하고 낭패하게 하였겠는가. 그들은 모두 기색을 잃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마침내 외국 군 차입을 논의하여 원군을 청국에 청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는 동맹을 맺은 열국(列國) 가운데 홀로 청국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을 보고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통교상 가장 친했던 점에 의한 것인가, 또는 조선 조정이 스스로 청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것인가. 어쨌든 당당한 독립의 깃발을 휘날리는 정부로서 구구한 내란을 진정할 수 없어서 원군을 외국에서 구한 것보다 큰 국욕(國辱)은 없다. 그렇지만 가문이 있음을 알면서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있음을 알면서 임금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조선 조정의 많은 관리가 이러한 때에 나온 것 또한 괴이한 것이 아니다.

조선국의 서북은 러시아와 청과 경계를 접하고, 동쪽은 일위대수(一葦帶水)의 관계에 있는 우리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뜻은 실로 조선에 있다. 청국 또한 항상 엄유(奄有)하려는 뜻을 잊지 않고 있다. 조선은 망할 것인가. 청국은 매몰차다. 조선은 청에 속할 것인가. 영국이 즐거워하는 바로 영국은 사실 러시아의 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과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다. 계림(鷄林)의 들판에 어찌 타인의 소리를 허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로 동양의 발칸반도인 까닭으로 하나의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천하의 이목이 이에 쏠려 그 성패 여하에 주의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한나라 가의(賈誼)가 지금 때는 다른 사람의 장작을 안고 불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39] 조선의 형세 또한 이와 매우 비슷한 점이

39 다른……하였는데 : 조화적신(厝火積薪). 불을 장작더미 밑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비유적으로는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

있다. 조선이 한때 고식주의의 정략을 행하여 어찌 능히 지킬 수 있을까. 5백 년의 성상(星霜)을 경과하여 완전히 망국의 길로 진입하고 있는 이씨(李氏)의 천하는 사태가 급급하여 매우 위험하지 않은가.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天佑俠

됴코 신진사 발행
東京新進社發行

갑오년(甲午年, 1894) 여름 동학당이 한산(韓山)을 어지럽히자 천우협이라 칭하는 한 무리의 신주(神州)[1] 건아(健兒)가 피로 맹서하여 이에 기발한 계책을 꾸미고, 신과 같이 분격(奮擊) 돌전(突戰)하여 질풍(疾風) 신뢰(迅雷)의 기세로 남한 56주(州)를 유린(蹂躪)하고 마침내 일청전쟁을 격성(激成)하였다. 하늘과 땅을 감동시킨 매우 장쾌한 활극은 그들 천우협이 침묵하여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극동의 풍운이 다시 매우 험악해져 몹시 어둡고 참담하니 급히 변화가 찾아오려 한다. 이에 반재(半載), 대뢰야(大雷耶), 대우야(大雨耶) 논의가 필경 세상에 효과가 없는 시기에 특히 이 책을 간행하여 공개한다. 이 안에 어찌 한 조각 하찮은 뜻이 없겠는가.

천우협(天佑俠)

길주우(吉州牛)[2]

태평가(太平歌)

태평가를 500년간 불러왔으나, 장작을 쌓아 놓고 밑에 불을 넣어[3] 앉

1 신주(神州) : 일본을 가리킨다.

2 길주우(吉州牛) : 저자명 '吉州牛'는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의 별명으로 보인다.

3 장작을……넣어 : '조화적신(厝火積薪)'은 한나라 가의(賈誼)의 『신서(新書)』「수녕(數寧)」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의 형세는 마치 불을 땔감을 쌓아 두는 곳의 아래에 두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며 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쌓아 놓은 장작 무더기 아래에 불을 두면 당장 불이 피어오르지 않고 얼마 동안 지나서야 비로소 피어오를 것이니, 매우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서 잠을 탐하네.

역수(曆數)[4]에 조짐이 있어 정도령(鄭道令)[5]을 생각하나, 팔도에는 거꾸로 매달린 상황[6]을 풀어 줄 사람이 없네.

삼남에서 때때로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태산이 조각구름 불러오려 하는데[7]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누군가는 손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베개를 어루만지며 개탄하네.

동학 교주 최제우[8]가 세상을 건질 마음을 먹고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니 명성이 한 시대에 높아지자 함부로 행동하기를 경계하고, 10만의 교

4 역수(曆數) : 역년(曆年)의 운수(運數)라는 뜻으로, 구왕조가 교체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 또는 왕이 천명을 받아 제위에 오르는 것을 비유하거나, 천지 일월성신이 운행하는 도수(度數)를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신구왕조의 교체를 비유하는 것으로 본다.

5 정도령(鄭道令) : 『정감록(鄭鑑錄)』이라는 조선 시대에 널리 퍼진 예언서에서 조선 왕조가 망한 뒤 정도령이 나타나 정씨 왕조를 세우고 계룡산(鷄龍山)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6 거꾸로 매달린 상황 : '도현(倒縣)'은 즉 '도현(倒懸)',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다. 극도의 곤경이나 위급함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醜上)」에서 나온 말로, "지금과 같은 때를 당하여 만승의 나라가 어진 정치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옛사람의 반만 하고서 효과는 반드시 옛사람의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지금만이 그러할 것이다." 하였다.

7 태산이……하는데 : '촌부(寸膚)'는 옛 척도(尺度)의 이름인데, 한 손가락의 넓이를 '촌(寸)'이라고 하고, 네 손가락 넓이를 '부(膚)'라고 칭하였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희공 31년(僖公31年)에 "태산의 구름은 돌에 부딪혀 나오고, 조각조각 모인다."라는 말이 있다.

8 최제우(崔濟愚) : 1824~1864. 동학의 창시자 겸 제1대 교주다.

도들을 한 어깨에 짊어졌네.
민중이 시사에 격분하는 걸 참지 못해, 우격(羽檄)[9]을 날리자 인마 소리가 요란해지니,
(그는) 염주를 손에 쥐고 총을 들고 일어나, 대궐문을 밀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송사하려고 맹세했네.
전주에서 북쪽을 가리키며 천자를 배알하고, 남쪽의 영남과 호남의 형세는 이을 만하네.
전략으로는 오직 전봉준[10]을 높이 추대하고, 수많은 군마가 하무를 입에 물리면서[11] 겹겹의 산을 넘는데,
밤 연회의 술이 덜 깬 새벽안개 속에 온 성이 허겁지겁 울리는 활시위 소리에 놀라네.
군령이 12개 깃발에 명확하니, 성 아래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네.
조괄(趙括)[12]이 투항을 받아 달라 요청하듯이 관군들이 번번이 패전하였으나, (동학군) 진영에서는 법연을 열어 강론하네.
삼남은 이미 관료들의 것이 아니니, 서울로 말안장을 조르는 것이 좋을 게다.

9 우격(羽檄): 옛날에 전쟁 시에 아주 급한 뜻을 표시하기 위해 새의 깃을 꽂은 격문이다.

10 전봉준(全琫準) : 1855~1895. 동학농민혁명 총 지도자이다.

11 하무를 입에 물리면서 : 원문의 '함매(銜枚)'는 군사가 행진할 때에 떠들지 못하도록 군졸들의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리는 일을 말한다.

12 조괄(趙括) : 중국 전국(戰國) 시대의 조(趙)나라 장수다. 수성(守城) 전략을 버리고 대거 공격에 나섰다가 진(秦)나라의 장수 백기(白起)에게 포위되자 탈출을 시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의 군사 40여 만 명이 포로가 되어 생매장되었다.

불길이 사방에 번지고 천둥은 터지니, 강화도의 친위군이 세찬 물결을 휘감네.
백성을 위해 백성을 죽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온 도성의 백성들을 보전하고 퇴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본의 남아는 의로운 담력이 있으니, 하늘이 협객들을 도와주고 천자는 권력을 하사하시네.
벽력술(霹靂術)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비밀히 얻고, 긴 소매에 교규권(蛟虯拳)을 잘 감추네.
비 오는 어두운 밤에 가락국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달이 뜨기 전에 광한루에서 피를 마시네.
하늘과 땅을 뒤집는 일이 손가락을 튀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테니, 천백 명은 어린 15인으로 대적하도다.
하늘이 도와줌에 감응한 하늘의 협객들이, 일본에서 멀리 연기 싸인 계림을 바라본다.
하늘의 협객들이 서로 뜻을 합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니, 순창의 장청에서 천생의 연분을 맺는다.
8명의 장수들이 늘어서 있어 마치 빛나는 천둥과 같고, 빈객들이 예의를 갖춰 단상으로 올라가 마치 신선과 같도다.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밝은 태양을 향해 맹세하니, 도를 논하고 전략을 논함에 단상에서 바람이 인다.
대도라면 큰 반역을 행해도 괴상하지 않고, 비밀한 계획도 본체로 보면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은 것이네.
고을을 순행하면서 형세를 벌이다가, 갑작스레 기이한 계책을 놓고 서울길로 들어서네.

그대가 운봉에 도착하면 그대 말을 세우고서, 선계에서 내려온 듯 온 고을에 격문을 전하게.
계룡산에 있는 나는 내 방문을 닫고, 7월 초에 어지러운 낙천을 향해 채찍질해 가리라.
기이함 중에 기이함이 있어 기이함에서 기이함이 생기며, 언약 속에 언약이 있어 언약이 더 견고하도다.
가는 듯 오는 듯 숨기고 드러내기도 하면, 신묘한 변화를 누가 감히 그 실마리를 추측할 수 있겠는가?
천우협이여, 동학당아, 구천(九天)을 움직이고 구천(九泉)에 잠기리라.
원컨대, 전에 없었던 위대한 공을 함께 세워서 대조선의 태평가를 길이 노래하세!

위에 실은 한 편의 장가(長歌)는 보령산인(保寧山人)[13]이 동지와 함께 계룡산(鷄籠山) 신원사(新元寺)에서 농성하던 날, 진중(陣中)이 무사한 가운데 시 짓는 마음을 펼쳐 단숨에 완성한 것으로 실제의 경황(景況)을 잘 옮겨 놓아 일일이 신에게 바쳤다. 이를 취해 천우협의 책머리에 싣는다.

중원에서 패권을 다시 다투니 붓을 던지고 싸움터로 나서다

이씨(李氏)의 아들이 그 정치를 잃어버려 5백 년의 천하에서 흰 빛깔의 무지개가 해를 뚫고 걸치는 것[14]이 벌써 몇 번인가. 호서지방의 한

13 보령산인(保寧山人) :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의 필명이다.

14 흰 빛깔의……것 :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 군주를 쓰러뜨리는 전조를 말한다.

점쟁이는 계룡산으로부터 새 천자가 발상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고을에서 이를 믿고 민심이 점차 움직였다. 마침내 조정에까지 들리게 되자 이를 파괴하려고 한 적이 있다. 영남의 도시와 시골에는 소문이 있어 말하기를, "지금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봉토(封土)의 반은 러시아로 들어가고 반은 일본에 속해 한인은 모두 그들의 노비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미리 멸망을 대비해 향배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강원도에서도 역시 터무니없는 소문이 있어 "이씨를 대신해 정(鄭)씨가 금강산 이어진 봉우리 속 짙은 연기와 깊은 안개 사이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몸가짐이 정중해 갑자기 나서지 않겠지만, 한 차례 나서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파쇄(破碎)되지 않을 수 없고 경군(京軍)은 갑옷을 벗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남 사람들 역시 여행객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천자(天子)는 연기가 있는 구름이 아득히 떠다니는 바닷속의 한 섬에 숨어 살았다. 그 일대는 자색 구름이 끊임없이 감싸 관병이 와서 토벌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가의 상서롭지 못한 조짐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방으로부터 전해져 인심을 소란하게 하고 전국을 매우 놀라게 했다. 마침내는 뜬소문을 믿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머지않아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확언하며 학수고대하는 자도 있었다. 생각하면 지금 이씨의 운명은 얇은 얼음을 밟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때에 바야흐로 이른바 민란이라고 하는 혹은 백성의 봉기라고 하는 일들도 계속되었다. 각 주군(州郡)으로부터 발발하여 지방정치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중에서도 국내외의 이목을 크게 자극한 민란은 충청도의 산군(山郡)인 보은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영

남, 호서 양도를 혼란시킨 동학당인의 거병이다. 이 소란에서 도주(道主, 大監督)인 최시형(崔時亨)이 스스로 당인(黨人)의 총독을 맡고 서병학(徐丙學),[15] 손해중(孫海中),[16] 황하일(黃河一)의 각 접장(接長, 감독)이 좌우익이 되었다. 상주의 옥토를 장악하고 추풍령의 험한 요지를 움켜쥐고 왕성히 원근 지방에 위세를 떨쳤으나, 하늘이 도움을 주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강동(江東)의 자제(子弟)[17]가 차례로 점차 사방으로 흩어지고 패업을 도모하는 웅대한 마음이 마침내 신장되지 못하여 대사가 헛되이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조선에 동학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그 일거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학당인의 첫 번째 거사는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원래 폐망의 형세에 빠진 조선에서는 관리의 포학함이 도를 지나쳐서 백성의 원망이 더욱 강해지고 가렴주구가 심해져 죽창과 돗자리 조각으로 만든 깃발을 든 소요를 제거하려 해도 다시 제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3년 말부터 1894년 봄에 이르기까지 북도와 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이 흉흉해졌다. 그 기세는 그칠 줄 모르고 격해져 중화(中和), 길주(吉州), 함안(咸安), 김해(金海)의 각 군에서 자주 백성들이 몸을 던져 분기하는 일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해의 윤자익(尹子益) 같은 경우는 2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군의 대산면(大山面)에서 일

15 서병학(徐丙學) : 일명 서병학(徐丙鶴)이다.

16 손해중(孫海中) : 손화중(孫華仲・和中・化中)의 오기이다.

17 강동(江東)의 자제(子弟) : 두목(杜牧)이 항우(項羽)의 일을 두고 지은 시 「제오강정(題烏江亭)」에 "강동의 자제들 중엔 호걸들도 많으니, 권토중래했다면 뒷일을 알 수 없으리.〔江東子弟多豪俊 捲土重來未可知〕"에서 나온 말이다.

어나 마침내 잔학한 부사(府使)를 추방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리를 대신해 유배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민란에서는 모두 한 지방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대국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미 한 명의 관리를 퇴치하여 마침내 백성의 원수를 없애고 나면 난(亂) 또한 갑자기 잦아들어 지난날의 분란의 흔적이 멈추는 것이 상례였다.

여기에 호남 태인(泰仁) 지역의 향사(鄕士) 전봉준(全琫準)이라는 자가 있다. 연령은 40세로 지식이 박학하고 대담하며 신중하고 기개가 있어 과감하게 결정한다. 어려서부터 동학의 개조(開祖) 최제우(崔濟愚) 곁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당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망(衆望)이 있다. 이로 인해 마침내 추대를 받아 접장(接長)이 되어 대단한 명성이 점차 남부 3도에 울렸다. 최시형이 앞서 경상도와 충청도에 무(武)를 보이자 전(全)은 모든 사람을 구제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이에 호응하려 하지 않았다. 홀로 물러나 호남의 벽지에 숨어 한적하게 바위굴에서 살며 스스로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었다. 오직 교(敎)를 위해 열심히 다하는 바가 있어 중망(衆望)이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전봉준도 패기가 매우 풍부한 자로 어찌 대업을 도모하지 않고 일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살아가며 헛되게 보낼 수 있겠는가. 단지 그의 도량과 재간은 당시 사람에 비해 매우 크고 넓으며 안목과 식견 역시 매우 웅대한 자이다. 그러므로 민생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에 한 번 생각이 미치자 연상(連想)[18]하여 곧바로 국가 흥폐의 일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씨의 발호에 분노하고 왕비의 음란하고 방탕함을 걱정하는 것이 대단

18 연상(連想) : 산에서 강을 떠올리듯이 한 가지 관념에 유도되어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개념을 생각해 내는 일이다.

했다. 즉, 천하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원흉을 없애야 한다고 보고 조용히 시골에 있으면서 본심을 숨기고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 인접한 고을인 고부(古阜)의 군수가 매번 세력에 의지해 권력을 휘둘러 백성의 원망을 돌아보지 않고 억지로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 당정상(黨政上) 고부는 그가 임명된 접장의 구역 안에 속했다. 그러므로 그와 친한 사람과 그의 당인(黨人)은 앞다투어 모두 그의 곁에 모여 그가 빨리 봉기하여 큰 수완을 발휘할 것을 권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쉽게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대단한 명성을 따르는 당원 밖 주변 지역의 사람도 역시 그를 방문해 함께 봉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안색이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여 움직임이 없고 기가 세어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않았다. 아!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한때 일이 격해져 스스로 희생이 되어 구구한 일개 군주(郡主)를 제압하더라도 그 화근을 영원히 끊어내지 않는 한 다시 다른 나쁜 관리가 와서 이를 대신하고 전임자의 경험에 따라 오히려 더한 폭정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이와 같다면 향촌 사람들에게 도움 되지도 않으면서 당력(黨力)을 손상하는 바가 많다. 그가 다년간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회를 기다리며 봉기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니, 그와 같은 인물은 정말로 천 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다. 국가가 위급하여 존망이 걸린 시기에 가볍게 처신하여 진퇴의 적절함을 잃는다면 국가 역시 그와 함께 멸망할 것이고 종묘(宗廟) 역시 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그가 처신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러한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남아이다. 세상에 처하여 어찌 일개의

큰 야심, 한 조각의 큰 공명심이 없을 것인가. 그리하여 여러 차례 담판하여 마침내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은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연히 그 속마음을 토로하며 말하였다. "여러분의 뜻이 이미 의(義)를 위해 죽는 것에 있다면 나 역시 어찌 무리하게 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단지 내가 바라는 바는 동학의 이른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제세안민(濟世安民)의 대의를 신장하는 데 있다. 하나의 도(道)를 어지럽혀도 죽임을 당하고 팔도를 어지럽혀도 역시 죽임을 당한다. 죽는 건 똑같으니 바라건대 일의 공(功)이 큰 것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의 뜻이 다행히 이렇게 결정한다면 나 역시 분발하여 그 뒤를 따르며 혈육을 걱정하지 않고 결연하게 도를 위해 죽을 뿐이다. 감히 여러분의 결심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말로 그의 진면목이다. 아니, 이는 단지 진면목임에 그치지 않아 그가 오랫동안 준비를 갖추고 일어나지 않았던 깊은 뜻이 어쩌면 기회를 봐서 일반 중인(衆人)의 합의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애초에 그를 태산(泰山)이나 북두(北斗) 이상으로 떠받드는 중인은 곧바로 그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의 만세를 칭하고 그를 떠받들고 뛰면서 그와 함께 그의 초가집에서 궐기하였다.

그는 폭리(暴吏)가 점거하는 관아를 공격하여 부수고 이곳에 쌓인 재물과 곡식을 오랫동안 곤궁하고 피폐한 군민(郡民)에게 베풀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 조치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를 더욱 흠모하게 만들었다. 그의 의군(義軍)은 만 1개월 만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자로 인해 수만 명에 이르렀고, 그의 명성은 날마다 더욱 퍼졌다. 당군(黨軍)이 이르는 곳은 백성들이 간소한 음식〔簞食壺醬〕을 내놓으며 환영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다시 격문을 다른 읍에

보내 거병의 요지를 삼남 소재의 제호(諸豪)에 알리고 함께 약속을 맺고 힘을 합하여 임금 측 간신 제거하기를 꾀했다. 제호 가운데 이에 응하는 자가 잇달았다. 장흥의 이옹(李翁)은 80여 세의 노구를 던져 군민을 부추겨 일으켰고, 순천의 이복룡(李福龍)은 약관 14세의 나이로 4만 명의 의병을 일으켰다. 봉화 연기가 천 리에 이르렀고, 정기(旌旗)가 들판을 덮어 각지로부터 당당하게 전주 감영을 압박해 왔다. 관군으로 토벌에 나선 자는 이를 한 번 보고 기력을 상실하고 낙담하여 다시 능히 홀로 싸우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장수와 재상들 역시 모두 낭패하여 여러 논의가 나오는 곳을 몰라 공포가 극에 달했다. 마침내 대청국에 천병(天兵)을 청하여 겨우 이를 통해 당군을 위압하려고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호서(湖西)의 한 점쟁이의 말은 전혀 맞지 않았다. 영남, 강원의 유언비어는 아직 그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호남 사람이 말하는 바는 이제 겨우 사실에 접근하려고 하여 56개 지역[管]은 바로 그 병마(兵馬)가 참으로 분주한 아수라장이다. 나아가 전봉준은 그들의 이른바 새로운 천자로서 이씨 왕조를 대신할 운명을 지닌 자가 아닌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앞으로 만리장구(萬里長驅)의 기세로 조선의 남부지방을 석권하기에 이르러 마음속에 가득 찬 패기가 마침내 개남국왕(開南國王)의 존호(尊號)를 자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즉 하늘의 역수(曆數)가 반드시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일본]에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큰 인물이 없어 그로 하여금 헛되이 제세흥국(濟世興國)의 큰 뜻을 가지고도 구천(九泉)으로 가게 한 것은 애석하다.

한산(韓山) 팔로(八路)의 소란은 지금 극에 달해 오만한 청국은 쓸데

없이 조선에 원병을 보냈다. 해가 뜨는 나라[19]에서 아득히 이를 관망하니 팔뚝이 떨리고 피가 솟는 자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단지 시세가 점차 나약함으로 흘러 만리(萬里)의 건업(建業)을 꿈꾸는 자가 없고, 상하가 한때의 편안함으로 이를 잘되었다고 한다. 우연히 비범하고 파격적인 자가 있다면 그 행동을 지적하며 광폭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지만 지사(志士)와 군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직 의기양양하여 다소 함께 말할 만한 자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청년 사관 30~40명을 한 무리로 삼아 작은 배에 총과 화약을 싣고 한밤중에 달려서 전라도 바다의 파도를 물리치고 어느 지점으로 상륙하여 동학당에 합류하려고 기도한 자가 있었다. 또 어떤 자는 홋코쿠(北國)와 규슈(九州)에서 나이 어린 기예(氣銳)의 장사 50~60명을 모아 이들을 보내 동학당의 세력에 가담할 것을 계획하고 번갈아서 은밀히 행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때는 늦고 그때는 빨랐다. 의외로 총 세력이 15명에 불과한 한 무리의 협도(俠徒)가 갑자기 일어나 경상도의 남부 마산포 일각으로부터 전라도의 내지로 돌입하여 대담하게도 어두운 밤에 수만 명의 동학당 진문(陣門)을 두드려 나라의 정세를 일변시키는 큰 수완을 해외에 펼치려 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선을 제압당한 지사, 군인의 유감은 상당하였다.

한 무리 15명의 협도란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가. 당시 세상에 알려진 천우협(天佑俠)이 그이다. 가정하고 묻는다. 그들 15명은 당초부터 뜻을 하나로 하여 조선으로 건너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개개인의 뜻으로 분기하여 중도에 의기투합하게 된 것인가. 조금 후에 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19 해가 뜨는 나라 : 일본을 말한다.

그들의 정신에서는 개개인 간 원래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계통, 출신에서는 모두 각기 서로 다른 점이 없지는 않다. 지금 그 출신을 구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경성파: 다나카 지로(田中侍郎), 세키야 오노타로(關屋斧太郎), 혼마 규스케(本間九介), 사바타 고마지로(柴田駒次郎) 등 여러 명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1891~1892년경부터 경성에 있으면서 관풍(觀風)의 지사를 불러들이고 1894년 봄에 사정이 있어 부산파와 합동한 자들이다.

(2) 부산파: 1893년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가 조선에 다시 건너올 때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 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를 동반해서 간 뒤 지쿠젠(筑前)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 치바(千葉)의 구즈오 슈스케(葛生修亮), 쓰시마(對馬)의 오쿠보 하지메(大久保肇) 기타 수 명과 부산에 호걸들이 모이는 곳〔양산박(梁山泊)〕을 구축해 이곳에서 2년 동안 있었다. 그사이 시종 조선의 내란과 개도(開導)에 뜻을 기울였는데 마침내 경성파를 포용하여 평판이 더욱 높아졌다.

(3) 지쿠젠파(筑前派): 세키야 오노타로와 요시쿠라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지와 함께 지쿠젠으로 가서 별도로 행동하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천진관(天眞館)의 우치다 기노에(內田甲)[20]가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 등과 함께 조선으로

20 우치다 기노에(內田甲) :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의 이전 이름이다.

가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듣고 세키야가 꾀하는 바가 있었다. 우치다가 그 준비를 국내에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백방으로 중지를 권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겐요샤(玄洋社)의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와 함께 앞서 조선으로 들어갔다.

(4) 이륙파(二六派): 부산에서 경성, 부산 양파의 합의에 의해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를 도쿄로 파견해 스즈키 지카라(鈴木力) 등을 불렀고, 조선으로 들어갈 때 도키자와 우이치(時澤右一)가 오사카에서 이에 가담했다.

이상 4파가 서로 만나 부산에서 마산포로 건너가 봉화 연기를 창원의 광산에 올려 몇 군데의 활연극(活演劇)이 이로부터 생겨났다.

부산 대본영의 동정

경성의 양산박이 사정이 생겨 함락된 이래 부산은 바로 그들 일당에 대해 중앙 대본부의 형세를 이루었다. 그들은 득의양양하게 이곳에 지반을 차지하고 잠시 시와 술 사이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오랫동안의 패기를 숨기는 것 같았다. 경상도의 산하는 아직 그들이 평생 무사할 날을 위해 연무(鍊武)하는 좋은 장소임이 분명했다. 그러는 동안에 함안(咸安)에 일이 있다면 그들은 곧바로 달려가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김해(金海)에 난이 발생하면 역시 가서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잠시라 하더라도 그들이 큰 임무로 삼는 바에 이르러서는 바로 진력을 다해 그들도 역시 수고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재일우의 때가 찾아왔다.

호남의 풍운은 하루하루 더욱 험악해져 토벌에 나선 관병이 패주하고 이어지는 성(城)과 읍(邑)을 동학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다. 영남의 땅 역시 그 산군(山郡) 일대가 침략당하려고 한다. 형세가 매우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 그들이 어찌 날뛰며 이 호기를 놓칠 것인가. "일찍이 겸창원우부(謙倉源右府)[21]의 묘에서 아뢰기를, 내가 대명(大明)을 정벌하고자 하는데 너는 어찌 여기는가. 대장부가 마땅히 만 리 밖에서 무위를 펼쳐야지, 어찌 노쇠한 작은 섬에서 우울하게 있겠는가." 그들이 술을 마시며 매일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주저하고 머뭇거려 평생 기대하던 바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그들이 단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산수명각(紫山水明閣)[22]의 회의

시기(時機)는 그들을 이끌어 어느 날 밤, 부산의 산자수명각(山紫水明閣)에 일당의 대회를 개최하게 했다. 그 자리의 주요한 자가 먼저 말하기를, "어찌할까. 우리 무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바를 결정하자."라고 하자 한 사람이 그에 응해 "제일착(第一着)으로 사(士)를 사방으로부터 불러들이자."라고 말하였다. 무리는 달리 이의가 없었다. 즉,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를 도쿄(東京)로 파견해 스즈키(鈴木)와 상의하도록 했다. 또 한 명이 말하기를, "산길은 이미 급하

21 겸창원우부(謙倉源右府) : 가마쿠라(鎌倉) 막부(幕府) 시기 제3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자 우대신(右大臣)을 역임한 미나모토 사네토모(源實朝, 1192~1219)를 말한다.

22 자산수명각(紫山水明閣) : '산자수명각(山紫水明閣)'의 오기로 보인다.

다. 우리 무리가 마땅히 신속하게 동학의 형세를 살펴서 다른 사람과 합종연횡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무리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곧바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를 성주(星州), 김산(金山) 지방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방침이 거의 정해진 바이다.

두 명의 박(朴)씨, 산길로 동학당 사정을 탐색하다

다케다와 치바 두 사람은 박선오(朴善五), 박선칠(朴善七)이라는 이름의 약장수로 분장하였다. 이들은 밀양(密陽)에서 청도(靑道)로 들어가 대구부(大邱府) 주동(蛛洞)의 호족 서상룡(徐相龍)을 방문했고, 다음 날 저녁 무렵 겨우 김산 읍문(邑門)에 도착했다. 백성이 수만 명이고 시장 입구는 시끄러워 형세가 매우 평온하지 않았다. 박선오가 여행객에게 그 동정을 물어보았더니 "동학의 여당(餘黨)이 근처에 출몰해 인심이 자주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박(朴) 등은 흔쾌히 술집으로 가서 숙소를 정하고 밤중에 거리에서 달을 감상하며 시를 읊으며 돌아다니는 척하며 더욱 무리의 사정을 탐색하려고 하였다. 맞은편에서 갑자기 한 위인이 길을 막고 흘겨보는 자가 있었다. 그가 불러 말하기를, "와서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자. 나를 따라 주막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였다. 박 등은 속으로 조금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 한 주막으로 들어갔다. 위인은 자리에 앉자 방긋 웃으며 잔을 들어 말하였다. "그대들은 우리 동도(東道)의 참뜻을 아는가. 나는 그 도(道)를 사방에 선양(宣揚)하기 위해 밤마다 길거리에서 행인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박 등은 일이 의외로

진행되므로 처음에는 약간 낭패하여 의심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 밖에 순순하게 말이 오가고 지성(至誠)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적지 않음을 보기에 이르러 마음이 점차 편안해졌다. 그래서 새삼스레 이곳에 온 뜻을 알리고 그와 함께 동학의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최근 거병한 목적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 또한 흔쾌히 승낙하여 자세히 공명한 당정(黨情)을 알려 주었다. 또한 대의(大義)가 제중안국(濟衆安國)에 있는 까닭을 명확히 하고 그 비밀스러운 부적의 시상석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上席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23]라는 13글자를 주고 재회를 기약하며 술집에서 나왔다. 박 등은 이에 이르러 탐구하려는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별빛이 비추는 밤을 밤새 달려 부산의 수명각(水明閣)으로 돌아와 동지를 모아 보고하였다.

요시쿠라(吉倉) 먼저 출발할 결심

한편 청군이 원병으로 왔기 때문에 호남의 동학도는 잠시 의기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단 점령하여 호령(號令)의 근거지로 삼은 전주성을 다시 관군에게 넘겨주고 칼을 거두고 남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 번 이러한 기회를 잃는다면 그들의 대업을 다시 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성패는 지금 바로 한순간에 갈리려고 한다. 여기에서 요시쿠라는 동지와 상의하여 말하기를, "전에 도쿄에 파견한 오사키(大崎)는 아직 아무런 소식을 알 수 없다. 후쿠오카(福

23 시상석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上席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 동학의 핵심 주문(呪文)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가운데 '시천주'를 '시상석'으로 바꾸어 적었다.

岡)로 간 세키야(關屋)는 원래부터 성공을 기할 수 없는 바이다. 이 사이의 한 시각은 평상시의 10년에 필적한다. 우리들이 공연히 팔짱을 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동학도의 현 상황이 절박하여 헤아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 장부는 단지 죽음을 던져 대도(大道)를 행할 뿐이다. 나는 이 임무를 맡아 할 수 있다면 저 무리의 쇠퇴해 가는 형세를 만회하고, 만일 이룰 수 없다면 저 무리의 인걸의 목숨을 구해 일본으로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은 잠시 내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아 달라."라고 청하였다. 다나카(田中), 다케다(武田), 시라미즈(白水) 모두 그리하겠다고 하였다. 요시쿠라는 스즈키(鈴木) 등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단신으로 먼저 호남을 향한 여정을 시도하였다.

두 사람의 선발

때는 1894년 6월 24일. 부산 거류지의 교외 부평동(富平洞)의 대로를 여유 있게 걸어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손에는 홀(笏)을 잡고 머리 위에는 에보시(烏帽子)[24]를 쓰고 자색 빛의 웃옷을 걸쳤다. 비단실로 떠다니는 학이 그려져 있는 귀족의 평복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돌려보는 모습이 당대의 풍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길옆의 술집으로 들어가 탁주를 몇 잔 마신 뒤 얼큰해져 그곳을 나와 낭랑한 목소리로 읊조리며 구덕산(九德山)의 험한 비탈길을 기어올랐다. 가는 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연기와 안개가 흔들거렸다. 그날 타는 듯한

24 에보시(烏帽子) : 일본에서 관례를 올린 남자가 쓰는 검은 모자이다.

무더위 때문에 소쇄(消殺)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는 더욱 심기가 상쾌한 모양으로 계곡을 따라 달렸다. 머리 뒤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절규하며 말하기를, "요시쿠라 군, 또 혼자서 가지 마시게. 나도 진서(鎭西)의 남아(男兒)이네. 젊은이는 젊은이의 임무가 있으니, 함께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새끼를 잡아오세."라며 청하였다. 요시쿠라가 되돌아보니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소년 이노우에 도사부로(井上藤三郎)였다. 그는 나이가 불과 14살로 요시쿠라가 주간(主幹)하는 신문에서 문찬(文撰)하는 자이다. 그렇지만 천부적 자질이 정한(精悍)하며 기운이 칼처럼 날카롭고 준엄하고 의젓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이다. 요시쿠라 역시 항상 담대한 그의 행동이 당대의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즉, 쉽게 훈계하여 돌아가게 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그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왔느냐." 라고 묻자, 이노우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요시쿠라는 "그렇다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를 데리고 여행길을 서둘러 그날 밤 구포(龜浦)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고니시(小西) 장군의 성터를 뒤로하고 한 척의 배가 빠르게 구포나루를 지나 머지않아 아득히 넓은 낙동강 모래톱을 건너 여러 개의 물길을 지나 몇 번이나 사공을 불러 배를 저어 나갔다. 눈에 다 차도록 끝없는 풍광을 음시(吟詩)의 초고로 작성해 주머니에 넣어 두고 마침내 맞은편 강안의 김해(金海) 영내에 도달했다. 길옆에 게이초(慶長)[25] 시기 일본 무사의 큰 분총(墳塚)이 있다. 단풍나무와 상록수가 섞여 자라며 가산(假山)의 경치를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은

25 게이초(慶長) : 정유재란 시기의 연호이다.

술을 뿌리며 옛사람의 웅혼(雄魂)을 추모했다. 그러는 사이에 김해의 본부(本府)로 들어갔다. 이 땅은 옛날 가락국(駕洛國)의 수도로 일본의 신공황후(神功皇后)[26]가 여기에 상륙하여 삼한(三韓)을 초무(招撫)하셨던 곳이다. 이렇게 탐고(探古)의 정을 스스로 금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토(尋討)할 여유가 없어 잠시 후 의인 윤자익(尹子益)이 갇혀 있는 감옥을 방문하고 곧바로 마산포를 향해 출발했다. 마산포는 배편으로 전라도로 가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3일 정도 마산포에 체류하였는데 그동안 아직 배는 전라도를 향해 출발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의 전운어사(轉運御史) 즉,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인 정병하(鄭秉夏)를 방문하고 또 가토 사마노스케(加藤左馬之助)의 수성(水城)에 오르고 혹은 지역의 토속 인정을 보고 점차 기운이 왕성한 감정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들이 배편을 기다리기 위해 소비한 날짜는 한편으로는 동지 10여 명이 진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완성한 날과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도 뱃길을 통해 이곳에 와서 만날 것이라고 어찌 예상했을까.

본대(本隊)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행하다

같은 달 27일 요도가와마루(淀川丸)는 한 무리의 지사(志士)를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옮겨 놓았다. 스즈키(鈴木), 오하라(大原), 우치다(內田), 오사키(大崎), 구사카(日下), 도키자와(時澤)는 오전 10시에

26 신공황후(神功皇后) : 주아이(仲哀)천황의 부인이다. 201~269년 천황의 섭정으로 재위했다고 알려져 있다.

활기찬 모습으로 거류지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산자수명각(山紫水明閣)에서 만나 함께 앞날의 계획을 논의했다. 폭약 담당, 총포 담당, 군수품 담당, 의약품 담당 등 각기 나뉘어 자신의 임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들은 세상의 관심을 적게 받기 위해 일부러 무리를 수륙(水陸) 두 부대와 후진군(後進軍) 한 부대로 나누어 각기 행로를 달리하며 선마(船馬)로 동시에 나아가려 했다. 오하라, 우치다, 시라미즈(白水), 치바(千葉), 오쿠보(大久保), 구사카는 부민동(富民洞)의 지름길로 달려 다태고성(多太古城)의 야망대(夜望臺) 아래로 나와 여기에서 수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수군인 스즈키, 다나카(田中), 도키자와 세 명은 왜관 남쪽 해변에서 출발해 절영도(絶影島)를 돌아 서쪽으로 꺾어 낙동강 하구에 도달하고 다시 후진군의 다케다(武田), 오사키(大崎), 니시와키(西脇) 등은 쾌마일편(快馬一鞭)[27]과 같이 빠르게 구포로(龜浦路)에서 창원로(昌原路)로 나와 만나기로 했다. 수군은 이미 약속대로 다태(多太)에서 우치다 일행을 태웠다. 조선 바다의 파도는 잔잔해 천리의 다다미〔千里疊〕 같았다. 낙동강 입구부터 가덕도와 거제도 사이는 때로는 돛을 이용해서, 때로는 노를 저어 순식간에 달려나가 날이 밝을 무렵 마산만으로 들어갔다. 선발대인 요시쿠라도 역시 여기에 도착해 있어 그 무리와 함께 남원로(南原路)를 향해 말과 검이 우는 형세를 펼치며 나아가려 했다.

27 쾌마일편(快馬一鞭) : 좋은 말이 채찍 한 대면 천 리를 간다는 뜻이다.

김산(金山) 습격의 논의를 정하다

오전 7시 일행 11명은 장비를 정돈하고 말을 모으고 숙연하게 마산포의 길거리를 천천히 빠져나갔다. 2리 정도 가자 길은 부산의 회로(會路)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여기에 머물며 점심 식사 준비를 하였다. 오사키의 후진대와 만나기로 약속해 이곳에서 기다린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계곡물로 가서 목욕하거나 나무 그늘에 가서 낮잠을 자는 자도 있었다. 스즈키는 느티나무에 걸터앉아 가지 위에서 『삼국사(三國史)』를 펼쳤고, 요시쿠라는 녹음을 찾아 시원한 곳에서 『자사정화(子史精華)』를 읽었다. 그중에서도 쾌활한 것은 급선봉인 우치다가 힘이 세고 비만인 조선인을 추궁하여 무더운 더위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유도를 실제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 시간을 기다렸으나 오사키 일행은 도착하지 않았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대사를 그르쳤을 것이다. 우리들은 한가롭게 있으면서 헛되이 이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먼저 나아가 창원의 김산을 습격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우리들 역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의(衆議)도 마찬가지여서 다시 길을 서둘러 김산을 향해 달렸다. 이곳에 도착했을 무렵은 이미 날이 저물어 안개가 사방의 산을 완전히 뒤덮었다. 단지 황량한 정자의 등불, 계곡 사이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며 밤은 더욱 깊어져 개 소리가 헛되이 행인을 위협할 뿐이었다.

김산 야습(夜襲)의 실정

다이너마이트 약탈사건은 천하의 의문이다. 처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천우협의 소행이라고 하였다. 나중에는 그 약탈자가 누구인지 일체 불명에 부치고 끝났다. 천우협이 과연 그 약탈자인가. 천우협이 아니라면 천하에 또 누가 그같이 장렬하고 통쾌한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일시적 수단이었다고는 하지만 지사(志士)라는 자가 그와 같은 바르지 않고 의롭지 못한 거동에 나서는 것도 수상하다. 이 부분의 소식은 필시 기괴한 것이 없지는 않다. 나는 다음에서 그들을 위해 다소 설명하려 한다.

김산은 창원부성(昌原府城)에서 1리 정도 떨어진 산속으로 금장(金場)이라는 곳에 있다. 이를 소유한 자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사람인 우마키 겐조(馬木健三)이다. 그는 조선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십수 년 동안 이곳에서 채굴에 종사한 자이다. 올봄 독일인 기업 세창양행(世昌洋行)의 후원을 받아 간신히 기반이 세워지고 사업 역시 점차 성대해지고 있으며 광산용 화약을 쌓아 둔 것이 산과 같았다. 다나카는 과연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 산의 저장량을 조사해 두고 훗날 필요할 때 사용할 것을 기약했다. 그의 가슴속에는 이른 시기에 이미 차용할 계산이 서 있었던 것 같다. 하물며 일행 중에 요시쿠라, 오쿠보 등 평소 우마키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따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필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까. 일행이 기대하는 바는 이러할 따름이었다. 먼저 명함을 주고 그(우마키)에게 대면할 것을 청했다.

의식상 우마키에 대한 담판위원을 정했다. 다나카, 스즈키, 오하라, 도키자와 네 명이 나이 순으로 선정되었다. 네 명이 나아가 우마키의 거실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잠시 문밖에서 답변을 기다렸다. 우마키는 네 명을 맞이하고 방문한 뜻을 물었다. 한마디씩 하며 인사치레를 먼저

마치고 다나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화제가 돌아 드디어 방문한 목적을 토로하며 말하였다.

"우리들 11명이 오늘 밤 특히 이곳에 와서 공(公)을 방문하게 된 요점을 말하면, 단지 공의 광산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 화약류를 합당한 대가로 넘겨받기 위함일 뿐이다. 세상에서 금하고 있는 폭발약을 갑자기 이와 같이 청구함에 대해서는 원래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공의 마음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힘쓸 의무가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들 11명은 이미 보잘것없는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였다. 지금부터 바로 전라도 동학도의 진영을 두드려 우리 국가를 위해 실효가 있다고 믿는 방책에 종사해 통쾌하고 웅장한 운동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다시 얻을 수 없는 천재일우의 절호의 시기를 만나 일행의 패기는 왕성하게 약동하여 제지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만일에 대비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하다. 이것은 실로 우리 무리에게는 가장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이너마이트는 이 내지(內地)가 불온한 시기에 공에게는 어쩌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즉, 이러한 쓸모없는 것을 청해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공의 허락을 얻는다면 매우 다행이다."

말을 마친 다나카는 반짝반짝한 큰 눈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응시하고 답변 여하를 기다렸다. 우마키는 조용히 듣고 잠시 생각한 뒤 단지 "난처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스즈키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분연히 자리에서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들 일행은 신문기자 혹은 육군 장교로 모두 이 사회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이다. 지금 옆 나라에 변란이 발생하였고 그 변란이 나아가 동방의 큰일이 될 것을 우려해 특히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지위를 내버리고 이곳에 와서 구사일생의 위험한 길을 걸으려고 한다. 지망하는 사업이 확실하고 일관된 절도를 지녔으니 어찌 세상에서 말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과 같겠는가. 공도 역시 같은 일본인이다. 어째서 속히 우리들이 청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가."

오하라, 도키자와 역시 앞사람의 뜻을 보완하여 번갈아 가며 우마키에게 권유했다. 그렇지만 우마키는 완고하고 어리석어 끝내 청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 천우협의 사업은 지금 그 첫걸음에서 좌절되는 것 같았다.

기다리다 지친 요시쿠라가 들어왔다. 네 명은 우마키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잠시 실의한 상태였다. 그러는 동안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마키는 모든 내빈을 접대하기 위해 그 준비를 명했다. 일행은 그에 응해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요시쿠라, 다나카 두 사람은 무리를 대신해 그 담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요시쿠라는 우마키에게 물었다.

"공(公)이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해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폭발약 단속 규칙은 단지 국내 보안의 수단이다. 그 효력이 해외에 미칠 리가 없다. 이 밖에 우려할 점이 있다면 먼저 이를 지적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공(公)의 말을 설파(說破)할 것이다."

우마키가 그에 응해 말하기를,

> "나는 조선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이 광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란(國亂)이 일어나 그 난이 일어난 지역에 가려고 하는 자에게 무기를 빌려 준다면 어찌 끝내 조선 정부의 견책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허둥지둥 광업 정지의 엄명을 면하려 해도 일이 이미 나로부터 발생하였으니 어찌해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그대들의 청에 응할 수 없다."

요시쿠라가 말하기를,

> "과연 그렇다면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왜 반드시 달려가 동학도에 참가하겠는가. 동정을 살피어 의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유를 천하에 공개하여 세상의 동정을 구하는 데 힘쓸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난도(亂徒)에 지나지 않는다면 관병(官兵)을 지원하여 속히 그 토벌에 종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공(公)에게 요구하는 화약은 결국 자위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마키는 여전히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요시쿠라 등은 재삼 숙고할 것을 우마키에게 요청하고 식당에서 물러났다. 그러는 사이에 우마키의 뜻이 차차 결정되었다. 지배인 오쿠다(奧田) 모(某)를 파견해 요시쿠라를 불러 집 밖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함께 밀담하였다. 마침내 요시쿠라의 입안(立案)에 굴종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화약 양도의 청구를 승낙하기로 하였다.

우마키는 천우협의 청구에 응할 것이다. 천우협도 역시 우마키가 요청하는 바를 승낙해야 한다. 우마키는 조선 정부에 대한 구실을 얻기 위해 모든 화약을 천우협에 강탈당한 것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천우협은 광산에 고용된 한인의 눈앞에서 강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배인은 반드시 화약 창고로 안내할 것이다.

화약을 나누어 가짐

폭약 양도의 담판이 이미 비밀리에 체결되었다. 약속을 수행하는 첫 번째 일은 강탈의 태도를 위장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죽음을 마음먹고 직진하게 하는 방책은 조용히 약속을 위해 강탈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결행의 무대는 이에 따라 곧바로 애매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밤 10시, 정원으로 간 도키자와는 신호인 권총을 발사해 갑자기 심야의 정적을 깨 버렸다. 부대의 대오는 순식간에 일정해져 경위를 맡은 자는 저택의 앞뒤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눈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간 자는 먼저 30여 명의 고용 조선인을 소리쳐 물리치고 우마키의 좌석으로 나아갔다. 한 사람은 새끼줄로 우마키 부자를 포박하고, 다른 사람은 다음 방에서 큰 칼의 칼집을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다나카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집 밖으로 나와 지름길로 가서 화약고의 문을 열었다. 급선봉은 지배인이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고 한 웅큼을 집어 힘껏 던지기를 5~6칸〔間〕,[28] 남아 있는 자는 식당에 머물며 야행 준비를 하였다. 머리에 수건을 묶고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씩씩한 모습으로 주먹밥

을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에 다나카, 오하라, 우치다는 운반할 수 있는 한 화약고의 폭탄을 꺼내서 문밖에 대기시킨 조선인 마부 여러 명을 불러 이를 말 등에 싣게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점차 관솔불〔松火〕이 만들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무리는 "빨리 가자. 빨리 가자."라고 절규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와 우마키 부자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의 후의(厚意)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 화약과 기타 머물며 식사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문을 나서 밤을 무릅쓰고 앞길을 서두르기로 하였다.

유례가 없는 야간행 기책(奇策)

마부는 짐 싣는 말을 맞은편 나무 아래에 묶어 두고 이정표에서 허리를 두드리며 걸터앉아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느긋하게 쉬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이 돌아왔다. 여러 다발의 관솔불은 번쩍거리며 어두운 밤을 밝혔다. 2~3백 개의 다이너마이트, 수십 관목(貫目)의 화약, 몇백 개의 도화선 및 뇌관은 미리 약속한 것같이 일행의 수중에 들어와 지금은 이미 말 등에 있다. 이로써 준비는 완전히 갖추어졌다. 무리는 서로 돌아보며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의 기력을 통해 더욱 무력의 정돈을 이루었다. 이는 범에 날개를 단 셈이다. 앞으로 수천 수백의 큰 적을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일축하며 지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용이한 일뿐이었다. 앞으로 더

28 칸〔間〕: 길이의 단위, 1칸은 6척이므로, 5~6칸은 30~36척에 해당한다. 즉 54~65m이다.

욱 힘을 내 죽을 땅을 밟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찢고 북두칠성과 견우성을 삼킬 기개가 생겼다.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이 광산의 화약을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단지 밤의 색깔은 어디까지나 암흑이어서 가는 길의 험악함은 비유할 필요도 없다. 강변, 논두렁길, 바위고개, 급한 비탈 등 일행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식 관솔불은 장시간 유지하며 일행을 안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미 밤이 깊어져 관솔불을 계속 이어 갈 수가 없었다. 이를 생각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주저하는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산은 아직 여기로부터 근거리에 있다. 한 시간 유예된다면 일행에게 한 시간의 위험이 추가된다. 사정을 잘 아는 다나카는 곧바로 기발한 계획을 생각해서 말하였다. "조선의 습속에 대관(大官)이 순행할 때 노상에서 밤이 되면 연도의 각 마을에서 인부를 차출해 관솔불을 들고 선도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관솔불을 든 자는 다음 마을에 도달하면 이를 그 마을 촌민에게 인계하여 그 촌민 역시 선도해서 다음 마을에 이른다. 그러므로 차례차례로 전하여 밤길을 무사히 갈 수 있다. 우리 무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면 오로지 노상의 어려움을 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아 속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군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무리는 손뼉을 치고 절묘하다고 외쳤다. 즉각 마부를 마을로 달려가게 해 교도할 사람을 알아보게 했다. 잠시 동안 담판하여 마침내 사람을 징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관솔불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일행들은 그 뒤를 따랐다. 관솔불은 기둥이 굵은 통나무로 화력이 왕성하여 수십 칸〔間〕의 어둠을 비추었다. 일행은 가벼운 여행복을

입고 단검과 장검을 각각 허리에 찼다. 마부 여러 명이 말 몇 필을 몰고 앞뒤로 행렬을 이루니, 마치 반은 다이묘(大名)의 행렬과 같고 반은 하치스카(蜂須賀)의 행렬 같은 느낌이었다. 대체로 1리 정도를 가면 반드시 한 마을이 있어 마을에 접근하면 교도자(教導者)가 바로 큰 목소리로 "페-프로, 페-프로"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대관이 순행하니 관솔불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일행 역시 이를 흉내내어 "페-프로"라고 외쳤다. 앞쪽의 마을에서 마침내 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기운이 가득 찬 얼굴로 관솔불을 들고 나왔다.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일행을 맞이했다. 일행 역시 자신감에 가득 차 채찍질하며 발걸음을 서둘러 다음에서 다음으로 이르러 마중을 나오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하게 이야기해 마침내 연도(沿道)의 마을 중 그 호령을 받들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리하여 진군(進軍)이 매우 신속할 수 있었다.

앞길의 희망과 후방의 위험으로 일행은 발걸음을 빨리한 것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볍게 달려 마침내 함안(咸安)을 넘어 바위 비탈길에 당도하였다. 시기는 무더운 때여서 밤이 지나자 날씨가 찌는 듯하여 더욱 기어오르기 힘들었다. 무리는 숨이 헐떡거렸고 땀이 폭포보다도 더 흘렀다. 겨우 비탈 정상에 도달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달렸다. 이러는 사이에 갈증을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연로(沿路)에는 우물 하나, 샘물 하나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각자 수렁논으로 가서 흙내가 나는 물을 머금고 혀를 차며 무심결에 감로(甘露)라고 외쳤다. 그 상황이 가련하였다. 이어서 다시 험한 비탈을 넘어 다시 얕은 개울을 건너 새벽에 겨우 함안군(咸安郡) 성에 도달해 문 안의 한 객사를 두드려 여기에서 순식간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함안(咸安) 객사에서 한 명의 장부를 만나다

휴식과 수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끝났다. 급히 갈 필요가 있는 일행은 빈대〔床蟲〕에 찔릴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지난밤의 경험에 의해 짐〔輜重〕이 많은데 비해 짐을 실을 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군성(郡城)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려고 했다. 사려 깊은 한두 명이 나아가 관아의 문을 두드려 관마(官馬)를 빌려 와 그 부족을 보충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일동은 아침 식사를 하였다. 이때 호기심이 많은 조선인들은 진기한 일본 손님들이 왔다는 것을 전달해 일부러 일찍 일어나 사방에서 객사로 모여들었다. 마부에게 그 상황을 알아보고 건물 아래로 접근해 동정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크게 두려워하는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은 원래 동학의 세력 범위이고 사람들의 기개 또한 활발하여 동춘군(東春郡) 군수를 퇴치하는 쾌거가 있었다. 돌아보니 무리지어 오는 구경꾼 역시 반드시 갈천씨(葛天氏)[29] 백성뿐만은 아닐 것이다. 일행은 대청 위에 앉아 주목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다. 모인 무리 가운데 한 명의 대장부가 있어 군중을 물리치고 갑자기 건물 아래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여 함께 이야기할 것을 청했다. 일행은 이를 허락하여 입실하게 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펼치며 "그대들은 이 시를 아는가."라고 물었다. 한 사람이 부채를 들어 이를 읽었다.

29 갈천씨(葛天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이상적 정치를 펼쳐 태평했다고 하는 성군이다.

아름다운 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뭇사람의 피요 金樽美酒千人血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玉盤佳肴萬姓膏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燭淚落時民淚落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 歌聲高處怨聲高

동학당의 시로, 이 시를 일본에 전한 것은 천우협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대들 일본인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전라도에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전라도는 동학도의 소굴로 동학도는 원래부터 외국인을 배척한다고 잘못 알려졌다. 동학도는 공명하다. 결코 외국인을 해치는 일이 없지만 사람들은 알려진 말을 그대로 믿기 쉽다. 그대들 역시 그 참언(讒言)을 믿고 가서 동학도의 무도함을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 동학도를 위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청하건대 이 28글자를 보라. 마치 조선 팔도의 현 상황을 풍자하고 비웃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 백성이 편히 쉬지 못하는 것, 천하에 어찌 우리 조선처럼 심한 곳이 있으랴. 그렇다. 그리고 그 도탄(塗炭)에서 백성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조정의 신하에게 바랄 수 없다. 민간에도 역시 오랫동안 의(義)를 위해 일어서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뜻있는 자는 모두 근래 동학도가 발흥한 것을 기뻐하고 가슴속으로 몰래 경군(京軍)이 패배하기를 기원한다. 이미 민심이 이와 같이 기울어졌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그대들의 의(義)가 아니다. 나의 미충(微忠)을 살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말이 왔다 갔다 하며 입에 거품을 튀기며 슬퍼하고 한탄하며 기세가 넘치는 모양으로 지극한 정성이 얼굴에 나타났다. 일행은 이를 듣고 느끼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부응해서 말하기를, "우리

무리는 전라도로 가는데 결코 동학도를 토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동학도의 의거에 대해 처음부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당신은 안심하라. 단지 이상한 것은 당신은 이 군(郡)의 성안에 있다. 그런데 굳이 조정을 비난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그는 답하여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동학도의 세력은 이미 삼남 지방을 풍미했다. 그리고 열군(列郡)의 태수(太守)는 전전긍긍하며 오로지 그 때문에 습격받는 것을 밤낮으로 걱정한다. 그러므로 저쪽을 받들어 이쪽을 억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인정이다. 어찌 무엇을 책망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문밖에서 갑자기 돌입한 사람이 있었다. 목소리를 높여 성내어 부르짖는 것을 들어 보았더니 '동학당 잡아라.'라는 한마디였다. 그는 곧바로 급하게 응접하는 것을 중단하고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몸을 날려 뒷 정원으로 나와 담장을 뛰어넘어 벗어났다. 신속히 달리는 모습이 달리는 토끼보다 빨랐다. 대청 위의 10명의 손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망연(茫然)했다.

폭탄의 시험

이미 아침 8시로 급히 일어나 채비를 해야 했다. 짐을 실을 말은 결국 뜻대로 모을 수 없었다. 일행은 의견을 정하고 객사를 나섰다. 이날은 아침부터 약하게 비가 왔다. 덕분에 여름날 더위의 기세가 약해져 다리에 더욱 힘을 줄 수 있다. 이러는 사이에 급경사 길에 올라 정상에 도달하자 논의하여 말하기를, "어젯밤 구한 화약류의 효력 유무를 아직 알지 못한다. 이 산 계곡에는 다행히 인가의 연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시험삼아 심지에 불을 붙여 높은 곳에서 던져 보겠는가."라며 청하였다. 일동이 모두 이의가 없어 우치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는 임무를 맡고 다른 사람은 모두 이를 둘러싸고 관망하였다. 계곡의 깊이는 수십 심(尋)[30]으로 암벽이 솟아 있어 시계를 차단하는 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마침내 우치다가 폭탄을 던지자 폭발하는 소리가 계곡 밑에서 일어나 주위 산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다. 하늘 기둥이 깨지고 지축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 파열된 흔적을 바라보니 바윗덩어리가 부스러지고 산봉우리 벽이 붕괴하여 처참한 광경이 모두 탄약의 위력을 증명하지 않는 것이 없어 앞으로 크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리하여 무리가 내지르는 만세 소리는 폭발음의 잔향과 서로 반응하여 고요한 천지에 다시금 메아리를 울리기에 이르렀다.

들판의 작은 전투

약한 비는 차츰 맑아져 햇살이 쨍쨍했다. 산꼭대기의 작은 정자에서 길게 휴식한 일행은 제각각 정자에서 나와 산비탈을 내려갔다. 앞쪽은 이어지는 산 사이에 낀 작은 벌판이었다. 좁은 강 한 줄기가 긴 뱀처럼 들판을 따라 흘러 내려갔다. 시라미즈 나가스네히코(白水長髓彦)[31]가 가장 선두에서 나아가고, 우치다와 오하라 등 2~3명은 중간에서 걷고, 스즈키와 치바, 다나카 등은 걸음이 가장 늦어 일행의 후진이었다. 선두인 시라미즈는 무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산을 따라

30 심(尋) : 길이의 단위로 1심은 양팔을 벌린 길이이다.

31 시라미즈 나가스네히코(白水長髓彦) : 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의 별명으로 보인다.

길을 꺾고 다리를 건너 한 마을로 들어갔다. 더욱 발걸음을 서둘러 적절한 객사를 고르기 위해 달렸다.

한 마을 입구에 있는 사람이 시라미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왜놈, 어디로 가느냐?"라고 계속 외쳤다. 시라미즈가 돌아보고 크게 무례를 꾸짖으며 발걸음을 돌려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실언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하라가 늦게 도착해 배후에서 팔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강 쪽으로 던졌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물속에 빠지자 돌을 주워 사람을 향해 던졌다. 시라미즈와 오하라는 태연하게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났다. 우치다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뜻하지 않게 그가 던진 자갈에 맞아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었다. 마을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계속 소리를 내며 웃었다. "왜놈의 찡그린 얼굴을 보라."며 조롱했다. 우치다는 나이가 어리고 기질이 예민해 노발대발 매우 성이 나 칼집으로 물속의 사람을 때려눕혔다. 칼집이 부서지며 칼날이 드러나 물속의 사람은 이마에서 피가 솟구쳐 절규하며 쓰러져 죽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에 이르러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동서남북으로 달렸다. 서로 모여 의논해 일행에게 복수하려는 형세였다. 일행은 서로 방법을 생각해 말하기를, "우리 당은 아직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중에 일이 생겨 대사(大事)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마땅히 폭렬탄의 큰 소리를 이용하여 싸우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암벽으로 가서 갑자기 장약하고 심지에 불을 붙이자 굉음 소리가 나면서 마을 전체가 조용해지고 두려워 엎드렸다. 뒷날의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일행은 가는 길을 서둘러 득의양양하게 초월향(招月鄕)에 이르러 숙박했다.

야만인에 대한 결심

원래 경상우도는 사람들의 기질이 사납고 강인하여 외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본 상인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자주 토민(土民)의 박해를 입고 모욕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행의 뜻은 이번에 국가를 위해 이 폐를 고치고 연도(沿道)에 위엄을 보여 영원히 그 무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지난번 도중에 작은 전투가 발생했는데 역시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생각건대 야만인은 국가와 개인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원한을 도리어 원한이 없는 개인에게 갚고, 국가에 대한 경멸을 도리어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가하는 등의 사례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보는 바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야만국〔蠻國〕에 들어간 개인은 자신이 전권공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권공사의 지위에 선 것이다. 양어깨로 일국을 짊어지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위와 책임이 이미 이와 같아서 개인의 영욕은 결코 개인에 한정된 영욕으로 보면 안 된다. 즉, 당시 천우협이 결행한 바는 반드시 국가에 큰 공이 있는 것이다.

자자손손 일본에 무례를 가하지 않겠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을 때 모두 말하였다. "어젯밤 빈대가 습격한 것은 만 명의 군인이 공격해 온 것보다 극심하여 마침내 긴 시간 동안 쾌면할 수 없었다. 오 척(五尺)의 남아가 아주 작은 벌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슬프구나."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짐말이 갖춰져 진주를 향해 출발했다. 이어지는 산이 점차 시계로부터 멀어지고 전원(田園)이 점차 열려 지방의 부유한 기

색을 더했다. 남강(南江)의 흐름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길은 마침내 논 사이로 들어갔다. 길옆 수십 칸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농부가 괭이를 가지고 논을 갈고 있었다.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 "왜놈들이 온다."라고 외쳤다. 일행의 생각이 이미 징계하기로 결정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이리하여 길을 나누어 논두렁을 가로질러 농부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권총이 있는 자는 권총을 쏘고 검이 있는 자는 검을 휘둘러 사방에서 포위하여 이를 위압(威壓)하였다. 농부들은 용이하게 상대할 적이 아닌 것을 알자 순식간에 낭패하여 도주로를 찾아 전력을 다해 마을로 도망쳐 욕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사태가 이미 극에 달했으므로 허망하게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이 계책을 생각해 촌로(村老)의 집을 방문해 마을 안의 모든 연장자를 부르게 했다. 연장자들이 모두 모이자 크게 질책하며 말하기를, "너희 촌민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본인에게 무례한가? 같은 동방 형제의 나라로서로 존경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바로 천하의 큰 섭섭한 일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섭섭한 일을 굳이 하는 것은 너희 부모들이 평소에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 함부로 자녀들이 공맹(孔孟)의 유교(遺教)를 손상시킨 데 기인한다. 자녀에게 원래 죄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훈계하지 않은 책임을 부모가 결코 면할 수 없다. 너희들은 어째서 여전히 말을 피하는가?"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머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촌민이 예의에 어긋났음을 사죄했다. 일행은 또 이에 대해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미 스스로 그 죄를 알지만 다소 원망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원래 기세에 따르는 무리이다. 지금은 단지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특히 말을 낮추어 사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징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부디 우리들에 대해 자자손손(子子孫孫), 영원히 결코 다시 일본인을 모욕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삼가 그 맹서를 하겠다고 말하고 종이에 적어 이를 바쳤다. 이렇게 해서 일행은 마을에서 나와 다시 큰 길을 따라 나아갔다.

진주성의 형세

도중에 불의의 사건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아 진주성 밖 남강의 큰 모래톱에 도달한 것은 이미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를 지나서였다. 모래톱은 횡으로 약 반 리로 유명한 한강의 중앙 모래톱과 형세가 비슷하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텅 비어 있어 수풀이 없고 샘도 없고 다리 아래로 오로지 뜨거운 모래가 있을 뿐이었다. 걸어서 건너기 어려운 것은 입으로 말하기 힘들다. 모래톱을 다 건너자 길은 다시 농촌으로 들어갔다. 길옆에 처음으로 맑게 흐르는 강을 만났다. 물이 매우 얕아서 일행은 더위에 힘들어 대로를 버리고 특히 강 가운데를 걸어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강변의 복숭아 열매는 거의 익었다. 일행은 앞다투어 이를 따서 서로 빼앗아 먹으며 말했다. "천하의 맛있는 과일이라도 이만한 것이 없다." 마침내 진주성 밖의 한 높은 언덕에 이르렀다. 이곳이 바로 가토 기요마사(加籐清正)[32] 장군의 포위 공격으로 유명한 진주 고성 터이다.

높은 언덕을 오르는 길은 매우 급하고 험했다. 다행히 해가 점차 기울

32 가토 기요마사(加籐清正)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

어 저녁의 선선함이 더해졌다. 우치다는 급선봉이라는 이름과 같이 선봉에 섰고, 요시쿠라는 그 뒤를 잇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생선을 엮은 것같이 기어올랐다. 정상에 도달하여 내려다보니 눈 아래가 묘망(渺茫)하여 진주 영내의 산하는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돌아볼 수 있었다. 모두가 서로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이 지세(地勢)를 차지하는 것이 묘이고 이를 공략해 취하는 것 역시 매우 방법이 있었다. 가토가 귀신 상관(上官)이라고 불리는 것도 정말로 우연이 아니다." 잠시 쉬며 이곳에서 피로를 풀고 다시 용기를 내서 험한 비탈을 내려갔다.

부두 하나를 건너 버드나무 둑 사이를 지났더니 바로 진주 은부(殷富)의 시가지로 들어갔다. 진주는 해자가 깊고 도랑이 길며 인가가 즐비하다. 관아 건물이 이어져 그 형세가 장대하며 상가가 번창한 것은 일본의 도성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집이 곤궁하고 거리가 협소하다. 더러운 물과 분뇨가 여기저기에 있어 불결하고 암담한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곳은 어쨌든 조선 제일의 무명 산지이다. 진주 무명의 이름은 조선 팔도의 가는 곳마다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곳이 남부 삼도 가운데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라고 칭해지는 까닭은 실로 이 특산품이 있기 때문이다. 부아(府衙)에는 경상도 우병사(右兵使)가 상주하고 있다. 시내의 호수(戶數)는 4천여 호, 인구는 3만 명 이상이다. 부(府)의 남쪽에는 남강이 길게 흐르고 있다. 하류는 낙동강으로 들어가 주운(舟運)에 편리한 점이 많다. 부(府) 밖으로 면화밭이 광대하게 펼쳐져 수십 리 이어져 있어 매년 생산액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우협의 깃발이 처음으로 진주성 앞에 펄럭이다

병사의 행진을 시끄럽게 하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성 아래에 도착해 객사를 구해 숙박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식사를 마치고 여정에 오르려고 했다. 창밖으로 갑자기 인마(人馬)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나가 동정을 살피고 돌아와서 무리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병사(兵使)가 부대를 이끌고 교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리는 바로 모두 문밖으로 나와 그 행렬을 보았다. 보병이 약 5백 명으로 구식 화승총을 들고 고운 베로 만든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었다. 긴 담뱃대를 허리에 차고 두건을 전면에 내린 그 모습은 마치 도바에(鳥羽繪)[33]와 거의 비슷했다. 규율이 없고 체재가 없는 점에서는 일본의 인력거꾼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시 병사(兵使)를 바라보니 연령은 거의 55~56세 정도고 반백 머리에 비대한 호남아이다. 행동거지가 위엄이 있고 높은 교자 위에 편안히 앉아 병사들로 하여금 교자를 짊어지게 한 것이 의심할 것도 없이 일본의 축제 때 다시〔山車〕[34]에 장식품으로 꾸며 놓은 본존(本尊)이어서 쳐다보고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병사들이 차례로 지나가고 다시의 본존 역시 점차 다가왔다. 그런데 부대원 가운데 한 명이 길옆에 우리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병사와 이야기하며 왜놈이 저기에 있다고 가리키며 웃었다. 다나카가 이를 듣고 화가 나 그 병사를 쫓아 대열에 난입하여 이를 붙잡아 난타했다. 행

33 도바에(鳥羽繪) : 에도(江戶) 시대 일상생활을 화재(畫材)로 해서 그린 만화풍(漫畫風)의 묵화(墨畫)이다.

34 다시〔山車〕: 일본에서 축제 때 끌고 다니는 장식한 수레이다.

렬의 5백 명의 병사들은 이것을 보고도 구하려는 모습이 없었다. 병사 역사 교자 위에서 침착하게 안색도 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 다나카는 어디까지나 예의가 없는 조선병을 무리 안에서 응징하고 유쾌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조선인 관리를 질책하여 물리치다

조선인과 다툴 때 이기는 방법은 기선을 제압하여 기를 꺾는 데 있다. 피아간의 인원의 많고 적음은 원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나카는 그러한 점을 잘 아는 자로 모험할 때 그와 같은 연기를 잘했다. 일행은 이로부터 다나카를 단쥬로(團十郎)[35]라고 불렀다. 단지 큰 눈이 비슷할 뿐만이 아니다. 한 편의 교겐(狂言)[36]이 이미 끝나고 무리는 시내로 나가서 말을 빌려 짐이 잘 정리되기를 기다려 바로 출발하려고 했다. 한 명의 하급 관리가 관아로부터 와서 일행에 대해 계속 심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요시쿠라가 이를 질책하여 말하기를, "이보게 아전, 먼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함부로 바쁜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 빨리 떠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는 묵묵히 돌아갔다. 잠시 뒤 또 한 명의 관리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은색 안장의 말을 타고 왔다. 풍채로 보아 존귀한 사람인 듯했다. 이보다 앞서 관가로부터 사신을 통해 명이 있었다. "병사(兵使) 각하가 직접 와서 여러 현사(賢士)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행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로 보아 손님은 필시 병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시쿠라가

35 단쥬로(團十郎) : 유명한 가부키 배우인 이치카와 단쥬로(市川團十郎)를 가리킨다.
36 교겐(狂言) : 일본의 전통 예능인 노가쿠(能樂)의 막간에 상연하는 희극이다.

의관을 고치고 마중을 나가 그를 건물로 데려와 의자에 앉히고 말을 하려고 하였다. 그의 명함을 받아 보니 역시 이는 병사가 아니라 제1 비장(裨將)이 병사를 대신해 방문한 것이었다. 무리는 모두 병사가 약속을 어긴 무례에 화가 났다. 비장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가. 또 우리나라 국법에 내지에 들어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문을 부여한다. 그대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가?" 요시쿠라가 무리를 대신해 이를 응접하고 말하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들은 원래 공문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비관(卑官)에게 제시할 수 없다. 아침부터 병사가 우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출발을 지연했다. 병사는 무엇 때문에 속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가? 먼저 그 이유부터 들려주기 바란다. 그런 뒤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일행 중에는 공문을 지닌 자가 없었다. 단지 그의 약점을 틈타 과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비장은 할 말이 궁하여 다시 발설하지 않았다. 요시쿠라가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말을 빌리는 건에 관해 지금부터 꼭 병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공이 우리를 잘 이끌어 병사의 진영에 데려가 달라."라고 하였다. 그는 잠시 유예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을 줄지어 타고 포도아문으로 가다

비장은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하고 마침내 선도(先導)할 것을 승낙했다. 무리는 곧 건물 아래 정원으로 내려가 이전에 모집해 둔 안마(鞍馬)를 끌어내 모두 이에 올라앉았다. 즉시 10여 인이 채찍을 들어 일

제히 열을 지었다. 앞쪽 말과 뒷쪽 말은 비단 깃발을 각각 하나씩 휘날리며 화려한 군용(軍容)을 보였으며, 무리는 숙연하고 의기양양하였다. 가볍게 달리며 몇 마을을 지나 수만 명이 군집해 소란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고 호연하게 그가 안내하는 관아에 도착했다. 바로 문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병사는 그곳에 없었다. 아전 위로 액자가 있었는데 제목을 붙이기를 포도아문(捕盜衙門)이라고 하였다.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리는 매우 화가 났다. 비장을 불러 크게 꾸짖으려 하였더니 이미 도망가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행은 망연히 속임수에 당한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아래에 말을 묶고 돌계단을 올라 정전(正殿)으로 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며 병사가 오기를 여러 시간 기다렸다. 마침내 병사는 오지 않고 비장 역시 나타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응접하려는 자가 없었다. 일행은 다시 낙담하여 붓을 들어 허망하게 사유를 벽에 적고 계단을 내려와 마침내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침착하게 포성 아래를 가볍게 달리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나와서 손님을 접대하려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병사(兵使) 등은 전에 다나카의 교겐〔촌극〕에 의해 먼저 일행의 담력에 놀라고 나중에 화려한 군용을 견문하고 더욱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마침내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망상(妄想)하여 횡행(橫行)하고 활보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리라. 그렇지만 병사 역시 그들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하 병사를 불러 그에게 보루 위의 대포에 장약하게 해 그들

이 아문을 떠날 때에 갑자기 발사하여 그 교만한 태도를 물리치고 가슴을 서늘하게 하려고 하였다. 일행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문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과연 보루 위의 대포가 예상한 대로 발사되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의 결과는 거둘 수 없었다. 10명의 기마 무사는 태연자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보루 위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러는 사이에 그들은 서로 논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원래부터 민심이 모질고 사납다고 하는 곳으로 여기에서 일본인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역시 많다. 세키야 오노타로(關屋斧太郎) 같은 사람도 그중 한 명이다. 우리 당은 원래 동포를 위해 원수에게 보복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비굴한 병사(兵使)는 우리 당에 대해 숨으면서 비열한 시위운동의 수단을 취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것은 실로 영원히 화해(禍害)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어찌 잠자코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폭열탄, 폭열탄, 폭열탄이 필요한 곳은 실로 이때이다. 병사 이하 도시 전체 4만 명의 간담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오직 폭열탄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결정되어 일행은 모두 말에서 내려 호(濠)를 따라 보루를 바라보면서 둑을 따라 동쪽으로 갔다. 부(府) 안의 관민 역시 일행이 무엇을 하기 위해 둑 위를 배회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수많은 남녀 노약자가 모두 그 뒤를 따라 긴 둑 위아래에 모여들었다.

위기일발 속에서 기책을 마련하다

본래 진주의 성민(城民)은 일본인에 대해 그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일본인은 천우협의 큰 깃발을 성 앞에

휘날리며 수만 명의 성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을 늘어세워 놓고 방약무인의 거동을 연출하고 있다. 군대는 이 때문에 모욕을 입었고 관인(官人)은 그들의 매도를 면하지 못했다. 길거리는 그들이 유린하고 아문은 그들의 말발굽에 더렵혀졌다. 영악하여 사납고 강인한 성안의 사민(士民)이 어찌 거듭되는 무례를 묵인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피는 솟구치고 근육은 움직였고 노한 머리카락은 갓을 찔렀다. 어찌 사민만 그럴 것인가. 지방의 태수(太守)인 진주 병사(兵使) 역시 사민과 화합하여 일행에 대한 시위의 발포를 시도함으로써 더욱 사민을 교사, 선동하여 일본인과 서로 살상하는 일이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당시 일행의 위급한 형세는 마치 스스로 호랑이굴에 빠진 것과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일행은 구사(九死) 속에서 여전히 태연하게 자신의 혈로(血路)를 여는 기술을 알았다. 그러므로 온갖 어려움이 사방을 둘러싸고 많은 포탄이 머리 위로 비 오듯 해도 침착하게 압박하는 것 없이 행동거지가 조금도 절도를 잃는 일은 없었다. 그들의 심기가 태연한 것은 이미 이와 같았다. 이리하여 병사는 허점을 틈타 이들을 생포하고자 하고 사민은 기회를 보아 이들을 살상하려고 하였지만, 그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빈틈이 없음을 어찌하랴. 사민은 헛되이 길게 두르는 진형(陣形)을 만들어 그들이 하는 바를 응시할 뿐이었다. 여기에서 포도영(捕盜營)의 대문을 걸어서 나간 일행은 다시 성호(城壕)의 긴 둑을 따라 유유하게 소요하고 큰 버드나무의 가지와 잎이 울창하여 하늘의 반을 덮은 곳에 이르러 서로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애초 가슴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했다. 이리하여 우치다는 뒤쪽을 돌아보고 두 손을 들어 마부를 손짓해서 불러 속히 짐을 진 말을 끌고 오도록 명했다. 말이 오자 우치다는 말 등에서 짐을 내리고 다시 여러 덩어리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버드나무 뿌리 위에 장치한 뒤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신속하게 몸을 돌려 몇 미터를 뛰었다. 무리 역시 이와 함께 급히 나무 주변으로부터 물러났다.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민(城民)은 일행이 갑자기 부산스럽게 약간 낭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 일동은 왈칵 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이 순간 살기(殺氣)가 전기처럼 그들 사이를 통해 어떤 자는 함성을 지르며 맹수와 같이 밀려오려고 했다. 일행의 위급함은 지금 위기일발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행은 숙연하게 소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과 같이 각각 손에 말의 재갈을 잡고 둑 위에 바로 서 있었다. 22개의 안구는 어지러이 몰려오는 성민에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모두 다 다이너마이트 장치 주변으로 향해져 있었다. 그들 일행의 눈 속에는 성민 또한 없고, 위험 또한 없었다. 필경 이것은 제갈량(諸葛亮)이 건물 위에서 거문고를 튕겨 교묘하게 사마중달(司馬仲達)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죽을 고비에서 살길을 찾는[37] 담대한 옛 태도로, 이 또한 천우협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우레와 같은 포탄 한 발이 성에 가득한 사민(士民)을 놀라 죽게 하다

갑자기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지는 일대 폭발 소리가 호(濠) 주변과 둑 쪽에서 발생해 성에 가득 찬 사민의 고막에 요란하게 전달되었

37 사마중달(司馬仲達)을……찾는 :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사마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는 삼국지의 고사이다.

다. 그와 동시에 방금 전까지 둑 위에 서 있던 큰 버드나무는 줄기가 부서지고 껍질이 벗겨져 나무 전체가 호 안으로 날아가 버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겨우 부서지고 찢어진 뿌리와 줄기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긴 둑은 전체 모습이 파괴되었고 토사는 갑작스럽게 우박처럼 사방으로 솟구쳐 흩어졌다. 한 무리의 이상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기운이 검게 군중 사이를 덮쳤다. 관망하던 성민은 먼저 폭발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기운이 갈라지고 이어서 참담한 둑 위의 광경을 언뜻 보게 되자 생기를 완전히 잃었다. 게다가 이상한 바람이 덮치자 전전긍긍하여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없기에 이르렀다. 앞서 함성을 지르며 일행에게 육박해 오려던 자들 역시 성민과 함께 낭패하여 쓰러지고 기어서 궤주(潰走)했다. 당초 개미가 들어올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메워진 둑의 위아래는, 이제는 대풍우(大風雨) 뒤의 하늘과 땅처럼 적막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텅 비어 흰옷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역사책을 읽고 촉의 장수가 비스듬한 골짜기에서 위(魏)의 추격해 오는 기병을 섬멸한 대목에 이르러 예상을 맞춰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천우협이 진주에서 보여 준 기변백출(機變百出)의 행동은 옛사람을 몇 단계 더 능가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화계(火計)를 사용해 에워싼 포위망을 벗어난 것과 같다. 그리고 협도(俠徒)의 지략은 적과 아군 병졸 한 명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돌아보니 연이어 말을 탄 11명은 이들 개개인이 용호(龍虎)의 장수이고, 이들 개개인이 강유(姜維) 와룡(臥龍)의 재목이다. 조선을 돕고자 하는 웅대한 계략은 곧 한실중흥(漢室中興)의 큰 계획에 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전주 성문을 부순 그들의 장절쾌절(壯絶快絶)한 활극에 이르면 천고(千古)의 기서(奇書)인 『삼국지(三國志)』 중에서도 역시 이러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유유하게 진주성을 나가다

성민은 폭발 소리에 놀라 이미 둑 위에서 기어서 도주했다. 병사(兵使)의 명령에 따라 발포한 성 위의 영병(營兵)도 역시 이와 함께 발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도주했다. 병졸은 이미 흩어졌고 병사 또한 건물 깊숙이 모습을 숨겼다. 성안은 이미 적막하여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단지 보루에서 펄럭이는 큰 깃발 아래 몇 마리의 까치가 먹이를 구해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협도(俠徒) 일행은 이로써 충분히 시위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마부를 불러 말을 한데 모아 앞뒤로 두 개의 비단 깃발을 펄럭이며 11명이 전과 같이 행렬을 갖추었다. 채찍을 들어 곧바로 성문을 향해 일축(一蹴)하여 이를 부수고 지나가려 하였다. 그렇지만 성안의 약병(弱兵)이 의심에 의심을 하여 미리 그 문을 굳게 닫고 사라졌다. 지금 이를 파괴하려고 하면 다시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힘을 남용하고 시간을 낭비한 결과 무(武)를 모독하기에 이를 우려가 있다. 이것은 병가(兵家)가 평생 깊이 삼가야 할 것이다. 일행은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 숙연히 말의 재갈을 이어 놓고 장루(長壘)의 외곽을 한 번 돌아 모든 적병의 유무에 대한 답사를 마치고 추격할 실력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말머리를 돌려 다시 시내로 들어갔다. 크고 작은 거리 수십 칸을 가볍게 달리며 태연하게 시민의 동정을 파악하고 진

주성을 나와 마침내 전라도 서북쪽으로 향했다.

남강 부두의 풍광

그렇지 않아도 한나절 남짓의 활극으로 이미 일행 중 피로를 느끼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혁혁한 태양의 심한 더위를 당할 수 없었다. 몸을 숙여 땅을 바라보니 뜨거운 모래가 눈에 반사되고 여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날씨라는 큰 적이 일행을 적대하는 것은 포와 칼을 든 적보다 몇 배 이상 두려운 것이다. 진주성을 유린한 대단한 호걸도 여행길의 어려움은 다소 피하고 싶은 기색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신력이 엄연히 아직 몸 안에 남아 있다면 신체적인 피로감은 충분한 맹위를 떨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동의 패기가 어찌 쉽게 쇠퇴할 것인가. 이러는 사이에 남강의 강변에 도달했다.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 배를 대기해 놓고 여행객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 각기 뛰어 그 배를 탔다. 배가 이미 중류로 나오니 물에 비친 하늘이 유유하여 갈매기가 파도 속에 잠들고 양쪽 강기슭의 나무 색이 아련한 연기와 같았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아득히 그 사이로부터 불어왔다. 또한 얼마 전에 더위로 고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뱃사공은 노를 손에 잡고 낭랑하게 강산곡(江山曲)을 소리 높여 노래했다. 일행은 검에 의지해 멀리 진주 성곽을 바라보며 길게 읊조렸다. 뱃노래가 장차 절정에 접어들려고 할 때 배는 일찌감치 맞은편 강안 둑 밑의 주막 깃발이 펄럭이는 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각각 주막으로 들어가 탁주를 몇 사발 하고 약간 취기를 느끼며 이곳을 나와 말 위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상쾌하게 다시 면화밭 사이를 달려 나갔다.

산림과 하류(河流)

길은 점차 면화밭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면화밭이 거의 끝나자 대나무 숲이 다가왔다. 대나무 숲이 숨어 버리자 소나무 언덕이 나타나 하늘과 땅에 더욱 취색(翠色)이 더해진 것을 보았다. 되돌아보니 경상도 72주(州) 가운데 청산(靑山)과 백운(白雲) 색채가 서로 반영하여 풍광이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의 눈을 위로하는 곳은 동남쪽 통도사(通度寺)의 서취산림(棲鷲山林)이다. 서북쪽으로는 조령(鳥嶺), 추풍령(秋風嶺) 일대에 좋은 송림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불과 진주 부근의 약간 울창한 녹림(綠林)이 있을 뿐이다. 기타는 모두 붉은 흙산과 민둥산이고, 단지 야초와 목초가 도처에 무성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양자강이라고도 칭할 만한 경상도의 낙동강도 그 유역(流域)이 백 리에 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월에 따라 토사가 흘러넘치고 점차 강바닥이 높아져 지금은 하구(河口)로부터 40~50리의 상류 낙동진(洛東津)까지 만수 때에나 겨우 주운(舟運)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작은 기선 같은 것은 하구를 거슬러 3~4리 이상 왕래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필경 이것은 산림 배식(培植)이라는 대사(大事)를 등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의 부식(扶植)을 외치는 자는 마땅히 먼저 이 경국(經國)의 근저에 있는 방책에 유의해야 한다.

밤에 낡은 정자에서 숙박하고 어둠 속에 강을 건너다

일행이 단촌(丹村)에 도착한 것은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서였다. 마을은 단성(丹城)의 군아(郡衙)로부터 불과 1리 떨어져 있었다. 호수는

대략 50~60호를 넘지 않고 가난한 마을이어서 많은 사람이 숙박할 만한 집이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두 집으로 나뉘어 숙박했다. 마을 입구에 큰 강이 있는데 남강의 상류일 것이다. 일행은 아침부터 흐르는 땀에 옷이 젖어 누워 자도 매우 상쾌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밤중에 함께 마을 주변으로 가 흐르는 물에 들어가 목욕하려고 하였다. 동쪽 산에는 아직 달이 뜨지 않고 야색이 망망(茫茫)하여 단지 강물 소리만 어둠을 흔들어 급히 흐르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우연히 마을 사람이 와서 알려 주었다. "비가 온 뒤 물이 불고 강물의 기세가 매우 급격해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강 속으로 들어가 목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무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강기슭을 따라 잠시 목욕하고 헤엄을 쳤다. 이러는 동안 서로 논의하며 말하기를, "단성은 이곳으로부터 불과 5리 떨어진 하류로, 만약 인마(人馬)가 함께 걸어서 건널 수 있다면 지금부터 바로 그들의 군아를 방문해 그 태수(太守)와 대면해 다소 상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우리 당을 위해 수로(水路)를 시험할 자 있는가?"라고 하였다. 한 명이 뛰어나와 곧바로 격류에 몸을 던져 선수를 쳐 아득한 어둠 속으로 헤엄쳐 나갔다. 무리는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몰랐다. 우치다는 다른 사람의 모험을 보고 매우 위험하게 여겨 그 뒤를 쫓아 중류로 향했다. 강물의 세력이 맹렬하여 어찌 홀로 화살을 쏘는 속력이 있을 것인가. 마치 한 줄기 긴 폭포가 거꾸로 하늘 위로부터 낙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강 밑은 모두 겹치어 쌓인 점성이 있는 돌이었다. 만일 건너는 자가 한 발짝이라도 잘못 짚으면 다리는 바로 수력이 없어지는 곳으로 빠져 넘어져 익사할 것이다. 우치다는 굴하지 않고 더욱 기세를 올려 약 8~9합(合)을 돌

진하니 수세가 점차 완만해져 맞은편 강기슭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다. 이때 전면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나룻배 한 척을 구했다. 모양이 다소 커 4~5명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무리를 불러와 달라."라고 하였다. 그 목소리는 바로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였다. 우치다는 승낙하고 몸을 돌려 다시 이쪽 강기슭으로 돌아와 무리를 데리고 다시 맞은편 강기슭에 도달했다. 나룻배는 큰 새끼줄에 묶여 있었다. 무리는 각각 사력을 다해 이것을 끌어 '에이에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을 횡단해 돌아가려 하였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면 물이 격해지고, 물이 격해지면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 겨우 끌어서 중류에 도달했더니 격한 물이 마침내 새끼줄을 끊고 배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리는 서로 바라보며 실망하였고, 이로 인해 단성행은 마침내 중지되었다. 돌아와 이쪽 강기슭에 도달했더니 달이 빛나고 밝은 모양으로 맞은편 민둥산 위로부터 떠올라 있었다. 흐르는 빛이 강 표면에 떨어지는 곳에서 부서져 파도 사이에 몇천 개의 금린(錦鱗)이 되었다. 그 요동치는 모습이 어떤 것은 날고 어떤 것은 뛰는 것 같았다. 이에 이르러 야색이 갑자기 모습을 달리했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항가(巷歌)가 사방에서 밤 연기가 가득한 사이로부터 들려왔고 단속적으로 다듬이질 소리가 또한 초라한 초가집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적나라한 11명의 호걸은 이 하늘의 음악에 취해 충분히 야색을 점령하고 나아가 술병을 강변으로 옮겨 몇 시간 동안 술잔을 들었다. 정전(征戰)으로 향하는 몸인 것을 잊어버리고 초연히 선향(仙鄕)을 소요하는 사람이고자 하였다. 이윽고 주막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더니 베갯머리에서 첫닭의 소리가 조용하고 깊은 밤의 쓸쓸함을 깨웠다.

마을의 폭민(暴民)을 물리치고 강변의 나쁜 마부를 응징하다

7월 4일 일찍 일어나 마을의 동정을 탐색하였더니 매우 불온한 조짐이 있었다. 모두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진주 병사가 자신의 전날의 굴욕의 한을 보복하기 위해 격문(檄文)을 연도(沿道)에 전달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하였다. 신속하게 식사를 마치고 불의의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짐을 지는 말을 먼저 정돈하고 마부 모두 문에 있으라는 명령을 마치고 무리 역시 말에 올라타고 바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수십 명의 폭한(暴漢)이 있어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게 마을 요충지를 장악하고 일행의 통로를 차단하여 오만하게 시위행동을 하려는 것 같았다. 무리는 일이 이미 위급하고 절박하여 온건하고 편하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을 파악하고 각자 큰 칼을 칼집에서 꺼내 말 위에서 이것을 잡고 왼손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함성을 질러 폭한의 무리에게 돌입했다. 군중이 말발굽으로 무수하게 유린당하였고 무엇보다 깜짝 놀라 모두 뿔뿔이 흩어져 한 줄기 혈로(血路)가 어려움 없이 열렸다. 11명의 호걸이 곧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가볍게 달려서 나갔다. 다시 강안을 따라 길을 꺾어 좁은 지름길을 따라 산청(山淸)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려고 했다. 지름길은 매우 험악했다. 왼쪽은 강을 바라보며 수 심(尋)의 단애가 있었고, 오른쪽은 수십 장(丈) 높이의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한 줄기 행로는 구불구불하여 그 사이에 수없이 꺾이는 지점이 있었다. 도로의 폭은 불과 한 칸이 되지 않았고, 길옆의 암석이 기구(崎嶇)하여 걸음마다 높낮이가 달라 올려보며 기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 있고 구부려보며 내려가야 하는 곳이 있었다. 이리하여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작은 배가 대양의 풍랑을 무릅쓰고 가는 것 같았고, 한 번 잘못해 추락한다면 두골(頭骨)이 가

루가 되어 생사를 예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선도(先導)하던 마부들이 이러한 험한 곳에 이르자 급히 재갈을 잡아끌며 위협하며 말하기를, "대인들은 속히 말에서 내리기 바란다. 우리들에게 갑자기 볼일이 생겼다. 지금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들도 역시 진주 병사의 유시(諭示)에 따라 이렇게 우스운 일을 연기할 뿐이었다. 말에서 내릴 수 없는 곳인지를 알면서 특히 말에서 내리게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행에 대해 자살을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였다. 일행의 진퇴는 정말로 유곡(維谷)의 궁지에 선 것이라 말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불행하게도 말 탄 사람의 운명은 지금은 모두 마부의 손아귀에 점유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 일행을 위해 만전의 방도를 강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마부의 면전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향해 애원하며 편안을 얻는 수밖에 없었다. 아! 당당한 11명의 쾌남자는 진주 연도의 땅을 진감(震撼)시킨 매서운 기세를 지금부터 갑자기 접고 필부(匹夫) 야인(野人)의 앞에서 갑옷을 풀고 항복을 구하기에 이를 것인가. 본디 창피를 아는 무사는 항상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고 궁지에 빠진 쥐가 도리어 고양이를 무는 이상한 현상을 본다. 일행은 말안장 위에서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연히 다음의 모험 조치에 나서 운명을 일거에 던져 마침내 그 화해(禍害)에서 벗어나는 길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앞쪽에 있던 우치다는 머리끝부터 화가 일어나 순식간에 말 위에서 발을 뻗어 마부를 벼랑 밖으로 차 버리고 중군(中軍)인 요시쿠라는 마부의 머리를 겨냥해 연달아 권총을 발사해 이를 바위 모서리 위에서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의기양양하게 말발굽을 나아갔다. 후미를 맡은 다나카는 큰 칼을 한 번 휘둘러 다른 사람의 어깨를 칼등으로 내려쳐

그를 습복(慴伏)시켰다. 그 밖에 오하라는 질타하고 스즈키는 고함소리를 질러 적의 간담을 빼앗아 위기를 미연에 제압하여 일행은 무난하게 강변의 험한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아마도 하늘의 도움〔天佑〕이 항상 그들 위에 더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일시 위험이 절박한 상황은 거의 호랑이를 만난 것보다 심했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들판의 작은 잔치

마침내 나쁜 마부의 위험을 벗어난 일행은 나아가 나쁜 마부를 복종하게 하여 명을 받들게 하였다. 길은 고원의 한쪽으로 올라가 남강의 맑은 강물은 아득히 말발굽 아래에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 지리산 아래의 몇 개의 마을이 푸른 나무와 대나무 숲 사이로 점철해 보이고 산청(山淸)과 단성(丹城) 두 군(郡)의 논과 들은 넓고 푸르러 푸른 호수를 보는 것 같았다. 안장 위에서 보는 풍광은 뜻밖에도 일행으로 하여금 잠시 채찍 소리를 둔하게 했다. 이러는 사이에 큰 느티나무 그늘이 있어 모두 말에서 내려 여기에서 청량함을 받아들이고 술집의 탁주를 가져와 조금 마셨다. 연회가 이미 절정을 지나 한 사람에게 마부를 부르게 해 부드러운 말씨로 물었다. "너희들은 진주 병사와 우리 일행 가운데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마부는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공들의 용맹함에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 일행이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를 잘 따라 전라도로 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가?" 마부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아마도 그들의 속마음은 심히 두려워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함께 가려고 하면 앞길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목이 잘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들이 도저히 확답을 줄 용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단연히 호령(號令)을 내려 말하였다. "우리 무리는 원래부터 마필(馬匹)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억지로 너희들의 귀향하려는 간절한 정을 제압할 뜻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 반수를 나누어 우리에게 머물고 다른 반수는 마음대로 가게 하도록 한다면 어떠한가?" 마부들은 원래 이의가 있을 리가 없었다. 모두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래 일행에게 가장 충실했던 자에게는 상으로 귀향을 허락하고, 가장 간교하고 교활해 진주의 세작(細作)으로 의심이 드는 자는 벌로 긴 여행길의 고난을 함께하도록 하였다. 귀가하는 자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머무는 자는 근심스러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다.

삼사(三士)의 용기가 산청(山淸)의 태수를 복속시키다

마부의 처분이 이미 끝났다. 일행은 느티나무 그늘에서 나와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어서 갔다. 이렇게 해서 산청현성(山淸縣城)에 도착해 한 객사로 가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게 했다. 이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현민(縣民) 역시 진주의 격문을 전달받은 것 같았다. 저쪽에 한 무리, 이쪽에 한 무리가 서로 논의하며 일행에 대한 처치법을 결정하려고 하였다. 때로는 중간중간 세작을 풀어 그 동정을 탐색하는 모양이었다. 현아(縣衙) 역시 관병을 규합해 성으로부터 토벌하러 보내 싸우려고 한다는 소문을 전해 왔다. 이때 일행은 아침부터 피로하여 다시 건투(健鬪)할 용기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눈앞의 위해(危害)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기회를 보아 먼저 이곳을 벗어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본래 조선인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적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갑자기 교만한 태도가 가득 차 득의양양하여 이에 편승하는 기질이 있다. 따라서 도망가는 자는 필시 추적을 면할 수 없다. 일행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떠나가거나 머물거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요시쿠라가 분연히 무리에게 말하였다. "대개 장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말을 쏜다. 지금 현민을 압도하는 가장 좋은 방책은 반드시 그 태수를 포로로 잡는 데 있다. 여러분은 잠시 이곳에서 낮잠을 자라.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관아에 침입해 다소 시험할 바가 있다."라고 하고, 말이 끝나자 쏜살같이 객사를 나가 바로 뛰어서 현아의 문 앞에 이르렀다. 수문병이 누구냐고 물었다. 요시쿠라는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 네다섯 명의 수졸(守卒)이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요시쿠라는 이미 들어가 관아 가운데 있었다. 눈을 돌려 전면을 바라보니 태수가 위용을 엄격히 하고 건물 위에 편히 앉아 있었다. 좌수(座首), 이방(吏房) 등이 좌우에 시립(侍立)하고 정원 위에는 한 명의 죄수가 목과 다리에 틀과 족쇄가 채워져 애원하며 억울한 죄를 변소(辨疏)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태수가 한창 송사(訟事)의 최종 판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요시쿠라는 잠시 물러나 폐정(閉廷)을 촉구하려고 하였다. 우치다, 오하라가 잇달아 와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외치며 말하였다. "기회를 잃으면 태수를 놓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대사(大事)이다. 곧바로 난입하여 그를 붙잡아가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 명이 함께 법정을 쳐들어가 건물에 올라 급히 태수에게 들이닥쳤다. 좌우에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세 명은 큰 소리를 질러 물러나게 했다. 태수는 공포에 질려 뛰어서 별전(別殿)

으로 들어갔다. 세 명이 추격해 들어가 격하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우리 당 11명은 일찍이 귀국에 대해 위해하려는 뜻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런데 연도의 많은 읍이 모두 우리 당의 행로를 방해하려고 하여 헛되이 소요를 일으켰다. 귀현(貴縣)의 관민 역시 바로 이를 따라 하려고 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태가 이미 급하다. 우리 무리는 일행을 대신해 특히 이곳에 와서 귀하를 포로로 삼아 감으로써 귀현에서의 행진(行陣)을 평안하게 하려 한다. 귀하가 우리 무리의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 포로가 되기를 수긍한다면 좋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척(咫尺) 사이에서 귀하의 수급(首級)은 우리 손에 있을 것이다. 귀하가 속히 스스로 결정하는 바가 있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태수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놀라며 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뒤 심기가 다소 평정을 회복하여 삼사(三士)를 돌아보고 진사(陳謝)하며 말하기를 "비관(鄙官)[38]은 결코 제현(諸賢)을 적대할 뜻이 없다. 단지 최근 진주의 격문이 사방에 급히 전해진 일이 있다. 비관 등은 원래 우도(右道) 병사(兵使)의 호령 아래 진퇴해야 할 자이다. 지금 그 명을 받드는 것은 사정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현이 죄를 용서할 것을 바란다. 어쩌면 병민(兵民)의 폭거에 의해 제현의 행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관이 스스로 나가 제현을 위해 그 무리를 위무(慰撫)하고 해산할 것이다. 제현이 이를 허락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삼사가 태수를 포로로 삼고자 하는데 그 뜻하는 바 역시 오로지 위험을 피하는 데 있다. 이리하여 태수가 청하는 바가 매우 온당한 수단임을

38 비관(鄙官) : 관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생각해 서로 제휴해 병민(兵民)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러 태수로 하여금 힘을 다해 병민에게 유고(諭告)를 하게 하였다. 태수는 이미 위협과 압박 때문에 처음의 뜻이 바뀐 것이 그와 같았다. 그리고 병민이 단지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상전의 명령을 받드는 것은 흐르는 물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산청현성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수촌(水村) 잉어를 구해 배불리 먹다

이날 오하라가 자주 말 위에서 추락해 여러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 많았다. 아마도 그는 본래 마술(馬術)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데다 기마 행렬이 너무 더디고 늦어 그 사이에 게으른 기분이 생겨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 위에서 수면에 빠진 결과 경사면에 이를 때마다 이러한 실책을 연출한 것이다. 마침내 그는 말을 버리고 도보대(徒步隊)에 합류했다. 이러는 사이에 날이 황혼에 가까워질 무렵 한 나루터에 도착했다. 나루터를 지나니 바로 하나의 낡은 역이 있었다. 무리는 이곳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 강변을 달려 만찬을 위한 맛있는 요리를 구하기 위해 수중에 폭약을 장치하려고 했다. 이미 온전히 장치가 되고 이어서 기회를 보아 도화선에 불을 붙였더니 하늘로 강물이 거의 1장(丈) 이상 솟구쳐 올랐다. 잉어와 붕어류가 떠올랐다 가라앉다 하다가 순식간에 무수하게 파도 사이에 떠올랐다. 무리는 기분 좋다고 말하고 이를 모두 거두어 바구니에 넣고 객사로 가지고 왔다. 굽기도 하고 회로 뜨기도 하며 앞다투어 정신없이 먹었다. 이로써 며칠 동안의 허기진 배를 채웠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요리

가 볼품이 없거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하나도 일행의 입에 맞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밤은 이와 같이 임시로 생긴 일 때문에 심야에 이르러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산빛이 곱고 강물이 맑은 시골에서 유랑하는 미인을 보다

5일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길은 강변의 오이밭을 따라 아침안개를 뚫고 나아갔다. 사방이 망망(茫茫)하였고 단지 소, 양, 닭, 개의 소리가 이웃 마을로부터 흘러나와 안개 사이로 반향(反響)하였다. 벽촌의 새벽 공기와 경치는 마치 태고의 정취가 있다고 느껴 일행의 마음은 상쾌했다. 스즈키가 낭랑하게 장기인 엣츄부시(越中節)[39]를 반복해 불렀다. 노래의 장단과 억양이 묘하고 산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소나무 소리가 어울려 부지불식간에 일행의 보조를 빠르게 했다. 이리하여 새벽바람이 불어 홀연히 연기와 안개를 날려 보내 앞산, 뒷산, 왼쪽 강, 오른쪽 강 등 시계(視界)가 점차로 열리고 취색(翠色)이 넓게 하늘과 땅을 덮었다. 우연히 앞을 바라보니 저 멀리 아득히 하나의 작은 붉은 가마가 있었다. 두 명의 가마꾼이 양쪽 팔뚝으로 능란하게 이것을 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였다. 논두렁을 지나 다리를 건너며 한 발자국씩 점점 일행에 다가왔다. 길옆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그늘에 작은 사당이 있었다. 사당의 위치는 경치를 조망하기에 매우 좋았다. 가마꾼도 여기에 이르러 가마를 멈추었다. 가마 속에 있는 사람은 창으로 머리

39 엣츄부시(越中節) : 도야마현(富山縣)의 민요이다.

를 내밀고 풍광을 감상하는 것 같았다. 일행 역시 점차 다가가 이곳에 이르렀다. 가마 속의 손님은 그 풍모가 마치 귀인의 총비(寵姬)와 같고 연령은 29세, 눈동자가 아름답고 치아가 가지런하며 얼굴이 꽃과 같고 허리는 버들가지 같아서 천녀(天女)가 인간세상에 강림한 것 같았다. 일행은 그가 어떤 이유로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단신으로 벽지에서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지가 이상해 그쪽으로 가서 위문(慰問)을 시도하였다. 미인은 바로 이에 응해 완연(婉然)한 미소를 띠고 꽃 같은 입술을 열어 대답했다. "첩(妾)은 모(某) 군(郡) 태수의 시희(侍姬)인데 동학도가 지금 전라 남부의 성들을 공략하여 관병이 패해서 숨고, 관속(官屬)은 도망가고 흩어져 형세를 다시 수습할 수 없다. 태수 역시 마침내 외로이 버티며 폐가(廢家)를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임무를 버리고 피난하여 서울로 갔다. 그래서 첩(妾)은 이때에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귀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호걸이 만약 지금부터 전라도로 가려고 한다면 오로지 그 앞길을 경계하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하고 응시한 다음 다시 말했다. "공(公)들은 원래 특별한 지역〔殊鄕〕의 사람이다. 도중에 만일 풍토의 변에 의해 고생한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이 없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연히 공들을 곤폐(困弊)로부터 구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들은 먼저 마땅히 연도의 마을 사람들의 담화에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미인은 다시 일행에게 좋은 술 한 병을 주고 은근(慇懃)하게 이별을 고했다. 가벼운 가마가 표연(飄然)히 순식간에 산빛이 곱고 강물이 맑은 지역 사이를 달려 나갔다. 묘연(杳然)하여 마침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호랑이가 사는 지리산의 신령한 장소

미인의 선인과 같은 용모가 아직 흐릿하게 멀리 일행의 눈동자 속에 비추고 있는 사이에 술병은 이미 다 비워졌지만 술을 좋아하는 자는 홀로 이를 비울 수 없는 정이 있는 듯하다. 의연하게 병 바닥의 남은 방울을 핥고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기뻐했다. 취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 일행은 더욱 용기가 발동하여 다리의 힘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렇게 하여 땅은 점차로 전라도의 분수령에 가까워져 걸음걸이가 점점 높아짐을 느꼈다. 왼쪽 길가에 한 줄기 급한 여울이 있어 물살이 거침없이 하늘 끝으로부터 솟아올랐다가 거꾸로 동남쪽을 향해 흘러 물소리가 시끄러워 기나긴 밤에 내리는 비와 같았다. 여울과 떨어져 일대 산맥이 있다.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곳곳에 기암괴석이 가파르게 솟아 있어서 하늘을 문지르려고 하는 것이 마치 호랑이가 뛰고 용이 나는 형세였다. 나아가 산 중턱을 바라보니 비안개처럼 얽어 맺혀서 흔들흔들 움직였다. 산색이 쓸쓸하여 성난 듯하고 근심 어린 가운데 한쪽 길에서 영묘한 기운이 바람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조선의 팔대 명산 가운데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전라도의 지리산이 바로 이곳이다. 지리(智異)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산과 함께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에는 세키야 오노타로(關屋斧太郎)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차례 이 산속을 두루 돌아다니며 각 암사(菴寺)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비구니가 자신의 여아를 양육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놀랐고 교원(敎園)의 황폐함을 깊이 탄식한 적이 있다. 되돌아보니 시대가 변천하여 신령한 장소가 세속화되고 옛길 역시 점차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인가. 일행은 산에 대해 고금(古今)을 우러러

보며 감개(感慨)하는 바가 매우 많았다.

영담(靈潭)에서 목욕하고 행군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 버리다

길을 나아가 정오에 황폐한 마을에 도달했다. 일행은 식사를 명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때 한 명의 촌로가 목소리를 높여 손님 한 명과 담장 밖에서 이야기하였다. "정자 뒤에 계곡물이 있는데 예부터 이를 칭해 영담(靈潭)이라고 한다. 여행객이 만일 한 번 이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만병이 깨끗이 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의 어려움 역시 온전히 이를 통해 해탈할 수 있었다. 목욕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병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상처로 인한 통증 등 액(厄)으로 입는 재앙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관음보살이 때때로 가마를 타고 이곳으로 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영험한 것이다. 살펴보니 공(公)도 역시 여행길의 뜨거운 더위로 곤궁하고 피폐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삼아 여기에서 입욕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협도(俠徒) 일행 역시 실로 여행의 어려움을 견뎌 온 자가 많았다. 맹렬한 기후와 불량한 음식물이 가장 큰 것이고 모기, 파리, 빈대, 오물, 객사의 불완비 등은 그 다음이다. 최근에 일행 대부분이 안색이 초췌하여 용모도 뼈가 앙상한 듯하다.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속으로 생각하건대, 앞서 사당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미인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과연 그렇다면 그 미인이 일행을 대하는 것은 맹숙옹(孟叔爺)이 입만(入蠻)하는 제갈량(諸葛亮)의 일군(一軍)에 대해서 한 것과 같다. 하늘의 도움〔天佑〕은 항상 의외의 곳에서 인의(仁義)의 사(士)의 머리 위

를 향해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인 것이 아니다. 어쩌면 미인은 관음의 화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일행은 시험삼아 목욕을 하려고 이른바 영담 아래에 이르렀다. 계곡물이 맑게 직하하여 세차게 솟구쳐 바위와 부딪쳐 부서지는 것이 꿴 구슬과 같았다. 절벽에 걸렸다 떨어지는 것은 부서진 옥렴(玉簾)과 같이 꺾여서 가고, 머물러 연못이 되는 것은 파란색 유리와 같고, 부서져 거품이 되는 것은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았다. 계곡 옆에는 느티나무 그늘이 있고 초가 정자가 있다. 계곡 가운데 또 별도로 봉황암(鳳凰岩)이 있다. 바위의 큰 평면은 30~40명이 앉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용호석(龍虎石)이란 것이 좌우에서 서로 눈을 흘겨보며 둥글게 솟아서 웅크리고 있다. 일행은 바위 위로 뛰어가 모두 몸을 날려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얼음보다도 매우 차가워 피부를 자극하고 골수에 사무쳤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태양빛이 쨍쨍하여 한 줄기 미풍조차 보내지 않았다. 땅을 바라보니 뜨거운 불을 받는 것 같아 쇠를 녹일 기세였다. 이때에 찬물 목욕의 쾌감은 만약 이것이 약천(藥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천국에서 노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하물며 명망 있는 지리산 속의 한 계곡을 촌로가 영험 있는 신수(神水)라고 말함에 있어서랴. 일행은 잠시 목욕을 하니 피로가 갑자기 줄어들고 몸이 순식간에 신선의 기운을 띠게 되었다. 정신의 경쾌함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숙소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할 때 위장이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구간의 늙은 말을 놀라게 하였다. 미인의 선물도 역시 두터운가.

팔도 제일의 음료수

점심 식사가 이미 끝나고 가벼운 복장으로 다시 산길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였다. 길가의 수풀 가운데 딸기가 매우 많았다. 일행은 이를 따서 그 산액(酸液)을 맛보았다. 마침내 전라도와 경상도의 분계표(分界標)에 이르렀다. 일행 중 숨을 헐떡거리며 갈증을 호소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꼭대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맑은 샘이 그 나무 아래에서 솟아올랐다. 무리는 곧 샘으로 가서 목을 축였는데 물이 매우 차가웠다. 무리는 모두 절규하며 말하기를 "팔도 제일의 맛 좋은 음료수이다. 애석하게도 퍼서 갈 수가 없다. 위가 파열되지 않는 한 함께 마음껏 배불리 마시자."라고 하였다. 각각 한 국자씩 퍼서 마시고 또 마셨다. 그 양은 한 되보다 적지 않았다. 비탈길은 이제부터 내리막 경사이므로 가볍게 뛰어갈 것이다. 황혼 때 마침내 운봉성(雲峰城) 아래에 도착했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장차 운봉(雲峯)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일행은 교외의 큰 옛 사당 옆에서 휴식했다. 한번 둘러보니 들과 산이 구부러져 긴 뱀이 기어가는 것 같았다. 촌부 야인〔田夫野人〕이 이곳에서 소와 말의 무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런 뒤 각각 둑 밑에서 잠시 휴식했다. 이어지는 산 역시 멀리서 운봉의 광막한 대고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밥 짓는 연기가 마을 이곳저곳에서 흐느적거리고 산과 강의 풍경, 나무숲과 성루(城樓)가 서로 반영하여 그림과 같았다. 때마침 소나기가 내렸다. 들판에서 일어나 사당으로 갔다. 잠시 뒤 소나기가 그치고 맑아지자 갑

자기 큰북 소리가 들렸다. 계속 치면서 주변 마을 쪽에서 다가왔다. 일행은 모두 이에 주목했다. 갑자기 큰 깃발 하나가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농촌 아이와 촌로가 서로 이것을 품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40~50보 앞에 나타났다. 깃발 위에 쓰인 것을 읽어 보니, "농자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였다. 일행은 비로소 풍년의 기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큰북 소리가 어쩐지 법화종(法華宗)의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과 비슷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운봉성(雲峰城) 유수(留守)의 환영

운봉은 고원에 있는 도회지로 조선 제일이다. 위치는 이미 고원의 산하를 차지하고 있다. 풍경 역시 평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 조선인은 이 현을 칭하여 천하의 영경(靈境)이라고 한다. 영경의 넓이는 동서로 3리이고 남북으로 2리가 넘는다. 현(縣) 아래 여러 읍(邑)의 인정은 매우 평화롭다. 일행이 성 아래에 도달하자 먼저 현의 관아로 가서 숙소로 삼기에 좋은 곳을 물었다. 현관(縣官)이 맞이하며 말하기를 "민가는 좁고 더러우므로 귀인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 호걸이 만일 나의 접대가 충분치 않음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공청(公廳)에서 하룻밤 휴면(休眠)해 볼 것을 청한다. 이것도 역시 여행 중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행은 원래 관가(官家)가 청한(淸閑)하여 숙소로 삼기에 좋다는 것을 안다. 단지 관가가 쉽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지금까지 아직 담판을 시도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먼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일행을 응접하고 있다. 그 깊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바라지도 않던 행운인바, 따르지 않으면 그 죄가 필시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관아 안의 넓은 방을 빌려 사양하지 않고 맛있는 술과 좋은 안주의 접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시원한 마루에서 잠을 잤다.

정왜대총독(征倭大總督)의 비를 깨부수려 하다

운봉의 현관이 일행을 환영한 것은 되돌아보니 경원(敬遠)주의를 이용해 향읍(鄕邑)의 무사함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행이 연도(沿道)를 파괴하면서 온 실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원의 사민(士民)은 원래부터 천성이 매우 강건하고 필시 충분히 휴식하게 한 다음에도 일행의 피로를 요격할 수 없을 정도로 겁쟁이는 아니다. 그들은 뒷날 56주를 석권하고 온 동학당의 대군을 능히 타파하였다. 어찌 소수의 일행과의 싸움을 피할 것인가. 그들이 당시 경원주의를 취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일행에 대한 하늘의 도움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일행은 원래부터 그들을 무찌르고 쉽게 혈로(血路)를 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에서 겪을 장해는 아마도 일행으로 하여금 마침내 나라에 공을 세울 건공(建功)의 기일을 그르치게 하였을 것이다. 운봉에서 일이 없었던 것은 일행의 앞길에 희망이 양양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일행의 상상은 이와 같았다. 그 다음 날, 7월 6일 이른 아침에 서로 축하하며 남원부(南原府)로 향했다. 거의 1리 정도 갔을 때 순식간에 여원현(女院峴)에 이르렀다. 비탈길이 매우 험악하여 급경사를 바로 내려가는 길이 1리 남짓 이어졌다. 걷기 매우 곤란했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로 심한 것을 보지 못했

다. 비탈길이 바로 끝나려고 하는 곳 우측 4~5장(丈) 정도에 큰 괴이한 바위 위에 적힌 큰 붉은 글자가 있었다. 정왜도독(征倭都督) 누구라고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일행 중 몇 명은 이를 보고 뜻하지 않게 발길을 멈췄다. 모두 말하기를 "이전에 우리 동인(同人)은 부산 영가대(永嘉臺)의 제영(題詠)인 '중관탄일정동개(重關呑日正東開)'라는 시구에 대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힐책하고 이어서 수영(水營)에서 태합(太閤), 기요마사(淸正), 유키나가(行長)[40]를 책형(磔刑)[41]에 처하는 세 석상에 대해 수군통제사를 변난(辯難)한 적이 있다. 야만인을 복종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 기회가 실로 미묘한 곳에서 나온다. 우리 당은 이 '정왜(征倭)'라는 두 글자를 놓칠 것인가. 다시 다이너마이트로 이것을 분쇄하고 가자."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큰소리로 마부를 부르기를 십여 차례 하였으나, 마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날 짐을 싣는 말이 가장 앞서 나가 선두에 있어 이를 쫓더라도 마침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아! 유감이다. '정왜'라는 두 글자를 어느 날에 갈아 없앨 것인가. 이를 분히 여기는 자가 어찌 천우협뿐이었을까.

병자가 소변을 마시다

여원현을 다 내려와 길은 점차로 넓은 벌판이 막막히 이어지는 사이로 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벌판은 단지 관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

40 태합(太閤), 기요마사(淸正), 유키나가(行長) : 태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가리키고, 기요마사는 가토 기요마사(加籐淸正), 유키나가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말한다.

41 책형(磔刑) : 죄인을 기둥에 묶어서 세워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말한다.

라고 있을 뿐이었다. 녹음이 없고 흐르는 물이 없었다. 햇빛만 홀로 붉게 빛나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일행 중 매우 덥다고 소리를 지르는 자도 많았다. 길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어서 잠시 쉬면서 땀을 닦으려 하였다. 방 안에는 병든 사내가 있어 과부를 불러 약을 가져오게 했다. 일행이 장난으로 그 약이란 것을 살펴보았더니 뜻밖에도 이것은 사람의 배설물인 소변이었다. 일행은 놀라서 그것을 복용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나아가 병의 증세를 듣고 이에 상당하는 의약(醫藥)을 투여하였다. 병자는 일행이 베푼 은혜를 받아 여러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정말로 의약이 부족했다. 그래서 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때때로 5살 이하 소년의 소변을 복용하고 평소에 고이 이를 보존하는 풍습이 있다. 비단 서민만 그런 것은 아니다. 궁중에서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런데 귀국은 실로 동방신선국(東方神仙國)이라는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약초가 모든 산과 들에 있어 마침내 진(秦)나라의 서복(徐福)으로 하여금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靈藥)을 구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속으로 선망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일행은 듣고 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짓고 잠시 있다 몸을 일으켜 그 초가집에서 걸어 나갔다.

버드나무 둑에서 참외를 잘라 탁주를 마시다

더위가 더욱 맹렬해졌다. 일행의 걸음은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려졌다. 마침내 선봉과 후미 사이는 약 반 리나 떨어졌다. 이에 이르러 행진(行陣) 또한 대형(隊形)을 이루지 못해 삼삼오오 서로 이끌고 가는데 흐르는 땀이 폭포와 같았다. 이러는 사이에 앞에서 하나

의 긴 누벽(壘壁)이 꿈틀거리듯 들판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분로쿠(文祿)의 정한(征韓)[42] 때 이름이 높았던 남원성일 것이다. 이곳은 성 밖으로 5정(町)[43] 정도 떨어져 있다. 길의 왼편으로 버드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긴 둑을 이루고 있다. 버드나무 그늘에서 조선인 여행객 중 시원함을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서너 명의 농부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주 참외를 팔았다. 둑의 한편에는 하나의 초정(草亭)이 있고 시골 아낙네 한 명이 거적 위에 편히 앉아서 여행객에게 탁주를 팔았다. 가서 보니 홉사 수호전(水滸傳) 속 고삼양(顧三孃)[44] 야점(野店)의 광경이었다. 앞에서 가던 요시쿠라와 구사카 등은 기분이 좋아 이 둑 위에서 내려가 참외를 구하고 술을 시켜 마시고 또 좌우의 조선인 여행객과 담소를 하며 도내(道內)의 사정을 탐색하였다. 마침내 팔꿈치를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낮잠을 자면서 나중에 오는 자를 기다렸다. 우치다, 다나카, 스즈키, 오하라 등이 잠시 뒤 연이어 모여들었다. 모두 좋고 시원한 곳을 찾았다며 기뻐하였고 이윽고 참외 장수를 발견하고 앞다투어 참외를 자르게 했다. 그리고 술집 깃발을 확인하자 순식간에 젊은 여자 곁으로 떼 지어 모여들여 정신없이 여러 잔을 잇달아 마셨다. 갈증 속에 들에서 먹는 참외와 술은 천하의 진미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리하여 일행은 이전의 심한 더위를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다.

42 분로쿠(文祿)의 정한(征韓) : 임진왜란을 말한다.

43 5정(町) : 거리의 단위로 1정(町)은 60칸(間)이며, 약 108m에 해당한다.

44 고삼양(顧三孃) : 호삼랑(扈三娘)의 오기로 보인다.

남원성 아래에서 천우협의 활동

남원 객사. 일행은 이미 충분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둑에서 내려가 성안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누벽을 따라 달리다 옛 사당에서 돌아 다리를 건너 문을 지나 마침내 성안의 한 객사에 도착했다. 객사는 매우 왜소하고 불결하여 일행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았다. 하물며 성민(城民)이 운집하여 드물게 보는 타향의 손님을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5월의 파리라고 하는 상태였다. 이에 요시쿠라는 스즈키와 함께 저녁 서늘해질 때 관아로 가 부사를 방문하였다. 지난밤 운봉에서와 같이 관아의 방 하나를 빌려서 그곳에서 머물며 숙박하려고 했다. 관아에 도착했더니 차관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부사가 병이 나서 접대의 예를 다하기 어렵다고 진사(陳謝)했다. 아마도 일행의 군용(軍容)이 훌륭하고 연도를 습복(慴伏)해 온다는 것을 전해 듣고 공포심에 대면하기를 피했을 것이다. 조선 관인의 겁이 많음은 반드시 유독 남원부사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부사(府使) 아문에서 양사(兩士)가 관인(官人)을 설파하다

이야기의 단서는 여기에서 열렸다. 차관은 위엄을 갖추고 따지듯이 물었다. “공들은 이 무더운 시기에 특히 먼 길의 정행(征行)을 시도하고 비단 깃발을 들고 무기를 잡은 것은 대저 무슨 뜻인가.”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 응해 말하였다. “다른 뜻이 없다. 우리들이 온 것은 단지 동학도에 대해 알기 위함이다. 무기를 든 것은 전쟁터 출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비단 깃발을 든 것은 동행인이 많아서 기율을 바르게 하고 분란을 막는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관이 더 묻기

를, “온 뜻은 이미 들었다. 그렇다면 종자(從者)가 많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두 사람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뜻이 있다. 사람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능히 서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화두를 바꾸어 말하기를 “청(淸)의 황제가 의를 위해 우리에게 대군을 보내 동학도의 난을 진압하려고 한 것은 지난날의 일에 속한다. 지금은 동학도가 이미 사방으로 흩어졌고 청군(淸軍)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서울로부터의 소식이 있다. 우리 부사는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청군에 제공할 식량 징집의 임무를 받았는데 오늘날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그 명령 역시 취소되었다. 그런데 최근 귀국은 대군을 우리 국내에 파견해 현재 경기도 땅에 주둔하게 했다고 들었다. 이것은 실로 우리 국민의 경동(警動)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웃 사이의 정의(情誼)를 손상하는 점이 많다. 귀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일을 하여 일부러 다른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가. 또 공들은 입으로 먼저 동학도의 사정을 알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동학도는 이미 흩어져 사방으로 갔다. 공들은 무엇으로 사정을 파악하려는 뜻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차관은 이치에 어긋난 말과 궤변을 다하여 일행의 진행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부산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 외교술은 교묘하여 도저히 우리 지방관 중에서는 볼 수 없었다. 아니 외무 당국자라 하더라도 아마도 그에 필적하는 것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쉽게 그의 언술에 기만당할 사람이 아니다. 즉 스즈키는 동아의 현 상황과 조선의 관계와 세계의 대세를 비교해서 논함으로써 그를 경성(警省)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자신과 자국과의 존재를 알고 세계 또는 동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조선 관리배가 어찌 이 충언을 해득할 것인가. 단지 공손한 인사로 송구해했으나 그러한 것은 공맹(孔孟)의 경서(經書) 속에 조금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안색이었다. 여기에서 요시쿠라는 "청 황제에게 본디 무슨 의(義)가 있고 청국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오히려 일본제국이 사방의 승냥이와 이리에 대해 끊임없이 조선을 보호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 일본이 없다면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망국(亡國)의 운명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역사에 대해, 지리에 관해 형세를 분명히 하고 적절히 논구(論究)함으로써 면전에서 청국의 야심을 폭로하고 의뢰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이르러 그는 마침내 자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 도중에 자주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경필(警蹕) 소리 속에 제후의 태도를 취하다

이야기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 때에 요시쿠라는 차관에게 일행의 객관(客館)이 매우 비좁고 불결한 곳이라고 호소하고, 관방(官房) 또는 다른 곳에서 별도로 합당한 숙소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래 차관은 요시쿠라의 복장이 비단실과 자색빛이 현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당초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근거없이 판단하고 응접한 것이었다. 지금 그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함부로 이를 엄하게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친절하게 답하여 말하기를, "이곳 남문 밖에 광한루(廣寒樓)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른바 전라도 제일의 누각으로 경치도 역시 매우 수려하고 건축은 원래부터 굉장(宏壯)하다. 보통 때에는 칙사나 관찰사 외에 어떠한 고관대작의 인물이더라도 쉽게 여기에 머

물러 숙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특별히 이곳을 공들을 위해 빈전(賓殿)으로 삼으려고 한다. 생각건대 귀국인 및 공들에게 우리나라가 매우 큰 후의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들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공들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곧 그를 따라서 건물에서 내려갔다. 차관이 계단 밑에서 큰 목소리로 '여봐라.'라고 외치니 낮은 관리와 군졸 대략 30명이 갑자기 각 방으로부터 나타나 차관과 요시쿠라, 스즈키를 전후에서 호위하였다. 대열은 엄숙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차례로 아문을 나섰다. 이렇게 하여 부(府)의 큰 거리에 이르렀더니 호졸(護卒)이 연이어 소리를 내어 '위치로, 위치로' 하고 외쳤다. 아마도 옛날 우리나라에서 다이묘(大名)가 통행할 때 아래에 있으라는 경호를 위해 통행을 금하는 말〔경필(警蹕)〕을 사용한 것 같다. 스즈키, 요시쿠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이묘와 견줄 정도로 당시의 득의양양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7~8정(丁) 정도 가서 마침내 광한루 아래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의 창연(蒼然)한 경치가 사방의 산으로부터 오고 거리의 노랫소리가 저녁 연기 사이로 올라왔다. 스즈키는 동행자를 부르러 이곳에서 돌아갔고, 요시쿠라는 홀로 남아 누각에서 시가를 읊으며 무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광한루의 첫날 밤

남원부(南原府)는 동서 6리, 남북 12리로 관지(管地)의 중앙에 위치하며 성벽이 1리에 미치고 인가(人家)가 1,500호가 넘으며 상업 또한 상당히 번창하였다. 광한루는 남문 밖에 위치해 있는데 건축의 장려

(壯麗)함은 거의 일본의 큰 사원에 뒤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를 '호남제일루'라고 한다. 아마도 경상도 밀양부의 '영남제일루'와 대치하며 풍광이 빼어나고 멀리 산이 있고 가까이 구릉이 있으며 안개 낀 푸른 숲의 조망이 전라도에서 으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찾아오고 광한루 주변에는 시를 음유하는 자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즉, 일행의 숙소를 여기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당시 여행 중 가장 요행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차관은 바로 30명의 하리(下吏)와 군졸을 시켜 누각의 위아래를 청소하고 누각 아래의 넓은 정원에는 초병선(哨兵線)을 펼쳐 두어 잡인(雜人)의 침입을 엄금했다. 손님을 맞을 일체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짐에 따라 요시쿠라를 정면의 한 방으로 인도해 들어갔다. 단지 보기에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큰 방 가운데 외로운 등불이 겨우 켜져 있어 희미한 불빛이 귀신불과 같았고 밤기운이 처연하여 사람을 덮치려는 것 같았다. 이때 스즈키가 드디어 일행을 데리고 왔다. 앞서 부산에 남아 있던 오사키(大崎)와 다케다(武田)의 후발대가 또한 이 저녁에 일행을 쫓아서 올 줄을 어찌 알았으랴. 일행은 뛰면서 이들을 맞이했다. 일행 중에는 이 두 사람이 실로 이미 문제가 있어 신변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한 자도 있었다. 더구나 적은 인원으로 먼 길을 무사히 일행이 겪어 온 위험한 길을 추적해 왔다. 그리고 능히 일행 앞에 새로운 무기와 총기와 여비도 가져왔다. 그 어려움은 정말로 살필 수 있지만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제 이들을 합쳐 일행은 14명이 되었고 무기는 이미 전날의 배가 되었고 물자 운반 또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천우협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관리가 밤에 진귀한 술을 가지고 오다

밤 9시가 되려고 할 때 초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부사(府使) 쪽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를 당상(堂上)으로 안내할까요?"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가 맞이하였더니 이전의 차관과 네다섯 명의 관리가 부사의 적자(嫡子)를 동반해 찾아왔다. 통역관이 부사의 명령을 통역하여 말하기를, "우리 부사가 공들이 멀리서 온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사소하지만 우리 명산품인 대나무술과 돼지와 소고기를 바치려 한다. 받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였다. 대나무술은 대나무를 통해 만들어 매년 국왕에게 바치는 것이 관례이다. 일행은 오랫동안 객중의 거친 음식에 힘들어서 기뻐하며 이를 받아 사절과 함께 당상에서 단란하게 마시고 또 먹었다. 방에 가득 찬 손님과 주인은 이미 취기가 절정이었다. 여기에서 어떤 자는 씩씩하게 칼을 잡고 일어나 춤을 추고, 어떤 자는 도연(陶然)히 시를 나직하게 읊조리며 자리에서 즐겼다. 한 폭의 광경이 마치 이향(異鄕)에서 새로운 일본국을 만들어낸 것 같아 일행 또한 몸이 해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절은 이를 관망하고 망연자실하여 그저 기이한 느낌을 참을 수 없는 듯이 보였다. 이러는 사이에 밤은 깊어지고 점차 흥도 다하여 사절이 물러갈 때쯤 연회도 마침내 끝났다. 이날 밤 연회 자리에서 행동거지가 궁색함을 참지 못하고 홀로 고뇌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요시쿠라였다. 그는 불행하게도 사절을 응접할 때 대장처럼 하였기 때문에 영주인 양하여 자리 정면에 다리를 꼬고 앉아 품위를 지키려고 좋아하는 좋은 술과 안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헛되어 식욕을 제어하고 군침을 흘리며 눈을 동그랗게 하고 그것도 우아하게 일행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을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지러이 춤추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폭포처럼 땀을 흘리며 자랑삼던 자색옷과 비단옷도 모자와 함께 거의 용모가 흐트러지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연회가 마침내 끝나자 요시쿠라는 기력이 완전히 쇠해 한숨 쉬며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인생을 그르쳐 대장의 몸이 되지 말라. 일체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 뒤진다."라고 하였다. 이것 또한 한바탕의 익살스러운 연극일 것이다.

광한루의 제2일

다음 날 아침 행인이 말하는 바를 들어 보니 "동학군은 어젯밤 바로 남원에서 서쪽으로 6리 지점에 있는 순창의 관아를 습격하였다. 습격한 뒤 점거하여 지금 그 진영을 설치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단, 그 병력에 대해서는 혹은 수백 명이라고 하고 혹은 수천 명이라고 하여 여러 정보가 일정하지 않았다. 일행은 이 소식을 접하자 피가 끓고 근육이 움직여 갑자기 정신이 격앙하여 속으로 기왕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축하했다. 또 여기에서 비로소 앞으로의 도정에 하나의 광명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학도의 진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준비를 속히 하여 다음 날 아침 새벽녘에 이곳을 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에서 총기 담당인 오사키(大崎)와 치바(千葉)는 허둥대며 총기 손질에 분주하였고, 탄약 담당인 시라미즈(白水)는 탄환 제조에 종사하고, 폭약 담당인 구사카(日下)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 폭약을 통에 담는 법을 연구하고, 검을 잡은 자는 각자 그 칼을 갈고 칼자루의 못을 검사했다. 우치다(內田), 오하라(大原), 오쿠보(大久保)는 정원 위 각 방면으로 나뉘어 서서 잡인(雜人)의 침

입과 준비의 방해물을 경계했다. 그리고 폭탄을 던져 그 효험을 시험하여 담장 옆이나 벽 근처에 굉음이 들리게 하였다. 풍경이 매우 참담하였다. 그런데 누각 밖 정원 위를 둘러싸고 이를 관망하던 온 성(城)의 조선인은 추호도 부(府)의 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의심을 품는 자가 없고 단지 진기한 느낌을 참을 수 없어 그 비밀을 엿보려고 하였다. 왕왕 인파에 밀려 정원으로 난입해 호위하는 조선 병졸도 이를 제압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난입한 무리가 만약 건물 아래에 접근하려 하면 경계하던 삼사(三士)는 이들을 붙잡아 바로 장외로 던져 버렸다. 그리고 넌더리도 내지 않고 오는 자는 압착하여 잠시 이를 거짓으로 죽게 하는 등 거의 귀신과 같은 위력을 보임으로써 간신히 조선인을 외복(畏服)시켰다. 당시 다행히 질서를 보호 유지하고 큰 변 없이 충분한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삼사의 공이다. 단지, 소년 이노우에 도사부로(井上藤三郎)는 이날 건투하였는데 마음 아프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상을 입었다.

일행이 지금까지 병비(兵備)를 엄중히 한 까닭은 다른 뜻이 아니다. 동학군이 과연 세상에 전해진 바와 같이 배외당(排外黨)이고 혹은 일본 반대파이며 혹은 조선에서 무뢰하고 잔인한 비도(匪徒)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행은 이에 대해 추호도 용서하는 바가 없이 곧바로 조선 정부를 대신해 그들이 책벌(責罰)하지 못하는 것을 책벌함으로써 국형(國刑)을 바로잡고 또 이웃의 우의를 온전히 하기 위해 크게 무기를 사용할 필요를 느낀 데 있다. 만일 동학의 무리가 정의의 군대이고 혁명의 군대이며 안민정국(安民定國)의 구세자라면, 곧 단연코 이와 협력하고 합심하여 함께 대천입덕(代天立德)의 석기(席旗)를 나부끼게 하고 팔도 1천만 명의 인민을 위해 14구의 사체를 말가죽으로 묶음으로써[45] 인민을

도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보라, 하늘은 역력하게 우리 협도를 돕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무기를 준비할 때에 부사는 공공연히 적당히 높은 누각을 빌려 주었다. 부의 병사는 와서 사방을 호위하고 그 준비를 도왔으며 방해자를 막았다. 부의 사람들은 무신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우리 무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하루 만에 많은 대군을 능히 타파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아! 이미 하늘의 도움이 있다. 누가 또한 우리 무리가 지업(志業)을 이루지 못함을 의심할 것인가.

영주각(瀛州閣) 위에서 삼사가 급히 격문을 기초하다

동인(同人)이 만반의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요시쿠라(吉倉), 스즈키(鈴木), 다케다(武田)의 세 명은 첫 만남 때 동학군에게 줄 한 편의 격문을 기초해 우리 일행이 무엇 때문에 멀리서 이곳에 와서 진영(陣營)을 두드리려 하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즉,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장소를 찾아 광한루 뒤 연못 속의 작은 섬에 이르러 영주각(瀛州閣)이라는 작은 정자를 발견했다. 삼사는 정자 안으로 들어가 두세 명의 시객(詩客)이 섬 위에 누워서 시를 읊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내쫓았다. 그런 뒤 스즈키가 계단을 내려와 양팔의 완력을 써서 가교를 철거하여 조선인이 와서 살피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섬은 더 이상 조선의 주권을 벗어나 세 명의 일본 사인

45 사체를 말가죽으로 묶음으로써 : 병사가 전장에서 죽는 것. 종군한 이상은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용사의 각오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後漢書』「馬援列傳」)

(士人)의 손아귀에 점령되었다고 말해도 불가한 것은 아니다.

영주각의 구조는 조금 허술하여 보잘것없고 협소한 것 같다. 그렇지만 연못에 접해 홍련(紅蓮)을 품고 있는 흥미진진한 우아함에 있어서는 일본 교토 녹원원(鹿苑院)의 금각사(金閣寺)에 뒤지지 않는 점이 있다. 아니, 그 이름이 이미 영주각이라고 불린다. 지상의 선경(仙境)과 비슷한 곳이 원래 이곳이다. 눈을 돌려 사방의 벽을 바라보니 24효(孝)의 그림은 매우 고풍스러운 색채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필력은 보통이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맹(孔孟)의 유교(遺敎)는 그 형해(形骸)를 이 사이에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사는 유유하게 정자 속에 편히 앉아 물결 위의 청풍(淸風)에 무더위를 잊고 붓을 잡아 조용히 지면(紙面)을 대하였다. 마침 연꽃이 물을 건너 향을 보내오고 선풍(仙風)이 산들산들 탁자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

영웅이 큰비를 뚫고 당군(黨軍)을 두드리다

준비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동학도의 소재 역시 점차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일각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일행은 갑자기 의기양양해져 다음 날 아침 큰비를 상관하지 않고 광한루에서 출발하여 도로에 가득 찬 곤란한 진흙 진창을 두 다리 아래로 유린하면서 매우 빨리 얼굴도 돌리지 않고 순창을 향해 달려나갔다. 약 4리 정도 가는 곳에 작은 강을 건너 하나의 여관이 있었다. 일행은 이곳에 들어가 잠시 휴식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요시쿠라, 다케다는 다시 다른 방을 구해 함께 격문을 청서(淸書)했다. 이때 여행객 중에 한 명이 와서 알리며 말하였다. 순창에 자리 잡은 당

군(黨軍)은 정예병 약 5백 명 이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의(衆意)는 오하라와 다나카를 보내어 당인(黨人)의 감정을 탐색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이미 떠난 뒤 1시간 정도, 일행 역시 그 뒤를 쫓아서 출발했다. 순창 교외에 도착한 것은 이미 황혼 무렵이었다. 아득히 앞쪽을 바라보니 대장부가 시내 끝의 다리에 서서 두 손을 들어 일행을 손짓해 불렀다. 점차 다가가니 이는 바로 먼저 간 다나카였다. 그가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 당 만세! 피아 연합책을 돌아보니 이를 이루는 데 굳이 어려운 것이 없다. 지금 당군이 특사(特使)를 통해 서장(書狀) 하나를 보내왔다. 청하건대 모두 함께 이것을 펼쳐 보고 신속하게 회답을 보내는 절차를 취하자."라고 하였다. 봉투를 열어 이를 읽어 보니 그 글은 다음과 같다.

> 귀국 대인 각위(各位). 만 리(萬里)를 멀다 하지 않고 누추한 땅을 향해 열풍(熱風)과 화우(火雨)를 이겨낸 먼 길의 노고에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까닭을 알지 못한다. 원래 대명(大命)을 띠고 패배한 우리 당인을 만사(萬死)에서 구하기 위함인가, 본래 달리 기하는 바가 있는 것인가. 다행히 교시를 받아 매우 다행이다. 우리 당인은 이전에는 탐관오리가 민고(民膏)를 박탈하는 것을 묵시할 수 없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원한을 드러내고 원통함을 외치며 무리를 모아 전주로 들어갔다. 그 뜻은 오로지 백성과 더불어 그 부침(浮沈)을 함께하는 데 있다. 성 위에서 포탄이 비 오듯 쏟아져 우리 천여 명이 사살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매우 원망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외칠 곳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우 원통한 백성을 가리켜

마침내 불궤(不軌)의 무리로 간주하여 수령과 방백은 매번 무기를 준비해 우리 당인을 요격해 말살하려 한다. 천하의 무고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으랴. 이것은 실로 여러분이 가엽게 보아 줄 것을 청하는 바이다. 또 우리 당인은 본래 덕(德)을 명확히 하고 도(道)를 널리 베푸는 것을 주의(主意)로 삼는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전쟁을 거쳐 내쫓긴다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도 무고한 백성을 살해한 적이 없다. 그 기율이 정연하여 흐트러짐이 없음은 속으로 자신이 경군(京軍)보다 더 나을 것을 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진문(陣門)으로 온다면 그리고 우매함을 계유(啓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문이 필요할 것이고 무슨 주저가 있을 것인가. 소생들이 자리를 청하여 삼가 여러분이 광림(光臨)할 것을 기다린다.

입당전권사(入黨全權使)의 선정

사명(使命)을 통해 동도(東徒)가 우리에게 보내온 내의(來意)의 공명함이 이와 같다. 설령 이것을 통해 우리를 속여 유인하려는 위계(僞計)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보다 남아가 죽음을 걸고 반즈이인(幡隨院)[46]의 기질을 발휘할 만한 바이다. 하물며 열풍과 화우에 이미 십여 일 동안 벌레가 있는 잠자리와 파리가 붙은 밥을 먹으며 많은 고난을 견디며 수십 리의 산하(山河)를 두루 돌아다니며 온 것은 실

46 반즈이인(幡隨院) : 반즈이인 조베에(幡隨院長兵衛), 에도 시대 사람으로 일본 협객의 원조라고 전해진다.

로 오로지 오늘의 해후(邂逅)가 있기를 기대했을 뿐이다. 대장부의 죽음이 어찌 두 개가 있을 것인가. 대의(大義)를 품고 대의를 위해 죽는다. 그 죽음은 즉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의 죽음이다. 이리하여 일행은 모두 앞다투어 곧바로 동도의 진문(陣門)으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큰일을 하는 자는 그 벽두(劈頭)에 임해 잠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뜻을 얻지 못한 자는 인내하라. 바야흐로 뜻을 얻으려 하는 자는 대담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어찌 협도의 오늘날의 경우에 대한 명훈(名訓)이 아니겠는가. 일행은 과거 수년 동안 해외의 무대에서 활동하며 적의 공격을 막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47] 경험에 의해 능히 금언(金言)을 응용하는 진실된 이치를 이해하는 자이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 마음을 뒤집어 서로 상의하여 다케다, 다나카, 요시쿠라 세 명을 입당전권사(入黨全權使)로 선정하여 먼저 당진(黨陣)의 크고 작은 내정을 정찰하게 하였다.

전권사의 유언(留言)

이날 밤 우치다, 스즈키 두 사람은 발열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주막의 와상(臥床)에서 신음했다. 와상이라고 하면 와상이지만 사실은 짚을 쌓아 올린 건물 바깥의 하나의 토방일 뿐이다. 주막은 동도(東徒)의 진문(陣門)에서 약 반 리 이상 떨어진 곳이다. 순창 군성(郡城) 교외의 흙다리 옆에 있는데 초가집에 방을 불과 서너 개 설치했다. 그리고 일행을 위해 제공된 가장 큰 방이라는 것도 겨우 6첩(疊) 방에 지

47 적의……주는 : 원문은 절충어모(折衝禦侮)이다.

나지 않았다. 일행은 억지로 왕성한 웅심(雄心)을 억제하고 이 좁은 방에 머물며 삼사(三士)의 출발을 배웅한 뒤 각각 나뉘어 경계하는 임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삼사는 떠나면서 기별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목숨은 여러분에게 이어지며 이미 매우 중대하다. 한 번 이곳을 떠나면 다시 생환할지 기약할 수 없다. 만일 당진(黨陣)으로 들어가 변이 있다면, 시신을 탄환에 맡기고 몸을 칼날에 쓰러지는 것은 굳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바가 아니다. 생각건대 여러분은 인원수가 일단(一團) 10여 명으로 잘 협심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천백의 조선 놈이 마침내 무엇을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이 한 번 간 뒤 다른 소리를 하며 당진으로부터 오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우리들을 염려하지 말라. 조용히 퇴군(退軍)의 방도를 강구해 후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듣는 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삼사는 유유하게 막문(幕門)을 나가 길에 가득한 진흙탕을 답파(踏破)하여 황혼의 군성(郡城)을 향해 갔다.

당사(黨使)가 삼사(三士)를 안내하다

요시쿠라는 평소대로 복장을 비단 자색 옷으로 바꾸어 입고 머리 위에는 옛날 무사가 쓰던 두건을 쓰고 품속에 우격(羽檄)을 넣고 침착하게 양사(兩士)와 함께 떠났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군(黨軍)의 사절이 다시 와서 만났다. 아마도 일행이 늦어지는 것을 의심해 내방(來訪)을 독촉하려는 것이었다. 사절은 그 이름을 김보현(金普賢)이라고 칭하고 직책은 당군의 유사(有司)라고 하였다. 그는 삼사를 보자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며 두드러지게 경의를 표했다. 그래서 그

를 동도(東道)의 주인으로 여기고 서로 담소하며 천천히 걸었다. 김(金)이 말하는 바와 그 태도를 통해 본다면 전주 패배 이후 당군은 매우 가련한 점이 있는 듯하다. 삼사로서는 거의 쫓기던 새가 사람의 품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아!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의기가 강건한 수천백 명의 동양적 청교도가 지금은 일단(一團)의 목숨을 걸고 와 겨우 10여 명의 의로운 일본 남아〔俠日本兒〕에게 의탁하려 한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외골수 성질의 삼사도 이에 이르러서는 많은 눈물이 바다와 같이 흘렀다. 일생의 눈물을 거꾸로 다 흘렸고 눈물에 이어 피를 통해서 거의 측은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되돌아보건대 남자의 혈루(血淚)는 점점이 주옥(珠玉)이고, 이것 한 방울 한 방울이 천금으로 함부로 사소한 일을 향해 흩뿌리지 않는 까닭은 즉 따로 매우 높고 크고 아름답고 선한 경우를 기다려 크게 경주하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눈물도 역시 매우 용이한 일은 아닌 것이다.

삼사(三士)가 침착하게 시위군 앞을 지나가다

군아(郡衙)가 마침내 2~3백 보 밖에 보였다. 나타난 것은 즉 동도의 본영이 설치된 곳이다. 그런데 본영으로 도달하는 하나의 길은 그 폭이 6~7척으로 좌우 양측에 모두 병사를 일렬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치된 병사 수백 명은 모두 긴 창을 들고 횡렬로 서 있었다. 수위(守衛)라고 하면 수위이고, 경비라고 하면 즉 경비이지만 필시 그 진의는 일본인인 우리 삼사에 대한 시위행동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일부러 많은 수를 배열시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생각건대 그 무리

는 이를 통해 일본인의 담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려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삼사는 이를 잠깐 보았을 뿐 위협에 눈도 떨지 않고 태연하게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들도 역시 안내자가 김보현이기 때문이었는지 일부러 너는 누구냐 하고 묻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잠시 보무(步武)를 진행한 뒤 마침내 중군(中軍)이라고도 생각되는 진영의 문 앞에 이르렀다. 문에는 정문이 있고 좌우로 작은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문은 조금 전에 엄하게 폐쇄한 듯하다. 여기에서 김(金)은 나아가 왼편의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 삼사를 손짓해 부르고 자신의 뒤를 따라올 것을 권했다. 그렇지만 삼사는 머리를 흔들어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 정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 찰나 두 번째 시위는 또 갑자기 이루어졌다. 문안의 몇몇의 병사가 구식포에 불을 댕기자 굉장한 소리를 내며 포가 발사되었다. 방대한 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을 찢고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를 머금고 문에서 어딘가 모르는 어둠을 향해 날아갔다. 삼사는 여전히 안색이 침착하여 정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에 안내자였던 김은 어쩔 수 없이 문위(問衛)에게 명하여 정문을 열게 했다. 삼사는 바로 들어가 맞은편 전각 위를 향해 나아갔다.

대장은 어디에 있는가

넓은 정원 가운데를 여유 있게 서서히 걸어 돌계단을 통해 올라간 삼사는 벌써 전각 앞에 이르러 엄격한 모습으로 섰다. 여기에서 손님을 맞는 관리가 나와 삼사를 맞이했다. 수백 명의 동학당인 역시 어떤 왜객(倭客)이 밤중에 우리 진영에 침입했는가를 알기 위해 전각 위아래

로 모여들어 빈번히 그 품위와 풍채를 엿보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삼사의 동작은 그들과 같이 의기가 높고 또 거만하였다. 전각 위에서 아직 진흙이 묻은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서서히 둥근 부채를 들어 멀리 있는 당인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먼저 씻을 물을 가지고 오도록 명하였다. 당인은 단지 이를 가져왔다. 삼사는 다시 선 채로 당인에게 명하여 진흙이 묻은 신발을 벗기고 또 다리에 묻은 진흙을 제거하게 했다. 당인 역시 부복(俯伏)하여 명을 받들었다. 당인이 삼사를 맞이하는 정은 이에 이르러 극진했다고 말할 수 있고 결코 무례한 것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당초에 얘기했던 반즈이인(幡隨院)의 협골(俠骨)은 조금도 쓸모가 없고 도리어 육국(六國)을 유세하는 소진(蘇秦)[48]의 장광설(長廣舌)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다나카는 앉아서 큰 눈을 뜨고 사방을 한 번 곁눈질하고 이곳에 모인 자는 모두 낮은 관리와 부졸(部卒)급임을 보고 입을 열어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주장(主將)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 동지의 협도(俠徒)는 은밀히 알리려 하는 바가 있어 특히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다. 속히 주장을 불러와라. 부졸과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 잡인은 스스로 이곳에서 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종(鐘)과 같아 당상 당하에 널리 울려 퍼졌다. 그런데 앞자리에서 일어난 당의 한 사람이 침착한 모습으로 천천히 답하며 말하기를, "원래 우리 당인은 귀천과 상하의 차별을 두지

48 소진(蘇秦) : 중국 전국(戰國) 시대의 책사로 낙양(洛陽) 사람이다. 제(齊)나라 귀곡자(鬼谷子)에 수학하고, 여러 나라를 유세(遊說)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하는 국가연합을 만들었지만, 제나라에서 죽임을 당했다.

않고 모두 동등동권(同等同權)의 백성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듣기를 청한다. 삼사와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 말하는 바가 이치와 뜻이 명백하고 음성이 절박하지 않아 생각하건대 당 안의 호한(好漢)일 것이다. 삼사는 바로 전각 중앙에 열좌(列座)하여 다른 접대원 같은 자를 불러 그 자리를 나아가게 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3~4명이 삼사의 면전으로 접근해 앉는 자가 있었다. 나머지 무리는 모두 주변에 기립하여 침묵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몇 명 또한 삼사의 배후로 돌아가 부채를 움직여 가빈(佳賓)을 위해 시원한 바람을 보내려 하였다. 이 사이 당하(堂下)에서 꾸짖고 타이르며 조용히 시키는 소리가 있어 엄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제지하려는 것 같았다. 잠시 뒤 요시쿠라는 품속에서 근엄하게 격문을 꺼내 맞은편에 앉은 동학당의 한 사람에게 이를 주었다. 당인은 이를 받들어 바로 펼쳐 보려고 하였다. 이때 조용히 전각 앞의 무리를 물리치는 사람이 있어 홀연히 자리로 다가왔다. 삼사가 이를 보니 그 사람은 붉은 구레나룻에 별과 같은 눈동자에 의관이 여유와 품위가 있고 풍채가 늠름하여 사방을 물리치는 기개가 있었다. 나중에 이르러 마침내 그가 동도팔대장(東徒八大將)의 총독, 미래의 개남국왕(開南國王), 호남 태인의 영웅인 전봉준(全琫準), 자(字)는 명숙(明淑)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全) 총독 앞에서 우격(羽檄)을 읽다

전봉준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늦게 도착했는가. 아마도 처음에 그는 왜객(倭客) 접대에 관해 진중(陣中)에 모든 준비를 명하고 시위를

통해 그 인물이 어떤가를 탐색하고 나아가 문 앞과 전각 위에서 크고 작은 거동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미리 그 성질을 자세히 알고 응대할 방침을 획정하였을 것이다. 그런 뒤 비로소 빈전(賓殿)에 임한 것이다. 총독이 이미 자리에 앉았다. 자리의 고요함은 더욱 고요해져 작은 모깃소리도 능히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새삼 김보현으로부터 삼사의 우격(羽檄)을 받고 이를 낭독하게 하였다.

격문의 주요 내용

격문은 한문체로 요시쿠라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불행하게도 흩어져 없어져서 지금 그 원문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그 주요 내용을 게재하고 또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차례로 나누어 서술한다.

> 제1. 바다와 산을 건너 멀리서 고생을 개의치 않고 특별히 찾아와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는 까닭은 단지 여러분이 의(義)에 따라 대도(大道)를 행하고 왕가(王家)가 쇠퇴하는 것을 일으키고 백성의 유리(流離)를 구하려고 하는 그 뜻에 감격하여 동지 14명이 하는 일을 던지고 집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부모의 나라를 달려온 것이다. 일본과 조선은 원래 동조동문(同祖同文)의 나라라고 말한다. 인의(隣誼)의 정이 있어 그 존망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타국인으로서 또 의(義)를 보고 흥분하는 것이 이와 같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선은 선조의 분묘가 있는 땅이니, 마땅히 나라를 위해 성의와 충성을 다하고 뼈를 깎아 헌신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제2. 제민(濟民)의 거사는 원래 불가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제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가벼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 삼가야 한다. 아니, 이와 같은 것은 쓸데없이 대사를 그르쳐 큰 기회를 잃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성(先聖)이 말하기를,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책모를 즐겨 하여 이룬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로 여러분이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용히 생각하건대 지금의 세상에서 나라에 임하는 자의 급무는 사방의 형세에 대해 스스로의 지위를 생각하고 시세와 적을 잘 헤아려 능히 천하의 기세(機勢)에 응하고 생민(生民)을 편안하게 함과 동시에 사직의 공고함을 꾀하여야 한다. 만약 이 말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파괴되고 가문이 없어진다. 반드시 1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3. 오늘날 천하의 형세는 우승열패(優勝劣敗)의 각축 상황이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이 어찌 이때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현재 안으로는 형제가 다투고 밖에서는 호랑이와 이리가 노리는 일이 많다. 지사(志士)가 몸을 바쳐 순국하여 만세 태평의 기틀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날을 제쳐 두고 어느 날을 기다릴 것인가.

제4. 조선의 시폐(時弊)는 상하 모두가 눈앞의 안일을 탐하여 일찍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의 존망을 두루 생각하는 자가 없다. 특히 위에 있는 자는 재상 이하 지방 수령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앞다투어 사적인 것을 영위하고 온종일 시주음락(詩酒淫樂)을 즐긴다. 지금 이를 고쳐 강건한 국풍을 양성하고자 한다

면 실로 혁명이 첫 번째 수단일 것이다.

제5. 한 줌의 땅도 이씨(李氏)의 천하이다. 한 사람의 백성도 선왕(先王) 백성의 자손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갈라서 러시아에 주고 이 백성을 해마다 서로 이끌고 오랑캐 땅으로 유망(流亡)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죄인가. 민씨 일족의 실정 결과가 실로 이와 같다. 그 죄악은 단지 폭렴(暴斂)에 그치지 않고 선왕을 모욕하고 사직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지사가 어찌 이를 묵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제6. 무릇 일에는 본말이 있다. 오늘날 지방 관리의 학정이 민씨 일족의 수뢰(收賂)정치에서 유래한 것은 공(公)들이 원래부터 잘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인민 질고(疾苦)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공들도 역시 민씨 일족이라고 말하고, 민씨 일족의 죄가 지방 수령보다 무겁다고 하는 것도 사리가 당연한 논리이다. 공들의 밝은 지혜, 안목과 식견이 이미 이와 같다. 그렇다면 민씨의 죄에 의해 나오는 것 역시 밝히기 쉬울 뿐이다. 그런데 끝내 그 죄를 꾸짖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저 민씨 일족의 악정의 배후에는 그 수호자로서 청국 사신 원세개(袁世凱)가 있다. 원(袁)은 실로 민씨의 악을 돕고 그 죄를 키우는 본존(本尊)이다. 더구나 공들은 함부로 그 적수에게 원대인(袁大人)이라는 존칭을 주고 그 적국에게 조국(祖國), 상국(上國)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바친다. 우리 무리는 속으로 공들이 현명한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제7. 요컨대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수령이고 수령의 원악(元惡)은 민씨 일족, 그리고 민씨의 악정의 근원은 원세개와 그 본국에 있다. 이것은 천하 모든 사람의 공론에 속한다. 그렇다면 조선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날 도탄(塗炭)에서 고생하게 하는 자는 저 청국이 아니고 누구인가. 공들이 칼날을 청과 원세개에 가하는 것을 잊고 이것을 오로지 민씨와 수령에게 사용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니, 공들의 의거가 겨우 이와 같은 데에 머문다면 이것은 아침에 한 명의 민씨를 죽이고 저녁에 한 명의 민씨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백성의 고통, 천하의 화근을 언제쯤에야 능히 소탕할 수 있을 것인가.

제8. 하물며 공들은 단지 한토(漢土)의 명(明)왕조 시대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조선에 대해 청국이 해치려 하는 큰 마음을 포장한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이전에 원세개가 큰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는가. 3년 뒤 우리는 반드시 조선을 우리 판도로 삼고 그 왕을 폐하여 서민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대역무도(大逆無道)하고 불구대천(不俱戴天)한 말이여서 신하는 마땅히 분개하여 절개를 지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섭(葉)[49]과 섭(聶)[50] 두 장수는 그 야심을 실행하는 선봉이 되어 이미 바다를 서둘러 건너와 아산(牙山)의 진영에 있다. 원세개가 억지로 무도(無道)한 정부를 도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왕을 섬기는 공들

49 섭(葉) : 청국군 총대장 직례제독(直隸提督) 섭지초(葉志超, 1838~1901)이다.

50 섭(聶) : 태원진(太原鎭) 총병(摠兵) 섭사성(聶士成, 1836~1900)이다.

의 군대를 초멸(剿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다.

제9. 가족이 있음을 알고 국가가 있음을 모르는 민씨 일족은 섭(葉)과 섭(聶) 두 장수가 와서 아산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삼아, 이것을 먹이로 하여 그 폭정의 원병(援兵)으로 삼고 국왕전하의 심려를 괴롭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이들 세 명은 실로 조선의 호랑이와 이리이다. 공들은 민씨를 토벌하기 전에 먼저 아산의 청군을 소탕해야 한다.

제10. 민씨 일족이 조정에 있고 청인(淸人)이 밖에서 이를 원조한다. 이렇게 해서는 충의(忠義)의 신하가 도저히 세상에 나오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 오늘날 재야에 유현(遺賢)이 많고 풍년인데도 사민(四民)의 밥상이 푸성귀뿐인 것은 그 원인이 오로지 여기에 있다.

제11. 오로지 일본 국민만은 그렇지 않다. 공들이 오랫동안 안민흥국(安民興國)의 뜻을 지속하는 한 가능한 진력을 보태는 것을 아까워한 적이 없다. 의협(義俠)은 실로 우리 제국 3천 년의 역사를 이루었다.

제12. 그러므로 공들이 우리 무리가 말하는 바를 듣는다면, 우리 무리는 기쁘게 앞으로 공들의 선구자가 되어 화살을 무릅쓰고 칼날을 물리침으로써 북진하여 서울로 들어가는 길을 열 것이다. 온 힘을 써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면, 저 아산 청군이 설령 수만의 무리라 할지라도 일격을 가해 간담을 빼앗고 거뜬히 이길 수 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이 격문은 동도 사이에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산을 점령했을 때 청국 장수의 진중일기 속에도 역시 기록된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나 널리 전라도, 충청도 양도의 주읍(州邑)에 전달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우격(羽檄)을 소리 높여 읽었다. 듣는 사람은 더욱 근엄하였다. 간신이 전횡하는 죄를 논하는 부분에 이르러 특히 낭독하는 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해져 듣는 사람은 팔꿈치를 펴고 눈을 부라렸다. 이어서 백성이 병고에 시달리고 유망(流亡)하는 부분에 이르렀더니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등불 역시 저절로 깜박거려 밤기운이 수심에 잠기는 듯했다. 나아가 조정에 사람이 없고 사직이 누란(累卵)에 처했다는 부분에 이르자 울면서 통곡하고 검을 뽑아 기둥을 베는 자도 있었다. 이로써 다소 당인(黨人)의 열성적인 진의를 살피기에 충분했다. 오로지 이상한 것은 원세개 탄핵의 점뿐이었다. 모인 사람은 조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있었다. 마침내 당인의 의담충혼(義膽忠魂)을 칭찬하는 부분에 이르러 환희의 웃음소리가 전각으로부터 문밖까지 일제히 함성과 같이 들렸고, 크게 웃어 아득히 울림이 전해졌다.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들의 상태였다. 과연 삼사도 잠시 자신을 잊고 하늘과 땅을 잊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에 목이 메지 않을 수 없었다. 혼신의 열혈(熱血)이 역시 이때 격렬히 유동하여 한 번의 죽음으로 당인의 의거를 돕고 종묘의 몽회(蒙晦)를 배제하고 팔도 1천만 명의 곤궁함을 구제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 당인은 어떠한 마술을 마음껏 부려 이렇게도 용이하게 세 명의 일본 협장부(俠丈夫)의 심적 포로가 되었는가.

삼사(三士), 크게 전(全) 총독과 담판하다

긴급한 격문의 낭독이 끝났다. 천우협의 숙원은 점차 서서히 동학당에게 통했다. 그들이 곧 일제히 감격하였고, 전봉준(全琫準)은 무리를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공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간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이와 같이 열렬하며, 의(義)를 도모하는 진실함이 이와 같이 명확하고, 백성을 가련하게 생각하며 도(道)를 천하에 행하려는 뜻이 이와 같이 장대하니, 훌륭한 가르침을 삼가 마음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다.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어찌 그 후의를 잊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치욕스러운 것은 한 당의 사람으로서 아직 지성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뜻을 두었던 과업을 천하에 펴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건대 공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부터 더욱 그것에 노력하려고 한다." 이미 서로 간의 대담은 속속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날 밤은 실로 첫 대면이었다. 그들과 우리의 사정은 격문에 의해 능히 서로 통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탄없이 중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사는 단지 인의대도(仁義大道)를 천하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부인 자는 죽음까지도 달게 받겠다는 것을 맹세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천우협의 첫 번째 목적인 청국 배척 및 조선 혁명 독립의 크나큰 책략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다음 날 아침 회의로 넘길 것을 결정하고, 굳이 단 한마디도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동학당의 인심을 얻는 것에 노력하였다. 전봉준 또한 서로 함께 인의대도를 위해 희생할 것임을 맹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두 사람에게 이 하룻저녁의 응대는 실로 천년에 한 번 만날 지기를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고 서로 진심을 터놓

고 대하니, 봄바람이 만당에 가득 찬 느낌이었다. 천우협이 진실을 찾기 위해 혼란한 구름을 헤치고[51] 방문하였으니, 이곳에서 결코 헛수고하지는 않은 것이다.

의가 없다면 비록 살아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는가

이에 앞서 담판이 시작되려고 하자, 다나카는 동학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진영을 찾아옴에 신변 보호를 위한 조금의 무기도 지니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조금도 경계심을 품지 않고 있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마치며 무심하게 오른쪽에 있던 요시쿠라를 슬쩍 바라봤다.

그런데 요시쿠라는 이때 평소와 같이 무심코 단도를 차고 좌중에 있다가 다나카가 말하는 내용이 다소 자신의 면목에 관한 것임을 파악하고, 조금 마음이 움직여 질책받는 동안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곧 그 담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즉시 동학도들을 불러 말하기를, "병마가 뿔뿔이 흩어지는 혼란한 시기의 천하에는 종종 자객이 있고 변란이 횡행할 때는 감히 흉행을 자행하게 한다. 이러한 때 삼군(三軍)의 장수가 되려는 지사는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사무라이의 기풍은 예로부터 칼을 차는 것을 일반적인 예로 삼는다. 심지어 이를 자신의 정신으로 삼아 어디를 가든, 멈추든지, 앉든지, 눕든지 항상 그 신변에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몸에서 떨어지게

51 혼란한 구름을 헤치고 :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드러나듯 모든 시비 분별을 다 벗어던지면 진리를 볼 수 있다.〔雲山萬里 孤月獨照〕'라는 것을 의미한다.

되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드시 이상한 느낌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특히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바의 정신을 몸에서 떼어내 잠시 그것을 여러분의 수중에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겠는가."라고 말하고, 곧바로 허리춤의 칼을 풀어 그와 마주 앉은 동학도에게 주었다. 다케다도 그렇게 하여 스스로 칼을 풀어 역시 동학도에게 주었다. 동학도가 즉시 그것을 동쪽의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자, 전봉준이 큰 소리로 질책하며 직접 저지하며 말하기를, "이런 겁쟁이들을 보겠는가. 그만두어라. 우리는 오랫동안 만마(萬馬) 사이를 달려와 여전히 사지를 드나들고 있다. 인(仁)은 우리의 갑옷이고, 의(義)는 우리의 요새이다. 천하를 돌아다녀도 우리 당을 경외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지금 귀한 손님이 의를 위해 그토록 중요한 칼을 풀어 놓음을 고민하지 않으니 그 진실된 마음이 실로 흠잡을 곳이 없는데, 우리 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칼을 두려워하여 거두려고 하는가. 어쩌다 날카로운 칼이 나의 가슴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의가 있다면 즉 그것에 감읍할 뿐이고, 의가 없다면 생명을 헛되이 연명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이것이 동학당의 영수가 그 폐와 간으로부터 쥐어짜내는 지극히 마땅한 말씀이다.

전(全) 총독, 크게 삼사를 대접하다

잠시 시간이 지난 뒤 술과 고기가 상 위에 차려졌다. 동방의 기개 넘치는 의협남은 계림 팔도의 중환(重患)을 두 어깨에 짊어지려는 둘도 없는 걸출한 인물과 함께 팔을 잡고 도연하게 취해 활발하게 말하는

내용은 진실로 청매주(靑梅酒)를 끓여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미 만찬도 제공되었는데 진중에서 대단하게 차린 음식은 그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전봉준이 일러 말하기를, "공들 세 분께서 다행히 우리 진영에 오셔서 함께 방에 들어가 식사한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바라서 한 행동이다. 그 밖의 다른 분들께서는 혹여라도 여관이 불결하여 오래도록 머무르지 못할까 두렵다. 이제부터 즉시 여러분을 맞이하여 식사를 올리고, 또한 숙박할 방을 우리 진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조금이나마 손님 대접에 예의를 갖추려 한다."라고 하였다. 전(全) 총독의 후의는 실로 두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밤이 이미 매우 깊었기 때문에 삼사는 정중히 사양하며 이날 밤의 대접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려 동학당 진영으로 갈 것임을 약속하여 술잔을 물리고 주연의 자리로부터 물러났다.

동학당 속의 첫 번째 일본인

이날 밤 삼사는 동학군의 진영을 물러 나오면서 우선 성대한 접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다시 한번 이에 고하여 말하기를, "여러 대인들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온 뜻을 받아들였고 생각해 주었으니 우리들 역시 만족한다. 바라건대 우리들은 먼 길을 가는 동안 햇볕에 쏘이고 비를 맞았고, 여러 차례 병액을 견디며 갖은 어려움과 싸워 왔다. 그리하여 점차 이곳에 도착한 작은 뜻을 헤아려 오랫동안 그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잊지 않을 것임을 동학당인들께서 알아주기를 엎드려 인사드린다."라고 하고, 삼사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였다. 전 총

독은 전각에서 내려와 그들을 배웅했고, 부하들은 문밖에 도열하여 경례했다. 또한 이전의 시위운동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안내자 김보현의 손에 등불을 들리고 길을 안내하여 교외의 객방으로 인도하였으니, 동학당 지사들의 정성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동학도는 배일분자라고 했으나, 당시 천우협이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을 조종하여 조선혁신사업의 중견으로 만드는 것 역시 단지 한 호흡 동안의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 한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에 단 한 사람도 이를 달관한 사람이 없어서 전도유망한 동학도들로 하여금 헛되이 그 방향을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객방에 도착하니 남아 있던 협도들이 오래도록 학수고대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삼사의 얼굴 위에는 약간의 취기가 나타나 양쪽 볼에 붉게 희열이 보이니 안위의 정을 알 수 있었다. 삼사는 다행히 조금도 위험이 없었고, 위험을 상상하고 방문한 당초의 결심에서 보면 오히려 절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이었다. 이날 밤의 방문에 의해 3명의 지사가 확실히 확인한 사실은 동학당 안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다고 하는 세상의 유언비어에 반하여, 우리 천우협이 회견하기 이전에 절대로 단 한 사람의 일본인도 동학당에 가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천우협이 동학당의 진영으로 옮기다

일행은 이미 동학도들이 일본인에 대해 악의가 없음을 알았고, 그들이 충심으로 진영을 방문해 주기를 권유한 것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다음 날 곧바로 무리를 이끌고 그 진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행장을 꾸려 조용

히 다른 사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사절이 도착하여 무리들은 흔연히 마바리에 짐을 싣고 위풍당당하게 진영으로 향했다. 이날 그는 사소한 시위 행렬도 두지 않았고, 또 문으로 들어갈 때 위협의 발포를 시도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일행은 수많은 동학도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따라 전각에 올랐다. 전각은 즉 동학당이 일행에게 대여한 곳으로 군(郡)의 본 아문과 전봉준의 본영 사이의 중앙에 있었다. 큰 방 1개, 작은 방 1개 모두 그 좌우에 속하고, 중간 크기의 방은 다다미 40~50조의 상당히 넓은 방이었다. 매우 넓고 청결하여 실로 일행에게는 다시없을 정도로 좋은 건물이었다. 그리고 한번 전각의 정원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면 전후좌우가 모두 동학당의 휘하 진영이었다. 깃발의 그림자와 칼의 광채, 여러 부딪치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 등이 복잡하고 또한 소란스럽게 우리 일행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다.

전봉준과의 정식 첫 대면

전(全) 총독은 협도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자 스스로 다가와 첫 대면의 예를 표했고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다. 크게 취하여 유쾌하게 대화하는 동안 일행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연서하여 그것을 전봉준 앞으로 보냈다. 전봉준은 일행의 복장이 구구하여 조금도 일정한 모습이 없음을 보고 심히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질문하기도 했다. 대개 전봉준의 생각은 복장으로 위계를 파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는 사람 같다. 일행이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만리의 객지에서 옷을 갈아입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들의 복색은 개개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였다. 당시 일행의 복장을 보면, 구사카는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 북을 치는 모양을 염색한 유카타를 입었고, 다나카는 조선의 저고리에 중국식 조끼와 일본의 하오리로 삼국을 절충한 옷을 입었고, 다케다와 우치다는 순 양복, 스즈키는 순 일본의 복장, 요시쿠라는 비단으로 만든 상의와 하카마를 입고 사무라이의 관을 쓰고 있었고, 도키자와는 일본군 장교의 약식 복장에 가슴에는 훈장을 빛내며 달고 있었다. 이방인의 눈으로 각인각색의 기이한 복장에 기이한 모자를 보면 거의 온갖 잡귀가 밤에 다니는 백귀야행(百鬼夜行)의 감이 있다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이미 전봉준은 일행이 휴대한 무기가 매우 예리하며 패용한 검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오랫동안 일본도는 천하의 정예라고 들었다. 지금 직접 그것을 보게 되니 사람들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겠다. 아, 이 사건에 두려운 것은 구구하고 빈약한 나라에서 마침내 귀국과 천하에 나란히 서서 동양의 대국(大局)을 유지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장탄식했다.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지고의 열정은 이처럼 사물을 접하고 일을 대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넘쳐흘렀다. 이날의 회담은 단순히 동학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 아직은 조금도 국가와 경륜에 대해서는 교섭하지 않았다. 10시에 전봉준에게 인사하고 그 머무르는 영으로 돌아왔다.

넓은 방에서 4인, 전봉준과 밀의를 나누다

오후 4시경에 이르러 다케다, 스즈키, 다나카, 요시쿠라 4인은 그들과

우리의 연맹 담판위원으로서 미리 충분히 모의를 정하고, 그러한 후에 전봉준의 본영을 방문했다. 이때 전봉준은 도서(圖書)를 좌우에 두고 혼자 한가로운 방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8명의 대장은 나와서 전후의 각 영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4~5명의 유사(有司)들이 넓은 방의 좌우 2개의 내실에서 군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4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목례하며 앉기를 청했다. 4인이 곧 전봉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오늘 공을 만나기 위해 이 넓은 방을 방문한 것은 특히 기밀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우선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흉중에 단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은 전봉준은 옆방의 유사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였다. 다시 휘하의 친병을 주변의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잡인이나 간첩이 잠입하여 몰래 모의를 누설하는 것을 막아 경계에 다소 엄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서야 4인은 뜻을 편안하게 하고 담판의 서막을 열고자 했다.

연맹위원, 대대적으로 총독을 설득하다

전봉준의 조치에 따라 사방의 경계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다. 그러나 4인의 위원은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시 논의 중에 필담을 이용하여 만일의 누설을 방지하고, 이후 맹약의 증거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케다는 기록자로서 붓을 잡았고, 3명의 지사는 기록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전봉준의 답변을 기다렸다.

위원 : 공은 이미 몸소 의롭게 죽으려는 뜻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들은 곧 대의를 도모할 계책을 공께 바치고자 한다. 바라건대, 오해 없이 들어 주기 바란다.

총독 : 삼가 높은 가르침을 받겠다.

위원 : 의병이 일단 고부(古阜)에서 일어나 팔도의 형세가 거의 이로써 일변했고, 청나라는 병마를 이끌고 아산(牙山)에 주둔했으며, 일본도 역시 이미 대군을 경성(京城)으로 들여보냈다. 이리하여 천하의 민심은 흉흉하고 황황하다. 이 나라에 난리가 어느 날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함에 청국인으로 와서 아산에 주둔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은혜를 조선에 판다고 칭하고 실제로는 크게 상반되는 것도 있다. 그들이 오는 것은 실로 외국이 간섭하는 단서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외국이 간섭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받게 될 풍운은 반드시 이보다 험하지 않겠는가? 불행하게도 풍운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면, 도적과 간신은 서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그 간악함을 드러낼 것이고, 백만의 창생은 뿔뿔이 흩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날이 될 것이다. 아, 곳곳의 백성들은 홀로 무엇을 탓하겠는가. 여러 차례 전쟁의 참화를 만나고, 여러 차례 약탈의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 더욱 화액은 계속될 것이다. 공의 의로움이란 간신과 나란히 서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공들은 이미 대의를 일으켰다. 무엇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의를 온전히 하는 길을 강구하지 않는가?

총독 : 높은 가르침 존경하여 받겠다. 의로움에 힘쓰라는 지극한 가르침을 깊이 골수에 새기겠다. 우리도 역시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당초 우리 무리가 고부에서 주창한 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래 백성 구제의 염원이다. 불민하게 단지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함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진을 치고 병사들을 이끌 때라 할지라도, 아직 연도에서 무고한 단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고 추호도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다. 이후 지금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관찰사에게 호소하거나 격문을 사방에 전하여 우리들의 인의(仁義)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스러운 것은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 차서 아첨으로 길을 가로막아 지방의 미약한 신하의 충정이 일찍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솔하게도 경군을 1,000리로 나가게 하여 끝내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소탕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동학도들은 예부터 성현들의 유교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따를지 거역할지, 충성인지 불충인지, 나아갈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본래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의로움에 나아가 칼날을 임금의 군대와 겨룰 수는 없다. 그들이 서쪽에서 오면 우리는 동쪽으로 피하고, 그들이 남쪽에서 진군한다면 우리는 북쪽으로 달릴 것이다. 힘들여 서로 충돌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코 우리들이 겁이 많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자비롭지 않고 우리 군의 명성을 두려워하여 도피하는 상황을 기회로 보지 않는다. 전주(全州)의 전투에서 거포를 발사하

여 우리 동학도 1,000여 명을 죽이고, 또한 무고한 주민을 살육하고 전주성의 안팎에서 인가 수백 호를 불태워 파괴하였다. 어찌 잔학무도함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동학도가 죽음을 보고 두려워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염원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채로 모두 흉악한 칼 아래 죽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단 예봉을 피하여 마침내 성 밖으로 달아났다. 예상치 못한 대군주의 지극한 자비로움으로 우리 동학도들이 난을 일으킨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위로하여 은혜로운 조서를 내려 주셨다. 크나큰 자비로움이 바다와 산과 같으니, 동학당 모두가 그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곧바로 화해를 관군과 의논하여 우리가 획득한 대포 여러 문을 돌려주고, 마침내 동학도를 해산하여 각각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왔으며, 또한 확실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아, 나아가서 경병에 가로막혀 정치에 참여하여 민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물러나서는 산업에 평안하게 임하며 부모를 부양하고 교육을 장려할 수도 없었다. 우리 동학도들은 바로 이때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 칼날에 엎드려 죽어야 하는가? 백성들의 궁고함을 구제하지 못했으니 어찌하겠는가? 이 악물고 잠시 살아 있는 것을 견뎌야 하는가? 너무 무능하여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노년에 이르니 헛되이 치욕을 거듭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만간 별도의 결의를 하여 군현

(郡縣)을 순유하며 그 탐학하고 간악한 관리들을 응징하고 정치의 폐단을 교정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의 어느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 지방의 정치적 폐단을 개혁하고 나면 우리는 장차 산골짜기로 들어가 동굴 속에서 살아가며 생사를 초목과 동일하게 할 뿐이다. 아, 혼탁한 현 시기의 천하는 홀로 충성을 바치며 외로이 분개하는 선비를 모실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인가?

그가 비분강개하고 있는 모습이 말하는 내내 넘쳐흐르지만, 이미 관병과 화약(和約)을 강구하여 무기를 버렸고 병력을 해산한다고 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뜻밖에 지극함이 없지 않은가. 아, 그는 과연 진심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음인가?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안면은 흥분하여 피를 머금었고 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어찌하여 갑자기 그 백성 구제의 본분을 망각하고, 백이숙제(伯夷叔齊)의 누추함을 배우지 않았는가. 4인은 즉시 그동안의 상황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그의 발언에 이어 더욱 그를 자극하려고 했다.

위원 : 의로움에 용감하고 정에 격동됨이 지극하니, 누구라도 공께서 말하는 것을 납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께서는 조금 더 현재 천하의 정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 쉽게 영웅이 고개를 돌려 신선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애초에 저 청병이 오랜 세월 헛되이 아산에 주둔하여 채찍질 소리가 마침내 호남지역에까지 들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일본의 대병력은 경기 지역의 들판에 병영을 설치하고 무기를 갖추고 있으니, 곧 뒷문에 늑대

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원인이 된다. 청군이 일거에 남쪽으로 달려가면, 일군 역시 일거에 아산으로 향할 것이다. 청국은 그 명분을 동학도 토벌에서 찾을 것이고 뛰어난 공을 세워 경성을 엿보려고 할 것인데, 시세의 흐름을 어찌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는 것을 졸지에 사실로 하여 뛰어난 공을 세우려 하지 않는가? 민씨도 역시 요즈음 유사, 백관의 탄핵을 견디지 못하고 다소 그 충심에 고심하고 있는데, 민씨는 실제로는 안으로 다른 생각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청국 역시 외환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는데도 민씨와 청국 모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일 따름이다. 지금 장군께서는 이 좋은 기회를 타서 그 민중을 이끌고 궁궐로 가서 왕이 계신 천각을 향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호소하지 않는가? 한 사람의 원세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민혜당(閔惠堂)[52]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간신과 탐관오리 모든 족속을 죽이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함에 군왕이 성스럽고 현명하여 능히 공의 뜻을 가련하게 생각해서 공에게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정돈하는 큰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실로 공이 결의하여 봉기해야 할 때이다. 어째서 이리저리 주저하는가? 또한 일본군이 이미 경성과 인천 사이에 진을 치고 있다. 공은 이들을 따라 무리를 통솔하여 북쪽을 정벌하는 길에 오르면 청국

52 민혜당(閔惠堂) : 선혜청 당상 민영준(閔泳駿)을 말한다.

군은 단연코 공을 쫓을 우려가 없다. 이 하나의 기회는 하늘이 준 호기로 성패가 역력하여 불 보듯이 뻔하다. 그리고 병사들이 어설프다 해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공께서는 본래 알고 있기에, 바라건대 이방인인 까닭으로 제 말을 가볍게 여겨 큰일을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4인이 지극한 성의로 간언했으나 여전히 그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는 냉정하게 그것에 답하여 말하기를, "군대는 흉기이다.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우리 동학도가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면 즉 죽음뿐이다. 옆길로 가는 것은 군자가 항상 의지하는 바가 아니니, 오로지 그 형세를 논함은 공의 말씀처럼 손바닥을 보듯이 명확하다. 그러나 일의 성패에 대해서는 우리 동학도는 대개 그것을 하늘의 뜻에 일임한다."라고 하였다.

그가 고부에서 봉기한 이래 호남지역에서 옮겨 가며 전쟁한 지 이미 수개월이다. 그전에 운용한 병력은 독자적인 활인검(活人劍)으로 하고, 앞으로 운용할 사람은 모두 살인검(殺人劍)으로 하겠는가. 영웅이 사람을 기만함이 또한 심하다고 할 만하다.

위원 : 하늘의 뜻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께서 마음에 둔 바는 지극히 높고 멀다고 할 수 있다. 그 뜻의 근본과 대의를 펼치는 것에서는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크나큰 인(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잠시 작은 불인(不仁)을 하는 것처럼 대장부는 결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총독 :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모두 지치고 부상당한 패잔병들이

다. 우연히 젊은 사람이 있더라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어떻게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위원 :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이 청원하니 장군을 위해 상경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 일행 10여 명은 인원수를 따진다면 적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일본에서 선발한 우수한 사무라이들이고, 이에 더하여 무기의 정예함은 비교할 것이 없다. 공께서 만약 우리를 대신하여 약간의 병력을 빌려 주면 호서지역 50개 성(城)을 10일 안에 모두 항복시키겠다. 공은 어찌 백성 구제의 큰 기치를 가지고 옮겨서 그것을 중원의 들판에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니 편안하게 감은 눈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마치 숙연하게 앉아 참선하고 있는 선승(禪僧)과 같았다. 아, 천우협의 오랜 고심은 마침내 실패하여 땅으로 꺼질 것인가.

병력을 4방향으로 나누어 경군을 맞아 토벌하다

전봉준이 4인의 간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까닭은 결코 그에게 야심이 없는 까닭이 아니다. 그와 우리는 서로 고향과 나라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며, 언어 습관도 다르다. 그리고 특히 첫 대면에서 서로 정황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어찌 첫 대면에서 능히 천우협의 가치를 알 수 있겠는가. 그가 가벼이 그것에 따르지 않음은 우연하게도 그랬던 것이며, 그가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하늘은 결코 천우협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위원들은 전봉준이 확답하지 않는 것

에 분개하여 이제 결연하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1통의 서한이 왔다. 긴급하게 온 사자로부터 8명 장군들의 손을 거쳐 전봉준에게 전달되었다. 묵묵하게 고사할 것 같았던 전봉준은 시원하게 그 눈을 크게 뜨고 서서히 서한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불과 한두 줄을 읽었을 뿐인데 전봉준의 안색이 약간 떨렸다. 급히 4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는 지금 확실히 네 분의 공들께 사과한다. 이전에 말한 것은 잠시의 장난에 불과하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쉽게 백성 구제의 뜻을 내던지겠는가? 단지 왕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관병과 화해를 강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8장군으로부터 건네받은 급보를 보면, 관병은 스스로 왕명을 거스르고 네 방면으로 다시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한다. 강화도의 병사 500명은 최신의 모젤(Mosel) 6연발총으로 무장하고 참여하였다. 그 세력은 전체 5,000명이며, 3~5명의 숙련된 장수가 대오 중에서 이들을 지휘한다고 한다. 우리는 본래 교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스스로 공격해 온다면 또한 어쩔 수가 없다. 공들께서는 이미 나와 의거를 함께한다고 했다. 일을 함께하는 것은 즉 원하는 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공이 없다면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군의 군율이다. 다행히 지금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공들은 마땅히 8명 장군들과 상의하여 각각 한쪽의 장수로서 아주 통쾌한 승전을 해 보기 바란다. 그럼으로써 위대한 공을 세우고 일본인의 용감한 무용을 우리의 선두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컨대, 지금부터 8명의 장군들을 소집할 것이니, 속히 함께 전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전봉준은 급사를 보내 8명의 장수들을 소집하였고 4인은 다시 남아 있는 여러 지사들

을 불러 모으니, 즉시 23명의 영웅이 조용한 방에서 함께 만나 하나하나 진격과 퇴진의 군사 의견을 결정하였다. 그와 같은 결의로 각 방면의 부서를 결정한 바는 아래와 같다.

본영　　총독　　전봉준

군사　다나카 지로(田中侍郎)　스즈키 덴간(鈴木天眼)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

유격군　병70명　　조선인 장군 김씨

대장 우치다 고(內田甲)

부장 니시와키 에이스케(西脅榮助)

동면군　병100명　　조선인 장군 배씨, 전씨

대장 도키자와 우이치(時澤右一)

부장 이노우에 도사부로(井上藤三郎)

서면군　병100명　　조선인 장군 최씨, 안씨

대장 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

부장 오쿠보 하지메(大久保肇)

남면군　병100명　　조선인 장군 이씨, 조씨

대장 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

부장 구사카 도라키치(日下寅吉)

북면군　병100명　　조선인 장군 박씨, 정씨

대장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

부장

치중군　병50명

대장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

적십자군 병30명

대장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천우협의 작전 계획

이윽고 호남 1개 도 56주의 땅을 석권하고 거만하게 개남국왕(開南國王)의 존호를 참칭하려던 동학군의 총독 전봉준이다. 아무리 경병이 갑자기 땅 밑에서 솟아나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어찌 쉽게 꼬리를 내려 고개를 숙이고 갑옷을 풀어 헤치고 깃발을 꺾는 사람이겠는가. 왕명은 본시 존엄한 것이기에 관군이라 할지라도 간소한 음식으로 환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늘의 뜻과 민심은 때에 따라서는 왕명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그들은 먼저 의로움을 버리고 약속을 위반했다. 그리고 감히 무도하게 살육을 행하려 하니, 이것이 바로 걸주(桀紂)[53]의 병사들이고 어진 사람으로부터의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전 총독은 폭군 걸왕과 주왕을 물리친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뜻이 있는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22명의 영웅은 한 조용한 방에 소집되니 경병 격퇴의 군략은 이에 홀연히 만들어졌다. 각 방면의 부서는 앞에서 이미 정했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오직 작전상의 방략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또한 전봉준의 생각은 실로 일본인 손님들의 솜씨를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히 깊이 그것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하는 자는 없었다. 3명의 군사는 곧바

53 걸주(桀紂) :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폭군으로,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 걸(桀)왕과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왕을 말한다.

로 각 대장과 서로 논의하여 각 군의 대체적인 작전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동면군은 가왕리(柯王里)를 본거지로 하여 운암강(雲岩江)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다가 가볍게 출전할 것이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강을 건너 적성진(赤城津)을 점령하고, 북방의 경군을 측면에서 공격하는 형세를 취할 것.

남면군은 우치(牛峙)의 험준함에 의거하여 있다가 적이 닥치기를 기다려 그들을 격파하고 달아나는 자들을 추격하여 옥과(玉果)를 점령할 것.

서면군은 백산리(白山里)를 본거지로 하여 방축현(防築峴)을 장악하고, 유격군이 적의 배후로 나오는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 서로 연합하여 공격하고, 그 기세를 타 담양(潭陽)을 점령할 것.

북면군은 쌍암리(雙岩里)를 본거지로 하여 암치촌(岩峙村)으로 나아가 추월산(秋月山)을 배후로 하여 진을 치고, 계속 적을 유인하여 그들이 평지보다 위를 향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형에 이르면 격파할 것.

유격군은 추월산의 간도(間道)를 넘어 방축현과 담양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나와 불시에 적의 배후를 공격하고, 서면군과 함께 담양을 함락시킬 것.

군사회의에 대개 함께 앉은 것이 오전 3시 30분인데, 닭의 울음소리

가 사방에서 들려오기에 이르렀고 정녕 동틀 무렵이 되었다. 부서는 이미 결정되었고 전략 역시 점차 그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각 대장은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선인 대장은 지정된 대로 각자 소속된 기치 아래 모였고, 수백 명 동학군은 진격의 나팔에 이끌려 긴장된 모습으로 본영에서 출발하려 했다. 전봉준 총독과 3명의 군사는 전각의 앞머리에 서서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배웅했다. 군사들이 진영 문을 나가자 각 방면의 군대가 갑자기 여기서 부서로 나뉘어 북이라고 하는 사람, 남이라고 하는 사람, 서라고 하는 사람, 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새벽바람 속에 깃발의 그림자가 휘날리고, 단정한 걸음걸이로 행진하는 형상은 완연히 긴 뱀의 머리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동면군의 진퇴

대장 도키자와 우이치(時澤右一)는 부장 이노우에 도사부로(井上藤三郎)와 함께 조선인 장군 배씨와 전씨 2명 및 병력 100명을 거느렸다. 우선 나아가 운암강 변에 이르러 높은 제방에 올라 아득히 앞쪽의 강안을 바라보았다. 남원 서쪽 몇 리의 땅이 모두 경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언덕이나 숲이 없고 산과 들도 없었다. 깃발에 부는 바람만이 시선을 끌고, 교외의 벌판에 모래 먼지가 하늘로 올라오고, 함성이 땅에 진동하니, 군대의 면모가 실로 그 장대함이 지극하다. 이노우에는 곧 도키자와에게 의논하여 말하기를, "적은 이미 정정당당하게 대로에서 돌진하여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 이에 일단 그 예봉을 꺾지 않으면 순창(淳昌)의 본영도 크게 위태롭다. 내게 병사 30명을 주면 상류 쪽에

서 몰래 강을 건너 측면에서 적을 공격하여 그들이 진격하는 힘을 견제할 것이니, 당신은 서서히 정면에서 적을 무찌를 곳을 찾아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니, 도키자와가 말하기를, "당신의 책략이 꽤 기묘하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에게 병사 30명을 주었고, 이노우에는 병사를 얻은 즉시 명령을 내려 제방 아래에 몸을 숨겨 달렸다. 강변의 버드나무 그늘에 이르러 천천히 제방 위로 올라가 앞쪽 강가를 살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홀연히 강을 가로질러 건넜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앞의 제방으로 올라가 버드나무 사이에서 슬그머니 적의 진영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적은 대병력임을 빙자하여 초병의 경계가 매우 허술함에 이노우에는 곧바로 호령하면서 급히 나무 그늘 사이에서 총을 나란히 하여 적군을 직접 사격하였다. 적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놀라 진중 낭패의 상황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때 도키자와 또한 이노우에의 진격을 파악하고 즉시 병사들을 진격하도록 하며 이들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다. 적은 더욱 당황하여 앞쪽의 병사들은 모두 흩어져 앞다투어 남원 쪽으로 퇴각하였다.

이노우에와 도키자와는 공격에 더욱 노력하여 마침내 강가의 적을 모두 소탕하고 적성진(赤城津)을 빼앗아 중요 지점에 자리를 잡고는 잠시 갑옷을 풀고 마을의 술을 징발하여 병사들의 수고를 위로했다. 병사들은 첫 승전을 하여 교만함이 심해져서 모두가 말하기를, "경군이 무엇이냐? 감히 사마귀의 도끼를 용(龍)의 전차에 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노우에는 병사들의 교만한 기색이 지나친 것을 우려하여 질타하고 그것을 경계하도록 했으나, 병사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개 이노우에의 나이 어린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도키자와도 역시

관병에 대한 공격이 쉽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병사들의 해이해진 마음을 질책하지 않았다. 이노우에는 더욱 우려하여 홀로 진영 앞쪽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적의 동정을 살폈다. 과연 모래 먼지가 일어나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바람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여 이제는 우리 진영에 가까이 오는 것이 있었다. 다만 사람의 그림자는 희미하고, 모래 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이노우에는 크게 놀라 언덕에서 빠르게 내려와 즉시 도키자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적병이 이미 지척에 다가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속히 방어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이라고 하였다. 도키자와는 느긋한 성품으로 그것을 듣고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네, 장난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술 한 잔 더 들게나."라고 하였다. 이노우에는 진지하던 중에 노기가 곧 마음속에서 나와 목소리를 격하게 하고 크게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괜찮긴 뭐가. 장난친 게 아니다. 당신 스스로 진영 밖으로 가서 보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도키자와는 이노우에의 얼굴이 온통 붉어진 것을 본 후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안을 품고 조선인 장수 배씨와 함께 진영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갑자기 유탄이 삼삼오오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도키자와는 당황하여 허둥대며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려 진으로 들어가 크게 외쳐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조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총을 들고 정렬하라."라고 했다. 진영의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낭패하여 총을 찾으려고 서로 싸웠다. 이에 더하여 취기가 아직 전혀 깨지 못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달렸다.

이때 적병은 이미 500보 안에 있었고, 비처럼 쏟아지는 총탄은 점차

진영의 앞쪽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이에 이르러 진중의 낭패는 마침내 그 정도가 높아져서 다시 진영 앞에 서서 응전해야 하는 시급한 임무에 나서려는 자가 없었다. 조선인 장수 배씨와 전씨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감히 왜인 손님 앞에서 이와 같은 추태를 부리는가? 우리 동학도들은 이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일신을 희생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적을 무찌르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돌아가 다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기에 그 이름이 아까운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분연히 말 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적의 중심 인물을 바라보며 한순간에 돌파하였다. 그 악전고투의 상황은 아수라왕이 거칠게 휘몰아치는 것보다도 맹렬했다. 이에 병사들 역시 격동되어 각자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나아가니, 군기는 여기에서 새롭게 고양되었다. 이노우에와 도키자와는 좌우에서 이들을 지휘하여 다시 적의 전위를 격파해서 작은 언덕 아래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이미 궤멸되어 달아난 것처럼 보였던 적은 다시 몇 배의 거칠어진 병사들을 증원하여 갑자기 언덕 뒤에서 나타나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즉시 언덕을 내려와 우리에게 쇄도해 왔다. 호흡도 삭히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 고민스러운 것은 아군이 이와 같은 불의의 습격을 당하여 다시 묘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사기는 스스로 떨어지고 기색은 여전히 혼란한데, 적은 더욱 기세를 타고 맹렬하게 진격해 왔다. 아군은 이 때문에 모두 강물 속으로 떨어져 부상자가 매우 많았다. 간신히 위급을 벗어나 퇴각하여 가왕리에 주둔할 수 있었고 전력을 다한 역투 끝에 다행히 적의 추격은 막았다.

남면군의 진퇴

대장 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 부장 구사카 도라키치(日下寅吉)는 조선인 장수 박씨와 정씨 2명 및 병력 100명을 통솔하였다. 동틀 무렵 급히 달려 우치(牛峙)의 중요 지점에 도착했다. 언덕의 기슭에 여전히 경병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였다. 즉시 언덕 아래쪽에 대한 지세를 파악하여 지뢰를 연도의 곳곳에 묻고 천천히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앞쪽 길을 바라보니 여러 색깔의 깃발이 피어오르는 연기와 나무들 사이에 펄럭이고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것 같았다. 시라미즈는 곧바로 명령을 전달하여 허튼소리를 삼가고, 조용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시에 적에게 불의의 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이미 적의 병사들은 명령을 받아 기슭의 아래에 와 주둔하면서 장차 언덕 위로 올라가 우선 복병의 유무를 살피려는 것 같았다. 이때 구사카가 급히 몇 명을 보내어 지뢰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갑자기 많은 지뢰들이 땅속에서 폭발하였다. 굉음이 귀를 뚫고 천지를 뒤흔들어 갈라놓는 것 같았다. 1,000여 명의 경군은 매우 당황하고 허둥대는 것이 극에 달하여 아비규환에 빠졌다. 흐릿한 화약 연기 속에서 시라미즈 등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모두 언덕 위에서부터 내달려 사방에서 포위하게 하여 그들을 모두 무찔러 죽이려고 하였다. 경병은 이를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사기가 꺾여 총을 버리고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 시라미즈는 다시 먼 거리를 신속하게 행군해서 적의 부상병을 구하고 항복을 받아 마침내 옥과현성(玉果縣城)으로 진격하여 전투하지 않고 그 관아를 점령하여 주둔하면서 유유히 다른 방면의 전보를 기다렸다.

서면군의 진퇴

대장 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 부장 오쿠보 하지메(大久保肇)는 모두 침착하고 용감한 사무라이이다. 특히, 치바는 용병술이 뛰어나서 서면의 강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은 조선인 장수 최씨와 안씨 2명 및 병력 100명을 통솔하였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백산리를 빠르게 통과하여 오전 5시 방축현으로 나아가 중요 지점을 차지하려 했다. 불행하게도 담양의 경군이 이미 5분 먼저 고개 위를 점거했다. 전적으로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빠르게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정했던 계획은 이 때문에 우선 첫발을 잘못 디딘 셈이었다. 치바와 오쿠보는 후회하지 않고 분발하여 마침내 스스로 칼을 뽑아 선두에 서서 병사들에게 그를 따라 비탈길을 오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강하게 적을 쳐부수고자 하여 매우 악전고투했다. 적병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무토막과 돌을 던지고 탄환을 직사하며 완강하게 여러 차례 저항하였다. 쉽게 그 험준한 지형을 빼앗지 못해서 치바는 매우 분노했으나 다른 수가 없어서 더욱 고투하여 적에게 맞섰다. 우리 병사들은 이 때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았다. 그리고 유격군의 동정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바는 결국 이 전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내키지는 않았으나 퇴각할 것을 명령하여 목숨을 걸고 백산리를 지켰다.

유격군의 진퇴

대장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는 지극히 강직한 사무라이로, 정정당당하게 적의 중군과 접전하기를 원하여 홀로 북면군의 대장으로 임

명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에 조선인 장수 이씨와 조씨 2명 및 병력 100명을 지휘하였다. 동틀 무렵 전주 방향으로 출발하여 쌍암리에 도착했으나 적병이 왔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전위를 보내어 암치촌(岩峙村)으로 들어갔는데, 경병은 여전히 아직 오지 않았다. 이에 보루를 추월산 아래에 구축하고 높은 언덕에 의거하여 적을 맞이할 책략을 수립한 후, 쌍암리에 있던 본진의 병사들을 불러 합류시켰다. 산 이슬은 이미 아침 햇살에 흩어져 날아가기에 보루의 위에서 가늘게 눈을 뜨고 앞쪽을 바라보니, 장교리(長橋里), 운암점(雲岩店), 독산동(獨山洞)의 연이은 마을들과 운암하(雲岩河) 일대의 평야는 어느새인지 알 수 없었으나 경병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산에서도 강에서도 모두 진격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니, 주민들은 등짐을 지고 침탈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었다. 일일이 주민들을 가리키면서 오하라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보루를 내려와 조선인 장수를 돌아보며 조용히 일러 말하기를, "대장부가 평생 품어 온 쾌심(快心)을 지금 풀어낼 수 있으니, 공들은 속히 보루를 따라 병력을 배치하고 나의 호령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조선인 장수들은 곧바로 여유를 가지고 물러나 명령받은 대로 병력을 배치하고 경병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여 경비하며 점차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때마침 공교롭게도 경군이 서서히 행진을 시작하여 1개 부대 2,000여 명이 독산동에서 운암강을 건너 조용히 장재동(長財洞)으로 들어왔다. 그 기세가 마치 장강(長江)의 둑이 터져 쏟아지는 물살처럼 풀과 나무를 모두 한 모습으로 휩쓸어 이를 당면하여 실로 저항할 만한 것이 없었다.

대장 오하라는 미소를 띠고 오랫동안 보루 위에 있다가 곧 손을 들어 급히 2명의 조선인 장수들에게 흔들어 빨리 이쪽으로 올 것을 알렸다.

조선인 장수들이 도착하자 오하라는 귀에 대고 은밀히 분부했다. 조선인 장수들은 유유히 물러나 30~4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갑자기 보루의 한쪽에서 내려가 경군의 전위를 향해 급습을 시도하였다. 경군은 매우 놀라서 대열을 흩뜨리며 혼란스럽게 응전함에 조선인 장수들은 이리저리 대응하며 도전하는 상황이 되었다. 잠시 후 아군이 물러나 모두 보루 안쪽으로 들어가니, 경군은 대거 그것을 추적하여 경솔하게 진군하여 보루 아래에 개미 떼와 같이 모인 자들이 실로 300여 명이었다. 오하라는 그것을 보고 크게 소리쳐 사격 명령을 내렸다. 100명의 동학군이 명령에 따라 급히 총을 들고 속사하기를 약 5분간, 그 모습은 마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았다. 화약 연기로 시야가 흐릿하여 보루를 가려 한동안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화약 연기가 걷히자 보루 아래의 한쪽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군의 사체가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경군의 무리는 완전히 궤멸되고 흩어져 겨우 본대로 돌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제1전의 승리가 먼저 동학군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과부적의 형세가 달라진 것 없이 매우 심하였다. 이에 오하라는 깊이 고려하여 쉽사리 조선인 장수들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고, 병사들이 소란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하고 보루의 벽을 고수하면서 이후 적의 동정을 살피는 자세를 취했다.

진격군의 진퇴

우치다는 천우협 중에서도 최선봉으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방으로 옮겨 다니며 허를 찌르고 예상하지 못한 습격을 하기에 가장 적임이었다. 이 때문에 유격군의 대장으로서 담양 공격의 임무를 맡

아 적의 배후로 나가 치바와 연합으로 공격하여 서쪽의 경군을 모두 무찔러 몰살시키려 했다. 부장 니시와키 에이스케(西脇榮助)는 기민하고 발이 빠르며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우치다가 지휘하는 병력은 조선인 장수 김씨 외 70명이었다. 추월산의 사잇길에서 방책현의 오른쪽을 지나가려고 동틀 무렵 순창의 본영을 출발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속에서 길을 잃어 가도 가도 굽은 강의 상류를 빠져나가지 못함에 더욱 초조하여 깊은 산속에서 헤맬 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다. 우치다의 고심을 헤아리지 못한 일동은 기진맥진하고 피곤하여 잠시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갑자기 무언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 깊은 연못의 건너편에서 속세를 피해 은둔하는 승려가 목어를 연타하며 관세음보살을 연달아 되뇌이면서 계속적으로 조용한 선경(仙境)을 소란스럽게 하며 오고 있었다. 우치다는 고개를 돌려 한동안 그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박수를 1번 치자 빠르게 니시와키가 그를 데려왔다. 근처에 사찰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하나의 암자가 있다고 한다. 대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는 문을 밀고 들어서니 암자의 주지 역시 건물 앞으로 나와 간곡하게 손님을 맞이하였다.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하게 여승을 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대개 아름다운 용모의 비구니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는지, 그것이 다소 의심스러웠다. 그토록 대단한 2명의 사무라이가 이토록 망연하게 서 있기도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 비구니승 역시 다소간 예의를 차린 뒤, 갑자기 옷차림이 다른 외국인 손님을 보게 되었음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직접 자리를 잡고 연상에 연좌하여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다.

두 사람은 곧 잠시 편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이곳에 온 이유를 말했다. 자신들을 위해 길 안내를 간청하니 비구니승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첩은 본래 내성(萊城) 밖의 한 농사짓는 양반의 부인이며, 남편은 이전에 대표로 옹립되어 관청에 민생을 위해 강청한 적이 있었다. 그 후 관청에서 그 죄를 물어 즉시 죽여 버리니 첩은 당시의 비애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 곧바로 머리를 깎고 불제자가 되어 여러 해 동안 이 산중에 홀로 독거하며 죽은 남편의 후생을 애도했다. 지금 귀빈이 이곳에 광림하였다. 그 휘장을 보고 첩은 처음부터 의군의 사람임을 알고 홀연히 죽은 남편의 의로움을 추상하여 흠모의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감히 비구니승의 몸으로 귀빈의 존안을 뵙게 되니 죄 많은 몸으로 감사할 뿐이다. 만일 귀빈을 위하여 길잡이를 하게 된다면, 즉 그것은 죽은 남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첩이 본래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삼가 귀빈의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고, 즉시 몸을 일으켜 방에 들어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다시 나와 버드나무 가지 같은 날씬한 허리의 몸에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로 2명의 지사와 동반하여 병사들이 휴식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서서히 좁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 마침내 큰 도로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비구니승은 작별을 고하여 말하기를, "담양성은 이곳에서 좌측으로 겨우 1리 정도이다. 바라건대 이곳에서 헤어질 것이니, 귀빈들께서 다행히 민생을 위하여 분투하여 그 의로움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언덕 위로 올라가 표표히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우치다는 무리를 격려하며 급히 행군하여 곧 담양성 밑에 도착했다. 즉시 정문으로 돌입하여 그 관영을 습격하였다. 이때 관영의 병사들은 많은 수가 방축현의 전투에 나가서 성안은 거의 빈 상태로 잔류해 있는 관영의 병사는 100명이

되지 못했다. 우치다가 관영으로 돌진하여 크게 소리치니, 경병은 위축되어 총을 버리고 대부분 항복을 구걸했다. 대개 예상 밖의 변고가 일어나 적의 많고 적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치다는 그 항복한 병사를 모두 수습하고 그들을 앞세워 급히 방축현으로 향하여 연합으로 경군을 협공한다는 앞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첫 전투의 전체 국면 관찰

우치다의 유격대와 시라미즈의 남면군은 대체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치바의 서면군은 적으로 인하여 방축의 험준한 중요 지점을 선점당하여 그 진공의 기회를 잃었다. 도키자와의 동면군은 경솔하게 병력을 운용하여 전투에서 이익이 없었다. 오하라의 북면군은 우세한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외롭게 보루를 견고하게 방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동학군의 대체적인 전황은 아직 전패하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결코 전승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물며 본영에서는 우치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유격군의 동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고, 혹은 등애(鄧艾)[54]의 진법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대로 전군이 전몰하는 참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 우치다가 지휘하는 전투의 여하는 실로 전군이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패전하든 승전하든 그 소식은 본래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각 방면이 시시각각 위급하여 힘을 다른 곳으로 나눌 여지가 없었다. 곧바

54 등애(鄧艾) :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이다.

로 급히 시라미즈의 군사를 옥과에서 소환하여 동면군으로 보내 지원하게 하고, 그 후 별도로 유격군의 동정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제2일째 이른 아침의 동면군

대장 도키자와의 기운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이노우에 역시 격투에 지쳤고, 조선인 장수 배씨는 부상당하여 동면군은 마침내 견디기가 어려워 점차 가왕리에서 퇴각하려 했다. 형세의 궁색함이 또한 어떠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 위급하다는 보고를 즉시 본영으로 보냄에 전봉준은 곧바로 3명의 군사와 숙의하여 결국 요시쿠라로 하여금 날쌘 병사 20명을 이끌고 가서 지원하도록 했다. 요시쿠라는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빠르게 이동하여 가왕리에 도착했다. 먼저 그 지리를 살펴 몰래 나무 그늘 아래에 근거지를 잡고 불시에 함성을 지르며 경군의 측면을 돌파하려고 했다. 경군은 크게 놀라 적의 대규모 지원병이 도착했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급히 진영을 떠나 그 병력을 조금 퇴각시켰다. 이에 아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 직전의 패색 짙었던 형세는 갑자기 바뀌어 오히려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때 남면군의 시라미즈는 옥과에서 운암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급하게 적성진의 배후로 나가 빈번하게 적의 도주로를 끊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적은 매우 놀라 여러 차례 후방을 돌아보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 요시쿠라의 병사들은 기회를 보아 더욱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저격하였고, 이노우에와 도키자와의 군은 정면에서 사납게 진격하여 일전의 패배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 미즈하라 역시 이참에 적의 후군을 압박하니 3면에서의 연합 공격의 기세는 매우 대단했다. 경군은

결국 항전에 견디지 못하고 진의 형태가 크게 어지러워졌고, 이제 궤멸적으로 패배하여 북서쪽을 향해 도주했다.

제2일째 이른 아침의 서면군

험준한 요충지에 적이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바의 군은 쉽게 나아갈 수 없었고, 연합 공격을 약속한 유격군은 소식이 거의 끊어져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영의 군사회의에서 곧바로 다나카로 하여금 친병 20여 명을 이끌고 달려가 치바에게 협력하게 하였다. 치바와 오쿠보는 이들을 맞이하여 크게 기뻐하며 협의한 끝에 다시 병사들을 방책현의 기슭으로 진군시켜 목숨을 걸고 크게 전투를 전개했다. 때마침 우치다의 유격군이 이때 항복한 경군의 병사들을 앞세워 반대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쇄도했다. 경군은 이에 이르러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지고, 진중이 상당히 동요하면서 도주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치바와 다나카는 기회를 보아 더욱 진격에 노력하였고, 우치다 역시 상당히 건투하여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함에 경병은 마침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 서로 도와서 추월산맥을 따라 도주했다.

제2일째 이른 아침의 북면군

북면군은 경군의 중군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데, 적의 수는 우리 보다 실로 20~30배 우세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보고가 본영에 도착하자, 스즈키 역시 친병 25명을 이끌고 가서

지원했다. 이에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이후 여러 차례 적을 격파하려고 시도했다. 이때 불행하게도 적의 정예병 한 부대가 갑자기 동남면 쪽에서 나타나 다가왔다. 대적하기 위해 이미 크게 힘을 보탰는데, 동쪽 경군의 패잔병 역시 이참에 가세하여 오하라와 스즈키의 군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아군은 2대의 부대로 갈라져 방어전에 상당한 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으로 본래부터 대적할 수가 없었다. 보루의 한쪽이 결국 돌파되어 점차 쫓겨서 추월산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지세의 이점에 근거하여 겨우 함락의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곳 또한 서쪽 경군의 패잔병들이 갑자기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여 아군은 이에 거듭된 포위망에 빠졌고, 또한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에 앞서 다케다 대화상(大和尙)은 스스로 순창의 본영에 머물며 적십자대를 지휘하여 여러 방면의 사상자를 치료했다. 이후 북쪽의 경병이 우세하다는 소식을 듣자 쌍암리로 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현재 위급함이 촌각을 다툰다는 보고를 접함에 대화상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즉시 근처에서 농기구를 징발하여 이를 30명의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일종의 호미대를 편성해서 추월산 아래로 급히 행군했다. 대개 적십자대는 본래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기구를 가지고 그 위급한 곳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은 1척 4~5촌의 계도(戒刀)[55]를 휘두르면서 민활하고 맹렬하게 부하들을 지휘했는데, 완연하게 옛날의 우에

55 계도(戒刀) : 비구니가 휴대하는 작은 칼. 승구(僧具)나 삼의(三衣) 따위를 베는 데 쓴다.

스기 소다이(上杉霜臺)의 풍채가 있었다. 점차 나아가 전투 지역에 가까워질 즈음, 석양이 장차 서쪽 하늘로 지려고 하여 멀리서부터 저녁 안개가 짙게 다가와서 적이 아군의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게 되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다. 화상의 호령이 떨어지자 고함을 지르며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좌충우돌하였다. 홀연히 한 줄기 혈로를 열고 일단 빠져나와 다시 돌입하니, 산 위의 아군은 이것에 의해 크게 기력을 회복하여 분투 역전해서 이후 처음으로 소생의 지점을 확보했다. 다만, 이것은 적이 여전히 10중 20중으로 겹겹이 포위한 것을 풀지 못한 것으로, 이 때문에 악전고투하기를 수차례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위를 뚫고 산을 내려와 산 아래의 아군과 합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산 위의 군사들은 점차 기력이 고갈되어 갔다. 다행스럽게도 이 위기일발의 시기에 요시쿠라, 도키자와, 이노우에의 부대가 빠르게 동쪽으로부터 와서 지원했고, 이에 다케다의 부대와 협력을 다하였다. 마침내 오하라와 스즈키의 부대를 산 위에서 보호하여 와서 점차 쌍암리를 향해 퇴각해 갔다. 그 도중에 우치다의 유격대, 치바와 다나카의 서면군, 오사키의 보급부대 등의 3개 부대 모두가 와서 만나 함께 쌍암리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한밤중에 등불 앞에서 술잔을 들며 전투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대적으로 이후의 군사회의에 다시 몰두하였다.

세 번째 전투의 야습, 경군을 분쇄하다

이에 군사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이날 밤의 회의는 전날 밤과 달리 한인을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아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오직 천우

협의 동지 14명뿐이었다. 회의는 마침내 야습을 결정하고, 곧바로 밤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다. 야습의 수단은 소위 칼을 휘두르며 적진 속으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14명이 손에 폭탄을 들고 2~3개씩 좌우 전후로 던지고 곳곳에서 적진에 침입함으로써 그 사기를 꺾어 가급적 간단한 방법으로 전군을 패주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단번에 일본인의 솜씨를 적과 아군에게 알릴 수 있다. 회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동은 의견을 곧바로 전 총독에게 보고하고, 즉시 준비한 폭탄을 들고 일어나 몰래 적의 초병선을 통과하여 서서히 각 방면에서 접근하여 이제 적의 본영에 가깝게 나아갔다. 작전의 실행에 임하여 일동은 약속하여 말하기를,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간 사람은 우선 폭탄을 던져서 그 폭발음을 서로에 대한 신호로 한다. 각자 그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일제히 서로 폭탄을 던져 서로를 응원하고 급히 진군하여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하였다. 오사키, 치바, 다나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이에 곧바로 모두 약속과 같이 폭탄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그것을 따라 하니, 모두 계획한 것과 같았다. 폭발음과 함성이 쾅쾅 반향하여 이에 함께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때 경군은 대개 낮의 전투로 인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진중에 누워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폭발음이 들려온 것이다. 어둠 속에서 적의 많고 적음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낭패하여 허둥대며 싸우려 해도 계책을 낼 수 없었다. 14인은 적진에 돌격하여 종횡으로 활약하니 무인지경을 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적의 모든 진영이 파괴되어 무너졌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적병을 도살한 사람은 우치다가 최선봉이고, 우치다와 비슷하게 극적으로 적을 살육하여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은 나이 어린 이노우에였다. 감히 전투를 좋아하는 것은 아

니나 마주치는 대로 적을 베어낸 것은 스즈키, 요시쿠라이고, 가장 주도면밀하게 전투를 수행한 사람은 오하라, 오사키, 치바, 다케다, 시라미즈, 오쿠보의 6명이다. 함성을 맹렬하게 내지르며 일기당천의 기세를 보인 사람은 다나카와 구사카를 들 수 있고, 왼손으로는 권총을 사용하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다수의 적을 죽이며 기세를 올린 사람은 도키자와 우이치였다. 이와 같이 비겁한 적군은 50여 구의 시체를 진중에 유기하고 여기저기 걸려 넘어져 전전하는 몸으로 혈로를 찾아 구사일생하여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주로를 향해 도주했다. 이때는 이미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돌이켜 우리 편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전사자도 부상자도 없으니 일동이 매우 기뻐했을 정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번이고 승전가를 불러 그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이미 전투의 피로가 점차로 느껴지고 졸음 또한 쏟아지니,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곧바로 진영으로 와서 누워 쉬면서 천천히 후군이 오기를 기다리니 하늘이 점차 밝아지고, 전 총독이 보고를 받고 직접 말을 타고 달려왔다. 이에 처음으로 야습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하니, 감사와 칭찬이 오랫동안 이어진 후 14명의 지위를 올려 각 동학군의 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14인은 고사하여 그것을 받지 않고, 단지 외부에서 온 장수의 지위로 군사에 관한 전체를 계획하는 참모가 되는 것만을 허락했을 뿐이다.

전봉준은 이 호기를 이용하여 즉시 관병을 추적하면서 이날 아침 본영을 운암점으로 옮기고, 선봉을 장교리로 나아가게 하여 일단 저녁에 전주를 공격할 기세를 보였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면으로 힘을 기울여 사방의 빈곤한 백성들을 무휼하고 탐관오리를 쫓으며 그 과중한 세금을 없애니, 거동도 당당하게 왕 노릇을 할 만한 자의 풍모가 있었다.

호남의 건아들은 이에 이르러 그의 막하로 귀속하는 사람이 50,000명에 이르렀고, 그 명성이 멀리 호남과 영남에 떨치게 되니 사내대장부의 말 위에서의 일이 어찌 통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사자가 홀연히 만마관(萬馬關)으로부터 본영으로 달려와 그 사명으로 말하기를, "순천(順天)의 소년 이복룡(李福龍)이 향병 4,000명을 이끌고 전주를 공격했다고 한다. 원하건대 전 총독의 절도를 받들어 함께 천하를 위하여 나쁜 기운을 없애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쾌한 소식 한 가지가 별도로 선봉의 진영으로부터 전달되었는데, 말하기를, "오늘 칙사를 칭하는 자가 전주로부터 와서 강화(講和)의 뜻을 통보하였다. 어떻게 이를 응대해야 좋을지 감히 총독의 현명한 판단에 호소한다."라고 했다.

천하의 억조창생을 위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우뚝 서려고 하겠는가, 아니면 다시 왕명을 받들어 강화의 약속을 세우려 하겠는가. 전 총독의 진퇴와 거취는 과연 어떠한가.

만마관(萬馬關)의 소년 영웅

만마관에서 급사를 전봉준의 본영에 보내어 함께 북쪽으로 진군하는 의군을 일으키자고 제의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소년 영웅으로 위명을 떨친 전라도 순천군(順天郡)의 이복룡(李福龍)이다. 이복룡은 이때 나이 겨우 14세로 천부적으로 자질이 출중하고 의협심이 넘치며 배짱이 두둑해서 지역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전봉준의 부대가 경병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복룡은 분연하게

대중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전 총독이 오늘 불행하게도 만일의 변고를 당한다면 천하의 백성이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은 이로부터 마침내 끊어질 것이다. 나는 따라서 지금부터 다른 길로 나아가 전주성을 살펴 관병의 배후를 공격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자연스럽게 총독을 위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여러 형제 여러분, 만약 평생의 맹약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서로 함께 만마관을 근거지로 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에 지역민들이 그의 의로움을 따라 함께하여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성세를 이루어 크게 떨치니, (전라)도의 동쪽에서 갑자기 매우 큰 하나의 적국이 생기게 된 것이다. 관병은 이제 일면에서는 전봉준의 정예병으로부터 공격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한 이복룡의 거친 공격을 받게 되어 공수진퇴의 계책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쥐의 교활한 지혜와 같이 관병은 곧바로 칙사를 보내는 책략을 이용했다. 이는 전투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학당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계략이었으니, 그 심리적인 전술이야말로 매우 음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삼가 조칙의 뜻을 받들다

전봉준은 의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의로움으로 그를 기만한다면 그의 목숨을 제압하는 것도 또한 쉽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적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왔다. 조칙의 속박은 갑자기 그의 신변에 닥쳐왔다. 야심이 큰 동시에 충의도 역시 큰 그는 왕명을 받는 자리에서 삼가 그 뜻을 받들겠다는 한마디 외에, 또 다른 대답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함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의 조건

고식적인 칙서는 강화의 뜻을 전달해 왔다. 강화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오히려 서울의 군대, 서울 관료들의 치욕이라 칭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가 국가 통치의 실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강화 조건에 의해서도 대략 알 수 있다.

제1 동학인은 일반적으로 교화되지 않은 백성과 달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반 백성 역시 능히 그 뜻을 체득하고 함부로 그와 싸워서 동학에 대한 정부의 예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제2 동학인 중에 종래의 가산을 탕진하고 사방으로 떠난 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생각컨대, 그 가정 역시 이 때문에 문란하여 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 역시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일반 백성 중에 동학당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정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마땅히 그 채권을 모두 폐기할 것이다. 또 농지 등을 채권의 담보로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그 농지를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3 동학인이 여러 곳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옛

원한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피곤해져서 다시 전쟁을 말하지 않다

칙명에 대한 전 총독의 의사가 그와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온 수개월 간의 힘든 전투에 고달픈 마음이 생긴 일부 동학당인들이 이제 이익이 많은 강화 조건을 받고서는 어찌 휴전령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14인의 천우협도가 강력하게 간언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더라도 일이 이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형세를 만회할 수는 없었다. 눈을 돌려 군사적인 상황을 보면, 전봉준, 이복룡 2명의 장군은 이미 양도(兩道)에서 전주의 근처까지 육박하였고, 동학의 깃발은 호남 일도의 산하를 덮었다. 전투를 하지 않고 호남 일대에 우리의 세력이 휩쓸듯이 하여 호서(湖西) 50주 역시 이제는 동학군의 호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형편이다. 경군은 의기소침하고 좌절되어 다시 남진할 용기가 없다. 관찰사영 군사들의 마음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여 근래에는 자주 외로운 성안에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군주의 측근을 소탕하고 백성을 구호할 뜻을 펼치기에 어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데 총독은 공허한 송양지인(松襄之仁)[56]의 하찮은 동정을 품고 있고, 동학의 진중은 오로지 일시적인 눈앞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있다. 실로 천년의 유감이라고 할 것이다. 천우협이 된 자, 그

56 송양지인(松襄之仁) : 송나라 양공(襄公)의 인정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정 또는 배려를 말한다.

애초의 뜻에 어긋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참에 무엇인가 상황을 일변시킬 묘책을 고안해 냄으로써 시국의 전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일대 영단으로 칙사를 참수하려 하다

계책이 있으니 칙사를 베는 단호한 결단이 이것이다. 이는 단지 동학당과 관군 양쪽 군대에 대한 청천벽력일 뿐만 아니라, 수만의 동학당군을 쫓기게 하여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의 자리에 서게 할 기묘한 방책이다. 일단 칙사를 도륙해 버리면, 이는 경군에 대해 극단의 절의(絶意)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 절의를 표하게 되면 동학당의 최후 결심도 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면은 이에 따라 급변할 것이며 형세도 크게 바뀔 것이다. 동학당의 사람들이 선택할 길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얻을 것인지의 2가지 외에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다. 천하의 일은 이후 다시는 사소한 애매모호함과 의심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 뛰어난 계략이 또한 이와 같다. 천우협이 어찌 조그만 불인(不仁)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 빛나는 검광 아래로 지나가는 큰 뱀〔流星光底逸長蛇〕을 놓치고 마는 것[57]을 마냥 주시하며 참을 수 있겠는가. 14명 영웅의 모의는 이에 하나로 결정되어 요시쿠라, 다케다, 구사카는 우선 그 동정을 탐지하기 위해 해가 진 뒤 황혼 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서로 만나 비밀리에 칙사의 거처를 찾아가기로 했다.

57 빛나는……것 : 일본 전국 시대 무장의 하나였던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이 10년간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다가 1561년 밤 다케다의 근거지를 공격했는데, 그 와중에 눈앞에서 큰 뱀, 즉 다케다 신겐을 놓친 사실을 시로 읊은 것이다. 이 글에서의 큰 뱀은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 맺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명의 지사, 칙사의 거처를 방문하다

칙사는 이때 이미 선봉영에서 호송되어 동학당의 본영 소재지인 운암동(雲巖洞)으로 들어왔다. 시내에 위치한 마구간〔馬房〕 박씨의 집에 그 숙소를 정했다. 동학당 사람들은 왜인 손님들이 화의를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특히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탐정 담당은 스스로 첩보활동을 하여 다행히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 즉시 3명의 지사를 인도하여 그 숙소에 도착했다. 칙사는 일본 호걸이 스스로 왕림하여 방문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허둥대며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다시 새로운 방을 열고 술상을 만드는 등 향응에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 의미는 이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만면에 자주 희색을 띠었다. 이 사람의 성은 송씨(宋氏)이고, 관직은 군사마(軍司馬)[58]로 천부적으로 쾌활하며 말을 잘하고 잘 웃는다. 더하여 이야기의 화제가 우리 제국(일본)에 이르게 될 때마다 나라의 풍습과 민속을 칭찬함에 아낌이 없었다. 풍모가 다른 한인과는 크게 달라서 우수한 외교가의 자질과 재간, 기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3명의 지사는 그 관직이 매우 낮음을 듣고 즉시 그가 국가의 대사를 위임받아야 하는 칙사가 아님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 동학인의 작은 일에까지 대응하는 것을 보고, 경군을 위해 속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여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급히 대화를 멈추고 한 번 인사한 뒤 가마를 재촉하여 영으로 되돌아왔다.

58 군사마(軍司馬) : 조선 시대 정부의 군사 기구에 소속되어 일반 사무를 맡아 보던 문관이다.

동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3명의 지사는 그가 가짜 칙사라는 것을 믿고 그 내용을 동지들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내용과 같이 과연 진짜 칙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를 참하여 국면 전개의 희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우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동지들의 격앙은 처음부터 그러한 바로, 회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끓어올라 어찌할 수 없었다. 혹은 말하기를, "크고 작은 그 정보들을 모아 총독의 영채로 보내 다시 전봉준의 반성을 구하자."라고도 하고, 혹은 그것을 반박하여 말하기를, "이미 때를 놓쳤다. 선입견 때문에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연의 순리에 맡겨서 점차 하늘의 도움이 이르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다수가 희망하는 바는 다시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잘 조화시킨 조치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품은 뜻의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요시쿠라, 다케다, 스즈키의 3인을 칙사의 거처로 보내서 그 응대하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처분할 것을 결정했다.

가짜 칙사의 정체를 밝히다

삼사는 새벽녘 이른 시간을 무릅쓰고 군사마 칙사의 숙소로 찾아갔다. 때마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군사마는 밥상을 물리고 삼사를 영접했다. 삼사는 엄연하게 먼저 질문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공은 칙명을 받들어 동학인을 위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니, 군사마는 삼사의 안색을 주시한 후 구구하게 답하여 말하기를, "귀하들이 말한 것과 같다. 다만 요청컨대, 세속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다시 풍류로 화제를 옮기자."라고 했다. 그 상황이 조금은 사태를 은폐하고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았다. 이에 삼사는 더욱 추궁의 화살을 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귀국 정부의 조례(朝禮)를 안다. 고례로부터 아직 품계가 낮은 관리를 칙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군사마가 잠시 침묵하는 동안 곤궁한 모습이 미간 사이로 확연하게 보였다. 잠시 후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칙사라는 것에 대해 공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칙서를 가지고 왔으니 칙사라고 칭하더라도 어찌 또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삼사는 서로 돌아보며 미소 짓고 다시 말을 이어 나가 말하기를, "공은 이미 칙사의 높은 관리이다. 우리들은 공에게 간청하니 잠시 그 칙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군사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칙서는 보여 줄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삼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침내 그 문서를 행장 안에서 꺼내 읽어 보니, 이게 웬일인가. 이것은 칙서를 받들어 관찰사가 동학당 사람들 앞으로 발포하는 유달서(諭達書)였고 그 내용은 치욕적인 강화 조건의 신청장이었으니, 사태는 여기에서 예상 외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강화의 진상은 이에 따라 더욱 명확해져서 삼사의 희열은 금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곧바로 군사마를 놀리며 말하기를, "칙사공, 원컨대 잠시 이 칙서를 우리들에게 빌려 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안색이 바뀌며 창황하게 그 문서를 행장 속으로 집어넣었다. 또 아첨하여 말하기를, "동학인들은 이미 성실함, 존경, 믿음〔誠敬信〕의 3글자로 그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인 사람들 모두 성현의 제자들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

금 초야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웃된 지역들도 호응함이 들판에 번지는 불과 같다. 이것은 모두 정부의 죄이다. 공들은 동학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 진실로 의로움이 높은 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관찰사의 진영으로 돌아가 공들 및 동학당을 위해 진정하고 정부의 반성을 요청하여 종래의 통치를 개선하고자 한다. 공들께서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삼사는 그것을 듣고 가가대소하며 일부러 말을 꾸며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며칠 후 반드시 관찰사를 알현하여 공께서 오늘 약속한 것을 실행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것이다. 공은 마땅히 지금 우리들을 위해 전주 입성의 안내장을 써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군사마가 이를 듣고 즉시 붓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이에 삼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여 곧바로 작별을 고하고 새벽바람을 따라 함께 진영으로 돌아왔다.

전봉준, 여러 차례 천우협을 위로하고 타이르다

두 차례 방문하면서 참수할 가치가 있는 칙사가 아님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천우협 중 용감한 사람들은 자못 실망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동시에 적당한 강화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일동은 다시 강력한 간언을 전 총독에게 시도하고자 하여 일어섰다. 이때 때마침 전봉준은 운암동의 본영에서 강화 후의 조치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하고 있던 상태였다. 일동은 곧바로 안내를 받아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전봉준은 여러 지사들의 얼굴색이 각각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여러 공들은 강화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멈추라. 우리가 어찌 일시적인

상황의 개선을 원하여 일부러 새롭게 승리한 기세를 꺾고 백성 구제의 기회를 지나치고자 하겠는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청나라 장수 몇 명이 어제 갑자기 아산에서 전주로 들어와 빈번하게 돈과 쌀을 나눠주며 전주성 백성들의 환심을 얻었다. 또 별도로 청나라의 황제와 이중당(李中堂)[59]의 유고(諭告)를 발표하면서 매우 열심히 우리 동학당의 사람들을 위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감언은 교묘한 언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정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다. 근래의 오합지졸들은 이참에 사방으로 도주하여 군기를 손상시켰고, 우리 동학도 또한 이전의 투쟁심이 없다. 나는 이 때문에 더욱 잠시 저들의 강화 신청에 따라 그 조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기회를 잃지 않고 속히 양쪽 군대의 화맹(和盟)을 세우고, 남쪽으로 가서 점차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함양하는 데 노력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곳으로 만들어 건업을 후일로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하면 추호도 최초에 품은 뜻과 어긋나지 않으며 만전을 기하는 방법으로도 적당하다. 또한 우리가 전에 해산을 명한 친병들은 지금 대개 이미 각자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팔도에 산재해 있다. 곧 급히 그들을 규합하여 도망간 자들의 보충에 충당하려고 함경도에도 서쪽 평안도에도 갈 것이다. 그동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고 오기까지 실로 30일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두 번째 거병은 우리 동학의 당령상 각 접장(接長)의 회합을 기다려야 하고, 그 모의의 결정을 따른 연후에 비로소 시설(施設)을 쫓는 번잡한 규정이 있다.

59 이중당(李中堂) : 이홍장(李鴻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공들은 항상 손님의 정서상 대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로서는 시기의 곤란함과 동학당의 상황 때문에 일자의 유예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곧 서울을 향해 진군할 것을 약속함에 1개월 후로 한다. 그리고 팔도의 접장이 함께 봉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단신으로 정예 부하 8,000명을 이끌고 맹세코 여러 공들의 군대에 참여하여 생사존망을 반드시 여러 공들과 함께할 것이다. 생각해 보니 나의 스승 최제우(崔濟愚) 선생께서는 선화(仙化)하시던 날, 여러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말씀하시길, '나는 실로 갑오년 7월 초하루에 운봉현(雲峰縣) 두류산(頭流山)의 깊은 계곡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의 도는 이때에 반드시 천하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더욱 노력하고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로 인하여 여러 제자 역시 학수고대하며 이날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다. 지난번에 동학당의 병사들이 서로 헤어질 때 이것으로 재회의 시기를 정했다. 7월은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교외의 들판에 이르는 때이다. 여러 공들 역시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동일하게 시기를 이날로 정하자. 어찌 현재 맞닥뜨리는 맹렬한 더위의 행진에 이길 수 있겠는가. 감히 공들의 현명한 판단을 묻겠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간언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가 먼저 우리의 심중을 간파하여 우리의 간언에 앞서 그에게서 더욱 주도면밀하고 신중한 경략과 예언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강화를 시기로 하여 동학당의 병사들이 완전히 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원래 일본의 가리발디(Garibaldi)는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세서 교지(巧遲)로 인해 대사를 그르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경군이 고의로 강화라는 거짓된 계책을 이용하여 동학당의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당의 우두

머리를 포로로 잡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다나카는 다른 것으로 인해 망설이는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해 천우협이 조선에 와서 원조하는 천고만난과 일전의 어려운 전투에서의 괴로움이 지금에 이르러 헛된 노고가 된 까닭을 호되게 말하여 노발대발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논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대세가 이처럼 극한에 이른 이상은 사소한 기일에 관하여 그와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에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굳게 입을 닫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일동은 마침내 일몰 후 다시 회의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 함께 전봉준의 조용한 방에서 물러났다.

야밤에 영웅은 크게 재거를 의논하다

일행 중 연장자는 동학당에 들어온 당초부터 하였듯이, 동지들에게 간담을 토로하고 이를 동학당 사람들과 상의했다. 본래 그들과 우리는 국토를 달리하고 정서도 다르며 언어 습관이 다른 이상, 첫 대면부터 무난히 그들을 굴복시켰으나 즉시 이에 대해 본 목적을 수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에 속한다. 따라서 당초의 회합은 먼저 일본 국민의 의협심이 매우 의지할 만한 것임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고, 점차적으로 저 동학도들 사이에 일본 기풍을 불어넣는 한편 날이 갈수록 청국인들과 소격해지도록 궁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후에 오히려 크게 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경우를 발견하면, 일동이 오랫동안 동학당인 사이에 머물거나 혹은 의협도 중의 한두 사람을 동학당인 중에 머물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동학당의 책략 참모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 여러 차례 동지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그

렇지만 일동 모두가 서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의견의 전부는 물론 일부도 결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다.

일몰 후, 전봉준의 본영으로부터 사절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오는 것이 좋겠는가, 공들께서 왕림하시겠는가."라고 함에 일동은 편의상 전봉준이 스스로 와 줄 것을 요청하니, 이윽고 전봉준이 왔다. 그리고 그의 엄숙한 위용은 조금 전보다 더욱 엄숙해진 것을 파악했다. 주간회의 결과에 따라 천우협 일동은 노기가 분분하여 감춰지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도 의식하는 기색 없이 혼자서 표연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연하게 부채를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무신경한 철골로 만든 사나이의 옛 모습으로 돌아와 엄숙하게 입을 닫았다. 방 밖의 경위는 낮과 마찬가지로 사면에 배치되었고 대화도 이윽고 개시되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그는 구두로 서서히 작은 소리를 흘리며 유유히 대화에 응했다.

이날 밤의 회의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일동은 전봉준의 제의에 따라 부득이하게 7월 초하루의 기일을 기다리기로 했다. 전봉준은 또 일동의 질문에 답하여 말하기를, "공들은 이제부터 우리와 헤어져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 서서히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매우 당연하다. 앞으로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들도 동학군을 이끌고 별이 빛나는 밤 북으로 달려가 기일에 늦지 않도록 반드시 한강을 건너는 선착장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만나는 날, 서로 응하는 징표로 모두 함께 일장기를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대개 일장기는 유독 귀국의 국기로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상응하는 징표로 식별이 가장 명확하다. 그러한 때, 일장기를 든 병사는 모두 나의 부하 의병으로 의로운 공들과

생사를 함께할 사람들이다. 바라건대, 공들은 그들을 다른 흉도와 같다고 오인하여 불인(不仁)의 살육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아, 그도 일장기 아래에서 독립의 의로움을 함께하려는 자이니, 어느 아둔한 외교가가 감히 일청전쟁 개시 후에 이르러 이 반도의 유례가 없는 영웅이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겠는가.

의거를 세계 만민에게 알리기를 바란다

전 총독은 나아가 일동의 말과 얼굴빛이 결연하고 호협한 기상에 위엄이 있고 의(義)에 대해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간신을 싫어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지극한 정성이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원통해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의 결심은 우리 무리를 움직이기에 이미 크다. 우리 무리도 지금부터 각오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바를 얻었으며, 마음은 이미 한 차례 자결(自決)의 지경에 달하였다. 지금부터 10명, 100명의 원세개가 나타나 천만 명의 청군을 데려와 민씨 역적의 좌우를 지원하더라도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것인가. 단지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서울에 들어간 뒤 다행히 우리 무리를 위해 각국 공사에게 호소하며 말하기를, 동학의 뜻은 본래 오로지 왕국의 폐정을 개혁하는 데에 있으며 감히 망령되게 내외 국민을 해치고 토비(土匪)와 같은 흉포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즐겨 하지 않는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각하 등이 이 뜻을 분명하게 천하 만민에게 전유(傳諭)하고 상인과 여행객으로 하여금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하는 바는 이것뿐이다. 헤어진 뒤 천경지복(天慶地福)

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깊은 밤 진지에서 주문(咒文) 소리가 높다

이러는 사이에 총독은 가고 밤은 깊어졌다. 일동도 역시 모두 침상에 들었다. 이때 홀연히 사람의 소리가 높이 방 바깥에서 들림과 함께 여러 소리가 점차 이와 어울리며 어두운 밤을 시끄럽게 하였다. 그 어조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온화하고 어떤 것은 격하여 우는 것 같고 호소하는 것 같고 부르짖는 것 같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하늘에 울리고 땅을 흔들어 처절하고 창절(愴絶)한 정이 끝이 없었다. 이것은 즉 몇 리 떨어진 진지와 진지를 지키는 당인들이 주문을 외쳐 각자의 명복을 비는 것이었다.

고별의 증답(贈答)

천우협이 갑자기 전(全) 총독과 이별을 고할 필요성은 신속히 경성으로 가서 천하의 형세를 상세히 알리고 미리 시급한 것에 응하는 방책을 세워 변(變)이 갑자기 일어나는 날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호남 56주(州)는 관중(關中)의 근거지이기에 진실로 쉽사리 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30일 동안 외딴 시골에서 허무하게 보내며 날짜를 기다리는 것을 특히 애석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만일 일동이 쉬고 있는 기간에 바야흐로 시국이 갑작스레 변화된 상황을 보이게 된다면 일동의 수십 일 동안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은 하루아침에 헛된 노력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협도가 가장 우려

하고 근심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천우협이 서울로 가겠다는 급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억지로 꾸짖을 필요가 없다. 다음 날 아침 협도는 전 총독을 향해 세 가지 조항의 문제를 제출하고 그 결답(決答)을 구하였다.

제1조 대일본제국에서는 사대부가 서로 맹약을 하는데 합당한 의식이 있다. 족하(足下)도 역시 조선의 의식을 사용하여 피를 뿌림으로써 그 뜻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서로 배신하지 않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2조 우리 동지는 지금부터 장차 서울로 가려고 한다. 족하는 마땅히 연도에 있는 동학 통령들의 성명과 향동(鄕洞)의 이름을 잘 알려 주어 우리 무리가 방문할 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3조 우리 무리가 서울로 올라가 시설(施設)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족하는 부디 심복 한두 명을 파견해 우리와 동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무리의 앞으로의 동작을 감찰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총독은 답서에서 말하기를,

제1조 간담을 서로 허용하고 같은 마음을 서로에게 내보인다. 우리 무리는 이미 하늘을 가리켜 생사의 맹서를 한 자이다. 앞으로 더 이상 어떠한 의식이 필요할 것인가. 만약 공(公)들이 맹서를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 하늘이 저절로 이

를 벌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게 된다면 원래부터 죽는 것이고 돌아가는 바는 이와 같을 뿐이다.

제2조 연도에는 원래 우리 당의 두령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은 체포를 피해 사방에 잠복해 숨어 그 땅에 머무는 자가 없다. 또 우연히 머무는 자는 모두 무능하고 완우(頑愚)한 무리이다. 어찌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맞이할 자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이 무리의 성명과 살고 있는 동네는 특별히 통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3조 우리 무리는 지금까지 공들의 의로운 마음이 있음을 자세히 알고 사소한 의심도 갖고 있지 않다. 순창에서 세 차례의 큰 전투는 어찌 참된 정성이 없는 자가 할 수 있겠는가. 입경 후 제반 시설에 관해서는 일체 공들이 하는 바에 전적으로 맡기고 조금도 유감이 없다고 믿는다.

문서의 왕복을 마친 뒤 협도는 다시 전 총독에게 예물로서 시계〔時辰器〕와 유리석(瑪瑙石) 등을 주었다. 전(全)은 이에 대한 답례로 노자돈 5백 냥, 금사단(金砂丹) 수십 개, 조선 색지 수십 권, 말 3필, 마부 세 명 및 삼베〔麻布〕 수 권과 삼베옷〔麻服〕 여러 벌을 주었다. 더하여 동학당의 비밀 인부(印符) 14개(한 명에 하나씩)를 주고 별도로 두 통의 서한을 첨부했다. 이 서한은 처음으로 동학당이 될 때의 법식(이른바 입도식) 및 동학 일반의 의례 등을 자세히 적은 것이었으나 지금은 산일(散逸)하여 여기에 기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전(全) 총독, 당군(黨軍)을 검열하고 옥과(玉果)를 떠나다

이날 전봉준도 역시 급히 남방의 옥과현(玉果縣)을 향해 출발하려고 생각하여 특히 다시 와서 협도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협도는 바로 가서 그가 가는 것을 배웅했다. 이때 전 총독은 엄하게 전각 위에 기립하여 부하 병사의 검열을 행했다. 보기에 5척(尺) 5촌(寸) 정도의 체구가 꼼짝 않고 선 채로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관(冠) 아래 눈썹 옆 두 개의 안구가 번쩍거리는 전구와 같이 직접 무리를 쏘아보고 있을 뿐이다. 그 늠름한 위용과 숙연한 태도는 도저히 현재 조선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협도는 여기에서 부지중에 당인(黨人)을 위해 좋은 장군을 얻은 것을 축하하였다. 8대장도 나와서 전 총독의 좌우에 시립(侍立)했다. 문으로 들어가 단(壇) 아래에 모인 병사는 이윽고 그 넓은 정원에 가득 찼다. 병사의 총수는 4~5백 명, 이들은 모두 총독이 각별하게 여기는 친군에 속한다. 수많은 전쟁을 한 나머지 금창(金瘡)이 몸에 넘치고 강화(講和)한 뒤 사기가 매우 떨어진 자가 있지만 여전히 규율이 정연하고 용기 있고 늠름하여 부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물며 군령이 매우 청명(淸明)하고 또 이를 이끄는 이들은 탄환이 몸을 뚫지 못한다고 알려진 8대 용장이다. 그리고 총독은 유명한 전봉준이다. 이리하여 한 차례 전투를 주고받음에 이르러 관군을 쫓아내고 삼남의 들판을 평정하는 데에 무엇이 있으랴. 예로부터 대륙에서는 못 옆의 평야에서 왕업(王業)에 뜻을 두고 언덕에서 의군(義軍)을 모아 마침내 천하의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무릇 이번 동학당도 그와 같은 부류일 것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반청 반백 색의 군기(軍旗) 여러 개가 전후좌우에서 바람에 따라 펄

럭였다. 깃발에는 청시(淸時) 또는 명도(明道)라는 두 글자가 써 있었다. 단, 무기는 매우 조악(粗惡)하고 총포는 모두 고풍의 화승총이 아닌 것이 없다. 창은 철창과 죽창의 두 종류에 한정되고 도검은 그 수량이 매우 적어 대장급만 겨우 들고 있었다. 더구나 그 칼날은 모두 녹슬어 빨갛게 변했다. 부대는 평상과 같이 창대(槍隊), 총대(銃隊), 투석대(投石隊), 곤봉대(棍棒隊)의 네 개로 구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총대가 가장 많아 전군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총독의 호령은 내려졌다. 전군은 함성을 지르며 떠들썩하게 영외로 밀려 나갔다. 전(全) 역시 협도 일동에게 목례하고 말안장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문을 나섰다. 8대장도 그 뒤를 따랐다. 협도는 이를 보내려고 독산동(獨山洞)에 이르렀다. 이때 전(全)은 말 위에 노란 부채를 펼치고 무리를 지휘하고 곧바로 호령하였다. 무리는 2열 종대가 되었다. 총독 및 각 대장은 말로 그 사이를 달렸다. 대형은 길게 꾸불꾸불 이어져 긴 뱀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앞쪽은 멀리 운암(雲巖) 강변의 버드나무 둑과 이어진다. 협도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돌아가며 참을 수 없는 정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강변 높은 구릉 위의 패왕대(覇王臺)에 올라 손으로 쌍안경을 만들어 목을 빼고 다시 이를 바라보았다. 긴 뱀은 서서히 맞은편 강안으로 대열을 지어 갔다. 당인(黨人)의 표시인 머리 위의 황건(黃巾)은 오랫동안 논밭 사이로 보였다. 사랑스러운 당수(黨首), 당장(黨將), 당인(黨人)의 모습은 마침내 버드나무 언덕에 가려지게 되었다.

패왕대(覇王臺) 위 천우협의 감개

이리하여 패왕대 옆의 협도는 서로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서 말하기

를, "아! 천하를 진감(震撼)시키는 매우 장쾌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단지 전제국가에 있는가. 그러한 까닭은 이기면 관군이고 패하면 적이 되며, 사업과 수급(首級)은 시종 서로 수반되어 행하는가 죽는가의 두 길 외에 다른 혈로(血路)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전봉준 역시 겨우 5척의 남아(男兒)인데 한 번 외치면 8천 명의 자제가 신변에 모이고, 다시 외치면 그 위신이 전라도 56주에 미쳐 왕권도 함부로 이를 제어할 수 없다. 수령도 그 앞으로 가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홀로 오만하게 만인의 위에 횡행(橫行)하고 천지 사이를 짓밟는다. 어찌 장부의 진면목을 얻은 자가 아닌가. 우리들 반생의 독서가 마침내 멀리 이 미개국 농촌 남자의 공업(功業)에 미치지 못하니 치욕이고 치욕이다. 지금부터 크게 분발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천우협 일동은 동학군 총독과 1개월 뒤의 재거(再擧)를 맹약하고 서로 한 번 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영원한 결별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세의 변전(變轉)은 불행하게도 마침내 양자로 하여금 이 뒤에 다시 행동을 함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특별히 동학군에 관해 두세 가지 일화를 삽입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항상 그들을 지목하여 세상 보통의 폭도로 삼는 오해를 깨고 오로지 조선 근대의 걸물인 전봉준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함이다.

순회(巡回)정부로서 동학군

다른 도의 동학군은 일단 모른다. 전라도 일대, 즉 전봉준 휘하에 있는 자는 호령이 매우 엄명(嚴明)하여 추호도 범하는 바가 없고, 질서

가 있음은 경군(京軍)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것은 실로 전봉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특히 자랑스러운 바이다. 한때 당군(黨軍)이 그와 함께 천하 백성들의 희망을 짊어지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보라. 경군이 가는 곳은 연읍(連邑)의 노장(老壯)이 모두 부담하여 도주한 집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닭과 개는 징발당하였다. 그렇지만 당군이 지나간 곳은 남녀 모두 단사호장(簞食壺漿)을 들고 이들을 환영하며 하루라도 길게 우리 읍에 머물러 줄 것을 애원하였다. 농부는 진지로 와서 쌀과 보리를 팔고, 상인은 영(營) 안으로 들어와 잡화를 팔고 각자 모두 편안하게 본업에 종사하였다. 이리하여 당군이 한 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수백 명의 농민과 상인이 계속 그 뒤를 쫓아 다른 읍으로 이전하는 것을 본다. 아마도 당인과 함께 있다면 지방 폭리(暴吏)의 주구(誅求)를 면할 수 있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조금도 침범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동학군은 실로 세상을 구하는 군대이며 반도에서 순회하는 좋은 정부이다. 그들이 스스로 칭하여 제중의소(濟衆義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 아니다. 아! 조선이 전봉준을 잃은 것은 하늘이 마침내 조선의 흥함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약탈자를 총살형에 처하다

동학군이 순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시정의 무뢰배 세 명이 상의해 동학군의 이름을 사용해 지방 부호를 위협하고 많은 금곡(金穀)을 약취하였다. 당의 관리가 우연히 그 일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여 곧바로 전봉준에게 처분을 청하였다. 그래서 전(全)은 포졸을 보내 비도(匪

徒)를 포박해 와서 눈앞에서 이를 총살에 처하고 그 머리를 효수하고 방(榜)을 걸어 말하기를,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모두 이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지방 무뢰배는 전율(戰慄)하여 이로부터 숨을 죽였다.

전봉준, 원수〔仇敵〕의 가족을 후히 보호하다

순창(淳昌)군수 이성렬(李聖烈)은 지방관 가운데 준재(俊才)로 이전에 서울로 올라가 조정에 의견을 바치며 말하기를, "당에 대한 정략의 핵심은 먼저 당인(黨人)의 죄를 용서하고 이익을 가지고 귀순을 유도하여 당군(黨軍)이 가장 믿는 부하를 모두 제거한 뒤 서서히 당괴(黨魁)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같이 한다면 난(亂)의 근원을 없애는 데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헌책하는 바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더 없는 정략이었다. 다행히 그 헌책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군(京軍)은 전투상으로 여러 차례 패배하는 실적을 보였으나, 정략상에는 도리어 순조롭게 실효를 보여 점차 당군을 남방으로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아! 이것은 원래 누구의 교사(敎唆)에서 나온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 당 안의 건아(健兒)가 근래 팔을 걷어붙이고 자주 강개(慷慨)하고 반드시 이(李)의 목을 얻고 그 삼족을 멸하고 그런 뒤에야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호령하였으나 억지로 꾸짖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봉준이 순창에 들어가자 먼저 군아(郡衙)로 가서 이(李)의 처첩과 여아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들을 안방에 봉쇄하고 수비병을 붙여 여기에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건아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음을 분해했으나 마침내 어찌할

수 없었다. 이때 전(全)이 원수의 가족을 친히 도탑게 구호한 것은 의군 수령의 도량을 보이고도 남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치다의 유술(柔術), 당군(黨軍)을 진율(震慄)하다

하루는 순창의 진중에서 협도들이 한가함을 참지 못하자 우치다가 넓은 정원으로 뛰어 내려가 당군의 한 용장(勇將)과 힘을 겨루고자 하여 그를 도발하였다. 그는 우치다가 연소하고 단신인 것을 보고 웃으며 응하지 않았다. 우치다는 조바심이 일어나 더욱 압박했다. 그가 큰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나의 힘은 원래 50명을 대적한다. 이 다리가 한 번 공(公)의 몸에 닿으면 공의 생명이 위험하다. 공은 그래도 겨루려고 하는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우치다가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역시 한 팔을 휘둘러 너의 호흡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때가 되어 너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는 분연히 일어서서 한번 소리치고 곧바로 우치다를 발로 차려고 하였다. 그 동작이 신속하고 또 나는 제비가 공중에서 몸을 돌리는 것 같았다. 정원에서 둘러싸고 지켜보는 당원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며 모두 그 기술이 경묘(輕妙)함을 칭찬했다. 위기의 순간에 모두 우치다의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어 순식간에 지상에 쓰러질 것을 의심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르짖는 소리가 한 번 나고 바로 바닥에 쓰러진 자는 우치다가 아니라 도리어 당장(黨將)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 몰랐다. 우치다는 서서히 당장 옆으로 가서 양손을 어깨 아래에 대고 한 번 누르자 당장은 순식간에 소생했다. 우치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일본인의 솜씨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그가 위축되어 말하기를, "공의 기술은 신과 통한다. 내가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결이 있은 이래로 당인이 우치다를 귀신과 같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천우협, 일본군을 위해 아산의 청군을 견제하다

협도가 당군 속에 있자 아산에 주둔하는 청장(淸將) 등은 의중에 매우 두려움을 품고 협도를 가리켜 후문(後門)의 이리〔狼〕라고 했다. 자주 첩자를 보내 동정을 살피고 혹은 일부 당인을 유인하여 다른 운동을 방해하려 했다. 고심하여 운영하는 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경성에 진격하는 책모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아산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르러 발견된 진중 유류품 가운데 청장(淸將)의 일기 및 천우협과 동학당 격문의 사본에 의해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도망간 관리가 점차 돌아오다

당군이 이미 옥과(玉果)를 지난 뒤 천우협의 여러 호걸은 잠시 순창의 진영에 머물렀다. 날은 점차 황혼녘이 되었는데 이때 마침 군아(郡衙)의 좌수(坐首), 이방(吏房) 등 각 관리가 앞뒤로 연이어서 두려워하며 협도 앞에 인사하러 왔다. 협도가 순창에 머무른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 관리를 보는 것은 실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군의 내습(來襲)에 앞서 풍성학려(風聲鶴唳) 사이에 당황하여 어디론가 도망쳤다가 이날 저녁 당군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 심기가 비로소 평상시로 돌아와 갑자기 옛 관아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아(郡衙)의 정전(正殿)에는 아직 무장한 일본 손님 10여 명이 위풍 늠름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본래 겁이 많은 성격이므로 의중이 아직 어떠한지 헤아릴 수 없는 일본 손님과 갑자기 만났는데 이를 처치할 방도를 쉽게 알 것인가. 그래서 일반 조선인이 보통 하는 바에 따라 아무런 사려도 없이 망연히 그 앞으로 나아가 대담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멀리서 온 손님을 접대하는 예(禮)라고 칭하고 관동(官童)에게 명하여 많은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협도에게 계속 권하며 안색을 살피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당군이 여기에 오래 머물면서 그 사졸 수천 명에게 주어야 할 매일의 식량, 물품, 의류는 모두 우리 이방이 지급하였다. 게다가 그들이 갈 때는 군아에서 소장한 총기 40정을 빼앗아 갔다. 그들이 연읍(連邑)을 순력(巡歷)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병량(兵糧)과 무기에 있다."라고 하였다. 아! 당군이 이미 경군과 화약을 맺은 연후에 오히려 짐 싣는 삯과 길을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이 관총(官銃)을 약탈하고 관량(官糧)을 노략하는 것은 백성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써 용서할 수 있다. 무기를 취하는 것은 즉 야심이 없는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바이다. 그들은 실로 경성 정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속에 가득 찬 불평을 품었다.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불평이 있었다. 어째서 편의적인 일시의 강화 때문에 오랫동안의 소원(素願)인 개남국왕(開南國王) 즉위의 큰 준비를 잊을 것인가.

샛길에서 경군(京軍)의 본영을 살피려 하다

1개월 뒤를 기약해 경성에서 재회할 약속을 하였다. 일행은 언제까지나 안락을 취하며 순창에 머물 수는 없었다. 이별한 다음 날 아침 출발하여 샛길을 통해 전주성으로 들어가 경군의 동정을 살피려 하였다. 샛길은 약 12리로 산이 험하고 물이 거칠다. 도로는 또 요철이 많고 게다가 한여름의 더위는 120도[60]에 이르렀다. 일행은 걷기가 곤란하였다. 어찌 단지 등애(鄧艾)가 촉(蜀)나라에 들어갈 때의 고생만 할 것이랴. 그렇지만 산촌과 물가의 마을 사이에 듬성듬성 탁주를 파는 집이 있어 일행은 잠시 술의 힘을 빌려 도보 여행을 재촉할 수 있었다. 약 7리를 걸어가니 날은 이미 황혼이 되었다. 그러나 길에서 아직 여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참외를 구해 갈증을 해소하고 용기를 북돋아 더 나아갔다. 밤기운이 망망한 가운데 아련히 몇 점의 등불을 발견하고 만세를 외쳤으나 갑자기 어려운 일에 방도가 필요해 다시 한 발자국을 나아갈 수 없었다. 일행은 이에 이르러 기진맥진하고 망연자실하고 헛되어 강변에 오래 멈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배 한 척이 건너편 강변으로부터 출발하여 강물에 휩쓸려 이쪽 강변에 도달하는 것이 보였다. 무리는 하늘의 도움이라며 놓칠 수 없다고 말하고 곧바로 나아가 선주를 붙잡아 일행을 태우고 억지로 건너편 강변으로 저어 가게 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그저 명을 받들었다. 그래서 강을 지나 맞은편 강안에 올랐더니 산간의 초가집에 겨우 마구간 하나가 있었다. 무리는 기뻐하며 여기에 들어가 식사 후 새벽에 이르기까지 쾌면하였다. 모기와 빈대의 공격을 알지 못했다.

60 120도 : 화씨 120도는 섭씨 48.8도이다.

다나카가 닭 머리를 잘라 촌민에게 유고(諭告)하다

다음 날 아침 마구간을 출발해 전주로(全州路)를 향해 가볍게 뛰었다. 오전에 한 오래된 역에 도착했다. 더위가 매우 심해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무리는 오랫동안 일본식 식사를 하지 않아 형색이 매우 초췌하다. 지금부터 강의 물고기를 잡아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의하였다. 무리는 모두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웃옷의 한 쪽을 묶어 이를 그물로 만들어 여러 명이 마을 끝의 작은 강에 들고 들어가 하류에 그물을 펼치고 상류에서 물고기를 몰았다. 뱀장어, 붕어 종류를 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무리는 기뻐하며 들고 돌아와 불을 피워 이것을 구웠다. 이때 다나카는 홀로 마을 어귀에 있으면서 촌민이 조금 전부터 소요를 일으켜 매우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보고 일부러 큰 칼을 뽑아 마을의 닭 머리를 베었다. 손에 휜 칼과 죽은 닭을 든 채로 오만하게 모인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 큰소리로 연설을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일본인의 무용(武勇)을 아는가. 겨우 14명이 동도 속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동도가 초목이 쓰러지듯이 굴종하였다.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 경군을 맞이해 싸웠더니 수만 명의 정예병이 앞다투어 패주했다. 일본인 앞에는 원래 적이 없다. 너희들이 이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함부로 일을 벌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너희들의 목은 날아가 이 닭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직 두려운 바를 모르는가."라고 하였다. 뱉어내는 목소리가 큰 종과 같았고 말하는 언사가 매우 장엄했다. 모인 백성은 이를 듣고 소름이 끼치고 위세에 눌려 다시 불온한 상황이 없게 되었다. 일행은 태연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각자 정원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잤다. 잠시 휴게를 하고 천천히 저녁의 서늘함이 오기를 기다렸다.

전주성의 철문을 부수다

전주성은 이제 2리라는 근거리에 있다. 일행은 반드시 오늘 밤 숙소를 성안에 정하여 경군의 최근 상황을 탐색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전주성은 실로 전라도 관군의 본거지이고 또 이곳은 1도 56주(州)의 관찰부이다. 이를 정예 무쌍한 강화병(江華兵)이 지켰고, 무기로는 이홍장이 보내준 신식 5연발 모젤총 5백 정이 있다. 그 방비가 견고하여 용이하게 침범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동도의 아군이 된 천우협의 적은 세력으로 무모하게 이에 임하려 하는 것은 거의 자신을 사지(死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천우협은 원래 사려가 깊은 선비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전주성의 허실과 관병의 가치는 일찍부터 대체로 연구한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위험한 지역을 밟고 적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에도 결코 혈로(血路)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특히 기세로 적을 패배시키는 술책에 능통하다. 태연자약하게 생사(生死)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굳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개문사(開門使)로서 파견된 도키자와, 오쿠보, 요시쿠라 세 명이 오늘 밤 어떻게 성문에 이르러 대담하게 관군과 응답을 시도할지를 보라.

적의 안내장을 들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다

도키자와 일행은 무리보다 먼저 개문(開門)을 위해 전주성으로 향했다. 날은 이미 황혼으로 일행은 전주성 밖의 강가에 도착했다. 물살이 급해 이를 건너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행은 길가 조선인의 등을 빌려

맞은편 강가에 도달했다. 그 상황은 거의 야지로베에(彌次郎兵衛)[61]가 오이강(大井川)을 건널 때의 기지(奇智)와 비슷하다. 앞쪽을 바라보니 저녁안개가 아직 창연(蒼然)하여 장려(壯麗)한 몇 개의 성루(城樓)를 그 안에 가두었다.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른 흔적을 볼 수 있는 파괴된 집과 무너진 벽은 길 좌우에 낭자하여 눈동자 가득 모두 황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행은 이 사이를 가볍게 걸어서 마침내 동문 아래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은 이미 엄히 잠겨 있고 많은 성병(城兵)이 문루에서 경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행은 큰소리로 불렀다. 그들은 곧바로 응답하며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았다. 일행이 말하기를, "너희는 문루에서 내려오라. 그런 뒤 우리들이 무슨 용무가 있는지를 알리겠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일행이 불과 세 명뿐임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문을 열고 잠시 뒤 외치며 말하기를, "근래 천하가 다난(多難)하고 이로 인해 밤이 되면 관찰영의 경비를 추가하는 것이 매번 이와 같다. 공명(公命)이 없다면 이를 열어 공들을 안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도키자와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원래 공문을 가지고 있다. 또 언어와 의복이 이미 이방인이므로 무슨 경계가 필요한가. 속히 문을 열 것을 청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상장(上將)이 천천히 부르며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험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만일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 수비하는 자는 죄가 삼족에 미칠 것이어서 매우 두렵다."라고 하

61 야지로베에(彌次郎兵衛) : 에도 시대 희곡 「東海道中膝栗毛」의 주인공으로 도카이도(東海道)를 따라 에도, 교토, 오사카를 여행하였다.

였다. 이에 성병이 다시 문을 잠그려 하였다. 일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해 돌진하여 문을 밀고 들어가 몸은 이미 횃불 옆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야단스럽고 시끄럽게 쓸데없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다.

도키자와는 곧 수장(守將)을 불러 조용히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송사마(宋司馬)의 안내장이 있다. 공(公)이 부관(府官)에게 이를 전송하여 급히 성안에서 우리 일행 14명의 여관을 정해 줄 것을 청한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뜻을 받아 안내장을 들고 갔다. 도키자와 등은 횃불 주변에 편안히 앉아서 그를 기다렸다. 약 반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회답을 가져오지 않았다. 도키자와 등은 계속 성병에게 재촉하였지만 회답은 여전히 없었다. 잠시 뒤 다나카, 우치다, 스즈키, 오하라의 후발대가 모두 도착했다. 그래서 도키자와가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성안의 우유부단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위력을 따지면 가장 좋겠지만 일을 말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행의 뜻이 점차 결정되어 반쯤 그 준비에 따르려 하였다. 이때 수장이 당황하며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공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지금부터 여관으로 동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고 자기 자신이 선두에 서서 먼저 나갔다. 일행은 미소를 지으며 역시 그 뒤를 따라가 마침내 서문 안의 큰 방에 이르러 이를 숙소로 정했다.

화기(禍機)가 점차 나타나다

다음 날 아침 요시쿠라는 부산으로 타전(打電)하기 위해 전보국에 갔

다. 전보국의 관리가 말하기를 전신이 불통이라고 하였다. 요시쿠라가 "무엇 때문에 불통인가."라고 물었더니 관리는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요시쿠라는 의중에 수상한 의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침묵하고 굳이 책망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 상황을 동지에게 알렸다.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하라는 홀로 나가온 성안의 형세를 정찰했다.

마부의 도망과 협도의 곤란과 재액

일행은 성안의 대체적인 상황을 탐색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출발 준비에 따라 또 마부를 불러 태마(駄馬)를 정돈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부는 어느 사이엔가 도망가 버려 이미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이 다시 마구간에 가 보았더니 태마도 역시 없었다. 일행은 심히 궁색해졌다. 대개 짐 안에 무기와 화약류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이를 운송할 사람이 없다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내로 나와 태마와 태우(駄牛)를 구하려 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나아가 짐꾼(인부)을 고용하려 했는데 역시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은밀히 일행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어젯밤 관찰사의 명이 있어 말하기를, 일본인의 고용에 응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중벌을 내릴 것이다. 또 우마(牛馬)를 기르는 자는 깊이 이를 은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일본인이 약탈할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시내에 소와 말이 없고 짐꾼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일행은 전에 성안에 침입할 때에 미리 위

험한 화(禍)가 신변에 몰려들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화는 또 반드시 칼과 창, 탄환에 의해 올 것으로 믿고 충분히 이에 대한 방비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관찰사는 운송기관을 빼앗는 비열한 수단을 취해 마침내 일행으로 하여금 걸을 수밖에 없는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행의 궁상(窮相)은 거의 포박당하지 않은 포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박당하지 않은 만큼 가슴속 번민은 역시 포로가 된 자의 그것보다도 컸다. 일행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부터 사경을 벗어나야 했다. 사태가 이미 종극에 이르자 도키자와 등은 다시 담판위원으로 선정되어 관찰영으로 향했다.

관찰영(觀察營)에서 크게 관리를 설득하다

도키자와와 요시쿠라가 선발되어 바로 관찰사영(觀察使營)으로 향했다. 영문(營門)은 다행히 열려 있었다. 도키자와 등은 유유하게 문으로 들어가 정면의 큰 전각에 오르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관찰사가 있는 곳이다. 도키자와 등은 차례로 계단을 다 올라가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관찰사는 없었다. 따라서 발길을 돌려 오른쪽 높은 전각을 향해 나아갔다. 이때 문위(門衛) 수십 명이 후방으로부터 급히 달려와 따라왔다. 제각각 외치며 말하기를, "낭적자(狼籍者)가 있다. 침입자가 있다. 때려죽여라, 때려 쫓아라."라고 하였다. 도키자와 등은 이를 돌아보지 않고 태연히 더욱 나아가 전각 위로 올라 여기에서 홀로 앉아 영무(營務)를 보고 있는 고관 한 명에 대해 바로 담판을 개시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귀국의 내지를 유람하는 데 있어 태

마 등의 요건에 관해 관가(官家)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의 풍문에 의하면 관가가 고의로 우리들의 출발을 방해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신속하게 여행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것은 본디 누구의 뜻인가. 바라건대 속히 태마를 발급하고 우리들이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관인은 언짢은 모습으로 잠시 있다가 말하기를, "당시 시내는 우마(牛馬)로 짐을 싣기에 편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전후의 사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이다. 공들에게 청컨대 책임을 오로지 관가에 돌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도키자와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은 실로 흠잡을 것이 없다. 우리들은 굳이 우마에 대해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시내에는 아직 짐차의 무리가 많은데 한 사람도 우리의 화물을 운반하기를 꺼려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에 이르러 답변이 궁해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문밖을 보았더니 문위(門衛), 수졸(守卒), 잡인배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전각을 에워싸고 "일본인을 때려죽여라."라고 계속 외치며 소동을 부려 말할 수 없었다. 도키자와는 형세가 도저히 불가한 점이 있다고 보고 처음의 뜻을 번복해 말하기를, "귀관에게 짐꾼 징발의 권한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바로 관찰사를 방문할 것이다. 관찰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답하여 말하기를, "정문 밖의 높은 집이 즉 그가 현재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도키자와는 그것이 거짓말로, 문밖으로 유인해 내보내려는 꾀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지금 이에 대해 구태여 논쟁하더라도 또는 위박(威迫)을 시도하더라도 무엇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대로 체면을 온전히 하고 조용히 돌아가 일단 상황을 동지에게 알리고, 다시 충분한 위력을 준비해 다시 찾아와서 관찰영이 두

려워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각을 나와 계단을 밟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잡인이 사방에서 이를 둘러싸고 계속 욕하는 것은 앞서와 같았다. 도키자와 등은 한 번 노려보고 유유히 그 사이를 서행하였더니 한 줄기 혈로(血路)가 갑자기 열리고 다시 방해를 가하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무기력함도 역시 심하다. 이미 정문을 나왔더니 수위가 허둥대며 곧바로 문을 엄히 잠궜다. 이때 마침 문창(門窓)에서 전면의 높은 집을 가리키며 조롱하며 말하는 자가 있었다. 말하기를, "관찰사가 저기에 있다. 더구나 그것은 30년 전의 옛 관찰사의 사당이다. 공들은 가서 절하라. 반드시 큰 영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크게 소리내서 웃었다.

다시 일어나 관찰사를 포로로 삼다

도키자와는 돌아와 동지에게 상황을 알렸다. 동지는 모두 분개하여 영문을 때려 부술 것을 주장하였다. 진격 준비를 크게 서둘러 이미 준비가 이루어졌다. 다나카, 우치다, 오하라 등 8~9명은 관(冠)을 찌를 기세로 노발하여 곧바로 영문을 향해 달려갔다. 일동은 마침내 문 앞에 이르렀다. 이때 마침 시점이 좋았다. 전에 숨어 있던 관찰사는 다시 일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지금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문을 통해 나왔다. 다나카, 우치다가 좌우로부터 접근해 곧바로 그가 탄 가마를 가로막았다. 이와 동시에 오하라, 스즈키는 호통을 쳐 가마꾼을 쫓아 버렸다. 다나카는 바로 관찰사를 향해 말했다. "공은 어찌하여 우리 무리를 이렇게 심하게 박해하는가."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우치다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위급 존망(存亡)한 때에 또한 많은 말을 할 필요 없다. 단지 발급한 공문을 얻으면 충분하다. 만약 불행하게 공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잠시 공의 몸을 포로로 삼아 공문을 대신할 것을 청한다."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이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즉시 관동(官童)을 영(營)으로 보내 인함(印函)을 가지고 오게 해 곧바로 인부 출급의 공문에 날인해 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같이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일동이 펼쳐 보고 좋다고 말하고 이를 받고 잠시 뒤 관찰사를 풀어 보내고 유유하게 객사로 돌아와 각기 만세를 연호했다. 적의 반응이 없는 것이 이같이 심하다. 용양호투(龍驤虎鬪)[62]의 대활극인 문을 부수는 시기(時機)는 언제나 올 것인가. 청하건대 다음번에 이르러 국면상 다시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양사(兩士) 문루(門樓)에 누워 적의 정세를 살피다

어젯밤 스즈키와 도키자와 두 사람은 숙소의 불결함과 빈대의 습격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침상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와 한밤중 중천(中天)의 밝은 달을 감상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서문 쪽으로 향했다. 우연히도 달빛에 비추어 전면을 바라보니 수위병이 삼삼오오 벽 위와 보루 아래를 돌아다니고 문 옆에는 횃불을 태웠다. 누각에는 나팔을 울려 경계가 엄해 조금의 허점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스즈키와

62 용양호투(龍驤虎鬪) : 용이 날뛰어 범과 싸운다는 뜻으로, 기개가 높고 위엄에 찬 태도를 말한다.

도키자와는 여기에서 서로 말하기를, “이곳에 솟아 있는 문루(門樓)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이 함께 점령하고 있어서[63] 한 번 바라보면 성안의 허실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때에 따라 좋은 침전(寢殿)이라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어지러운 때, 여기 대(臺)에 오르는 것이 어찌 불가할까.”라고 하였다. 서로 함께 문에 이르렀다. 수위장(守衛將)으로 보이는 자가 나와서 맞이하며 온 뜻을 물었다. 스즈키가 말하기를, “우리는 해외의 객(客)으로 귀국의 여관에서 자기에 매우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각 옆에 와서 보니 고국 건축의 풍(風)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실로 망향의 정을 참을 수 없는 바이다. 바라건대 오를 수 있는 특전을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수위장은 이것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풍류아객(風流雅客)은 좋다. 우리도 공과 함께 올라가 달 앞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자.”라고 하였다. 스즈키 등은 계획이 맞은 것을 기뻐하며 이에 따라 함께 계단에 올랐다. 누각에서 눈길을 정했더니 금강(錦江) 연안 일대의 평야였다. 밤연기가 아련한 가운데 달 아래 숨었다 나타나며 흐릿하게 넓어 끝이 없었다. 그 경치가 웅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속 회포를 열게 하는 것이 있었다. 나아가 머리를 돌려 동남쪽을 바라보았더니 만마관(萬馬關) 방면으로 오히려 횃불이 하늘에서 비춰주는 것과 같았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경군(京軍)이 이복룡(李福龍)에 대비하는 것이리라. 또 성안 관찰사영이 있는 곳에는 생황과 피리, 현악기와 북소리가 양양하게 터져 나왔다. 악공이 기생의 창가와 조화되어 곡조가 억양완급(抑揚急緩)하여 자주 대관이 연회를 즐기는

63 청풍명월(淸風明月)이……있어서 : 달빛이 밝아 성안이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모습이 넘치는 곳으로 천하의 소란은 상관하지 않는 기풍이 있었다. 스즈키 등은 좌우를 둘러보며 감개(感慨)가 자못 적지 않았다. 곧 수위장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성안의 크고 작은 제어 수단의 배치를 모두 살피고, 마침내는 누각 위에 몸을 눕힌 채로 조용히 잠이 들었다. 청풍명월 아래 밤기운이 피부에 파고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문의 수비병을 물리치고 돌파하다

관찰사의 한 장의 휴지 같은 공문을 받는다고 해서 협도에게 무슨 자랑할 일일 것인가. 그렇지만 일행이 고생한 것은 단지 짐꾼을 구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에 있다. 짐꾼을 구할 수 있다면 천군만마(千軍萬馬)가 사방에서 에워싸고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할 바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짐꾼 징발의 공문을 얻었다. 시내의 인부도 역시 이에 따라 마침내 편하게 일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어 일행은 곧 자유자재로 전주의 적성(敵城)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기회를 늦출 수 없어 일행은 오후 5시에 직접 서문 입구로부터 중청로(中淸路)로 향하려 하였다. 그런데 기괴한 일이다. 밤이 되어야 비로소 닫혀야 할 문이 언제부터인가 굳게 닫혀 수비병이 이를 지키고 있다. 기괴한 것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두 겨우 수십 명을 배치한 서문의 요로(要路)는 갑자기 수비병을 수백 명 추가해 문 아래, 누각 위, 벽, 거리 옆에 이르기까지 일대에 병사들로 메워져 있었다. 이어서 강화의 정병(精兵) 역시 모두 연발총을 들고 이곳에 모였다. 그것과 동시에 수비병은 모두 총 끝에 검을 장착하였다. 수비의 엄중함은 칼로 벽을 쌓으려는 듯한 형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로써 통로는 더 이상 개미가 기어나올 틈도 찾을 수 없었다. 협도들은 나아가 이곳에 이르자 조금 주저하는 바가 있었다. 대개적의 많은 세력을 관망하여 이를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미 근거리에 있어 단지 다른 무수한 소총의 연발 때문에 우리 목적이 방해받는 것을 신경 쓴 것이다. 또한 위험에 절박하자 아침부터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겨우 고용한 인부 무리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시민들의 소요를 다행으로 여겨 허점을 타서 도망칠 우려가 있다. 일행의 어려운 처지는 지금 극도로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져 있다. 그래서 다나카는 앞으로 나와 수비병에게 따지며 말하였다. "관찰사는 이미 한 번 우리 무리를 위해 인부의 징발을 승낙했다. 공들은 어째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우리 행로를 막는가." 수비병이 말하기를, "관찰사가 새로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문의 교통을 이같이 금하는 것이다. 오로지 공들을 위해 문을 열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문답이 끝나자 그들은 바로 부근에 있는 수백 명의 병사에게 호령해 급히 검을 장착한 총을 들고 수열(數列)의 사람 벽을 쌓게 했다. 엄중한 차단이 더욱 엄중하게 되었다. 이를 바라보니 사람과 검이 산림과 같이 서로 중첩되어 날개가 없다면 마침내 에워싼 것을 벗어날 수 없는 듯했다. 일행은 원래부터 전투를 하지 않고서 문을 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예상하고 있던 전기(戰機)가 도래했다. 일행은 온몸의 피가 갑자기 끓고 사지의 근육이 모두 움직여 다른 연발총의 위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대형을 정비해 다나카를 선봉에 두고, 짐을 나르는 인부를 중간에 끼워 넣어 도망을 막고, 우치다를 후미로 삼아 적중(敵中)에 조그만 틈이 생기기를 기다렸다. 아마도 당시 피아 간의 거리는 겨우 1~2칸(間)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도로의 폭 역

시 겨우 8~9척(尺), 지형 지리의 관계는 많은 수와 총기로 하여금 이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틈을 타 용맹하게 돌파한다면 전투는 반드시 협도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협도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사중구활(死中求活)의 술책은 이같이 대단하다. 겹겹이 에워싼 속에서 태연자약하게 적군과 대항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의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도 가벼이 볼 수 없다. 협도의 이 결심을 보자 다시 그 대형을 변화시켜 더욱 방어를 엄격히 해 악마나 귀신의 도움을 받더라도 용이하게 부술 수 없게 하려고 하였다. 아마도 적이 두려워한 것은 주로 협도의 폭탄에 있다. 이미 폭탄을 두려워한다면 스스로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열을 느슨하게 하여 길게 포위하는 진형(陣形)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계책이다. 그리고 지금 실로 이 방법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일리(一利)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해(一害)가 동반한다. 그들이 대형을 바꾸자 그 순간 병사들의 열이 극심하게 혼란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협도가 기다리고 있던 적을 찌를 허점이 되었다. 선봉인 다나카가 어찌 헛되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인가. 분연히 큰 칼의 칼집을 제거하고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 적의 총검을 물리치고 양발로 병사를 차 버려 순식간에 하나의 혈로(血路)를 열고 용맹하게 문을 향해 돌진했다. 스즈키, 요시쿠라 등도 모두 이를 따라 각기 양팔로 용맹을 휘두르며 적의 인마(人馬)와 검극(劍戟)을 물리치며 달렸다. 우치다가 최후에서 가로막는 자는 구슬을 던져서 공격하고 접근하는 자는 발로 차서 모두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그 동작이 거의 무인지경 같았다. 그런 뒤 예리한 눈으로 사방을 노려보며 태연하게 문 주변에 도달했다. 되돌아서 적병을 바라보니 도리어 잃어버린 총과

검이 길 위에 낭자하여 헤아릴 수 없었다. 14명의 호걸은 문 앞에 멈춰 서서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와 길옆 술집의 소주를 조금 마시고 마침내 삼례(參禮)를 향해 가볍게 달렸다.

아아, 이것이 천우(天佑)이다

이날 성안의 수비법은 엄중하여 서문루(西門樓)에서부터 부근의 보루 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병사를 배치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병사다운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두의 교전에서 조금은 패하더라도 협도가 성을 나와 멀리 달아날 때 배후에서 이를 저격할 수 있었다. 서문 밖은 일대가 논이고 일대가 평지이다. 한 번에 십 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세이며, 북쪽을 향해 통하는 길은 겨우 하나 있을 뿐이었다. 눈 아래가 매우 분명한데 어찌 한 명의 적이라도 그 탄환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길거리 전투가 벌어지자 보루에 있던 다수의 병사는 전전긍긍하여 바로 보루를 내려가 버렸다. 우연히 그곳에 잔류한 자는 전혀 장약(裝藥)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망연하게 양자의 전투 상황을 방관할 뿐이었다. 아, 이것은 정말로 협도에 대한 하늘의 도움이 아닌가. 하늘의 도움인가, 하늘의 도움인가. 하늘의 도움은 마침내 협도로 하여금 그와 같이 귀신도 삼사(三舍)를 피하지 않을 수 없는 호쾌한 활동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천우협 일행을 포로로 삼다

협도가 운반수단을 빼앗겨 전주성 안에서 곤란과 재액을 겪을 때 관찰사는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에 타전하여 말하기를, "당(當) 감영은 책모를 꾀하여 천우협 14명을 포로로 잡았다. 귀관은 속히 순사를 파견해 이를 인수해 갈 것을 청한다."라고 하였다. 영사는 갑자기 이 전신을 접하고 마음속으로 의심스러워하며 그들이 어찌 쉽게 조선인의 손에 잡혔을까 아마도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답전(答電)하며 말하기를, "협도를 생포한 노고에 매우 감사하는 바이다. 소관(小官)이 바로 병사를 파견해 인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관찰사는 이 답전을 받게 되자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아마도 당시 청군이 아산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만약 일본군을 전주로 들여보내면 어쩌면 조정의 견책을 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전보를 보내 말하기를, "우리가 보내기를 청한 것은 병사가 아니라 순사이다. 바라건대 지체 없이 순사를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영사가 다시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국약(國約)에서 규정하는 바를 보면 보통 행정상의 처치에 대해서는 귀관이 스스로 비도(匪徒)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사를 파견할 필요는 절대 없다. 만약 그 이상의 무력을 갖춘 자에게는 순사의 힘으로 능히 전치(傳致)할 수 없어 여기에는 군인을 보낼 필요가 있다. 감히 분명한 귀답(貴答)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러는 사이 관찰사는 세 번째 전보를 보내 말하기를, "협도 14명이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함부로 하며 전주성을 탈주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영사는 배를 잡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과연 선견지명이 있다. 관찰사가 말하는

생포란 도리어 환영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강을 앞에 두고 추적하는 기병을 막으려 하다

협도는 이미 전주성에서 절대적인 무용(武勇)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기고 나서 마음을 긴장하며 조심하는 것이 지자(智者)의 상정(常情)이다. 일행이 성에서 벗어나 5~6정(町)을 지나 서로 논의하여 말하기를, "우리 무리는 이미 무난하게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적의 세력이 매우 크다. 한 번의 시위를 통해 용이하게 그 예봉(銳鋒)을 완전히 꺾을 수 없다. 어쩌면 저들은 한밤중을 기다려 다시 추적하는 기병을 풀어 우리 무리가 곤히 자는 것을 습격할까 두렵다. 과연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쉽지 않은 중대한 일이다. 우리 무리는 오늘 저녁 멀리 달려가 심신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1리 정도를 가니 하나의 강이 있었다. 강의 반대편은 바로 작은 역이어서 일행은 그 역에 숙소를 정하였다. 식사 후 강변으로 나와 추적하는 기병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고 그런 뒤 숙소로 돌아와 각기 침상에 올랐다. 그런데 이날 밤, 빈대의 습격이 이전과 달리 매우 심해 한밤중에 고뇌를 외치는 자가 많았다. 마침내는 모두 방에서 도망쳐 정원 위에서 노숙하기에 이르렀다. 요시쿠라만 홀로 침상에서 태연하게 우렁찬 코고는 소리를 냈다. 일행은 이로부터 요시쿠라를 가리켜 불사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매우 무관심한 자였다.

삼례역(參禮驛)의 대회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충청도 길을 향해 출발했다. 길의 좌우는

유명한 전주의 넓은 들판으로, 산이 멀고 강이 길고 논이 열리고 콩밭이 이어져 천지가 매우 공활한 느낌이 든다. 이러는 사이 삼례 찰방(察訪)에 도착했다. 이곳은 나중에 전봉준이 패왕(霸王)의 단서를 열고 수만 명의 당군(黨軍)을 사방에서 초치(招致)해 남정(南征)의 계략을 결정한 곳이다. 그 형세가 웅대하고 각로(各路) 호령의 중심에 해당하여 천하의 형양(荊襄)[64]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 일행은 그 관아에 들어가 잠시 낮잠을 자려고 하였다. 관아는 대로의 왼편 버드나무가 울창한 높은 구릉 옆에 있었다. 관방(官房) 역시 굉장하여 거의 일본 옛 사원을 보는 것 같았다. 일행은 이미 건물로 들어갔지만 관인이 나와 맞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 방을 빌려 각자 그 자리를 정했다. 그런 뒤 먼저 회의를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 무리는 이미 수십 일을 여행하며 괴로움을 맛보고 또 여러 차례 전투를 거치며 와서 각자 피곤이 심하다. 그러므로 곧바로 무리를 만들어 경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길을 돌려 충청 제일의 영경(靈境)인 계룡산(鷄籠山)에 올라 잠시 농성하며 충분히 기를 보충하고 용맹을 키우자. 그리고 따로 서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 두세 명을 파견해 중원의 동정을 엿보게 한다면 시기에 늦어지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무리는 모두 이의가 없었고 이리하여 일동은 각 방으로 나뉘어 잠시 마음껏 휴면했다. 수면에서 이미 깨어나 밭에 가서 큰 참외를 따 와 각자 마구 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했다.

64 형양(荊襄) : 중국 호북성의 중심 도시 형주(荊州)와 회양(襄陽)의 약칭이다.

적의 첩자로 하여금 짐을 운반하게 하다

삼례 근처부터 두 명의 조선인이 일행을 쫓아오고 있었다. 무리는 그들이 반드시 첩자일 것이라고 여기고, 용감한 자가 시험삼아 이들을 규문(糾問)할 것을 주장했다. 연장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지금은 운반 인부가 부족한 때이다. 첩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우마(牛馬)의 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무리는 박수를 치며 묘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특히 십여 관목(貫目)의 무거운 짐을 첩자가 등에 지고 일행이 앞뒤로 그를 호위하여 직사광선이 매우 뜨거운 더운 날씨에 가볍게 달리게 했다. 첩자는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따랐지만 뺨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마 위에서 흐르는 땀보다도 많았다.

청군 장수 전주영에서 천우협을 괴롭히다

장차 여산현(嶸山縣)에 도착하려는 도중에 전주로 돌아가는 중국 병사와 만났다. 협도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나가 그를 참살(斬殺)하려고 하였다. 연장자가 말하기를, "외롭고 힘이 약한 자를 살육하는 것은 그만두어라. 오히려 이를 이용해 무엇 때문에 전주로 가려고 하는지를 규문(糾問)하여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아가 중국 병사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권면하는 목소리로 따지며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전주에 왔느냐?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곧바로 예리한 칼로 네 머리를 칠 것이다." 그는 전율하고 두려워 말하기를, "저는 상장(上將)을 따라 전주에 온 자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물어 말하기를, "상장은 무엇 때문에 전주에 왔느냐?"라고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최근

에 전라도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본인이 있다고 해서 상장이 섭(聶) 장군의 명을 받들어 전주로 들어가 관찰사와 함께 계획을 세워 이를 포획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협도는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일전에 위험한 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깜짝 놀라 정신이 없는 것도 잠시 곧 중국 병사를 풀어 주고 또 길을 서둘러 충청도로 달려갔다.

협도 청국 황제의 칙유를 벗겨 버리다

삼례 이북 4~5리 사이 가는 거리와 인접한 인가의 벽 도처에 중국 황제의 칙유 및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 청 장수 섭지초(葉志超)·섭사성(聶士成)의 유고(諭告)가 게시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게시에는 동도(東徒)에 대한 것과 인민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었다. 모두 문의(文意)가 매우 난폭하고 오만하여 조선을 자신의 속령으로 삼고 그 국주(國主)를 자신의 번왕(藩王)으로 삼아 스스로 대황제 또는 천병(天兵)이라는 좋은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보천솔토(普天率土)[65]에 중화(中華)가 아닌 곳은 없다고 뽐내어 말했다. 협도는 걸어가면서 이를 읽고 제국민(帝國民)[66]의 의사에 매우 반한다고 생각하여 벌컥 화를 내며 발견하는 대로 일일이 그 칙유와 유변(諭辯)을 벗겨 제거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 버렸다. 연도의 조선인이 이를 보고 망연(茫然)히 논수(論守)할 바를 알지 못했다.

65 보천솔토(普天率土) : 온 하늘의 아래와 온 땅의 끝이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이다.

66 제국민(帝國民) : 일본인을 가리킨다.

협도가 글을 남겨 현령을 깨우치다

협도가 이미 연도에 있는 칙유와 유고를 벗겨 제거하자 민심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일은 곧바로 여산현령(嶧山縣令)의 귀에 들어갔다. 현령은 놀라며 하급 관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속히 가서 칙유와 유고류를 되찾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청 안의 관리는 상하를 묻지 않고 모두 일족을 멸하는 엄형에 처할 것이다. 네가 만약 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면, 내가 먼저 죄를 물어 너의 목을 칠 것이다. 나가라, 속히 가서 명을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하급 관리는 즉하늘을 날듯이 협도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계속 애원하며 말하기를, "여러 호걸들. 바라건대 나에게 대국 황제, 북양대신[67]의 유고를 돌려달라. 그것은 바로 우리 수비병 수십백 명의 목숨이 달린 것이다. 만약 그것에 첨부된 조선 관청의 유달(諭達, 이것도 역시 협도가 떼어갔는데 그 내용은 청국에 대해 노예적 공순을 다하는 것이다.)이라면 여러 호걸이 가져가도 좋다. 단지 넓은 관인(寬仁)으로 우리들의 애원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협도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충정을 매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마음을 도저히 말로써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붓을 들어 사유를 적어 사인(使人)에게 주어 이를 들고 현아(縣衙)로 돌아가게 했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 현령 족하(足下). 만약 족하가 진정한 조선 사직의 신하라면 왜 이렇게 공손하게 호인(胡人)의 명을 받들려고 하는가. 아! 족하는

67 북양대신 :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을 가리킨다.

오로지 호인이 그들의 판도(版圖)가 아닌 기봉(箕封)[68]에 대해 유고를 발포하는 깊은 뜻을 모르는가. 이것은 실로 이리와 같이 탐내는 단서를 제시한 것이다. 만일 족하가 이것을 의심한다면 그의 사신인 원세개가 오랫동안 해 온 일거수일투족을 보라. 그는 오만하게도 대군주를 능압(凌壓)하고 흉포하게 온 서울의 장상(將相)을 어린아이처럼 보는바, 어찌 조선에 선의가 있는 자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족하의 지혜가 아직 이를 통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족하도 역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늘이 폭력적인 오랑캐를 미워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 무리는 이에 하늘의 뜻을 준봉(遵奉)하여 여기서 그 유시를 찢고, 조선을 공경하며 소중히 여긴 나머지 정이 격해져 이곳에 온 것이다. 만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모두 우리 무리에게 있고, 우리 무리는 기꺼이 그 죄를 받을 것이다. 족하는 어째서 이 일에 상관하는가. 하물며 족하의 부하 관리를 보냈는가. 만일 족하가 우리 무리가 말하는 바를 버리고 살펴보지 않고 굳이 사인(使人)에게 분함을 표시한다면 하늘이 머지않아 우리 무리를 보내어 족하의 머리에 죄를 물을 것이다. 족하는 이를 양찰(諒察)하라.

천협도(天俠徒) 일동 경구(敬具)

사인은 이 글을 수령했지만 마음속으로 매우 불안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울면서 유시를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이를 위유(慰諭)하

68 기봉(箕封) : 조선을 말한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였더니 그는 더욱 애원하고 마침내는 땅에 엎드려 통곡오열하여 매우 추하였다. 길거리 사람의 비웃음과 꾸짖음을 받아도 아직 여전히 추한 모습을 중지하지 않았다. 조선 관리의 어리석고 우둔함이 지금까지 대개 이와 같다.

상국대인행진선정비(上國大人行陣善政碑)를 부수다

은진현성(恩津縣城)에 가까워짐에 따라 길옆에 종종 나무비가 새로 세워진 것을 보았다. 비면(碑面)의 제목은 상국대인행진선정비(上國大人行陣善政碑)라고 되어 있었다. 제자(題字)의 양측 역시 시구(詩句)를 열거하고 계속 청국 장수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일전에 섭(葉)과 섭(聶) 두 장수가 기병을 데리고 전주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필시 지방관이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 인민을 독촉하여 특별히 이를 세우게 한 것이리라. 그런데 협도가 이를 보자 화가 나 외치며 말하기를, "조선의 병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무리는 먼저 그들의 이른바 상국에 욕을 가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각자 허리춤의 검을 빼어 이 비를 베어 버렸고 나아가 발을 들어 진흙 속에 짓밟아 버렸다. 현민(縣民)이 이를 바라보고 경악하면서 세 치 혀를 내둘렀다.

산사(山寺)를 방문해 대미륵불(大彌勒佛)을 매도하다

관촉사(灌燭寺)는 은진현(恩津縣) 반야산(盤若山) 위에 있다. 산 아래는 모두 막막한 논이다. 절의 뒤 정원에는 하나의 큰 석상이 안치되

어 있는데 그 불상은 미륵불로 조선 제일의 큰 불상이다. 길이는 5장(丈) 6척(尺)이고, 불상의 머리 위에 법관(法冠)을 썼는데 관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또 관의 전면에 3척(尺) 3촌(寸)의 관세음보살을 주조해 넣었다. 보살의 몸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석상의 미간(眉間)에는 지름 8촌의 황금별을 장치했다. 이 황금에 햇빛이 반사되는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1리 밖에서 이를 바라보면 백운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것 같다. 상 옆에는 고비(古碑)가 있어 석상 건립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불상은 고려왕조 때 공사를 명하여 건립했는데, 조각에 들인 연수가 37년에 걸친다고 한다. 이를 통해 평범한 작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절의 승려 역시 자신감이 있고 방문자에게 종종 연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불상은 과거 당나라 군대의 내습(來襲)을 막고 이를 압록강 속으로 섬멸하였다. 이후 국가의 변란이 있으면 반드시 불상의 온몸에서 땀이 나고 불상 손바닥에 있는 백연화가 그 색을 잃는다. 또 만약 천하가 태평할 때는 불신(佛身)이 탱탱하여 아름다운 색채를 띤다. 이것이 어찌 세계에서 비할 바 없는 영험한 불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요시쿠라는 이 영험한 불상을 찾아보기 위해 동지에게 길을 돌아갈 것을 제의했다. 그렇지만 동지는 모두 아침부터 무더운 열기에 피로를 느껴 함께 가자고 하는 자가 없었다. 오직 구사카만이 호기심에 끌려 승낙을 했을 뿐이다. 구사카 등은 황혼녘에 산에 올라 불상 아래에 서서 이를 응시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마당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다시 불상 옆으로 돌아와 발을 들어 불상을 차고 꾸짖는 소리로 말했다. "너의 몸은 길이가 5장 5척의 거구이고 그 얼굴을 보면 정말로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본원(本願)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기봉

(箕封)이 멸망하고 이씨의 종묘가 바야흐로 보존을 유지할 수 없다. 듣자하니 너는 과거 당나라 군대를 모조리 죽이고 하루아침에 국가의 위급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은 비망(非望)인가. 아산의 청군을 적멸(赤滅)함으로써 인도(人道)의 위급과 존망을 만회하지 않고 있다. 만약 네가 영험이 없다면 어째서 홀로 오만하게 여러 사람의 삼배구배(三拜九拜)[69]를 받을 수 있는가. 아! 천하에 쓸데없는 큰 물건이다. 너에게 허물은 없다. 너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무엇을 느낄 것인가."라고 말했다. 비난하고 성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거의 미친 사람 같았다. 반백(半白)의 절 승려가 건물 끝에서 이를 바라보고 기가 막혔으나 제지할 방도를 알지 못했다.

새 다리에서 밤에 숙박하며 익살극으로 밤을 지새우다

14명의 영웅은 새 다리〔新橋〕 마을 끝에 숙소를 정했다. 그러나 각 방 안이 매우 불결해 강변에 돗자리를 깔고 촌에서 탁주를 거두어 모아 전후 오랜만의 밤 연회를 열었다. 밝은 달이 하늘에 있고 맑은 물이 눈 아래에서 흐른다. 거리 노래는 조용하고 다듬이 소리는 쓸쓸하고 밤안개가 망망(茫茫)하여 가을 색을 그리는 것 같았다. 일행은 이에 대해 심기가 슬프고 참혹했다. 취한 구사카가 늘상 하듯이 검을 뽑아 들고 일어나 호아곡(胡兒曲)을 추려 했다. 다나카가 이를 제지하며 말하기를, "잠시 기다려라. 오늘 밤의 풍색(風色)이 어두워 자못 망향

69 삼배구배(三拜九拜) : 삼배의 예와 구배의 예를 갖추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의 감정을 참을 수 없음을 느낀다. 그런데 지금 비장한 옛 시를 읊어서 다시 그 정을 깊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바이다. 만약 지금부터 익살극〔차반(茶番)〕의 농담을 연기하여 각자 충분히 낮의 울적한 마음을 없애고 또 사지에서 몇 차례의 생환(生還)을 축하하자."라고 하였다. 무리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각자 지혜를 다해 일본과 중국, 동서양의 갖가지 익살을 생각해 냈다. 그런 뒤 재주가 있고 없는 자가 뒤섞여 계속 몇 번의 희극을 연기했다. 이로부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추며 밤을 샜다. 일행은 낮부터의 피로를 다시 말하는 자가 없고, 다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몸이 유랑하는 것을 느끼는 자가 없고, 나아가 자신의 큰 공명심의 희생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불편함을 회고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가무(歌舞)에 지쳐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남아 있는 달에 이슬이 맺혀 사람의 소매를 적시고 새벽바람이 얼굴에 부딪혀 상쾌했다.

130도의 타는 듯이 뜨거운 지옥을 달리다

다음 날 아침부터 더운 기운이 찌는 듯했다. 지나는 곳의 녹음이 햇빛을 차단하지 못했다. 앞과 뒤의 갈 길을 둘러보면 붉은색의 황야로, 물로 보이는 것은 썩은 물과 흙탕물뿐이었다. 이리하여 일행은 갈증을 호소하는 것이 심했다. 그래서 길옆의 민가에 들어가 물을 청하면, 주는 것은 냄새가 풀풀 났다.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뜨거나 가라앉아 있어 쉽게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문밖으로 나가 온도계를 재 보았더니 공기열의 온도는 이미 130도[70]를 넘었다. 일행은 서로 돌아보며 슬퍼하는 자가 많았다. 이러는 사이 또

나아가 점차 경천역(敬天驛)에 근접하였다. 더위가 더욱 맹렬해져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마비되고 근육이 문드러지고 뼈가 물러지고 발바닥 역시 지열 때문에 짓물러져서 끝내 계속 걸어 나갈 수 없었다. 대개 일행이 밟는 것은 조선의 신으로 그 질이 매우 튼튼한 짚신이지만 모래 열기는 사정없이 지면으로부터 침투하여 다리를 들 때마다 한 발자국씩 더욱 불이 속으로 침입하는 느낌이었다. 여기에서 일행은 모두 발을 빼는 보법(步法)을 취해 가볍게 뛰면서 잠시 뒤 경천(敬天)에 도착하여 겨우 무리가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방 안의 더운 열기는 아직 많아 문밖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14명이 벌거벗고 각자 식탁을 마주했더니 수많은 날파리가 또 일시에 밥 위로 모여들어 마침내 파리와 밥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계룡산의 농성

협도는 마침내 일시 휴안소(休安所)로 예정한 계룡산 아래에 도착했다. 산은 천하의 요해지로 명승지이다. 대원군이 말하는 왕의 기운이 비등하여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일행은 계곡을 따라 산에 올라 부서진 다리를 통과하고 절벽을 일주(逸走)하고 바위 위를 뛰고 나무뿌리를 기어올라 마침내 중턱에 있는 신원사(新元寺)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로써 마침내 농성할 곳을 정했다. 절은 산중의 거찰(巨刹)로 사면에 녹음이 울창하고 푸른 연못이 주위에 흐르고 일대의 장벽이 에워싸고 있었다. 여기에 동문(洞門)이 솟아 있고 동(洞)에

70 130도 : 화씨 130는 섭씨 54.4도이다.

들어가면 넓은 정원이 있다. 정원이 끝나는 곳에 대웅전이 있고 두세 개의 불당과 승방이 늘어서 있어 모두 고색이 창연하다. 그리고 한 동(洞)에서는 새소리가 적막하고 호랑이 소리가 처량하다. 범종 소리가 섞여 오로지 지경(地境)이 유한(幽閒)함을 증명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나아가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서로 흔들어 비추고 이어지는 봉우리가 하늘에 솟아 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호남, 호서의 여러 성읍(城邑)이 점점이 산재해 있어 매우 가깝게 있는 것 같다. 산속의 여러 계곡 모두 목욕하고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협도는 못을 구부려 침을 만들어 계곡으로 내려가 한나절에 잉어와 뱀장어 등을 수십 마리 잡았다. 산 위에는 등운암(騰雲菴)이 있어 도사, 태평도인이 이곳에서 십 년 묵언수행을 행했다. 동도가 난을 일으키자 마침내 표연히 속세를 떠나 산중을 향하였다. 절의 지주는 성이 김(金)이라고 한다. 장발에 통통한 얼굴로 비만이어서 체구가 크다. 직책으로는 충청 승병의 도호군(都護軍)으로 있으며 칙지(勅旨)로서 서울에 출입하는 특허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오만한 폐(弊)가 있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심하였다. 협도가 이곳에 농거(籠居)하고부터 먹는 것은 날마다 호박을 소금물에 절인 것뿐이었다. 몸은 거의 귀뚜라미와 비슷하고 전과 같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구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외모는 뼈가 튀어나오고 정신이 고달프고 날이 지남에 따라 상경하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짐을 느꼈다. 아마 이 역시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것이다.

호남감사[71]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다

협도가 신원사에 도착한 후 며칠이 지나 늙은 관리가 여러 명의 동복(童僕)을 데리고 황혼 무렵 불의에 일행을 찾아왔다. 그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 건물에 올라 서서히 찾아온 뜻을 말하였다. "비관(鄙官)은 공주의 폐리(廢吏)로 관찰사의 명을 받들어 특히 여러 호걸(豪傑)을 만나러 온 것이다. 지금 여러 호걸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타향객지 여행에 종사해 어쩌면 그 심신이 매우 괴롭고 고달프며 침식 모두 편하지 않았을 것을 걱정한다. 하물며 산속의 낡은 방에 좋은 채소와 안주가 없어 이에 이르러 누구라도 능히 수척해짐을 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관찰사는 여러 호걸의 우울함을 살피고 불경의 죄를 돌아볼 여유 없이 비관으로 하여금 마을의 술 한 항아리, 소 다리살 10근을 바치게 했다. 가벼이 받아서 기운을 보양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시작하는 말이 매우 근엄하고 정중하였다. 협도 역시 오랜만에 진미를 얻은 것에 기뻐서 사자에게 두텁게 인사를 하고 간담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아마도 관찰사가 이와 같은 처치를 한 까닭은 최근 협도가 전주에서 무적의 대약진한 것을 전해 듣고 쉬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즉,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관내에서 평온한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바라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 통치 수단이 부족한 것은 전주의 감사와 어느 쪽을 선택할 곳이 없다.

71 호남감사 : 원문에는 '호면감사(湖面監司)'로 되어 있다.

한밤중에 단상(壇上)에서 영웅의 뜻을 말하다

이제는 좋은 안주가 있고 좋은 술이 있다. 그러므로 많이 마시고 먹기에 충분하다. 며칠 동안 오이뿐인 채소로 고생하여 얼굴에 푸성귀 색을 띠게 된 협도는 기쁘게 술과 안주를 가지고 한밤중에 바로 사동(寺洞) 옆에 있는 중악단(中嶽壇)으로 달려갔다. 중악단은 민비(閔妃)가 기도하는 곳으로 계룡산신(雞籠山神)을 제사 지내고, 신원사의 승려가 이를 관장하는 천하 유수의 영장(靈場)이다. 그 건축물이 장대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견실하고 아담하고 곱다. 방들 또한 매우 깨끗하고 향연(饗宴)의 설비에 매우 적합하다. 그래서 협도는 돌계단을 통해 올라가 그 문을 열고 바로 나아가 중단(中壇)의 큰 건물로 들어가 여기에 자리를 정하고 술과 안주를 늘어놓고 마시고 또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가 점차로 절정에 접어들자 협도는 모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거의 벌게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때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무리에게 꾀를 내어 말하는 자가 있었다. 말하기를, "우리 무리는 이미 동도와 연맹하였다. 지금은 천하의 일이 먼저 이미 정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 조선이 죽고 사는 것은 이리하여 완전히 우리 무리의 손안에 통제되는 것이다. 이미 그 죽고 사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면 우리 무리는 지금부터 다시 조선에 의거해 천하를 제어하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 독립은 우리 무리의 일시적 수단이며 천하 평정은 우리 무리 다년간의 숙망(宿望)이기 때문이다. 즉, 이 좋은 날 밤에 산신사(山神祠)에서 함께 크게 뜻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가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무리는 모두 이에 찬성했다. 여기에서 다나카는 천천히 손안의 큰 잔을 기울이고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우리 무리가 이미 조선을 정하였다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반드

시 다가올 형세이다. 내가 바라건대 이때에 이르러 즉각 일본에 원병을 구하고 일한 양군이 함께 압록강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나아가 요동(遼東) 들판을 석권하고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간다. 그런 뒤 남정(南征), 북벌(北伐)하여 4백 주(州)를 유린하고 4억만 명의 창생(蒼生)에게 호령하고 이에 동아 삼국의 연합을 완성함으로써 세계의 자웅을 다툴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즈키가 기침을 한 번 하고 서서히 자리에서 나아가 말하기를, "경(卿)이 기약하는 바도 역시 매우 좋다. 단지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일본과 조선이 앞으로 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 영국이 무역상의 관계로부터 자주 중국과 약조하여 일한연합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에 임하여 구미를 유세하는 조선 특파 전권대신이 되어 열국(列國)과 외교 담판의 자리에 서서 크게 절충의 기술을 펼침으로써 흥아(興亞)의 숙지(宿志)를 완성하는 데 노력하고 또 동학당 정부의 의탁에 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우치다가 말하기를, "나는 영국보다도 오히려 러시아의 남하 기세 사이에서 순치(馴致)할 것을 우려한다. 저 러시아는 다년간 침략정책을 견수(堅守)하고 점차로 철기(鐵騎)를 흑룡강 강변으로 보내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돌연 만몽(滿蒙) 사이에 봉화를 올리려 한다. 그 무분별한 완력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도저히 영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생각하건대 동방 백 년의 깊은 우려는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학 정부가 반도에 수립되기를 기다려 러시아로 가 유람하겠다. 그리고 그 상하의 관계, 각 인종의 감정을 연구하고 그 진보분자와 사귀어 안팎으로부터 혁명을 유도하고 일으키는 데 노력하겠다. 한편으로는 일, 청, 한의 사민(士民)에게 유세하여 시베리아 이주를 권유함으로써 생산적·실력적으로 러

시아의 세력을 동방에서 구축하고 이를 우랄산맥 이서(以西)로 봉쇄할 것을 기약한다."라고 하였다. 오하라가 말하기를, "나는 동아 발흥의 큰 책략으로 오히려 일본의 발판부터 견고히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조선의 독립을 옹호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완, 필리핀의 경략(經略)에 종사하고 그리하여 태평양 통제의 형세를 만들어 자연히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 조선, 태국, 인도 대륙 일대의 땅을 후견하는 지위에 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같이 한다면 나라를 태산(泰山)의 평안함에 두고 또 천하에 도(道)를 행하기에 충분하다. 정말로 일거양득이고 만전(萬全)의 방책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케다가 말하기를, "팔도의 풍운이 이미 걷혀 햇빛이 다시 청명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시 나무 밑, 돌 위의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천하에 도덕을 선포하고 현재 기계적 문명의 폐해를 천명하여 인류를 반드시 영성(靈性)이 있는 인류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사키가 말하기를, "조선, 중국 대륙 일대의 국풍은 그 왕조를 근저로부터 전복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진의를 온전히 하고 또 민심을 일신하여 개진의 내실을 거둘 수 없다. 나는 바라건대 조선의 일을 마치고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 양호(兩湖),[72] 양광(兩廣)[73]의 호걸을 회합함으로써 다시 태평천국의 기치를 휘날리고 호인(胡人)을 명북(冥北)으로 쫓아내 이에 우역(禹域)의 회복을 완수하고, 이어서 태국으로 건너가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74]의 옛 시도를 이어서 프랑스인을 코친차이나

72 양호(兩湖) : 중국 호북성(湖北省)과 호남성(湖南省)을 말한다.

73 양광(兩廣) : 중국 광동성(廣東省)과 광서성(廣西省)을 말한다.

〔交趾支那〕로부터 물리치고 다시 인도로 건너가 국민동맹의 대업에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바가 말하기를, "나는 별로 바라는 바가 없다. 그렇지만 제군이 항상 나를 구햐쿠(九百)[75]라고 부르며 조롱한다. 그 뜻은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인(仙人, 선(仙)은 천(千)과 통한다.)이 되기에는 백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 내 뜻하는 바는 말하지 않더라도 알 것이다. 단지 싸움이 있는 곳, 이것이 내가 향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구사카가 말하기를, "제군은 이미 동학당과 꾀해 한 차례 조선에서 의병을 일으켜 나아가 훗날 국제적 교전을 기도하여 천하의 평화를 교란할 것을 뜻한 바 있다. 그 뜻은 좋은 것이지만 폭력적 상황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법에 비유하면 바로 국사범(國事犯)이 기수죄와 미수죄를 함께 일으킨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청하건대 훗날 재판관이 되어 반드시 제군을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동은 이를 듣고 모두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다. 요시쿠라, 시라미즈, 오쿠보, 도키자와, 이노우에, 니시와키 등은 취한 눈이 몽롱하여 반쯤 깨고 반쯤 잠든 상태여서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다나카 이하 역시 마침내 앞뒤를 알지 못하고 단(壇) 위에 취해 쓰러져 코고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

천우협(天佑俠)은 다년간 조선 혁명을 행하기 위해 풍와노숙(風臥露宿)[76]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동학당과 연합의 길을 열었다.

74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 : 에도 시대 전기 샴(현재의 태국)의 일본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75 구햐쿠(九百) : 어리석은 자를 비웃는 말이다.

그리하여 호남 56주(州)에서 매우 장쾌한 시도를 한 뒤 마침내 한 차례 동학당의 수령 전봉준과 결별하고, 팔도 제일의 영장(靈場)인 계룡산 속의 한 옛 사찰을 방문해 잠시 이곳에서 농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즉, 천우협이 천우협의 본색을 온전히 하고 협도가 함께 모든 일에 협동적 태도를 취해 반도의 천하를 횡행하고 활보한 바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후 혹은 우치다 급선봉이 단신으로 경천역(敬天驛)에서 5백 명의 조선인을 상대로 용맹하게 격투를 시도하고 구사일생하여 겨우 몸을 탈출한 일, 혹은 요시쿠라와 오사키가 백주 대낮에 일본 옷을 입은 채로 태연자약하게 성환(成歡) 칠원(七原) 소사장(素沙場)의 중국 진영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운 일, 혹은 동지 여러 명이 안성에서 중국군을 모조리 없애는 대회의를 연 일, 스즈키와 오하라가 헛되이 강원도에서 중국군을 추격하여 물리친 일, 혹은 다나카와 치바가 평양 중화에서 우리 육군을 위해 대모험을 시도한 일 등, 그 담력과 용기가 있는 전략〔膽勇武略〕 가운데 천하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개개인이 일시적 기운에 따라 즐거움을 탐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천우협 당초의 목적에서 본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본편은 먼저 계룡산의 농성에서 붓을 멈추고 다시 훗날을 기다려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하려고 한다.

천우협(天佑俠) 종(終)

76 풍와노숙(風臥露宿) :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잔다는 것으로, 매우 고생하며 지냈음을 말한다.

남정여록

南征餘錄

우미우라 아쓰야

海浦篤彌

일행이 청주에 도착해 객사(客舍)에 들어갔다. 무사히 도착해 작은 연회를 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샀다. 한인들이 요리 방법을 구경하려고 정원에 무리지어 모였다. 곤도(近藤) 군이 왼손에 닭을 잡고 오른손에 2촌 크기의 작은 칼(메스)을 쥐고 마루로 나와 착착 칼을 사용해 순식간에 뼈와 살을 분리했다. 손가락 하나 더럽히지 않고 선 자리에서 갈기갈기 잘랐다. 구경꾼은 단지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뜰 뿐이었다. 이미 냄비에 물이 끓어 고기와 뼈를 넣고 소금 약간을 넣어 스프를 만들었다. 이어서 약통에서 알콜병을 꺼내 뜨거운 물에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세 명이 서로 마주하며 기분 좋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이상한 듯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며 속삭이는 모습을 보고 뜻하지 않게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지난해 폭도의 발생지인 보은으로 들어가 동학 선생의 소식을 물어보았으나 후환을 두려워해서인지 읍민 모두가 모른다고 답했다. 나는 하나의 방책을 생각해 내어 거짓으로 우리들 또한 일본의 도사(道士)라고 알렸다. 그 자리에 있던 노인 한 명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동학을 수련하는 자 가운데 하루에 천 리를 뛰는 자가 있고 혹은 입안으로 뜨거운 쇠를 삼키고 뱉는 자가 있다. 그 기술이 기이하여 그 변화를 정말로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대들이 일본의 도사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신기한 기술을 닦아서 얻었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기술을 보여 주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계속 청하였다. 아마도 우리들이 정말로 도사인지를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를, "우리나라 도술은 도(道)는 천지간에 통하여 형상 없는 것에까지 이르고 생각은 풍운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얻어

지는 것이다〔道通天地有形外思入風雲變態中〕. 산을 뽑아 바다로 옮기고, 눈은 천년 뒤를 보고, 귀는 만 리 밖의 것을 듣는다. 신묘한 변화가 자유자재여서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천 리를 달리거나 입안에 뜨거운 철을 넣는 일이 어찌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함부로 이를 행하고 장난으로 이를 행함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시험삼아 잔에 있는 냉수를 끓게 하여 바로 짠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였다. 즉, 몰래 비등산(沸騰散)[1]을 손에 쥐고 입속으로 주문을 외치며 사발을 흔들었더니 순식간에 끓어 곧바로 짠물이 되자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곧도 군 역시 설탕과 식염을 손에 쥐고 좌우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였다. 단것과 짠것이 갑자기 변하여 설탕을 맛본 자는 얼굴에 희색이 넘치고 소금을 맛본 자는 소리를 지르며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묘기를 상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니, 어찌 실소를 금할 수 있으랴.

◆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 산 능선이 중첩되고 계곡이 어지러이 만나는 가난하고 쓸쓸한 마을의 고요한 집에 닭과 개 소리는 들리지 않고 들풀이 어지럽게 자란 길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었다. 우연히 산중의 한 농가에서 휴식했다. 집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우리들을 응시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하였다. 야마가타(山縣) 씨가 바로 일본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또 서로 바라보고 의아해하며 "일본이란 어디에 있는 나라이냐?"고 물었다. 우리들

1 비등산(沸騰散) : 탄산수소나트륨과 주석산을 물에 녹인 것으로, 물에 넣으면 끓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거품이 생긴다.

은 미소를 지으며 알려 주기를 "너희들이 이른바 왜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곧 일본인"이라고 말하였다. 무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 노파가 급하게 다가와 앞에 있는 우리들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였다. "우리가 듣기에 왜놈은 품성이 영악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여 맹수와 독사보다 더하다고 한다. 지금 그대들을 보건대 이목구비가 청수(淸秀)하고 손가락이 윤택하다. 그 풍모가 온화하며 행동거지가 중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연령은 몇 살이고 부모님은 건재하냐, 형제는 몇 명이고 자녀는 몇 명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설탕을 조금 주었더니 노파가 말하기를, "이것은 소금이냐?"라고 하였다. 내가 먼저 맛을 핥아먹어 보았더니 그도 그것을 보고 조금 맛보고 뒷사람을 보며 희색이 얼굴에 넘쳤다. 모여 있는 사람을 불러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무리는 모두 크게 기뻐했다. 나는 조용히 노파에게 물어보았다. "술을 파는 집은 없는가?" 노파가 말하기를 "있다."라고 하고 기뻐하며 사라졌다. 조금 지나서 사발 세 개와 젓갈 한 접시를 올린 육각형 상을 우리에게 권하며 자신들이 빚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서 단번에 다 마셨는데 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노파가 달려와 또 한 사발을 권하였다. 곤도와 야마가타 두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달콤한 탁주로 어찌 이같이 깊은 맛이 날까. 아마도 산간의 지수(地水)가 청렬(淸洌)하고 쌀 또한 깨끗하고 뒤로는 산을 지고 있고 앞으로는 계곡물이 있다. 숲의 나무가 자연히 풍진(風塵)을 피하고 사람들이 모두 고색(古色)을 띤다. 하물며 우리들은 몸소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고생을 하고 삼복의 무더위에 지쳤다. 입맛을 다셨는데 어찌 갈증 뒤의 물에 비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가격을 물

어보았더니 필요 없다고 하였다. 나는 한전(韓錢) 수십 문(文)을 던져 주었다. 노파가 말하기를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전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나는 흥에 겨워 은화 세 개를 꺼내 보여 주며, "어찌 이것이 같은가. 조선은 세계에서도 가난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청동 동전을 받고 모두 의기양양해한다. 우리나라의 통화는 즉 금과 은일 뿐이다. 다가와 잘 보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노파가 다시 감사 인사를 하며 한전 수십 문으로 이 은화 한 개와 바꾸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뜻밖의 말에 질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 옥천에서 몇 리 떨어진 한 촌락을 지나 잠시 마을 근처의 한 절 입구에서 휴식을 취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달려와 우리들을 둘러싸고 말하기를, "너희 세 명이 허리에 차고 있는 도검은 사람을 능히 벨 수 있느냐?"고 하였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하였더니 냉소 조롱하며 깔보고 욕하는 소리가 어지러이 들렸다. 갑자기 한 건장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대들이 차고 있는 칼은 잘 드느냐? 이 곤봉을 잘라서 그 정도를 보여 달라."라고 청하였다. 나는 꾸짖으며 말하기를, "앉으라. 한 번 칼을 휘두르면 너의 목을 베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시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목을 움츠리며 황급히 군중 뒤로 몸을 숨겼다. 또 한 명의 건장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대들은 저자를 용서해 달라. 우리들은 아직 일본도를 본 적이 없다. 칼집을 풀어 속에 있는 칼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곤도 군이 일어나 큰소리로 외치며 "군중은 나와서 내 앞으로 다가와라. 너희들을 위해 일본도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무리가 모두 나왔다. 곤도 군이 옷을 걷어 올리고 소매를 접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

아 3척 크기의 장검을 뽑아 한 번 휘둘렀다. 무리가 휘둥그레지고 놀라서 뛰어 도망쳤다. 장검은 이미 칼집 속으로 들어가 이를 잘 본 자는 없다. 서로 쳐다보며 여러 번 비명을 질렀다. 그러는 사이에 곤도 군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너희들 모두 다가와 나와 대적하라. 나 혼자서 능히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라며 큰 손을 벌리며 걸어갔다. 그들은 질주하며 멀리 도망갔고 마침내 접근하지 않았다.

◆ 진산(珍山). 높은 산 가운데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고 도로가 험악해 오르고 내리는 데 몸이 매우 피곤했다. 석양이 이미 떨어지고 사람은 몽롱 모호한 가운데 소걸음을 했다. 우연히 산간에 한 초가집이 있었다. 벽면은 떨어지고 집이 낡고 누추해 말할 수가 없었다. 여보(輿暮)를 계속 외쳐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였다. 노파가 나와서 우리의 행장을 자세히 보고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어 굳게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 숙박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여러 번 말을 걸어 그를 달래려고 하였지만 노파는 완강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하나의 계책을 생각해서 이른바 집사람의 병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복통이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에게 영험한 약이 있는데 우리들을 숙박시켜 주면 바로 이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파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간 뒤 잠시 뒤에 다시 나와 들어와서 숙박하라고 말했다. 아직 여장(旅裝)을 풀기 전에 노파는 계속 약을 재촉하였다. 곤도 군이 모르핀 약을 주자 한 번에 복용하였다. 식사를 달라고 청하였으나 노파는 쌀이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계란을 구할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술집은 3리, 두부집은 5리 정도 떨어져 있어 어찌 가서 구하겠느냐고 하였다. 이

를 예상하여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 내가 앞서 집에 들어올 때 우연히 닭 몇 마리를 키우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계란이 없겠는가. 방책을 세워 주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노파는 눈에 질환이 있었다. 내가 조용히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고 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한 종지의 간장과 한 그릇 밥을 준다면 안질과 복통을 금방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파는 조금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주방에 어쩌면 남은 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잠시 이를 찾아보고 오겠다."라고 하였다. 등불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기름이 없어 곧도 군이 고약을 녹여 기름을 대신했다. 노파가 이를 보고 놀라 기이하다고 했다. 잠시 뒤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와 감사해하며 말하기를, "나는 눈에 질환이 있어 영감(令監)들을 보통 길거리의 사람으로 간주했다. 죄를 심하게 졌다. 우리 집 할아버지가 앞서 받은 약을 복용하고 복통이 금방 나아 기쁘기 그지없다. 나를 위해 눈약을 조금 달라."라고 청하였다. 나는 계란을 약간 사 온다면 이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우물쭈물하며 말하기를, "계란 3개가 있으므로 당장의 요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역시 우리들에게 주었다.

동학당시찰일기

東學黨視察日記

우미우라 아쓰야

海浦篤彌

궁하면 변한다. 천하의 사물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만약 그 때가 도래한 기운이 무르익으면 개미구멍이더라도 또한 큰 제방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마침내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진오(陳吳)[1]가 한 번 외쳐 진(秦)나라에 변란이 이어져 망하게 된 까닭이다. 어찌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되돌아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로는 기강이 문란하고 아래로는 민심이 이반되어 적쇠(積衰), 적망(積亡)의 기운이 이미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동학도〔道徒〕[2]가 고부(古阜) 지방에서 한 차례 의(義)를 외치자 조야(朝野)가 이 때문에 허둥지둥대며 낭패(狼狽)하여, 갑자기 청나라 군대가 오고 갑자기 일본 군대가 이르러 기세가 한 차례 움직이자 장차 팔도의 산하가 화약 연기와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알 속에 매몰되어 버리려 한다. 이때에 이르러 동학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 동학도의 동정을 어찌 소홀〔忽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며 동학도 시찰의 임무를 받아 굳이 거절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현재 동학도가 물러나 숨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충청도 청주, 보은 지방은 예부터 동학도가 무리를 지어 있어 일단 이곳에 가 보면 동학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전라도의 동서남북을 종횡한다면 어쩌면 동학도의 소식을 잘 파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려면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즉, 여비의

1 진오(陳吳) : 진(秦)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동학도 : 원문에는 '道徒'로 되어 있으나, 이하 '동학도'로 번역하였다.

결핍, 도중의 질병, 의외의 재난이 그것이다. 내 친구 곤도 겐키치(近藤賢吉) 군은 의사이자 또 검객이다. 이것이 내가 의중을 말하고 억지로 그를 동행하게 한 까닭이다. 야마가타 이노스케(山縣猪之助) 씨는 오랫동안 곤도 군의 약국에 있었고 약간의 조선어를 할 줄 안다. 한편으로 약제의 조제를 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선(寒暄)[3]의 통역을 시키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갔다.

7월 5일[4]

새벽에 약상자를 말에 싣고 도검을 어깨에 멘 채 3명이 함께 한성을 출발했다.[5] 11시 40분 과천현에 도착했다. 과천을 떠나 반 리쯤 지났을 때 청국 사람 4명이 말을 타고 왔는데, 2명은 총과 칼 두 자루를 휴대했다. 아마도 아산영(牙山營)으로부터 사명을 띠고 한성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오후 1시 40분 과천을 출발해 5시 30분 수원부에 도착해 객사에 투숙했다.

6일

아침 6시 30분 수원을 출발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본 기병 6명과 마주쳤다. 하루 전 칠원(七原)에서 왔다고 하였다. 이어서 청군의 소재지를 물었더니 천안에 있다는 설이 있지만 아직 믿을 수 없

3 한선(寒暄) : 일기(日氣)의 춥고 더움을 묻는 인사(人事)라는 뜻이다.

4 7월 5일 : 1894년 7월 5일이다.

5 새벽에……출발했다 : 와다 세이슈(和田正修), 나라 사키하치로(奈良崎八郎), 사쿠라바 게이이(櫻庭經緯), 마스마에 다메스케(松田爲助) 등 여러 명의 일본인이 송별하였다고 한다.

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청군이 상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각하건대 척후라는 자가 이와 같이 해도 좋은 것인가. 칠원과 천안은 그리 멀지 않다. 더구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귀환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 나는 속으로 당황했다. 오후 2시 30분 진위(振威)에 도착해 송(宋) 서방 집에 투숙했다. 청군이 천안에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해도 역시 아직 믿을 수 없다. 이날 말을 빌릴 수 없어 새벽부터 동분서주하여 마침내 구할 수 있었다. 말을 빌린 비용이 평일의 세 배였다.

7일

오전 5시 20분 진위를 출발했다. 청군이 앞서 징발하여 소와 말을 빌릴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짐꾼 한 명을 고용해서 갔다. 칠원 '소세'[6]를 지나 사잇길을 통해 직산(稷山)의 좌측으로 나와 마일(馬日)의 험한 고개를 넘어 오후 8시 20분 목천(木川)을 지나 반 리 정도의 지점에서 투숙했다. 이러한 사잇길을 선택한 까닭의 하나는 청군과 마주치는 것을 피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까운 경로를 찾은 것이다. 날씨가 덥고 길이 험해 짐꾼이 나아갈 수 없어 도중에 다시 짐꾼 한 명을 고용했다. 당일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일

오전 4시 50분 짐꾼 두 명을 고용해 숙소를 떠나 목천에 도착했다. 한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한성에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

6 소세 : 소사(素沙)를 말한다.

라고 한다. 또 처음으로 초토사(招討使)의 전령(傳令)을 주막에 벽보로 붙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동학도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온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렸다. 비를 무릅쓰고 나아갔으나 비가 더욱 거세져 전신이 젖었다. 진흙탕에 여러 번 구르며 용기를 북돋고 짐꾼에게 소리치며 오후 4시 금강(錦江)의 지류인 동진강(東津江)을 건너 투숙했다. 수심이 깊어 배꼽 세 치 아래까지 도달했다.

9일

비가 약해졌다. 오전 7시 30분 숙소를 출발해 11시 30분 청주에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전신국에 갔으나 전선이 끊겨 할 수 없었다. 일행 3명 모두 도보로 가며 간간이 약을 팔아 이익을 얻었으나, 도중의 짐꾼과 말의 임금이 평상시의 세 배였으므로 주머니 속은 거의 비게 되었다. 이에 나는 정청(政廳)으로 가 서리를 협박해 마침내 은화 5금(金)을 교환하였다. 동학도의 동정을 알아보았으나 끝내 얻을 수 없었다. 단지 초토사의 전령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10일

오전 7시 간신히 말 두 필을 빌려 청주를 출발했다. 험한 고개와 비탈길이 첩첩이 계속됐다. 오후 6시 보은에 도착해 박 서방 집에 투숙했다. 이날은 말을 빌려 탈 수가 없어 세 명이 서로 돌아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생각해 보니 지난해 동학도가 이곳에서 일어나 속리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속리산은 이곳에서 불과 3리[7] 거리에 있다. 정찰을

잘한다면 어쩌면 동학도 일반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한성으로부터 이곳에 오는 동안 우리들은 스스로를 약장수라고 말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앞으로는 일본 도사(道士)라고 칭하려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모여든 한인이 몰래 동학 선생의 거처를 알려주었다. 선생의 성은 박(朴)씨이고 이름은 원칠(元七)이며 오남(五南)에 산다고 한다. 오남은 보은에서 불과 3리 거리에 있다.

11일

오전 10시 나는 도부(導夫)[8] 한 명을 데리고 오남에 있는 박원칠을 방문했다. 도착해 보니 벽이 쓰러지고 창이 무너진 상태로 주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시장 사람들에게 가서 그 거처를 물었더니 모두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떤 자가 말하기를, 청산(靑山)으로 갔다고 하였지만 신용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청산은 오남에서 2리 떨어진 곳이다. 조만간 일본군과 청군이 온다는 것을 글로 쓰고 아울러 도학(道學) 사람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실망감을 안고 돌아왔다. 이날 밤 보은에서 2리 거리에 있는 곳에 동학 선생 황하일(黃河一)[9]이라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조금 의욕이 생겼다.

12일

오전 7시 나는 다시 도부를 데리고 산을 넘어 황하일을 방문했다. 역

7 리 : 여기서 언급한 리는 일본 리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 리의 약 10배 정도에 해당한다.

8 도부(導夫) : 안내인이다.

9 황하일(黃河一) : 1846~미상. 충청도 보은의 동학농민군 대접주이다.

시 집 문이 닫혀 있었다. 시장 사람들에게 가서 은밀히 옮겨 간 거처를 물어서 찾아갔더니 주인은 외출하고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각해 보니 동학도의 체포령이 곳곳의 벽에 붙어서 펄럭이고 있으니, 동학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화를 입는 것이 두려워 도피한 것이리라. 도부의 말을 들어 보면, 이곳 주변은 모두 동학도뿐으로 이전에 전라도의 동학도와 소통한 자는 일단 귀촌했다고 한다. 그런데 체포령이 엄해짐에 따라 다시 전라도를 향해 떠나가서 지금 집에 있는 자는 원래 일에 관여한 자가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뿐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만나서 말하려고 해도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허망하게 돌아왔다. 이날 속리산에 올라가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효과가 없으므로 중지하고 바로 전라도로 가려고 했다. 오후 2시 30분 보은을 출발해 약 3리 정도 지나 '다동' 주막에 투숙했다.

13일

오전 5시 숙소를 출발해 11시 옥천(沃川)에 도착했다. 짐꾼이 발의 통증으로 걸을 수가 없어 관청에 부탁해 짐꾼 2명을 고용해 산길을 걸어 전라도로 들어가 진산(珍山)에서 1리 떨어진 '요강월' 주막에 투숙했다. 그 시각이 오후 8시 30분이었다. 초토사, 순변사의 전령이 도처에 붙어 있어 동학도의 동정을 더욱 알 수 있었다. 어떤 자는 전라도의 동남쪽 순천에 동학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였다.

14일

오전 4시 10분 '요강월'을 출발해 오후 8시 고산영(高山營) 관내의 '상

전' 주막에 투숙했다. 당초 동남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서남쪽으로 향한 까닭은, 하나는 전주에 들어가 동학도의 소식을 탐색하고 또 하나는 여비를 조달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청나라 섭(葉), 섭(聶) 등의 군대가 출발하였다는 영문(令文)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15일

오전 4시 '상전'을 출발해 11시 30분 전주에 도착해 바로 동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다. 심영(沁營)의 병사[10] 20여 명이 문을 지키고 우리들의 행로를 막으며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 전주에 들어가려는 자가 있다면 바로 감영에 보고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잠시 이곳에서 휴게하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언사가 매우 정중하여 1시간 남짓을 기다렸는데 기수(旗手) 한 명이 와서 공문 휴대 여부를 물었다. 나는 노조(路照)를 제시했으나 그는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들을 바로 한 객사로 데리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말하기를, 공문을 감영에 제시하기를 요구했으나 노조의 법식(法式)과 맞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를 우려해 야마가타 씨에게 언질을 주고 그를 보냈다. 야마가타 씨는 기수와 함께 돌아와 말하기를, "외무아문에서 발급한 공문을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성문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속히 성문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였다. 나는 백방으로 구실을 만들어 기수를 설득했으나, 기수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온다고 계속 호소했다. 나는 그와 다투는 것이 도리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10 심영(沁營)의 병사 : 강화영병(江華營兵)을 말한다.

문을 나와 1리 남짓 떨어진 수정리(藪亭里)의 장두식(張斗植) 집에 투숙했다. 당시의 낙담은 정말로 대단했다. 장두식은 약을 파는 자로서 우리들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으므로 친해져 은밀히 동학도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조용한 말로 말하기를, 동학도의 수괴의 성은 전(全)이고 이름은 명숙(明叔)으로 고부에서 태어나 전주에 살며 재덕(才德)을 겸비하고 있다. 전주의 전투에서 도망쳐 현재 전주 이남에 있다고 한다. 남은 무리는 지금 금구(金溝)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금구로 가면 거의 확실한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금구는 이곳에서 3리 남짓 떨어진 곳으로 우리들은 여기에서 조금 의욕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돈이 완전히 떨어져 장두식에게 알선을 부탁해 갖고 있던 한랭사(寒冷紗)와 남은 은화를 모아 겨우 여행길〔征途〕의 비용을 조달했다.

16일

군산으로 간다고 하고 겨우 짐꾼 2명을 고용해 오전 8시 수정리를 출발해 1리 정도에 있는 금구를 지나 군산으로 향하려고 했다. 짐꾼에게 말해 금구로 향했으나 짐꾼이 길을 잘못 들어 오후 5시 6리 정도를 걸어 겨우 금구에 도착했다. 금구에서 10여 정(町)에 소재한 가옥은 모두 인적이 없었다. 짐꾼이 질색하고 무서워해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즐거워했다. 금구에 도착했더니 과연 상황이 범상치 않았다. 현감이 난을 피해 전주로 피했고, 백성은 사방으로 숨어 빈집이 대부분이었다. 겨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였고, 어떤 자는 우리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자도 있었다. 음식을 구했으나 음식점이 없었고, 숙소를 구하여도 여관이 없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동학

도인 세 명이 살해당했는데 누가 벌인 일인지 모른다. 동학도인이 이에 크게 분노해 현감을 다그쳐 시체의 인도를 요구하고자 조만간 대규모로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고 하여 동학도가 모여 있는 장소를 물었더니 이곳으로부터 2, 3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였다. 날이 곧 지려고 하고 다리 또한 매우 피로하여 여관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토민(土民)을 위로하고 또 권유하여 이곳으로부터 20여 정(丁) 거리의 호농 장영창(張榮昌)의 집에 이르러 일박(一泊)을 청했다. 주인이 승낙해 마침내 이 집에서 숙박했다. 동학도 가운데 이곳을 지나는 자는 대개 이 집에서 머무르고 갔다고 한다. 장영창은 창고가 매우 풍족하지만 동학도가 조금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사람의 성격이 온후하고 우리들을 대우하는 것 역시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되돌아보면 20여 일간 먹고 마시기를 하루에 세 차례 이상이었는데 그 감취(甘臭)는 역시 똑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영창이 베푼 술과 음식처럼 맛있는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입안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따름이다. 이날 밤 장영창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도소(大都所) 전명숙은 옥과(玉果)에 있고, 그 나머지 무리는 이곳에서 2리 떨어진 원평(院坪)에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다. 이날 밤 우리들이 꿈꾸는 바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알 것이다.

17일

일부러 화려한 복장을 입고 오전 8시 눈을 떠 장씨의 집을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원평 땅을 향해 2리 가까이를 가 정오경에 원평에 도착했다. 황건(黃巾)을 머리에 두르고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오는 자

와 만났다. 내가 그를 불러 도소(都所)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그는 기뻐하며 우리들을 인도해 갔는데, 길옆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노란 두건을 멘 자, 보라색 두건을 멘 자, 녹색 두건을 멘 자 대략 40~50명이 있었는데 모두 화승총을 휴대하고 좌우로 뒤섞여 있었다. 총과 두건을 갖고 있지 않은 자 또한 대략 120~130여 명으로 서로 왕복하였다. 우리들 일행이 도착하자 도로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 중앙에 세 명이 거만스럽게 앉아 있었다. 먼저 도소가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답하기를 "도소는 즉 저 사람과 나다."라고 하였다. 나는 바로 붓을 들어 적었다. "그대들은 잠시 앉아라. 우리가 알릴 것이 있어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다. 또 좌우를 물리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단지 그대로 따랐다. 잠시 뒤 내가 묻기를 "일본군과 청군이 조선에 온 까닭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문자에 능숙하지 않고 주저하며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청국은 일찍부터 귀국을 멸망시키고 국왕을 폐출함으로써 청나라의 하나의 성(省)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다. 그대들이 고부 지방에서 한 차례 의거를 일으켰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리(統理) 원세개(袁世凱)는 몰래 혜당(惠堂)[11] 민영준(閔泳駿)을 권유, 협박하여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청군이 오는 이유는 하나는 그대들을 살육하고 또 하나는 귀국을 멸망시키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대들의 의거를 찬동하여 청국의 야심을 격파하고 형제가 서로 돕

11 혜당(惠堂) :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을 말한다.

고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는 까닭으로 신병(神兵) 수만 명을 한성으로 보낼 것이다. 대체로 그대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내정의 개혁을 이루고 또한 외적을 토벌하려고 할 뿐이다. 생각건대 그대들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대들이 이미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알려졌다. 그대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겨우 붓을 들어 답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원래 보국안민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일의 대소경중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대도소(大都所)의 명에 따른다. 그대들이 만약 알리고 꾀할 것이 있다면 바라건대 대도소에 가서 말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도소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옥과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날마다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 가는 도중에 시장 사람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바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았지만 이치에 따르고 깊이 의(義)에 감동하는 기색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그들이란 즉 조원집(趙元執)과 김윤호(金允浩) 두 사람으로 연령이 모두 아직 4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금구(金溝) 회소(會所)의 도소(都所), 즉 통령(統領)으로서 그 밖에 도찰(都察) 모, 성찰(省察) 모, 일포(一砲) 모, 이포(二砲) 모라는 자가 있어 병력 1천 명으로 이를 금구 회소가 통솔한다고 한다. 짐꾼이 사방에서 쌀과 보리를 운반해 오는데, 이것은 징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수(俵數)가 대략 30여 표(俵)이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남쪽 옥과로 가기로 논의해 결정했다. 먼저 오찬을 하기 위해 도소에 전달해 두세 명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음식점으로 안내하게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조(趙) 도소가 와서 송별의 말을 했다. 오후 2시 동학도인

10여 명의 전송을 받으며 원평을 나와 7시 태인(泰仁)을 지나 1리 거리에 있는 '독박리' 주막에 투숙했다.

18일

오전 5시 '독박리'를 출발해 담양(潭陽)으로 향했다. 대체로 대도소는 광주에 있다는 설이 있다. 담양에 도착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중에 어제 화순(和順)을 출발해 고부로 돌아가는 동학도 20여 명과 마주쳤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들은 "대도소의 명에 의해 귀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명이란 무엇인가 물었더니 "지금은 할 일이 없다. 잠시 향리로 돌아가 정업(定業)에 힘써라. 만일 일이 있다면 다시 명령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간절한 것이 어째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후 8시 담양에 도착했다. 태인으로부터 담양에 이르는 사이 계속 촌락이 이어졌다. 그리고 토민은 대개 동학도인이 아닌 자가 없었다. "도인이 아니라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찰을 문 위에 걸어 둔 집이 두세 곳 있었다. 우리들은 이어서 대도소의 거처를 묻고 일본군과 청군이 온다는 것을 알렸다.

19일

오전 8시 담양을 출발했다. 대도소는 광주를 떠나 남평(南平)에 있다고 한다. 오후 3시 25분 광주에 도착해 공북문(拱北門) 밖을 지나 남평으로 향했다. 동학도가 앞뒤로 잇달아 왕래했다. 전령을 위해 담양, 금구 방면으로 가는 자가 있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농사에 힘쓰던 자가 돌아와서 혹은 대도소 호위를 위해 나주 또는 화순 지방에서 새로

모여든 자가 있었다. 오후 8시 20분 남평에 도착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도소는 정오에 이곳을 떠나 능주(綾州)로 향했다고 한다. 해가 이미 졌고 길이 매우 멀어 여관을 구했지만 밥을 지을 쌀이 없다고 한다. 동학도에게 청하여 알선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동학도가 모이는 곳에 갔다. 뜻밖에도 그들은 관청을 점령하고 영소(營所)로 삼아 모인 자가 대략 200여 명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능주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머물 곳이 없다고 알렸더니 그들은 기뻐하며 우리들을 객실로 초대해 술과 안주를 주며 후하게 대접했다. 내일 아침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20일

오전 9시 동학도와 함께 남평을 출발해 오후 1시 능주에 도착했다. 대도소는 과연 능주에 있었다. 관청을 본영(本營)으로 삼아 사람과 말이 서로 빈번하게 왕래했다. 본영은 하얀색 막을 문 앞에 두르고 영(令)이라는 글자를 자수(刺繡)한 장수의 깃발을 정원에 세워 그 위세가 대단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면회를 청했다. 곧바로 우리들을 문 안의 객실 한 칸으로 불렀다.

잠시 뒤 그가 지전(紙錢)를 주며 말하기를,

"뜻밖에 귀국의 여러 대인이 누추한 곳에 찾아왔다. 어떤 연유로 먼 길을 건너왔는지 모르겠다. 이를 위해 고생하지 않았는가. 다행히 피곤하지는 않는가?"

나는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엎드려 당신의 질문을 받으니 감개무량하다.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즉, 실로 대도소 전(全)

도사 명숙(明叔) 선생을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기 위함일 뿐이다."

그는 다시 쪽지 글을 보내 말하기를,

"전주의 접전 때 전(全) 대인이 총탄에 맞았다. 지금은 영외(嶺外)의 땅에 있어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전에 귀국의 대인 14명에게 질문하였을 때 영암(靈巖)에 거주하는 김봉균(金奉均) 등이 답하였다."

당시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전명숙이 능주에 있다는 것을 연도의 토민에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능주에 있는 동학도가 모두 이를 말하였다. 그리고 답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조금이라도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또 14명의 대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한성을 출발할 때 조금 들은 바가 있다. 반드시 부산에서 새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全) 대인이 영외(嶺外)의 땅에 있어 만나 뵐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생각하건대 이곳에는 반드시 통령(統領)이 있을 것이다. 만일 통령을 만나 뵐 수 있다면 다행이다."

잠시 뒤에 4~5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었다. 연령은 약 38~39세로 일행 중 풍채가 탁월했다.

그는 붓을 들어 글로 말하기를,

"그대들은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세한 것을 들려주기 바란다."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묻자 김봉균(金奉均)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내가 글을 써 말하였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대조대왕(大祖大王)이 지성명덕(至聖明德)하시고 문무를 겸비하여 황천(皇天)으로부터 명을 받아 한성(漢城)에 도읍

을 정해 세세대대(世世代代) 왕자왕손(王子王孫)이 뒤를 이어 이에 500여 년에 이르렀다. 그 사이 세상에 성쇠(盛衰)가 있고 때로 융체(隆替)가 있었지만, 정치 기강이 문란하여 이서(吏胥)가 지전(紙錢)을 탐하고 취렴(聚斂)이 극심하여 백성이 도탄에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무릇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며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민씨 일족이 오랫동안 외척의 위세를 부리고 길게 정권을 장악하며 사직(社稷)의 존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성쇠만을 걱정한다. 민인이 날로 피폐해지는 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창고가 다달이 풍족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위로 뇌물이 행해지고 아래로 도적이 일어나는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이에 그대들은 깊이 개탄하는 바가 있어 하늘을 대신해 한 차례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의로운 깃발을 고부 지방에서 들었다. 오로지 귀국(貴國)의 생민(生民)만이 단사호장(簞食壺漿)[12]하여 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이 모두 우러러 받들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야(朝野)와 귀천(貴賤)을 묻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이를 기뻐하며 찬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 청국은 홀로 그렇지 않았다. 과거 조선의 국세(國勢)를 약화시킬 것을 꾀하였다. 만약 일단 풍운이 서로 만나는 때가 되면 바로 조선을 멸망시키고 국왕을 폐출하여 조선을 청국의 한 성(省)으로 삼고 이중당(李中堂)[13]의 양자인 이경방(李經芳)을 보내 총독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다. 이중당은 이 기회를 타서 몰래 그 뜻을 원세개(袁世凱)에게 전했다. 원세개는 이중당의 뜻을 받들어 은밀히 간신 혜당

12 단사호장(簞食壺漿) :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군대를 환영함을 말한다.

13 이중당(李中堂) : 이홍장(李鴻章)을 칭한다.

(惠堂) 민영준(閔泳駿)과 손을 잡고 영준으로 하여금 마침내 청국에 원병을 청하게 했다. 청국은 바야흐로 오래된 뜻을 이루게 될 것을 기뻐하며 갑자기 병사 3천여 명을 아산으로 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귀국의 존망은 위기일발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의용(義勇)으로 천하에 알려져 있다. 하물며 옆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참고 보고 있을 것인가. 곧바로 신병(神兵) 3만여 명을 귀국으로 보내 한성, 용산, 양화진(揚華鎭), 만리창(萬里倉), 파주(坡州), 송파(松坡), 수원, 인천, 부산, 원산 등 이르는 곳마다 각기 요소를 지킬 것이다. 군의 대오가 정연하고 호령이 엄숙하며 총기와 양식 모두 겸비하고 있다. 연도의 사민(士民)이 우러러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안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진실로 왕자(王者)의 군대이다. 청군은 군대의 기율이 없고 명령에 위세가 없고 함부로 우마(牛馬)를 약탈하고 멋대로 부녀자를 간음한다. 아산(牙山)[14]의 변두리 집에 쌀과 보리가 없고 각 호(戶)에 닭과 개가 없다. 사민이 서로 원망하는 상태임을 이미 그대들은 잘 알고 있는 바 아닌가. 이른바 초절(草竊)[15]의 무리가 아니고서야 무엇인가. 사태가 이미 이와 같으니 적어도 조선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방관 좌시할 때이겠는가. 즉, 모름지기 한밤중에 닭이 울어[16] 일어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굳은 결심[17]으로 건너와,

14 아산(牙山) : 원문에는 '牙出'로 되어 있다.

15 초절(草竊) : 남이 다 지어 놓은 농작물을 훔쳐 가는 도둑을 말한다.

16 한밤중에 닭이 울어 :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이 진(秦)나라에 들어갔다가 소왕(昭王)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미 소왕에게 바쳤던 호백구(狐白裘)를 훔쳐 소왕의 총희에게 뇌물로 바치고서 풀려났다. 맹상군은 함곡관을 빠져나와야 했는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는 관문을 열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안으로는 간신을 물리침으로써 왕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밖으로는 적병을 토벌함으로써 국위(國威)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이 이미 보국안민을 기치로 의거를 일으킨 것은 천하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생각하건대 반드시 명령을 사방으로 전달해 다시 권토중래(捲土重來)할 것은 역시 천하가 함께 확신하는 바이다.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들이 낮에는 숨고 밤에 산악을 걷고 하천을 건너 이곳에 온 이유이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바를 모르니 과연 어떻게 할지 교시해 주기 바란다."

그가 붓을 들어 답하며 말하기를,

"지난번 귀국의 14명의 대인과 만났을 때 공(公)이 가르치는 바를 역시 우리들에게 가르쳤다. 생각하건대 그대들 역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온 14명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생각하건대 아직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아직 만나 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바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론이 일정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더욱 한 걸음 나아가 말해 보면 우리나라가 실로 이 호기(好機)에 임해 행운을 틈타 그대들과 연결하여 서로 꾀하려 한다. 내외가 상응하여 내정의 개혁을 이루고 외적을 토벌하여 사직

그때 마침 맹상군의 식객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자가 있어 그가 닭 울음소리를 내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史記』 75, 「孟嘗君列傳」

17 굳은 결심 : '강의 중류에서 노를 두드리다'라는 사자성어 중류격즙(中流擊楫)을 인용한 것으로, 가슴에 품은 웅대한 뜻을 비유하는 말이다.

을 태산과 같이 편안하게 하고 생민(生民)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전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기에 귀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이처럼 힘을 다해 수고하는가. 귀국이 우리나라에 길을 빌려 청국을 정벌하려 한다고 들었다. 마치 눈〔雪〕이 조각조각 날아오는 것같이 알지 못한다. 과연 이러한 일이 없을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기를,

"귀국과 우리나라는 그 친분이 오래되었다. 옛날부터 이미 형제의 나라라고 칭했고 또 귀국과 우리나라는 비유하면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귀국의 존망(存亡)은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위(安危)와 관련되고, 귀국의 성쇠(盛衰)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융체(隆替)와 이어진다. 옛날의 은혜를 후일에 갚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귀국에게 길을 빌려 청국을 정벌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300여 년 전의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우리 군대가 귀국에 온다는 뜻은 위에서 이미 진술한 바와 같다."

그가 말하기를,

"삼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든다. 우리들은 원래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로서, 밖에 나와서는 따비를 쥐고 농사에 힘쓰고 안에 들어가서는 경술(經術)을 강(講)하며 의리의 도를 닦는다. 만약 우리 종사(宗社)에 해를 입히려는 자가 있다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힘쓴다.[18] 공(公)이 가르치는 바가 이미 이와 같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의심

18 만약……힘쓴다 :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간뇌도지(肝腦塗地)를 인용한 것이다.

을 품을 것인가. 그렇지만 만약 공의 마음과 공의 붓이 합치하지 않는다면 지척에서 바로 피를 흩뿌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렴풋이 듣기를 귀국 사람들은 매우 의심이 많다고 하던데 당신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저 장탄식할 뿐이다. 당신이 만약 한 점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가 말하기를,

"의기가 서로 통하고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으니 무슨 의심이 있을 것인가. 단, 우리들에게는 시기(時機)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잠시 가을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 거사(擧事)하려고 한다. 그때 반드시 연락을 꾀할 것이다. 엎드려 청하건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삼가 당신의 의견을 받든다. 우리들 역시 고개를 빼고 발꿈치를 세우며 가을 바람이 불고 말이 우는 때를 기다릴 것이다. 무릇 군대의 승패는 명분의 순역(順逆)에 의한다고 하지만, 원래 무기가 날카롭고 둔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내가 당신 군대가 갖고 있는 총포를 보니 대부분은 화승총뿐이다. 화승총은 이미 노후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귀하가 만일 총과 칼이 더 필요하다면 즉각 이를 보낼 것이다. 어떠한가?"

그가 말하기를,

"매우 감사하다, 매우 감사하다. 지금 만일 선사하는 총과 칼을 받는다면 어쩌면 지목(指目)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훗날 재거(再擧)를 꾀하여 필요할 때에 바로 연락할 것이다. 바라건대 그때에 맞춰 보내줌이 어떠한가."

내가 봉균(奉均)과 대담한 것이 거의 수천 단어에 이를 것이지만 그 개요를 적어 보면 대략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다. 봉균은 얼굴이 청수(淸秀)하고 그 거동과 언행이 아마도 평범한 장교(將校)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은 은밀히 그가 전명숙(全明叔) 본인이 아니라면 필시 지휘부[19] 안의 장자방(張子房)[20]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병사가 알린 바에 따르면, 과연 그가 대도소 전명숙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의 숙지(宿志)가 비로소 달성되었다. 당일의 즐거움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의 대우는 거의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 밤이 되자 끝없이 피리와 장고 소리가 맑게 막중(幕中)에 퍼졌다. 아마도 아침저녁으로 음악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리라. 생각하건대 전명숙은 이미 전라도의 봉후(封侯)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기색이 어딘가 양양(揚揚)했다.

21일

나는 전명숙과의 어제 이야기를 이어 문답을 5~6회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락할 장소를 지정했다. 명숙은 무슨 일이 있어 당일 낮 동남 지역을 향해 갈 것이라고 했다. 생각하건대 명숙이 이와 같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실로 미전(米錢)의 징발에 바빴기 때문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건대 우리들이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얻는 것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바를 승복하는 것 같다. 나도 역시 마음속에 다소간 의심을 품는 부분이 있다. 일단

19 지휘부 : 원문은 '유막장중(帷幕帳中)'이다.

20 장자방(張子房) :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의 전략가이다.

지금은 헤어져 다시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서로 이별을 고했다. 그는 전별금으로 돈 15관문을 내어주었다. 또 말을 주어 우리 일행을 호송하도록 하였다. 우리 역시 길고 짧은 칼 두 자루와 은화 3금(金) 및 약제 두 병을 주며 영구한 교제를 맺었다. 오전 9시경 명숙은 스스로 문밖으로 나가 영외에서 병사를 사열했다. 50여 명이 하나의 부대를 이루고, 5개 부대로 나누어 ⩘ 모양으로 줄을 세웠다. 두건을 두르고 총을 멘 모습이 매우 우스웠으나 사령(司令)에 응해 진퇴하고 정연하여 흐트러지지 않아 마음에 매우 사랑스러운 점이 있었다. 조련(繰練)을 마치고 병사들에게 각각 돈 500문(文)을 지급했다. 생각하건대 병사의 급료일 것이다. 박영호(朴永浩), 비만석(鄙萬石), 김모(金某), 최모(崔某), 문모(文某) 등은 모두 전명숙 아래의 장교이지만 함께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다. 기타 도성찰(都省察) 김병혁(金炳赫)과 성찰(省察) 32명이 있다고 한다. 오전 11시 함께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말을 타고 능주(綾州)를 출발해 나주 관내의 영산(榮山)으로 향했다. 대체로 영산에서 조선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 기선 또는 일본 어선을 타고 인천으로 가려고 했을 뿐이다. 갈림길에 임하여 동학도로부터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았다. 주요한 것은 일본도(日本刀), 육혈포〔六穴銃〕 및 박쥐우산〔蝙蝠傘〕 등이었다. 오후 3시 40분 영산에 도착해 배를 찾았으나 구할 수 없었다. 이날 밤 설사가 심해 매우 고생했다.

22일

새벽에 2리 남짓 떨어진 곳에 야마가타 씨를 보내 배를 구하게 했다. 마침내 배를 구해 정오에 영산을 출발해 오후 2시 전포(電浦)에 도착

했다. 10시 배를 타고 작별하고 강을 따라 3리를 내려가 갈대 사이에 정박했다.

23일

비가 심하게 내렸다. 배 안에 먹을 것이 없고 누울 침실이 없었다. 배 안의 어려움이 육상에서의 어려움보다 더욱 심했다.

24일

오전 8시 30분 드디어 목포에 도착했다. 듣기에 그제와 어제 조선 선박 여러 척이 군산을 향해 출항하고 남은 것은 불과 두 척인데, 이것도 진도(珍島)행 선박뿐이라고 하였다. 당시 우리들의 낙담은 진실로 비할 바가 없었다. 주머니 속의 여비가 거의 바닥이 나려고 하였고 길거리에서 피로가 날로 더해 왔다. 그렇지만 일이 이미 이에 이르러 마침내 어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더 용기를 내서 육지 길을 이용해 군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짐꾼 한 명을 고용하여 목포를 출발했다. 오후 7시 무안을 출발해 반 리 거리에 있는 광석점(廣石店)에 투숙했다.

25일

여비가 부족해졌으므로 휴대품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지고 오전 4시 광석점을 출발해 오후 9시 영광을 지나자, 동학도 1백여 명이 관청에 모여서 우리 일행을 가로막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당일 우리들은 몸이 매우 피곤하였고 해가 이미 저물어 일일이 대답하기 성가셨으므로 도리어 크게 그들을 꾸짖었으나 끝내 그 효과는 없었다.

즉, 금구 회소에서 알리는 바를 다시 그들에게 알리고 겨우 시끌벅적한 곳을 벗어나 공북문(拱北門)을 나와 반 리 거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숙박했다. 생각하건대 동학도가 우리를 멈춰 세운 까닭은 대개 외부인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통행의 이유를 심문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 같다. 용의주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도소에서 만난 그 이름을 잊었으나 동학도 2천여 명이 있다고 한다.

26일

오전 5시 농가를 출발해 무장(茂長)을 지나 오후 9시 흥덕(興德)을 지난 1리 거리에 있는 '알메아창' 주막에 투숙했다. 도중에 동학도 7~8명을 만났다. 흥덕에 모여 있는 자가 대략 2백여 명이라고 한다.

27일

오전 7시 '알메아창'을 출발해 오후 8시 부안(扶安)을 지나 반 리 남짓의 곳에 투숙했다. 부안, 흥덕 모두 동학도가 모여 있다고 하지만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28일

오전 2시 40분 숙역(宿驛)을 출발해 만경(萬頃)을 지나 오후 4시 군산에 도착했다. 항구 안에 있는 조선 배의 돛대가 숲과 같았다. 그렇지만 인천으로 항해하는 배는 한 척도 없었다. 우리들의 계획이 실로 이에 이르러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반드시 배 한 척을 주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로부터 조

용히 먹고 누워 만일의 요행을 기하였는데 뜻밖에도 해가 질 무렵 한 조선 노비가 와서 말하기를, 배 운임의 다과(多寡)에 따라 그대들을 인천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 운임이 얼마인지 물었더니 60관문(貫文)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놀랐으나 되돌아보니 주머니 속에 한 푼도 없었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논하였더니 그는 표연히 떠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가 보았더니 실로 매우 작은 배여서 보고서 깜작 놀랐다. 잠시 뒤 함께 장난으로 우리들은 이미 후쿠시마(福島) 중좌[21]를 능가하였고 어찌 보면 군지(郡司) 대위[22]와 동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날 밤 거적 아래에서 별천지의 꿈을 꾸었다.

29일

오전 8시 30분 작은 배로 노를 저어 군산을 출항하여 오후 2시 충청도 비인(庇仁) 마량포(馬梁浦)에 정박했다.

30일

오전 5시 마량을 출발하였다. 8시에 바다 안개가 흐릿한 사이로 군함 6척을 확인했다. 오후 9시 다시 군함 2척 사이를 통과했다. 어디의 군함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8척의 군함 모두 일본제국의 군

21 후쿠시마(福島) 중좌 : 시베리아를 기마로 횡단한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를 가리킨다.

22 군지(郡司) 대위 : 쿠릴열도를 탐험한 군지 시게타다(郡司成忠) 해군 대위를 가리킨다.

함이라는 것을 들었다. 11시 배가 평신(平薪)에 정박했다. 일본과 청국의 함대가 일대 격전을 벌였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들은 이를 조금도 믿지 않았다. 이날 곤도 군과 내가 발열이 있어 심하게 아팠다.

31일

새벽에 평신을 출발해 인천 앞바다에 정박했다. 도중에 청국인 2명이 섬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발열이 조금 잦아들었다.

8월 1일

오전 6시 우리는 온몸에 유쾌함과 용기를 탑재하고 마침내 배는 인천의 일본제국 영사관 앞에 도착했다. 세 명이 서로 돌아보며 함께 육상과 해상에서 무사했음을 축하하고 힘을 내어 '스이즈(水津)' 여관에 투숙했다. 일본 군대의 소식을 물어보았더니 23일 일본군이 조선 군대를 물리치고 40분 만에 왕성(王城)을 경위(警衛)했다고 한다. 그리고 25일 우리 함대가 청국 함대와 아산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여 1척을 나포하고 2척을 침몰시켰다고 한다. 또 30일 우리 군이 성환역(成歡驛)에서 청국군과 싸워 5시간 만에 아산영(牙山營)을 함락시켰다고 한다. 연전연승하였다는 소식을 귀로 듣게 되어 나는 뜻하지 않게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마침내 유자(孺子)로서 명성을 이루게 하였구나.[23] 오호라. 우리들의 이번 여행은 육지로 140여 리, 해상으로 70여 리, 날짜로 계산하면 29일, 소비한 돈은 1백여 원으로 그 힘들고 괴로운 경영은 대개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우연히 듣기로 동학도의

23 마침내……하였구나 : 『사기(史記)』「손자전(孫子伝)」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동정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도 단지 일시적인 가벼운 이야기로 치부할 뿐이다. 고생만 하고 공적은 없음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날 동학도의 가치가 과연 이 정도일까. 이날 '스이즈' 여관에 투숙했다.

2일

오전 11시 육군 어용선(御用船) 부산호(釜山號)에 탑승을 요청해 오후 10시 용산에 도착했다. 11시 한성으로 들어갔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거리고 밤은 고요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군이 육상과 지상에서 연승한 것은 기쁜 일이므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열광적으로 기뻐할 때는 아니다. 조선 정부가 혁신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아직 잠시도 마음을 풀 때가 아니다. 장병들이 용기를 자랑하고 속리(俗吏)가 공(功)을 자랑한다고 들었다. 본디 무슨 마음인가. 청국에 대한 일은 잠시 제쳐 두고 나는 논하지 않겠다. 오늘날 조선 정부의 혁신은 과연 어떠한 방침에 따라 어떠한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소인배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24]은 옛날부터 끊임이 없었고 드문 일도 아니다. 생각하건대 신정부는 동학도를 친구로 삼아 마땅히 지대(至大)한 이익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적으로 삼는다면 마땅히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를 적으로 삼거나 친구로 삼는 것은 잡거나 풀어 주는 사이에 약간의

24 소인배들이……것 : 솥발을 부러뜨려 음식을 엎지른다는 정적복속(鼎折餗覆)의 고사성어를 인용하였다.

차이만이 있다. 신정부가 동학도에 대한 심산(心算)이 이미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겠다.

의거(義擧)를 꾀하는 것은 도인(道人)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강한 정서이다. 그러므로 도인이 아니라면 의거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른바 108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로소 의거종(義擧宗)의 종도(宗徒)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의거란 무엇인가. 보국안민(輔國安民)뿐이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다. 이른바 제민의소(濟民義所)라는 네 글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인장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해치는 자는 모두 그들의 적이라고 한다. 적은 하나가 아니다. 적의 적이 있고 적의 또 적이 있다. 그들은 아마도 단지 수령방백(守令方伯)을 내쫓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25] 이것은 상정(常情)일 뿐이다. 또 근본이 깨끗하지 않으면 흐름이 맑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들이 만약 군량이 충분하고 병사가 충당된다면 마땅히 감천동지(憾天動地)의 활극(活劇)을 연출할 것을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나는 그들을 보고 그들 자신이 혁신당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단연코 그들이 혁신당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라도 전주에서 3리 이남(以南), 이서(以西), 이동(以東)은 이미 대도소(大都所) 전명숙(全明叔)의 명을 따르는 자뿐이지 않은가. 충청도 목천(木川) 이남의 땅은 도학(道學)을 받드는 자가 십중팔구이다. 어쩌면 다소 성정(性情)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미 이번에 서로 협력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정한다면 앞으로 함께 연락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생각하건

25 욕망은 끝이 없다 : 본문에서는 득롱망촉(得隴望蜀)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대 경상도, 강원도 역시 다소의 도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칭하기를, 우리 무리는 1백만 명 있다고 말한다. 원래 과장된 말에 지나지 않지만 도학을 받드는 자가 나날이 새로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무리가 아마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나주의 목사가 이유 없이 도인 32명을 살해하였다. 부하인 자가 바로 공격해 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전명숙이 이를 저지하였다. 대개 생각하면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다. 5, 6월이 바뀔 무렵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이다. 이때에 만일 일단 군사를 움직여 제민(濟民)의 뜻에 어긋난다면 큰일이다. 또 양식을 구하는 법이 서 있지 않고 추수의 시기를 기다려 거사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지금 전명숙이 각 읍(邑)을 순회하고 한편에서는 금전을 징발함으로써 훗날의 탁지(度支)를 대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이 모르게 베푸는 은덕(隱德)을 행함으로써 백성에게 좋은 평판〔聲望〕을 받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까닭이다. 되돌아보면 천하의 형세는 완전히 표변하고 있다. 신정부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과연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신정부의 시책이 마치 평탄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행해진다면 바로 그칠 것이다. 모름지기 백성의 뜻에 어긋나고 백성의 마음을 해쳐 죽창과 석기(席旗)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동학도가 동기(動機)가 될 것을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정부가 보는 바가 과연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잠시 조용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시기에 일어나서 창문을 연다면 중천에 구름이 일어 밤과 같이 암담해질 것이다.

이상 우미우라 아쓰야(海浦篤彌) 수기(手記)

일청교전록

日淸交戰錄

1호 일청교전록 발간의 주요 취지

동양 최대 재앙의 계기가 폭발하였다. 압록강 강변, 발해만(渤海灣)의 앞바다에 일본 육해군의 대군이 이미 임하였다. 이 전쟁은 당당한 대일본제국의 전쟁이며 동양 흥폐가 걸려 있는 것으로 결코 일시적인 사분(私忿)에서 나온 전쟁이 아니다.

신공(神功)황후의 정한(征韓),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태합(太閤)의 정명(征明), 그 흔적이 확실하게 천고(千古)를 비추고 있지만 우리 황제의 혁노(赫怒), 국민의 공분(公憤)을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만리의 외정(外征)에 대군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날이 처음이다. 그 명정(名正)과 엄격, 그리고 3군의 용감함, 전투 진영의 숙련, 정제된 대오, 정예한 기계를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쟁취한다. 향하는 곳은 전에 없었고 마침내 대승[大捷]을 거둘 것이니 날을 새겨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일본제국의 전쟁은 대일본제국 국민이 모두 왕의 기개로 싸워야 한다. 애국의 감정을 크게 고무하여 군사의 기세를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본분이고 임무이다.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의 공도(公道)이다. 청국의 횡포를 제압하는 것은 천하의 정의이다. 우리 제국은 공도와 정의를 방패로 삼아 적에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죽을 때까지 노력하며 굴복하지 않는 것 역시 일국의 명예를 잃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군의 용맹무쌍함으로 백전백승하여 청의 수도를 점령할 것을 미리 기약하는 데 있어서야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일청교전록을 발간한다. 하나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 전투가 동양의 흥패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 애국의 대감정과 적개의 큰 정신을 고무하는 것을 통해 본분을 다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맹서하여 제국 신민의 임무를 다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일청교전록 제1호

〔논설〕

일청개전론

동양 진흥(振興)의 천직(天職)을 짊어진 자는 누구인가. 인도를 볼 것인가, 베트남을 볼 것인가, 미얀마를 볼 것인가, 중앙아시아를 볼 것인가. 만주의 산하(山河)는 이전과 다름이 없지만 사직(社稷)이 과연 편안한가. 국가가 과연 편안한 것 또한 저 태국을 보라. 프랑스의 군대는 그 경내에 있지 않은가. 지금의 조선을 보라. 힘센 이웃 러시아가 매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가. 동양 진흥의 일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동양의 나라 가운데 독립한 강국은 우리 일본과 중국 제국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동양 진흥의 천직을 짊어지는 것 역시 이 두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는 이치상 마땅히 보차순치(輔車脣齒)의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서로 노려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세상 매우 불가한 점이 있다. 왜인가. 하늘에 두 태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양 역시 두 맹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청국의 관계는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그를 항복시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가 우리를 항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30년 동안 일본과 청 양국이 대치하는 정세이며 결코

오늘날에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개전(開戰)하게 되었다. 우리는 도리어 이 개전이 늦었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몽골의 침공, 임진왜란은 잠시 제쳐 두고 메이지유신 이래 우리나라와 청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적국의 위치에 서 있었다. 유구(琉球)는 우리(일본)의 판도이다. 그리고 그들(청)도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일본)의 유구 처분에 반대하였다. 타이완은 그들(청)이 화외(化外)의 민(民)이라고 공언하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일본)가 그 죄를 묻자 그들(청)은 역시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칭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조선은 우리(일본)가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들(청) 또한 우리(청)의 속방이라 칭하고 내치와 외정에 간섭하였다. 1882년과 1884년에 그들(청)과 우리(일본)가 서로 충돌하여 바로 거의 전쟁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이 아스라이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는 바가 아닌가. 청국은 지도를 놓고 말하자면 우리와 순치(脣齒) 관계의 나라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말하면 적국인 것이다.

일본과 청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세상 사람은 동학당의 변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견해일 뿐이다. 청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어려움에서 구한다는 허울뿐인 말로, 그들은 일본의 세력이 조선반도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세력으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은 조선 속방의 실질적 성과를 올리기 위함이다. 조선 속방의 실질적 성과를 올리는 것은 동양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이에 반해 동양을 위해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청국의 세력을 조선반도에서 절멸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청국의 세력을 조선반도로부터 절멸시키는 것은 동양의 패권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함이

다. 그렇다면 일본과 청국의 교전은 동학당의 변으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본과 청 양국 30년간의 세력 경쟁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국은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나라이다. 그들은 침략적 욕망을 문아(文雅) 담소(談笑) 사이에 감추고 기회를 틈타 행하려고 한다.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공언하고 군대를 보내 속방의 실질적 성과를 올리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뜻하는 바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양의 진흥을 위해 그 천직을 다할 것인가. 천직이란 무엇인가. 청국을 응징하여 그 폭위(暴威)를 좌절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청국은 막연하게 조선을 속방이라고 한다. 동양의 맹주라는 욕망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치가 세계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최대 다수는 아직 취생몽사(醉生夢死) 속에 있다. 만약 그들(청)이 그 욕망을 달성하도록 한다면 동양 각국은 그 침략을 받고 동양의 평화와 문명은 영원히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청국과 싸우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예를 갖추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척회(拓回)하는 천분(天分)과 동방의 평화를 보호 유지하는 임무에서 결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동양의 대세를 한 번 흔들어 유럽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청 양국이 서로 연합해야 하고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지만 이는 태평육식자(太平肉食者)의 말일 뿐이다. 서로 합쳐야 할 때 합치고 서로 다투어야 할 때 다투는 것은 대장부의 일이다. 나라도 역시 그렇다. 같은 아시아 인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문(同文)의

나라라 하더라도 평화를 깨는 자를 어찌 응징하지 않을 것인가. 더구나 우리가 청국과 싸우고 이를 응징하는 데 있어서 어찌 이를 정략(征略)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아시아의 대세로부터 이를 생각해 보면 청국과 같이 국세가 분열하고 시정이 몽매하고 국민이 부패하고 게다가 오만완루(傲慢頑陋)하여 조금도 진보, 작신(作新)의 원기가 없는 나라를 통해 어찌 아시아의 진흥을 바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일본제국이 그 천직을 받들어 조선을 개도(開導)하고 청국을 응징하고 그 약함을 돕고 그 강함을 꺾어, 나아가 동양 진취의 기반을 굳건히 하여 장래 아시아 각국을 혁신시키는 것이 큰 임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면 동양의 맹주는 저절로 우리 제국의 손안에 있을 것이다. 프로이센을 유럽의 맹주라고 칭송하는가. 필시 프로이센은 먼저 덴마크를 격파하고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남북 독일을 통일하여 그 맹주가 되고 나서 프랑스를 격파한 뒤 유럽 맹주의 권력을 장악했다. 일청 개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30년 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 보오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일본이 청국과 싸우는 것은 의전(義戰)이다. 우리 정예 육해군이 지부(芝罘), 위해위(威海衛)를 공격하고 천진, 북경을 함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강화를 청하게 만드는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동양 맹주의 권력을 잡는 때이다.

조선의 신흥과 동양의 평화

조선은 드디어 부활하려고 한다. 왜인가. 조선 혁신의 기운이 바로 오늘날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부패가 거의 절정에 도달하였다.

그 국가는 독립국이라고 칭하더라도 독립의 원기가 없고, 군주는 무르고 겁이 많아 환관에 의해 제약당한다. 인민은 어리석고 약하여 특수한 정신과 기상이 없고, 정권은 분열되고 인심은 이산되고 국방은 완전히 해이해져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없다. 해안이 장대하다고 하지만 한 척의 군함, 한 개의 군항도 갖고 있지 않다. 재정은 문란하고 세출입에 정액(定額)이 없고 국민교육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고 학교 시설도 없다. 철도, 항해 등의 운송수단도 일체 두절되어 식산사업이 더욱 발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선의 현상이다. 여론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다. 조선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오랫동안 독립의 원기가 없음을 각국 앞에 보인 것이 아닌가.

어찌 단지 그뿐이겠는가. 청국은 공연히 조선을 중국의 속방이라고 칭한다. 저 원세개(袁世凱)라는 자로 하여금 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종횡으로 마음대로 그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선은 스스로 청국의 속방인 것을 감수하고 그 책봉을 받아 정삭(正朔)을 받들었다. 사대주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은 외부에 대해 독립이라는 공명(空名)을 내보였지만 사실은 망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조선은 동양의 관문이다. 일본제국의 북쪽에 면한 외곽이다. 청이 조선을 속방으로 삼을 때는 동양의 평화는 청으로 인해 깨지고, 러시아가 조선을 부용(附庸)으로 삼을 때는 동양의 평화는 역시 러시아로 인해 깨진다. 동양 열국의 권력이 하루라도 균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독립을 해치는 자는 힘을 다해 이를 배척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강국이 대치하여 자웅을 다툴 때 반드시 얻어야 하는 요지가 있다.

즉, 흑해에는 보스포러스(Bosporus) 해협이 있고 지중해(Gibraltar)에는 지브롤터가 있고 중앙아시아에는 헤라트(Herat)가 그것이다. 그리고 동양 중국해에서의 조선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지에는 이를 지키고 차지하기에 충분하고 확호불발(確乎不拔)한 국시와 강고한 국력을 갖춘 국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요지에 있어 유리한 지세를 차지하는 나라로서 그 기강이 완전히 쇠퇴하고 민심이 완전히 이산하고 국방이 완전히 해이하여 도저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나라의 옆에 있는 자는 어찌 엄격히 이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방법을 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일본제국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 청국의 간섭을 배척하고 독립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순조롭게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어찌 조선 부활의 시기가 아닐까.

조선의 부패가 절정에 달해 독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정이 합당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매우 해독한 민씨 일족, 사대주의 일파의 흔적을 없애고 대원군이 집정하고 혁신당의 인물이 각기 요로(要路)에 올랐다. 단단히 마음먹고 개혁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치(治), 작신(作新)의 정치, 창업의 기풍을 통해 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어찌 어려울 것인가. 일본제국은 이 개혁에 대해 책임을 갖고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인가. 조선의 혁신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제국의 일대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 일대 임무는 일본제국의 독립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는 두 개이면서 하나이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동양의 안위를 헤아릴 수 없다. 동양의 안위를 헤아릴 수 없다면 일본의 안위 역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계림팔도(雞林八道)의 산천은 동양을 위해 보호하고, 조선 정부는 동양을 위해 혁신하여 동양 백 년의 계획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제국 북쪽 외곽을 공고히 하는 길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을 깨우쳐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로 하여금 독립의 내실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은 오늘날 스스로 신흥국의 규모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일체의 혁신을 꾀하여 엄연히 동양에서 독립국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날 조선 정부가 앞으로 경영하고 또는 담당해야 하는 것은 내외에 많이 있고 긴요한 것이 하나로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중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왕정 통일의 내실을 키우고 조정에서 대권을 거두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일체 청국의 간섭을 끊을 것.
(2) 국정의 작신(作新)과 동시에 사기(士氣)의 진흥을 꾀하고 밖으로 청국의 책봉을 사절하고 안으로 초망유위(草莽有爲)의 인재를 발탁하여 크게 폐정을 타파할 것.
(3) 내외의 대세에 정통하고 담력과 지식을 겸비한 제일류의 고문관 한 명을 일본으로부터 초빙해 크게 내치 혁신의 내실을 올릴 것.

이 세 가지를 실행한다면 그 나라는 당당한 동양의 일대 독립국이다.

구구한 관제 개혁, 무엇으로 이 나라를 죽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전기(戰紀)〕

한경(韓京)의 작은 전투(일본군과 조선군의 충돌)

7월 23일 일본과 조선군이 서울에서 충돌하여, 일본군이 조선군을 공격해 몰아냈다.

일본, 청, 조선 충돌의 원인

이보다 앞서 조선에서 동학당이 일어나자 청국은 속방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말을 빌려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도 역시 동시에 군대를 보냈다. 아마도 청국의 생각은 조선의 내란을 기화로 삼고 그 기회를 틈타 속방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일본 정부는 친한 우방의 불행을 불쌍히 여겨 이를 도와 그 폐단을 개혁하고 독립의 내실을 올리게 하려고 청국 정부에 조회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 일・청・한 3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밀접한 순치보차(脣齒輔車)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선의 화란(禍亂)은 바로 귀국과 우리 양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사태가 나날이 심해져 위기일발이 됨은 역시 귀국이 잘 알고 있는 바일 것이다. 따라서 귀국과 우리 양국의 협의에 따라 조선 조정을 향해 제반 제도를 개선하게 해 크게 자치를 바로잡게 하고 장래의 화근을 없애 백 년의 대계(大計)를 정하게 하는 것을 조선

조정에 권고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조선의 독립을 도움으로써 동양 대국(大局)의 평화를 확보할 것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청국 정부는 이와 같은 진지하고 간절한 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답변을 보내왔다.

동학당은 이미 평정되었다. 더 이상 상호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은 철수할 것이므로 귀국 군대도 동시에 철수해야 할 것이다. 또 조선 조정에 대한 귀국과 아국, 양국의 권고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조선 정부에 대해 개혁을 권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토리(大鳥) 공사가 조선 정부에 제의한 내정개혁의 요령(要領)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제1조 중앙정부・판(判) 제도 및 지방제도・절차를 이정(釐定)하고 인재를 급히 선발할 것.

一 유사(有司) 백관(百官)의 직무를 분명히 한다.

무릇 내치, 외교의 기무(機務)와 관련된 것은 모두 의정부로 귀속시켜 관장하게 한다.

육조판서는 책무를 나누어 직무를 관장하고 세도(世道)의 혁신을 기하여야 하지만 구제(舊制)를 존중한다.

내부(內府)의 서무와 치국의 서정(庶政)은 확연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속된 관리는 일체의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一 외무 당국자인 자는 간일(簡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권

한과 책임 모두 비중이 있는 대신으로 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

— 행정 여러 관서 중 필요불가결한 것을 남겨 두어야 한다. 유명무실한 것을 없애고 기타 통폐합에 힘써 번잡함을 제거하고 간략하게 해야 한다.

— 현재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구획이 과다한 것 같다. 잘 작량(酌量)하여 병합해야 할 것이다. 단, 통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 대소 관리는 임무를 나누어 직무를 관장한다. 필요불가결한 것은 존치하고 용관(冗官)은 잘 정리해야 한다.

— 구래의 격식을 깨부수고 널리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 매관(賣官)은 폐단이 생기는바 엄히 금지해야 한다.

— 대소 관리의 봉록(俸祿)은 시의(時宜)를 참작해 그 액수를 명확히 정하고 염절(廉節)을 키워야 한다.

— 대소 관리의 뇌물에 관한 여러 폐단은 법을 만들어 엄금해야 한다.

— 대소 관리, 지방관의 사리를 추구하고 정실로 흐르는 폐는 법을 만들어 교정해야 한다.

제2조 재정을 정리하고 부(富)를 명확히 심사하고 분명한 정제(定制)를 만든다.

— 국가의 출입 부과(賦課)는 마땅히 심사를 명료히 하고 명확한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회계 출납의 정무는 정확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화폐제도는 빠르게 바로 정해야 한다.
— 각 도의 전답은 그 수액(數額)을 명확히 하고 조부(租賦)를 정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각항 조세의 법을 정리하여 바로잡고 아울러 세원(稅源)을 찾아야 한다.
— 긴요하지 않은 지출은 대개 줄이거나 생략하고, 증가해야 할 것은 힘써 청구해야 한다.
— 왕래가 빈번한 관도(官道)는 잘 수선하고 넓혀야 한다. 아울러 서울과 중요한 항구 사이에는 철도를 부설하고 각 도주현(道州縣) 사이에는 전선을 통해 왕래와 교통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 각 개항장의 세무는 일체 자국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조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의 법 또한 마땅히 제정할 것.
— 종래의 법률 중 시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개정하고 혹은 시의를 참작해 별도로 법률을 정해야 한다.
— 재판법을 바르게 정리하고 사법의 공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 군비와 경찰을 잘 정리하여 국내 변란을 다스리고 국가를 편안히 유지할 것.
— 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 종래의 병사는 대체로 개혁하고 재력이 허용하는 한 신식 군대를 설치해야 한다.

一 경찰의 설립은 가장 긴요한 일이다. 서울에서 각 도에 이르기까지 엄하게 장정을 정하고 위서(衛署)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 학교 정책에 각기 힘써 정할 것.

소학교를 분설(分設)하고 아동〔童幼〕을 교육해야 한다.

一 소학교 설치에 점차 실마리가 트이면 규모를 확장하여 중학교, 대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一 생도 가운데 영민하고 준수한 자를 선발하여 외국에 나누어 파견하여 유학을 보내야 한다.

위의 5가지 대강(大綱), 26개 항목의 개혁안은 7월 10일 제1회 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일은 끝내 요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이어서 다음 11일에 제2회 위원회를 노인정에서 개최하였다. 당일의 제의안의 대요(大要)는 다음과 같다.

무릇 기간을 정해 시행을 요하는 것 역시 우리 정부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그 권고에 따를지 말지는 오로지 귀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다.

◎ 다음 건은 3일 이내로 한정해 의정(議定)하고 10일 내에 준해 의정(擬定), 시행해야 한다.

一 대개 내치와 외교에 걸치는 것. 서울로부터 중요한 항구에 이르는 철도, 전신을 설치할 것.

단, 이 마지막 조항의 철도, 전신 양 공사(工事)는 10일 안에 의정한 뒤 그 공정 등이 모두 갖추어지는 것을 기다려 분별해 공사를 일으켜야 한다.

◎ 다음 건은 6개월 이내에 의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一 각 관서의 직장부터 세무(稅務)에 이르는 건.

◎ 다음 건은 2년 내에 준하여 시행을 의정하여야 한다.

一 각 구의 전답으로부터 생도 가운데 우수한 자에 이르는 건.

이상

어찌 되었든 조선 정부는 오토리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체로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오토리 공사는 다시 조선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별도 공문으로 확답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어찌 헤아릴 수 있었으랴. 19일에 이르러 조선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개혁 요청을 거절해 왔다. 거절의 이유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만일 귀국의 요구에 따른다고 한다면 각국이 역시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매우 우려한다. 또 귀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시킴에 따라 민심이 동요하고 물정이 흉흉해져 이를 진정시킬 방도를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번에 결연히 귀국 군대를 철수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혁은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번복은 조선의 사대당 일파가 청국의 응원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한 것이다.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의 번복보다 더욱 한 걸음 압박하여 엄하게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담판을 하였다. 담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84년 조약에 기반하여 우리 군대를 위한 병영을 건축해야 한다. 속국 보호의 이름으로 청국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독립군의 체면과 관계가 있다. 마땅히 철병해야 한다.

만약 22일을 기한으로 확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선 조정의 개혁을 강행할 것이다.

22일은 최후의 확답 기한이다. 조선 정부는 아무런 확답이 없었으므로 다음 23일 우리 오토리 공사는 궁성으로 향했고, 여기에서 일한(日韓)의 충돌이 일어났다.

우리 일본 군대

22일 밤, 제국 공사관에서는 인마(人馬)의 왕래를 조직하고 동시에 용산에 있는 군영(軍營)의 동정이 어떠한지 살펴보니 ○○○○○ 이미 결속하여 움직이려고 하여 갑자기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

내일 23일 오전 4시부터 행군할 것이다.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실로 야간이 되기 전이었다.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렸다. 경성의 사문이 겨우 열릴 무렵, 함성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왕성의 사면은 이미 일본 군대로 포위되었다. 이때가 오전 5시였다.

일본군이 조선군을 내쫓다

일본군은 왕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부대로 나뉘었다. 하시모토(橋本) 소좌는 한 부대를 이끌고 정문인 광화문으로 향하고, 모리(森)

소좌는 후문인 창화문(彰化門)으로 향했다. 그리고 정문의 부대는 먼저 문 앞에 위치한 친군(親軍) 장위영(壯衛營)에 주둔한 조선군을 함성 소리와 함께 내쫓았다. 그 기세를 타 성문 벽에 접근하여 총상(銃床)으로 마구 때리면서 자주 함성을 질렀고, 후문의 부대는 이에 호응해 큰 물결을 만들었다. 혹은 공포를 쏘며 시끌벅적하게 지나갔다. 이보다 앞서 일본군이 왕성으로 향하자 엄중히 경계하며 말하기를, "왕성은 국왕폐하가 계시는 성이다. 함부로 폭발하지 말라. 우리 군은 성내의 조선군을 쫓아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발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갈 위협으로 수비병을 내쫓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발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앞문과 뒷문, 때로는 함성 소리로 성병(城兵)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성에 자리 잡은 조선군은 용이하게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후문의 수비병은 우리 군이 굳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고 2~3발을 쏘며 우리 군을 도발했기 때문에 '공격 호령'은 그 찰나에 용기를 고무시켰다. 섬광과 함께 굉음이 상응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산악을 덮었다. ○○○

우리 군 왕성 부근을 진정(鎭定)하다

○○○○○○○○○○○○○○○.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군은 사문을 엄격히 수비하고 한 부대로 하여금 부근을 약정(略定)하려고 하였다. ○○○○○○○○○○○○○○○. ○○○○○○○○○○○○○○○○○○○○○○○○○○○○○○○. 마침내 우영과 좌영의 조선군도 공격해 물리침으로써 경성 안을 완전히 진정시킨 것은 그날 황혼 무렵이었다.

조선군이 고전한 장소

이날의 사변에 조선군이 고전한 상황을 보면 삼춘문(三春門) 안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문안에 들어가 융무당(隆武堂) 좌우의 행랑을 보니, 신발이 계단 위에 있고 갓은 땅에 버려져 있고 가구가 널브러져 있었다. 또 그곳에는 조선군 2명의 시체가 누워 있었는데, 한 명은 코에 관통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교전지

진정한 교전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은 신무문(神武門) 밖 7~8정(町) 정도 떨어진 잔디밭이었다. 그곳은 융무당, 융문당(隆文堂)과 관풍전(觀豊殿)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그곳에 주둔한 조선군은 마치 우리 군이 그곳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군이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구호에 맞춰 소총을 발사하였다. 이 발사는 우리 군의 측면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매우 이익이었을 것이다.

이 교전 중 우리 군에게 있어 가장 위험했던 것은 관가문(觀稼門)

밖에 10여 명의 조선 병사가 있어 2문의 대포를 움직였던 일이다. 우리 군은 빠르게 나아가 4명을 쓰러뜨리고 약 10명을 패주시켰다. 그런데 그 포를 검사했더니 2문 모두 폭렬탄으로 대포 1문은 이미 장약(裝藥)을 준비한 상태였다. 만일 우리 군이 5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다소간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필시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군의 실제 숫자

조선군의 실제 숫자는 아직 자세하지 않지만 5~6백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수는 싸우지 않고 포성이 들리자마자 재빨리 도주하였다.

조선군의 일부는 뒷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잠시 버텼으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총을 버리고 담장을 뛰어넘어 모두 삼각산으로 도주하였다고 한다.

피아 사상자 수

조선군 중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60여 명이었다. 그리고 일본 기병 즉사 1명, 부상은 보병 2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노획한 대포는 15문, 소총은 1천 정 이상이다.

기관포는 매우 예리하였다. 또 소총도 '레밍턴' 외에 프랑스식 크라프 총 4~5백 정이 있었다.(이 크라프 총은 매우 예리하여 현재 프랑스 상비군은 이 연발총을 휴대한다.)

전승(戰勝) 여담〔餘聞〕

오토리 공사의 참궐(參闕)

오토리 공사는 무사히 왕궁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국왕 알현을 허락받아 자세하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상주하였다. "사정으로 인해 국왕과 차단당해 귀국의 호의를 거스르게 되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폐정의 개혁을 간절히 느끼므로 반드시 성의에 보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성의를 표시해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6호 일한 양국 공수동맹

일한동맹……이라고 말하면 조선이 일대 독립왕국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동맹과 같을 뿐이요, 중병에 걸린 노인과 아주 건장한 남자의 동맹과 같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일본 황국이 동양무쌍, 즉 세계에 비할 수 없는 의협적 무용(武勇)을 통해 세계 만국의 경쟁 마당 속에 마침내 의연하게 등장한 바의 활극 제1막의 문구이어라.……그 맹약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일한 양국 맹약

대일본 대조선 양국 맹약

대일본 대조선 양국 정부는 일본력으로 메이지 27년 7월 25일, 조선력으로 개국 503년 6월 23일에 조선국 정부가 조선국 경성 주재 일본 특명전권공사에게 청국 군대를 대신 철수시켜 줄 것을 위탁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공수하고 서로 도울 것을 합의하였다. 나아가 그 사실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양국이 공동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아래에 기명한 양국 대신이 각각 전권 위임을 받들어 체결한 조약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제1조 이 맹약은 청국군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수시켜 조선국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고 일조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은 청국과의 공수 전쟁에 임하고 조선국은 일본군의 진퇴 및 그 양식 준비를 위해 가능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이 맹약은 청국에 대해 평화조약이 맺어질 때 폐기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전권대신이 기명 조인(調印)함으로써 증빙으로 삼는다.

대일본국 메이지 27년 8월 26일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대조선국 개국 503년 7월 26일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

일한 양국 공수동맹조약

일본은 형의 나라이다. 조선은 아우의 나라이다. 형제 동기로서 서로 원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원래 당연하며 이상하지 않은 것이 물론이다. 이번 달 11일의 관보를 통해 일한공수동맹 조약서가 국내외에 공표되었다.……

생각하건대 조선은 이미 올해 7월에 결연히 청국 조정과 교제를 끊었고 더구나 우리 일본제국에게 그 영토와 영해에서 청군을 철수하고 내

쫓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원래 중국과 적대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공수동맹의 성문 조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상에서는 충분히 동맹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모름지기 이 공수동맹은 원래 음험하고 잠식적(蠶食的)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른 뜻이 없다. 단지 이것은 조선의 독립자주를 보호함으로써 영구독립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름지기 조선의 독립자주를 공고히 하여 종주국을 참칭하는 청의 간섭을 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것이다. 제국의 협고(俠固)로부터 공수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보호국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조선이 진정한 독립자주의 나라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 힘을 다해 싸울 뿐이다. 즉, 청군을 경계 밖으로 물리치고 또다시 들어올 기세가 없고 따라서 조선 내지에 간섭할 능력을 잃는다면, 길게 이 조약을 존치해 은연중에 보호국의 임무를 취하여 시기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이를 통해 청군을 경계 밖으로 내쫓는다면 우리 공수동맹의 임무가 충족되는 것인가. 이것은 큰 오류이다. 더욱이 청군을 철퇴하는 것으로 우리 제국이 조선을 위해 하는 것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필시 청이 다시 병력을 끌어 자칭 종주국의 권위를 휘두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즉, 청에 대한 일본제국의 교전적 관계에 이르러서는 설령 그들을 복멸(覆滅)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굴할 때까지 단연코 진행하여야 한다. 즉, 청군이 조선 영토를 떠나 우리 군이 먼 곳까지 쫓아갈 때에도 조선은 우리 군의 진퇴 및 그 양식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은 원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3조에서 본 조약의 폐기일을 청군이 조선 경내에서 철수할 때로 정하지 않고 청국과의 평화조약이 성립될 때라고 한 것 역시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

다. 그리고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원래 그들이 굴복해 강화를 하는 조약이어야 한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은 이번의 북경성 함락과 함께 일시적으로 크게 굴복할 것이지만 훗날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 일이 필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학당 관계 기사

• 조선의 폭도(25일 오후 1시 히로시마발)

안동, 봉산(封山)[1]에서 3천 명의 동학도가 우리 정찰병을 습격했다.

• 동학당의 동정(9월 25일 오후 4시 20분 부산발, 같은 날 7시 15분 히로시마착)

동학당의 선봉 50여 명이 은밀히 대구로 들어가 머지않아 내습할 조짐이 있다는 것을 탐지했다는 보고가 있다.

• 한민(韓民), 일본 병참관(兵站官)을 살해하다(부산 9월 25일 오후 1시 특발)

안동 근방에서 봉기한 동학당을 정찰하기 위해 파견된 다케우치(竹內) 소위 및 병졸 1명은 폭도의 습격을 받아, 다케우치 소위는 목 부위가 잘려 사망하였고 병졸은 폭도에 붙잡혀 양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당했으나 다행히 태봉(台封)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1 봉산(封山) : 원문에는 'ホウサン'으로 표기되어 있다.

• 동학당의 습격(25일 오후 1시 8분 히로시마발)

안동, 봉산의 동학당은 우리 정찰병을 습격했으나 다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안동, 봉산은 모두 태봉의 동쪽에 있고 이 지방에 3천 명의 동학당이 봉기해 일본군을 습격할 목적이라는 급보가 태봉의 병참부 사령관으로부터 자주 왔다. 그 때문에 23일 야간 정찰을 내보냈고 24일 다시 태봉으로부터 2리 반 떨어진 지점까지 부관을 보냈더니 과연 동학당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급보가 있었다. 따라서 즉각 근방의 사령부를 경계하고 낙동으로부터 지원군으로 수비병 및 공병을 보낼 것을 명하였다.

12호 동학당 수령 방문기

동학당의 상황을 탐색할 목적으로 지난달 10일 전주에서 동학당 수령을 방문한 모씨(某氏)의 필기는 다음과 같다.

이번 달 2일 용산을 출발해 광주, 이천, 죽산, 진천, 청주 등을 거쳐 9일 전주에 도착해 동학당의 수령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봉균(金鳳均)이 있는 전라 감영을 방문했다. 다음 날 김이 보낸 사람의 안내를 받아 포정국(布政局)의 뒷방에서 면회하고 3시간 필담하였다.

김봉균은 일명 전명숙(全明叔)이라고 한다. 내가 면회할 때는 김(金)이라고 칭하였다. 아마도 김은 실제 성이고 전(全)은 가성일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어 통성명하였다. 과거에 친구로부터 그 인물과 포부를 들어 갈망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에 경성으로부터 찾아온 내용을 알리고 이어서 나의 소지(素志)와 동양의 현 정세, 조선의 실상, 진정(眞正) 윤리(倫理)의 주의, 진정 경제의 주의를 말하

고 오늘날 대처할 방법과 수단을 논하며 김봉균의 교시를 청하였다. 김봉균은 역시 재삼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내가 조선으로 온 이후 느낀 소감을 들어 말하였더니, 김봉균이 말한 바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단지 민씨 일족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권을 휘두르고 사복(私福)을 챙기는 것을 보고 강개(慷慨)를 금할 수 없다. 여러 해 전부터 동지를 규합하여 이를 배척할 것을 바라서 자주 정부를 찾아가 호소했지만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씨 가문이 우리들의 소원(訴願)을 가로막고 국왕전하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군측(君側)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우리들의 거병이 뜻밖에도 매개가 되어 오늘날 일본과 청국의 전쟁을 조선에서 보게 된 것은 우리들이 천추(千秋)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다행히 일본이 두터운 의리를 가지고 자주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그 여력(餘力)을 모아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어 이미 민씨 가문을 배척하고 대원군을 세워 폐정을 개혁하고 정법(政法)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 우리들의 평소부터의 소망 대부분은 달성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뒤집어 생각을 고쳐 생업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 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들이 아직 자세하지 알지 못하여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동지들의 분기(紛起)를 제어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거동을 알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번에 공(公, 나를 가리킨다.)의 지인 여러 명과 만나 여러 차례 그 교유(教諭)를 받아 실로 오래된 미몽(迷夢)에서 벗어났다. 오늘 다시 공(公)의 내방을 받아 크게 나의 지견(知見)을 늘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

내가 질문하였다.

족하(足下)는 충의(忠義)의 선비이다.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 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실감하는 바이다. 단지 조선이 오늘날 쇠약하고 지치게 된 것을 오로지 민씨 일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아마도 민씨 일족이 망하는 것이 망하는 날이 아니고 그 쇠퇴하는 것이 쇠퇴하는 날이 아니다. 오늘날의 조선은 수백 년 이래 정법(政法)의 폐단이 자주 일어났어도 이를 혁신하는 자가 없고 헛되이 옛것을 지키고 세계의 대세를 달관하지 못하였고, 인습이 오래되어 마침내 이 비참한 지경에 가라앉게 된 것이다. 민씨 일족의 행위가 밉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똥 속의 파리일 뿐이다. 공(公)은 똥을 퍼서 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헛되이 파리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공(公)을 위해 이를 애석해한다.

김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똥을 버리는 방책을 나는 아직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를 가지고 어리석고 둔하다고 웃을지라도 진실로 어쩔 수 없다. 바라건대 공(公)의 설명을 들을 수 없겠는가.

이에 나는 더욱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김은 시종 묵시(默視)하였고, (내가 종이에 쓰는 것을 보며) 내가 말하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 앞으로 다가와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였다.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은 신하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바이다. 만약 이를 실행한다면 대의(大義)는 어찌하고 명분은 어찌할 것인가.

나는 아직 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성계전(李成珪傳, 내가 도항할 때 여러 책, 또는 구전에 의해 편찬한 것) 한 통을 품속에서 꺼내 제시하

였다. 김은 2~3줄 목독한 뒤 나에게 돌려주고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다. 나는 소매를 끌어 이를 제지하고 붓을 들어 "족하는 항상 왕도를 주장하고 서경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은(殷)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무왕(武王)이 과연 무슨 일을 하였는가〔聞足下常唱王道好讀書經、殷湯周武果爲何事〕"라고 크게 썼다. 김은 다시 자리에 앉아 잠시 곰곰이 보고 입을 다물고 또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다. 혹은 나의 얼굴을 주시하고 혹은 다른 곳을 보며 입술을 가볍게 떨었다.

이로부터 화제를 돌려 전주가 다시 함락되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최근 소문이 도는 동학도 재기(再起)의 진위를 물었다. 김이 말하기를, 전주에서 물러난 것은 경군(京軍)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학도가 재기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주현(州縣)을 횡행(橫行)하는 자는 우리 동지의 이름을 훔친 자로 우리들과 관계된 바가 없다. 운운.

다시 서양의 사정을 문답하고 제공한 술과 고기를 먹고 이별을 고하고 문밖의 여관으로 돌아왔다.

11일 먼동이 틀 무렵 김봉균이 나의 숙소로 찾아왔다. 나의 면전에서 어젯밤의 필담서를 찢어 불 속에 던지고 한전(韓錢) 10속(束) 정도를 주었다. 나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오전 10시 전주를 출발했다. 이날 아침 역시 청일전쟁의 이유와 경과에 대해 나와 필담하였다.

전주로부터 용담(龍潭)으로 갔다. 부산 상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전주로 돌아와 다시 청주로 가서 귀경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길을 바꾸어 보은, 화령(化寧) 등을 지나 15일 상주 능암리(綾巖里)에 있는 최시형(崔時亨)을 방문했다. 부재중이어서 김(金)의 소개장 한 통을 남기고 떠났다. 문경을 지나

마잠(馬岑)을 넘어 치동(齒冬), 연풍(延豐), 충주를 지나 지난 20일 오후 5시 경성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간 것은 실은 동생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였는데 가는 길에 동생의 친구를 만나 안심하였다. 김봉균을 방문한 것은 두 번째 목적이었으나,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김을 방문한 것뿐인 모양새가 되었다.

김의 풍채는 연령이 40세 정도, 얼굴은 조금 각지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눈에는 일종의 이상한 광채가 있었다. 글을 쓸 때는 입속에서 약한 소리를 내며 가볍게 완독(玩讀)한 뒤에 이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식견은 넓지 않지만 조선인으로는 드문 박식가이다. 이것은 항상 외부 사람을 접하기를 좋아하고 경청하기 때문일 것이다.

매우 담력이 있고 또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보통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마음이 깊다. 단지 보통 조선인과 같이 이를 언행에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다. 주의하여 그 약점을 은폐하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군자가 아니고 영웅이 아니고 또 간사한 사람도 아니다. 겉으로 차갑고 속으로 뜨거운 일개 좋은 남자이다.

이상 기억 속에서 꺼내 보내는 바이다.

9월 21일 성명

추신. 가는 길에 가짜 동학당의 소문을 자주 들었으나 실제로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라감사의 시정이 합당하다면 병력을 빌리지 않아도 소멸할 것이다.

김봉균에 관해서는 약간 칭찬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다. 우리 정부의 주선에 의해 이를 등용한다면 조선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 요컨대 조선인 가운데 보기 드문 남자이다.

이상 참고를 위해 올립니다.

◎ 대원군과 개혁

7월 23일 왕성(王城) 사변 뒤 대원군이 다시 나와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뒤 다시 대원군이 시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정을 모르는 자는 모두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애초에 대원군이 처음 나오자 반드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지만 신진(新進) 당파는 다른 권세를 빌려 점차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대원군이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청일 교전의 정세를 살필 때 일본군이 처음에 유리했지만 나중에 실패를 면할 수 없고, 평양전투도 병력 수에서 보더라도 청군이 승리할 것이라는 미혹한 생각이 아마도 대원군의 머릿속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전해 들은 말이어서 아직 대원군의 생각을 판정할 효력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평양에서 청군 대패배의 사실을 마침내 확인하고 나서 조선 조정의 수구파가 의향을 비로소 결정한 것은 지난 26일인 듯하다. 이러한 것은 평양 지방의 조선 관리로부터 단편적으로 도달하는 소식에 일본군 대승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마침내 사실이라고 깨달은 것으로 매우 우활(迂闊)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원군과 동학당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원군이 드디어 신정부에 힘을 펼칠 것을 결정하고 글을 써서 동학도를 타이르면 동학당 무리는 반드시 해산하고 다시 소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체로 지난번 편지 속에 조금 적어 둔 바와 같이 평양의 낙성에 앞서

정운붕(鄭雲鵬, 대원군이 가장 믿는 부하)이라는 자가 동학당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해 허엽(許曄)이라는 자를 통해 이를 당괴(黨魁)에게 보내려고 기도하였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中華)는 대군이므로 반드시 평양에서 승리할 것이다. 중국군이 평양에서 승리해 남진한다면 그 당은 무리를 모아 입경하여 왜군을 남북에서 협격하여 크게 위세를 떨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허엽은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한을 빼앗겼고, 정운붕 역시 경무[이윤용(李尹[2]用)의 지시에 따름]에 의해 포박당하려 하였으나 포리(捕吏)가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도주하고 몸을 숨겼다. 이 서한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수구파의 속마음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윤용은 포리 파견을 이유로 직에서 파면됐다고 한다. 대원군의 의향 역시 살피기에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이윤용은 대원군이 몰래 질시하는 신진파 무리와 함께 몰래 논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목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원군이 아무리 중추가 되는 기관을 장악하고 위세가 대단하였지만 지금은 10여 년 전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파에 대해 가혹하고 무참한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 당초부터 조금도 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빈번히 변명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대원군이 과연 어떻게 할지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바이다.

2 윤(尹) : '윤(允)'의 오타이다.

13호

• 동학당 사방에서 일어나다(위와 같음)

동학당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어제 경상, 충청, 전라 각 도에서 봉기했다. 그 가운데 전라도, 충청도의 도당은 연합하여 경성을 압박하려는 모양이다. 경성 가까이에 다가옴에 따라 조선군은 이를 진무(鎭撫)하기 위해 이 지방으로 갔으나, 오토리 공사는 지원병으로 각 도에 군대를 파견할 뜻을 대본영에 요청하였다. 우리 군은 즉각 응원을 위해 해당 지방에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 동학당 추토(追討)(15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에서 전보 보냄)

원산진 부근의 동학당은 경성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을 지나 부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소식이 있었다. 경성의 일본 육군 부대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추토(追討)를 위해 출발하였다는 경성으로부터의 화급한 편지가 있었다.

일청전쟁실기

日淸戰爭實記

2편(篇)

전라도의 보리농사

전라도는 조선에서 제일의 농업지이다. 이 지방에서는 동학당(東學黨)의 소란이 한 달 이상 지속되어 시기적으로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할 때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없어 매우 곤란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달랐다. 민심수람(民心收攬)은 동학당이 당초부터 늘 사용해 오던 수단이므로 추호도 농민의 생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읍촌(邑村)에서 소비하는 돈은 그들에게는 취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액수였기 때문에 상인들도 갑자기 붐비고 보리 수확도 마치고 모내기도 할 수 있었다. 이후 기후도 적절하여 농민은 모두 배를 두드리며 만족하였다고 한다.

동학당의 술회시(述懷詩)

관리의 전횡이 심한 상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으므로 조금이라도 기개가 있는 인민은 때때로 동학당과 같은 난민(亂民)이 되어 정부에 저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학당이 항상 외치는 시(詩)[1]는 다음과 같다.

>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金樽美酒千人血
> 옥쟁반에 담긴 맛난 요리는 만백성에게 짜낸 고혈이라
> 玉盤佳肴萬姓膏

1 시(詩) : 조선 후기 『춘향전』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이다.

촛대에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燭淚落時民淚落
노랫가락 높은 곳에 백성들 원성도 높아 간다 歌聲高處怨聲高

이것은 프랑스 인민의 자유의 노래와 같이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자가 밤낮으로 연이어 외치며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의기왕성한 불평을 행위로 잘 드러내 현 정부를 타도하고 혁명을 행함으로써 정치의 대개혁을 꾀하려는 기개는 조선 국민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9편

전라도 남부 동도(東徒) 진압 보고

지난달 30일 이곳 부산을 출발해 전라도 남부에 파견된 제4중대장 스즈키(鈴木) 대위로부터 어젯밤 별지의 형식을 취한 보고가 도착했다.(별지는 지난 1월 15일 전라도 보성군을 출발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부산에서

병참 겸 정박장사령관 이즈노 치사토(伊津野千里)

가와카미(川上) 병참총감 앞

제3회 보고

오늘(10일) 낙안군(樂安郡)을 출발해 파청역(波靑驛)으로 향하였다. 조성원(鳥城院)을 지나려고 할 때 동학도〔東徒〕 20여 명이 버젓이 양민으로 위장하고 나와 우리 부대를 맞이했다. 그중 거동이 매우 수상한 자가 있어 붙잡아 조사했더니 과연 동학도의 사악한 계략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군으로 하여금 바로 처형하게 하였는데,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오원기(吳元基) 효수(梟首) 외 8명 총살

나아가 파청역(波靑驛)에 도착해 사영(舍營)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주회(李周會, 이봉영〔李鳳榮〕의 별명)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해 왔다. 일본군 및 경군(京軍)의 일부는 이미 지난 8일 이후 장흥부(長興府)로 향했는데, 장흥부 북쪽 약 2리 지점에서 동학도를 만나 무찌르니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오늘(11일) 아침 일찍 장흥부로 가기 위해 파청역을 출발해 보성군(寶城郡)에서 휴게하던 중, 그 부근에 동학도가 매우 많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오후에 군 남쪽 약 2리 지점의 오류촌(梧柳村)[2]에 동학도의 두목을 비롯한 25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기노시타(木下) 소위를 보냈으나, 그 무리는 이미 도망을 가고 마을에 남아 있지 않아 혐의자 8명을 포박했다. 그 가운데 5명은 무죄이므로 풀어 주고 다른 3명[3]은 두목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잠시 당군(當郡, 보성군)에 수감했다.

오늘(12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다. 지난번 장흥 부근의 전투에서 패한 동학도의 대부분이 보성군 소관의 각처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는 당분간 이곳에 체류하며 잔당을 소탕하기로 결정하고 사방을 수색하게 했다.

2 오류촌(梧柳村) : 원문에는 '五柳村'으로 적혀 있다.

3 3명 : 원문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다.

오늘(13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다. 보성군 남쪽으로 약 1리 반 정도 떨어진 촌락 보춘동(普春洞)에 동학도 50여 명이, 또 북쪽으로 약 1리 떨어진 대가촌(代加村)에 백여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4] 쇼노(庄野) 특무조장(特務曹長)을 약간의 병력과 함께 보춘동에 보내 공격했다. 그런데 대가촌의 적은 이미 도망치고 마을에 없었다. 보춘동에도 역시 남은 자가 거의 없고 7명의 동학도와 7명의 혐의자를 포박했다. 오늘 밤 다시 다음의 정보를 얻었다. 보성군 동쪽으로 2리 남짓 떨어진 해창산(海倉山) 속에 백 명의 동학도가 모여 있다는 것이다.

오늘(14일) 어젯밤에 얻은 정보에 따라 중대(4분대 잔류)를 이끌고 해창산으로 향했다. 동학도는 우리 군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어젯밤 사방으로 흩어져 없었고 겨우 남아 있는 11명의 잔당을 포박했다. 그리고 산 위에 공사 중인 가옥 4채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적도가 모일 때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뒷날을 생각해 이것들을 모두 파괴했다.

오늘(15일) 보성군의 사방 1리에서 3리 지점에 하사(下士) 정탐대〔斥候〕 6조(組)를 파견하여 모두 51명의 동학도를 포박했다.

이상은 현재 이쪽 방면의 상황이다.

지난 15일 장흥을 향해 파견된 정탐대와 능주(綾州)에서 온 제2중대의 정탐대 및 구스노(楠野)[5] 소위의 서한 등에 따르면 제19대대 제1중대, 제2중대의 지대(支隊) 및 제18대대 시라키(白木) 중위가 이끄는 교도중대(教導中隊)가 연합하여 삼면(三面)에서 남쪽을 향해 진격하고

4 백여 명이……것이다 : 원문에는 "번역자가 말하기를, 이 사이에 아마도 탈자(脫字)가 있을 것"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 역자가 보강 번역하였다.

5 구스노(楠野) : 구스노 도시나리(楠野俊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중대는 오늘 영암(靈巖) 방면을 향해 능주를 출발하여 강진, 해남의 잔당을 공격할 계획이다. 그런데 구스노 소위에게 받은 편지에 따르면 그쪽 지방은 점차 진정되는 상황이었다.

제18대대의 교도중대는 죽천동(竹川洞) 부근에서 3~4백 명의 적과 조우하여 그들을 격파했다고 한다. 경성의 조선군 1백 명도 우리 부대를 따라 광양에서 순천, 낙안을 거쳐 보성군에 와서 이미 오늘 능주를 향해 출발했다. 당 중대는 장흥, 강진을 거쳐 해남 지방으로 향하려 하였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지방은 점차 진정된다는 보고가 있다.

보성군의 군수 이하 각 관리에 관해 의심되는 점이 적지 않고 그 밖에도 근처 마을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곳에 체류하며 충분히 정찰할 생각이다. 현재 각지의 정황으로 살펴보건대 앞으로 그들과 전투할 기회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라도 보성군에서 제4중대장 스즈키(鈴木) 대위

대대장 이마바시(今橋) 소좌 귀하

19편

대한정책(對韓政策)과 각 파(各派)

이노우에(井上) 백작이 조선 전권공사가 되고 난 뒤로 전력을 다하여 조선 조정을 위해 획책하였다. 그 결과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실상 효과가 있어 조선의 면목을 일신하는 것도 머지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재야의 정당 가운데에는 당국자에게 오산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다소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와 대한정략을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개진당(改進黨)은 동맹 각 파와 교섭한 후에 다음과 같은 대한정책을 건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혁신당(革新黨)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국민협회(國民協會)도 잠시 당국자에게 일임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득책일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교섭이 파탄되었으므로 개진당도 건의안 제출을 보류하였다고 한다. 건의안의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정략을 질문하려는 논자는 개진당원 외에도 적지 않으므로 조만간 질문서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개진당의 대한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정책

1. 운수, 교통, 경찰, 병원류의 물질적 문명의 이익을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을 최우선 급무로 삼고 교육, 종교, 미술 등 정신적 문명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착수해야 함.
2. 제국 정부는 속히 조선 내지의 반란을 진정시키고 충분한 군대를 주둔시켜 어리석은 인민의 모만(侮慢)을 예방하고 양민을 평안하게 할 것.
3. 현재 급히 필요한 경비는 제국이 대여하여 조선의 재정을 정리하게 할 것.

자금 대여의 방법

갑. 의회의 협찬을 받아 제국 정부가 대여한다.

을. 제국 정부의 보증 아래 일본 자본가로 하여금 급속히 조선은행을

설립하게 하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필요한 금액을 대여하게 한다. 단, 제국 정부는 조선 조정을 설득하여 해당 은행에 지폐발행권을 허락하게 한다.

병. 제국 정부가 이자와 변제 기한을 보증하고 일본 자본가로 하여금 임의로 대여하게 한다.

중앙정부 개량

1. 궁정과 정부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만기(萬機)의 정령(政令)은 국무대신으로 하여금 모두 책임지게 할 것.
2.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단, 섬세한 관제 개혁 등은 당분간 금기로 삼을 것.
3. 군제를 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적어도 내란을 진정하기에 충분하게 할 것.
4. 간명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소를 설치할 것.

지방정부 개량법

1. 각 도(道)에 3~4개의 부와 현을 설치하여 지사로 하여금 지방장관으로 삼고 그 이상의 관직은 모두 폐지할 것.
2. 지방장관의 권한은 거의 일본의 지사와 동일하게 할 것.

16편

한산(韓山) 개혁의 풍운(이전 글의 계속)

처음으로 이노우에(井上) 공사가 국왕을 알현하였다. 당일 공사는 결

심한 바가 있어 조선국의 병의 뿌리를 생각하건대 개혁의 일이 도저히 성공의 전망이 없으므로 부디 단념해야 한다고 서너 차례 반복하여 상주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그 뒤 김 총리대신[6]을 비롯해 다른 4명의 대신은 여러 차례 일본공사관으로 찾아와 공사가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하였고 그 간절한 요청은 거의 강요하는 말에 가까웠다. 5대신의 서약에 새로운 조항을 첨가해 이와 같이 결심하였다고 하며 더욱 강렬하게 압박하자, 공사도 점차 그 뜻이 간절함을 살피고 이에 동의를 표해 개혁에 종사할 것을 승낙했다. 즉, 12월 8일에 국왕에게 내알현(內謁見)을 요청하여 다시 의충(意衷)을 토로하게 되었다.

대군주(大君主), 국왕폐하는 공사가 참내(參內)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우리 모두는 이번에 동심협력하여 개량에 종사할 것을 결심하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다행히 경(卿)도 역시 이 대업에 찬동하여 참여한다고 들어 짐이 정말로 만족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배석한 김 총리대신, 이 궁내대신,[7] 김 외무대신,[8] 어 탁지대신,[9] 조 군무대신[10] 등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명하고 공사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다. 이에 공사는 임금의 얼굴〔天顔〕 가까이 다가가 5대신의 서약서 및 정부의 직무 권한에 관한 조목서를 책상 위에 펼치고 그 글자의 의미에 관해 수정할 부분과 추가해야 할 이유를 상주하였다. 폐하는 하나하나 이치에 맞으므로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이 알현은 단순히 국왕에

6 김 총리대신 : 김홍집(金弘集)을 말한다.

7 이 궁내대신 : 이재면(李載冕)을 말한다.

8 김 외무대신 : 김윤식(金允植)을 말한다.

9 어 탁지대신 : 어윤중(魚允中)을 말한다.

10 조 군무대신 : 조희연(趙羲淵)을 말한다.

대한 주문(奏聞)에 그치지 않았는데, 왕비는 어좌 배후의 밀접한 방에서 역시 친히 공사가 상주하는 말을 들었다. 즉, 이노우에 공사는 먼저 "오늘은 충분히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공사는 어디까지나 진심을 토로할 것입니다. 양 폐하께서도 부디 허심탄회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을 계속하였다.

> 본 공사가 곰곰이 왕실의 상태를 살펴보니 양 폐하께서 근심이 많고 시종 걱정하셔서 사사건건 의혹의 씨앗이 되지 않을지 여기십니다.(대군주와 왕비 모두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정은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李埈鎔)이 올해 6월 21일(양력 7월 23일)의 사변[11] 뒤에 자주 오토리(大鳥) 공사, 스기무라(杉村) 서기관을 향해 폐비(廢妃)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계획이 알려진 것을 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망을 가지고 한편으로 대원군으로 하여금 가까운 청나라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통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동학당을 교사하여 안팎으로 협력해 일본군을 축출한 뒤 자신의 그릇된 바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획한 증거는 동학당에게 보낸 왕복 서한 등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단지 폐비라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자의 지위를 움직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계(密計)는 언젠가 양 폐하가 듣게 되어 크게 성의(聖意)를 괴롭힐 게 분명했습니다.(대군주가 '그렇다'고 하셨다.) 또 박영효가 귀국하였

11 6월 21일의 사변 : 1894년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범사건을 말한다.

을 때 있었던 소문도 역시 매우 놀라신 이유였을 것입니다.(대군주가 '그렇다, 그렇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양 폐하의 결의(決意)를 저해한 결과 중궁(中宮)께서는 제일 가까운 친족, 즉 민씨(閔氏)를 도와서 불의의 재화(災禍)를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양 폐하는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신용할 수 있는 자, 즉 외척에 의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대군주와 중궁 모두 '그렇다'고 하셨다.) 마음이 아프신 것을 무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씨가 세도하여 국정을 주재하였을 당시는 어떠하였습니까. 민씨는 많은 무고한 양민을 내쫓아 비참한 지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비도(非道)를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열거한다면 그 증거 역시 뚜렷합니다.(이때 공사가 그 사실을 열거하였다.) 양 폐하는 당시 민씨는 정당한 국세에 의해 궁내의 수요를 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모두 위와 같은 부정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의 감정은 직접적으로는 민씨를 원망하지만 그 결과 간접적으로는 궁중을 원망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들 민씨에게 의지하려 하신다면 민심으로 하여금 왕실을 더 원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에 이른다면 양 폐하는 무엇에 의해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 공사가 이전에 자주 상주하였듯이 중궁께서는 다만 궁중에서 대군주의 덕을 보좌하며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본 공사는 어디까지나 양 폐하와 세자의 지위의 안녕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공사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본 공사는 즉, 일본국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

문에 일본 정부가 갖는 세력은 필시 양 폐하를 안전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군주는 이에 답하여 "그렇다. 경이 말했듯이 이준용의 일에 관해서는 짐이 매우 의심하고 있다. 그는 6월 사변 후 간절히 짐에게 고하기를 '일본공사는 폐비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어쩌면 조선의 국토를 침략할 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동에 주목하여 부디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짐은 당시 그의 말을 매우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와 부강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공사관의 내막을 살펴보건대 은연중 야심을 품은 자가 간절히 원해 할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고 하였다. 그자[12]를 일본공사로 임명해 주재(駐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경의 말이 무엇보다 짐의 마음에 들었으므로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왕비는 이때 공사에 대해 말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강화도조약(1876년) 이전에 양국의 감정이 막혀 있는 것을 걱정해 박정양(朴定陽)을 암행어사로 삼아 동래 부산으로 가게 하였다.[13] 아울러 우리 일족인 민승호(閔承鎬)에게 밀지(密旨)를 주

12 그자 : 이준용을 말한다.

13 박정양(朴定陽)을……하였다 :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을 말한다.

어 경상도로 가서 사정을 탐색하게 하는 등 열심히 일본과의 교의(交誼)를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은 어느 사이에 척왜(斥倭)주의를 지닌 자를 자극하여 마침내 음모를 기도한 자가 있어 하룻밤에 우리 가문 삼대(三代)는 화약 폭발로 인해 쓰러졌다.〔왕비의 친아버지 민치록(閔致祿) 부자의 거실 마루 아래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일이 있어 이 때문에 일가가 무너졌다.-필자주〕 그렇지만 병자년 강화도에서 서로의 전권대신(全權大臣)이 회동하여 양국의 강화(講和)가 예법〔俎豆〕으로 이루어져 나와 내 일가의 희망도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내가 귀국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고 이에 의해 우리나라의 부강을 꾀하려 한 것은 하루아침 일이 아니다. 지금 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진력하니 어떠한 행운도 이것만 못할 것이다. 나는 경의 말에 따라 굳이 내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것은 물론 오로지 내정의 개혁을 순조롭게 진전시켜 국가가 융성하기를 바란다.

경이 말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언제 어떠한 뜻밖의 불행이 발생하고 왕실에 어떠한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한 나머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만들어지고 딱한 여성의 처지에 겨우 동족의 비호를 필요로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만약 왕실이 만전을 얻고 시종 안녕하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 외척으로 하여금 국무를 장악하게 할 것인가. 경은 이것을 잘 양해하시라.

공사는 왕비의 말씀을 받들고 다시 말을 바꾸어, "이번에 불안하신 마음에서 민씨에게 의지하고 싶으시다는 생각도 일단 당연하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귀국의 신민(臣民)은 모두 민씨가 행한 종래 참혹한 시정 행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민씨를 몰래 왕궁에 끌어들여 밀의(密議)를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인심은 의구심을 갖고 나아가 왕실의 안전을 방해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또 본 공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민씨 가운데 어떤 자는 동학당을 교사하여 잃어버린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몰래 왕궁에 출입해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종이 조각을 꺼내 국왕에게 바쳤다. 민형식(閔炯植), 민응식(閔應植), 민영소(閔泳韶), 민영환(閔泳煥), 민영달(閔泳達), 심상훈(沈相薰), 이재순(李載純), 이경식(李耕植)[14] 등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 공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민영소는 현흥택(玄興澤), 김주사(金主事), 이인영(李寅榮), 김학균(金學均),[15] 김홍륙(金鴻陸) 등 여러 사람을 사주하여 각 공사관에 왕래하게 하고 또 민형식, 민응식, 심상훈 등은 동학당을 교사하였습니다."라고 보충 언급했다.

대군주는 이 말을 들으시고 "민씨가 동학당과 음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여 동학당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민씨는 나라의 역적이니 이들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학당과 민씨는 기름과 물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자가 서로 결탁해 음모를 버젓이 행하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공사는 "동학도가 처음에 일어날 때 어쩌면 이것을 구실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들은 일개 불평

14 이경식(李耕植) : 이경직(李耕稙)의 오기이다.

15 김학균(金學均) : 이학균(李學均)의 오기로 보인다.

당일 뿐입니다. 민씨가 일단 정권을 잃고 일문(一門)이 불평을 품고 재야로 흩어지자 바로 불평과 불평이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대군주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잠시 동정을 살펴 단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민영소는 빈전(嬪殿-世子妃)과 숙질(叔姪) 사이이고, 민영환은 중궁전과 종형제 사이이며, 이재순은 왕족이다. 이러한 관계로 매번 왕궁에 출입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금지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미완)

20편

한산개혁의 풍운(제16편의 계속)

이노우에 공사는 12월 8일의 내알현(內謁見)에서 여러 의충을 토로하고 또 민씨 척족의 왕궁 출입을 금지할 것을 상신하였다. 대군주는 앞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공사는 "위와 같은 인물이 왕궁 안에 출입하고 그들이 정탐한 것을 신임하신다면 마침내 의혹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즉, 내관의 말을 진실이라고 들으시고 각 대신 또는 공사 등에게 내의(內意)를 알리시는 것은 궁정의 비밀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해가 됩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지난번 본 공사가 배알했을 때 국정의 개량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단언하고 물러난 다음 날 궁중 내관의 사자(使者)라고 하며 어떤 자가 영국 공사관으로 가서 일본공사의 노기(怒氣)를 풀 방도가 없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도 대군주로부터의 분부입니까, 혹은 내관들이 대군주가 근심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명을 바꾸어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까."라고 상주하였더니 대군주는, "그렇다. 그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더 나아가, "듣자오니 대군주 및 중궁께서는 지금까지 입시(入侍)한 주사(主事) 등을 상대로 각 공사관에 직접 왕래하게 하며 해당 외교상의 일을 몰래 논의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만일 당국자인 외무아문을 제쳐 두고 군주가 스스로 외국 사신과 교섭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이는 외국에게 폐하가 대신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의 성질에 따라서는 이 때문에 한바탕 큰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대군주와 중궁은 한목소리로 "과연 종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삼갈 것이다."라고 사과하였다.

공사는 다시 상주하여 말하기를, "지금 동양의 대세를 훑어보건대, 중국은 내부의 부패에 의해 이번 교전[16]에서 연전연패하여 거의 수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더 이상 중국에 의지하여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귀국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일본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득책입니다. 일본도 역시 종전부터의 호의를 계속 이어 가능한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귀국이 시종 의혹의 늪에서 방황하고 도리어 우리의 환심을 잃는 행동을 한다면 마침내 일본의 호의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명의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부인이 수많은 남자를 향해 사랑을 품고 교태를 부린다면 마침내 한 남자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일 역시 이와 조금 비슷합니다."라고 하였다. 대군주가 말하기를, "진실

16 이번 교전 : 청일전쟁을 말한다.

로 경의 말과 같다. 우리 군신(君臣) 상하가 지금은 단지 귀국에 의지해 국보(國步)[17]를 나아가려고 기대할 뿐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셨다. 이때 왕비가 국왕에게 귓속말을 하자 국왕은 말을 고쳐 "짐이 최근 박영효를 채용할 뜻이 있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공사는 "박의 신상에 관해서는 본 공사가 주청(奏請)하려고 하였는데 폐하께서 먼저 관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박영효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를 떠돌며 많은 괴로움을 겪고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사이 나라를 걱정하여 편히 침식을 하지 못했던 점, 귀국할 때 소인배에게 이간질을 당해 한때 좌절한 점, 공사가 착임한 뒤 자주 박영효를 불러 그 의지를 확인하고 또 박영효가 일본군의 힘을 빌려 왕궁으로 들어가 왕비를 폐위한 다음이 아니면 개량의 효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발설했다는 소문이 있어, 과연 사실인지 물었더니 그러한 일은 신명께 맹세하고 발설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이간질을 위해 접촉했다고 안색을 바꾸어 해명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국가에 많은 일이 있는 시기에 이러한 인물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상주하였다.

대군주와 중궁은 매우 기뻐하시며 "경이 그 사람을 신용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짐(朕) 역시 왜 의심하겠는가. 바로 대신에게 명하여 복작(復爵)하고 임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만족함을 답주(答奏)하고 "장래 이 사람은 반드시 왕실에 성실을 다하고 결코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본 공사가 감히 양 폐하에게 보증드립니다. 또 작위를 복구한 다음은 속히 양 폐하를 알현하여 기왕의 것을

17 국보(國步) : 나라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지지 않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내리신다면 그자는 양 폐하의 은덕에 감읍하여 반드시 한 몸을 던져 왕실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 갑신(甲申)의 일에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사면하시어 양 폐하의 관대한 특전을 받들게 하기를 바라옵니다."라고 말씀 올렸다. 대군주와 중궁은 입을 모아 "박영효를 사면하고 복직시키는 이상 다른 자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박영효는 국례(國例)에 따르더라도 작위를 회복한 후에 숙배(肅拜)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이 사람은 부마(駙馬)의 대우를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짐은 속히 소견(召見)할 것이다. 또 중궁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히 보살핌을 받은 연고도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소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미 어제 현흥택으로 하여금 예복의 흉패(胸牌, 품위에 따라 차등이 있다.)를 증여하였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수령하였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그렇다면 충분히 그자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양 폐하의 은우(恩遇)에 감읍하여 필시 양 폐하의 안태(安泰)를 꾀할 것입니다."라고 상주하였다. 양 폐하는 "오늘 경의 주언(奏言)으로 크게 짐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효를 채용하는 이상 경이 이 사람에게 많은 충고와 도움을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하고 공사도 역시 만족을 표하고 물러났다.

대원군의 분수에 넘치는 야망과 야심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왕비를 폐하고 세자에 대해서는 애손(愛孫) 이준용이 세자를 대신하도록 기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노우에 공사는 전날의 알현에서 왕위의 계승과 왕비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또 왕비가 음으로 양으로 민씨를 비호하고 이에 의지하면 왕실은 인민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계속 주장하였다. 결국 (대원군이) 종래

암중모색하는 바를 알지 못했던 국왕과 왕비도 이를 깨달았고 무엇보다 일본공사가 없다면 한시도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노우에 공사가 알현한 뒤 풍운은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고 박영효가 임용되고 이준용 씨가 공사로 나가는 일이 순조롭게 진전되었다. 박영효는 우리 공사관으로 와서 이노우에 백작으로부터 두터운 임금의 뜻을 받들고 감읍하여 군주와 국가를 위해 일신을 희생할 것을 맹서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질(舊秩)을 회복하게 되자 참내(參內)하여 국왕, 왕비, 세자를 알현하고 은혜에 감사드리고 "신(臣)이 뜻밖에 임금님의 큰 덕을 입어 오늘 다시 천안(天顔)을 지척에서 뵈오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히 일신을 나라에 바쳐 보은하려고 합니다."라고 상주하며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자 국왕도 역시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셨다.

이준용은 중심에서 벗어나 사신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혹은 대원군이 이준용을 밖으로 보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인지 그 뒤 사람들을 향해 이준용은 "나는 간절히 일본공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중궁이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원군은 공사가 알현할 때 국왕과의 담화에서 이준용의 파견에 관하여 왜 언급하였지를 몰래 전하고, 국왕에게 가서는 외국 사신과는 내부적인 상담을 하면서 도리어 내부에 있는 자신과 상담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등 온당하지 않은 말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노우에 공사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다시 참내하여 알현하고 대군주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았다. 대군주는 박영효가 그제 참내하였다고 하며 그 용모가 종전과 두드러지게 다르지 않다는 점, 오랫동안 일본에 있어서 지식을 넓히고 경험도 쌓았다는 점,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불러서 자문하고 아울러 공사와 논의하게 하는 등 편리함이 크다는 점, 사은보효(謝恩報效)를 아뢰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하나 진심에서 나와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느껴진다는 점, 따라서 사양하지 말고 직언하고 극간(極諫)하라고 분부하였다는 점 등을 말씀하셨다. 왕비는 대군주의 배후에서 박영효의 저택은 이미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박영효가 선대 국왕[18]의 부마이기 때문에 그 저택은 왕가에서 하사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양 폐하가 이 사람의 과거 허물을 사해 주는 것으로도 너그러운 분부인데 지금 도리어 우대하시니 이 사람은 감격하여 왕가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할 것입니다. 양 폐하가 이미 이와 같이 신료(臣僚)를 우대하셨으니 귀 조정이 어찌 충신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박영효의 기질이 교묘한 말로 허물을 가리지 않고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경직하여 거침없이 기위(忌諱)를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양 폐하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람을 충분히 신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상주하였다. 그로부터 이준용의 이야기로 이어져 중궁께서 그가 공사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이준용이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드렸다. 중궁은 "뜻밖이다. 과거에 이를 거부한 기억이 없다. 본인의 핑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대군주는 공사로 파견하는 일을 이준용의 아버지인 궁내대신[19]에게 권유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대원군에게도 납득시키도록 할 것을 희망하여 공사는 이를 받들었다.

18 선대 국왕 : 철종(哲宗)을 말하다.

19 궁내대신 : 이재면(李載冕)을 말한다.

이로부터 공사는 군무아문의 조직 및 군대의 교육에 관해 한마디 하겠다며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주하였다.

> 이번에 사영문(四營門)을 모두 폐하고 그 사무는 전부 군무아문이 관할하는 것은 군사의 개혁상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무릇 일국의 병제(兵制)는 하나의 길로 나오고 명령이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귀국과 같이 사영으로 나뉘어 서로 주요 장수〔主將〕의 어금니와 발톱이 되어 때로는 음험한 술책을 달성하는 날카로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군대의 큰 폐해이며 결단코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국의 병권은 군주가 대원수로서 이를 수람(收攬)하고 다른 사람의 조종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단 군대는 흉기이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폐하라 하더라도 먼저 정부의 대신에게 자순(諮詢)한 뒤에야 움직이도록 해야 할 뿐입니다.(대군주는 '그렇다, 물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 그런데 군무의 행정과 군대의 명령은 저절로 관련될지라도 그 사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군무아문 대신은 군대에 관한 행정사무인 군대의 편제, 피복, 무기, 양식, 장교의 진급 등의 일을 관장하고, 참모관은 병사의 훈련, 교육, 작전계획 등을 관리하여 양자가 협조하여야 군사는 완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공사는 이 양자에 대해 함께 적당한 인물을 선정해 귀 정부의 고문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즉, 공사관 부속 구스노세(楠瀨)[20] 소좌(少佐)

20 구스노세(楠瀨) : 구스노세 유키히코(楠瀨幸彦).

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군사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군대의 교육, 작전상에 관한 방면을 담당하게 하고 별도로 군무상에 경험이 있는 한 명을 군무아문의 고문으로 삼아 오로지 편제, 조직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의 군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마치 일본의 구번(舊藩) 시대의 사족과 거의 유사한데 일단 병적(兵籍)에 들어간 자는 이를 자손에게 세습하는 관습이 있다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에서는 장정(壯丁) 중 합격한 자를 골라 병력에 충당하고 노후하여 쓸모가 없는 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역(罷役)하기 위해서는 수 개월분의 급료를 일시에 지급하든가, 혹은 녹권(祿券)과 같은 것을 부여하든가 하여 무엇보다도 이들의 다수가 일시에 기아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조치는 시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불만이 모여 마침내 다른 불평당에 가담한다면 왕가를 원망하고 또 하나의 말썽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한 뒤에도 감히 불의를 기도하고 명분을 그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크게 징벌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폐하가 전국의 병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대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자궁(世子宮)입니다. 세자는 폐하가 돌아가신 뒤 대신해서 대원수의 임무를 맡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체의 강장(强壯)에 힘쓰시는 것은 물론, 군무상에 관한 학문부터 실제 직무를 실천하셔야 합니다.(대군주가 말하기를, 귀국의 근위대장은 친왕이라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귀국의 현재 사정으로도 근위총독은 세자가 스스로 맡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왕궁 이외의 종친 누구라도 자신의 의사를 달성하기 위해 병권을 조종할 우려가 없고 왕실의 공고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무릇 군대의 일은 사관(士官)의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관이 있어야 용맹하고 활달한 사졸(士卒)도 움직일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는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약하지 않지만 이를 통솔하는 사관이 군사상의 교육이 없고 기율이 엄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교전하여 연전연패하고 지금까지 한 번의 승리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에 기인하는 바입니다.

대군주는 공사의 상주를 잘 들으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어 "군무상에 관한 일체의 일은 경의 의견에 따르겠다. 구스노세 소좌 등을 고문으로 삼는 일도 동의한다. 또 세자로 하여금 근위총독을 맡게 하는 것은 사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세자에게도 내년 봄 일찍부터 군대의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사관학교 같은 것을 왕궁 근처에 설치해 사관생도를 양성하게 해 세자에게도 스스로 사관생도와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근위병의 조직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이 또한 공사에게 부탁한다. 회고해 보면 지난 임오년 귀국으로부터 호리모토(堀本)[21] 중위를 초빙해 우리 사관생도 및 군대가 훈련을 받게 한 적이 있었다. 만일 그때부터 계속해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우리 군대도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을 것이다. 불과 1년도 못 되어 폐지해야 되는

21 호리모토(堀本) :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助).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유감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뿌리를 배양하지 않고 가지가 번성하기를 바란다면 끝내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군대의 훈련 역시 그러하여 병권이 모두 종척(宗戚)에 속하며 간혹 1~2명의 무신(武臣)에 맡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군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도리어 위험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호리모토 중위의 훈련의 공로가 중단된 것을 한탄하셨지만, 그때의 군대가 정련(精練)되었다고 한다면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참독(慘毒)함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훈련이 도중에 중단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본 공사는 오로지 국가를 위해 병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되지 않고 반드시 대원수, 즉 폐하께서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자께서 근위대장으로서 군사에 숙달되실 필요가 있다는 뜻도 폐하께서 돌아가신 뒤 도움이 되기를 바란 것이고 왕가(王家) 백 년의 계획을 생각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대군주는 이를 받아들이셨다.

이로부터 이야기는 궁내 개혁으로 이어졌다. 대군주가 말씀하시기를, "폐정 개혁은 먼저 궁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내시(內侍)의 내관〔內宦〕을 모두 폐하였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 내시의 직무는 삼전(三殿, 국왕·왕비·세자궁)에 근시(近侍)하여 내외의 사역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를 폐하자 곧바로 사역에 지장이 생겨 약을 복용하려고 해도 명을 받들 사람이 없고 온돌방에 불을 지피려 해도 사역을 맡길 자가 없어 매우 곤란하다. 어젯밤에도 짐이 스스로 나와 온돌을 때고 약을 명하는 등 군주와 심부름꾼을 겸하는 형편이어서 너무나 우습다. 군주가 이와 같이 부자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대원

군의 처소에는 심부름꾼이 매우 많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공사는 "개혁이 극단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과거 이와 같이 갑자기 개혁을 실행하기 바란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릇 일에는 질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관과 같이 오랫동안 왕실의 일을 해 온 자를 지금 쓸모없다고 바로 파직하여 다음 날부터 길거리를 방황하게 하고는 돌보지 않는다면 군주가 자비롭지 못한 것입니다. 재직 연한 등을 잘 조사해 합당한 수당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폐한다면 이들 내관이 해 오던 직무는 누구에게 취급하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본 공사가 주로 논한 것은 정치에 관해 내관들이 중간에서 간섭을 시도하는 경우 폐하와 각 대신 사이에서 친정(親政)을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 것뿐입니다. 사용하시는 내관을 잔혹하게 갑자기 내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의 내관은 잠시 종전대로 사역하시고 이어서 궁내부의 관제를 제정하여, 내관을 대신해 직무를 행할 자를 정하는 날에 이를 파직하시는 편이 온당할 것입니다. 내관 중에서도 충분한 인물을 선정해 궁중의 비밀을 유지하기에 괜찮은 자를 남기시는 편이 마땅할 것입니다."라며 놀라서 상주하였다. 그런데 대군주는 "대신들은 하루도 내관을 궁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일본공사의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짐도 그렇게 믿고 곧바로 단행하였다. 지금 공사의 말을 들으니 그 뜻을 알겠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내시(內侍) 10명, 외부에 사역하는 자 10명, 모두 20명 정도를 불러들이겠다. 조만간 종묘에 행행(行幸)할 때에도 내관이 없다면 무엇보다 의복을 갈아입을 준비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경의 말을 들으니 안심된다. 일단 오늘부터는 군주의 전무(專務)로 돌아가 심부름꾼을 겸하지 않겠다."라

고 크게 웃으셨다.

공사 또한 "스무 명에서 서른 명의 내시를 잠시 두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궁내부 관제가 발포되어 봉사(奉仕)의 직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궁내, 탁지 양 대신에게 말해 개혁이라고 해서 그렇게 극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대군주는 "앞으로 동짓날에 종묘로 행행하여 서문식(誓文式)을 거행한 뒤 팔도 신민을 향해 서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칙유를 일반에 내려 신정(新政)의 취지를 보이고 인심의 귀향(歸向)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공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공사는 이 일은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상주하고 대군주는 폐정일신(弊政一新), 즉 개화의 뜻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당일은 중궁에게도 가마를 함께 타고 부부가 식장에 임해 천년에 한 번 있을 예식을 거행하면 어떠한가라고 자순하였다. 공사가 "말씀이 지극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군주는 또 조선에서는 왕실에서 경전(慶典)을 거행할 때에 팔도에 대사면을 선포하고 관직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몇 명에 한해 관직의 지위를 내리는 관례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에 관해 질문하셨다. 아무래도 사변이 있은 뒤여서 민씨 가운데 죄명을 쓰고 적폐(謫廢) 중인 자, 동학당과 관계가 있는 자가 많아 대사면이라고 한다면 이들도 역시 함께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개혁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현재 이를 단행한다면 그 결과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때문에 공사는 즉답을 드리지 않고 숙고한 다음 답주(答奏)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때 대군주는 책상에 일본 궁내성 관제의 번역서를 펼치고 공사를 향해 "외사과(外事課)는 무엇인가, 문사비서국(文事祕書局)이란 무엇

인가?"라며 두세 가지 하문하여 공사는 일일이 이에 봉답(奉答)하였다. 또 궁내부 관제에 관해서도 다소 국내외의 사례를 참작, 절충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 적당한 인물이 있어 이견이 없다면 궁내부로 불러 궁내대신과 협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상주하였다. 대군주는 이에 동의하시고 다시 말을 고쳐 "앞으로 상호간은 한 가족과 같으므로 짐이 부덕하고 그 밖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기탄없이 곧바로 충고를 듣겠다. 짐은 반드시 경이 간하는 것을 받아들여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진심이 관철되었음을 기뻐하고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음은 본 공사의 천성입니다. 이미 폐하도 본 공사가 자주 진알(進謁)하였을 때 상주한 바에 관해 헤아리셨을 것입니다."라고 상주하자 대군주는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기를 바란다. 또 각 대신의 상주에 의거해 재가할 여러 법령 등을 정리하는 일은 먼저 경에게 상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견인인(見認印)이라도 있다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의 의향은 어떠한가."라고 분부하셨다.

공사는 "지당한 생각이므로 어떻게든 각 대신과 상담하겠습니다. 각 아문의 대신이 주관 사무가 빨리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여 여러 법령을 남발하는 등의 폐가 있다면 각 아문 사무의 진보의 정도에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것은 매우 진척되고 어떤 것은 심하게 늦어져 마침내 병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므로 여러 대신은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여러 대신으로부터 상주하여 재가를 청하는 일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본 공사를 부르시어 하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대군주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세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어찌 되었든 유약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충분히 요양하셔서 속히 건강해지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적절한 시기를 보아 본 공사의 지인 가운데 유명한 의사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시모토(橋本), 벨츠 등은 의사 중의 대가이므로 그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일단 진단을 받은 다음 섭생법(攝生法)을 강구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상주하자, 대군주와 중궁은 입을 모아 "경의 친절함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세자는 현재 어디에 질환이 있는지도 판정하기 어려워 일단 약용(藥用)은 어떠한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는 "의사가 진단하였다고 해서 바로 복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먼저 그 병원(病源)을 알아낸 후 첫째로 적당한 섭생법을 행해야 합니다. 훗날 세자는 근위도독(近衛都督)으로서 군대의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신체에 문제가 많으면 도저히 그 직무를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내년 봄이 되면 용맹하고 활발하게 군사상의 학문을 강구하시고 다른 무관에게 권해야 할 직무 및 전술상의 일도 학습해야 할 것이므로 세자의 건강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상주하였고 양 폐하로부터는 "그렇다면 한 번 그 대가들에게 진단을 받고 싶으므로 부디 경이 주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사도 마침내 자신의 친절함이 관철되었음을 기뻐하며 물러났다. 이날의 알현에는 양 폐하 모두 이전에는 없었던 만족을 느꼈고 모든 일이 잘 풀려 가장 기분 좋게 이야기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완결)

동도(東徒) 토벌 보고

이번 달 8일 대구에서 청산 부근으로 파견된 대구수비중대장 미야케

(三宅) 대위로부터 별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5일 부산병참감 정박장사령관 이즈노 센리(伊津野千里)
가와카미(川上) 병참총감 귀하

1월 8일 오후 7시 대구병참사령관 이즈노(伊津野) 소좌로부터 낙동(洛東)병참사령관의 협의에 따라 영동(永洞) 산간의 동학도 진압 명령을 받고 1분대를 인솔해 즉시 대구를 출발했습니다. 같은 달 10일 황간(黃澗)에 도착하니 동학도는 이미 청산현(靑山縣)으로 퇴각했다는 내용을 이전에 출장한 구와바라(桑原)[22] 소위가 보고했습니다. 본관은 '슈'산(シウ山)을 거쳐 그 지역을 향해 공격할 것이므로 구와바라 소위는 율계(栗溪)로부터 청산으로 나아가 동학도를 공격하도록 명했습니다.

같은 달 11일 청산에 도착하니 동학도는 이미 원암(元岩) 방면으로 퇴각했습니다. 12일 구와바라 소위가 이끄는 2분대를 전위(前衛)로 삼고 1분대 및 조선군을 본대(本隊)로 삼아 본관이 이를 이끌고 동학도를 추격해 수피(首皮)〔청산의 서북쪽 약 2리〕에 이르렀는데, 한 명의 동학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쵸'안(テウ安)[23]〔청산 서북쪽 약 4리〕에 도달하니 척후병뿐이었고 동학도의 본대는 이미 종곡(鐘谷)으로 퇴각한 것 같습니다. 구와바라 소위는 달빛을 이용해 야습해서 그들을 격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후 7시 장안을 출발해 1분대와 상주(尙州)의 조선군 2백 명을 이끌고 본도(本道)의 우측 산길을 행진했습니

22 구와바라(桑原) : 구와바라 에이지로(桑原榮次郎)이다.

23 쵸안(テウ安) : 장안(長安)으로 보인다.

다. 오후 9시 각 부대가 종곡 부근에 이르니 동학도가 곳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추위를 녹이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익(右翼)에 있던 구와바라 소위가 동학도의 세력이 매우 많으니 병사들을 우익으로 합쳐 공격하자고 청해 왔으나, 좌익(左翼)의 동학도도 역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병사를 합칠 수 없어 양익(兩翼)이 각개 공격하도록 구와바라 소위에게 명하고 오후 10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약간 저항하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 마을의 주요부를 점령하고 전투를 하면서 철야했습니다. 같은 달 13일 오전 7시 다시 공격을 시작했는데, 구와바라 소위가 이끄는 2분대는 우익 산 위로 가고, 좌익 산 위에는 조선군 20명에 일본군 3명을 배치하고, 중앙 산 정상에 본관이 1분대와 조선군 110명을 이끌고 행진했습니다. 약 백 미터를 전진했는데 전선(戰線)의 후미인 동학도는 종곡 북단의 고지 또는 촌락을 점령해 그 기세가 매우 창궐했습니다.〔그 수는 약 만 명 이상〕 전투가 무르익자 그들은 우리 양익으로 전진해 거의 포위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 돌파를 시도했고 한때는 기세가 자못 맹렬했으나, 우리 병사는 분투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동학도의 제1선이 점차 약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시기를 보아 돌진해 적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적은 동북방 삼거리 묘막(妙幕)과 이등산 꼭대기로 나뉘어 달아났습니다. 조선군에게 그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종곡에서는 동학도가 매우 난폭하게 방자하여 인민들이 도피하여 우리 군을 급양(給養)할 수 없었습니다. 보은군에 이르러 부대를 주둔하고 그 동정을 살폈더니 북쪽의 적은 청주(淸州), 청안(淸安), 음성(陰城), 괴산(槐山) 등지로 패주한 탓에 그 근방에서는 동학도의 형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15일 구와바라 소위는 황간으로 돌아와 낙동으로부터 지원병으로 파견된 이시카와(石川) 군조(軍曹)의 1분대와 본관이 인솔하는 1분대를 이끌고 낙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전투로 구와바라 소위는 왼쪽 다리에 경상을 입었고, 상주의 조선군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동학도의 사망자 수는 백 명〔그 가운데 야습 때 검살(劍殺)된 자가 수십 명 있습니다. 또 상주 조선군의 보고에 따르면, 수령 정대준(鄭戴俊)과 인규홍(仁奎洪)도 이번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이고 노획한 소와 말이 수십 마리, 무기도 상당수 획득했습니다.

낙동(洛東) 후비보병(後備步兵) 제10연대 제2중대장
1월 17일 미야케 다케요시(三宅剛義)[24]

24 미야케 다케요시(三宅剛義) : '三宅武義'의 오기로 보인다.

원문

原文

甲午朝鮮內亂始末

函南逸人 編

現世紀の大勢世界眼眸の傾注するところ一に東亞の一極に集り苟も世の志士と稱し政治家と呼はるるもの此等東洋政略に東洋商略に汲汲として其論究に力を盡くすもの蓋し又故なくんばあらざるなり抑も朝鮮の國たる蕞爾たる一小半島國弱く民野なり然りと雖其の一擧一動たるや東亞の大勢に至大の影響を及ばすもの東西名國の潛心注目を怠らざる亦た宜なりとす然れども此國紀綱の紊亂と政務の澁滯とは立國の基礎一段の敗類を來し國帑の缺乏と民心の腐敗とは病魔の深く膏盲に入るが如く獨立の名ありて其實なく只僅かに今日一縷の命脈を明滅の間に繫ぎ得るもの折も何故ぞや實に朝鮮は東洋に於るバルガン半島たるなり四隣其爪牙を磨し其肉を窺ふこと久しと雖亦た如何ともするなきなり魯決して之を併すことを得ず英敢て之を犯すこと能はず支那又た之を己れに隷屬せしむることを得ず我國亦た容易に之を動かし難し之れ東洋の和平を維持するの上に於て將に然らざるを得ざるところのものありて存するなり顧て此國內部の有樣を觀察するに各種不平黨の潛勢力は今や漸く其の歩を進め政府の紀綱振はざるに乘じ革命を庶幾すべしとなし內地各所に蜂起し內は姦佞を斥ぞけ忠良を進め外は斥倭斥洋主義を實行すべしといふを名とし其行爲は極めて着實を旨とし妄擧を避けて專ら地方士民の歡心を買ふことを勉めたれば從來中央政務の澁滯と地方政治の積弊とによりて朝政を厭ひつつありたるの士民は爭て之に應じ其の勢頗る猖獗を極め監司を殺し郡守を追ひ官兵を敗り將に大擧して京城を衝かんとするの勢あり此に於てか通商各國は皆な其國居留民を保護するを

名として續續出兵し淸國先づ之を送り魯之に次ぎ我國亦た若干の兵員を送致するの止を得ざるに至れり今や朝鮮の危機一髪の間に在り■■乎として殆ど累卵の如きものあるを見る幸にして官兵の力能く反徒を鎭壓するに足らんか韓國の命運僅に金きを得ん然りと雖今日の官兵予輩は之に望を屬すること能はざるなり果して官兵の力反徒に抗する能はざらんか援を隣國に請ふの止を得ざるに至らん之れ實に韓國安危興廢の■るところの一大管鍵なりとす而して這回暴民の擧動を概觀するときは從來彼の內地に於て絶へず紛擾をなし鼠竊狗盜隨て起れば隨て仆れたる烏合の一搔とは少しく異なるところのものあるを見るなり能く一號令の下に■■を指揮し其進退驅引の法稍や秩然たるものあるを見るは人をして多少の疑を起さしむるものあり蓋し年來の暴擧によりて幾分か兵氣を鍛鍊せるに因りて然るか或は其間他に黑幕的の人傑ありて多少之れを指揮幹旋するに出るか兎に角今回の擾亂たる韓國革命の期をして一步を進ましめたるやも知るべからず吾人は今回反徒の主動力たる東學黨を以て能く取て代るの實力あるべしと思はざれども今日迄の擧動よりして見るときは又其志の敢て小ならざるものあるに似たり風聲鶴淚も以て廷臣の膽を奪ふに足り童謠讖語も以て憫家の心を痛ましむるの韓廷果して能く之に處するの方策を有するや否や聞く昨年七月より九月に至る三ケ月間內地七十五ケ所に暴民の蜂起ありたりと或は李氏五百年の天下に代るは鄭氏なるべしとの豫言は今や正に其進行に向ひつつあるものの如く暴民の統領崔某の上に尙ほ慶尙道安東府の住人鄭哥なる

ものを推し軍中一切の權力を執らしめ鄭哥は眞天主を以て自ら居り黨衆を指揮し頗る勢力を有せりと是等は附會の臆說敢て信するに足らずと雖今日此等の言を出さしむるに至りたるは又た多少の緣故なくんばあらざるなりその此處に至りたるもの抑も韓國末路の然らしむるところか今左に這回暴民蜂起の當時より今日に至るまでの現狀に就き逐次詳述する所あらんとす

○暴民蜂起の原因

抑も今回朝鮮全羅道一帶の地に暴民蜂起して幾多の騷亂を惹き起すに至りたる事の起りを尋ぬるに全く人民の積忿の餘に出でたるものにして殊に今日に始まりたるものにはあらざるべしと雖先づ主として此等の暴民の言ふところを聞くに元來全羅道古阜郡の地は去秋收獲の當時殊の外豊作なりしにも關はらず郡守たる趙隷[1]甲は俄に其配下の者に命して防穀令を布き米穀の賣買を禁止せり人民一同奇異の思に暮せしが其後趙隷甲は己れの昵近の者に命し米穀數千石を買收せしめ以て相場の變動上より意外の奇利を博したることあり加之租米徵收の節に當りては人民の辛苦を思はず苛求貪斂飽くことを知らざるの貪慾漢なりしかば人民は其非義非道なるを鳴らささるものなく加へて此頃に至り貢米運送事業のため利運社の起りしより定規の貢米を督促するのみならず船舶修繕費及び碇泊費等の外朝鮮帆船

1 예(隷) : '병(秉)'의 오자이다.

と運賃との差金まで併せて之を取立し等種種なる事情よりして人民の不平は益益積り遂に三三五五各各隊をなし地方廳に迫るに至りたるの時に際し左なきだに何にか事あれかし好き場合にても出で來れかしと腕を擦りて俟ちに俟るつつありたりし韓廷の現政に不平黨の一旗幟を建てたる彼の東學派の連中は古阜に於る暴民の蜂起を見て此期失ふべからずとなし自黨員の一人が縛に就きたるの當時拷問苛責せられたりといふを口實とし突然各地の黨員に檄し黨中の壯丁を集合して右の暴動に合併するに至りしより遂に今回の如き一大勢力を形造るに至りたるなりされば最初は亂民主となり東學派は客の地位たるか如きの有様なりしも其後氣焰益益盛なるに從ひ形勢一變して東學派主動の位地に立ち今日に至りては全然東學派の反亂と稱する方至當なるものの如し

○東學黨の實力

東學黨の一派古阜の亂民に合同してより彼等の氣焰益益猖獗に赴き先づ古皐[2]郡衙を襲て地方官を逐拂ひ兵器糧食を分捕りして一時先づ立脚の地盤を定め各處の貢米庫を毀て之を掠奪し徒步の軍勢の外騎馬の一隊を修へ且つ又人數を繰り出すの時に當りては之を二列に分ちて進ましめ時としては四列に作り又分れて一列となすなど凜然として進行する有様は之を朝鮮の官

2 고(皐) : '부(阜)'의 오자이다.

兵に比するときは其勝るもの數等なりといふ此の如くその進退操縱に略ほ洋式の訓鍊を眞似得て決して昨年初夏の候に蜂起したるが如き輕擧烏合のものにあらず殊に東學黨とし言へば表より不平不滿の徒[3]を吸收する磁鐵の如きものなれば虐政暴斂を厭ひつつありたるの人民なれば先を爭て之に投じ兵を擧てより以來雷同附加するもの日一日と其數を增し殆ど八道を席捲せんとするの勢あるに至りたるは又た敢て怪むに足らずかかれば錢を愛するの文官死を惜むの武官焉ぞ能く支ふるものならんや現に職を地方廳に奉ずる吏校捕將等の小吏に至るまで款を東學黨に通ずるもの少なからず全羅忠淸兩道の地方に長官たる府伯守令等より其統率せる部屬に至るまで果して味方たるか將た又敵たるかは容易に判別に苦む所なるべしといふ

○東學黨の根據

這回變亂の根元地たる古阜郡は廿八村落より成り土地極めて豊饒にして農産物に富み仁川港及び釜山港との關係に至ては極めて薄き土地柄なれども朝鮮八道中にありては又樞要なる箇所なりとす而して東學黨の金城鐵壁として恃て以て根據とするの地は古阜と全州との中間にある白山なりといふ此の山の高さ凡そ廿五間にして老松疎立し三面は絶壁の如くにして人の容易く近づく能はざるの處なり一面の逕路を僅に攀ぢ登れば內に

3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深溪ありて能く數千の人を潛ましむるに足るといふ又數日前迄に全羅道に於ける東學黨の占領せし地區は凡そ左の如くにして又其所には夥多の兵員を以て之を嚴守すといふ

羅州 守兵八百餘人(京城を距る六十六里廿四丁)
光陽 同 千百餘人(同 七十二里十六丁)
扶安 同 三百余人(同 五十里廿四丁)
興德 同 千〇四十余人(同 五十六里)
高瀨[4] 同 六百余人(同 五十六里三十二丁)
釜山 同 八百余人(同 四十里)

又首將及副將の兵營は寶城近傍にありて總勢凡そ一萬六七百人にして尙日日增加の摸樣なりと云ふ

○地方官の逃走

韓曆甲午正月十日(我二月十五日)を以て暴民の一群は郡守の城門に闖入せんとするの計畫ある由を聞き古阜郡守趙秉甲は之を偵知し單身にて遁逃し中途より服裝を變し晝伏夜行し僅に身を以て全州監營に投ずることを得たり此の事世間に傳りてより三四の地方官は脆くも敵の毒刃に斃れたりとの訛言は端なくも幾多臆病神に取り付かれたる朝鮮官吏の肝膽をして寒からしめしよ腰拔け無腸の地方官等は大に狼狽し東西申合せたる如く

4 뢰(瀨) : '창(敞)'의 오자이다.

事の實否を聞も定めず孰れも若干の財貨を腰に附け妻子眷族を引き纏め逸早くも己が身をば何國にか隱したり長官にして既に此の如くなれば其下屬寮の面面我先きにと衙門內の財貨を懷中にし一人減じ二人去り斯くして次第次第に逃遁し官衙は全く明渡しの姿となり反徒の爲めには進退驅引とも自由自在にして却て戰の相手を失ひ無事に苦むの有樣なれば思ひ思ひに官衙に押寄せ軍器糧食等手當り次第に分捕し氣焰一層の强大を加へたりといふ風聲鶴唳を聞て大軍の進擧と疑ひ山上の草木を見て敵兵の群集と思ひ一戰にも及ばずして軍隊の潰散したる昔にも劣りたる朝鮮官吏の現狀笑止にも又哀れなる次第なり

○東學黨の宣言

東學黨の戰地に於る進退驅引の巧みなること今日の朝鮮官兵の決して企て及ぶところにあらずしかして彼等は官吏を見るときは容謝なく之を捕縛し首班の者は之を殺戮し官衙と見れば之を破壞し或は之を燒き拂ひ其蓄ふるところの兵器金穀を奪掠して軍用に供し衣類家具什器等は悉く之を貧民に施與し專ら人心を收攬することを務め其揚言するところ斥倭斥洋の旗を樹つるといふにありと雖決して日本人を退け歐米人を攘ふの事は彼等の眞意に非るべし元と此東學黨なるものは學派の異同より生じたる一朋黨なりしも今日に至りては朝鮮の現政府卽ち閔族の施政に對するの不平黨なるを以て閔氏の一族を倒ささればたとひ一時は鎭靜することあるも到底再燃することあるや必

せり而して彼等が暴發せし以來茂長(古阜を距る日本里程八里餘)に於て人民に告げたる檄文は實に左の如しと云ふ

人ノ世ニ最モ貴キ者ハ人倫アルヲ以テナリ君臣父子ハ人倫ノ大ナル者君仁ニ臣直ニ父慈ニ子孝ニ然ル後乃チ國家ヲ成シ能ク無疆ノ福ヲ建ツ今我　聖上仁孝慈愛神明聖睿賢良正直ノ臣之カ翼贊ノ任ニ當ラハ堯舜ノ化文景ノ治日ヲ指テ希フヘシ矣今ノ臣タルモノ國ニ報ルヲ思ハズ徒ニ祿位ヲ竊ミ聰明ヲ掩蔽シ忠諫ヲ容ルルノ士ハ之ヲ妖言ト謂ヒ正直ノ人ハ之ヲ匪徒ト謂ヒ內輔國ノオナク外虐民ノ官多シ人民ノ心日ニ益流變シ入テハ生ヲ樂ムノ業ナク出テハ軀ヲ保ツノ策ナク虐政日ニ肆ニ怨聲相ヒ屬ス君臣ノ義父子ノ倫上下ノ分遂ニ壞テ而シテ遺スナシ管子曰ク四維張ラズンバ國乃チ滅亡セント方今ノ勢古ヨリ甚シキモノアリ矣公卿ヨリ以下方伯令守ニ至ルマデ國家ノ危殆ヲ思ハス徒ニ己ヲ肥シ家ヲ潤スノ計ヲナシ銓選ノ門ハ視テ生貨ノ路ト作シ應試ノ場ハ擧テ交易ノ市ト化ス許多ノ貨賂ハ王庫ニ納レズシテ却テ私藏ニ收メ國ニ積累ノ債アリテ之ヲ償フノ道ヲ知ラズ驕侈淫逸畏忌スル所ナシ八路魚肉萬民塗炭守宰ノ貪虐良ニ以ヘ有ルナリ之ヲ奈何ゾ民窮且ツ困セザランヤ民ヲ國ノ本トナス本振ハザレバ國傾カン輔國安民ノ方策ヲ念ハズ外卿第ヲ設ケ惟獨全ノ方ヲ謀リ徒ニ祿位ヲ竊ム豈此ノ如キノ理アランヤ吾徒草野ノ遺民ト雖君ノ土ヲ食ミ君ノ衣ヲ服ス坐ラ國家ノ危キヲ視ルニ忍ヒズ而シテ八路同心億兆詢議シ此ニ義旗ヲ擧グ輔國安民ヲ以テ死生ノ誓トナズ今日ノ光景警該ニ屬スト雖決シテ恐動ス

ルコトナク內各各其業ヲ安シ共ニ昇平テ祝センノミ云云

○東學黨の軍旗

東學派は何れも頭に白き布片を捲き付け敵と味方を區別するの徽章となせり然してその軍旗として用ゆるところの旗に二種あり一は金巾にて造り一は木綿にて製したるものにして金巾にて造りたるものは幅凡そ二尺四寸位にして長さ七尺餘なりといふ又木綿の方は幅二尺內外にして長さ五尺餘あり熟れもその旗の面には輔國，安民，暢義など大書せりまたその戰陣に向ふときにはかならず十二旗の軍旗を飜し種種なる文字を書き連ね以て人民の甘心を得ることにつとめ當時用ゆるところのものには次の如き章文を大書せりといふ若し黨中のものにして此の令を犯すことあるときは直ちに之を地牢に投するの制規を立てありといふ

愛撫降者、敬服順者、投濟困者、飢者饋之、
貪官逐之、姦猾息之、勿追走者、曉諭逆者、
賑恤貧者、給藥病者、不忠除之、不孝刑之、

賊徒の眞先に押し立てたる此等の十二旒の軍旗は如何に地方民に望を屬せしめしか彼等の方便又頗る巧妙なりといふべし而して彼等は尙ほ全[5]力に於ても相當の準備ありしと見へ敢て地

5 전(全) : '금(金)'의 오자이다.

方土民の米糧等を奪ふことをなさず必需の食料品は之を購入るるにあたりて必ず代金を支拂ひ聊かも土民に害を加ふることをなさずされば這回の暴擧たる從來層層蜂起したるものとは全く其輒を殊にし朝政の紊亂に厭きたるの地方民等時としては一層の歡呼を以て此等反徒を迎へたるもの亦決してその故なきに非るなり

○東學黨の兵器

東學黨の兵器として使用するところの物は只に掠奪のもののみにあらずして銃砲に彈藥に其他種種の武具に至るまで先づ相當の準備はありたるが如し蓋し去歲初夏の候に當り一度擾亂を釀せしも砲銃彈藥等の用意なかりしため間もなく鎭壓されたるに鑑み爾來陰かに其準備に怠りなかりしが一擧して多くの銃砲を得ることを工夫し僅に一策を按出し各地方の頑民共に吹聽し大に雉子を購入すべしと其價の如きは觸れ方格外に高直なりしかば遠近の獵師共は大に喜び吾先きにと走せ集まりたりければ賊徒は之を脅喝し或は之を勸誘し百方獵師共を說き付け巧みに己れの黨中に引込みたるを以て當初事を擧くるの際にありて已に二千餘挺の銃砲は準備しありたりといふ其の上各地に於て掠奪せしものを合するときは四五千挺の上にも超ゆべしと又賊徒が豫め今日あるを知りて準備し置きたるもの惟り兵器のみに止まらず糧食金錢等を始め種種なる軍用品等は何時の程にかその用意を整のへありすはと云ふ析はいつにて

も蜂起せらるるの仕度ありたりと且つそれのみならず今日彼等賊徒の進退驅引の自由自在にして能く節に合ひ號令また能く黨中に行き渡り其擧動中中侮りがたきものあるを見るは或は今日まで隱密の間に於て戰陣の方を講え錬兵をもなし居りたるものなるやも知るべからずされば勇武の風地を拂ひ遊隋[6]放逸に耽り百事紀律なく官より附與せられたる銃劍までも之を轉賣して一醉の快を貪るといふの有樣に陷りつつある韓兵に取りては誠に蔑り難き勁敵といふべきなり

○全羅に於る東學黨

古阜を根據の地と定めてより黨與の集合するもの已に數萬人に及び崔法軒之れが首魁となり慶尙道安東府の住人鄭哥なるもの軍師の任に當り黨衆を指揮し井然として秩序あり用意全く整ふ此に於てか部署を定め侵略の方策を廻らし先づ西の方扶安の地に突入して吏校を殺し縣監を縛し軍庫を奪ひ兵器を掠め錢穀を分捕し更に東に進み全州を圍み官軍死力を出して防戰せしにも拘はらず遂に之を退けて城兵を走らしむること二十餘里に及び鋭鋒は更に南に向ひ井邑茂長等の地に闖入し官舍を破毀し吏員を逐ひ兵器糧錢を奪ひ衙署に繫留せられたる囚人を放ち連戰連勝至るところ敵の杭するもなく凱歌を謠ふて古阜の根城に退く等其の擧動頗る機敏にして近傍各地方官は一戰にも及ばず

6 수(隋) : '타(惰)'의 오자이다.

して先づ妻子眷族を引繼め財寶を懷にし倉皇影を潛め甚しきは身飜て賊徒に降するものまた尠なからずといふ噫君の士に生れ君の祿を食むの官吏にして其國の危殆に臨みて敢て一身を捧げて君の爲に盡すことを思はす惟に一身一家の保安を謀るもの之れ朝鮮官吏の常態なり吾人常に聞く朝鮮官吏の一事を起し一業を爲すは敢て官のためになすにあらずして私のためになすなりと抑も一國の獨立は綱紀肅否の如何にあつて存す法如何に善美を盡すと雖綱紀肅正ならされば徒法のみ死制のみ其治に於て何の益かあらんや噫

○礪山の戰況

礪山は全羅忠淸兩道の境界にして府治のあるところたり韓曆三月二十八日は今回騷亂に於る官賊の兩軍第一回の開戰日なるが全州監營にては前日來大に探偵を放ちて東學黨の擧動につき秘密に其の動靜を探りをりしが東學黨の鋒銳中中當るべくも見へず殊に今にも本營までも押寄せん勢を認めたれば急報を以て一方には京城に强請し親軍の援兵を乞ひ且つ負商褓商等(平時行商となり戰時兵士たるもの)に通文を發し寄集來援せしめ之に本營に備へある兵員若干を加へ戰の用意を整へ待ちつつありしが宛も好し礪山の領內に身て突然東學黨と出會し兩軍暫し戰を交へしが東學黨にては未だ充分の用意なく突然の際に起りたる事なりしかば遂に官兵のために打くづされ古阜に引歸せしかば結局此の第一戰には官兵の勝利に歸したりしが此れ全

く負商及び袒商等の力なりといふ

○白山の交戰

蠣山の第一戰に於て東學派の敗走は端なくも大に同黨を刺激せしものと見へ益益其燃度を增したるものの如し而して韓曆四月二日は卽ち第二回の接戰日にして東學黨の氣焰をして一屑の强猛に至らしめたり卽ち東學派は白山の嶮峻に據守し官軍は其の前面に陣營を張りしが暗夜三更と覺しき頃官兵大擧して東派の要衝を突かんとせり東派は豫て期したる事なれば官兵の追ひ來るままに逃走の狀を示し其敗軍の摸樣をなしつつ十數丁の所まで逃げ延びければ官兵は此機失ふべからずとなし眞の敗走と心得圖に乘り何處までもと追行きたり東學黨は充分その計略の當りたるを喜び時を計りて相圖をなせしかば忽ち左右及後部の三方より黨衆大に起り吶喊の聲天地を動すばかりにて無二無三に官兵の中に斬り入りければ今まで敗走の形を襲ひつつありたる東派の一隊もまた引返したりければ官兵今や四方に敵軍を受け周章狼狽如何ともすること能はず恰も囊中の鼠の如くなすべきの術なく散散に切り立てられ大半反徒の軍門に降參し死傷無慮二百數十名に及びしといふ

○征討軍の出發

古阜郡に於る暴民に東學派の合同ありしより勢焰愈愈强大に趣き四方の黨與爭て之を集り加はるもの引きも切れず監司は殺

され郡守は追はれ所屬の軍庫は掠奪せられ兵器武具は分捕せられ今や一層の勢力を以て東上せんとする摸様なれば到底全羅地方の兵員のみにては鎭定のほど覺束なしとの地方官よりの日日の注進に接し始めて事態の穩ならざるを知り然らば兎にも角にもとの廟議にて■■征討の師を下すことに決し洪啓薰を征討軍の總督とし八百の親軍を發し利運社の蒼鴻海龍の二韓船及清國の軍艦平遠號を借入れて右の三船に分載せしめ麭包千斤野戰砲四門彈藥四百函を備へ韓曆四月八日を以て全羅道に向はしめたり尙ほまた此の海路出兵の外親軍營二百人許り陸路水原府を經て出發せしめたりといふ今ま朝鮮國に於る兵卒の有樣を見れば舊式に據て訓鍊せられたるの兵隊は諸道諸府縣に在住し何萬人と揚言するも其實微微たるものにして火繩筒刀劍等を使用し殆と戰時の用に堪へざるもののみにして又新式卽洋式によりて訓鍊すと稱するのものも其數僅に四五千に止まり「スナイドル」の小銃を用ゆと雖も是れ亦偸安姑息錢を愛し死を惜むの武官果して此騷亂を鎭定するに足るや否やは大に懸心に堪へざる所なり

○韓廷の恐慌

全羅に於る東學黨の勢力益益猖獗を極め民人の附加するもの數萬の多きに及び官兵切りに敗れ全羅の一道到底支へ難しとの急報踵を續て到るも悠悠閑閑たるの韓廷左程の事とも思はず督促夫を射るが如くなるに及んで始めて事態の容易ならざるを知

り征討の師を出すに至りたるも韓廷の內心に於ては征討軍の到着せらざる內に鎭定すべしとは殊に賴みにしつつありたるところなるが此賴みも空しく韓廷の意想外に出づるものあらんとは昨年初夏の頃一たび騷動を極めたる東學黨は一片の論旨と魚允中の按撫とによりて終に解散せしものなれば今回もまた其例に據り說諭を以て鎭撫せんとしたるも毫も其の效なかりしは政府の意外に感したるところなりまた俄令ひ說諭にて服從することなきも八百の征討大軍一たび其地に至らば彼等烏合の徒風を望で潰亂すべしと想の外敢て恐るるの色なく却て倍倍暴威を逞すること是れ政府の意外に感したるところなり暴民の進退擧措凜然して秩序あり隊伍森然犯すべからざるの風ありて賴みに賴みたりし征討軍中其の一半は戰はずして賊軍に降り殘りの內にて脫走し若しくは行衛知れざるもの等日日相生じ軍氣大に沮喪し臾[7]に援軍の派遣を征討總督より乞ふの書韓廷に達するや其意外なるに驚き廟堂愕然閔泳駿を始め諸大臣等は何れも額を鍾めて討賊の評議に腦漿を絞り居るは亦た是非もなき次第といふべし

○全州營將の內應

全州の營將たる金始監は數年前に當りて火賊蜂起の際其の討滅に切ありたるよりして營將の重任に拔擢せられたる者にてそ

7 유(臾) : '갱(更)'의 오자이다.

の權威頗る盛んにして監司を雖之れに一歩を譲るほどのものなりしが常に政府の施政に不滿を抱き時時之を口外することありしが今回東學黨の起りてより之に內應せしかは遂に其證跡を見出され招討使の都下の兵丁に捕縛せられ種種の尋問を受けしが元來金始豊は膂力人に超へ頗る强膽なる人なりしが法廷に引出さるるや少しも恐るる氣色なく韓廷の不道を罵り閔氏の專橫を怒り遂に天道は惡人を助けて善人を見捨てるにやと傍若無人に嘲罵しつつありしが後ちに緊縛せられて獄に入るや自ら其縛を絶ち劍を揮て逃走せしも復び官兵の追捕するところとなり卽坐に打ち殺されしといふ

○李景鎬の戰死

全羅の營將李景鎬は或る日營卒三十餘名を引率し斥候のため或る山道を登りつつある折柄東學黨の一隊は不意に山上に起りて烈しく瓦石を打ち飛ばし或は砲銃を放ちなとして之に迫りければ李氏の引率せる兵士は殺さるるもあり負傷せるものもありて一人も殘らず打ち仆れければ李氏は是迄なりと自ら奮進して亂軍の中に突入し刃劍を奮て賊徒數十人を殪したりしが其身も亦た重傷を受け遂に賊の重圍中に斃れたりと此李氏の如きは朝鮮軍中には珍らしき勇士なりといふ實に同氏の如き萬綠叢中紅一點とでも稱すべきか

○全羅魁首の命令

全羅に於ける東學黨の首魁たる崔法軒は一編の訓令を黨中に傳へたるが其大要に曰るあり我九隊の陣及び二百の黨員岐路の軍兵は■きに能く地の利時の可不可をも察せずして輕輕しく羅州の境に進入し負裸等の烏合の軍勢のために打ち敗られ味方の黨員二十餘名は之がため彼等の捕子となるに至り我黨の不面目此の上やあるべきされば我が命令に違背したるところの岐路の諸將は軍律に照して之を斬罪に處し夫夫處分をなすべし又今より軍を分て三路に進み羅州の地に入ることは暫くこれを待つべし而して第一路の將は本府部下五千を領有し第二路の將も亦た同しく本府の部下五千を引具し共に陣營を置き第三路の將は更に本府部下五千を督して四方に派出し各將妄りに輕擧をなすことなく山城を堅守せよ云云の命令を下せりといふ

○東學黨の民望

東學黨の內部には種種なる制規を設けありて苟も黨員たるものは必ず之に服從せざるべからざるの方法を立てありて頗る能く規律の厲行をなし敢て犯すものなき有樣なるが中にも喫煙を禁じ酒色に耽るを制するの條頃ありて苟も之に違ふものあれば嚴罰に處すべしとの一種の憲律あることなるが今回の暴擧に就ては聊かも農民を害することをなさず其主旨とするところを問ふもの有るときは曰く內は政府の非政を改革し綿纏たる情實を打ち破り外は居留の外人を追放し以て國民の福利

を圖るにありと而して其言ふところ常に實に現はれ先きに古阜より全州に進行する折等には見物人群集し却て之を歡仰するものの如くまた雜沓のため田圃の踏み荒るるを見て農作物を害することを戒しめ且つ如何なる雜品にても之を購ふときは必ず現金にて支拂ひなとするより地方民にとりては多少の利益ともなり上に少しも危害のかかる患なければ一般頑民の間には頗る評判好しといふ

○火藥庫の燒火

古阜に程遠からぬところに火藥を貯藏し置きたる一大倉庫ありしが地方官逃走の後東學黨は之を奪ひ庫內を撿したるに甚だ古びたりければ此の如き腐物何の用をかなさんと戲れに火を點せしに轟然爆烈して灰燼となり數名の負傷者ありたりと蓋し官兵の使用に供しつつありたるは大半此倉庫中の火藥なりしかば一時官兵は火藥の繼かざるため非常の困難を感じたりしといふ

○牧使一家の遭難

羅州の牧使(地方官)閔種烈は東學黨蜂起の當時風聲鶴唳に驚きて遁逃したるの一人なるが其家族五人はその儘打捨てありしが東學黨之に迫り悉く其家族を捕へ殺害したりといふ此閔種烈は前の外務督辨閔種默の實兄にして閔氏の一族たりしかば其權威中中のものにして此地方の民人は之を蛇蝎視したる程なれ

ば東學黨は先づ人民の尤も怨みつつありたる所のものを除きしなるべしといふ

○金玉均の殘黨

閔族の專横を怒り政綱の腐敗を慨き同志の輩と相謀り革命の旗を飜さんとせしも謀るものは人爲すものは天遂に志を遂げ得ずして空く異鄕の孤客となり坎呵殆ど十星霜一朝刺客の毒刃に斃れ空しく怨を黃泉の下に飮みつつある彼の韓國亡命の士金玉均の殘黨は萬一を賴みとして忠淸道に隱伏せしが金氏の毒刃に斃れたるを聞くや最早成敗を一擧に決するの外あるべからずとて五人三人相謀かりて崔の幕下に馳せ集まり死力を出して其運動を助け居るといふ

○東學黨牛馬を掠奪す

全州地方の東學黨は愈愈猛勢を逞ふし近傍一帶の牛馬を殘りなく掠奪し以て官軍の物貨運搬の道を斷ちしかば官兵の不便言はん方なく右の趣京城へ注進せしかば廟堂の有司は大に之を憂慮し如何にもして其急を救はんと此程顯益船にて兵員を增發すると共に日本人の使用せる荷車十五輛を購入して携帶せしめたりといふ

○貢米東學黨の有となる

朝鮮八道中全羅地方は米の産出最も多く政府の租稅は大概穀物

を以て上納する慣例にして毎年春期より初夏の候に至るの間は恰も此貢米の時節なれば左水營右水營木浦古今島群山の諸港に寄り集まりたる貢米の數量は隨分夥多なるものなるが之れを回漕せんがため漢陽號にて出張したる運轉委員金悳容は東學黨のために生擒せられ群山一港の外は悉く敵のために貢米を掠奪せられたり且つ是より先き韓曆四月一日古阜を距る二里餘なる竹山浦と稱する地より流に添ふて新倉津に至るべき河船十五艘は何れも貢米五六十俵を積載せしものなるが東學黨は悉く之を掠奪せりされば賊軍は糧食充分にして此上幾十日を經るも先づ當分糧食の缺乏する憂なきは東學黨にとりては一層の强みを加へたるべしといふ

○征討軍の上陸

彼の雇入の支那軍艦平遠號以下二艦に搭し群山に向て出發したる八百の征討軍は着後しばらく上陸を見合せ以て兇徒の動靜を窺ひつつありしが賊勢益益猖獗を加へ到底諭示等にて鎭定の效力ありとも見へさるのみならず各地に於る官兵の連敗する有樣には少しく意外に思ひつつありしが斯くては一刻も猶豫なりかたしと洪氏の命令にて遂に韓曆四月七日を以て全軍群山に上陸し尙ほ招討使洪啓薰より電報を以て討伐の命を政府に請求し許可を得しかば此日を以て直ちに進擊の運動に着手せりといふ

○東學黨水を決す

全羅道の金堤及び萬頃と稱する所には一大廣田あり河流に沿うて長堤を築きありしが東學黨は群山より出て古阜に向て進軍する官兵を遮欄するため此の堤防を決して青田に漑ぎければ忽ち近傍一碧の湖水に變じたり又忠淸道なる召野廣門と云へる廣田も亦た同樣の手段を以て湖水に變せしめたりと實に今回東學黨の擧措頗る敏捷にして往往人の意表の外に出るものありといふ

○追討軍の脫走

東學黨鎭壓のためとして洪啓薰の引率して群山に出張したる彼の八百の親軍兵は最初其選に當りたるの當時何れも接戰するを厭ひ職を辭せんとせしものありしも假令戰地に向ふとも決して戰を交へすとの約束を結びたる上强いて之を派出せしめたるものなるよしにて群山に達してより以來只暴徒の樣子を見ると稱して曠日彌久いたつらに各所に屯在するのみにしてその間或は兵器の半を奪はれ或は過半の兵士の逃亡者を生じ糧食相繼がず連日うす粥を食し居りたる有樣にて全く勇氣なく少しも戰の意とてはなく間間勇氣あるものあるも官軍のために働くを欲せず寧ろ賊軍のために死力を出さんとするもの少なからず中には進軍の令下ると同時に逃走し黑地の制服を脫き白衣を着けて賊陣に雜はり銃劍を官軍にむくるものあるに至れりといふ

○全羅道の全州

全羅道全州は京城を距ること六十餘里にして全羅道中第一の都會なり監營あり土着の兵丁四百及新式數錬の兵丁七百を備ふ而して監司は金文鉉なりとす此の監司の職とするところ行政司法及び軍權を掌握し其威力頗ぶる强大なるものとす今回東學黨の起るや韓廷は之を例の暴徒と認めて敢て意に介することなかりしが東學黨の軍略頗る見るべきものあり徙[8]らに地方の侵略に意を用ひず一擧して全州の監營を陷れんことを謀るとの風聞政府の耳に入りしかば政府は大に狼狽し數百の援兵を出して之を追討したり然れども東學黨の勢ひは頗る强猛にして遂に全州の監營を陷れ倉庫を開きて兵器糧食を掠奪して一層の勢力を加ふるに至りしかば監守の配下に屬する兵士等は大に恐怖し遂に東學黨の軍門に降參して彼の味方となり以て官軍に敵するに至れり東學黨が兵を擧げてより僅かに數日にして全羅一道を席捲し又たやすく石城を陷れたるもの全く以上の兵器を得たると官軍の兵士を味方に引入れたるより出てたるものなりといふ

○國王殿下の教示

古皐[9]の郡守趙秉甲の失政より遂に今回の大亂を來したるにつき廟閣の大臣連署して上奏する所あり國王殿下又た左の教示を

8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9 고(皐) : '부(阜)'의 오자이다.

下し賜へりといふ

一 古阜郡守趙秉甲は格を俱し拿し來りて南門に囚せよ
一 地方の守令貪虐なるもの一一其罪を論■以て民心を定めん
一 大臣以下末官に至るまで此板蕩の時に當り何ぞ拱手傍觀すべけんや特に輔國安民の策を獻じて可なり
一 全羅監司は特に越俸(罰俸)の典を加へよ
一 逃走せる各守令は其輕重に從ひ其處治をなすべし

○李景鎬の贈官

白山の一戰に奮激■鬪の末遂に賊手に斃れたる勇將李景鎬に對し去る韓曆四月十三日を以て發せられたる時例彰效の典は李氏をして地下に瞑せしむるに足るものあらんか今之を摘譯すれば左の如し

招討使よりの電報を見るに完營右領官李景鎬矢石を避けず賊軍に勇突し能く數十名を斫り身は國難に殉すと其義勇の氣極めて嘉賞すべし今技例褒效の擧を以て特に兵曹參議の職を贈る云云

○金世豊の子姪賊に投す

東學黨蜂起の際に當りて內應をなしたりとの事發覺し誅戮せられたる金世豊の子姪等一家十餘名は全州南門樓に一書を掲げ遁

走して東學黨に投■たりといふ今其書の大要を見るに實左の如しといふ

> 方今の事務徒らに坐して死を待つの時にあらず近頃所謂執權の大臣なるもの皆閔を以て姓となし閔家に非らざれば人にあらざるが如く終夜滿腹私慾之れ營む嗚呼此の民を如何せん所謂招討使なるもの亦是れ無識怯懦逡巡兵を進めず而して猥りに賢良有功の士を殺す是れ乃ち名を釣り邪を飾るもの久しからずして必ず毒刑を受けん知らずや三歲の後を必ずや國は露西亞に歸し人は洋に化せんことを東道の大將之を憂へ義兵をあげて以て民生を安んせんとす云云

○全羅監司の賊狀具申

全羅監司金文鉉が營狡を四方に派して東學黨の情狀を探知し之を韓廷に具申したりと云ふその要略を聞くに目下東派の各處に屯集するもの大小合せて二十七所ありて其內大陣と稱するもの八ケ所小陣と稱するもの十九ケ所にして大なるは各各數千名を有し小と雖も亦五六百を下らず各陣に大將あり每部に隊長あり晝間は軍法を操鍊し夜間は經文の如きものを誦讀す而して大將はつねに各隊長を誡めて曰く戰場に臨む時成るべく人命を損傷すること勿れ殺さすして勝つものを首功となさん且つ邑里等を過ぐるとも決して秋毫も侵掠すべからず若し此命に違うものあらば黨與中をば放逐すべしと彼等の總大將は鄭道令左大將は徐葱角右大將は崔大雅なりまた此等東學黨が陣を敷くに當り

ては必ず白布の帳幕を以て前面を掩ふ彈丸を防ぐためと云ふ目下彼黨の屯聚最も多きは茂長靈光の二ケ所なれども常に出沒自在なるを以て容易に踪跡しかたし尙ほ彼等の運動は頗る秘密を守るを以て黨外のものには容易に知り難きものあり云云

○賊俘の大氣焰

招討使の一軍或る日一山間に於て東學派中の數十人の通行するものに遭ひたれは直ちに之を拿へて陣營に歸り縛して詰問せしに渠等抗辨して曰く予等忠孝を以て本とし滿朝の姦賊を除かんと欲するのみ敢て他意あるにあらず然るに何が故に予等に名づくるに逆名を以てせんとするか時逆賊と稱し得べきものは貪婪飽くなきの方伯守令のみ我等の巨魁東道大將軍李世年令纔づかに十四歲なるも上は天文に通じ下は地理に精し尙ほ其上にも能く人の禍福を辨知す且つ鄭徐の兩元師[10]何れもみな英雄豪傑にして古の良將と雖も之に過くることはあらざるべし之に加ふるに已に十萬の精兵あり招討使八百の弱卒何ぞ恐るるに足らんやと招討使■に問ふ汝等の官兵と抗戰するや白布一とたび揮へば矢石彈砲も之を穿つこと能はざるものは何故なるや渠等答て曰く水は火に克つもの火砲焉ぞ能く水白を犯さんや云云と意氣頗る昂然甘じて枷囚に就き其處分を待つもの如しといふ今回の東派たる眞に能く士卒の心を攬り得たるものと云ふべし

10 사(師) : '수(帥)'의 오자이다.

○韓廷の彌縫策

這般擾亂の原因は種種にして一概に論ずることを得ざるも各地方官の苛稅重斂こそ實に其最大要素と認めらるるを以て韓廷有司も大に玆に顧みる所あり因て擾亂地方の監守[11]府使郡守縣監に至るまで一大便迭を斷行し供て聊か亂民の心を和らけんかと萬一を僥倖するものの如く先づその第一着として政府は現任全羅道監司を罷め新に外務協辨金鶴鎭を以てその任に該らしめ急速赴任せしむるてとに決定したりしよし同氏は當年旣に耳順の齡を超へたるの老骨にして敢て稱すべきの才能なしと雖夙に韓廷內に在りて淸操潔白を以て朝野に尊敬せらるる人なれば氏の赴任は全羅一道の地方民をして幾分か怨を解かしむるに足らんか

○招討使の急報

東學派の驅引神出鬼沒にして殆ど端倪すべからざるものの如く而して征討使たる洪啓薰及び全羅監司より韓廷に奉りたる電報を見るに孰れも危急を告げざるはなく其痛心の狀轉た憐むに堪へたるものあり

○招討使陽攻を試む

我が五月十三日正午洪招討使は福將元世祿を遣はし京軍を

11 수(守) : '사(司)'의 오자이다.

率るて全冊を距る五里車馬山下に陣し旗を連ね砲を放たしむ蓋し是れ示威的陽攻のみ招討使はまた兩湖の賊猖獗なるを見て容易に動かす其所在に散居するの賊兵は鄉兵をして捕へしめ統ふるところの京軍は一に賊の大屯所に當るの準備をなせり(韓曆四月十日招討使發電)

○全羅道監司の憂悶

賊徙[12]數千名南羅州に向ふ監司諸牧使及び近邑に發關して守衛を嚴にせんと欲すれども諸邑空官多じ甚だ苦惱憂悶す(韓曆四月十三日監司發電)

○褊將の行衛知れず

招討使は副官元氏をして賊の虛實を偵察せしむるところ途にして東軍千餘名に出て逢ひ散散に惱まされ大に敗れて行く所を知らず營校を發して百方搜索すれども元氏及び配下の五十餘名一も見當らず京軍ために震駭せり(同日招討使發電)

○京軍膽寒し

戎裝して京城を出づるもの八百人群山上陸以來逃走するもの日日に相續ぐ京軍今は値に四百餘をあますのみ而して遁走なほ未だやまず京軍の振はざるかくの如し廟議迅やかに兵丁を加送せず事體測られず一刻も增兵派遣の早きを俟

12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つのみと(同日招討使發電)

○賊徒兵を習ふ

全羅道の東學黨は山を背にして陣し或時は旗を樹てて習陣操砲し或時は旗を伏せて隱顯出沒し賊情端睨すべからず(十四日全羅道監司發電)

○領官以下の死亡者

全羅道監司の啓聞に曰く領官以下死亡するもの統へて百十四名と稱す最も監營に於て深知せしは負商雜商平人營兵等の數に留まり京軍其他各邑砲軍は散在して實狀を知り難し目下各邑に戒飭して査檢せしむるに被侵各邑とも軍器は悉く東徒の奪ふ所となり今は負褒商等に給與すべさの武具更になし然れども未だ賊襲を受けざる黃土山の如きは公穀公錢を支出して防守を怠たらず勉め居れり(同十三日監司發電)

○招討使の急請元世祿の無難

招討使援兵を促かし且つ世祿の無難を報ず曰く(一)沁營卽ち江華營の兩丁は何日頃下降すべきや(二)軍刀の良品十本を送付せられよ(三)元世祿は昨日歸營せり(四)李斗黃[13]李學永[14]等に命し二隊の軍兵を引率せしめて金溝泰仁高敞興德等の地方に向はしめたり云云(同十三日招討使發電)

13 황(黃) : '황(璜)'의 오자이다.

14 영(永) : '승(承)'의 오자이다.

○靈光郡の賊勢

東學派萬餘人靈光郡に屯集す五里にして伏兵あり三十里にして先鋒二千五百餘名あり賊兵山野に彌蔓して勢益益猖獗なり四方の良民相率ゐて賊に投し官軍の急を報するの信書雨の如し招討使の苦悶益益甚し如何にしてか之を處理せんか(同十五日招討使暗電)

○東學黨の一軍靈光城に籠らんとす

賊萬餘人靈光を襲ふ郡守閔泳壽舟を浮べて七山津にさく賊兵勝に乘じ城內に闖入し軍器火藥を奪ひ府庫を卦じ四門を鎖して出入を許さず曹正言金進士の輩ために殺戮せらる察するに賊兵等は之に據りて頑拒するの意ならん(同十五日全羅道監司暗電)

○淳昌府使の書簡

淳昌府使李聖烈より閔泳駿に寄せたる書面の略に曰く四月三四日頃東學黨は金溝泰仁の地方より退て扶安古阜等の地に向ふ官兵之を逐ふて古阜井邑兩地の境界に至りしに東徙[15]は僧頭山の險に據り官軍の進路を遮ぎりたり僧頭山は其形ち伏盤の如く彼徙[16]は陣を山上に帳りて外面に白布張を布さ土壘そ築き內には束藁を置きて身を其裏に隱しつつ發砲をなせり官軍の陣彼と相

15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16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距る僅に數弓而して地形稍下れり彼等は暗夜に乘じて頻りに官軍をその頭上より狙撃し死力を出して挑戰す官軍本と烏兵の衆彼の急撃に遇ふて潰敗四散し殺害せらるるもの測り知るべからず衆心乖離し兵氣頓に沮喪す昇平日久しく兵丁用をなさず誠に嘆ずべさなり目下彼徒數千に過ぎざるも恐くは今後次第に增加せん且つ彼れら到るところ火を民家に放ち民産を掠奪し民心洶洶老者は溝壑に顚し幼者は道路に泣き殆んど其行く所に迷う如何ぞ相率て盜賊たらざらんや全道幾邑は■に已に空虛となれり若し猶ほ朝廷撫綏の法を立てずんば或は恐る智者もまた遂に功をなし難きを彼等は符籤を以て人を誘ひ嘯呼して黨を聚め名を洋倭の擯斥に假り咎を守宰の貪婪に託し以て黔首を欺く是れ蓋し一朝一夕の故に非るなり此の徒王法に於て固より其罪惡を逭るべからざるも如何せん兵力の恃むに足らざるを思ふて玆に至れば一回に於ては方伯の任最も撰擇せざるべからざるなり貪虐の宰悉く懲治せざるべからざるなり賦斂の弊全然矯正せざるべからざるなり然して後衆心慰むべきなり一面に於ては急に宣撫の特使を遣はし之に臨むに兵を以てし之を諭すに義を以てし之を撫するに恩を以てし而して彼遂に抗抵するあれば則ち天誅を加ふこと恐くは事宜に合せん然して後兵■ず賊魁捕獲すべきなり彼徒固と窮寇急追すれば則ち其勢益益團結して解き難く緩漫なれば則ち驕悍にして服せず其間尤も商量せざるべからざるなり加之ならず軍器は掠奪せられて餘品なく賊再び席捲して來るの日は我が此の列邑を如何せん云云と頗る悲憤慷慨的の文章なりしといふ噫此の李聖烈の如き能く大

勢に通するの名士たるに恥さるの人なりとす

○外兵借入の妄議

東學黨の暴擧鎭壓のため派遣せし官兵は連戰連敗一も奏功せしことなく招討使は援軍の一日も早からん事を督促し士卒は日を逐て賊門に降り糧食の繼かざるを訴ふるあれば賊兵頗る猖獗にして直ちに京城にも侵入せんとすと報するものありて京城の危急旦夕に迫れりといふものあるに至りては如何に韓廷內に於る幾多俗物の肝膽をして寒からしめしよ此に於てか外兵借入れの議論は早くも廟堂の內部には起りたり英に借らんか露に借らんか將た支那に借らんか日本に借らんかとの研究は始まれり然れども內亂を鎭定するに外兵を借入るるは啻に自主自護の本旨に背くのみならず偶偶以て外國干涉の端を開き其後患言ふべからざるものあらん如かず近畿の兵を驅り盡して以て征討軍を增發せんにはと終に此硬直の說勝を占めたるために外兵借入の妄議は一時中止するの姿となりしも形勢日に非なるの結果は遂に韓廷を■て淸國に出兵を依賴するの止を得ざるに至らしめたるぞ是非もなき

○援軍の發程

東學黨猖獗官兵連敗との報韓廷に達するもの引きも切れず是に於て廷議は間に一決し江華島の兵丁そ徵發することとなり江華留守海軍總制使なる閔應植は王命を奉じて江華に下向し營兵五

百を徵發して隊伍を戒め中軍徐炳薰を以て總將となし麪麭千斤彈藥四千餘發を備へ顯益及び海龍の二船に搭じて同地より仁川に着し更に全州監營に向て進發せしめたり之れど同時に京城よりは別に二三百の兵丁を徵して陸路南道に向はしめ海陸總掛りにて全羅の地を壓せんと企てたる第二の出兵も物の數かは兩軍未だ境に臨まざる內に軍氣は沮喪し用ゆるに足らず或は益山に或は臨崖に敗報續續として至り東軍は遂に大擧して北上の途に上り今は京城を距ること五十里若しくは三十里の外に屯集して勢援を相成し形勢中中容易ならずに見へにける

○全州の沒落

招討使は八百の親兵を引卒[17]し居りたるも戰死或は逃亡等にて殘り少なに見へければ群山にありて臨時に民兵を徵發せんと欲し一の關文を發つして各邑各里より三四十人づづを召募することに着手したり然るにある日の事にて百五十餘人の民兵陣門に來りて慇懃に徵發に應じて馳せ來りたる旨を述べ其證として右の關文を示したれば招討使も何の疑ふところなく大にその義を賞し手厚く取扱ひたる上にて之を隊中に編入したり夫れより招討軍は東徙[18]の長城にあるを擧んため進軍して長城の近傍月坪と稱する地に至りたるとき宛も好し東徒の彼方より來

17 졸(卒) : '솔(率)'의 오자이다.

18 사(徙) : '도(徒)'의 오자이다.

るに遭ひしかば直に開戰し奮擊突進の際右の百五十餘の民兵は一聲の合圖とともに忽然二た手に分れて左右より夾み擊ちしかば京軍は三方より■擊されたれば全軍忽ち潰亂し散散に薙倒され算を亂して倒れたるもの四百人に餘り僅かに殘れる敗兵も雲霞と逃げ失せたり是れより東徒は勝に乘じ進んで全州を距る三里の所に迫り其午後に至りて遂に該營を乘取りたりと之れ全く東學黨の民兵に扮して入込みたるものなりといふ

○長城の戰況

官兵は靈光に假營を設け賊軍は長城の傍らなる山腹に占據し唯兩軍相互に擧動を窺ふのみなりしが官軍は兵を二隊に組織し一隊は二百名にして大砲二門を備へ高敞を經てまた一隊は五十名の人數に大砲二門をそなへ森溪をへていづれも賊陣を目指し出發せしは五月二十七日午前四時頃のことなりしとしかして同日午後六時頃賊軍の陣營なる長城に着せしが賊軍は其數漸く百名に過ぎずして甚だ虛なるが如く兩軍相隔つること僅かに三四丁にして遂に銃擊を始めたるに賊兵は次第次第に多數となり殊にまた左右兩方より伏兵蹶起し其人員數千に達し勢ひさながら破竹の如く官兵は僅に一時間を經ざるに■に已に大敗し砲兵の士官一名は生け擒にせられ尙ほ大砲二門を橫奪せられ死傷者實に百數十人の多きに達せりといふ

○慶尙道の東學黨

慶尙道全海府は釜山浦より道程餘り遠からぬところの一鎭なるが全羅道古阜の暴擧に前後して此地にも一騷亂は起れり同地方にて狹客を以て鳴り渡りたる尹子益が指麾の下に無數の黨與は集まりて遂に一擧して府使を遂ふに至りたる事の顚末を記さんに其初め同地一部落の人民は多年虐毆に若るしみたるのあまり遂に黨與を集めて大事を企てんと種種評議をこらしたりけるが尹子益の聲望を聞き遂に之を首領に押し立てつつ近傍に檄文をとばして云へるやう我我は暴官汚吏の專橫を誅戮して人民を塗炭の苦みより拯はんとするものなりされば我黨の義擧を助けんとするものは各一戶に付一人の賦投を出すべし若し之を拒むものは我我は暴官汚吏の一派のものと見做し直ちにその家屋を破壞し罰銀若干を追徵すべしとぞ脅迫したりしが元より朝政の不平に堪さりし民人のことなれば遠近風を望んで來會し總數既に七千餘人とぞ注せられぬ其勢中中當るべくも見へざりける而して尹頭領は部下に號令を下し進發を促かしければ七千餘の亂民は各各得物を携へつつ府吏の館にぞ闖入なしたりけるが不意を討たれて狼狽しつつありたるの府使趙駿九を捕へ之を縛り上げ古廟の中に幽閉し尙又屬吏屬官等の數人を捕獲し遂に府使をば再び古廟の中より引き出して府城の北門外に放逐し屬吏以下のものは一同打ち集りて土足に掛け或は面に唾し或は髮を拔きなどして終には之に首桔を施し獄中に投したりと一群は既に府使を放逐し屬吏を苛責せしかば一先づ腹の癒えたる摸樣なれば尹頭領は此にて一先づ壯丁を解き各各歸農せしめ觀察使の來る

を俟ちて何等の詮議を受けんことを覺悟せりといふ尹子益の體中流石に一片狹骨の香ばしきものあるを見る

尙慶尙道に於ける東學黨の騷擾は韓曆四月十一日發同道よりの報によるに晉州城より十里を隔てたる德山には近來東學黨亂民の集合せるもの數千人に及び兵使營よりは同日五百餘の兵を發したり目下州城より西北に當る地方は恰かも戰地の如き觀ありと云へり尙其後報に接するに愈愈五月二十九日に至り黨人數萬不意に襲ひ來り兵使も防禦の術なく電を飛ばして京城の援兵を求めたりと晉州は釜山居留地を距ること僅かに三十里の地なりといふ

○忠淸平安兩區の東學黨

忠淸道に於ける東學黨は其踪跡を定めず今日沃川に在りと見れば明日文義に在り昨は懷德に在りて今は鎭岑に走り端倪捕捉すべからざるものあり特に錢穀を散じて窮民に救恤するに至りては益之を忽かせにすべからざるものあり此程に至り地方官等の子弟其奴僕を引卒して黨員及農民の家等に闖入し或は之に火を放つ等のことありしかば黨人は聞き傳へて大に忿怒し俄かに窮鼠の勢を以て四方各所より聚り來り報恩縣を攻めてその縣監を走らし代つて之に據り更に兵を四方に淚して攻幣するため淸州兵營も今は旣に危險至極の有樣に陷りたりといふ又平安道平壤地方にも暴民蜂起せりと固より紀綱腐敗し一二權家廟堂の上に蹯踞し暴官汚吏其下に寅援すかかれば民怨沸沸として

八道の山河に滿ち折もあらばと東西南北各各言ひ合せたる如くに禍機の來るを待ちつつあるの有様なれば如何に天魔鬼神にても此の湛へに堪へたる熱へに熱へたる衆根民怨を鎭壓することを得べき實に恐るべきは下民の怨恨にこそ今忠淸道忠州監營より韓廷に奉りたる電報は何れも其危急を報するものならざるなし風聲鶴淚に膽を失ふの韓廷その策の出するところ果して如何

○征討着手(四月八日辰時發電)

今聞くところによれば公州鎭岑の民人が東徒を攘去せんため兩邑の地界なる星山坪に集會し又東徒は公州懷德の界なる沙鳥に嘯集せり沙鳥は星田坪と相距る二十里なり依て一面は裨將營校及び砲軍を東徒の所在地に發送し圖を定めて合擊の計をなし尙ほ負商褓商等にも命を下たし起たしむ左れども境內僅かに百名に過ぎず甚だ痛神

○東徒銃器(同日酉時發電)

引續き懷德の報文を見るに東徒は各銃器を携へ文旨里に屯集せりといふ同所は沙鳥を離るること二十里に過ぎず依て昨日裨將を送り一體に搜捕の手續をなさしめたり

○東西呼應(同九日辰時發電)

只今探偵營校の報するところに依れば彼の徒數千名は各所に散在し一隊二三百又は四五百にして村里の間を通行し首尾相應じ呼吸相通ず彼の徒の內崔法軒なるものの通文中に

曰く惟に我東學は坐して死を待つへからず大小隊悉く青山に來會せよと其擧動測られず萬萬駭痛

○官兵少數(同日午時發)
懷德の事瀆職の責固より免れかたし彼の徒數千各所に屯賑し各邑に嚴飾し吏民を招募すと雖元と是れ烏合のみされども本營の軍數も亦た少く兵丁の調發すべきもの僅かに二百名なり故に京軍分送のこと追討使に電通したれども行はれず然るに彼の徒漸く滋蔓す痛神に堪へず十分諒察指揮を俟つ

○勢漸猖獗(同十日未時發電)
彼の徒藍浦の直入軍器糧食悉く掠奪し去りしとの事に付探偵を派遣したるに彼の徒三千餘人本縣水頭里に一泊し行く所を知らず

○官吏遁逃(同日戌時發電)
各邑の官吏逐はるるもの十餘名逃れて皆本營に來り各邑悉く空官頗る煩悶す

○銃劍横奪(同十一日發)
曩に星田に會集したる民人は懷德に屯聚せる東徒を破り之を追ひ環刀四十柄鳥銃十二筒を分捕たり此に於て懷德靜まる

○東學黨幼童を慰撫して軍氣大に振ふ

頃日東徒の一隊整列して全羅の某一村落を通行す全村寂寞とし

て絶へて人影を見す途に一少年あり年歯僅かに十四五悄然として佇立し何にか思ふところのものあるが如し東徒の前鋒訝しきことに思ひその故を問へば少年答へて曰く兒が家素と赤貧衣食の以て給ずべきなく僅かに兒が薄利なる商法によりて雙親の口を糊するのみ然るに今回は事變起りてより大に商路を塞ぎ又た如何ともすること能はず何の面目ありてか再び父母に見ゆることをえん兒の意すでに決せり潔よく刃にふれて死せんのみと言終りて神色自若たり東徒みな感泣し少年の衣に危害を被むらしめざるの印章を押し更らに十兩の錢を與へ百方慰掌して家に歸らしむと此事各地に傳はるや遠近の壯丁其義を慕ふて來り會するもの太だ多く東徒の兵勢俄かに振へりといふ

○巡邊使と廉察使との出發

韓廷は全州の陷落の以前其危急なることを聞き大護軍李元會を以て兩湖の(全羅慶尙の二道)巡邊使となし機に隨ひ變に應じ鎭撫に盡力すべきことを命じ又行護軍嚴世永を以て廉察使とし國王の綸旨を奉じて忠淸全羅慶尙三道の民情を視察せしむ而して巡邊使李元會は平安監營の兵丁五百統御官の兵丁二百を率ひ六月二日京城を發し陸路戰地に向り兵丁の京城を離るるや悲哀に堪へざりしと見へ泣涕するもの多く何れも此行を願はざるものことごとく漸やく慰撫して出發せしめたりといふ出陣に際しては喜こび勇み跳り舞り屍を踏て進むは勇士の常なるに朝鮮の官吏今此の如し軍陣の血祭りに不潔の血淚を灌ぐそ

の東賊の爲めに一擊の下破碎せらるるもの亦た怪しむに足らざるなり

○國王殿下宗廟の地を思ふ

全州の未だ沒落せす唯唯危注なりとの注進矢を射るが如く續き至るの時に當り國王殿下は宗廟の地亂民の侵すところとならんを憂ひ禮堂を遣はして其の事情を實視せしめんとして左の如き命を下したり

> 匪類の徒直に完府(全州を乞ふ)に突入すと聞くと雖も情形の如何を審にすることを得ず廟殿敬奉の地にして此騷擾あるは警悚の至りに勝へず卽ち禮堂を遣はし實況を視察せしむ

と而して未だ禮堂其人の到着せさる以前に全州は旣に敵の有に歸したり王の衷情また察すべし

○京城の軍隊

京城內には近衛兵とも稱すべきもの四千程あり親軍總衙營と云ひ親軍統禦營と云ひ親軍經理營といふ而して親軍總衙營の兵士は新式の訓鍊兵にして多少砲銃の術に長ず統禦營は舊式の兵を以て組織したるもの又經理營は世子宮附の兵士にして閔泳駿の設くる所なり以上三營の兵士凡そ四千人斗りなり然れども今日の如く有事の時にあたりて死を決して進むものなく其名ありて殆ど其實を失ひたるもののみなんといふ

○現任堂上官

現任朝鮮の中央政府及八道に於る顯官は左の如く

中央官

領議政	沈舜澤	右捕將	李鳳儀
左議政	趙秉世	扈衛使	金煥使
右議政	鄭範朝	統衛使	閔泳駿
吏判書	閔泳煥	經理使	同上
戶判書	朴定陽	壯衛使	李鐘健
兵判書	李承吾	總御使	韓圭卨
刑判書	李正魯	海軍統制使	憫[19]應植
禮判書	洪鐘軒	總制使	憫[20]泳王
工判書	金鶴鎭	郵電總辨	趙秉稷
外督	趙隶[21]稷	鑛務發辨	憫[22]泳翊
內督	憫[23]應植	典圜局總辨	成岐運
左捕將	申正熙	轉運總務官	趙弼永

八道監司

京畿監司	金圭弘	慶尙監司	李容直

19 민(憫) : '민(閔)'의 오자이다.
20 민(憫) : '민(閔)'의 오자이다.
21 이(隶) : '병(秉)'의 오자이다.
22 민(憫) : '민(閔)'의 오자이다.
23 민(憫) : '민(閔)'의 오자이다.

忠情監司	趙秉鎬	平安監司	憫丙奕[24]
全羅監司	金鶴鎭	黃海監司	洪淳馨
江原監司	閔亭植[25]	咸鏡監司	朴箕陽

右の內忠淸監司趙秉鎬は變亂のため逃走し全羅監司金鶴鎭は前監司金文鉉の逃走後新たに命ぜられたるものなるも變亂のため任所に赴くことを得ず難を他に避け居れりと又右中央官にて最も勢力あるものは統衙使兼經理使たるの閔泳駿にして苟も地方官たるを欲するものは先づ閔泳駿に賴らざるべからざるを得ざるものの如し實に朝鮮に於る閔氏の跋扈專橫を極むる筆紙の能くつくすところに非ず一門富貴榮華を極め殆ど閔氏に非れば人に非ざるが如きのありさまなりといふ而して全國八道の監使以下留使[26]府使牧使縣監等に至る地方官の總數大略三百名程にして此內百六十名以上は閔氏の推撰に係るものなるよしなれば閔族の勢力如何に韓廷に陸梁を極むるかは推して知るべきなり

○京城の四寨

京城に四寨あり曰く廣州曰く春川曰く江華島曰く開城府とす此四寨には常に留守と稱する朝官駐在し居ることなるが東學黨の京城に攻め入らんとするには其大手なる前記の四寨の中廣州

24 민병협(憫丙奕) : '민병석(閔丙奭)'의 오자이다.

25 민정식(閔亭植) : '민형식(閔亨植)'의 오자이다.

26 사(使) : '수(守)'의 오자이다.

(京城を距る日本里程五里)竝に此地に竝へたる水原を破らざれば侵入すること能はざる趣きにて此兩塞は要害なかなかに堅固なれば容易に攻め入ること能はざるべしといふ

○京城の兵器及び彈藥

昨年末の調査によるに京城に在りて朝鮮政府の手に屬する銃砲及び彈藥は「マルチ子」二千挺「レミントル」一千挺「スナイトル」七百五十挺小「クルツプ」十門にして彈藥は「マルチ子」二十萬發「レミントル」凡そ五萬發なりと而して此の「マルチ子」は嘗て世昌洋行の手を經て獨逸國より購入せしものなりといふ

○行商忽ち兵士と變ず

清國政府が朝鮮に對する謀ることの周到なる策することの緻密なるは常に人の意想外に出づることなるが兼ねて內地の動靜を探らんかため若しくは今回の如き變に備ふるため或は行商に身を■つさしめ或は賣藥の商人に姿を變へしめなとして朝鮮に入り込ましめ居るもの實に千餘の多きに達せりと云ふ京城一地のみにても三百餘に及ぶと左れば是等の淸商は今頃は何れも商服を脫して軍裝の兵士と變し居るならんといふ

○竊かに小銃彈藥を贈る

東學黨の蜂起してより征討軍の發遣となり再度の援兵派出とな

りたるも兵器彈藥に於て豫て用意のなかりしかば非常に困難に陷りたるより淸國公使袁世凱に依りて淸國より兵器彈藥の貸與を哀請したるよしなるが袁世凱は此の旨を本國政府に通知したりといふそれかあらぬか數日前淸國政府は某軍艦を以て竊かに小銃彈藥を韓廷に贈りたりといふ

○牙山の地理

今回淸兵が上陸したりといふ牙山の地位を案するに忠淸道の西北岸京畿道に近き灣內にあり先年支那軍艦一とたび之に入港したることあれども船舶等の常に入港するところにはあらず今度淸兵の此の地に上陸せんとするは東學黨の京城に向て進軍するの要路を塞ぐに便利なるがためなるべしといふ此地は京城を距ること凡そ二百韓里(一韓里は凡そ我四町)にして京城に進むには平澤振城[27]果川等を經て漢江を渡るものにして進路は國中の最も好ところなれども到るところに小山あり殊に果川と漢江の間には小勢を以て大衆を防に足るべき要害の山あり次に廣江は河幅一町餘もあり而して京城に續く岸邊は廣き砂地なるが故に渡し舟をとりさりて守るときは容易に兵を渡たすこと能はざるべしと先づ韓國內險要の地なりといふべし

27 성(城) : '위(威)'의 오자이다.

○清兵派遣の實數

今回東學黨の擾亂につき韓廷の力遂に能く之を鎭壓すること能はざりしと見へ淸國に向て援軍の派遣を哀求するに至りたる次第なるが淸政府がその請求により出兵したる員數は一萬人とのことなれども少しく誇張の言なるべくその實六七千人と見る方至當なるべし元來李鴻章統督の下に在る軍隊は大略歐風の訓鍊を經たるものにして其銃器の如きも總て精新を尙ふかたなれども事の實際より見るときは決してさほど恐ろしきものにあらず其內部には種種なる弊實のあり殊に之か將官たるものは常に定員の內幾何を減じて其費額を私するの風なれば一萬と稱するも大概六七千位を云ふものなれば今回もまた之より推し料るときは其實數は六七千位のものと見積れば大差なかるべきか

○李朝五百年の亂

李成桂高麗を亡ぼし王氏に代りて自立せしは紀元千三百九十二年我が明德三年にして後小松帝の朝又たその朝鮮と改號せしは紀元千三百九十七年我が應永四年にして今を距る五百年の前に在り李氏の朝五百年にして一大革變を來すべしとは久しく彼國好奇者の口に傳へられたる讖言なり此の讖言は所謂痴人の夢にも價ひせざるものなりとて誰人も之を顧るものあらざりしが俚言俗謠亦一概に排斥すべからず今年今夏に至りて東學黨の變亂起り韓廷の狼狽は言ふに及ばず延て王室にまで一大憂患を與ふるの不幸を惹起すに至れり纖[28]言必ずしも適中せしといふべ

がらざれども亦一奇と云ふべし今朝鮮の初代卽ち李朝第一世より第三十世今王に至る(曆年五百〇二年)同國君主の稱號登位の年次等を左に揭げ以て讀者の一餐に供す

稱號	先考	登位
太祖考獻王	子春榮錄太夫	千三百九十二年
定宗恭靖王	太祖二男	千三百九十八年
太祖恭靖王	太祖五男	千四百年
世宗莊憲王	太宗三男	千四百十八年
文宗恭順王	世宗一男	千四百五十年
端宗恭懿王	文宗一男	千四百五十二年
世祖惠莊王	世宗二男	千四百五十五年
德宗懷簡王	世祖一男	未詳
睿宗襄悼王	世祖二男	千四百六十八年
成宗康靖王	德宗二男	千四百六十九年
燕山君	成宗一男	千四百五十四年
中宗恭僖王	成宗二男	千五百五年
仁宗樂靖王	中宗一男	千五百四十四年
明宗恭憲王	中宗二男	千五百四十五年
宣祖昭敬王	中宗九男德興太院君三男	千五百六十七年
光安[29]君	宣祖三男	千六百〇八年

28 섬(纖) : '참(讖)'의 오자이다.

29 안(安) : '해(海)'의 오자이다.

仁祖恭良王	宣祖六男	未詳
仁祖惠文王	光安[30]君一男	千六百二十三年
孝宗宣文王	仁祖二男	千六百四十九年
顯宗影孝王	孝祖一男	千六百五十九年
肅宗元孝王	顯宗一男	千六百七十四年
景宗宣孝王	肅宗一男	千七百二十年
英宗顯孝王	肅宗四男	千七百二十四年
眞宗孝章王	英宗一男	未詳
正宗莊孝王	英宗二男思悼世子一男	千七百七十六年
純祖成孝王	正宗二男	千八百年
翼宗孝明王	純宗一男	未詳
憲宗哲孝王	翼宗一男	千八百三十四年
哲宗英孝王	全溪大院君三男	千八百四十九年

今王名は熙、字は聖臨、誠軒と號し興全大君[31]の二男千八百五十二年(我が嘉永五年)七月二十五日誕辰、千八百六十三年(我が文久三年)登位

王妃閔氏　驪城府院君致錄の女千八百五十一年(我が嘉永四年)五月二十九日誕辰

世子宮 名は坧、君邦と號す宮の妃は閔氏なり

30 안(安) : '해(海)'의 오자이다.

31 흥전대군(興全大君)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오자이다.

○擾亂彙報

○全州城中一兵なし

全州監營の東軍の有に歸したるは五月三十一日のことなるが當日午後に至りては同營內にては一介の兵士を留めさるのみならず給仕等の小童に至るまで影を止めずして逃亡したりといふ

○招討使と監營

全州陷落の後招討使竝に完伯の行衛不分明なりしか多分完伯は逃亡し洪招討使は戰沒せしなるべしといふ

○國王の逆鱗

官兵の敗報頻りに到るも廷臣等は秘して之を國王に奏せざりしが今回全州の陷りえとき始めて之を國王に之を奏上せしかは國王の逆鱗一方ならず廷臣を闕下に呼び出して之を譴責せられたりといふ

○支那米の輸入

淸國政府が國禁物たる米糧を無稅にて朝鮮に輸出することを特許したりしが右は去る三日にて期限滿期となりしが其以前にありて上海より輸入せし數額は日本郵船會社の賴朝丸のみに搭載せしもの凡そ一萬袋あり尙此外獨逸汽船及那原汽船等にても孰れも滿載して入港せし由なり

○ 韓廷の內情

新兵來援のこと專ら憫[32]泳駿の斡旋に由り異論者多し殊に淸兵と前後して日兵の來警を見るに至りたるは全く淸國の兵員の來援を求めたる結果なりとて韓廷內に種種異論ある由なり尙韓人は平素口にするところは日人何かあらんと傲慢の擧動ありしことありしが今現在に日艦の舳艫相■て仁川に繫泊するを見その上勇武なる日本兵士の京城に入るも將さに近きにあるべしと喧傳じ俄に畏怖の色あるは笑止千萬なりといふ其上今回暴徒の强猛逞して官軍屢ば破れ追討軍も亦た功を奏すること能はず擧朝非常の狼狽をなしつつありたるは事實なるが之れをしも掩はんとして種種の言葉を設け各國の公使等に對しては東徒の魁首は旣に戮につけりとか或は京軍大勝利なりとかしきりに强がり風を吹かし居たりといふ是れ日淸兩國の兵士の入京するを恐れ之を遮ぎるの策に出しものなるべしといふ

○ 巡邊使李元會氏

全州陷落の報に接し之が鎭定の重任を負て本月二日の夜を以て發程し京軍一千餘砲兵百六十人を率ひ戰地にむかひたる李元會は曾て漢城の利軍たりし人にして韓人中には頗る活潑なる且つ勇氣ある人物の由本年七十の高齡なりと鑊[33]鑠たるかな此翁や往て須らく不朽の大功を立つべし若し事成らすんば屍將に

32 민(憫) : '민(閔)'의 오자이다.

33 곽(鑊) : '확(矍)'의 오자이다.

馬革に包まんのみ又人生の一大快事餘命何ぞ惜しむに足らんや

○亡國の逆臣

口に忠君愛國を唱ふるも心中一點の盡忠の赤誠なく表に良臣賢才の容ちを裝ふも裏に報國一片の丹心なし宜なり一朝事起るの日に逢ふて狼狽遁逃するや韓庭の諸官這回の敗報に接し恐怖一方ならず除除逃げじたくをなし中には秘密の懸に家財を鄉里等に運搬せしむるもの多しといふ君の祿を食むの廷臣にして其君を思はず只に自己の安全をのみ圖る如何に朝鮮末路の然らしむるところとは雖も之れをしも何とか評せんや獅子身中の蟲とは彼等のことをや云ふべきか

○本[34]覓山の烽火

木覓山は京城の南山なり此邊より東の方は樹木鬱然溪澗には清海ありて其風趣の雅致ある騷客韻士は時時杖を引くの地なりといふ山嶺は衆峯に抽んでで高く頂上には五個の炮火臺ありて國內八道の炮線は此に會するなりすべて朝鮮にてては事變の起ることあれば此を報するには必ず炮火を以てすることなるが燈臺の設け全八道に凡そ三百六十五ケ所間烽の數二百八十箇所あり燈火は夜間一點の火あれば無事の報とえ二點あれば異變ありとしまた白晝には薪柴等を燒き昇烟を以て相圖となすの法なりといふ果して此の木覓山の燈臺二點の烟火天に沖するの

34 본(本) : '목(木)'의 오자이다.

ときを見ることなくんば韓國の幸なり

○國王の避難地

朝鮮國にては一旦非常の事あるとき國王の避難地として定められたるものあり從前は江華島も其の一一處なりしが今は營兵なきを以て萬一東學黨など京城に侵入するが如きことあらば國王は先つ宮闕の後方に位せる北漢山の山城に入らるべし同山城は樹木を伐り拂ひ巖石を削り周圍一里に堅固なる厚塀を築き用水を後山の谿間に取り恰も摺鉢を倒まにし其の上面を穿ちて家屋を建設したるが如く一見砲臺に髣髴たる城塞なれば後糧彈藥にして充分に備はりたらんには一夫之を守れば萬卒も動かし難き要害の地にして容易に侵入するを得ずといふ

○韓廷の彌縫

韓庭か虛勢を示めして一は官軍の勇を裝ひ一は諸外國に對してその威を落さんことを恐れ左の如き意味を書したる貼紙を京城の四門に貼布せりといふ韓庭の苦心察するにあまりあり

去る二十二日招討沁營の兩軍咸平の賊徒を襲ひ二十餘名を殺戮し尙は逃るを追て遂に崔鄭の兩巨魁を生擒す賊軍震怖夜遁逃するものあり全州の妖雲不日にして鎭定に歸せん

○形勢彌彌切迫

戰地よりの飛電は更に吾人に幾多の近況を齎せり曰く

- 清兵牙山に屯集す凡そ一千五百人
- 露國常備艦隊朝鮮近海に來る
- 英國軍艦の巨文島にあるもの凡そ三四艘
- 李鴻章は威海太活の兩營より更に兵士三千餘人を徵集し引續き出兵の準備中なり
- 東學黨京城八里の外に迫る
- 賊徒の侵入を防がんがため京城各門の守兵を增し一朝事起るの日は直ちに鋒煙を擧くるの準備をなし京城の商業は全く休む人心恟恟たり
- 京軍長城に迫まる東軍戰はすして全州に走り籠城の兵士と合して敢て出てず京軍之を促すも更に顧みる所なし

○朝鮮の危機

輕輕に之を看過するときは些些たる盜賊の蜂起のみ暴徒の一揆のみ敢て事事しく言ふに足らざるなり然れども重く之を見るときは實に東亞の交涉事件なり鷄林八道のみのことにあらざるなり抑も朝鮮の國たるや南方尤も開け民口の稠密より物產の豊富に至まで固より北方の及ぶところに非るなり而して今回擾亂の主動者たる東學黨なるものは實に南方豊富沃饒の地たる殊に人智上進の點に於ても亦た地方に冠たるの全羅忠淸の二道

より起りたるものなりとせば朝鮮政府にとりては之を一揆暴徒と見なして決して輕輕看過すること能はざるなり而して彼等東學黨の最後の決心とするところは果して那邊に存するやは知らざれども今日までの彼等が擧措よりして見るときは敢て北上して王都たる京城に迫まるをいさぎよしとせざるものの如く且つ王師と見るときは避けて之れに抗せざるが如き擧動あるは未だ時の不可なるに因りて暫く猶豫するものなるが或は他に原因ありて然るか此等に對しては今ことことしく之を研究するの必要なしとするも兎に角彼等が斥倭斥洋の旗を押し建て內は政治の積弊を改良せんことを期す云云との楊言は幾分か國家的の精神を借りて其名目を大にしたるの跡ありと雖も其內實に至りては大に然らざるものありて存するを信ずるなり實に彼等は重斂苛誅暴虐至らざるなき吏權の壓制に反抗して尉然勃起したるところのものにして所謂國民的大同盟軍を形造りたるものにあらざるなきを得んや凡そ專制國の慣習として上より下に對しては嚴密なる制裁力を握りて之を壓伏することを得るも下民より長上に對しては何等制裁の以て權力を限るなければ止を得ず此間に於る民心の不平は暴發して一揆となり進んで革命の軍と化するに至るは專制國に於ける典例なり

今や眼睛を放つて朝鮮國內部の有樣を觀察するときはまた言ふに忍びざるものあり姑息偸安は此國滿朝の政策官紀紊亂は此國腐敗の根原となり政權は擧て之を一二權門の翫弄に供し官官宮妾の徒姿に威禍を張り下には暴官汚吏の地方官あり貪斂あくことをしらず嗚呼上下交交利を征して國危しの語は坐ろに

韓國のため寒心するに堪へたるものあり東學黨の奮然として蹶起し情實打破を陣頭に飜し此等醉夢昏昏たるの朝廷に向て一大打撃を加へ君側の姦邪を一掃して以て妖雲怪霧を拂はんと庶幾するに至りては眞に彼等の衷情幾層苦心の決果鬱勃たる千丈の氣焔は大波鯨濤を捲て衝き來るの時あるを信ずるなり嗚呼八道一千萬の人民中豈一人の多血性を有する英雄男子なかんや

東學黨は非常の勢力を以て進行せり彼等は殆んど八道の草木を風靡せり彼等の首領は崔某と稱し鄭某と呼ふと雖も其實は破壞的大同團結なり黨衆の意見は能く實行に顯はるるなり烏合の弱卒として輕侮すべからざるものは實に輿論の疑結したる團塊なりとす

官兵は連戰連敗追討使は生死を分たず第二の援軍は兩軍の未だ境に臨まざるに早く既に軍氣沮喪し或は益山に或は臨破に敗報踵を繼て至り東軍は大擧して北上の途に上りたりとの報道はさしも權威飛鳥をも落すの閔族一門の徒をして如何に落膽狼狽せしめしよ彼等は何れも色を失ひて爲すところを知らす遂に外兵借入の議となり援を淸國に請ふに至りたりといふ吾人は締盟列國中獨り淸國に向て救を求むるに至りたるを見て其眞意の那邊に存するやを大に疑はざるを得ず抑も通交の最も親しさによるか將た韓庭自から淸國の屬邦たるを甘じて然るか兎に角堂堂たる獨立の旌旗を飜したる政府にして區區內亂を鎭定すること能はず援を外邦に求むるに至りては國辱之れより大なるはなし然れとも家あるを知りて國あるを知らず自己あるを知りて君あるを思はざる韓廷の百司此の■に出しもの又

怪むに足らざるなり

朝鮮の國たる西北は魯清と境を接し東方一葦帶水以て我日本と對す魯の意實に朝鮮にあり清國亦た常に掩有の意を忘れず朝鮮亡びんか清國寒し朝鮮清に屬せんか英の喜ぶところにして英は實に魯の仇なる我國亦た朝鮮と脣齒の關係あるもの鷄林の野焉ぞ他人の■聲を容るる可ならんや之れ實に東洋のバルガン半島たる所以にして一小弱國たりと雖も天下の耳目之に傾注し其の成敗如何に注意するまた宜なりとす

漢の賈誼云へることあり今の時は人の薪を抱て火に入るが如しと韓國の形勢また大に之に類するものあり韓國たるもの一時姑息主義の政略を行ふも豈能く保つことを得んや五百年の星霜を經過し全く亡國の境遇に進み入りつつある李氏の天下たる岌岌乎として夫れ危ふからずや

甲午朝鮮內亂始末

天佑俠

東京新進社發行

甲午の夏 東學黨の韓山を亂るや、天佑俠と稱する神州健兒の一群あり、血盟して之に投し、奇謀を籌らす神の如く、奮擊突戰疾風迅雷の勢を以て南韓五十六州を蹂躙し、遂に日淸戰爭を激成したる、撼天動地絶壯絶快の活劇は、彼れ天佑俠の沈默によりて未だ人に知れざる也、方今極東の風雲再び險惡を極め、暗雲慘憺將に急變を來さんとする玆に半載、大雷耶、大雨耶、議論畢竟世に效なきの秋、特に此書を刊行して以て之を公にす、此裏豈に一片の微意なしとせんや。

天佑俠

吉州牛

太平歌

太平唱來五百年 厝火積薪坐貪眠 曆數有讖思鄭氏
八道無人解倒縣 三南時聞杜鵑叫 泰山欲呼寸膚雲
半夜聞鷄誰唾手 幾人撫枕氣慨然 東學道主崔夫子
心抱濟世斥西祆 名高一代誡妄作 十萬敎徒擔一肩
難奈衆徒激時事 飛檄馳羽人馬喧 念珠在手提銃起
誓排閭闔訟民冤 全州北指朝天闕 南之嶺湖勢可連
韜略獨推全琫準 萬馬銜枚度層巓 曉霧未醒夜宴酒
一城倉皇驚響弦 軍令淸明十二幟 城下望風衆萬千
趙括乞降官屢敗 陣營講道開法筵 三南旣非賊官有
宜向京師勒鞍韉 烈焰四面萬雷迸 江華親軍捲狂瀾
爲民殺民非吾義 姑全城民且退軍 日東男兒有義膽

天佑其俠覘天權 錦囊祕得霹靂術 長袖善藏蛟虯拳
揚鞭駕洛雨暗夜 歃血廣寒月明前 斡乾轉坤在彈指
千百幼身十五員 天佑相感是天俠 扶桑遙望鷄林烟
天俠相合是天佑 淳昌將廳訂天緣 八將星羅如曜電
賓儀上壇似神仙 指天指地誓暾日 論道談兵風生壇
大道不怪行大逆 密謀先天不違天 行徇州郡張形勢
忽放奇計入京阡 汝到雲峰立汝馬 萬縣傳檄下仙寰
鷄籠吾且閟我室 七初投鞭亂洛川 奇中有奇奇生奇
約中有約約更堅 如去如來隱又顯 神變誰敢倪其端
天佑俠兮東學黨 動九天兮潛九泉 願共建無前鴻烈
太平長歌大朝鮮

右一篇の長歌は、保寧山人が同志と共に鷄籠山新元寺に籠城せるの日、陣中の無事に乘じ、詩腸を披き、一氣にして呵成せる所、實景實情、寫し得て悉く神に迫る取つて以て天佑俠の卷頭に收む。

中原還逐鹿 投筆事戎軒

李氏の子、其政を失してより、五百年の天下、白虹日を貫けること、そも幾回ぞ。湖西の一卜者は新天子の鷄籠山より發祥すべきを宣言し、列郡之を信じ、民心漸く動き事終に朝に聞するに至つて、夫を役し之を壞さんとせることあり。 嶺南の都鄙には流說あり云ふ、家破れ國亡ぶる今より三年を竢たず、封土は半ば折れて俄羅斯に入り、半ば、日本に屬し、韓人は皆之

が婢僕と成了らん、吾等は豫め其滅亡に備へ、向背を決する所なかるべからずと。 江原にも亦飛語あり曰く、李に代るべき鄭は金剛連峰の中、濃煙深霧の間より顯れ來らん、如今は則ち其人持重して俄かに立たずと雖、一度足を擧るに至らば向ふ處破碎せざるなく、京軍は甲を解いて之に降るの外なからんと。湖南の人は亦行客に說きて曰く、新天子は、烟波渺漂たる海中の一島に隱れ棲めり、一帶の紫雲、之を纏帶して絶へず官兵の來り討ずるを遮ると。國家不祥の兆は、斯の如く陸續として四方より報ぜられ、其人心を騷がし、八路を驚かすの甚しき、終には一般に浮語を信じて人に向ひても亦新時代の遠からずして必ず到來せんことを確言し、翹首して之を待つ者あるに至る、思へば今や李氏の運命薄氷を蹈むよりも尙ほ危き地位に立てり。

斯かる時に方りて、所謂民亂なるもの、百姓一揆なるものは、亦續續として各州郡より勃發し地方政治上の困難を加ふること一方ならず、就中最も中外の耳目を聳動せる民亂は、忠淸道の山郡、報恩地方を中心として嶺南、湖西の兩道を攪亂したる東學黨人の擧兵なり。 此騷亂に於て、道主(大監督)崔時亨自から黨人の統督に任じ、徐丙鶴、孫海中[1]、黃河一の各接長(監督)之が左右翼となり、尙州の沃野を擁し、秋風嶺の嶮要を扼して盛に威を遠近に輝したれ共、天時未だ到らずして江東の子弟次第に四方に散じ、圖覇の雄心、終に伸ぶるに及ばずし

1 孫海中：'손화중(孫華仲·和中·化中)'의 오기이다.

て大事空く休めり。然れども此一擧に依りて世人は始めて朝鮮に東學黨なるものある事を覺知し、爾來其一擧一動に付漸く注意を用ゐ之に對する警戒を怠たらざることゝ成れるが如し。

黨人の第一擧は事實上失敗に終りたるものに似たれど元來廢亡の形勢に陷りたる朝鮮に在りては官吏の暴虐益益其度を加へ、民怨愈愈重りて誅求愈愈劇しく、竹槍席旗の內憂、除かんと欲して復た除くを得べからざるなり。 去れば二十六年の末より、二十七年の春に至る迄、北道南道の物論每に恟恟として止まず、其勢の激する處、或は中和或は吉州、或は咸安、或は金海の各郡より、往往百姓の爲に身を擲つて奮起するものあり。 中にも金海の尹子益の如きは、二萬の衆を率ゐて郡の大山面より興り、終に其殘虐なる府使を追ひ退けて、身自ら衆に代つて遠島の處分を受くることゝはなれり。 然れども是等の民亂に在りては總て一地方の利害に重きを措きて眼國家の大局に渡らず、是を以て旣に一官吏を退治して漸く民仇を復し、終れば其亂亦忽ち治り去つて、復曩日紛擾の跡を止めざるを例とす。

爰に湖南泰仁の地に、鄕士、全琫準なるものあり、年齡正に四十にして、識學自ら博く放膽にして愼重、氣慨あつて果決なり、幼より東學の開祖崔濟愚に就ひて其教を聞き黨人間に在つて最も衆望を有す、是を以て終に擧げられて其接長となり、威名次第に南三道に振ふ。 崔時亨の嚮きに武を慶忠の間に示すや全は濟衆の時未だ到らずとして、俄かに起つて之に應ぜんとせず、獨り退ひて湖南の僻陬に潛み、寂然として岩穴に棲し、自修他導、唯教の爲めに孜孜として盡す所あり衆望之

が爲めに愈愈加はる。然れ共全琲準亦極めて覇氣に富めるもの、焉んぞ無爲にして其一生を醉生夢死の間に空過するを得ん。唯彼れや其器局、時人に比して頗る宏闊に、眼識亦甚だ遠大なるものあり、是を以て念、一び民生の疾苦に及べば連想、直ちに國家興廢の事に至り、從つて閔の跋扈を憤り、妃の淫縱を憂ふること一方ならず、乃ち天下の禍根を絶つは、先づ之が元兇を斃すに在りとし、靜かに野に處し、韜晦して自ら發するの機を竢つ者久し。然るに果せる哉、其機は終に到れり。彼か隣鄕古阜の郡守は毎に勢に賴り權を弄し、民怨を顧みることなくして强て其收斂を恣まゝにせんとす。黨政上、古阜は彼が任たる接長の管區內に屬せり故に彼の親人と彼の黨人とは先を爭ふて皆彼れの許に集り、彼の速に起つて其大なる手腕を揮はんことを勸めたり、然れども彼未だ容易に之に應ぜんとはせざるなり。彼れが威名を慕へる黨員外の隣境の人も、亦彼を訪ふて俱に起たん事を要請せり、然れども彼は尙ほ神色自若として動く所なきこと、猶ほ木强人に似たり。嗚呼彼れ何の爲めに爾く動かざる歟、他なし、一時事に激し、自ら犧牲となつて區區たる一郡主を制するも、其禍根にして永遠に絶たれざる限りは、更に他の惡吏の來つて之に代り、前任者の經驗に依つて、尙ほ一層の暴政を施すべきを以て、なり、結果此の如んば、鄕人に利する所なくして黨力に損する所多し、彼れの多年滿を持し、機を窺ふて起たざる所以、正に之か爲めなり、否、彼が如きの人物は、誠に千歲の一人なり、彼にして此國家危急存亡の際輕輕其身を處して進退宜しきを失ふあらば

國家は亦彼と共に亡びん、宗廟亦彼と共に倒れん、彼れの其身を重ずるは、固より其所と云ふべし。然れども彼も亦男兒なり、世に處して豈に一個の大野心、一片の大功名心なからんや。 去れば談判數回の極、彼は終に衆人の己が隱退を許さゞるを見るに及び、決然其赤心を吐漏して曰く、諸兄の志既に義の爲めに斃るゝに在らば我亦何ぞ強て其擧に同せざることあらん、唯我が欲する所は東學の所謂濟世安民の大義を伸ぶるに在り、一道を亂るも誅せらる、八道を亂るも亦誅せらる、誅は一なり、願くば事功の大なるを取らん、諸兄の意幸にして爰に決せば、我亦奮つて其驥尾に附し、復た骨肉を以て念とすることなく、決然として道の爲めに殉せん耳、敢て諸兄の決心を望むと。是れ誠に彼の眞面目なり、否是れ獨り其眞面目なるに止まらず、彼が多年滿を持して放たざりしは、深意或は機に乘じて這般衆人の合意を促さんか爲めなりし乎を疑はざるべからずとす。 於是元來彼を仰ぐ事泰山北斗も啻ならざる衆人は、直に彼れの陷井の陷るゝ所となり、萬口一齊彼の萬歲を稱し、彼を擁し、雀躍して彼と共に彼の草盧より蹶起せり。

暴吏の占據せる郡衙は一擊にして彼の爲めに破らる、此處に蒐集せる金穀は、彼直ちに散じて之を多年困弊せる郡民に施與せり、彼が私利心なき此措置は、益益隣境人の欣慕する所となり、彼が義軍は期月にして四方より來投する者數萬に及ぶ、彼の名聲は日に益益振ひ、黨軍の到る處は、百姓簞食壺醬して之を迎へざるなし。是に於て彼又檄を連邑に馳せ、擧兵の要旨を三南所在の諸豪に致し、俱に與に約を立て力を合して君

側の奸を拂はんと計る。諸豪應ずるもの踵を接して續き長興の李爺は八十余歳の老軀を賭して郡民を煽揚し、順天の李福龍は、十四歳の若冠を以てして四萬の義兵を擧げ、烽烟千里、旌旗野を蔽ひ、各路より正正堂堂として全州の監營に逼り來る、官軍出討するもの一望して氣喪し、胆落ち復た能く一人の戰を言ふ者なし將相亦皆狼狙して、群議出づる所を知らず、恐怖の極、終に大清の天兵なるものを乞ひ得て來り、讒に之を以て黨軍を威壓せんとするあるに至れり。

於是、前の湖西の一卜者の言は縱し全く當らずとするも、嶺南、江原の飛語流說は、尙ほ未だ其時機に達せずとするも、湖南人が話せる所は、今や漸く事實に近からんとして五十六管は正に其兵馬悾惚の修羅の巷たり。去らば全琫準は、彼等の所謂新天子にして、李の王朝に代るべき運命を有するものにあらざる歟。縱令ひ然らずとするも、彼は日後、萬里長驅の勢を以て朝鮮の南方を席捲するに及び、滿腔の覇、氣終に開南國王の尊號を自稱するを禁じ得ざりし。然らば則ち天の曆數、必ずしも彼が頭上に落下せざりしものと斷言するを得ざらん、惜ひ哉、當時吾國、彼を御し得る底の大人物なく、彼をして空く濟世興國の雄志を齎らして、九泉に逝かしめたる事や。

韓山八路の騷亂は、今や其極に達して、傲頑なる淸國は慢然として之に援兵を與へたり、日出處の國裏、遙かに之を觀望して、腕鳴り血湧もの何ぞ限らん。唯時勢漸く惰弱に流れて、萬里の建業を志すに人なく、上下苟安を以て是れ得たりとなし、偶偶非凡破格のものあれば、指斥して狂暴となさゞるは

稀なり。去れど志士軍人の一部には、尙ほ意氣昂然として聊か與に語るに足るものあり、彼等の或るものは青年士官三四十名を一團となし、短艇銃を積み藥を載せ、星夜馳せて全羅海の波浪を破り、或地點より上陸して東學黨に投ぜんと企て。又或者は北國九州年少氣鋭の士五六十名を募り、之を送つて東黨の勢焰を加へんと計畫し、兩兩交交潛かに爲す所ありたれ共、此の時遲く、彼の時早し、意外にも又意外なる一團の俠徒、總勢擧つて僅かに十五名、驀然として慶尙道の南部、馬山浦の一角より全羅の內地に突入し、大膽にも暗夜、數萬の東黨の陳門を敲いて、斡乾轉坤の大手腕を海外に振はんとするものありける、之が爲め機先を制されたる志士軍人の遺憾や思ふべし。

一團十五名の俠徒とはそも誰をか指す、卽ち當時世に喧傳せられたる天佑俠是れなり、借問す、彼等拾五名は當初より其志を一にして事に朝鮮に從ひたるものなる乎、將た彼等個個の志を以て奮起し、中道にして意氣相投合するに至りたるもの乎、乞ふ聊か次に於て述ぶる所あらん。

彼等の精神に在ては個個の間、固より秋毫も相異なる所なし、然れども彼等の系統出處に於ては、皆各各相同じからざるものなくんばあらず、今其出處を區別すれば大略左の如し。

(一) 京城派 田中侍郎關屋斧太郎本間九介柴田駒次郎の諸人之に屬す、彼等は二十四五年の頃より京城に在つて觀風の志士を招來し、二十七年の春に至り事情あつて釜山派に合同せるものなり。

(二) 釜山派　二十六年吉倉汪聖が朝鮮再遊の時、大崎正吉千葉久之助を伴ひ行き後筑前の武田範之白水健吉、千葉の葛生修亮對馬の大久保肇、其他數名と釜山に梁山泊を築き、爰に居る事二年、其間終始意を朝鮮の內亂と開導とに注ぐ所ありしが、終に京城派を包容して聲威益益振ふ

(三) 筑前派　關屋斧太郎、吉倉め忠言を容れずして、同志と共に筑前に至り、別に爲さんとする所あり、此時恰も天眞館の內田甲が末永節等と共に事に朝鮮に赴かんと欲する志あるを聞き關屋乃ち之に謀る所ありたれ共、內田彼が其準備を內國に於てするを危しとなし、百方其中止を勵め、言聽かれざるに及んで玄洋社の大原義剛と共に、先んじて韓に入る。

(四) 二六派　釜山に於ける京城釜山兩派の合議に依り、大崎正吉を東京に派して鈴木力等を招く、入韓の途次、時澤右一、大阪より之に加はる。

以上四派相合して、釜山より馬山浦に渡り、突然烽煙を昌原の鑛山に揚げて幾場の活演劇、之より生じ來る。

釜山大本營の動靜

京城の梁山泊、事情の爲めに陷落して以來、釜山は正に彼等一黨に向つて、中央大本部の形勢を成せり。彼等揚揚然として玆に地步を占め、暫く詩酒の間に優遊して多年の覇氣を韜晦する

ものゝ如し、去れど慶尙一道の山河は、猶ほ彼等が平生無事の日の爲めに練武の好場たるを免れず。　既にして咸安に事あれば、彼等直ちに馳せて之を探細し、金海に亂あれば亦行きて其革命の導火たるや否を究め、頃刻と雖も彼等が大任とする所に至つては則ち盡さゞる所なし、彼等も亦勞せりと言ふべし。然るに今や彼等が待に待つたる千載の一時は來れり。湖南の風雲は日一日より嶮惡にして、出討の官兵旗を卷て走り、連城連邑、東學の占むる所とならざるなく、嶺南の地亦其山郡一帶を侵略せられんとす、形勢頗る危急に瀕せり、彼等豈に踴躍して此好機に投ぜざらんや。曾謁謙倉源右府墓、我欲征大明汝諾否、大丈夫當用武萬里外、何爲鬱鬱老小洲、彼等が酒を被つて連日連夜口吟する處は卽ち是れ、今に至り躊躇し逡巡して其平生の所期に乖くが如きは、彼等斷じて之を爲すべきにあらざるな

紫山水明閣[2]の會議

時機は彼等を驅つて、一夜釜山の山紫水明閣に、一黨の大會を催さしめぬ。座に主なる者先づ曰く、何如んか吾徒の前途執る所を決せん。一人應じ曰く、第一着として士を四方より招致せん。衆別に異議なし、乃ち大崎正吉を東京に派して、鈴木と相謀らしむることゝなす。一人又曰く、山道既に急なり、吾徒宜

2 紫山水明閣 : '산자수명각(山紫水明閣)'의 오기이다.

く速かに東學の情形を審にして、他と合縦連衡の地をなさゞるべからず。衆皆以て然りとなし、直ちに武田範之、千葉久之助を星州金山地方に遣はす、是に於て方針略略定まる所あり。

兩朴山道の黨情を探る

武田千葉の二人は朴善五、朴善七の名を以て身を藥商に扮し、密陽より淸道に入り、大邱府蛛洞の豪族、徐相龍を訪ひ、次日の黄昏、漸くにして金山の邑門に到る、百姓數萬、市頭に喧騒して形勢甚だ平穩ならざるものあり、朴善五、行客に就て其動靜を探る、曰く是れ東學の餘黨比隣に出沒して、人心往往之が爲めに脅かさるゝものなりと、朴等乃ち欣然酒家に就て宿を定め、半夜街上月を踏で吟遊の態をなし、以て益益黨情を探らんとす。當面忽ち一偉人の路を塞ぎて一睨するものあり、彼れ呼んで曰く、來れ孺子共に與に語らん、我に從つて酒幕に入れ。朴等懷稍稍穩かならずと雖ども、勇をし之に伴ふて一酒家に投ず。偉人坐に就き、莞爾として杯を擧げ囑して曰く、汝等我東道の眞意を知る乎、余は其道を四方に宣揚せんが爲めに、夜夜巷頭に在つて行人を、竢つものなりと。朴等事の意外に出でたるを以て、始めは稍稍狼狽して疑ふ所なきにあらず、去れど他の諄諄として說き來り說き去り、至誠の人を動かすもの少なからざるを見るに及び心中漸く安んじ、乃ち更めて之に來意を報じ、合せて其道の祕教と、頃日擧兵の目的とを聞かんを要す、彼亦快諾、仔細に公明なる黨情を告げ、且つ

大義の濟衆安國に存する所以を明にし、其祕符、侍上席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の十三字を授け、再會を期して酒家より出づ。朴等是に至り、探究の意を遂げたるを以て、星夜馳せて釜山の水明閣に歸り、同志を集めて報告する所あり

吉倉先發の決心

然れども一方に於て、清兵來援の爲めに、湖南の東徒は意氣漸く消磨し、一旦占領して號令の根據地となせる全州城を再び官軍に返へし、鋒を收めて南に還らんとする飛報あり。 一たび此機を逸する時は、彼等は大業復た期すべからず、而して其成敗は今や將に一髪に間に分れんとす　於是吉倉は同志と相議して曰く、嚮きに東京に派したる大崎は茫として未だ消息を知るべからず福岡に赴きたる關屋は成功固より期せざる所而して此間の一刻は平時の十年にも匹當す、吾徒空く手を拱して他の返るを竢つべきにあらざるなり、加ふるに東徒の現情彼の如く旦夕を計るべからざる危急に瀕せり丈夫唯一死を賭して大道を行ふべきあるのみ、我れ乞ふ此任に當り成すべくんば彼徒の頽勢を挽回し、萬一成すべからずんは、彼徒の傑人の命を救ふて日本に走らん、諸公暫く我爲す所を默視せよと、田中、武田白水、皆之を然りとし、吉倉は鈴木等の來着を竢つに及ばずして、單身先づ湖南に向つて其啓行を試みんとす。

兩士の先發

時は明治二十七年六月二十四日、釜山居留地の郊外、富平洞の大路を優然として歩み去るものあり、手には笏を握り、頭上には烏帽子を戴き、紫彩の袴を穿ち、錦絲浮鶴の直衣を着け、意氣揚然として顧眄する所、當代の風采にあらず、其人やがて路畔の酒家に入り、濁酒數酌、陶然として之を出で、吟聲朗朗、九德の嶮坂を攀ぢ登らんとす、微雨は霏霏たり、烟霞は搖曳せり、燒が如き當日の炎暑之が爲めに消殺せらるゝもの多し、彼れ愈愈心氣快然として溪に沿ふて走る。　後頭忽ち人あり、絶叫して呼んで曰く、吉倉君、且つ獨り去ること勿れ、我も亦鎭西の一男兒、若冠は自ら若冠の任あるべし、乞ふ共に虎穴に入つて虎兒を探り來らんと、吉倉之を顧みれば、平生能く相識る所の一少年、井上藤三郎なり。彼は其歳取つて僅かに十四、吉倉が主幹する所の新聞に在つて文撰たるもの、然れども天資精悍にして氣鋒鋭峻、凜として犯すべからざる所あり。吉倉亦常に其行爲の大に當代の群童と異なるあるを知る。乃ち容易に戒諭して去らしむべからざるを察し、先づ之に問て曰く、汝父母の許諾を得て來れる乎、曰く然り、曰く然らば以て共に往くべしと、終に相提へて征途を急ぎ、其夜は龜浦の一旅店に投宿せり。

次日曉起、小西將軍の城墟を後に見て一舟早く龜浦の渡頭を過ぎ、やがて廣漠たる洛東江の中洲を涉り、一水又一水、幾回か舟手を呼んで舟を艤し、滿眸無限の風光を吟囊に收め得て漸く彼岸金海の領內に達す。路畔に我慶長武者の大墳塚あり、

楓樹常綠交生して假山の景を成せり、兩人酒を濺ぎて古人の雄魂を弔ふ。既にして金海の本府　入れり、此地は古駕洛國の首都、我神后亦爰に下陸して三韓を招撫せられたる所是を以て探古の情自ら禁ぜざりしものあらん。然れども彼等は尋討の暇なく、僅かに義人尹子益を囹圄に訪ひ、直ちに馬山浦に向つて發せり、蓋し馬山浦は船路全羅に向ふことに於て極めて便宜の地位を占めたればなり。

兩人の馬山浦に滯留すること兩三日、舟未だ全羅に向つて發せず、彼等乃ち當時の轉運御史、後の農商務大臣鄭秉夏を尋ね、或は加藤左馬之助の水城に登臨し、或は土俗人情を觀て、漸く其鬱勃の情を制せり。然るに何ぞ圖らん彼等が便船を待つが爲めに費やせる日子は、一方に於て同志十餘名が行陣の準備を完成し、一朝偶然舟路より此處に來り會せんとは。

本隊水陸より竝び進む

同二十七日の淀川丸は、一團の志士を日本より釜山に運べり、鈴木、大原、內田、大崎、日下、時澤は、午前十時躍然として居留地に入れり。彼等は直に山紫水明閣に相會し、共に與に前途の計を議せり、爆藥掛鐵砲掛、輜重掛、醫藥掛は、各各相別れて己が任に走れり、百般の準備は、既に成る。彼等は乃ち世の嫌疑を薄ふせんか爲めに、殊更其徒を水陸二隊と後進軍の一隊とに分ち、各各行路を別にして船馬竝び進まんとす。大原、內田、白水、千葉、大久保、日下は富民洞の捷路より走つて、

多太古城の夜望臺下に出で玆に水軍の到るを待ち、水軍鈴木、田中時澤の三人は、倭館南濱の邊より發して絶影島を繞り、西に折て洛東の河口に達し、更に後進の武田、大崎、西脅等は快馬一鞭、龜浦路より昌原路に來り會せんとす。水軍は旣に約の如く多太に於て內田一行を載せ得たり、韓海波靜にして千里疊の如く、洛東江口より加德巨濟兩島の間、或は帆、或は櫓、忽ち馳せて去つて拂曉馬山の灣に入れり。先發の吉倉も亦是に至つて乎、此徒と共に南原路を指して馬嘶劍鳴の形勢を張りつゝ進まんとす。

金山襲撃の議を定む

午前七時、一行十一人、裝を整へ馬を勒し、肅肅然として、馬山浦の街頭を練り去れり。行くこと二里許、道は釜山の會路に當る、一行は玆に留まつて晝食の用意をなせり、蓋し約あり大崎の後進隊を此處に待てるものなり。飯事旣に終る、一行の人溪水に行きて浴するあり、緣蔭に就きて午眠を貪るあり、鈴木は槐樹に攀ぢて枝上に三國史を繙き、吉倉は緣蔭を求めて涼處に子史精華を讀む、就中快活なるは急先鋒の內田が大力肥滿の韓人を追窮して、炎暑を意とせず、自家の柔道を實地に試めさんとするなり。待つこと多時、大崎の一行は竟に到らず、或は云ふ是れ必ず何者かの故障の爲めに大事を誤まれるならん、吾徒は悠悠として空く之を待つべからず、須らく先づ進んで昌原の金山を襲ふべし機後るれば吾徒亦爲す所なきに終

らんと。

衆議之に同じ、又行を急ぎ、乃ち金山を指して馳る、既に此處に達したる頃は、暮靄全く四山を密閉し、荒亭の燈光、溪間の砧響、夜は漸く深深として、犬聲空く行人を脅かすあるのみ。

金山夜襲の實情

ダイナマイト掠奪事件は天下の一疑問なり、始めは世人一般之を以て天祐俠の所爲なりとしたり、後ちには其掠奪者の誰なるや一切不明に附し了らる、天祐俠果して此掠奪者なる歟、天祐俠に非ずして天下又彼が如き壯絶快絶の演劇を爲し得るものある歟、さるにても一時の手段たりとは云へ、志士なるものが彼の如き不正不義の擧動に出づるも不審なり、此邊の消息、必ずや奇奇怪怪たるものなくんばあらず、吾人次ぎに於て彼徒の爲めに聊か說明を試むべし。

金山は昌原府城を去ること一里許の山中、金場と云へる處にあり、之を所有するものは長崎縣人馬木健三なり。彼は朝鮮政府の特許を受け、十數年此地に在つて採掘に從事し居るもの、今春獨人世昌洋行の後援に依り、基礎漸く立ち、事業亦漸次盛大ならんとして礦山用の火藥は積んで山の如く藏せり。田中は流石曲物なり、劈頭彼の山の貯藏額を調査し置き、以て他日の用に供せんと期せり、彼の胸中には疾く既に其借用の算を立て居たるものゝ如し。況んや一行中、平生馬木と相知るも

の吉倉、大久保等其人に乏しからず、故に他に話すに止むを得ざるの事情を以てせば、必ずや其請に應ぜざることなからん、一行の期する所斯の如きのみ、是に於て乎刺を通じて先づ彼に面せんことを請へり、

儀式として馬木に對する談判委員を立てたり、田中、鈴木、大原、時澤の四名は、年長を以て其撰に當れり、四名乃ち進んで馬木の居室に入る、爾餘は暫く門外に在つて他の返答を竢つ、馬木は四名を迎へて其來意を問はんとす、彼一句、是一句、世辭一通は先づ濟めり、是に於て田中は、開口一番、其話頭を轉じ、漸く目的請求の鋒鋩を吐漏して曰く

我等十一人、今夕殊に此處に來つて公を訪ふに至りたる要を言へば、單に公が礦山に使用せらるゝ所のダイナマイト火藥の類を相當の代價にて讓り受けんが爲めのみ。世上禁制の爆發藥を突然斯く請求するに就ては、固より相當の理由を述べて公が心を愕かさゞる樣勉むるの義務あるべし、本と我等十一名の者は、既に微軀を擲つて國家の犧牲に供し、今より直ちに全羅東徒の陣營を叩きて、我國家の爲め之ぞ實效あらんと信ずる所の方策に仗り、痛快雄壯なる運動を試みんと存じ居るなり。幸ひに此千載又得べからざる絶好の時機に際會し、一行の覇氣は勃勃飛動して制すべからざれども、何如せん萬一に備ふべき充分なる自衛の武器に缺けたり、是れ實に我徒に取て第一の遺憾と言はざるべからず。ダイナマイトは此內地不穩の時世、公に於て

或は不用たらん、我等乃ち其不用なる所を乞ひ得て有用に供せんと欲す、公の許諾を得は、幸甚之に過ぎざるなり

言ひ終つて田中は其炯炯たる巨眼を以て他の顔面を一睨し、之が返答如何と待つ、馬木は默聽して尋思し、漸くにして唯「困りました」の一語を漏らせり鈴木竟に忍耐に堪ず、憤然席を進めて說て曰く

我等一行のもの、或は新聞記者、或は陸軍の將士、皆是れ社會に立つて堂堂たる地位を占むる者なり。　今隣邦變あり、其變延ゐて東方の大事たるに至らんことを憂へ、殊に安心立命の地位を擲ち來つて九死一生の危道を踏まんと欲す、志業確然、持節一貫、豈に世の所謂る好奇者の倣ひ得る所ならんや、公も亦均く日本人なり、何ぞ速かに我徒の請ふ所に從はざる

大原、時澤、亦前者の意を補綴して、代る代る馬木に勸諭す、然れども馬木頑冥、終に乞ふ所を容れざらんとせり、嗚乎天佑俠の事業は今や其第一着步に於て一頓挫を來さんとするものゝ如し

待ちあぐみて吉倉は入り來れり、四人は言の聽かれざるを以て暫く憮然たり、旣にして夜飯の時、到る、馬木は總ての來賓を接待せんが爲めに其用意を命ぜり、一行は請ぜられて食堂に進まんとす、然れども吉倉田中の二人は衆に代つて猶ほ其談判を繼續するの要あり、吉倉乃ち馬木に尋ねて曰く

公が我徒の乞を容さゞるに就きては、何等か其理由存せざるべからず、爆發藥取締規則は單に海內保安の具たり、其效力固より海外に及ぶの理なし、此以外に在つて憂慮すべき點あらば乞ふ先づ之を指點せよ、我れ必ず公の爲めに之を說破せん

馬木は應へて曰く

余は朝鮮政府の特許の下に此鑛業を持續するものなり、然るに一朝國亂あるに方り、其亂地に行かんとするものに對して武器を假さば豈に竟に彼れが政府の譴責に觸れざらんや、其時に臨み俄かに周章して鑛業差止めの嚴命を免れんとするも、事既に己れに發せり、亦何如共濟すべからざるなり、是を以て固く公等の乞ひに應ずるを得ず

吉倉曰く

果して然らば貴慮を苦しむるに足らず、我徒何ぞ必ずしも走つて東徒に投ぜんや他の動靜を察して其義擧たるを明にせば之が爲めに事由を天下に公にして、一世の同情を求むるに力むべく、若し夫れ眞個亂徒たるに過ぎずんば、官兵に聲援して速かに之が討平に從ふべきのみ、故に今公に求むる所の火藥は畢竟自衞の具たるに止る

馬木尙ほ確然たる答へなし、吉倉等は再三熟考あらんことを馬木に請求して、又食堂に立ち去れり、既にして馬木の意稍稍決

する所あり、支配人奥田某を遣はして吉倉を招き、戸外人なき邊に至つて共に興に密談し、終に吉倉の立案に屈從し、左の條件に依つて火藥讓與の請求を甘諾する事となれり

> 馬木は天佑俠の請求に應ずべし、天佑俠も亦馬木の請ふ所を承諾せざるべからず。馬木は朝鮮政府に對する口實を得んが爲めに、總ての火藥を天佑俠に强取されたる姿に裝ふの要あり。故に天佑俠は鑛山傭ひ韓人の目前に於て强取の態度を示すべし、然る後支配人は必ず火藥庫の案內をなさん

火藥分取

爆裂藥讓渡しの談判既に密かに締結せらる、約を果すの第一着は、强取の態度を裝ふに在り。去れど衆心を一致せしめ、死を決して直前せしむるの策は、穩かに約の爲めに强取するものゝ如くすべからず、決行の舞臺は之に依つて直ちに曖昧の間に開かれたり。夜は正に十時、庭上に出で行きたる時澤は、合圖のピストルを發射して突然夜深の靜寥を破り去る、部伍は是に於て忽ち一定せられ、警衛する者は、邸の前後を圍みて眼を八方に配り、室に入るものは先づ三十餘名の雇ひ韓人を喝退して馬木の座席に進み、虎公は繩を取つて、彼の父子を縛し、牛公は次室に在り、大刀の鞘を拂つて、非常に備ふ、田中は番頭の案內に導かれ邸を出で徑を進んで火藥庫の扉を開く、急先鋒は番頭の遲疑するを見、大に怒り、之を一攫して力に任せ投ずること五六間、殘りの者は食堂に留つて、夜行の準備

をなし、向鉢巻、腕捲りの壯なる姿を以て、頻りに握り飯を作る、既にして田中、大原、内田は、運び得らるゝ限り火藥庫の爆彈を持ち來り、門外に控へしめたる韓人數名の馬夫を呼んで、之を馬背に結束せしむ、其時一人來つて松火の漸く成るを報ずる者あり、衆急行急行と絶叫す、乃ち又室に返つて別を馬木父子に告げ、其厚意を謝して、之が爲めに火藥其他留食の諸費を辨ぜんとす、彼れ辭して受けざるなり、已むを得ず其儘終に門を出で、夜を冒して前程を急ぐことゝなる

空前絶後の夜行奇策

馬夫は駄馬を彼方の樹下に繋ぎて、其處なる一里塚に腰打ち懸け、長烟管を口に咬へ、呑氣に休んで主公の歸り來るを待つ、ヤガテ諸人は歸り來れり幾束の松火は煌煌として、闇の夜を射れり、二三百個のダイナマイト幾十貫目の火藥幾百個の導火及び雷管は豫期の如く一行の手に落ちて、今や既に馬の背上に在り、用意は爰に於て全く整ひぬ、衆相顧み一笑して曰く、我徒の元氣を以てして、更に武力の整頓を致す、鬼に金棒なり、前途何千何百の大敵に出會ふことありとも、一蹴して過ぎ去る、今は容易の事のみ、爾後愈愈奮つて九死の地を踏まざるべからずと。士氣俄かに振興して天を衝き地を裂き、斗牛を呑むの慨あり、以て彼等が如何に同鑛山の火藥に重きを措きたる歟を知るに足らん

唯夫れ夜色は飽まで暗黑にして途上の嶮惡は譬ふるに物

なし、河岸、畦路、岩峴、急坂の一行を惱まさんとする者少からず、而して日本流の松火は、長時間を維持して一行を導くに十分ならざるなり、況んや夜既に深けて松火の多く繼ぐべきなし、之を思ふて衆心稍稍躊躇するものあり、然れども釜山は尙ほ之より近距離にあり、一刻の猶豫は一行一刻の危嶮を加え來る是に於て事情に通ぜる田中は、忽ち奇計を案出して曰ふ、朝鮮の俗大官の巡行するに方り途上夜に入れば沿道の各村をして人夫を割出し、松火を捉へ、以て先導せしむるの例あり。其松火を提へたるものは次村に達して之を其村民に引繼ぎ其村民は亦先導して次の村に至り、以て次第に次村に傳へて其夜行を全ふす、吾黨今此法に從はゞ獨り途上の困難を免るゝのみならず、又當に幾層の便宜を受て速力を加ふるを得べし、諸君以て何如となすやと。

衆手を拍つて絶妙と呼び、直ちに馬夫を村內に馳せて教導たる者を尋ねしむ、談判少頃にして漸く其人を徵發するを得たり、乃ち之をして松火を照らして前頭に進ましむ、一行の人は其後に從へり、松火は柱大の丸木、火力旺盛、闇を照らすこと數十間一行は征衣輕く裝ひ短劍長劍各各其腰間に在り、馬夫數名、馬幾頭、又之と前後し、其行列は宛然として半ば大名的、半ば蜂須賀的の觀あり。凡そ行くこと一里なれば必ず一村あり、村近けば教導者忽ち大聲疾呼して、ペープロー、ペープローと連呼す、大官の巡行あり、松火の準備をなせとの意なり。一行亦之に倣ふてペープローを呼ぶ、前面の村中漸くにして應ずるものあり、睡氣面に充ちて松火を提へ出で來

り、再拝頓首して一行を迎ふ。一行亦得意滿面、鞭韃して之が脚歩を急がし、以て次より次に及び其出迎へざる村洞に對しては必ず嚴談あり、沿道終に一村の其號令を奉ぜざるもの莫し、進軍是に於て極めて迅速なるを得たん

前途の希望と後方の危嶮とは、一行の脚力を速めたること幾何ぞ、彼等は輕驅して終に咸安越への一岩坂に差掛れり。時は猛暑に際し、夜更けて氣猶ほ蒸すが如く、而して更に攀登の勞あり、衆氣息喘喘、流汗瀑よりも繁し、漸くにして坂頂に達り休憩少刻而して又馳る。既にして渇を叫ぶ者多し、然れども沿路亦一穿井、一清泉を見ず、已むを得すして個個泥田に就て泥臭の水を含み舌を皷して覺へす甘露と叫ぶ其情憐むべし。次で又一嶮坂を越え、更に一淺水を渡り未明漸く咸安郡城に達し、門內の一客舍を叩き爰に瞬時の休眠を貪らんとす

咸安客舍に一偉丈夫を見る

休眠は誠に瞬間にして了れり、急行を要する一行は、ビンデ(床蟲)の刺す間も無く其臥床より起てり。夜來の經驗により、彼等は輜重の多きに比して、駄馬の少きに過るを悟り、郡城に於て其十分なる準備を調へんとす、思慮ある一二人は乃ち去つて郡衙を叩き、官馬を假り來り、其不足を補はんと企てゝ果さゞりき。止むを得ずして一同朝飯に就く。此時物見高き韓人等は、珍らしき日客の到來を聞き傳へ、故意に早起して四方より其客舍に聚り來り、馬夫に就て模樣を探り、堂下に近きて

動靜を伺ひ、意中大に畏怖する所あるものゝ如し。然れども此地本と東學の領分、人氣亦活潑にして東春郡守退治の快擧あり顧ふに群來の見物人、亦必ずしも葛天氏の民のみなるべからず、一行亦堂上に坐し、眼を注ぎて熟ら群集を觀る。群中忽ち一個の偉丈夫あり、衆を排して堂下に近き、聲を揚げて共に語らんことを乞ふ、一行之を許して室に入らしむ、彼室に入り、手に其提へたる扇面を暢べ、之を指して曰ふ、公等此詩を知る乎、一人乃ち其扇を取り之を讀む、曰く

金樽美酒千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東學黨の詩とて此詩を日本に傳へたる者は天祐俠之が始めなり

彼更に曰く、我は公等日人の果して何の爲めに全羅に赴くかを知らず、然れども竊かに惟ふに全羅は東徒の巢窟にして、東徒は由來外人を排斥するものと誤り傳へらる、東徒は公明なり、決して外人を害するものに非ざるも人言は信じ易し、公等或は其讒を信じ行きて東徒の無道を伐たんとするものに非ずや、果して然らば我れ東徒の爲めに大に辨解せざるべからず。乞ふ看よ此二十八字は、宛然八道今日の現況を諷譏する者に似たり、生民の堵に安んぜざる、天下豈に我朝鮮の如く甚しき者あらんや、然り而して其塗炭を救はんこと、到底之を朝臣に望むべからず、民間には亦久く義の爲めに立つ者ある

莫し、故に世の志あるものは皆東徒頃來の勃興を悦び、胸中竊に京兵の敗沒せんことを祈る、民心斯の如く既に歸する所あり、之を妨ぐるは公等の義に非ず、乞ふ少く我微衷を察せよと、說き來り說き去つて口角泡を飛ばし慷慨淋漓として至誠面に現はる。一行之を聞き感ずる者少からず、之に應へて曰く、我徒の全羅に赴く、決して東徒を討たんか爲めにあらず寧ろ東徒の義擧に就きて始より已むべからざるの情あるを信ずる者なり、幸に貴意を安ぜよ、唯怪む、足下此郡官の城內に在り、乃ち敢て朝政を非議して危禍を招くを顧みず、何如彼答て曰く、憂ふる勿れ、東徒の勢力は既に三南を風靡せり、而して列郡の太守、戰戰恟恟として唯管他の爲めに旦夕襲擊せられんことを危む、故に彼を揚げて是を抑ふるは今日の人情なり、亦何の咎かあらんと其言未だ終らずして人あり忽ち又門外より突入し來る、而して其聲を勵まし怒號する所を聞けば、トグ、ハク、タグ、チヤバラー(東徒を縛せよ)の一語なり、彼乃ち急に其應接を中斷し、辭謝一番、身を躍らして後庭に出で塀を飛越えて脫し去る、其疾驅の狀、走兎も啻ならず、堂上十個の客は其後影を望んで暫く茫然たり

爆彈の試驗

朝既に八時、急裝して起たざるべからず、而して馱馬は終に意の如く集め能はざるなり、一行意を決して客舍を出づ、此日朝來微雨あり、却つて夏日の炎威を減じ、脚力甚だ加はる、

旣にして一急坂を上る、頂に達するに及んで議して曰く、昨夜得たる所の火藥類、其效力の有無、未だ知るべからず、此山谷幸に人烟なし、乞ふ試みに導火して高所より之を投入せん乎、衆皆異議なし、內田乃ち導火の任に當り、他は悉く圍繞して之を望觀す、山谷深さ數十尋、岩壁聳立して眼界一木の遮るもの無し、內田漸くにして彈を投ずれば爆然たる一聲、谷底より起つて連山の間に反響し、天柱折け、地軸裂くるの思あり、仍ち俯して其破裂の跡を眺むれば、岩塊潰滅し、嶂壁崩壞し、慘然たる光景一として彈藥の威力を證せざるは無く、前途其大に賴むべきを信ずるを得たり、是に於て衆の發したる萬歲の聲は爆裂の餘響と相反應して、靜寥なる天地に又も山彦を轟かすに至る

原頭の小闘

微雨は漸く晴れて、日光は輝輝たり、山頂の小亭に長憩せる一行の士は思ひ思ひに亭より出でゝ山坂を下り去る。前程は連山の間に狹まれる一小原たり、細川一條、長蛇の如く原に從ふて流れ走る、白水長髓彦は最も先頭に立つて進み、內田大原二三の人は中堅に在て步み、鈴木、千葉、田中等は運脚最も遲遲として自ら一行の後陣たるものゝ如し。先頭の白水は衆に離るゝこと最も遠く、山に沿ふて折れ、橋を渡つて一村に入り、愈愈其步力を早め、適宜の地に就きて客舍を撰ばんと欲して走る。

村端人あり、白水の後影を望み、倭奴何に行くやと連呼

す。白水一顧、大に其無禮を怒り歩を轉じて之に迫り、彼が失言を謝せしめんと欲す、然れども彼れ益益痛罵して已まず、大原後れて到り背後より腕を伸して之を捕へ、流を臨んで之を擲つ、彼が身陷つて忽ち水中に在り、又石を拾ひ頻に他に向つて之を投ぜんとす、白水大原平然微笑して去る。內田偶偶此處を過ぎ、圖らず其礫に當られ額上微傷を負ふ、村中の老若望み見て笑聲交交起り、倭奴の澁面を見ずやと嘲る。內田年少氣銳、怒髮忽ち冠を衝て上り、刀鞘を以て水中の人を撲つ、鞘破れて刀身手に在り、水中の人、額上血迸り、一叫して斃れ死す。傍觀の村民是に至つて囂囂聲をなし、東西に馳り、南北に驅け、群議して讎を一行に復せんとするの形勢あり、一行亦相謀つて曰ふ我黨未だ目的の地に達するに至らず、中途事を生じて大事の障害を來すは其志に非るなり宜く爆裂の巨響を利用し、戰はずして愚民を走らすべしと乃ち岩壁に就て俄かに裝藥する所あり、導火一番、轟然聲を爲し、一鄉をして寂然慴伏せしむ、後顧の患既に之を絶てり、一行は又程を急ぎ、揚揚然として招月鄉に到り宿す

蠻人に對する決心

元來慶尙右道は人氣一帶に慓悍にして外人に好からず、日客の行商して爰に至るもの往往土民の迫害を蒙り、侮辱を受くる亦少なからず、一行の志は此際國家の爲めに此弊を改め、威を沿道に示して、永遠其無禮を再せざらしめんと欲するに在り、昨

中途に於て一小鬪の發したる、亦此意に外ならず。 蓋し蠻人は國家と個人との區別を知らず、從つて國家に對するの怨恨を却て怨恨なき個人の上に報ひ國家に對するの輕侮を却て關係なき個人に加ふる等の例は、日常絶へず見る所なり。 故に反面より之を言へば、蠻國に入りたる個人は、其身全權公使たらずと雖も、事實に於て全權公使の位地に立てるものなり、雙肩に一國を荷ふの責任あるもの也地位責任既に斯の如し、個人の榮辱は決して個人限りの榮辱として見るべからず、乃ち當時天佑俠の決行せる所必ずしも國家に大功なくんばあらざる也、

子子孫孫日本に無禮を加へず

次日早起朝飯を喫せる時、皆曰ふ、夜來床蟲の襲來は萬軍の攻圍よりも劇甚にして終に長時の快眠を全ふする能はず。悲ひかな、五尺の男兒、甚だ一小蟲の爲めに惱まさると。既にして飯終り、馱馬整ひ晉州に向つて發足す、連山漸く眼界より遠ざかり、田園次第に開けて地方の富色を加ふ、南江の流正に近ふして、路は終に水田の間に入る。 路畔數十間の地、一群の農夫あり、鍬を取つて耕やす、一行の過ぐるを見るに及び、衆口一樣、調を揃へて倭奴來を叫ぶ、一行の意既に懲誡に決せること前述の如し、是に於て路を分ち畦を傳ふて農群の在る所に急馳し、ピストルあるものはピストルを放ち、劍あるものは劍をかざし、四方より包圍して之を威壓せんとす。農人輩、其容易の敵にあらざるを知るや、忽ち狼狽して走路を求め、全力を

盡して村洞に遁れ去り、復罵詈者の誰なるやを知るべからず、然れども事態既に此極に迫る以て空く止む能はざる也。一人乃ち一計を案じて村老の家を叩き、之をして村內一切の長者を招き致さしむ、長者皆集る、仍て大に、之を叱して曰く、汝が村民は何が爲めに然く日人に無禮なる歟。同く是れ東方兄弟の國にして相敬することを知らざるは誠に天下の大憾事なり、而して愚民の此憾事を敢てするは汝等父老平生其子弟を訓戒せず、妄りに子弟をして孔孟の遺教を傷はしむるに因る、子弟固より罪あり、然れ共之を戒諭せざるの責は、父老決して免るべからず、汝等尙ほ遁辭ある乎如何んと。父老叩頭して頻りに村民非禮の罪を謝す、一行又之に謂つて曰く。汝等既に自ら其罪を知る、聊か恕すべきに似たり、然れども汝等本と勢ひに附するの徒、今や唯敵手の恐るべきを知るが爲めに特に辭を卑ふして之に謝するものたるに過ぎず、斯くの如きは以て懲誡とするに足らざる也、汝等宜く我黨に對し、子子孫孫未來永劫、決して復た日人を侮辱せざるべきを誓盟するや如何と、父老謹んで其盟を爲さんことを言ひ、紙に錄して之を獻ず、於是一行村洞を出で、又大路を追ふて進み去る。

晉州城の形勢

中途不意の出來事の爲に、空く時間を費やすこと多し、晉州城外南江の大沙州に達したるは既に午時を過ぎたり、沙州は橫斷約半里、有名なる漢江の中州と形勢相若き、四顧空洞、綠蔭な

く、清泉なく、脚下唯熱砂あるを知るのみ、徒渉の苦艱、口言ふことかたし、沙州既に盡きて路は又農村に入る、路畔始めて清川あるに逢ふ、流極めて淺し、一行暑に苦み大路を捨てゝ、特に水中を歩し、流を追ふて下る、河岸桃實の漸く熟せるあり、一行相爭ふて之を摘み、相奪ふて之を食ふ、曰く天下の美果之に過たるは莫しと、漸くにして晉州城外の一高陵に到る、是れ卽ち加藤將軍の攻圍せし有名なる晉州古城の趾なり

高陵上ること極めて急嶮、然れども、幸にして日漸く傾き晩涼漸く加はる、內田急先鋒は名の如く先鋒に立ち、吉倉は之に次ぎ、其他諸人魚貫して之に攀づ、頂に至れば眼下渺茫、晉州領內の山河は總て指顧の間に在り、皆相謂つて曰ふ、古人の地勢を占むるや既に巧にして、之を攻取するもの亦甚だ法を得たり、加藤が鬼上官の稱ある誠に偶然にあらずと、少憩して爰に勞を休め、又勇を皷して嶮坂を下り去る

一渡頭を越へて柳堤の間を過ぐれば、直ちに晉州殷富の市街に入る、晉州は濠深く溝長く人家櫛比し、官衙軒を連ぬ其形勢の壯大にして商事の繁昌なるは、我國の城都にも讓らず、唯仔細に之を觀れば隘屋狹巷、汚水糞泥の間に在りて不潔暗澹の景人をして一驚を喫せざるを得ざらしむ。然れども此地は兎に角朝鮮第一の木綿産地たり、晉州木綿の名は、八道到る處其好品たるを知らざる莫し、而して此地の南三道中屈指と稱せらるゝ所以、亦實に此特産あるが爲めなり。府衙には慶尙道の右兵使常駐し、市內の戶數は四千餘戶、人口三萬を下らず、府の南には南江の長流あり、下流洛東江に入つて舟運の便をな

すもの多し、府外又棉花の畑地廣漠として數十里に連り、毎年産額の頗る夥しかるべきを思はしむ

天佑俠の旗始めて晉州城頭に翻る

兵使の行陣を騒がす

既にして一行は城下に到り、客舎を求めて宿す、次朝早起、直ちに飯事を終へて旅程に上らんとす、窓外忽ち人馬喧騒の聲あり、一人出でゝ其動靜を探る、歸つて衆に報じて曰ふ、他故無し、兵使の兵を率ゐて郊外に赴くもの也と、衆乃ち悉く門を出でゝ其行列を見る。 歩兵約五百皆舊式の火繩銃を提へ、絨帽を戴き、黒衣を着け、長烟管を腰にし巾着を前に垂れて其狀宛然烏羽繪の好模範、不規律不體裁の點に至つては、吾人力車夫にも及はず、更に兵使を望めば、年頃正に五十五六、半白肥大の好男兒、威儀嚴然として高轎の上に安座し、兵士をして其轎を擔がしむる處、疑も無く我祭禮の山車の飾り付本尊なり仰ぎ視て失笑を禁ずる能はず。兵士は次第に繰り行けり、山車の本尊亦漸く近き來る、然るに隊中の一兵路畔に一行の佇立するを見、傍兵と相語つて倭奴彼に在りと指笑す、田中之を聞き、奮然として其兵を追ひ、隊列に亂入し、之れを捕へて亂打す、同列五百人の兵、見て以つて救はんと欲するの狀なし、兵使亦轎上に在つて神色自若、故意に事あるを知らざるものゝ如く裝ふ、田中乃ち飽まで不敬の韓兵を衆中に懲らし、快心して歸來するを得たり

叱責して韓官を退く

韓人と相爭ふに方つて之に勝つの法は、機を制し膽を奪ふにあり、彼我人員の多寡は固より問ふ所にあらず、田中は能く其呼吸に通ずる者乃ち冒嶮して能く彼の如き芝居を打てり、一行之より田中を呼んで團十郎と云ふ、獨り巨眼の相似たるのみに非る也。一狂言既に終る、衆出でゝ市中に馬を募り、輜重漸く整ふを待つて將に發せんとす。一小官人あり、府衙より到り、一行に對して頻りに尋問を試みんと欲するものゝ如し、吉倉之を叱責して曰ふ、汝小吏、先づ氏名を通ぜずして猥りに人の繁忙を妨ぐ、無禮甚し、乞ふ速かに去れと、彼默然として歸る。暫くして又一官人あり、絹衣彩服、銀鞍に依つて來る、風采正に尊貴の人の如し。是より先き、官家より使命あり、曰く、兵使閣下、自ら來つて諸賢士を訪ふと、一行之を竢つもの久し、是に於て客の必ず兵使ならんことを察し、吉倉其衣冠を更めて出で迎へ、之を堂に延き、椅子に據つて相語らんとす、彼の名刺を呈するを見れば、亦是兵使に非ずして其第一裨將、兵使に代つて來り訪へるものなり、衆皆兵使が違約の無禮を憤る。裨將曰く、公等何の爲めに此地を過ぐるや、且つ我國法、外人の內地に入る者に對しては必ず公文を附與す、公等之を有する乎如何。吉倉衆に代り之に應接し、て曰く、怪む勿れ、我徒固より公文の在るあり、然れども之を卑官の人に示す能はず、朝來兵使我と會するの約あり、我故に發程を遲延して今に到る、兵使何の爲めに速に其約を果す能はざる歟、乞ふ先づ其理由より聞き、而る後公文の事に及ばんと。一行其實は公

文を有する者なし、唯彼の弱點に乘じ、此失を蔽はんと欲するに過ぎざる也、幸にして裨將辭窮して復た語を發せず、吉倉又曰ふ、我徒募馬の件に關し、是非之より兵使を見んと要す、公宜く我徒を導きて兵使の營に到らしめよと、彼暫く猶豫して意を決せざるものに似たり

騎を連ねて捕盜衙門に上る

裨將尋思すること少刻、漸くにして先導たらんこてと諾す。衆乃ち堂を下つて庭上に立ち、其曩に募集し來りたる鞍馬を引きて、皆之に據り、卽時十餘人、鞭を揚げて一齊列を整へ、前騎後騎は、錦旗各各一條を飜へして軍容の盛なるを示し、肅肅然、揚揚乎、輕驅して幾街街を回り、數萬群集の喧騷を意とせず、豪然として他が案內する所の官衙に達せり。仍て門を入つて見れば卽ち是れ兵使の營にあらず、掾上額あり、題して捕盜衙門と云ふ、衆屢屢他の欺く所となりて憤ること甚し、裨將を呼んで大に之を詰らんと欲すれば、旣に逃れて其何れに在るを知るべからす、一行忙然狐狸に致されたるが如し、是に於て已を得ず、馬を堂下に繫ぎ、石階を上り、正殿に進み爰に逍遙して兵使を待つこと多時、兵使竟に來らず、裨將亦顯れず、其他一人の出でて應接に任ぜんと欲するもの莫し、一行再び落膽、筆を執つて空く事由を壁上に錄し、階を下つて終に門外に去らんとす

從容として砲聲の下を輕驅す

彼等は何が爲めに出でゝ客に接するを欲せざる乎、蓋し兵使等は嚮きに田中の狂言に依つて先づ一行の膽力に驚き、後に軍容の盛なるを見聞して益益恐怖する所あり、終に相會するの危險を妄想して其横行闊歩に一任したるものなるべし。然れども兵使亦彼等が旁若無人の行動に對して、意甚だ不平無き能はず、乃ち部下の兵士を呼び、之をして壘上の大砲に裝藥せしめ、彼等が衙門を去るに方り、俄かに之を發射して其驕氣を拆き、以て其心膽を寒からしめんと期せり。一行は今や待ち草びれて門を出て去らんとす、壘上の大砲は果して、豫期の如く發射されたり、去れど豫期は豫期通の結果を收むる能はず、十個の騎馬武者は神色自若、微笑して壘頭に烟氣の騰るを眺めたり。既にして彼等は相議して曰ふ、晉州は由來民心の獰猛を以て聞ゆる所、邦人の爰に苦められたる者亦多し、夫の關屋斧太郎の如き其一人なり、吾黨は固より同胞の爲めに其仇を復するを必要とす、況んや卑屈なる兵使は吾黨に對して隱れながら示威運動の卑劣なる手段を執ること此の如し、是れ實に永遠禍害の根元たらずんばあらず、吾黨豈に默して去るを得んや、爆裂彈、爆裂彈、爆裂彈の用は實に此時に在り、兵使以下滿都四萬の心膽を奪ふもの、唯爆裂彈のあるありと。是に於て衆議忽ち決し、一行皆馬より下り濠に沿ひ、壘を望を堤に就て東に赴く。府中の官民、亦一行が何を爲すが爲めに堤上を徘徊する歟を究めんと欲し、數萬千の男女老若、皆其後に尾して長堤の上下に蟻集せり

危機一髪の中に奇計を設く

本來晉州の城民は日本人に對して其感情極めて善からぬものなり、彼等既に感情善からず、然るに今や十一個の日人は、天佑俠の大旗を城頭に翻へし數萬の城民環視の中、轡を連ねて傍若無人の擧動を演ぜり。其軍隊は之が爲めに侮辱を蒙むりぬ其官人は彼等の罵倒を免れさりき、其街頭は彼等の蹂躙に委して、其衙門は彼等の馬蹄に汚されたり、獰惡にして慓悍なる城中士民、何如んぞ此重ね重ねの無禮を默忍するを得ん、彼等の血は湧き肉は動きて、怒髪正に冠を衝けり。豈に獨り士民のみ然るならんや、地方の太守公たる晉州兵使、亦士民と相和して一行に對する示威の發砲を試み以て益益士民を敎唆し煽動し、之をして日人と相殺傷する所あらしめんと欲するものゝ如し、當時一行危急の形勢は恰も自ら虎穴に陷りたるものに似たり。然れども一行は九死の中尚は能く平然として自家の血路を開くの術を知る、故に百刃其四邊を圍み、千彈其頭上に雨射するも、從容として迫る所なく、擧措進退毫も其節度を失することあるべからず、彼等の心機坦然たること既に斯の如し、是を以て兵使は虛に乘じて之を生擒せんと欲し、士民は隙を覘ふて之を殺傷せんと欲するも、彼等復た乘ずべきの釁隙なきを何如ん、士民は空く長圍の陣形を造つて他の爲す所を凝視するに過ぎざる也。於是捕盜營の大門を步み去りたる一行は、更に城濠の長堤に沿ふて悠悠として逍遙し、一大柳樹の枝葉鬱蒼として半空を蔽へる邊に到り、互に相顧みて微笑する所あり、彼等が胸懷そも何事をか畫せる、既にして內田は後頭を顧み、

雙手を擧げて馬夫を麾き、速かに馱馬を引き致すべきとを命ず、馱馬は來れり、內田は馬背より其荷を取り下し、更に之より數塊のダイナマイトを取り出でゝ、之を柳樹の根上に裝置し、又導火線を附し了り、火速身を轉じて走ること數間、衆亦之と共に急に樹邊より退き去る。四圍觀望の城民は、一行の俄かに遽遽然として稍稍狼狽の態度を示せるを見、手を拍ち聲を揚げて一同ドツト笑を催ふせり、此瞬間、殺氣は電氣の如く彼等の間を通じ、其或者は吶喊して猛獸の如く押寄せ來らんとす、一行の危急は今や機一髪の間に迫れりと謂ふ可し。去れど一行は肅肅然として騒がざること猶ほ初めの如く各各手に馬の轡を控へて堤上に直立し、二十二個の眼珠は、渾て襲來の城民に注がずして、却て悉くダイナマイト裝置の邊に向つて注げり。蓋し彼等一行の眼中には復た城民あるなし、復た危險あるなし、畢竟是れ諸葛亮が樓上の彈琴、巧みに司馬仲達を疑懼せしめたる死中求活の胆大なる舊態度にして、卽ち又天佑俠の眞價を發見すべき所なり

雷彈一發滿城の士民を驚死せしむ

俄然天落ち地陷る底の一大爆聲は、濠邊堤頭より發し來つて滿城士民の鼓膜に轟き渡れり、夫と同時に今が今まで堤上に亭立したりし大柳樹は、幹裂け皮破れて全樹濠中に飛び去り、首を回らせば、依然として存する所のものは、讒かに其壞裂せる根株あるを認むるのみ、長堤は其全影を潰破せられて土砂は急雹

の如く、四方に迸り、一陣の怪風、攸忽起り來つて鬼氣暗然、群集の間を襲ふ、城民の望觀せるもの、先づ爆聲を聞きて、膽寒へ、氣拆け、次で慘憺たる堤上の光景を瞥見するに及んで、生色全く失ひ、更に怪風の襲ふ所となつて戰戰恐恐心の身に添ふを覺へざるに至る。 曩に吶喊して一行に肉薄せんとしたるもの、亦城民と共に狼狽して顚倒し、匍匐して潰走し、當初蟻の這入る隙間もあらざる計り、人を以て埋められたる堤上堤下は、今や大風雨後の乾坤の如く、寂然として一兒童の聲だに聞かず、寥然として一白衣の影だに無し。 人或は史を讀んで蜀將が斜谷に魏の追騎を殲殺せる所に至り、案を打つて快を呼ぶを禁ぜざるあらんも、天佑俠が晉州に於ける奇變百出の行動は、更に又數段古人を凌駕する所あるを思はざる可らず、同く是れ火計を用ゐて重圍を脫する也、而して俠徒の智は敵味方の一兵一卒を傷はずして能く其目的を達するを得たり。 顧ふに連騎十一名は個個是れ龍虎の將、個個是れ姜維臥龍の材、其扶韓の雄略は卽ち他が漢室中興の宏圖たらずんば非ず、而して日後全州城門破りの壯絶快絶なる彼等の活劇に至つては、千古の奇書たる三國史中に在つても、亦之が類例を求むべからざる也

悠悠然として晉州城を去る

城民は爆聲に驚きて旣に堤上より匍匐して走れり、兵使の命に從ふて發砲せる城上の營兵も亦之と共に其發砲を止めて何れにか遁れ去れり、兵旣に散じて兵使も亦深殿に影を潛めたり、

城中は今や寂然として人無きか如し、唯壘頭飜飜たる大旗の下、幾個の鳥鵲が餌を求めて處處に飛び交ふあるを見るのみ。俠徒の一行は於是十分其示威の目的を達したるを知れり、乃ち復た馬夫を招きて馬を勒し、前後二條の錦旗を飜へし、十一名列を整ふとを前の如く、鞭を揚げて直ちに城門に向ひ、一蹶して之を破ぶり過ぎんとす、然れども城中の弱兵は疑心暗鬼の中豫め其門を嚴閉して去れり、今之を破壞せんとすれば復たダイナマイトの力を要す可し、而して力を濫用し時を妄費するの極は、武を瀆すに至るの恐れ無んばあらず、是れ兵家の平生深く戒むべき所、一行乃ち其態度を愼重にし、肅肅然轡を連ねて長壘の外廓を一周し、普く敵兵の有無を踏査し了り、其追撃の實力なきを確むるに及んで、馬頭を轉じて再び市中に入り大街小街數十の間を輕驅して平平然市民の動靜を探悉し、終に西北全羅路を指して晉州城下を出づ

南江渡頭の風光

去らぬだに半日餘の活劇は、既に一行の疲勞を覺へしむるもの多し、而して天を仰げば赫赫たる太陽の炎威當るべからず、俯して地に面すれば、熱砂眼に反射して百臭鼻を衝く、風候の大敵が一行に仇することは、砲刃の敵よりも恐るべきもの數段の上に在り、晉州城下を踐蹂したる流石の豪傑も、行路の難艱に對しては、聊か避易の色なき能はず。去れど、精神上の勢力嚴として尙ほ其體內に存留すれば、物質上の作用は、

之に向て十分の猛威を逞ふするに至らざる也、一同の覇氣豈に容易に衰へんや。既にして南江の濱に達す、渡場柳樹の下、船を艤して行客を待つものあり各各一躍して乃ち之に投ず、船既に中流に出づれば、水天悠悠として白鷗波に眠り兩岸の樹色、杳杳烟の如く、一脈の涼風、遙かに其間より來り、又刻前の暑苦を思はず於是舟子は棹を手にして、朗朗江山曲を高歌し、一行は劍に仗り、遠く晉州の城樓を睨んで長嘯す、舟歌將に佳境に入らんとするの時、船は早く對岸堤下、酒旗翻翻たる處に至つて止る、各各乃ち酒幕に入り、濁酒數酌、微醉を帶びて之を出で、馬上高吟快快然として又棉圃の間を走り去る

山林と河流

路は次第に棉圃に入り、來れり、棉圃漸く盡れば、竹林來る、竹林隱るれば松丘顯はれ、乾坤益益翠色の加はるを見る、顧ふに慶尙道七十二州の中、青山白雲、色彩相反映して風光を明媚にし、以て人目を慰むるの所は、東南に於て通度寺の棲鷲山林あり、西北に於て鳥嶺秋風嶺、一帶の好松林あり、之を除くの外僅かに晉州附近の稍稍鬱蒼たる綠林あるを見るのみ、其他は、皆是れ赭山禿峰、唯野草牧草の到處に繁茂するに過ぎず。去ればこそ朝鮮の揚子江とも稱すべき此道の洛東江も、其流域百里に垂んたるに拘らず、近年歲を逐ふて土砂溢流し、漸次河底を高め來り、今は河口より四五十里の上流洛東津まで、滿水の節、辛ふじて舟運の便を得るに過ぎず、更に小瀛船の如き

に至つては、河口を遡ぼる三四里以上に往來する能はざる現況なり、畢竟是れ山林培植、の大事を等閑に附せるに依る、朝鮮扶植を唱ふるもの、宜く先づ此經國根底の策に留意せざるべからず

荒亭夜泊暗中河を渡る

一行の丹村に達したるは殆んど夜九時に近し、村は丹城の郡衙を去ること僅かに一里、戸數凡そ五六十戸を出でず、貧邑にして多人數を宿すべき家なし、一行乃ち二戸に分れて泊す、村端に大河あり、南江の上流なるべし、一行朝來流汗衣に徹し、臥眠甚だ快ならず、是に於て乎、半夜相提へて村端に赴き、流に入つて浴せんとす。東山月未だ登らずして夜色茫茫、唯河聲の暗を衝きて急奔するを聞しのみ。偶偶村民來り告げて曰ふ、雨後の大水、流勢極めて急激、地理不案內の人、宜しく河中に浴すべからずと、衆以て意となさず、暗を冒して流を渡り、岸に沿ふて浴游するもの少刻、旣にして相議して曰く、丹城此處を去る僅か五里河流にして若し人馬共に徒涉するを得べくんば、今より直ちに彼れの郡衙を尋ねて其太守公に面し、聊か之と相ひ談ずる所あらん、誰か先づ我黨の爲めに水路を驗する者ぞと、一人あり踴躍して忽ち激流に投じ、拔手を切て遙かに暗中に泳ぎ去る、衆其誰なるを詳にせざる也、內田他の冒嶮を見て甚だ之を危み、又其跡を追ふて中流に向ふ。流勢の猛なるは豈に獨り矢を射るの速力あるのみならんや、宛然

一條の長瀑、倒まに天上より落下するが如し、而して其河底は、總て是れ累累たる粘性石、若し夫れ渉者にして歩一歩を誤れば、脚頭は直ちに水力の拂ひ去る所となり、顚倒して溺沒する瞬間の事のみ、內田屈せず、益益氣を鼓して驀進するもの約八九合、水勢漸く緩漫、彼岸一躍して上るべし。是時前面忽ち聲あり、曰く、一渡舟を得たり、形稍稍大に過ぐ、四五人の力以て曳き歸るに足らん、乞ふ我が爲めに衆を呼び來れと、其聲は卽ら大原義剛なり。內田一諾、身を轉じで復た是岸に歸り、衆を伴ふて再び彼岸に達す、渡舟に一大繩を附せり、衆各各死力を出して之を曳き、エイエイ聲して流を横斷し歸らんとす、人勇めば水激し、水激すれば人勇み、漸く曳ゐて中流に達するに及べば、激水竟に繩を切斷して、舟は忽ち暗中に飛行し去る、衆相顧みて憮然、丹城行終に之が爲めに止む。既に歸つて是岸に達すれば、玉兎の明皓皓として對岸禿峰の上より登るあり、流光河面に落ち來る所、碎けて波間幾千の錦鱗となり、其搖動の狀或は飛び或は跳るが如し、夜色是に至つて忽然其面目を改む。耳を聳つれば巷歌四面、抑揚して夜烟靄靄の間より起り、砧聲斷續、又茅舍草屋の邊より漏れ到る、赤條條十一個の豪傑、此天樂に醉ふて十二分の夜色を占領し、更に酒壺を河岸に運んで盃を擧ぐるもの多時、終に身の征戰に向ふを忘れて、超然仙鄕逍遙の人たらんと欲す、漸く馬房に歸つて、臥床に就けば枕頭初鷄の聲、沈然として深更の荒寥を破るあり

村中の暴民を走らし河畔の惡馬夫を懲らす

七月四日早起、村中の動靜を探索するに甚だ不穩の兆あり、皆曰ふ、是れ必ず晉州兵使が自家前日屈辱の恨に報ゐんが爲めに、檄を沿道に傳へて妨害を吾黨に加ふるものならんと、急速飯事を終へて不虞に對するの準備を爲す、馱馬先づ整ひ馬夫皆門に在つて命を竣てり、衆亦鞍に據つて將に發せんとす。數十の暴漢あり、囂囂擾擾として村中の要區を扼し、一行の通路を遮斷して、傲然示威の運動を試むるものに似たり、衆事の旣に危急に接迫して穩便に通過すべからざるを察し、各各大刀の鞘を拂ひ、鞍上之を提げて左手鞭を揮ひ、吶喊して暴漢の群中に突入す、群民馬蹄の蹂躙する所となるもの無數、喫驚一番悉く皆潰散し、一條の血路、難なく爰に開かれたり。十一個の豪傑乃ち揚揚然として村洞を輕驅し去り、更に河岸に從つて折れ細徑を追ふて山淸路に進まんと欲す。徑路、極めて嶮惡、左方は河に望んで斷岸數尋、右方は絶壁聳立するもの數十丈、而して一條の行路、蜿延として其間に百折するあるのみ、道幅は僅かに一間に充たず、路畔岩石崎嶇として步每に高低を異にし仰ぎて攀づべきあり、俯して下るべきあり、鞍上の人、是に至つて其狀宛然短舸太洋の風浪を冒すが如し、一たび過ちて墜落すれば頭骨粉碎、生死固より計るべからず。先導の馬夫等此嶮に臨むに及んで、急に轡を控へ威嚇して曰く、乞ふ大人等速に馬より下れ、我等俄に所要あり、之より鄕に還り去らんと欲すと、蓋し彼等も亦晉州兵使の諭示に從つて此戲事を演ずるものゝみ、其下馬すべからざるの地たるを知つて、特に下

馬せしめんと欲するに至つては猶ほ一行に對して自殺を強ゆるに似たり、一行の進退は、眞に維谷の窮地に立つものと云ふべし、而かも不幸にして騎者の死命は今や總て馬夫の掌中に占有せらる、故に此際一行の爲めに萬全の道を講ぜんとすれば、唯馬夫の面前に俯伏叩頭し之に向つて哀願安を得るの外あらざる也嗚呼堂堂十一個の快男子、今より俄かに其晉州沿道の地を震撼せる猛氣を收めて匹夫野人の前に甲を解き降を容るゝに至らん乎、由來恥を知るの士は常に死を惜まずして、窮鼠亦却て能く猫を嚙むの異象を見るあり、一行鞍上に尋思するもの少刻、乃ち決然左記冒險の處置に出で、運を一擧に賭し、漸く以て其禍害脫却の道を打開し來らんとす

前頭なる內田は怒氣心頭より起り、咄嗟の間、足を鞍上より伸べて馬夫を斷岸の外に蹴飛ばし、中軍たる吉倉は馬夫の腦頭を目掛けて連りに拳銃を發射し、之を岩角の上より逆落しとして揚揚然馬蹄を進め、殿後たる田中は大刀一閃、他の肩上を峰打として之を慴伏せしめ、其他大原の叱咤、鈴木の咆吼、皆能く圖に當り、敵の膽を奪ふて危機を未然に制し、一行難無く、河畔の嶮道を通過するを得たり、蓋し天佑の常に彼等の上に加へらるゝに依るものならん歟、去れど一時危嶮の切迫せるに當つては殆ど虎口に立たるよりも甚、だしき姿ありしと云ふ

原頭の小宴

漸く惡馬夫の危嶮を脫したる一行は更に惡馬夫を畏服せしめて

維命維を奉ぜしむるに至る。道は高原の一端に上つて、南江の清流は遙かに馬蹄の下に在り、眦を決すれば智異山下の幾村村、綠樹竹林の間に點綴し、山淸丹城二郡の稻野は、蒼渺として碧湖を見るが如し、鞍頭の風光覺へず一行をして暫く其鞭聲を緩めしむ、旣にして一大槐蔭あり、皆馬より下つて爰に涼を納れ、酒亭の濁酒を需めて小飮す、宴旣に闌なり、乃ち一人をして馬夫を呼び致し、溫言之に問ふて曰く、汝等晉州兵使と我等一行と孰れか以て恐るべしとするや。馬夫頭を搔き答へて曰ふ、到底公等の勇猛無敵なるには及ぶもの莫し。　一行又曰ふ、汝等能く我に從ひ全羅に赴くべき乎何如。馬夫默して語なし、蓋し彼等衷情甚だ恐るゝ所あり、共に往かんと欲すれば前途の危險計るべからず往かざらんとすれば或は身首處を異にせられん憂あり、以て彼等が到底決答を與ふるの勇なきを知るに足る。於是斷然號令を發して曰く、我徒は固より馬匹を必要とす、然れども又强ゐて汝等歸鄕の切情を制壓するの意なし、故に汝等の中、其半數を割きて我に留め他の半數は勝手に去らしむるものとせば何如、馬夫固より異議あるべきに非ず、皆命のまゝに從はんと云ふ、仍て從來最も一行に忠實なりし者には賞として之が歸鄕を許し、其最も奸猾にして晉州の細作たる疑ひあるものは、罰として長途の苦艱を共にせしむ、歸家する者は滿面喜色を帶び、留る者は愁情表に溢る、亦是れ一場の滑稽劇なり

三士の勇山清の太守を服す

馬夫の處分既に終る、一行乃ち槐蔭より出でゝ半ば馬に上り半ば徒行して進む、既にして山清縣城に達し、一客舍に就て晝飯の用意を爲さしむ、此地の形勢を察するに縣民亦晉州の傳檄を受けたるものゝ如く、彼處に一群、此處に一團、相評議して一行に對する處置法を決せんとし、時に間細を放つて其動靜を探索する模樣あり、縣衙亦官兵を糾合し城より討て出でゝ迎へ戰はんとするの風說を傳へ來る。此時一行朝來の疲勞に依つて復た健鬪するの餘勇なし故に眼前の危害を避くるの途は唯機に先ちて此地を走るの外あるべからず、然れども本來韓人の性、少しく敵に弱所あるを發見する時は、驕氣忽ち滿身、得得として之に乘ずるの風あり乃ち走る者も亦必ず追跡を免れず、其一行に利あらざるは去留皆一なり。是に於て吉倉奮然衆に謂て曰く、凡そ將を獲んとするものは先づ其馬を射る、此際縣民を壓倒するの第一策は、必ずや其太守を擒にするに在り、諸公姑く此處に在つて午眠せよ、我れ其時間を利し、縣衙を冒して聊か試むる所あるべしと言ひ終り、驀地客舍を出で、走つて直ちに縣衙の門前に至る、門衛誰何す、吉倉顧みずして進む四五の守卒あり力を盡して又之を沮まんとす、然れども吉倉の身既に入つて衙庭に在り、眼を放つて前面を望めば、太守威容嚴然、殿上に安坐し、坐首吏房の輩侍して之が左右に立ち、庭上には一個の囚人、頸脚に桎梏を附せられ、哀號して冤罪を辨疏するものゝ如し正に是れ太守が斷訟糺問の最中なるを知るに足る、吉倉乃ち少く退きて其閉廷を促がさんとす、內田、

大原次で到り、此狀を見、叫んで曰く、機を失すれば太守を逸せん、是れ我が黨の大事なり、若かず直ちに亂入して彼れを一攫し去らんにはと、三人乃ち均しく法廷を侵して進み、殿に登て急に太守に迫る、左右之を拒まんとするもの多し、三人大喝して之を去らしむ、太守恐怖、走つて別殿に入る、三人追ふて之に及び聲を激まし謂つて曰く、吾黨十一人、曾て貴邦に對して害意を挾めるもの莫し、然るに沿道連邑、皆我黨の行路を妨げんとして徒らに騷擾し、貴縣の官民亦將に之に倣はんとする所あり、我其何の爲たるを知らず、而して今や其事既に急なり、我徒乃ち一行に代り、特に此處に來つて貴下を生擒して去り、以て貴縣下行陣の安を計らんと欲す、貴下にして吾徒の言ふ所を容れて生擒たるを肯んぜば則ち可なり、若し夫れ然らずんば咫尺の間、貴下の首級は吾徒の手に在り、乞ふ貴下速かに自ら決する所あれと。太守聞き來り、顔色俄かに青蒼、心驚き、身戰くの狀、歷歷見る可し、之を暫くして心氣稍稍平常に復す、乃ち三士を顧み、陳謝して曰く、鄙官決して諸賢を敵とするの意なし、唯頃日晉州の羽檄の四方に飛傳するものあり、鄙官等本と右道兵使號令の下に進退すべき者今其命を奉ずるは情誠に止むを得ざるに出づ、乞ふ諸賢の其罪を恕せられんことを、或は兵民の暴擧に依つて諸賢の行陣を妨るの虞あらば鄙官且つ自ら出で、諸賢の爲めに其衆を慰撫解散せん、諸賢之を許や何如と。三士の太守を生擒せんと欲する、其志す所、亦一に危嶮を避くるに在り、是に於て太守の請ふ所の甚だ穩當の手段たるを思ひ、相提へて兵民聚屯の所に到り、太

守をして力を盡して兵民に諭告する所あらしむ、太守既に威迫の爲めに初志を變ぜること彼の如し、兵民は乃ち唯唯諾諾、其上令を奉ずるは流の低所に就くに異ならず、一行終に事なくして山清縣城を去るを得たり

水村鯉を獲て大に食ふ

此日大原屢屢馬上より墜落しで衆人の哄笑を博するもの多し、蓋し彼れ本來甚だ御馬の術に馴れず、而るに騎行遲緩に過ぎて惰氣自ら其間に生じ、無聞に鞍頭の睡眠を貪りたる結果、傾斜面に至る毎に此失策を演ずる也、彼終に馬を捨てゝ徒歩隊に加はる。既にして日の黄昏に近づける頃一渡場に達す、渡場を超ゆれば直ちに一荒驛あり、衆乃ち此處に宿泊するに決し、數人は出でゝ河濱に走り、晩餐の佳肴を獲んが爲に爆藥を水中に裝沈せんとす、裝沈既に全ふし、仍て機を見導火一番すれば、河水の空に飜騰するもの殆んど一丈餘、鯉魚鮒魚の類、浮沈して忽ち波間に漂ふもの無數、衆快と稱して悉く之を收拾し、籠に投じて客舍に提へ返り、或は燒き或は鱠にし先を爭ふて狼呑馬食、以て數日來の胃慾を充たせり、蓋し後程の膳羞、粗惡ならざれば、腐臭鼻を衝き、一も一行の口に適したるもの莫かりしに依る、而して此夜は此の如き臨時の出來事の爲めに深更に至つて漸く寢に就けり

山紫水明郷に流亡の美人を見る

五日早起して發程す、道は河畔の瓜圃に從ひ、朝霧を侵して進む、四顧茫茫、唯牛羊鷄犬の聲の連村より漏れ來つて、烟靄の間に反響するあり、僻陬の曉氣曉色、宛然として太古の趣味あるを覺ふ、一行心氣爽然たり。鈴木乃ち朗朗として其得意なる越中節を繰返し、歌調抑揚の妙、山籟松音と相和して、知らず識らず一行の步調を早め來る、旣にして曉風攸忽烟霧を吹き散じ、前山、後山、左水、右水、眼界次第に開け去つて翠色廣く乾坤を蓋ふ。不圖見れば前略遙に一小朱轎あり、二個の輿人雙腕巧に之を擔げ、脚步輕逸、走るが如く、飛ぶが如く、畦を過ぎ、橋を渡り、一步は一步より、漸漸一行に進み近かんとす。路畔に一槐樹あり、槐陰一小祠あり、祠頭極めて眺望の景に富む、輿人是に至つて轎を止め、轎中の人は窓中より頭を出して風光を賞するものの如し、一行亦漸く近きて此所に至る。轎中の客は其風態宛然貴人の寵姬にして年齡正に二九、明眸皓齒、花顔柳腰、天女の下界に降臨せるに似たり、一行其何が故に炎暑を侵して單身僻地に旅苦を嘗むるかを怪み、之に就きて試みに慰問する所あり、美人乃ち婉然微笑、花唇を開て應へて曰ふ、妾は是れ某郡太守の侍姬、東徒今や全羅南方の連城を攻略し、官兵敗竄、吏屬遁散、形勢復た收拾すべからず、太守亦終に孤柱を以て廢家を支ゆべからざるを思ひ、任を捨て避難して京城に去る、妾乃ち是時を以て故郷に父母を歸省せんと欲するもの也、諸豪傑若し之より全羅に赴かんと欲せば乞ふ唯其前程を警戒せよと。　旣にして沈吟熟視之を久ふして又曰

ふ、公等は固より殊鄉の人たり、途上若し風土の變に依つて苦まば、不幸之より大なるはなし、然れども此處を距る少許、偶然公等を困弊の間より救ふものあらん、公等先づ宜く沿道里人の談話に注意する所あれと、言ひ終つて美人更に一行の爲めに佳酒一壺を贈り、慇懃別を告げ、輕轎飄然として忽ち山紫水明の間に走り去り、杳然終に往く所を知るなし

虎棲める智異山の靈境

美人の仙容、猶ほ髣髴として遙かに一行の眸中に腕映せる間に、酒壺は既に業に呑み盡したるも、好飮者獨り之を捨つるに忍びざる情あるものゝ如く、依然として壺底の餘滴を嘗め、舌皷を鳴らして悦び居れり、醉來快然、一行の勇氣益益發動して脚力益益盛なり。既にして地は次第に全羅の分水嶺に近づきで一歩は漸漸一歩より高きを覺ゆ、道の左傍に一條の急湍あり、波浪滔滔天際より湧き來つて、逆まに東南に向つて流れ、水聲騒然長夜の雨の如し、湍を隔てゝ一帶の山脈あり、連峯長く、南北に延亘し、所所奇岩怪岩の峻立して天を磨せんとするもの恰も是れ虎躍り龍飛ぶの勢あり、更に半腹を望めば、雨霧烟の如く纏結して搖曳し、山色凄然、怒るが如く愁ふるが如き中、一道の靈氣、颯として四邊に迸るを見る、所謂る朝鮮八名山の隨一虎の棲むてふ全羅の智異山とは卽ち是れ也。智異の名は固より山と共に天下に高し嚮きには關屋斧太郎、其與人と共に一度び此山中を跋涉し、其各奄寺を尋訪し美尼が已

の兒女を養育するを見るに及んで、卒然大驚、深く教園の荒廢を歎じたることあり、顧ふに時代遷移して靈境化俗し、古道亦漸く湮滅に歸するを免れざる歟一行山に對し、今古を俯仰して感慨太だ多し

靈潭に浴して行陣の勞苦を一掃す

午時進んで一荒村に達す、一行は食を命じて暫く休憩に就く、是時一村老、高聲一客と牆外に語つて云ふ、亭後に一溪流あり、古來之を稱して靈潭と名づく、行旅の人若し一度此潭に入つて浴する時は獨り萬病の立所に快癒するのみならず、客中の艱苦亦全く之に依つて解脫せられ、浴者は日後復た病難傷痛の厄禍に罹ること莫かるべし、蓋し觀音菩薩の時時乘轎して爰に來浴せらるゝに因つて此靈驗あり、顧ふに公も亦客途の炎熱に困弊せるもの也、乃ち試みに爰に入浴せられては何如と。俠徒の一行亦實に行路の難に耐へざる者多し、氣候の猛烈と食物の不良とは卽ち其最なるもの也、蚊、蠅、ピンデ、汚穢、旅舍の不完全は其次也、頃來一行の太半が顏色憔悴して形容骨立せるが如き、其原因正に之より出でずんばあらず、是に於て乎竊かに思ふ曩きの祠頭に邂逅せる美人の教へし所、乃ち之れなる莫らん乎、果して然らば彼の美人の一行に對するは猶ほ孟叔爺が入蠻の諸葛の一軍に於けるが如し、天佑は每に意外の邊より仁義の士の頭上に向つて下る、而して其下るや偶然に似て決して偶然ならざるものまり、美人或は夫れ觀音の化

身ならんも未だ知るべからす。一行乃ち試みに浴せんと欲して所謂る靈潭の下に到る、溪水清澄直下して奔騰し、岩に觸れて碎くるものは連珠の如く、崖に懸つて落つるものは破玉簾の如く折れて往き、留つて淵となるは碧瑠璃の如く、碎けて飛沫となるは烟の如く、霧の如し、溪に傍ふ處、槐陰あり、草亭あり、溪の中、又別に鳳凰岩あり、其大平面は三四十人をを坐するに足るべく、更に龍虎石なるもの亦左右より相睥睨して蟠崛蹲踞す。一行身を岩上に躍らし、悉く飛で潭中に入り去る、水氣の冷なるは氷よりも甚しくして皮膚を刺し、骨髄に徹す、天を仰げば太陽炎炎として一脈の微風だに送らず地を眺むれば受熱火の如く、鐵を熔かすの勢あり、是時に於ける冷浴の快感は縦し之を藥泉たらずとするも亦既に天國に遊ぶの思ひをなさしむべし、況んや名にし負ふ智異山中の一溪村老の所謂る靈驗ある神水たるに於てをや。一行浴すること少時にして疲勞頓に減じ、身骨忽ち仙氣を帶び來つて、精神の輕快口言ふべからず、旅舍に歸り午餐を喫する時、胃府の俄に活潑なる動作を始むるの狀は、馬房の老驥を一驚せしむるに至る、美人の賜も亦厚ひ哉

八道第一の飲料水

午餐既に終り、輕裝して復た山路を攀ぢ登らんとす、道傍の叢中、草莓極めて多し、行行之を摘んで其酸液を味ふ、漸くにして全羅慶尙の分界標に至る、一行氣息喘喘焉渇を訴ふるもの鮮

なからず、絶頂に一巨樹あり、一清泉其樹下より湧出す、衆乃ち此泉に就て喉を潤ほす、水頗る冷なり、衆皆絶叫して曰く、八道第一の好飲料水、惜らくは提へて去るべからず、乞ふ胃府の破裂せざる限りは共に與に鯨飲を恣にせんと各各掬一掬、飲一飲、其量一升より少きは莫し。 坂路之より下傾、輕驅して過ぐ可し、黄昏終に雲峰城下に達す

農は天下の大本也

將に雲峰に入らんとする處、一行暫く郊外一大古祠の傍に在つて休憩す。一望すれば野水曲折して長蛇の走るが如く、田夫野人、爰に牛馬の群を飲飼ひ而して後各各堤下に就て少憩す、連山亦遠く雲峰の漠漠たる大高原を繞り、炊烟所所村里の間に搖曳し、山光水色樹林城樓、相反映して畵圖の如く然り。 偶偶驟雨あり。野外より起つて祠頭に及ぶ、驟雨漸く晴るれば俄然として太皷の音あり、連打して近く村逕の邊より出で來る、一行皆眼を之に注ぐものゝ如し、忽ち見る一條の大旗飜飜として空に流れ、村童野老互に之を擁し、意氣揚揚として俄かに四五十步の間に顯はる、旗上に書する所を一讀すれば曰く、農者天下之大本也と、一行始めて其豐年の祈願式たるを知り得たり、唯其太皷の音何となく法華宗の南無妙法蓮華經に似てオカシ味あるを覺ふ

雲峰城留守の觀迎

雲峯は高原の都會として朝鮮第一なり、地位既に高原の山河を占む、風景亦自ら凡を抜しものあり、故に一般の韓人は此縣を稱して天下の靈境となす、靈境の廣褒東西三里を過ぎ、南北二里を超ゆ、縣下連邑人情極めて平和なり、一行の城下に到るや先づ縣衙に就て宿留の佳所を問ふ、縣官迎へて曰ふ、民家狹汚、以て貴人を宿するに足らず、諸豪傑若し我接待の到らざるを咎めずんば、乞ふ公廳に於て一夜の休眠を試みよ、是も亦旅中の一談抔たるべしと。一行固より官家の清閑にして留宿に可なるを知る、唯官家の容易に之を許さゞるべきを信じ、日前未だ曾て其談判を試みざりし也、然るに今や彼先づ歡迎の意を漏らして一行に應接する所あり、其深情の何如を詳にせずと雖も、天の幸する所、從はずんば其罪必ず輕からず、一行乃ち得得然として衙內の廣房を借り、遠慮なく美酒佳肴の接待に應じ、快心して椽上の涼床に眠れり

征倭大總督の碑を粉碎せんとす

雲峰縣官の一行を歡迎せるは、顧ふに是れ敬遠主義を用ゐて鄉邑の無事を計れるものなるべし、彼等は詳く一行の沿道を破壞し來れる實情を知る然れども高原の士民は由來天資極めて健剛なり、必ずしも逸を以て一行の勞を邀擊し得ざる迄に臆病ならず、彼等は日後に於て能く五十六州を席卷し來れる東學黨の大軍を打破せり、何如んぞ少數の一行に對し、避易して戰を

交へ得ざる事あらんや、彼等が當時敬遠主義を取るに至りたるは、誠に一行に對する天佑と稱せざるべからず、一行は固より彼等を破つて容易に血路を開くを得べし、去れど之が爲めに蒙むる所の前程の障害は恐く一行をして竟に其建功の期日を誤らしめしならん、雲峰に事なかりしは卽ち一行の前途に希望洋洋たるを證する者なり。一行の想像は斯の如し而して其次日、七月六日の早朝を以て相祝して南原府に向ふ、行くこと殆ど里許、忽ちにして女院峴に至る、坂路極めて嶮惡、急斜直下して一里の餘に及べり、其行歩の困難なる、日前曾て斯の如きを見ずと云ふ、坂路の將に盡んとする所右側四五丈に餘れる大怪岩上に題せる大朱字あり、征倭都督何某と深刻す、行中の數人之を見て圖らず其脚を留めたり、皆云ふ、曩時吾同人は釜山永嘉臺の題詠重關呑日正東開の詩句に就て、其兵馬節度使を詰責し、次で水營に於て太閤、淸正、行長、の磔刑せる三石像に對して其水軍統制使を辯難せることあり、蠻人を畏服せしむると否とは其機實に微妙の邊より發す、吾黨何如ぞ此征倭の二字を見脫がすを得ん、乞ふ且つダイナマイトを以て之を紛碎し去らんと。是に於て大聲馬夫を呼ぶもの十數回、馬夫終に至らず、蓋し此日馱馬最も進んで先頭に在り、之を追ふも竟に及ぶこと無き也、嗚呼遺憾、征倭の二字夫れ何の日か磨滅するを得ん、之を恨むもの豈に獨り天佑俠のみならんや

病者小便を呑む

女院峴を下り盡きて、路は次第に廣原漠漠の間に入り來る、見渡す限りの原頭、唯灌木と雜草の生ひ茂るあるのみ、綠陰なく、流水なく、而して天日獨り赫赫として炎威當るべからず、一行苦熱の聲を漏すもの多し、路畔に一茅屋あり、乃ち小憩して暫く汗を拭はんとす、房內病夫あり、寡婦を呼んで、藥を持ち來らしむ、一行戲れに其藥なる者を檢すれば、何ぞ圖らん是れ人の排泄物たる小便ならんとは、一行驚きて其の服用すべからざるを諭し、更に病症を聞きて之に相當の醫藥を投與す。病者一行の惠與を受けて、頻りに感謝の意を表し、且つ曰く我朝鮮、古來誠に醫藥に乏し、故に病種に依つては時に五歲以下の少年の小便を服し、平生丁重に之を保存するの風あり獨り下民のみ然るにあらず、宮中に於ても亦斯の如し、然るに貴邦に在つては、實に東方神仙國の名に悖らずして藥草滿山滿野、竟に秦の徐福をして不老不死の靈藥を求めしむるに至る、竊かに羨望の情に耐へざる也と、一行聞き來つて莞爾として一笑し、漸くにして身を起して茅屋より步み去る

柳堤瓜を割つて濁酒を酌む

暑威益益猛烈、一行の運步或は急速なるあり、或は遲緩なるあり、先鋒と殿後と終に相去るもの約半里。 此に至つて行陣復た隊形を成さず、三三伍伍相携へて去る所流汗皆瀧の如し。 旣にして當面一長壘壁の蜿延して原頭に橫はるを見る、文祿の征韓に名あ

りし南原城とは卽ち是なるべし城外五町許の此方、路の左傍に柳揚鬱生して長堤を爲す所あり。 柳陰韓客の涼を納るゝもの極めて多く、三四の田夫あり其の間に往還して頻りに舐瓜を鬻ぐ、堤の一隅には又一草亭あり、一個の野婦、アンベラの上に安坐して行客の爲めに濁酒を賣る、觀來れば宛ら是れ水滸傳中顧三孃[3]野店の光景なり。 前頭の吉倉日下等欣然として腰を此堤上に下ろし、且つ瓜を求め、且つ酒を呼び、且左右の韓客と談笑して道內の事情を探り、竟には肱を曲げて横臥し、午眠を貪りつゝ後者の到るを俟つ。內田、田中、鈴木、大原等、暫くして相前後して來り集り、皆好涼處を得たるを悅び、ヤガテ瓜商を見るに及んで、爭ふて其瓜を割かしめ、次で酒旗を認るや、忽ち少婦の邊に蟻集して、餘念なく數盃を連飮す、渴中の野瓜野酒は天下の美味も亦之に及ばず、一行は是に至つて殆ど曩きの苦熱を忘却したるものゝ如し

南原城下に於ける天佑俠の活動

南原客舍、一行は旣に十分其の渴を醫し得たり、乃ち堤より下つて城中に進まんとす、壘壁に沿ふて走り、古祠に就て曲り、橋を越へ門を過ぎ漸く城中の一客舍に到る。客舍極めて矮小、極めて不潔、一行の心に滿たざるもの多し、況んや城民の雲集して物珍らしき他鄕の客を見物せんとするあり、其五月蠅きこと名狀すべからず、是に於て吉倉は鈴木と共に晩涼

3 고삼양(顧三孃) : 호삼랑(扈三娘)의 오기로 보인다.

を追ふて府使を官衙に訪ひ、前夜雲峰に於けるが如く、官衙の一房を貸り得て爰に宿留せんとす、既に官衙に達すれば、次官出でで二人を迎へ、府使病んで接待の禮を盡し難きを陳謝す、蓋し一行の軍容盛にして沿道を慴伏し來れるを傳聞し、恐怖して相面するを避けたる者なり、韓國官人の怯懦なるは必ずしも獨り南原府使に限らず

府使衙門に兩士官人を說破す

話端は爰に開かれたり、次官は嚴然威儀を正し、詰るが如く、問ふて曰く、公等此猛暑に當り特に長路の征行を試み、而して錦旗を樹て、兵仗を提ふ、抑も何の意ぞ。二人莞爾として應へて云ふ、他なし吾徒の來る唯東徒の事を知らんが爲め也、其兵仗を提ふるは戰地出入の危嶮あるに依る、錦旗に至つては同行人既に多し、之が紀律を正し、紛亂を防ぐの具として其必要なくんばあらず。次官更に問ふて曰く、來意既に之を聞く、然らば則ち從者多きの理由は如何、二人答へて曰く、吾徒既に危を踏み險を冒すの意あり、人多からずんば如何ぞ能く相救ふを得んやと。彼是に於て其話頭を轉じて曰く、淸皇義の爲めに我に大軍を送り以て我東徒の亂を鎭せんとせしは。是れ曩日の事に屬す、今や東徒既に四散して、淸兵亦其鄕國に還らんとするの京報あり、我府使の如き則ち前きに淸兵に供するの糧食徵集の任を中央政府より受けたるが、今日事定るに及んで其令亦既に取消されたり、然るに頃日貴邦は其大兵を我國

內に送遣し、現に京畿の地に之を屯駐せしむと聞く、是れ實に我國民の驚動を來すの憂ありて、而して隣誼を損ずるもの夥し、貴邦政府、何が爲めに此の不要の擧を爲して特更ら人の狐疑を惹き起すを辭せざるや、且公等口先づ東徒の情を知らんと稱す、然るに東徒は旣に離散して四方に赴けり。公等夫れ何に依つて知情の意を達せんとするかと、次官曲辨詭論、辭を悉して一行の進行を遮り、之をして釜山に歸り去らしめんと欲するものに似たり、其外交術に巧妙なる、到底我地方官中に見るを得べからず否外務の當局者と雖も、恐く彼に匹似するもの極めて稀なるべし、然れども二人は容易に彼が術中に欺瞞せらるゝものにあらず、鈴木は乃ち東亞の現狀と朝鮮の關係と、世界の大勢とを較論し、以て彼を警省する所あらしめんとせり、去れど自個と自國との存在を知つて、世界或は東方の如何なるかを知らざる韓官輩焉んぞ此忠言を解得するを得ん、唯御丁寧の挨拶、恐れ入つたれど、左樣の事は孔孟の經書中一向之を發見せずと云ふ顔色なり。於是吉倉は淸皇そも何の義かある、淸國何の恩かある、寧ろ日本帝國が四隣の豺狼に對して、絶へず朝鮮を保護し居るの恩を思へ、日本無くんば朝鮮が亡國の數に入りたるは年旣に久しか

らんと、其歷史に就き、地理に就き、形勢を分明にして適切に論究し、以て面前淸國の野心を發き、其依賴すべき所を悟らしめんと力めたり、彼れ是に至つて漸く自覺す

る所あるものゝ如く、話中屢屢多謝感拜の語を漏すを聞けり

警蹕聲裏諸侯の態度を取る

談將に終を告げんとするに臨み、吉倉は次官に對して一行の客館の極めて狹隘にして不潔なる所を訴へ官房或は其他の所に於て別に相當の宿房を貸し與へられんことを請求せり。元來彼れ次官は吉倉の服裝が錦糸紫彩燦爛として光を放つを見、當初より唯物ならずと憶斷して應接せるもの、今其請求に對して、如何ぞ妄りに之を峻拒することあらん、乃ち慇懃答をなして曰く、我南門の外に廣寒樓と稱する所あり、所謂全羅第一等の樓閣にして、風景も亦極めて秀麗建築は固より宏壯常時に在つては勅使觀察使の外如何なる高位高爵の人と雖も、容易に之に宿留することを許さず、今特に此處を以て公等の爲めに賓殿に充てんと欲す、蓋し貴邦人及び公等が弊國に對する厚誼の萬分に酬ゐんと欲するものなり公等夫れ我と共に來れ、我且つ公等の爲めに先導とならんと、兩人乃ち彼に從ふて堂より下る次官階下に至り、一聲高調ヤボラーと絶叫すれば、下吏軍卒大凡三十名、俄かに各房より見はれ來つて、次官及吉倉、鈴木の前後を護衛し、隊列肅肅として亂れず、次第に衙門を出づ、既にして府の大街に至れば、護卒連聲調を整へてイイチロー、イヽチロー、と呼ぶ、蓋し我國の舊時大名通行の節、下に居ろうの警蹕を用ゐたるが如し、鈴木、吉倉相顧みて微笑、其心中竊に大名を以て自ら擬する所あり、當時得意の狀察すべし。行くこと七八丁程、漸くにして廣寒樓下に達すれば、暮色蒼然四山より到つて巷歌抑揚、晩烟の間より起る、鈴木は是より歸つて同行者を招かんとし、吉倉は獨り留り樓頭に長吟

して衆の來るを俟てり

廣寒樓の初夜

南原府は東西六里、南北十二里の管地の中央に立ち、城壁一里に及び、人家千五百を超へ、商業亦中中に繁昌を極めり、廣寒樓は南門外に立つ、建築の壯麗なるは殆と我大寺院にも讓らず、別に題して之を湖南第一樓と云ふ、蓋し慶尙密陽府の嶺南第一樓と相對峙し、風光秀絶、遠巒近陵、翠煙綠林の眺望、全羅一道に冠たるが爲め也、是れを以て、騷客の四方より訪來して臺畔地邊に吟遊するもの四時其迹を絶たず、則ち一行の宿房を爰に定め得たるは、誠に當時の旅中第一の僥倖に屬するものとせざる可けんや。次官は直に三十名の下吏卒を使役して、樓上樓下を淸掃し、樓下の廣庭には哨兵線を張つて雜人の侵入を嚴禁し、迎賓上一切の準備旣に整ふに及んで、吉倉を正面の一房に導き入る、唯見る寂寞人なき大堂の中、孤燈讒かに點ぜられて冷光鬼火の如く、夜氣凄然人を襲はんとするものあり、鈴木は此時に至つて漸く一行を伴ひ來る。何そ圖らん前きに釜山に殘されたる大崎、武田の後進隊、亦此夕を以て此一行に追ひ及ぶを得んとは、一行雀躍して之を迎ふ、此の二人は實に一行によりて、旣に故障の爲めに其の身を誤たれたりと想像されたるもの而も小人數を以て、遠路難なく一行の蹂躙し來りたる危途を追跡し、而して能く一行の前に新たに武器と銃器と路財とを齎す、其勞苦や誠に察すべしと雖も、天佑ある

に非んば焉んぞ斯くの如きを得ん、一行今や合せて十四名、武器は既に前日に一倍し、輜重は復た不足を感ずることなし、天佑俠の勢力是に至つて益益盛なりと謂ふべし

官人夜珍酒を獻し來る

夜將に九時ならんとす、哨兵來り報じて曰く、府使の許より使人來り訪へるあり、之を堂上に導かんかと、一人乃ち出でゝ之を迎ふれば、前きの次官及び四五の官人が府使の嫡子を伴ひ到れる也、譯者使命を通辯して曰く、當府使諸公遠來の勞を慰せんが爲め些少ながら我名産の竹酒及び豚牛肉を獻ぜんと欲す、受納を得ば幸甚と、竹酒は竹に據りて造り、毎年國王に獻ずるの慣例あり、一行久しく客中の粗食に苦む、乃ち悦んで之を受け、使節と共に堂上に團欒して且つ飲み且つ喰ふ、滿堂の、賓主醉氣既に闌なり、於是乎或者は凜然劍を按して起つて舞ひ、或者は陶然詩を吟じて坐して和す、宛如たる一幅の光景異鄉に新日本國を現出せるものゝ如く、一行復た身の海外に在るを知らざる也、使節之を望觀して惘然自失、只管奇異の感に耐えざるの趣きあり、既にして夜色沈沈興亦た漸く盡き、使節辭し去るに及んでは宴も亦終に止めり、此夜宴席に於て起居の窮窟に耐えず、獨り私に懊惱せる者を吉倉となす、彼は不幸にして使節應接の大將に擬せられたれば殿樣然として坐の正面に跪坐し、品位を保たんが爲めには、好きな美酒佳肴も意の如く喰ふ能はず空く食慾を制して涎を流し目を圓く

し、左も懐しげに一行の鯨飲馬食を横さまに眺め、亂舞高吟を默視して、流汗瀧を成し、自慢の紫衣錦袍も其冠と共に殆んど容儀を亂さんとす斯の如くして宴の漸く撤せらるゝや、吉倉氣力全く衰へ、喟然として長嘆大息して曰く、人生誤つて大將の身となる勿れ、一切の幸福人後に落つと、亦是れ一場の好滑稽劇たるを失はざる也

廣寒樓の第二日

次朝行人の談ずる所を聞けば曰く、東學軍は昨夜正に南原を去る西方六里の地、淳昌の郡衙を襲ひ、之を奪ひ之に占據して今尚其陣營を設くと、但し其兵員に至つては或は數百と云ひ、或は數千と稱し、諸報一定ならず、一行此報を耳にするや、血湧き肉動き精神俄に激昂し、竊に既往の困苦の徒爾に屬せざりしを祝賀し、且つ爰に始めて前程一道の光明を認めたるを覺え、欣然として東徒の陣營を訪問するに決す乃ち百般の準備を速成するに力め、次朝拂曉を以つて此の地を發程せんとす、是に於て乎銃器掛り大崎千葉は倉皇として銃器の掃除に走り、彈丸掛り白水は彈丸の製造に從事し、爆彈掛り日下は小心翼翼として爆裂藥の罐詰に勉强し、劍を提げたる者は各自其刃を磨して之が目釘を撿め、內田、大原、大久保は庭上各方面に分れ立つて雜人の侵入と準備の邪魔物とに警戒す、而して時に爆裂彈を投じて其效驗を試驗し、牆畔壁邊轟然たる大響を發せしむるあり、風色極めて慘憺たり、然るに樓外庭上を圍繞して之

を望觀せる滿城の韓人は、秋毫も府安妨害の疑念を抱くもの無く、單に珍異の感に堪へずして其祕密を伺はんと欲するものゝ如く往往人波を打つて庭上に亂入し、護衛の韓卒も之を制壓する能はざることあり、亂入の徒若し堂下に接近するあれば、警戒の三士は之を一攫して忽ち場外に擲ち去り、尚ほ懲りずして來るものは壓搾して姑く之を眠死せしむる等、殆んど鬼神の如き威力を弄して以て僅かに韓人を畏服せしめたり、當時幸にして秩序を保維し、大なる變事なくして充分の準備を全ふし得たるもの、專ら三士の功たらずんばあらず、唯少年井上藤三郎は是日に於て健鬪して、痛く一人に負傷せしめぬ

一行が斯く迄に兵備を嚴重にせる所以のものは、其意他なし、東學軍にして果して世に傳ふるが如く排外黨たり、若くは日本反對派たり、或は朝鮮に於ける無賴殘忍の匪徒たるに過ぎずんば、一行は之に對して、秋毫も假借する所なく、直ちに朝鮮政府に代つて、其の責罰し得ざる所を責罰し、以て其國刑を正し、且つ隣誼を全ふするが爲めに、大に武器を用ゆるの必要を感じたるに在り、若し夫れ東學の徒にして正義の軍たり、革命の師たり、安民定國の救世者たらば、則ち斷然之と協力合心し、俱に代天立德の席旗を飜へし、八道一千萬人の生靈の爲めに十四個の死體を馬革に裹み、以て生民塗炭の苦痛を脫せしめんと期したる也、見よ、天は歷歷として我俠徒を佑くるの實を示したり、此兵器準備の時に方り、府使は公然之に借すに適當なる高樓を以てし、府兵は來つて之が四邊を護衛し、而して其準備を扶け、其妨害を防ぎ、府民は無神經同樣に

毫も我徒が何を爲すやをも解する者なし、一行は此の如くして一日の中に能く萬萬の大軍をも打破すべき用意を得たり、嗚呼旣に天佑あり、誰か復た我徒志業の成らざるを疑はん

瀛洲閣上に三士羽檄を草す

同人が百般の準備に其心を奪はれ居る間に、吉倉、鈴木、武田の三人は初見參の際、東學軍に與ふべき一篇の檄文を草し、我が一行が何の故に遠く此地に來つて其陣營を叩かんとするかを知らしめんと欲す、卽ち閑靜無人の場所を尋ねて廣寒樓後蓮池中の一小島に至り、爰に所謂る瀛洲閣なる一小亭あるを發見す、三士乃ち閣中に進み二三詩客の島上に吟臥せる者を叱咤逐斥し、而る後鈴木は復た階を下り、其雙腕の力を奮つて架橋を撤去し、全然韓人の來り窺んとするものを遮斷せり、於是乎此一小島は最早朝鮮の主權を離れて、三個日本士人の掌裏に占領されたりと云ふも不可なき也、

閣は其造りこそ稍や粗末にして、狹小なるに似たれ、去れど其池に臨み紅蓮を抱き閑雅の趣味津津たるに至つては、我が西京鹿苑院金閣寺にも讓らざるものあり、否其名旣に題して瀛洲閣と云ふ、地の仙境に近きものある固より其の所なり、眼を放て四壁を望めば、二十四孝の圖は極めて古風なる色彩の下に畵かれたり、而して其の筆力たる、尋常にして言ふに足らずと雖も、孔孟の遺敎は尙ほ其の形骸を此間に留めたるを見る、三士優優として閣中に安坐し、波上の淸風に暑熱を忘

れ、筆を執つて靜に紙面に對すれば、折柄の蓮花水を渉て香を送り來り、仙風習習として卓邊に迷ふを見る、

英雄大雨を衝て黨軍を敲んとす

用意は既に充分完きを告げ、探究に探究を重ねたる東徒の所在亦漸く知悉せられたり、今は一刻の猶豫もならじ、一行は意氣頓に軒昂乃ち次朝の大雨を物ともせず、困難なる滿路の泥濘を雙脚の下に蹂躙し、韋駄天走りに廣寒樓より發程し、面も振らず淳昌に向つて馳せ去らんとす、行くこと約四里許、小流を渡つて一客棧あり、一行此處に入つて暫く休憩し、且つ午飯を喫す、而て吉倉、武田は更に別房を求めて共に其檄文を清書す、此時行客の來り告げて曰ふものあり、黨軍の淳昌に據るもの精兵約五百を下らざるべしと、衆議是に於て先づ大原田中を遣り、就て黨人の感情を探らしめんとす、二人既に去つて後一時間許、一行亦其跡を追うて發す、其淳昌郊外に達したるは既に黄昏に近し、遙に前頭を望めば偉丈夫の市端の橋頭に立ちて、雙手を擧げて一行を麾くあり、次第に近けば是れ卽ち前往の田中なり、彼れ呼んで曰く、吾黨萬歳、彼我連合の策顧ふに敢て之を成すに困難なることなけん、今一書狀の特使に附して黨軍より齎らし來れるあり、乞ふ衆と共に爰に之を披き、以て迅速回答を贈るの手續を取らんと、封を披て之を讀めば其文に曰く

貴國大人各位、萬里を遠しとせずして駕を陋地に枉げ、熱

風火雨、長途の勞苦誠に驚惶に耐えたり、知らず諸公の此處に來る、本と大命を帶びて敗餘の吾黨人を萬死に救はんが爲め乎、抑も亦別に期する所あるに由る乎、幸に敎示を賜はゞ幸甚、吾黨人曩きには貪官汚吏の民膏を剝割するを默視するに忍びず、一朝俄然冤を鳴らし訴を呼び、衆を會して全州に入る、志一に百姓と共に其浮沈を與にするにあり、意はざりき、城上砲丸雨下、敢て我千餘人を射殺す至冤極痛の情、今や訴を呼ぶに所なし、而して如是至冤の民終に指して不軌の徒に數へられ、方伯守命、每に劍戟を磨して吾黨人を邀擊鏖殺せんとす、天下の無辜之より甚しきあらんや、是れ實に諸公の憐察を乞はざる可らざる所、且つ吾黨人本來德を明かにし、道を宣ぶるを主意とす、故に久く兵馬の間に驅逐すと雖も、今に至るまで曾て一たびも無辜の民を害したる莫し、其紀律の整然亂れざるは竊かに自ら京軍の上に出づるものあるを期す、諸公若し高駕を我陣門に枉げ、而して愚蒙を啓諭するの勞を吝まずんば、何の遲疑をか要せん、何の躊躇をか須ゐん、會生等席を請じて謹で諸公の光臨を竢つ

入黨全權使の選定

使命に附して東徙より我に致したる來意の公明なる彼れの如し、縱し是を以て我を欺き誘ふの僞計たりとせんも、此の所は一番男兒が死を賭して以て幡隨院的骨頭を發揮すべき所な

り、況んや熱風火雨既に十數日蟲床蠅飯の間、幾多の艱難に耐へて數十里の山河を跋渉し來りたるは、實に唯今日の邂逅あるを期せるが爲めのみ、大丈夫の死する豈に二あらんや、大義を抱きて大義の爲めに斃る、其死は卽ち無上名譽の死なり、是に於て乎一行皆爭ふて直ちに東徒の陣門に走らんとす、然れども大事を爲す者は其劈頭に方つて暫く當に愼重の態度に出でざる可らず、未だ志を得ざる者は忍耐せよ、將に志を得んとする者は大膽不敵なれ、是れ豈に俠徒今日の場合に對する名訓にあらずや、一行は其の過去數年間、海外の舞臺に活動せる折衝禦侮の經驗に依つて能く金言應用の眞諦を解するもの、乃ち驀然として心を飜へし、相議して武田田中吉倉の三人を入黨全權使に選定し、以て先づ黨陣巨細の內情を偵察せしめんとす

全權使の留言

此の夕、內田鈴木の二人は、發熱の苦に耐へずして酒幕の臥床に呻吟せり、臥床と云へば臥床なれど其實は藁を積み上げたる椽外の一土間のみ酒幕は東徒の陣門を去ること約半里强、淳昌郡城郊外の土橋畔に在り、茅屋房を設くるもの僅かに三四、而して一行の爲めに充てられたる最大の室と云へる者も、漸く六疊敷に過ぎざる也、諸士は强ひて鬱勃たる雄心を抑へて此隘房に留り、三士の出立を見送るの後、各各相分れて其警戒の任務に從はんとす、三士乃ち去に臨み、言を寄せて曰く、我輩命を諸兄に承く、旣に太だ重、一たび此の處を去らば復た生

還を期せじ、若し黨陣に入りて萬一の變あらん乎、屍を彈丸に托し、身を劍刃に橫ふるは敢て或は諸兄の怪むを須ゐざる所、憶ふに諸兄は其員數一團十餘名、幸にして能く心を協せ力を戮すを得ん乎、千百の韓奴竟に何をか爲さん、或は我等一たび去つて後、異聲黨陣より到るも、諸兄決して我等を以て念と爲すこと勿れ、靜かに退軍の道を講じて以て後事を謀る可きなりと、聞く者憮然たり、三士乃ち悠悠として幕門を出で、滿路の泥濘を踏破して、黃昏郡城に向つて去る

黨使三士を導く

吉倉は例の如く服を錦衣紫袴に改め、頭上に烏帽子を戴き、懷裏に羽檄を藏し、優然兩士と相提へて去る、往くこと少許、黨軍の使節の復た到るに會ふ、蓋し一行の遲疑するを疑ひ、其來訪を促さんとする者也、使節は其姓字を金普賢と稱し、任に黨軍の有司に在り、彼れ三士を見るに及び低頭して合掌し、敬意頗る見るべき者あり、乃ち之を以て東道の主人となし、行行相談笑して緩步す、金の語る所と其態度とに依て見れば、全州敗後の黨軍は、頗る憐むべきものあるが如く、三士に取つては殆ど窮鳥懷に入るの感あり、嗚呼眞摯熱誠にして意氣剛健なる幾千百個の東洋的ビコウリタンは、今や其一團の身命を提げ來つて、僅僅十餘名の俠日本兒に托せんとす、彼の眼中一滴淚なき木强漢の三士も玆に至つては萬斛の涕淚海の如く、一生涯の淚を逆樣に傾け盡し、淚に次ぐに血を以てして尙ほ惻隱の

情を禁ずる能はざりき、顧ふに男兒の血涙は點點是れ珠玉、滴滴是れ千金其猥りに些事に向つて濺がざる所以のものは、卽ち別に至高至大美至善の場合を待つて大に傾注する所あらんと欲すればなり、是に於て乎、落涙も亦甚だ容易の業にあらざる也

三士自若として示威軍前を過ぐ

郡衙は漸く二三百歩の外に見ゆ、現はれたり卽ち東徒本營の置かれたる處、然るに玆に達せんとする一條の行道は其幅六七尺、左右兩側共に一列の兵士を配置し、而して其配置せる限りの兵士數百名は渾て皆長槍を横へて立てり、守衛と云はゞ卽ち守衛、警備と云はゞ卽ち警備なれども、畢竟其の眞意は日本人たる我三士に對する示威運動に在る可し、然らずんば何ぞ此業業しき多人數の配列を要せんや、思ふに彼徒は之を以て日人の心膽如何を試みんと欲せしならん、然れども三士は之に一瞥見を與へたるまゝ、脅目も振らず、泰然として其間を除行し去れり、彼徒も亦案內者の金普賢なるが故に、殊更之を誰何せんとはせざりき、斯くして少しく歩武を進めたる後、漸く其中軍とも覺しき陣營の門前に至れり、門には正門あり、左右に小門あり、而して其正門は少刻前、嚴に之を閉鎖したるものゝ如し、是に於て乎金は進んで其左側の小門より入り、三士を麾きて其背後に追隨し來らんことを勸む然れども三士は頭を振つて之に應ぜず、大聲呼んで正門を開かんことを求めた

り、此一刹那、第二の示威は復た俄然として施されぬ、門內幾個の兵士は其舊式砲に導火して轟然一發、尨大の砲丸は天落ち地裂くる底の烈響を帶びて、門頭より何處ともなく闇を衝て飛び去れり、三士尙ほ神色自若正門を叩いて止まず、是に於て前の案內者たる金は、已む無く門衛に命じて其正門を開けり、三士乃ち入て當面の殿上に向つて進む

大將は何れに在る乎

廣庭の中、優然徐步して石階より上れる三士は、今まや殿頭に至りて嚴として立てり、是に於てか取次の吏員出で來つて三士を迎ふ、數百の東學黨人亦如何なる倭客の暗夜我陣中を冒さんとするかを知らんと欲し、殿上殿下に蟻集して頻りに其品位風采を窺はんと欲する者の如し、而して三士の動作は彼れの如く軒昂として且つ傲然たり、殿上に在て尙ほ其泥鞋を去らず、ヤガテ徐に尾扇を擧げて遙かに黨人を麾き、先づ洗水を持ち來るを命ず、黨人は唯唯として之を持ち致せり、三士は復た起立のまゝ黨人に命じて其泥鞋を解き、且つ足部の汚泥を除かしむ、黨人亦俯伏して其命を奉ぜり、黨人が三士を迎ふるの情や、是に至つて極れりと謂ふ可く、決して禮を缺くものに非るを知る、今や乃ち當初に期したる幡隨院の俠骨頭は毫も其の用を爲さず、して却て六國を遊說せる蘇秦の長廣舌を用うるの必要あり、田中は巨眼一睨坐の四隅を睥視し、此處に集まれる者の悉く下吏部卒の類なるを見、開口一番洪聲に呼んで曰く主將何れ

に在る乎、吾等同志の俠徒、密かに告げんと欲する所ありて、特に千里の勞を致せり、速に主將を呼び來れ、部卒と相見相談ずる如きは我が志に非ず、雜人は宜く自ら此席を避く可しと、音吐鐘の如く、堂上堂下に響き渡れり、然るに坐前に起ちたる黨の一人は從容として徐に之に答へて曰く、由來我黨人は貴賤上下の差別を設けず、皆是れ同等同權の百姓なり、所要あらば乞ふ是に於て聞承せん、願くば三士の共に坐に着かれんことをと、其說く所理義明白にして音聲迫らず、想ふに是れ黨中の好漢なるべし、三士乃ち殿中の中央に列坐し、他の接待員の如き者を呼んで其席を進めしめんとす、是に於て三四個の者來つて三士の面前に近づき坐するあり、餘衆は皆周邊に起立して沈默敬意を表し、數個又三士の背後に廻り、扇を動かして佳賓の爲めに涼を送らんとす、此間堂下に於て叱警靜止の聲あり、嚴に衆人の雜踏を制するものゝ如し、暫くして吉倉其懷中より儼そかに檄文を取り出し、對座せる東黨の一人に之を與ふ、黨人乃ち之を捧げて將に披覽せんとす、此の時、人あり靜に殿頭の衆を排し、忽然として席上に見はれ來る、三士之を見れば、其人朱髯星眸、閑服雅冠、風采凜凜として四邊を拂ふの概あり、後に至つて漸く其東徒八大將の總督、未來の開南國王、湖南泰仁の英雄、全琫準字は明淑なるを知る

全總督の前に羽檄を讀む

全琫準は何が爲めに其席に後れ到りたるか、蓋し彼れ初め倭客

接待に關する陣中百般の設備を命じ、示威に依つて其人物の如何なるかを探り、更に門前殿上に於ける巨細の擧動を詳にし、豫め其性質を悉して之に應對するの方針を畫定し、而して後、始めて賓殿に臨める也、總督旣に席に入る、席上の靜謐は益益靜謐にして、蚊聲の微も亦能く耳にするを得べし、於是全琫準は改めて三士の羽檄を有司金普賢に手授し、之をして朗讀の任に當らしむ

檄文の大意

羽檄は漢文體を以て吉倉の手に成れり、不幸散逸して今其原文を得ず、仍て玆に之が大意を揭載し、且つ讀者の見易からんが爲め、其次第を分序すべし

第一 海山萬里、艱苦を意とせず、特に來つて親ら諸公を訪ふ所以の者は、唯諸公が義に據り大道を履み、王家の衰ふるを興し百姓の流離を救はんとする其志に感激し、同志十四人、乃ち産を擲ち家を捨て、死を以て父母の國を走りたるもの也、日や韓や固と同祖同文の國と稱す、隣誼の情其存亡に對して默過すべきにあらず、然りと雖も利害の關係旣に直接ならざる他邦人にして、尙ほ且つ義を見て奮興すること斯の如し、諸公に在ては則ち先祖墳墓の地たり、宜く當に其の國の爲めに至誠盡忠粉骨碎身すと雖も、猶ほ以て足れりと爲すべからず

第二 濟民の擧や固より不可なる所なし、然れども其濟民の目的を達せんとするに方つては、輕擧暴動は最も戒めざるべからず、否此の如きは徒に其大事を誤りて大機を失ふに過ぎざる也、先聖云ふ、事に臨みて懼れ、謀を好んで成ると、是れ實に諸公の鑑みざるべからざる所、仍て竊に思ふに當今の世、國に任ずる者の急務は四方の形勢に對して自家の地位を考へ、審勢審敵以て能く天下の機勢に應じ、其生民を安ずると共に其社稷の鞏固を計らざるべからず、若し夫れ此言に顧ること無くんば、國破れ家喪ぶる、必ずしも旬年を竢たざるべし

第三 天下今日の形勢、其優勝劣敗角逐の狀、彼の如く恐るべきものなり、朝鮮の安危存亡は豈に此秋に非ずや、而して現今兄弟內に鬩ぎ、虎狼外に窺ふもの多多、志士身を以て國に殉じ、萬世泰平の基を立つる、今日を措て夫れ何の日を竢たん耶

第四 朝鮮の時弊は上下一般偸安姑息にして一念曾て國家の存亡に思ひ到るもの無きに在り、特に上に在る者に在つては、宰相以下地方守命の徒に至るまで、皆爭ふて其私を營み、詩酒淫樂、朝以て暮に接す、今之を改めて强健の國風を養成せんと欲せば革命は實に其第一手段たるべし

第五 一抔の土も李氏の天下なり、一人の民も先王の百姓の子孫なり、然るに今此土を割きて俄羅新に與へ、此民を

して歳歳相卒ゐて胡地に流亡せしむるは是れ果して誰の罪ぞ、閔一族の失政の跡實に此の如し、彼の罪惡は單に其暴斂に止まらずして、別に先王を辱め、社稷を傷ふものあり、志士豈に之を默視するを得んや

第六 唯夫れ物には本末あり、今日地方官吏の虐政が閔家の收賄政治より來るは公等の素より知悉せる所、故に人民疾苦の因て出ずる所は、公等も亦其閔家なるを云ひ、閔の罪の地方守命より重しと爲るも事理當然の論なり、公等の明智眼識既に此の如し、然らば則ち閔の罪の依て來る所、亦究め易きのみ、而して終に其罪を咎めざるは何ぞや、彼れ閔族惡政の背後には之が守護者として淸國使臣袁世凱あり、袁は實に閔の惡を扶け、其罪を長ずる所の本尊たり、而かも公等は妄りに其敵手に袁大人の尊稱を與へ、其敵國に祖國上國の佳名を獻ず、吾徒は竊かに公等の賢明にして此の如き迂愚の擧に出るを怪む者也

第七 之を要するに百姓を虐する者は守命、守命の元惡は閔族、而して閔族惡政の根源は袁と其の本國とに在り、是れ天下萬衆の公論に係る、然らば則ち朝鮮の百姓をして今日の塗炭に苦ましむる者は、彼れ淸國に非ずして誰ぞ、竊かに怪む、公等其刃を淸と袁とに加ふるを忘れて、獨り之を閔と守命とに用ゐんと欲するを、否公等の義擧僅かに斯くの如きに止らば、是れ旦に一閔を斃して夕に一閔を迎へんと欲するもの、百姓の痛苦、天下の禍根、何の時

にか能く之を掃蕩し盡すを得ん

第八 況んや公等は單に漢土の明朝時代に於ける恩惠を記臆し、而して現に朝鮮に對して、淸國が大禍心を包藏する所以を知らざる者なり、曾て袁世凱が廣言する所を聞かずや、三年の後、我必ず朝鮮を以て我版圖と爲し、其の王を廢して庶民たらしめんと、咄咄大逆無道俱不戴天の言、臣當に憤慨して節に死すべき所、而して葉聶二將は其の野心實行の先鋒となり、既に海を飛渡し、來つて牙山の陣營に在り、宜なる哉袁の强ひて無道の政府を助け以て公等安民勤王の師を剿滅せんとするに努むることや

第九 家族あるを知つて國家あるを知らざる閔は、葉聶二將の來つて牙山に屯するを奇貨とし、之に啗はして其暴政の援兵とならしめ、而して國王殿下の叡慮を惱まさるゝを意となさず、彼等三人は實に是れ朝鮮の虎狼たり、公等閔を討するに方つて、先づ牙山の淸兵を掃はざるべからず

第十 閔族朝に立ち、淸人外より之を援助す、斯の如んば、忠義の臣到底世に擧げらるるの期なし、今日野に遺賢多く、年豐かにして而かも四民に菜色あるが如き、其原因一に此に存す

第十一 唯だ日本國民は則ち然らず、公等にして長へに其安民興國の志を持續せん限りは、出來得る限りの盡力を與

ふるを惜むこと莫し、義俠は實に我帝國三千年の歷史を成せり

第十二 故に公等にして我徒の言ふ所を聽かば、吾徒は欣然之より公等の先驅となり、矢石を冒し、劍刃を排し、以て北進京に入るの途を啓き、全力を盡して斃れて已まば、彼れ牙山淸兵の如き縱令萬萬の衆ありと稱するも、一擊して膽を奪ふ、易易たるのみ、何の恐るゝことか之れあらん

此檄文は獨り東徒の間に流布されたるのみならず、日後牙山占領の時、淸將陣中日記の中亦之を謄錄せるを見たり、以て其何如に廣く全羅道忠淸道兩道の州邑に傳へられたるを知るに足らん

羽檄は高らかに讀み上げられたり、聽者は愈愈謹嚴なり、讀んで奸臣專橫の罪を論ずる所に至る毎に朗讀する者の聲は、俄かに激張し、聽者は臂を張り眼を怒らし、次で百姓疾苦流亡の所に至れば滿堂皆暗涙を浮べ、燭火亦た自ら明滅して夜氣愁然たり、更に朝廷人なく、社稷累卵の所に及ぶや、泣いて慟哭し、劍を拔いて柱を斬る者あり、以て聊か黨人熱誠の眞情を察するに足る、獨り怪むべきは、袁世凱彈劾の點のみ、衆人稍や半信半疑の色あり、終に黨人の義膽忠魂を稱揚する所に至つて、歡喜の笑聲は、殿頭より門外迄一齊吶喊の如く、哄然として遙かに響き渡れり

憐むべく又た愛すべきは彼等の狀態なり、流石の三士も、暫く我を忘れ、天地を忘れて暗涙に咽ばざるを得ざりき、渾身の熱血亦此時に於て烈しく流動し、一死以て黨人の義擧を扶け、其宗廟の蒙晦を排除し、八道一千萬人の困憊を救濟せずんば止まざらんとす、嗚呼黨人は、如何なる魔術を逞ふしてか、斯くも容易に日本三個の俠丈夫を心的生擒とはなせし

三士大に全總督と談ず

羽檄の朗讀は了れり、天佑俠の宿志は漸く爰に東學黨に通ずるを得たり、彼等乃ち一齊に感激鳴謝の意を表し、全琫準衆に代り謝詞を述べて曰く、公等異邦の人を以して、尚ほ且つ我奸臣を惡むの情斯の如く烈しく、義に赴くの誠斯の如く明かに、百姓を哀み、道を天下に行はんとする志斯の如く壯大なる者あり、高訓謹んで之を服膺す、

我等死すと雖も豈に其厚誼を忘れんや、唯恥らくは一黨の者、至誠未だ足らずして志業の久しく天下に伸びざることを、冀くば公等の保佑に依りて是より益益之を勉めんと、既にして相互の間對談は續續として始まれり、然れども此夜は本と初對面なり、縱し彼我の事情は檄文に依つて能く相通ずとするも、忌憚なく重大の協議を爲さんことは、時機尚ほ早きに失せり、三士乃ち單に仁義大道の天下に明にせざる可らざることを述べ、且つ之を明かにするが爲めには大丈夫たる者、一死も亦甘んじて之を受くることを誓ひしのみ、而して

天佑俠第一の目的たる清國排斥及び朝鮮革命獨立の大策に至つては、之を次朝の會議に讓ることに決し、敢て一言も未だ此處に言ひ及ばず、只管黨人の心を收攬することに力めたり、全琫準又相共に仁義大道の犧牲たるべきを盟約したるに過ぎず、然れども兩者此一夕の應對は殆んど千載の知己の再會せるが如く、其間互ひに毫毛の疑心を挾まず、肝膽相照して春風滿堂の感あり、天佑俠が雲山萬里の來訪、是に於て乎漸く徒勞に屬せざる也

義無ければ命ありと雖も亦何かせん

是より先き談端の將に開かんとするや、田中は黨人に對して謂つて曰く我れ既に義の爲めに死を許す、是を以て今此陣を叩くに方り、身邊復た寸兵尺鐵を帶び來らず、我が諸公に對して些の戒意を懷かざる斯くの如しと、言ひ終つて冷然右側の吉倉を一瞥す、

然るに吉倉は此時平常の如く、何心無く短刀を帶して坐中に在り田中の談ずる所、頗る自家の面目に關するあるを見て心少く動き、咄嗟の間一策を案じて大に得る所あり、乃ち其談話の終るを待ち、直に黨人を呼んで曰く、兵馬亂離の間天下往往刺客あり、變形橫行して敢て兇行を逞ふせんとす、此の際三軍に將たるの士、大に戒心する所なかる可らず、然るに日本の士風、古來刀を帶ぶるを以て例と爲す、甚しきは之を以て己の精神となし、行住坐臥曾て其身邊より離るゝを許さず去れ

ど殊邦の諸公より之を見れば、必ずや異樣の感に耐えざる可し、今特に諸公の爲めに我所謂る精神を除き去つて、暫く之を諸公の手中に委せん、聊か以て我に異心無きを證とするに足らん乎と、乃ち腰邊の刀を解き、之と對坐せる黨人に與ふ武田之を然りとし、自ら刀を脫して亦た黨人に附す、黨人乃ち之を束ぬて別房に提へ去らんとす、全琲準叱責一聲忽ち手を以て之を制して曰く、咄咄臆病漢、爲す勿れ我徒久く萬馬の間に馳騁し、九死の巷に出入す、仁は我が金甲にして義は我が鐵楯たり、天下行くとして我黨の畏るゝ者あるを見す、今や貴客義の爲に至重の刀を解きて顧みず、其丹心眞に欽すべき者あり、我徒何ぞ獨り其利刃に恐れて遽かに之を收むるを爲さん、適ま利刃あり我が胸に加ふと雖も義あれば則ち之に甘んずべきのみ、義無くんば能く生を偸むも亦何かせんと、嗚呼是れ東學黨領袖が其肺肝より絞り出せる至言也

全總督大に三士を饗す

少刻にして酒肉は席上に配列せられたり、東方血性の俠男子は、鷄籠八道の重患を雙肩に擔はんとする無雙の傑士と肘を取て酌めり、陶然として醉ひ、豁然として語る所、正に青梅酒を煮て當世を談するの概あり、既にして晩餐も亦供せらる、陣中ながら流石に馳走と鹽梅とは、其出來得べき丈の善美を盡したるが如し、全琲準語つて曰く、公等三位幸ひに來つて弊陣に駕を臨めらる、房舍坐食の事、聊か以て客中の適意を得るに

庶幾しと雖も、爾餘諸公に至つては、或は恐る旅館の不潔、永く足を駐むる能はざらんを、乞ふ之より直ちに迎へて玆に粗餐を獻じ、且つ宿房を我、陣の最佳處に選び、聊か一黨接賓の禮意を致さんと、全總督の厚意實に多とすべし、されど夜は既に太く更たり、三士は辭を叮重にして今夜の接遇を謝し、更に明朝を待て黨陣に移るべきを約し杯を撤して宴席を辭せり

東學黨中劈頭の日本人

此夜三士は黨軍を辭し去るに臨み、先づ待接の厚きを謝し、更めて之に告げて曰く、諸大人既に我等の來意を領せらる、想ふに我が同人も亦以て滿足すべし、冀くば諸大人また我徒が遠途日に曬され、雨に打れ、幾回か病厄を凌ぎ、艱苦と戰ひ、而して漸く此處に到りたる微志を察し、長へに之を胸中に劃して以て、遺忘せざらんことを黨人之を領して拜謝す、三士乃ち席を立つて出づれば、全總督は殿を下つて之を見送り、配下は門外に竝列して敬禮し、復た前の示威運動を試みず、案內者金普賢手から燈を提へ、嚮導して郊外の客房に送り到る、黨士の悃情至れりと謂ふ可し、誰か言ふ、東徒は是れ排日の分子なりと、當時天佑俠の見たる所に依つて斷ずれば、之を操縱して朝鮮革新事業の中堅たらしむる、亦唯だ一呼吸の間なりしのみ、恨らくは我廟堂一人の達觀者なく、前途有爲の黨人をして、空しく其向背を誤らしめたることを、還て客房に到れば、自餘の俠徒は既に久く鶴首して其歸來を待てり、而して三

士の還るや、其顔上には微醺現はれ、其雙頬には喜悦を呈す、安慰の情知るべき也三士は幸にして毫も危險なかりし、否危險を想像して往訪せる當初の決心より見れば、寧ろ絶大なる歡迎を受たるものなりし也、此夜訪問に依て三士が慥めたる事實は、東學黨中數多の日本人ありと云へる世上の流言に反し、我が天佑俠の會見以前に於て、絶て一日本人の同黨に加入したるものなきこと是れ也

天佑俠東學黨の陣營に移る

一行は既に東徒の日本人に向つて害意なきを知れり、其衷心より來陣を勸むるに對して、何如んぞ無下に之を拒絶すべけん、次日乃ち衆を擧げて其陣營に移ることに決し、朝飯を終へ行李を調へて靜に他の使節の到るを俟つ、既にして使節は來れり、衆欣然として馱馬を勒し、威風凜凜陣營に向ふ、此日彼は些の示威的行列を設けず又た門に入て虚喝の發砲を試むるの迂愚をも取ざりき、一行は數多の黨人に圍繞せられ、意氣揚揚として階を經て殿に上れり、殿堂は卽ち黨人の一行に貸與せる所、郡の本衙と全琫準の本營との中央に在り、大房一、小房一、共に其左右に屬し、中房には四五十疊敷の大廣間あり、結構莊宏、室室淸潔、實に一行に對する無上の好館だり、而も一たび殿庭に出でゝ四面を望めば、左右前後皆是れ東黨の支營にして、旗影劍光、角音蹄聲、雜然又た擾然として我が一行を圍繞せるを見る

全總督と正式の初對面

全總督は俠徒の坐に着せるを見るや、自來訪して初對面の禮を致す、酒肴は又も饗せられたり、大醉快談の間、一行は各自名字を連署して之を全琫準の前に通ず、全は一行の服裝區區にして毫も一定の觀あらざるを見、甚だ之を怪み、孰て問ふ所あり、蓋し全の意、服裝を以て位階を分つ所以ならんと信ぜる者の如し、一行之に對へて曰く、萬里の客地更衣極めて難し、我徒の服色個個相違せる、之が爲めのみ、蓋し亦已を得ざるに出るなりと、當時一行の服裝を見れば、曰下は雷神打鼓の摸樣を染めし浴衣を着け、田中は朝鮮袴、支那胴着、日本羽織、三國の折衷服を用ゐ、武田內田は純洋服、鈴木は純日本、吉倉は錦衣紫袴にして烏帽子を着し、時澤は士官の略服に、胸上勳章を輝かし、各人各色、奇裝奇冠、異邦人の目より之を見れば殆んど百鬼夜行の感あるを免れざる也、旣にして全は一行の携帶せる武器の精銳にして、佩劍の明煌煌たるを見、大に驚いて曰く、久く聞く日本刀は是れ天下の精銳たりと、今親く之を見るに及んで人言の我を欺かざるを知る、嗚呼此一事恐くは區區貧弱の鄙邦、終に貴國と天下に竝立して、東洋の大局を維持するの任に耐えざらん乎、甚だ憾む可き也と、長嘆して大息す、彼が愛國至高の熱情は物に觸れ、事に接して時時橫溢すること斯の如し、此日會談は單に東學の事情を問究するに止め、未だ毫も邦國經倫の快事に涉らず、十時全琫準辭して其營に還る

閑房を訪ふて四人全と密議を凝らす

午後四時頃に至り武田、鈴木、田中、吉倉の四人は彼我連盟談判委員として豫め充分謀議を定め、而る後全を其本營に訪ふ、此時全は圖書を左右にして獨り其閑房に安坐し、八大將は出でゝ、前後の各營に兵士の訓練を行ひ、四五の有司は閑房の左右兩室に在りて軍旅の事務を處辨せり、全は四人の室に進むを見、靜かに目禮して坐を請へり、四人仍て全に告げて曰く、我等今日公を此閑房に訪ふ、特に機密の審議すべき者あれば也希はくば先づ左右の人を退くるを得んと、胸中一點兒の疑心を懷かざる全は、悉く隣房の諸有司を去らしめ、更に部下の親兵を庭上の要所に配置し、雜人間細の潛入して、私かに謀議を漏聞せんことを防ぎ、警戒頗る嚴密なるを示せり、是に於て乎、四人意を安んじて談判の端緒を開かんとす

連盟委員大に總督を說く

全の處置に依つて四邊の警戒既に充分備はる所あり、然れども四人の委員は尙ほ之を以て足れりとせず、更らに評議の上に筆談を應用し、一は以て萬一の漏洩を防ぎ、一は以て日後盟約上の證據に供へんとす、武田は筆者として筆を執れり、三士其筆すべき要項を示し、以て全の答詞を待つ

委員　公既に身を以て義に殉せんとする志堅し、我徒乃ち大義を伸ぶるの策を公に獻ぜんと欲す、冀はくは淸

聽を瀆すを得ん

總督　謹んで高教に接せん

委員　義兵一たび古阜より起つて、八道の形勢殆んど玆に一變し、淸は兵馬を連ねて牙山に屯し、日本亦旣に大軍を京城に入る、而して後天下の民心恟恟然たり、惶惶焉たり、箕邦の亂夫れ何の日にか定らん、私かに惟ふに淸人の來つて牙山に屯する者、口妄りに恩を朝鮮に賣ると稱し而して其實大に相反する者あり、彼れが來るは實に外邦干涉の端を開く者と云ふべし、一たび爰に外邦干涉の端を開く、將收の風雲復た必ずや之より嶮ならん、不幸にして風雲再び捲起するの日あらんか、盜相と奸臣と互に其機を利して益益其奸惡を逞ふし、百萬の蒼生流離顚沛、亦た如何ともすべからざるの日あらんとす、嗚呼八路の民獨り何の咎ぞ、屢屢兵火の慘に遭ひ、屢屢奪略の害を受け、而して猶ほ之に次ぐに一層の禍厄を以てせんとす、公が義、奸臣と竝び立たずと誓へるもの、誠に其所なり、公等旣に大義の擧あり、何爲れぞ更に一步を進めて大義を全ふするの道を講ぜざる

總督　高教敬承、義を務むるの至諭、深く骨髓に銘す、我徒亦何ぞ之を勉めざらん、抑も我徒義を古阜に唱へたるの主意、本と濟民の心願に屬す、微衷唯だ世の生ある者をして其の所を得せしめんが爲めのみ、是

を以て陣を行り兵を率ゆるの際と雖も、未だ曾て沿道一人の無辜を害はず、秋毫百姓の財を侵す所なし、爾來今に至る數閲月、或は觀察使に就て愬訴し、或は檄を四方に傳へて我徒仁義の志を明にす、然れども恨らくは奸邪朝に滿ち、便佞路を塞ぎ、草萊微臣の衷情曾て容れらるゝ所なし、容らるゝなき尚ほ可なり、漫りに京軍を千里に進め、終に之を以て我徒を蕩掃せんとす、然るに我徒は由來古聖賢名教の徒弟たり、順逆忠不忠孰れか就くべきの道なるか、我徒固より之を解す、是を以て義進んで鋒を王者の師と交ゆるを得ず、彼れ西より來れば我東に避け、彼れ南に進めば我れ北に走り、力めて相衝突せざらんことを期す、敢て我徒の怯懦なるには非る也、但だ彼れの不仁なる、我軍逆名を懼れて逃避の狀あるを奇貨となし、全州の役、其巨礮を放つて我徒千餘名を斃し、且つ無辜の州民を殺戮し、城の內外に於て人家數百戸を燒壞す、豈に無殘の極に非ずや、我徒死を見る歸するが如しと雖も、素志未だ達するに及ばずして悉く兇刃の下に殲さるゝも亦太だ快とする所に非ず、是を以て一たび鋭を避けて終に城外に走る、圖らざりき大君主の至仁、我徒作亂の罪を恕して却て之を招撫して優詔を垂下せらる、大仁海山、黨を擧げて其恩に感淚せざる莫し、仍て和を官軍と議し我が獲る所の大砲數門を返し、終に徒

衆を散じて各各其鄉に還らしめんと欲す、今我れの此地に來る亦實に歸休の途に在り、嗚呼進んでは京兵の沮む所と爲りて、政に參し民意を達するを得ず、退いては産業に安んじ、父母を養ひ、教學に精勵すること能はず、我徒の進退正に此際に谷まる刃に伏して死せんか、民人の窮苦終に濟ふべからざるとを如何せん、强ひて暫く生を偸まん乎、碌碌無爲、老境直に到り、徒に辱を重ぬるに過ぎず、乃ち別に意を決し、郡縣を巡遊して其貪奸の守命を懲らし、政弊を矯し、民疾を問ひ、以て纔かに我が期する所の幾分を成す、既に地方の政弊を釐革し終らば、我れ將に山谷の間に入り、岩穴の中に處し、而して生死を草木と均ふせんのみ、嗚呼混濁せる今時の天下は、孤忠孤憤の士を容るべき場所を與へざるなり

彼が慷慨淋漓の狀は言詞の間に溢れたりと雖も、既に和を官兵と講じて武を偃せ兵を散ぜんと謂ふに至つては、又案外至極に非ずや、嗚呼彼れ果して眞面目を以て之を言へる歟、否否彼れの顔面は血を濺げり、彼れの眼中は、尋常に非ず、彼れ豈に俄に其濟民の本領を沒却して、伯夷叔齊の陋態を學ぶものならんや、四人は直ちに此間の消息を探り、次の言詞を連ねて益益彼を挑まんとす

委員　義に勇み情に激するの極、何人も公の如き說に傾か

ずんばあらず、然れども公少く現時天下の形勢に留意せよ、未だ容易に英雄をして回首神仙たらしむるに足らざる者あり抑も彼れ清兵が曠日彌久、徒らに牙山に屯して鞭聲終に湖南に嚮ざるは何の故ぞ、蓋し日本の大兵京畿の野に營戍して直ちに後門狼を進むるの憂あるに因ればなり、清兵一騎南に馳すれば、日兵亦一騎牙山に向はん、清其名を東徒の征討に假り、奇功を建てゝ京城を窺はんと欲するも、時勢の己れに可ならざる、斯の如きものあり、如何ぞ其聲言する所を俄かに事實として奇功を奏するを得んや、閔も亦頃日有司百官の彈劾に耐えず、衷心頗る苦慮するものあり、閔實に內顧の虞あり、而して清亦外患の尋常ならざるを知る、閔と清と共に恐るゝに足らざるは之が爲めのみ、今や將軍此の好機に乘じ、其民衆を率ゐて王門を拜し、天閽に向て明明地眞相を愬訴せんか、一袁世凱何か有らん、一閔惠堂何かあらん、奸臣汚吏悉く族を殲して追ふを得べし、想ふに君王の聖明なる、能く公の志を憐み公に托するに安民定國の大事を以てせん、是れ實に公が意を決して起つべきの秋なり、何ぞ爾く其れ躊躇するや、且つ日兵既に京仁の間に蟠崛す、公縱し衆を統べて北征の途に上るとせんも、清兵斷じて公を追ふの憂なし、此一活機眞に是れ天與の好機にして、成敗利鈍、歷歷として火を睹るよりも尙明な

り、而して兵の拙速を貴ぶは公の固より知る所、願くば異邦人の故を以て我言を輕んじ、爲めに大事の失着を致す勿れ

四人の誠意極諫、尙ほ以て彼を動かすに足らず、彼は冷然として之に答へて曰く兵は兇器なり、容易に用ゆべからず、我徒の執る所の者は義に非ずんば則ち死のみ、横道は君子の常に賴る所にあらず、唯夫れ形勢の論は公の言に依つて明確掌を指すが如きを得たり、然れども事の成敗は我徒凡て之を天意に一任せん彼れ古阜より起つて以來、湖南の地に轉戰すること旣に數閱月、其前に用ゐたる所の兵は、獨り活人劍にして、將に用ゐんとする所の者は總て殺人劍たりとする歟、英雄人を欺くも亦甚しと謂ふ可し

委員　天意不殺、公の心とする所、至高至遠と云ふべし、然れども志本と大義を伸ぶるに在り、權宜に賴り大仁を行はんが爲め、暫く小不仁を爲すが如き、大丈夫決して之を避けざる也

總督　然りと雖も今や總て是れ敗餘の羸卒、偶偶少壯の者あれば金瘡未だ癒へず、如何ぞ能く之を行るを得ん

委員　果して然らば我等乞ふ將軍の爲めに上京の道を啓かん、一行十餘人、員數を問へば側ち寡少に過ぐ、然れども皆是れ日本選良の士、加ふるに武器の精銳比類なきを以てす、公若し我に假すに少許の兵を以てせば、湖西五十城旬日を期して皆之を降さん、公豈

に濟民の大旗を取つて、移して之を中原原頭に樹つるに意なきか

仰で彼れを見れば、瞑目沈思、寂然として坐せる枯禪僧の如し、嗚呼天佑俠宿昔の苦心、終に一廢して地に委すべきか

兵を四路に分つて京軍を迎へ討つ

全琫準が四人に聽かざる所以は、決して彼に野心無きが故に非ず、彼と是とは鄉國を異にし、感情を異にし、言語習慣を異にし、而して特に初對面にして事情相通ぜざるが爲め也、彼れ豈に初對面を以て能く天佑俠の價値を知んや、彼が輕輕之に從はざるは偶偶以て彼れの大人物たるを知るに足る、天は決して天佑俠を捨てざる也、我委員は全の確答なきを憤慨し、今や決然席を蹴つて別れ去らんとす、時に忽ち一封の書あり、急使を以て八將の手より全に寄せらる、默默として枯死せるが如き全は豁然として其目を見開き、徐ろに書を取て之を讀まんとす、讀むこと一二行にして全の顔色少く動き、辭を改め、急に四人に謂つて曰く、我今實に四公に謝す、前言は稍や戲れに過ぎたり、我不肖と雖も豈に容易に濟民の志を擲たんや、唯王命あるが爲めに已むを得ず、一だび和を官兵と講じたるのみ、然るに今八將の飛報を見れば官兵自ら王命に乖きて四路より再び我を來り攻め、江華兵五百人、最新のモーゼル六連銃を提へて之に交り、其勢擧つて五千名三五熟練の將隊伍の中に在つて之を指揮すと云ふ、我れ固より交戰を好むに非

ずと雖も、敵自ら襲來すれば復た如何ともすること莫し、公等既に我と義擧を共にせんと稱す、事を共にするは卽ち願ふ所と雖も、殊功あるに非れば特種の待遇を與へざる、是れ我軍律なり、幸ひにして今敵の來り迫るを聞く、公等宜く我八將と相議し、各各一方に將として一大快戰を試み、以て偉功を建て、日人の勇武を我が陣頭に發揮す可し、乞ふ之より八將を招來し、速に共に對戰の策を決せん乎と、於是全は急使を馳せて八將を呼び、四人は更に殘留せる諸士を招き寄せ、卽時二十三個の英雄一閑房に相會し、着着として進取退嬰の軍議を決す、其決議として各方面部署の定る所は左の如し

本營	總督	全琫準
	軍師 田中侍郎	鈴木天眼 吉倉汪聖
遊擊軍	兵七十人	韓將 金氏
	大將 內田甲	副將 西脅榮助
東面軍	兵一百人	韓將 斐氏 全氏
	大將 時澤右一	副將 井上藤三郎
西面軍	兵一百人	韓將 崔氏 安氏
	大將 千葉久之助	副將 大久保肇
南面軍	兵一百人	韓將 李氏 趙氏
	大將 白水健吉	副將 日下寅吉
北面軍	兵一百人	韓將 朴氏 鄭氏
	大將 大原義剛	副將
輜重軍	兵五十人	

大將 大崎正吉

赤十字軍 兵三十人

大將 武田範之

天佑俠の作戰計畫

ヤガテ湖南一道五十六洲の地を席捲し、傲然として、開南國王の尊號を僭稱すべき、彼れ東學軍の總督全琫準、いかに京兵が俄然九地の底より湧き來つて攻撃を試むればとて、豈に容易に尾を掉り頭を垂れ、甲を解き旗を伏する者ならんや、王命は固より尊むべし、官軍も亦理に於て簞食壺漿して迎ふべし然れども天意民心は時に王命よりも重んぜざる可らず、況んや彼先づ義を捨て約に違ひ、而して敢て無道の殺戮を行はんとす、是れ正に桀紂の兵にして、仁人の勦討を免れざる者、全總督何んぞ必ずしも湯武の志なからん、果せる哉、二十二個の英雄は一閑房に招集せられて京兵撃退の軍議は爰に忽ち開かれたり、各方面の部署先づ既に定る。　是より決すべきものは、唯作戰上の方略何如に在り、而かも全の意は本と日客の手腕何如を試むるに存す、故に敢て深く之に關するを欲せざる者の如し、三軍師乃ち各大將と更に相計り、一軍大體の戰を定ること左の如し

東面軍は柯王里を本據とし、雲岩江を挾んで敵と對峙し、輕輕しく出戰すべからず、萬一機の乘ずべきあらば江を渡つて赤城津を占領し、北方の京軍を横撃するの勢を取る

べし、南面軍は牛峙の嶮に據り、敵の迫るを待つて之を撃破し、逃るを追ふて玉果を占領すべし

西面軍は白山里を本據とし、防築峴を扼し、遊撃軍が敵の背後に出づる期定の刻限を待つて合撃し、勢に乗じて潭陽を占領すべし

北面軍は雙岩里を本據として岩峙村に進み、秋月山を背にして陣し、勉めて敵を誘ふて平地より仰ぎ攻めざるべからざる不利の地に至らしめ、以て之を撃破すべし

遊撃軍は秋月山の間道を越えて防築峴と潭陽との中間に出で、不意に敵の背面を撃ち、西面軍と合して潭陽を陥るべし

軍議の概ね緒に就きたるは午前三時半、鶏鳴四方より漏れ至つて正に拂曉を破るの頃なり、部署既に決して戰略亦漸く其方針を定めらる、於是各大將は踴躍して席を起ち、各韓將は指定に應じて各自所屬の旗幟の下に集り、數百の黨軍は進撃の喇叭に連れて肅肅然、本營を繰り出さんとす、全總督と三軍師とは殿頭に立ち、微笑を含て之を見送れり、衆軍既に陣門を出で去れば、各面の軍隊忽然として玆に部署せられ、北する者南する者西する者東する者、颯颯たる曉風の中に、旗影飜飜、步調整整として行陣の狀、宛然長蛇の原頭に輕驅するが如し

東面軍の進退

大將時澤右一は副將井上藤三郎と共に、韓將斐全の二氏及び兵一百を率ゐ、先づ進んで雲岩江邊に至る、高堤に登つて遙かに前岸を望めば、南原以西數里の地、悉く京軍の掌中に落ち、丘林となく、山野となく、旗風に棚引き、郊頭原上、砂塵天に漲り、喊聲地に振ふて軍容誠に其壯を極めたり、井上乃ち時澤に謀つて曰く、敵既に正正堂堂、大路より驀地に來つて我に迫らんとす、於是一たび其鋭を挫かずんば淳昌の本營も太だ危し、我れ乞ふ兵三十を假り、上流より潛に江を渡り、横まに敵を打て進撃の力を牽制し、君をして徐かに正面より敵を破るの地を爲さしめん、君以て何如となすと、時澤曰く、君の策頗る妙なりと、乃ち之に兵三十を與ふ、井上兵を得て卽時令を發し、堤下より身を潛めて走せ、江畔柳樹陰翳の所に至り、徐徐堤に上り、前岸を窺ひ、其異狀なきを見るに及んで、忽ち流を横ぎり、又徐徐として前堤に攀ぢ堤上柳樹の間より忍びやかに敵營に近かんとす、幸なる哉、敵は其大兵を憑みて哨兵の警戒今や甚だ乏し、井上乃ち號令して急に陰樹の間より銃を竝べて敵軍を直射せしむ敵、事の不意に起りたるに愕き、陣中狼狽の狀極めて甚し、此時時澤亦井上の進撃を察し、直に軍を進め逸足して流を亂る、敵益益周章、前衛の兵悉く破れ、先を爭ふて南原路に退かんとす、

井上時澤攻撃益益力め、終に悉く江岸の敵を掃蕩して赤城津を奪ひ、要所に據つて暫く戰裝を解き、村酒を徴發して一軍を犒ふ、一軍既に初軍の勝を占めて驕ること甚し、皆曰ふ京軍

何者ぞ敢て蟷螂の斧を龍車に試みんとするやと、井上衆心の驕氣に過ぎたるを憂ひ、叱咤して之を戒めんとす、衆顧みず、蓋し井上の年少を見て之を侮るなり、時澤亦た官兵の與し易きを思ふて强ひて衆の懈心を咎めず、井上益益憂ひ、獨り陣前の高丘に上つて敵の動靜を窺はんとす、果然砂煙の東方より西方に向ひ、風に從つて飛動し、次第に我陣營に近き來らんとするあり唯人影は茫茫として砂煙に蔽はれて見えず、井上倉皇丘より飛下り、直に時澤の在る所に至り、叫んで曰く、敵兵既に咫尺の間に迫る、君何ぞ速に防守の令を發せざると、時澤は呑氣の性、之を聞きて以て戲言となし、笑つて曰く、君戲るゝを止めて我と共に且つ一盃を擧げよ、井上は眞摯、怒氣忽ち心頭より發し、聲を激し、大喝して曰はく、大丈夫何ぞ戲言あらん、君乞ふ自ら陣外に到り見よと、時澤井上の滿面朱を濺ぐを看、意中始めて不安を懷き、韓將裴氏と相提へて陣外に出でんと欲す、忽ち流丸の三三五五聲を爲して頭上を掠むるあり、時澤周章首を縮め、身を轉じて陣に入り、大に呼んで曰く、驚く勿れ、汝等靜かに且つ速かに銃を執つて整列せよと、一陣事の不意に出でたるを以て其何の故たるを知らず、狼狽銃を求めんとして相騷擾し、加ふるに醉氣未だ全く醒めず、起たんと欲して且つ倒れ、顚轉して走る、

此時敵兵既に五百步の中に在り、飛丸雨の如く漸く陣前に集り注ぐ、是に至りて陣中の狼狽愈愈其度を高め、復た陣頭に立つて應戰の急務に就かんと欲する者なし、韓將斐全の二氏此の狀を見、大に怒つて曰く、汝等何爲る者ぞ、敢て倭客の前に

斯の如き醜態を演ずるや、吾徒既に生民の爲めに一身を以て犠牲となす、進んで敵を破る能はずんば、何の面目あつてか、歸つて復た江東の父兄に見えん、名を惜む者は宜く我に從つて來るべしと、奮然馬首を東に向け、誇り立つたる敵の中堅を望んで一氣に突貫す、其健闘苦戰の狀、阿修羅王の荒れ廻るよりも猛烈なり、衆兵亦た之に激せられ、各各矢石を冒して進む、軍氣是に於て新に振ひ、井上時澤左右より之を指揮し、再び敵の前衛を擊破して一小丘下に防備的陣地を布かんと欲す、何ぞ圖らん、既に潰走せりと見えたる敵は、更に幾倍の荒手を添へて突然丘後より現はれ出で、地勢の勝を利し、直下して我に殺到し來り、呼吸も吻がせず攻め立て驅け惱まさんとは、我軍此不意打に逢ふて更に策の出づべき莫し、士氣自ら沮喪し、旗色甚だ亂る、敵益益勢に乘じて猛進し、我軍之が爲め皆江中に追ひ落され、負傷極めて多し、漸くにして危急を脫れ、退きて柯王里に據るを得たり、力闘して辛く敵の追擊を拒む

南面軍の進退

大將白水健吉、副將日下寅吉は韓將朴鄭の二氏及び兵一百人を率ひ、拂曉急に走せて牛峙の要所に至る、峙畔未だ一京兵の來り屯する莫し、衆天を仰ぎて其先制の地を與へたるを感謝し、直ちに峙下に就て地勢をトし、地雷を沿道各處に伏せ、徐に敵の到るを待つ、暫くして前程を望めば、各色の旗幟煙樹

の間に翻飜として次第に我に來り迫らんとする者の如し白水乃ち令を傳へ、妄語を戒め寂然無人の態を裝ひ突如として敵の不意を襲ふべき用意を整へしむ、既にして敵兵衆を擧げて峙下に來り屯し、將に峙に攀ぢんとして、先づ伏兵の有無を探らんとする者の如し、此時日火急に數兵を遣はし火を地雷に導かしむ、忽然として百千の大雷地底より爆發し、轟然耳を貫き、天地を劈て分斷たらしめんとす、千餘の京軍は錯愕周章を極め、叫喚煩悶して盡く朦朦たる硝煙の中に在り白水等機に乘じ兵を悉して峙上より直下し、四面より包んで之を鏖殺せんとす、京兵一望、膽喪し、心消え銃を捨て服を脫して走る、白水復た長驅、行行敵の傷を救ひ、降を容れ、終に玉果縣城に進擊し、兵を交へずして其官衙を占領し、之に據つて優然他面の戰報を待つ

西面軍の進退

大將千葉久之助、副將大久保肇、俱に是れ沈勇の士、千葉は特に用兵の術に老す、乃ち擇んで西面の强敵に當らしめたる者、於是乎二人は韓將崔安の二氏、及び兵一百人を率ゐ、曉霧を冒して白山里を飛過し、午前五時進んで防築峴の要害を占領せんとす、不幸にして潭陽の京軍、五分前既に峴上に占據し、專ら天嶮を賴んで邀擊の設備を速成せるを見る、我豫定の計畫は玆に先づ第一着を誤りたり、千葉大久保恨悔禁ぜず、憤激の餘、終に自ら刀を拔きて前頭に立ち、衆兵魚串之に從つて坂路

を攀登し、力攻して強ひて攻め破らんと欲し、大に苦闘す、敵兵下瞰、木石を投ち弾丸を直射し、頑強に抗抵すること多時、容易に其嶮を奪ふべからず、千葉憤悔措く能はず、益益苦闘して敵に當る、我兵之が爲めに傷くもの殆ど算なし、而して遊撃軍の動靜未だ測り知るべからず、千葉終に事の爲すべからざるを察し、心ならずも背進の令を傳へ、死を決して白山里に據守す

遊撃軍の進退

大將大原義剛は極めて剛毅の士、正正堂堂敵の中軍と接戰せんことを期し、獨身北面の將任たらんことを望む、乃ち韓將李趙の二氏及び兵一百を率ゐ、拂曉全州路を望んで發程す、行きて雙岩里に達すれども未だ一兵の來り迫るものなし、乃ち前衛を進めて岩峙村に入る、京兵尚ほ未だ來らざる也、於是壘を秋月山下に築き、高丘に據て敵を迎ふるの策を建て、雙岩里の兵を擧て之に合せしむ、山霧既に吹き散じて朝暾漸く暉暉たり、壘頭眥を決して前面を望めば、長橋里、雲岩店、獨山洞の連邑、雲岩河一帶の平野は、何時とも知らず京兵の充滿する所となり、山も川も皆な進撃喇叭の一曲に震動し、土民等の擔荷して侵掠を遁れんとするの狀、歷歷指點すべし、大原哄然として破笑し、壘を下りて、韓將を顧み、靜に謂つて曰く、大丈夫畢世快心の時今に在り、公等速に壘畔に配兵して我號令の發するを竢てと、韓將乃ち唯唯として退き、施設總て受命の如

くして京兵の來り迫るに備ふ、警衛は此の如くにして漸く其緒に就けり、此時恰も好し京軍徐徐行進を始め、一隊二千餘名、獨山洞より雲岩江を亂り、肅肅然として長財洞に入り來る、其勢長江堤を決して奔るが如く、草も木も皆一樣に風靡して、當面殆んど抗拒すべからざる者に似たり、

大將大原莞爾として久く壘頭に在り、乃ち手を擧げて急に兩韓將を靡き、速に其側に到らしむ、韓將到れば大原耳を屬して密かに吩咐する所あり、韓將唯唯として退き、三四十卒を率ゐ、突如として壘の一方より下り、京軍の前衛に向つて急襲を試みんとす、京軍騷擾、隊を亂して防戰し、韓將亦た左奔右走して挑戰の狀をなす、暫くして我軍退きて悉く壘中に入れば京軍大に之を追跡し、輕進して壘下に蟻集する者正に三百、大原之を見て大喝一齊、射擊の號令を發す、一百の黨軍、聲に應じて急に銃を執り、速射約五分間、其の奇、驟雨の忽ち至るが如く、硝煙朦朦、壘を蔽ふて暗澹たる者久し、硝煙霽に散ずれば壘下一面京兵の算を亂して斃るゝもの累累たり、而して餘衆は旣に全く潰散して纔かに本隊と共に在るを見る、第一戰其勝利は先づ黨軍に歸したりと雖も、衆寡勢を異にするもの殊に甚し、是に於て大原深く慮り、容易に韓將の出戰を許さず、一軍鳴を靜めて壘壁を固守し、暫く敵の動靜を窺ふの姿勢を取る

進撃軍の進退

內田は天佑俠中の急先鋒、危を冒し難を凌ぎ、四方に轉載して虛を衝き、不意を襲ふには最も適任たり、是に於て乎、遊撃軍の大將として潭陽攻撃の任を帶び、更に敵の背後に出で、千葉と合撃して西方京軍を鏖殺せんとす、副將西脅榮助は機敏健脚、韓語に巧みなる者、而して內田の率ゆる兵は、韓將金氏外七十人、秋月山の間道より防策峴の右側を過ぎんとし、拂曉淳昌の本營を發す、不幸山中に至つて道に迷ひ行けども行けども、曲江の上流に出でず、益益焦躁すれば深く山中に迷ひ入るのみ、容易に目的地に達する能はず、內田の苦悶計るべからざる者あり、一同氣疲れ、神餒ゑ、暫く樹下に少憩す、忽ち聞く一幽潭の對岸、何方の遁世僧ぞ、敢て妄りに木魚を連打し、觀世音菩薩を連唱し、頻りに空寂の仙境を騒がし來るあり、內田頭を廻らして熟視之れを久ふし、拍手一番、急に西脅を拉し去つて看經の邊に尋ね至る、一茅庵あり、竹林の間に隱る、扉を推開して入れば庵主亦椽端に出でゝ懇に客を迎へんとす、二人不圖其人を見れば、何ぞ圖らん、是れ花顔柳容多く見る可からざる尼僧ならんとは、抑も斯の如き佳人の何の爲めに世を厭ひ、髮を削つて尼僧とはなれる、是れ頗る疑ふべし、流石の二士も茫然として佇立これを久ふす、

然れども彼の尼僧なる者亦頗る禮を解す、其の突然異裝の外客を見るや、敢て驚かず、却て直に蓆を取つて椽上に延べ、此處に休憩せんことを乞ふものゝ如し、二人乃ち安坐少刻、改めて來意を致し、其衆の爲めに嚮導たらんことを切願

す、尼僧快諾、更に辭を繼で曰く、妾は本と萊城外一士農の婦、夫は前に民生の爲めに擁せられて、官に强請する所あり、後其罪を問はれて直ちに死に處せらる、妾が當時悲哀の情は、口語るに詞なし、乃ち薙髮して佛弟子となり、多年此山中に獨棲し、以て亡夫の後生を弔ふ、今貴賓の此の處に光臨する、其徽章に依つて妾初めより義軍の人たるを知り、忽ち亡夫の義を追想し欣慕の念禁ずる能はず、敢て尼僧の身を以て貴賓の尊顔を冒す、多罪多謝、若し夫れ貴賓の爲めに敎導と爲るが如きは卽ち是れ亡夫の志を成すもの、妾の本懷何事か之に過ぎん、謹んで貴命を奉ずべしと、卽ち身を起して室に入り、輕裝して又出で、柳腰挫けんと欲する身を以て敢て蓮步を運んで兩士と相伴ひ、進んで軍士休憩の所に到り、更に之を引導して徐徐細溪に沿うて下り、終に一大道路に達す、於是て尼僧辭別して曰く、潭陽城は是より左する僅かに一里許、願くは此地に於て相別れん、貴賓幸に民生の爲に奮鬪其義を全ふせよと、言終り身を轉じて丘上に攀ぢ、飄飄として雲煙の間に沒し去る、內田衆を激勵して急驅し、直に潭陽城下に達す、乃ち正門より驀入して其官營を襲ふ、時に營兵多く出て、防築峴の戰に赴き、城內空虛殘留する者百に滿たず、內田突進營に入つて大喝すれば、京兵萎縮、銃を捨てゝ多く降を乞ふ、蓋し變不測に起つて敵の多寡を詳にせざれば也、內田悉く其降兵を收め、之を先驅として急遽防築峴に向ひ、京軍合擊の前約を果さんと欲す

第一戰の全局觀

內田の遊擊隊と、白水の南面軍とは、漸く勝利を博したるが如きも、千葉の西面軍は敵の爲めに防築の嶮要を先制せられて、進攻其機を失ひ、時澤の東面軍は、輕輕兵を進めて、戰頻りに利あらず、大原の北面軍は優勢の敵の包圍する所となりて、孤壘を堅守するに過ぎず、黨軍大體の戰況は未だ全敗には至らざるも、決して全勝とは稱すべからざる也、況んや本營に於ては內田が道に迷ふてより遊擊軍の動靜を詳にせず、或は其鄧艾的陣法を以て、必ず快捷を博すべきを信ずるも時に、或は全軍覆沒の慘に逢へるに非るやを疑ふ者あり、內田が戰鬪の何如は實に全軍の死命に關するもの少なからず、敗か勝か、其消息固より究めざるべからざるも各面刻下の危急は力を他に分つの餘裕なし、乃ち急に白水の軍を玉果より招還し。之をして東面軍に赴援せしめ、而て後別に遊擊軍の動靜を探らしむるに決す

第二日早朝の東面軍

大將時澤意氣甚だ揚らず、井上亦た激鬪に勞し、韓將斐氏負傷して東面の軍終に支へ難く、漸く柯王里を退却せんとす、形勢窮塞復た奈何ともす可らざるに似たり危急の報直に本營に到る、全琫準乃ち三軍師と熟議し、終に吉倉をして退兵二十人を率ゐて、救援に赴かしむ、吉倉卽刻兵を提げて電馳柯王里に到り、先づ其地理を察し竊かに樹陰に據り、不意に吶喊して京軍

の横面に衝突せんと欲す、京軍大に驚き、以爲く敵の援軍大に至ると、乃ち急に陣を去つて少しく其兵を退く、是に於て我軍復た振ひ、刻前の敗形は俄に變じ來つて却て攻勢を取るに至る、

時に南面軍の白水玉果より雲岩江に沿うて遡り、急に赤城津の背後に現はれ、頻に敵の走路を絶たんと欲す、敵頗る驚き、屢屢後方を顧みて士心一ならず、吉倉兵機に乘じて益益樹陰より狙撃し、井上時澤の軍正面より猛進して日前の敗辱を雪がんとす、白水亦次第に敵の後軍に迫り、三面合撃勢甚だ壯なり、京軍終に拒戰するに耐えず、陣形大に亂れ、次第に潰敗して北西に向つて走る

第二日早朝の西面軍

嶮要敵の據る所となりて、千葉の軍、容易に進む能はず、狹撃を約せる遊撃軍は消息殆んど絶えて成敗測るべからざるに似たり、本營の軍議乃ち田中をして親兵二十餘を率ゐ、走せて千葉に協力せしむ、千葉大久保迎へて大に悦び、協議の極復た兵を防策峴麓に進め、殊死して大に戰ふ、恰も好し、內田の遊撃軍、此時降兵を驅つて背面より鼓譟して殺到す、京軍是に至つて糧路全く絶え、陣中頗る騷ぎ、頻に走路を求めんと欲する者の如し、千葉田中、機を察して益益進撃に努め、內田亦頗る健鬪して突貫を行ふ者幾回、京兵竟に自ら支へず、參參伍伍相伴ひ相助け、秋月山脈に從つて逸奔す

第二日早朝の北面軍

北面軍は京軍の中軍と相對戰せる者、敵の我に優る正に二三十倍、其容易に勝つべからざるは理の當然たり、報の本營に達するや、鈴木亦親兵二十五名を提げて赴き救ふ、於是軍氣大に振ひ、將に敵を擊破せんとするもの數次、此時不幸にして一隊の精兵俄かに東南面より顯はれ來り、敵の爲めに大に力を添ふ、旣にして東面京軍の敗兵亦次第に之に加はるあり、相合して大原鈴木の軍を包擊す、我軍二隊に岐れ、防戰甚だ力むと雖も衆寡固より敵すべからず、壘の一角終に破れ、漸次追れて秋月山の高所に移り、地勢の利に據つて僅かに陷落の難を脫るゝものゝ如し、然るに何ぞ圖らん、此地亦た西面京軍の敗卒、突如として山巓より俯瞰し、低きに就きて我を攻むるあらんとは、我軍於是全く重圍に陷り、復た一人の生還するものなきに至らんとするが如し、是より先き武田大和尙は、自ら淳昌の本營に留り、赤十字隊を指揮して、諸路死傷者の治療を爲せり、後ち北方京兵の優勢なるを聞くや、進んで雙岩里に至り、萬一の變に備へんとす、而して今や危急寸刻に迫るの報を得たり、大和尙奮然蹶起、直に附近の農具を徵發し、之を三十名の兵士に分與し、一種の鋤戟隊を編成して秋月山下に急驅す、蓋し赤十字隊本と兵器なし、卽ち止むを得ず農具を振つて、其難に赴かんと欲する者、自身は乃ち一尺四五寸の戒刀を揮ひ、而して敏活猛劇に部下を指揮する處、宛然たる古上杉霜臺の風采あり、漸く進んで戰地に近づけば夕陽將に西天に沒せんとして暮靄蒼然、遠きより來る、敵に我兵の多寡を知しめ

ざる是より好時機なるは無し、和尚號令一下、吶喊して敵陣に殺奔し、左衝右突、忽ち一條の血路を開き、突出一回、又更に突入す、山上の我軍之に依つて大に氣力を恢復し、奮闘力戰して後ち始めて蘇生の地を成せり、唯夫れ敵勢尚ほ未だ十重二十重の包圍を解かず、之が爲め苦戰苦闘幾回に及ぶと雖も、容易に圍を衝て山を下り、山下の我軍に合するを得ざるものあり、

山上の軍漸くにして氣力將に枯渇するに垂んとす、幸なる哉、此危機一髪の際、吉倉、時澤、井上の一軍、逸足空を飛んで東面より來り救ひ、爰に武田の隊と協同力を振ひ、終に大原鈴木の一軍を山上より擁護し來り漸く雙岩里に向つて退き去る、其途中內田の遊撃隊、千葉田中の西面軍、大崎の輜重隊等の三軍悉く來り會し、相提へて雙岩里の營中に歸着し、半夜燈前盃を擧げて戰勞を慰め更に大に今後の軍議を凝す所あらんとす

第三戰の夜襲京軍を粉齏す

軍議は爰に再び開かれたり、然れども此夜の會議は前夜と異にして、復た一個の韓人を交へず、坐に連るものは唯僅かに天佑俠の同志十四名のみ、議は遂に夜襲に決し卽夜之を實行せんとす、夜襲の手段は所謂る切入りにして、十四名手に爆裂彈を提へ、二三個宛左右前後に相別れ、各所より敵陣に侵入して以て、其荒膽を取挫ぎ、及ぶべくんば簡單なる方法を以て全軍を潰散せしめ、一擧して日本人の手並を敵味方に知らしむるに在り、評定旣に一決す、一同乃ち旨を全總督に報じ、卽時準

備の爆彈を取つて起ち、潛かに敵の哨兵線を通過し、徐徐として各方より次第に敵の本營に近づき進む、發するに臨み一同約を立てゝ曰く、先登第一、陣に入る者先づ彈を投じ、其轟響を以て各人に對する合圖とせん、各人之を聞かば直に一齊相投じ、以て聲援を計り、急驅して突貫を試むべしと、大崎、千葉、田中先登第一たり、乃ち皆約の如く彈を投じ、諸人相次で之に倣ふ、總て期せる所の如し、爆聲喊聲、是に於て轟轟反響し、ともに天地を震撼す、此時京軍概ね晝戰の勞に耐えず、陣中に枕藉して酣睡を貪り、爆聲の耳を劈くに及び暗中敵の多寡を察するを得ず、狼狽して相蹂り、戰はんと欲すれども策の出づる所なし、十四人突擊縱橫、無人の境を行くが如く、終に敵の全陣を破壞し盡す、就中最も夥しく敵人を屠りたるは內田急先鋒にして、內田と相竝び劇く敵を殺戮して諸人を驚倒せしめたるは、年少の井上なり、敢て專ら戰鬪を好むといふに非ず、慰みがてら出合頭に敵を切りさいなみたるは鈴木、吉倉にして、最も周到の戰鬪を爲したる者は、大原、大崎、千葉、武田、白水、大久保の六人なり、吶喊猛烈、一騎當千の威勢を示したる者は田中、日下を推すべく、左手ピストルを用ゐ、右手刀を携へたる割に、多數の敵を斃し、得ざりし者は時澤右一なり、斯の如くして卑怯なる敵軍は五十餘の死屍を陣中に遺棄し躓けつ轢びつ這這の體にて血路を求め、九死に一生を得たらんが■く、命からから金州路を指して潰走せり、此時將に天明に近からんとす、顧みて味方を驗すれば、一人の死者負傷者あるなし、一同雀躍の情推して知るべし、凱歌幾

番、聲天に震へり、既にして戰勞漸く發し、睡魔亦た襲ひ到つて堪ゆる能はず、乃ち陣跡に臥休して徐ろに後軍の繼ぎ至るを待つ、天漸く明くれば、全總督報を得て自ら馬を飛ばし來り、爰に始めて夜襲の顚末を詳にし、感謝稱嘆之を久ふするの後、十四人の地位を進めて各黨軍の大將と爲す、然れども十四人固辭して之を受けず、唯客將の地位を以て軍事百般の畫策に參謀たらんを諾するのみ

全は此好機に乘じて直に官兵を追跡し卽朝本營を雲岩店に移し、先鋒を長橋里に進めて、旦夕金州を衝くの勢を示せり、而して更に他面に於て力めて四方の窮民を撫恤し、其酷吏を追ひ、其暴稅を除き、擧措堂堂宛として王者の風あり、湖南の健兒是に至つて彼が幕下に歸屬するもの五萬人、聲威遠く湖西嶺南を震撼す、大丈夫馬上の事豈に亦た快ならずとせん耶

喜ぶべき飛使の忽ち萬馬關より本營に馳せ到るあり、其使命に曰く、順天の少年李福龍、鄕兵四千を提げて、順路金州に攻め上らんとす、願くは是より、全總督の節度を承け以て共に與に天下の爲めに妖霧を排かんと

不快なる一報は別に先鋒の營より齎らされたり、曰く今日勅使と稱する者、全州より來つて媾和の意を通ず、如何にか之を接遇して可なるべき、敢て總督の賢慮に訴へんと

天下億兆の爲めに妖霧を排して立たんとするか、抑も亦た王命を拜して媾和の約を立てんとする耶、全總督の進退去就果して如何

萬馬關頭の少年英雄

萬馬關頭より急使を全琫準の本營に送り、共に與に北上の義軍を起さんと寄語し來れるものを誰とかなす、此は是れ少年英雄の偉名を轟かしたる全羅順天郡の李福龍也、福龍此時年僅に十四、而も天資英邁にして俠氣に富み、膽略ありて鄉黨の重望を荷ふ、全琫準の軍京兵の攻圍する所となるを聞くや、福龍慨然として衆に謂つて曰ばく、全總督、今日不幸にして萬一の變あらん乎天下百姓蘇活の願望是れより終に絶えん、我故に今より別路を進んで、直に全州の城營を窺ひ、以て官兵の背後を衝くの勢を示し、自然に總督を危急より脫せしめんと欲す、諸兄弟若し平生の約に背かずんば、乞ふ之より相共に兵を擧げて萬馬關に據らんは如何と、於是鄉人の彼が義に伴ふ者、無慮四千人、聲勢大に震ふて、道東俄かに尨然たる一敵國を生ず、官兵今や一面に全の精銳を引受け、他面に復た李の荒手を迎ふ、攻守進退の計、頗る困難の地に陷らざるべからざる也、窮鼠の狡智、乃ち遣勅使の一策を用ゐ、以て攻戰に依らずして、自然に黨人を破滅せしめんと計る、其心術や陰險を極むと云ふべし

謹んで勅旨を奉ず

全琫準は義人なり、故に之を欺くに義を以てすれば、其死命を制することも亦容易に能くすべし、果然敵は其弱點を衝いて來れり、勅旨の桎梏は忽ちにして彼れの身邊に投げ掛けら

れたり、野心大なれ共、忠義も亦大なる彼は、王命に接する上に於ては、謹んで旨を奉ずる一語の外、復た答ふべき所以を知らざるを當然とせずんばあらず

媾和の條件

姑息的勅書は媾和の意を齎らし來れり、媾和と云ふと雖も、其條件は寧ろ京兵京官の恥辱と稱するに足るべき者あり、當時朝鮮政府が國家統治の實力に缺乏せることは次の媾和條件に依りても概ね之を知るべし

第一　東學人は尋常教化なき民と異にして、頗る國家の爲めに用を爲すべき者なり、故に一般民衆亦能く其意を體し、漫に之と爭端を開き、以て東學に對する官の禮遇を傷くべからず、命に違ふ者は重罰あり

第二　東學人中、從來家を捨て産を擲ち、四方に出遊したる者極めて夥しかるべし、思ふに其家政亦之が爲めに紊亂して目下困難の狀に在る者、從つて少なからざらん、是を以て一般民衆中、若し黨人に對して債權を有する者あらば、事情の如何を問ふを許さず、爾後宜く悉皆其債權を棄つべし、又田地等を債權の典當に預り居る者は、總て其田地を本人に返還すべし

第三　東學人の四方に往來するを妨ぐべからず、舊怨ある

者と雖も、決して他の行動を阻害するを許さゞる也

衆心倦怠復た戦を說かず

勅命に對する全總督の意思既に彼の如し、去らぬだに、數月の苦戰に倦心を生じたる黨人輩今や利益多き媾和條件を得て、如何んぞ爰に休戰令を發せざらん、十四個の天佑俠徒が苦諫極諍も、事是に至つては復た頽勢を挽回するに由なき也、眼を轉じて軍國の形勢を見れば、全李兩將既に兩道より全州に肉薄して、旌幟山河を蓋ひ、湖南一道。兵火を見ずして一帶に我に靡くが如く、湖西五十州、亦次第に黨軍の號令に動かされんとするに方り、京軍は意氣頓に挫折して復た南進の勇なく、觀察使營の士心、戰戰恟恟として、頃來頻りに孤城重圍に陷るの歎を漏らすあり、君側掃蕩生民救護の志を行ふ、豈に之より好機あらんや、然るに總督空く宋襄の仁を懷き、陣中專ら一時の偸安を思ふ、實に千載の遺憾と謂ふ可し、天佑俠たる者、其初志に乖かざらんと欲せば、此際何等か、旋乾轉坤的の妙策を案出し、以て時局の展開に力むる所なかるべからず

一大英斷勅使を斬らんとす

策あり、策あり、勅使を斬るの猛斷是れなり、是れ啻に黨官の兩軍に對して、靑天の霹靂たるのみならず、又當に數萬の黨軍を驅つて、背水の地位に立たしむべきの奇策たり、既に一たび勅使を屠戮し去らん乎、是れ京軍に對して極端の絶意を

示すものなり、既に絶意を示すに及べば、黨人最後の決心亦自ら定まらざるを得ざるべし、局面於是急轉し、形勢於是一變す、黨人の擇ぶ所は就死乎否則得自由乎の二途を餘すに過ぎざるのみ、天下の事、爾後復た些の曖昧、些の遲疑を許さず、神算且つ斯の如し、天祐俠豈に小不仁を行ふを恐れて他の流星光底逸長蛇を徒視するに忍びんや、十四個英雄の謀議爰に一決する所あり、吉倉、武田、日下は先づ其動靜を探らんが爲めに薄暮相伴ふて密かに勅使營を敲かんとす

三士勅使營を訪ふ

勅使は此時既に先鋒營より護送されて、黨の本營所在の地たる雲岩洞に入り、市中の馬房朴氏の家に其宿舍を定む、黨人は倭客の和議を拒まんことを恐れて、特に之を祕密に附せる也、然れども吾探偵掛は自ら諜して幸に此情を知り、直に三士を導きて其宿舍に到る、勅使は日本豪傑の自ら駕を枉げて訪ひ來りたるを聞き、倉皇として出でゝ之を迎へ、更に新房を開き酒肴を調へて饗應頗る力め、一意其歡心を得んと欲するものゝ如く、滿顔頻りに喜色を浮ぶ、其人姓は宋氏、官は軍司馬、天資快活にして能く談じ、能く笑ひ、且つ話頭の我帝國に及ぶ毎に、國風民俗を稱揚して措かず、風貌大に他の韓人と趣を異にして、優に外交家的資格と、材幹機智とを具へたるを見る、此サラミ決して食へ易きサラミにあらず、去れど三士は其官職の甚だ低きを聞きて直に他が國家の大事を委任せらるべき勅使

に非るを察し、且つ一般黨人の輕輕事を處して、京軍の爲めに欺かるゝあらんことを憂ひ、談未だ闌なるに至らずして、遽かに舌鋒を收め、辭謝一番、乘轎を急がして、其營に還り去る

同志の評議紛紛たり

三士は他の僞勅使ならんことを信じて其報を同志の營に齎らせり、所報の如く果して眞勅使ならずとせば、之を斬つて局面展開の犧牲に供せんこと、先づ覺、束なきに似たり、之を聞きたる同志の激昂は固より其所なり、群議の遽かに沸騰する、亦た已むべからざる也、或は曰ふ巨細に其情を具して總督營に送り、改めて全琫準の反省を求めんと、或は之を反駁して曰ふ、機は既に逸したり、先入の信念は容易に動かすべからず、若かじ自然の成行に一任して暫く天佑の至るを竢たんにはと、然れ共多數の希望する所は、更に寬猛度を得たる施措に依つて、周密に素志の遂行に力めんと云ふに歸着し、次朝又吉倉、武田、鈴木の三人を勅使營に遣り、其應待の模樣に從つて、臨機の處分を行はしむるに決す

僞勅使の面皮を剝ぐ

三士は拂曉を冒して軍司馬の勅使を其宿房に訪へり、時恰も朝餐、軍司馬は食を廢して三士を出迎へたり、三士嚴然として先づ問ふ、人言に據るに公は勅命を奉じて東學人を慰撫する者なりと、果して然るか。軍司馬三士の貌色を熟視し、而る後懼懼

然答へて曰ふ、貴意の如し、唯乞ふ斯の如き俗件の談は暫く之を休め、更に風流の話　題に移らん事をと、其狀稍稍事態を隱蔽して、問糾を避けんと欲する者に似たり、三士於是益益追窮の矢を放つて曰く、我等外人と雖も、稍や貴邦の朝禮に通ず、古例未だ曾て鄙官の人を勅使に充てたるを聞かず何如、軍司馬沈默少時窘窮の情眉宇の間に溢る、漸くにして答へて曰く、然り我が勅使たることに就て公等の怪むは固より其所、然りと雖も、爰に勅書の提へ來れるあり、勅使と稱するも豈に亦可ならずや、三士相顧みて微笑し、更に言を進て曰く、公既に勅使の大官たり我等乞ふ公に就て竊かに其勅書なる者を伺ひ見るを得ん、軍司馬百方勅書の內示すべからざるを辨解すれ共、三士許さず、終に其書を行李中より抽き出さしめ、取つて之を讀めば何ぞ圖らん是れ勅旨を奉じて觀察使が黨人に宛て發布せる諭達書にして、其內實は恥辱ある彼の媾和條件の申込狀ならんとは、事は是に於て總て意想外に出たり、然れ共媾和の眞相は之に依つて益益明亮なるを得たり、三士の喜悅今や禁ずべからず乃ち軍司馬に戲れて曰く、勅使公願くば少らく此勅書を我徒に貸し與へずや、彼れ慙愧の色あり、倉皇其書を行李の中に收め去り、且諛辭を呈して曰く東學人、旣に誠敬信の三字を以て敎道の基本となす、其與衆悉く聖賢の徒たるは勿論たり、而して今兵を草間に擧ぐるや、連邑饗應火の原を燎くが如し、是皆政府の罪なり、公等乃ち其徒と共に遊を爲す、誠に高義の士と言はざるべからず、吾れ乞ふ之より觀察使營に還つて、公等及び黨軍の爲めに陳情し、大に政府の反省を求め

て、從來の治法を改めしめんとす、公等以て如何と爲すと、三士聞き來つて呵呵大笑し、特更に又辭を搆へて曰く、我等日後必ず謁を觀察使君に取り、以て公が今日の約を果せるや否を知らんと欲す、公宜く今に於て我が爲めに全州入城の案內狀を書し與ふべしと、軍司馬命を承け、直に筆紙を取つて忽忽書下す、三士於是全く其使命を果せり、乃ち別を告げ、曉風を追ふて共に其營に遷る

全琫準頻りに天祐俠を慰諭す

再回の往訪に依つて、勅使の斬る、に價する勅使に非ざることを詳にせるが爲めに、俠徒中の勇者に頗る失望する所ありたるものゝ如し、然れ共夫れと同時に、適當の媾和使ならざることを確め得て、一同は又も苦諫を全總督に試んと欲して起てり、此時恰も好し、全は雲岩洞の本營に在りて、媾和後の處置法に付、頗る痛心苦慮せる體なり、一同は乃ち案內を竢たずして、直に閑房に進み入れり、全は諸士の面色各各其決心を表はせるを見、先づ口を開て曰く、諸公復た媾和に關して意を勞するを休めよ、我豈に一時の小康を欲するが爲めに、故意に新勝の勢を挫き、濟衆の機を過つことをせんや、獨り憂ふる所は、淸將數名、昨突然牙山より全州に入り、頻りに錢米を散じて、城民の歡心を得、且つ別に淸皇李中堂の諭告を發して、極力我黨人を慰撫せんとす、而して其甘言巧辭頗る人情に適中するものあり、近者烏合の徒、是を以て次第に四方に遁竄

し、軍氣頓に喪沮、我衆復た前日の鬪心なし、我故に強ゐて暫く他の媾和申込に從ひ、其條件の我に利あるを奇貨とし、機を逸せずして速かに兩軍の和盟を立て、南去して暫らく金創を癒し、鋭氣を養ふに力め、以て捲土重來の地を成し建業を他日に期せば、進退毫も初志に乖く所なく、而して又た萬全の道に適ふあらん、且つや我が前きに解散を命ぜし所の黨の親兵、今や概ね旣に各自の鄕園に歸休して、八道に點在せり、乃ち急に之を糾合して遁亡の補足に充てんと欲するも亦、咸鏡に到り西平安に赴く、其間使命の往還正に三十日を要すべし、之に加ふるに再度の擧兵は黨令上、各接長の會合を竢ち、其謀議の決定に依つて而る後始めて施設に從ふの煩例あり、

是を以て公等は縱し客遊の情、大事の速成を冀ふに堪ざらんも、我に在つては又時艱と黨情との爲めに日子の猶豫を與へられんことを切願せざるべからず、乃ち京路の進軍を約するに一月の後を以てし、而して八道の接長尙ほ竝び起つこと無くれば、我乞ふ單身部下の精鋭八千を率ゐ、誓つて諸公の軍に投じて生死存亡、必ず諸公と之を共にするあらん、仍て想ふ、我が先師崔濟愚先生仙化の日、諸弟子を聚め、自ら之に告げて曰く、我れ當に甲午の歲七月初一日を以て、雲峰縣頭流山、深谷の間より出で來らん、我道此時を以て必ず天下に成るべし、汝等努努我言を疑ふ勿れと、是に由て諸弟子亦翹首して此日を待つ者久し、曩きに黨兵相別るゝの時、亦此を以て再會の期となせり、七月は秋冷將に郊野に到らんとするの時、諸公亦我懇願に聽きて同く期を此に定めば、豈に今日當るべから

ざる猛暑の行陣に勝らずや、敢て公等の賢慮を問ふ

我先づ苦諫を試みんと欲して、彼先づ我が心中を看破し、我が苦諫に先立つて、彼より周到愼重なる其經略と豫言とを聞きたり、然れども媾和は尚ほ時として黨兵を全く解散に至らしむるの虞無きを保せず、元來日本のガルバルヂーは短氣一徹にして、巧遲の爲めに大事を誤らん事を憂ふる者甚し、或は又京軍が故意に媾和の僞計を用ゐ。黨兵を散じて黨首を虜にせんことを憂慮す、特に田中は他を以つて躊躇逡巡する者となし、之に對して天佑俠來援の千艱萬難と、日前死戰の辛酸との今に至て徒勞に屬する所以を痛言し、怒髮冠を衝き、口角泡を飛ばして論爭せり、然れども多數の者は大勢の此極に至りたる上は、些細の期日に關して他と激爭するの太だ前途の事に不利なるべきを察し、深く口を噤して復た言ふものあらず、一同終に日沒後の再會議を約し、相伴ふて全琫準の閑房を辭し去れり

半夜英雄大に再擧を議す

一行中の長者は入黨の當初より以爲らく、同志者如何に肝膽を吐いて彼れ黨人と相議するあるも。本來彼我國土を異にし、感情を異にし、言語習慣を異にする上は、初對面よりして難なく彼を屈服せしめ、直に之に對して本意を遂行せんことを强ゆるは、甚だ難事に屬す、故に當初の會合は、先づ日本國民の義氣、頗る賴むべきものたるを知らしむるに止め、漸次以て

彼徒の間に日本氣風を吹き込ましめ、一方には日を追ふて淸人と疎隔ならしむるの工夫を凝らし、而る後尙ほ大に爲すあるの場合を發見せんには、一同永く黨人の間に留るか、若くは俠徒中の一二人を黨人中に留め、以て、百般黨略の參謀に當らしむることゝせんと、其相談屢屢同志間に行はれたり、然れども一同入京の思念頗る切なりしが爲めに、終に其議の全部は勿論一部をも決行するに至らざりしは憾むべきの極也

日沒して後、使節は全の本營より來れり、曰く我自から往かん乎、公等其駕を枉ぐる乎と、一同は便宜上全の自ら來らんことを求めたりやがて全琫準は來れり、而して彼が嚴肅なる威容は刻前よりも更に嚴肅なるを覺ふ、晝間會議の結果に依り、天佑俠一同は、怒氣憤憤として蔽ふ可らざる如くなるも、彼は秋毫意に介するの色なく、孤身飄然、房內に入り來り、泰然扇を手にして座に着けり、少刻にして彼は又神經的鐵骨漢の舊態に復し、嚴肅に其口を噤せり、房外の警衛は於是晝間の如く四面に配置せらる、對話も亦ヤガテ開始せられたり、而して虛懷なる彼は口頭徐に微吟を漏しつゝ優然として之に應ぜり

此夜の會議は餘りに長からず、一同は全琫準の提議に從ふて、止む無く七月初一日の期日を竣つことゝなれり、全琫準は又一同の問に答へて曰ふ、公等之より我徒と相別れ直に京を指して上り、徐ろに先づ施設する所あらんと云ふ、甚だ可なり、其施設將に成るの日、我等亦黨軍を率ひて星夜北に馳せ、期に後れずして必ず漢江の渡頭に相會すべし、而して其

相會するの日、相應ずるの章として、共に日章旗を用ゆることを約せん、蓋し日章旗は獨り貴國の國旗として尊むべきのみならず、又相應ずるの章として識別最も明かなれば也、然る時、日章旗を提ふるの兵は悉く是れ我部下の義兵にして、義公等と生死を共にすべきものなり、冀くば公等之を他の兇徒と同く誤認して不仁の殺戮を敢てする勿れと、嗚呼彼も亦日章旗下に獨立の義を共にせんと欲する者なりき、何處の鈍外交家ぞ敢て日淸戰爭開始後に至り、此半島空前絶後の英雄をして、俄かに其向背を過たしめ、たるや

願くは義擧を世界萬衆に知らしめん

全總督は更に一同の辭色決然、俠氣稜稜、義に就き死を輕んじ、奸を惡み邪を排するの至誠頗る信賴するに足るものあるを知るや、慨然として謂つて曰く、諸公の決心我徒を動かす者、旣に大、我徒亦是より悟覺して自ら決する所あるを得たり、心旣に一たび自決の境に達す、是より後ち十百の袁世凱顯はれ、千萬の淸兵出で來つで、閔賊の左右を援護するも、復た何をか畏懼し、何をか逡巡せん、唯願ふ所は諸公京に入るの後、幸に我徒の爲めに各國公使に訴へて謂へ、東學の志は本來專ら王國の弊政を釐革するにあり、敢て妄に內外民人を殘害して、土匪的兇暴の擧に出づるを喜ぶ者に非ず、冀くは閣下等、此義を以て明明地天下萬衆に傳諭し、商賈客遊の人をして復た危懼の念を抱かしむる勿れと、我が最後に諸公に切囑す

る所は是のみ、別後祈るらくは、天慶地福の永く諸公の身に伴はんことを

深更陣陣咒文の聲高し

既にして總督は去り、夜は深けたり、一同も亦均く寢床に就く、此時忽然人音一聲高らかに房外に聞ゆると共に、萬聲次第に之に和して、沈沈たる夜色を騒がし來るあり、其語調或は高く、或は低く、或は穩かに、或は激し、泣くが如く、訴ふるが如く、叫ぶが如く、吼ゆるが如く、終には天に響き、地に震ふて、凄絶愴絶の情涯り無し、是れ卽ち數里間の陣所陣所に宿衛せる黨人原が、咒文を唱へて各自の冥福を祈るなりけり

告別の贈答

天佑俠が突然全總督に告別するの必要は、速かに京城に去つて天下の形勢を詳にし、豫め時急に應ずるの策を建てゝ、變俄かに到るの日、周章の態なからんことを冀ひしに出づ、湖南五十六州は關中根據の地、固より容易に捨つべきに非ず、然れ共彼等は夫の三十日間僻鄉空待の日子を以て特に惜むべしと思へる也、卽ち萬一一同休臥の期間に方つて時局の上に忽然變狀を呈するあらば、一同數十日間の臥薪嘗膽は一朝にして徒勞に歸し去らん、是れ俠徒の最も憂悶に耐えざりし所也、故に天佑俠が京城入りに輕急の擧措を取るに至りたるは、强ち咎むべ

き所以を發見せず次朝俠徒は全總督に向ひ、三條の問題を提出して其決答を求めたり

第一條 大日本帝國に於ては、士大夫の相盟約するに方り、相當の儀式あり、足下も亦朝鮮の式を用ゐ濺血以て其議を表し、日後復た相背かざるの證と爲すべし

第二條 我同志今より將に京に上らんとす、足下宜く沿道所在東學統領輩の姓字鄉洞を報じ、我徒往訪の便を與ふべし

第三條 我徒京に上つて施設する所あらんとす、足下宜く其腹心一二人を派遣して我と同行せしめ、以て我徒今後の動作を監察せしむべし

之に對する總督の答書に曰く

第一條 肝膽相許し、同心相照らす、我徒は既に天を指して生死の誓を爲す者なり之より以上復た何の儀式をか要せん、公等若し盟に違ふの所爲あらば、天自ら之を罪すべく、我れ若し約を破るに至らば、死は固より其分なり、歸する所斯くの如きのみ

第二條 沿道固より我黨の頭領なきに非ず、然れ共今や多く捕を避け四方に潛伏し、安んじて其地に留る者

なし、又其偶偶留るあるは、總て皆無能頑愚の輩、豈に能く予の諸公に對するが如く、歡んで之を迎ふる者あらんや是を以て此輩の姓字居洞は、特に之を通告するの要なきを覺ふ

第三條 我徒は日來公等義心の存する所を詳悉して、復た些の疑念を挿まず淳 昌三回の大戰、豈に赤誠なき者の能く爲し得る所ならんや、入京後百般の施設に至つては、一切公等の爲す所に全任して毫も遺憾無かるべきを信ず

文書の往復を了りて後、俠徒は更に全總督に對する禮物として、時辰器瑪瑙石等を贈れり、全は之が返禮として路錢五百兩、金砂丹數十個、朝鮮色紙數十卷、馬三頭、馬夫三人及び麻布數卷と麻服數着とを贈り、添ふるに東學黨の祕密印符十四個(一人一個宛)を以てし、別に二通の書簡を添へたり、此書簡は始めて東學黨人と爲る時の法式(所謂る入道式)及び東學一般の儀禮等を詳記したる者なりしも、今や逸散して玆に掲ぐべからざるに至りたるを憾とす

全總督黨軍を檢閲して玉果に去る

此日全琫準も亦急に南方玉果縣に向つて出立せんことを思ひ立ち、特に復た來つて別を俠徒に告げたり、俠徒乃ち往いて其行を送る、此時全總督は嚴然殿上に起立して、部下兵士の檢閲

を行へり、唯見る五尺五寸許の體軀凝立せるまゝに顧眄せず微動せず、獨り冠下眉畔兩粒の眼球、爛爛電の如く、直射して衆に注げるあるのみ、其凜乎たる威容と肅然たる態度とは、到底今時朝鮮民族中に有り得べき模型にあらず、俠徒は於是、覺えず、黨人の爲めに其好將軍を得たるを賀したりき、八大將も亦出でゝ全總督の左右に侍せり、門を入りて壇下に集りたる兵士はヤガテ其廣庭に充滿するに至りぬ、兵數總て四五百人、悉是れ總督恩顧の親軍に係る、其百戰の餘り金瘡身に普く、媾和の後士氣頗る沮喪する者ありと雖も、尚ほ規律整然、勇氣凜凜として頗る用ゆるに足るべきを示せり、況んや軍令極めて清明、且つ之を卒ゐるに銃丸其身を貫かずと稱せられたる八大勇將を以てし、而して其總督は名にし負ふ全琫準なり、是を以て兵火一たび交はるに及ばゝ官兵を驅逐し、三南の野を清むるに於て何かあらん、想ひ起す、古來大陸地方に在つて澤畔王業を志し、壟頭義軍を聚め、終に天下の大功を建てたる者の、如き、亦大抵這般東學黨の類ならんことを

軍旗の半青半白のもの數旒、前後左右風に從つて翻飜たり、旗面に淸時又は明道の二字を書す、唯武器は頗る粗惡、銃砲の如き、悉く古風の火繩銃ならざる莫し、槍は鐵槍、竹槍の二種を限り、刀劍は其數最も少くして、大將分のみ僅かに之を提ふ、而かも其刃は何れも皆錆切つて赤鰯然たり、隊は平常の如く槍隊、銃隊、投石隊、棍棒隊の四個に區別し得べし、就中銃隊最も多く、殆んど全軍三分の二を占めたるを見る

總督の號令は掛れり、全軍は鯨波を揚げて騷然營外に押し

出せり、全亦俠徒一同に

目禮し、鞍に倚り揚然として其門を出づ、八大將も亦之が後へに從へり、俠徒は之を送つて獨山洞に至る、此時全は馬上黃扇を開き衆を麾きて忽ち號令する所あるものゝ如し、衆乃ち二縱列となり、總督及び各大將は馬を其中間に驅る、陣形蜿蜒、長蛇の徐走するが如く、前頭遙かに雲岩江畔の柳堤に連接す、俠徒尙ほ低徊還り去るに忍びざるの情あり、乃ち更に江畔高丘上の覇王臺に登り、手に雙眼鏡を取つて鶴首復た之を望む、長蛇は尙ほ徐徐として對岸に練り行けり、黨人の目印たる頭上の黃巾は久き間、田圃の間に認められたり、愛すべき黨首、黨將、黨人の影は終に柳堤の遮る所となれり

覇王臺上天佑俠の感慨

是に於て臺畔の俠徒は互に嗟嘆の聲を漏らして曰く、嗚呼天下を震撼すべき壯絶快絶の事業を爲すは夫れ唯專制國に在る哉、然る所以の者は、勝てば官軍、負くれば賊、事業と首級とは終始相伴隨して爲す歟、死す歟の二途の外、復た他に血路の存する無きを以て也、思ふに彼れ全琫準亦是僅僅五尺の男兒、而も一呼すれば、八千の子弟立ろに身邊に集り、再呼すれば、其威信全羅五十六州の上に加はり、王權も恣まに之を制馭する能はず、守令も其前に至れば膝行して進まざるべからず、而して獨り傲然として萬人の上に橫行し、天地の間を踐蹂す、豈に丈夫の眞面目を得たるものに非ずや、我等半生の讀書終に遠く此

未開國田野漢の功業に及ばず、恥辱恥辱、自今大に發憤する所なかるべからずと

天佑俠一同は東學軍總督と一月後の再擧を盟約して互に一たび相分るゝに至れり、是れ必ずしも永遠の訣別なるにはあらず、然れども時勢の變轉は不幸遂に兩者をして、此後復た行動を俱にするの機會を得せしめざりき、玆に特に同軍に關する二三の逸事を挿む者は世人が常に彼等を目して世間尋常の暴徒とするの誤解を破り、一は以て朝鮮近代の傑物たる全琫準の英魂を慰めんと欲すれば也

巡回政府としての東學軍

他道の東學軍はイザ知らず、全羅一帶、卽ち全琫準の配下に在る者に於ては、號令極めて嚴明にして、秋毫も犯す所なく其秩序ある事は遙かに京軍の上に出でたり、是れ實に全琫準の人に對して毎に誇りたる所にして、黨軍が彼の如く一時天下の民望を荷ふに至りたる原因も亦た唯玆に在りとせずんばあらず、看よ、京軍の到る所は連邑の老壯悉く負擔して遁走の家財は奪掠を蒙り、鷄犬は徵發に逢ひたるも黨軍の過ぐる所は、男女皆簞食壺漿して之を歡迎し、其一日も長く我邑に留らん事を哀願して止まず、農者は陣頭に來つて米麥を鬻ぎ、商賈は營中に入つて雜貨を賣り各各皆安んじて其業に從はざるは莫し、是を以て黨軍一たび其地を去らんとすれば、幾百の農商亦頻りに其後を追ふて他邑に轉移するを見る、蓋し黨人と共に

在れば、自ら地方暴吏の誅求を免れ得べくして、生命財産、毫も其安全を犯さるゝの恐れある事無ければ也、東學軍は是に於て實に救世軍なり、半島に於ける巡廻的好政府なり、彼が自ら稱して濟衆義所と曰へるもの決して我を誣ゐず、嗚呼朝鮮の全琫準を失へるは、天の竟に朝鮮を興すを欲せざる者に非るなき乎

掠奪者を銃刑に處す

東學軍の淳昌に陣せる時、市井無賴の徒三名相議り、東學軍の名を用ゐて地の富豪を脅かし、許多の金穀を掠取したり、黨の有司、偶偶其事あるを聞き、狀を具して直に處分を全琫準に乞ふ、全乃ち捕卒を派して匪徒を縛致し、目前之を銃殺に處し、其首を梟し、榜示して曰く、民財を掠むる者は總て皆斯の如しと、地方無賴の徒戰慄して之より屛息す

全琫準厚く仇敵の家族を保護す

淳昌の郡守李聖烈は、地方官中の俊才にして、曩に京に上り、議を朝廷に獻じて曰く、對黨政略の要は先づ其黨人の罪を宥免し、利を以て之が歸順を誘ひ、玆に黨軍の股肱を去り盡し、而て後徐ろに誅を黨魁に加ふるに在り、斯の如くすれば亂源を絶つに於て事極めて容易ならんと、李の策する所は當時に在つて誠に無上の政略たり、幸にして其獻策は採用の榮を得た

りければ、京軍は戰鬪の上に於てこそ、屢屢敗績の跡は見ゆるも、政略の上には却て着着實效を奏して次第に黨軍を南方に窘逐するに至れり、嗚呼是れそも誰の教唆に出でたるぞや、之を思へば黨中の健兒が比來腕を扼して頻りに慷慨し、必ず李の頭を獲、其三族を赤滅して而る後甘心せんと呼號するあるも、强ち咎むべきに非ざるなり、然るに全琫準の淳昌の入るや、先づ郡衙に就て李の妻妾兒女の在る所を確め、直に之を內房に封鎖して守衛の兵を附し、復た一人の玆に出入するあるを許さず、健兒輩は之が爲に其志を逞うし得ざるを憤りたるも、終に何如ともするなし、此際全が仇讐の家族を親篤に救護したるは、義軍首領の襟度を示して餘りありと言ふべき也

內田の柔術黨軍を震慄す

一日、淳昌の陣中に在つて、俠徒等徒然に堪へず、內田一躍廣庭に下り、黨軍の一勇將に對し、力を角せんと欲して頗る之を挑む、彼れ內田の年少短軀なるを見て笑つて應ぜず、內田イラツて益益之に迫る、彼れ乃ち大言して曰く、我れ力、本と五十人に敵す、此脚一たび公の身に觸れなば、公の命危し、公尙ほ角せんと欲するか、何如と、內田曰く可なり、我も亦一臂を揮つて君の呼吸を止めん、君乞ふ其時に臨んで驚する勿れと、彼憤然起立、一喝して直に內田を蹴らんとす、其動作の迅速なる、猶ほ飛燕の空中に身を轉するが如し、庭上環視の黨員幾百人聲を放つて皆其技の輕妙を稱贊せざるなし、危機

今や一瞬人皆內田の骨碎け、肉破れて忽ち地上に倒れ去らんことを疑ふ、然るに何ぞ圖らん、初鬪未だ終らずして叫聲一番、直に場裏に倒れたる者は、內田に非ずして却て黨將なり、人其何の故に倒れ何の故に叫びたるを知らず、內田徐に黨將の傍に寄り、左右の手を以て他の脅下に充て之を壓すること一回、黨將忽ち蘇活す、內田莞爾として謂て曰く、日人の手竝如何、彼蹙然答へて曰く、公の技は神に通ず、我が能く及ぶ所に非ずと、此角力あつて以來、黨人の內田を恐るゝこと鬼神の如きに至れり

天佑俠日軍の爲めに牙山の淸兵を牽制す

俠徒の黨軍中に在るや、牙山屯駐の淸將等、意中に甚だ之を恐れ、指して以て後門の狼と爲し、頻りに間細を放つて其動靜を伺ひ、或は一部の黨人を利誘して他の運動を妨げしめんとし、苦心經營至らざる所無く、爲に其京城進擊の謀圖を中止せざるべからざるに至らしめたり、此事實は日後牙山陷落の時に及びて發見されたる陣中遺留品中、淸將の日記及び天佑俠與東學軍檄の寫文に依つて、明明地、之を證するを得べき也

逃亡官人漸次に歸來す

黨軍旣に玉果に去つて後、天佑俠の諸豪傑は尙暫く淳昌の陣營に留まれり、日は漸にして黃昏なり、此時恰も郡衙の坐首、吏房等の各官人、前後相次ぎて恐る恐る俠徒の前に伺候し來

る、俠徒の淳昌に在るや、既に久し、而も其官人と相見ゆるは實に之を以て初めと爲す何となれば彼等は黨軍の來襲に先立ち、風聲鶴唳の間に倉皇として何處にか遁散し、此夕黨軍の遠く去りたることを確め得るに及び、心氣始めて平生に復し、遽かに其舊衙に返りたる者なれば也、然るに郡衙の正殿には尚ほ戎裝せる日客十餘名の威風凜然として存留するあり、彼等は本來怯懦を以て性を成す、如何んぞ意中未だ測るべからざる日客と突然相會するに方り、平易に之を處置するの道を知んや、乃ち一般韓人が常に爲す所に倣ひ、何の思慮も無く、茫然其前に進み出で、對談の間に巨細の摸樣を探らんとは欲せる也、彼等は遠客接待の禮と稱し、官童に命じて夥しく酒肴を取り寄せしめ、頻に之を俠徒に侑めて其顔色を伺はんとし、且つ曰ふ、黨軍の玆に淹留するや其士卒數千人に給すべき日日の食糧、物品、衣類は皆之を我吏房より出給せしめ而かも其去るに臨みて、郡衙所藏の銃器四十挺を奪ひ去れり、彼等が連邑を巡歷するは其目的一に兵糧と兵器とにあり、嗚呼黨軍既に和を京軍と約し、而る後尚ほ往き掛けの駄賃に、途すがら此の如く官銃を略奪す、其官糧を掠むるは民財を犯さゞらんが爲めの唯一の手段として猶ほ恕すべし、兵器を取るに至つては卽ち是れ野心なき者の決して爲すを得ざる所、彼は實に京城政府に對して、我慢すべからざる滿腹の不平を抱けり、彼既に此の如きの不平あり、何ぞ便宜的一時の媾和の爲めに、其年來の素願たる開南國王既位の大準備を忘るべけんや

間道より京軍の本營を窺はんとす

一月後を期し、京城に於て再會の約あり、一行亦何時迄も偸安して淳昌に留るべからず、離別の次朝乃ち程を發して間道より全州城に入り以て京軍の動靜を探んとす間道約十二里、山嶮にして水荒く、道路又凹凸上下、加ふるに盛夏の炎熱は百二十度に及べり、一行脚步の困難なる、豈に啻に鄧艾が入蜀の苦酸のみならんや、然れども山村水郭の間、尙ほ往往にして濁酒を賣るの家あり、一行は漸く酒力を假つて其膝栗毛に鞭撻するを得、行くこと約七里、日旣に黃昏に達す、而して前路未だ旅舍あるを發見せざる也、乃ち胡瓜を求めて渴を醫し、勇を皷して更に進み、夜色茫茫の中、遙に幾點の燈光を認め得て萬歲を唱ふるに至れば、急難忽ち途を要して復た一步を進むる能はず、一行是に至つて精根漸く盡き、茫然自失して空く河岸に佇む者久し忽ち見る、一輕船の對岸より離れ、流を亂りて此岸に達する者あり、衆其天與にして逸すべからざるを稱し、直に進んで船主を捕へ、之をして一行を載せ、强ゐて對岸に棹し返らしむ、彼れ恐怖の餘り、唯唯として命を奉ず、乃ち流を過ぎて前岸に上れば山間の荒亭、僅に一馬房あり、衆雀躍して之に投じ、食後快眠曉に至るまで、蚊軍床蟲の侵擊を知らず

鷄頭を斬つて田中村民に諭告す

次朝馬房を發し、益益全州路に向つて輕驅す、午時一古驛に達す、炎威甚し、一人曰く吾徒久く日本流の餐事を爲さず、形容

頗る枯槁せり、乞ふ之より河魚を漁して、佳肴に有り附かんと、衆皆異議なし、乃ち着衣を脱し、袴の一方を括り、之を以て網に充て、數人村端の小流に提げ入り、下流に網を敷きて上流より魚を追ふ、鰻鮒の類、獲る所甚だ多し、衆悦んで提へ歸り、火を熾にして之を炙る、是時田中獨り巷頭に在り、村民の刻前より騒擾して甚だ容易ならざるの摸様あるを見、殊更大刀を抜きて村鶏の首を刎ね、手に白刃と鶏骸とを提げたるまゝ、傲然として民群の中に進み、大聲演説を試みて曰く、汝等日本人の勇武を知らずや、僅僅十四人、躍つて東徒の中に投ずれば東徒風靡して之に屈從し、弱を扶けんと欲して京軍を迎へ撃てば、數萬の精兵、先を爭ふて敗走す、日本人の前には固より敵ある事なし、汝等之を顧みず、敢て妄りに事を好むの心を起さば、汝等の身首處を異にすること、猶ほ此の鶏の如くならん、汝等尚ほ恐るゝ所を知らざる乎と、音吐洪鐘の如く、説き去つて言詞頗る壯嚴なり、民群之を聞きて慄然慴伏、復た不穩の狀なきに至る、一行乃ち平然として晝餐の用意を調へ、食し了つて而して後各々庭樹の下に午眠し、暫く休憩して徐に晩涼の到るを待たんとす

全州城の鐵門破る

全州城は最早二里の近距離に在り、一行は是非今夜の宿留を城内に定めて京兵近日の模様を探らんと欲す、然れど全州城は實に全羅官軍の本據にして又是れ一道五十六州の觀察府、之を守るに

精鋭無雙なる江華兵五百人を以てし、兵器には李鴻章贈來の新式五連發モーゼル銃五百挺あり、其防備の堅固にして容易に犯すべからざるは、勿論と云ふべし故に今東徒の一味たりし天佑俠の寡勢を以て、漫然之に臨まんとするは、殆ど自ら死地に陷る者に非る無き歟、去れど天佑俠は本と思慮周密の士多くして暴虎憑河の人少し、而して全州城の虛實と官兵の價値とは疾くより概ね之を究むる所あり、是の故に今將に危地を踏んで敵地に入らんとするに方りても、決して血路あるを知らずして然るにはあらず、彼等は特に氣を以て敵を敗るの術に通ぜり、其神色自若として死生の間に出入するは敢て怪むに及ばず、且つ見よ、開門使として派遣せられたる時澤大久保吉倉、の三人が、當夜如何に城門に至りて大膽に官兵と應答を試るかを

敵の案內狀を提へて敵中に入る

時澤の一行は、衆に先んじて開門の爲めに全州城に向へり、日既に黃昏、一行は全州城外の河岸に達せり、水急きを以て之を涉ること甚だ艱、一行乃ち路傍韓人の背を假りて彼岸に達す、其狀殆んど彌次郎兵衛が大井川渡りの奇智に似たり、前頭を望めば、暮靄尙ほ蒼然として、壯麗なる幾個の城樓を其中に罩め、數回經戰の跡と見べき壞屋頹壁は、路の左右に狼藉し、滿眸總て荒涼たらざる莫し、一行此間を輕步し、漸くにして東門の下に至る、然るに門扉は既に嚴鎖せられ、城兵許多門樓に在りて、之を警衛する者の如し、一行乃ち大聲して之を呼ぶ、

彼直に應じ、其何者なるかを反周す、一行曰く、汝等且つ樓より下り來れ、而る後我等其何の用たるかを告げんと彼於是暫く躊躇する所わり、然れども一行の僅かに三人に止まるを確むるに及び意を安んじて階を下り、而して門扉を開くこと寸餘、叫んで、曰く、近來天下多難、是を以て夜に入れば警を觀察營に加ふること毎に斯の如し、公命あるに非ずんば之を開きて公等を導くを得ずと、時澤曰く、我等固より公文の在るあり、且つ言語衣服、既に異封の人たるに於て、何の警戒かあらん、乞ふ速に門を開くべし、彼乃ち扉を開かんとす、上將夐に呼んで曰く、勿れ、外人と雖も必ずしも危險なきを保する能はず、萬一大事を誤るあらば、我等守護の者、罪三族に及ばん、甚だ恐るべしと、城兵於是復た門を鎖さんとす、一行此機の逸すべからざるを思ひ、突進扉を排して入り身は既に炬火の邊に至りて立てり、彼等之を何如共する莫く、囂囂擾擾、徒らに四邊に蟻集して其狀容を望觀するのみ、

時澤乃ち守將を呼び、靜かに之に謂つて曰く、我等固より怪まるべき人に非ず、玆に宋司馬の案內狀あり、乞ふ公より之を府官に轉送し、急速城內に就て我一行十四人の宿館を定められんことをと、彼れ意を領し、案內狀を提へ去る、時澤等は炬火の邊に安坐して之を待てり、待つこと約半時、回答尙ほ來たらず、時澤等、頻に之を城兵に催促すれ共、回答なきは依然たり、少刻にして田中、內田、鈴木、大原の後隊亦皆到る、時澤乃ち狀を之に語つて曰く、城中の優柔不斷斯の如し、如何せば乃ち可ならん乎と、皆謂ふ、威力を算する更に一番

せば、事を辯ずる易易たるを得んと、一行の意稍や決して、半ば其準備に從はんとす、此時守將倉皇として暗中より現れ來り、謝して曰く、公等を空待せしむること多し、乞ふ之より旅館に同伴せんと、言終り、己れ先頭に立つて先づ進む、一行微笑亦其跡に從ひ終に西門內の一巨屋に至て此に宿を定む

禍機漸く現はる

次朝吉倉は釜山に打電せんと欲して電報局に至る、局吏曰く、電信不通なり、吉倉曰く、何の爲めに不通なるか吏曰く、其の何の故たるを知らず、吉倉意中怪疑に堪へざる所あり、然れども默して敢て責めず、歸つて其狀を同志に告ぐ、皆曰く、事必ず之れより起らん、警戒を懈るべからずと、大原乃ち獨り出でゝ、普く城中の形勢を偵察せ

馬夫の逃亡と俠徒の困厄

一行は城中大體の摸樣を探り得たり、是に於て發程の準備に從ひ、且つ馬夫を呼んで馱馬を勒せしめんとす、然るに馬夫は何時の間にか逃げ去りけん、旣に隻影だも見えざるなり、一行は更に馬舍に至りたるに、馱馬も亦居らず、一行窮する者甚し、蓋し行李の中、武器或は火藥の類頗る少なからず、而して之を運送する者なくんば、以て發程する能はざれはなり、仍て已むを得ず、市中に出でゝ馱馬或は馱牛を求めんとす、

而かも一人の之に應ずる者なし、更に負軍(人夫)を雇はんとするに亦來らず、或人竊に一行に告て曰く、昨夜來觀察使の命あり、曰ふ、日本人の雇用に應ずる者は、誰彼の別なく、總て重罰あらん、又牛馬を飼ふ者は深く之を隱蔽せよ、否らずんば必ず日人も掠奪を蒙らんと、今日市中に牛馬なく負軍無きは則ち之が爲なりと、一行は先きに城中に侵入するに方つて、豫め危禍の身邊に叢注すべきを思へり、而して其危禍は又必ず劍戟彈丸に依つて來るべきを信じ、充分之に對する防備を張れり、

然るに今や其事は意外に出で、觀察使は運送機關を奪ふの卑劣手段を取り、竟に一行をして歩むべからざる不具者とはならしめたり、於是一行の窮狀は殆んど縛せられざる捕虜者の境遇と同く縛せられざる丈に胸中の煩悶は亦更に捕虜者のそれよりも大なり、一行は如何しても之より其死境を脫せざるべからず、事態已に此極に至る、時澤等は復たも談判委員に選ばれて觀察營へ向へり

觀察營中大に官人を說く

時澤吉倉は選ばれて直に觀察使營に向へり、營門は幸にして開かれたるを見る、時澤等悠然として門を入り、進んで正面の宏殿に登らんとす、是れ卽ち觀察使の居る所なり、時澤等次第に階を踏み盡し、左顧右眄すれども觀察使あらず、依て歩を轉じて右方の高閣に向つて進む、此時門衛數十人後方より急驅

して追ひ至り、口口に叫んで曰く、狼籍者あり、侵入者あり、叩き殺せ、叩き出せと、時澤等之を顧みず、平平然益益進んで閣上に登り、玆に獨坐して營務に從へる一高官に對し直に談判の端を開きて曰く、我等異邦の人貴邦の內地を遊覽するに方り、馱馬其他の要件に付、官家の保佑を受くべきは當然なり、然るに今道途の風聞する所に據れば、官家故意を以て我等の發程を妨げ我等をして自由に迅速に行旅するを得せしめず、是れ抑も何の意ぞや、冀くば速に馱馬を發給して、我等の上途を得せしめよと、官人憮然之を久ふして曰く、當時市中牛馬の負荷に便する莫し、蓋し是れ戰後の事情、事奈如共すべからざる所、公等請ふ專ら責を官家に歸する勿れと、時澤曰く、貴諭實に間然すべきなし、我等敢て牛馬の事を問はざらん、然れど市中尙ほ負車の徒多くして、一人も我等の荷物を運ぶを肯んぜざるは何如、彼れ是に至りて、辭窮して復た口を開かず、顧みて闥外を見れば、門衛、守卒、雜人の輩、數百軍を成して閣を重圍し、日本人を叩く殺せと連叫して騷動言はん方なし、時澤形勢の到底不可なる所あるを見、初意を飜して曰く、貴官にして負軍徵發の權なくんば則ち止を得ず、我等是より當に觀察使を訪ふべし、觀察は何れに在る、彼れ答へて曰く、正門外の高堂卽ち其現に居る所なり、時澤其欺言を以て門外に誘ひ、出すの謀なるを知る、然れども今之に對して强ゐて論爭するも、將た威迫を試むるも、何の得る所なかるべし、若かじ此儘體面を全ふし、穩かに歸つて一たび狀を同志に報じ、更に充分の威力を用意し、而る後重來して觀察營を畏

服し、以て其志を成さんにはと、乃ち閣を出で、階を踏んで庭上に下る、雑人四方より之を圍繞して連罵すること前の如し、時澤等一睨し、悠悠として其間を徐行すれば、一條の血路爰に忽ち開けて、復た一人の妨害を加へんとするなき也、彼等の無氣力も亦甚き哉、既に正門を出づれば、守衛倉皇として忽ち門扉を嚴鎖す、此時恰も門窓より前面の高堂を指し、嘲つて云ふ者あり、曰く、觀察使彼に在り、而かも彼は三十年前の故觀察使の祠堂なり、公等行きて之を拜せよ、必ず著るしき靈驗あらんと、言ひ終つて笑聲哄然たり

再擧して觀察使を擒にす

時澤の歸つて狀を同志に報ずるや、同志皆憤慨して營門打破を主張せざるなし、進撃の準備は是に於て大に急がしめられたり、準備已に成る、田中、內田、大原等八九名は、怒髪冠を衝くの勢を以て、直に營門に向つて馳せたり、一同やがて門前に至る、是時恰も好し、前きに隱伏せる觀察使は、事の再び起らんことを恐れ、今や將に他に移らんとして、門より出で來れり、田中、內田、左右より迫つて直に其乘轎を要す大原、鈴木は之と同時に大喝して轎丁を走らしめたり、田中卽ち觀察使に向つて曰く、公何ぞ、我徒を迫害する斯の如きの甚きに至るや、觀察使曰く、何ぞ其事あらん、內田曰く、我等危急存亡の際復た多言を要せず、唯だ夫れ發給の公文を得ば足れり、若し不幸公文の發給を得る能はずんば、乞ふ暫く公の身を擒に

し、以て公文に代へん、觀察使之を聞きて恐懼する者甚し、卽時官童を營に送つて印函を取り來らしめ、直に人夫出給の公文に捺印し、之を與へて曰く、此の如くにして可なる乎、一同披見、好しと稱して之を收め、漸く觀察使を放つて之を遣り、悠悠旅舍に歸りて各各萬歲を連呼す、敵の手答へなきこと斯の如く甚し、龍驤虎鬪の大活劇たる門破りの時機は、夫れ何の時にか至らん、乞ふ次回に及んで局面上更に大變動を生じ來るを看よ

兩士門樓に臥して敵情を究む

前宵鈴木時澤の二人は宿舍の不潔とビンデの襲來とに耐えず、終に臥床より起つて街頭に出で、半夜中天の明月を賞しつゝ、知らずらず歩を西門の方に向けたり、不圖前面を月光に透かし見れば、守衛の兵三三五五壁上壘下を逍遙し、門側　には炬火　を燃し、樓頭には喇叭を鳴らし、戒警嚴然些の乘ずべき虛を存せざる者の如し、鈴木時澤於是相謂つて曰く、彼處に聳立せる門樓は、淸風明月竝せて占領し、而して一眸の下、城中の虛實を窺ふに足る者あり、是れ時に取つての好寢殿と云ふべし、萬方多難、爰に臺に上る豈に亦可ならずやと、相携へて門頭に至る、守衛將と覺しき者、出で迎へて其來意を問ふ、鈴木曰く、我等海外の客、甚だ貴邦旅宿の起臥に慣れず、然るに今此樓畔に來り見るに、頗る故國建築の風に適へるを覺ふ、我等實に望鄕の情に堪へざる者あり、願くば登臨の特典に浴せ

ん、衛將之を聞き莞爾として曰く風流雅客好し、我も公と共に登臨して月前相語らん、鈴木等計の圖に當りたるを喜び、之に從ふて共に階段に上る、樓頭より眥を決すれば、錦江沿岸一帶の平野。夜烟杳杳の中、月下に隱顯して茫漠涯なく、其形勝雄大自ら人をして胸懷を開かしむる者あり、更に首を回らして東南を望めば、萬馬關の方面、今尙ほ炬火の天に映ずるが如きを見る、想ふに是れ京兵の李福龍に備ふる者なるべし、又城內觀察使營の在る處には、笙笛絃皷の聲、洋洋として湧き起り、伶人妓生の唱歌之に和し、曲調抑揚急緩して、頻りに大官宴樂の狀を溢らす所、天下の擾亂は我關せず焉の風あり、鈴木等左顧右眄、感慨頗る鮮なからず、乃ち衛將に相語つて、巨細に城中捍禦の手段配置を探悉し、終には身を樓上に横へたるまゝ優然眠に就き、淸風明月の下、夜氣の肌を冒すを知らず

西門の守兵を破つて突出す

觀察使が一葉の反古的公文、之を收むればとて俠徒に於て何の誇る所かあらん、然れども一行の苦む所は、唯負軍を得る能ざるの一事に在り、負軍にして得らるれば、千軍萬馬四方より攻圍するに至るも、何の恐るゝ所を見ず、而して今や幸にして負軍徵發の公文を得たり、市中の人夫も亦之に依つて漸く安んじて一行の爲に用を爲すことゝはなれり、事情是に至る、一行は乃ち自由自在に金州の敵城を立ち去るを得べし、機や後るべからず、一行は午後五時を以て、直ちに西門口より

中清路に向はんとせり。然るに奇怪なる哉夜に至つて始めて鎖さるべき門扉は、何時の間にか嚴閉されて守卒之を護れり、奇怪なるは唯だ此に止まらず、今が今まで其總勢僅僅數十名の守兵を配置せる西門の要路は、俄然其守兵を加ふること數百名に及び門下、樓上、壁頭、街畔に至るまで、今や一帶に兵士を以て埋めらるゝ事とはなれり、次で江華の精兵亦悉く連發銃を提げて玆に集る夫と同時に守兵は皆銃頭に劍裝を施せり、其守衛の嚴重なるは刃壁を築きたらんが如き形勢を見ても知るべし、通路は是に於て最早や蟻の這出づべき隙間をも認め得られざるなり。　俠徒等の進んで此に至るや少しく躊躇する所あり、蓋し敵の多勢を望觀して之に避易したるにはあらず、既に近距離の間にはあり、唯他の無數の小銃の連發の爲めに、我目的を妨げられんことを氣遣ひたる者なり、且つ此危險に切迫するや、朝來幾多の艱難を冒して漸く雇ひ得たる人夫の一群、亦俄かに恐怖の念を抱き、市人の騒擾を幸として、虚に乘じて遁走せん憂あり、一行の窮狀は今や進退維谷の極度に陷りたり、田中乃ち身を挺んでゝ守衛に詰問して曰く、觀察使既に一たび我徒の爲めに人夫の徵發を諾す、公等何ぞ今に至つて俄かに我行路を遮るや、守衛曰く、觀察使新たに命あり、爲めに城門の交通を禁ずること斯の如し、獨り公等の爲めに之を開くを得ずと、問答之に終れば、彼れ直に附近所在數百の兵士に號令し、急に其劍裝の銃を執つて數列の人壁を築かしむ、遮斷の嚴重は益益嚴重を加ふる計り、之を望めば人山劍林相重疊して、羽翼あるに非ずんば、終に重圍を脫すべからざる者の

如し。一行は固より戰鬪なくして門を出づる能はざるを期す、而して今や其期したる戰機は到れり、一行の滿身の血俄かに湧き、四肢の肉悉く動きて、復た他の連發銃の危險を思ふの餘暇なし、乃ち直ちに隊形を整へて田中を先鋒に置き、馱荷人夫を中間に狹みて其逃亡を防ぎ、內田を殿後として少しく隙の敵中に生ずるを竢つ。蓋し當時彼我の距離僅僅一二間に過ぎず、而して街路の幅亦漸く八九尺、地形地理の關係は自ら多勢と銃器とをして其利を恣にせざらしむる者あり、乃ち隙に乘じて猛然突貫を行はゞ戰鬪は必ずしも俠徒の勝に歸せざるを保し難からん、俠徒が死中求活の術は斯の如く夫れ壯なり、是に於て乎重圍の中に立ち乍ら、神色自若として其敵軍と對抗するの姿勢を取り得るも亦宜なりと言ふべし。敵も亦さる者、俠徒に此決心あるを見るや、更らに其隊形を一變し、以て益益防禦の嚴を加へ、惡魔鬼神の助勢を得來るも、容易に破るべからざる者と爲さしめんと欲す、蓋し敵の恐れたる者は、主として俠徒の爆彈に在り、旣に其爆彈を恐る、乃ち自ら之に對するの法を講ぜざるを得ず、隊列を薄ふして長圍の陣形を取るが如きは、其至計なり、而して彼今實に此法に出でんとす。然れども一利ある所は一害亦必ず之に伴ふ、彼れの隊形を變ずるや、其瞬間、兵列の混亂するもの極めて甚し、而して之ぞ是れ俠徒の待ち受けたる敵の衝くべき虛なり、先鋒田中豈に空く此好機を逸せんや、奮然大刀の鞘を拂つて之を右手に橫へ、左手敵の劍銃を排し、雙脚其兵士を蹴飛ばし、忽ち一條の血路を開き得、猛猛然として門扉に向つて突進す、鈴木、吉倉等皆

之に次ぎ、各雙腕の勇を揮つて敵の人馬劍戟を推排して走る、內田最後に在り、遮ぎる者は手玉に取つて之を空中に投げ打ち、近づく者は足を擧げて悉く其胴骨を挫き去り、其動作殆んど無人の境を行くが如し而る後鋭眼四方を睥睨して、從容然門扉の邊に達す、顧みて敵兵を望めば、走路を求めて徒らに相踐踩し、復た俠徒に向つて戰を交へんと欲するを見ず、却つて遺銃棄劍の路上に狼籍たる者算無し。十四個の豪傑、門下に佇立して呵呵大笑、靜かに扉を開きて城外に出で、路傍酒家の燒酎を小酌し、終に參禮に向つて輕驅す

嗚呼是れ天佑なり

此日城中守備法の嚴重なる、西門樓より其附近の壘壁に至る迄、悉く兵士を以て配置せられざる所なし、故に彼等にして聊かなりとも兵士らしき勇氣を存するあらば、よし其街頭の交戰に於て少しは敗を取るも、俠徒の城を出で遠く走るに方つて背後より之を狙撃せば、西門外は一帶に水田なり、一帶に平地なり、一望十里の地勢中、纔かに一路の北に向つて通ずるあるに過ぎず、眼下極めて分明、豈に終に一個の敵をも其銃丸を脫せしむる事あらんや、然るに街上戰鬪の開くるに及び、壘頭多數の兵は戰戰競競として直ちに其壘を下り去り、偶偶其處に殘留せる者は毫も裝藥の用意を爲さず、唯茫然として兩者の鬪狀を傍觀せるのみ嗚呼是れ眞に俠徒に對する天佑にあらずや、天佑か、天佑か、天佑は終に俠徒をして彼の如く鬼神

も三舎を避けざるべからざる豪快の活動を演ぜじめたるなり

天佑俠一行を生擒す

俠徒が運搬機關の奪略に逢うて全州城內に困厄せる折、觀察使は在釜山日本領事に打電して曰く、當監營は謀を搆へて天佑俠十四名を生擒せり、貴官の速に巡査を派して之を受取られんことを乞ふと。 領事は突然此信に接し、心竊に疑ふらく、彼等豈に容易に韓人の手に落つる者ならんや、蓋し必ず故あるべしと。乃ち答電して曰く、俠徒生擒の勞、謝するに絶えたり、小官當に兵士を派遣して之が引渡を受くべしと。 然るに觀察使は此返電を得るに及び甚だ不安の狀あり、蓋し當時淸兵の牙山に駐屯せるが爲めに、若し日兵をして全州に入らしめば、或は朝廷の譴責免れざるを恐れたる也。 乃ち再電して曰く我が發遣を乞ふ所の者は、兵士に非ずして巡査なり、冀くば遲延なく卽時巡査を派せられよと。 領事又之に答へて曰く、國約規定する所を見るに、尋常行政上の處置に對しては、貴官自ら匪徒引渡の義務を負へり、故に我より巡査を派するの要絶えて無し、若し夫れ其以上の武力を具ふる者に在つては巡査の力能く之を傳致すべからず、發兵の要於是乎あり、敢て分明の貴答を煩はさんと。既にして觀察使三電して曰く、俠徒十四人、傍若無人の行動を恣にして、全州城を脫し去り、其往く處を知らずと。 於是領事抱腹哄笑して曰く、我果して先見の明あり、觀察使が所謂る生擒とは、却て是れ歡迎の意味ならんも知るべからずと

流を前にして追騎を拒がんとす

俠徒は既に全州城に於て絶大なる武勇を顯はせり、然れども勝つて胄の緒を締るは智者の常情、一行乃ち城を走る五六町にして相議して曰く、我徒既に難なく虎口を脫し來れり、然れども敵勢極めて夥多、一回の示威を以てして容易に其鋭鋒を全挫すべからず、或は恐る、彼等半夜を待つて再び追騎を放ち、而して我徒の困臥を襲はんことを、果して然るが如きあらば、是れ由由しき大事なり、我徒は此夕遠く走つて身心を疲勞せしむべからずと。 往くこと一里にして一川流あり、流の對岸は卽ち一小驛なり一行乃ち其驛に就て宿舍を定め、飯後河岸に出でゝ追騎に對する備を設け、然る後宿房に還つて各各寢床に就く、然るに此夜ピンデの襲來例に無く劇甚を極め、夜半に及び苦惱を叫ぶ者多く、終には皆房より遁れて庭上に露臥するに至れり、吉倉獨り床上に平然として鼾聲雷の如し、一行之より吉倉を指してフヂミと呼ぶ、其餘りに無頓着なきを惡みたる者なり

參禮驛の大評定

次日早起、忠淸路に向つて發す、道の左右は有名なる全州の廣原、山遠く、水長く、稻田開け豆圃連り、天地頗る空闊なるを覺ふ、既にして參禮察訪に到る、此地は是れ、日後全琫準が羈王の端を開き、數萬の黨軍を四方より招致し、以て南征の謀を決したる處、其形勢の雄大にして各路號令の中心に當れる

は、自ら天下の荊襄と思はしむべき者あり、一行乃ち其官衙に上つて暫く午睡を貪らんとす、官衙は大路の左傍楊柳鬱蒼たる高丘の畔に在り、官房亦宏壮、殆んど我古寺院を見るが如し、一行既に堂に上れども官人出で迎へず、仍て其一房を假り、各各此に座を定め、然る後先づ議を起して曰く、我徒既に數十日の旅苦を嘗め、且つ幾番の戰鬪を經來つて、各各困する者甚し、故に直に衆を擧げて京城に入らんことは、頗る艱難の狀無くんばあらず、寧ろ之より路を轉じて忠淸第一の靈境、鷄籠山に登り、暫らく爰に立て籠つて優に氣を補ひ銳を養ひ、而して別に二三の京人に知られざる者を派して中原の動靜を伺はしめば、亦以て時機に後るゝの恐無かるべし、何如と。　衆皆異議なし、是於一同各房に分れて暫く休眠を恣にし、睡眼已に醒むれば、圃中に就て大瓜を獵り、各自貪食して以て晝飯の代物となす

敵の間細をして荷駄を運ばしむ

參禮の前後より、二個の韓人の一行に隨伴し來る者あり、衆其必ず間細なるべきを察し、而して勇者は試みに之を糾問せんことを主張す、長者之を許さずして曰ふ、今や運搬人夫不足の折なり、間細を鞭打せんよりは若かじ之をして牛馬の代理を務めしめんにはと。衆手を拍つて其妙計なるを稱し、乃ち特に拾貫目餘の重荷を間者の背上に負し、一行前後より之を護衛して日光直射、炎炎たる烈日の下を輕驅せせしむ、間者唯唯とし

て其命を奉ずれども、頬邊の落涙は額上の流汗よりも滋し

淸將全州營に天佑俠を苦む

將に嶓山縣に到らんとする途上、全州歸りの支那兵に逢ふ、俠徒の一人、身を挺して之を斬殺せんとす、長者曰く孤弱者を殺戮するを止めよ、寧ろ之を要して何の爲めに全州に赴きたるかを糾問せんと。乃ち進んで支那兵を四方より圍繞し、勵聲之を詰つて曰く、汝何の爲めに全州に到りたる、實を以て聞せずんば白刃直に汝の頭に臨まん。彼れ戰慄恐懼して曰く、小奴は上將に從つて全州に到りたる者なり。我問ふて曰く、上將何の爲めに全州に至りたりや。彼答ふ、頃來日本人の全羅を騷がす者あり、上將乃ち聶將軍の命を奉じて全州に入り、觀察使と共に計を設けて之を捕獲せんと欲したるなりと。俠徒是に至つて始めて日前危險の眞相を解し得、愕然自失する者瞬刻乃ち支那兵を放還し、又程を急いで忠淸路に走る

俠徒淸皇の勅諭を剝ぐ

參禮以北四五里の間、行道に沿へる人家の壁上には、到る處支那皇帝の勅諭及び北洋大臣李鴻章淸將葉志超聶士成の諭告を揭示せざる莫し、而して其揭示には東徒に對する者と人民に對する者との二樣あり、共に文意暴慢を極め、朝鮮を以て己れの屬領となし、其國主を己れの藩王と爲し、自ら呼ぶに大皇帝或は天兵の佳號を用ゐ、而して普天率土中華の有に非る莫しと

誇稱す。俠徒行行之を讀み、其帝國民の意思に反する甚きを見來り、勃然怒をなし、發見する毎に一一其勅諭諭辯を剝ぎ去り、一片も餘さず皆之を自家の袋裏に收め了る、沿道の韓人相見て茫然論守する所を知らざる也

俠徒書を留めて縣令を諭す

俠徒既に沿道所在の勅諭諭告を剝ぎ去つて民心恐惶、事直ちに嶼山縣令に聞するに至る、縣令愕然下吏に命じて曰く、汝速に去て勅諭諭告の類を取返し來れ、然らずんば吾廳中の官人、上下を論ぜず皆族滅の嚴刑に處せられん、汝若し命を全ふする能はずんば、我先づ罪を斷じて汝の頭を刎ねん、去れ、速に去つて命に盡せよと。下吏卽ち空を飛んで俠徒の許に走せ到り、頻りに哀訴して曰く、諸豪傑、願くば我に大國皇帝北洋大臣の諭告を返附せよ、是れ實に我衛門數十百人の死命に關するもの也若し夫れ之に添附せる朝鮮官府の諭達(此諭達亦俠徒の剝ぎ去る所、其文淸國に對して奴隷的恭順を悉せり)に至ては諸豪傑の取り去るに任ず、唯海山の寬仁を以て我等の哀願を容れられんことをと。俠徒は固より他の衷情の頗る憐むべきを知る、然れども其痴心の到底言詞を以て打開すべからざるを思ひ筆を執り、事由を書して之を使人に附し、提べて縣衙に歸り去らしめんとす、其書に曰く

> 縣令足下、足下にして若し眞に朝鮮社稷の臣たらば、何ぞ乃ち爾く恭順に胡人の命を奉ぜんとはするや。嗚呼足下は

獨り胡人が其版圖に非る箕封に向て諭告を發するの深意を知らざるや、是れ實に狼呑の端を示す者なり。足下若し之を疑はゞ、之を彼の使臣袁世凱年來の一擧手一投足に看よ、其傲岸にして大君主を凌壓し兇暴にして滿京の將相を小兒視する邊、豈朝鮮に善意ある者の爲す所認とむるを得べけんや、而も足下の智未だ之を洞察するに至らずとせば、足下も亦憐むべきの痴漢なり

天の暴胡を惡むや久し、我徒乃ち天意を遵奉して爰に其諭示を裂く、蓋し朝鮮を敬重するの餘情激して此處に到る者なり、萬一罪ありとせば、其罪は總て我徒の上に在り、我徒亦喜んで其罪に服すべし、足下何ぞ此事と相關せん、況んや足下の下僚をや、足下若し我徒の言ふ所を捨てゝ顧みず、敢て憤りを其使人に漏らすあらば、上天遠からず我徒を驅つて、罪を足下の頭に問ふべし、足下之を諒せよ

天俠徒一同

敬具使人は此書を受取りたれども、中心尙ほ頗る安んぜざる所やありけん、泣いて而して諭示取り返さんと乞ふ、之を慰諭すれば彼益益哀號し、終には地上に倒伏して慟哭嗚咽の醜を極め、人の笑罵を受るも猶ほ依然として其醜狀を悛めず。韓國官人の痴愚、今に至て猶ほ概ね斯くの如し

上國大人行陣善政碑を斫る

恩津縣城に近づきしより、路傍往往木碑の新に建てるを見る、碑面題して上國大人行陣善政碑と曰ひ、題字の兩側亦詩句を列べて、頻りに清將の功德を稱揚せり、是れ蓋し日前葉聶兩將の騎を連ねて全州に入るたるを感謝する者にして、必然地方官が他に對して媚を獻ぜん爲めに、人民を督促して特更之を建てしめたるものならん。然るに俠徒の之を一見するや、憤然叫んで曰く、朝鮮の病根は實に此間に在り、我徒乃ち先づ彼等の所謂る上國に加辱して、毫も其恐るべき所あらざるを示さゞるべからずと、各自直に腰間の劍を取り、斬つて之を寸斷し、更に足を擧げて泥中に蹂躙す、縣民望み見て愕然、舌を吐く者三寸

山寺を尋ねて大彌勒佛を罵る

灌燭寺は恩津縣盤若山上に在り、山下は總て漠漠たる水田なり、寺の後庭に一大石像を安置す、像は彌勒佛にして朝鮮第一等の巨像也、丈五丈五尺あり、像の頭上に法　冠を戴す、冠は金屬を以て造れり、冠の前面又三尺三寸の觀世音菩薩を鑄て挿む、菩薩の身は凡て黃金を以て製せり、石像の眉間にも又八寸徑の黃金星を裝置す、而して此等黃金は日光之を反射するに方り、反映の美、言ふ可らざるものあり、故に一里外より之を望めば、白雲の天に沖するが如し。像畔に古碑あり、石像建立の由來を說く、曰く、像は高麗朝の工に命じて建立する所、其

彫刻に費せる年數正に三十七年に亘ると。以て其凡作に非るを知るべし。寺僧亦得意然、訪者に對して、往往之が緣起を談じて曰ふ、此佛嘗て唐兵の來襲を拒ぎて、之を鴨綠江中に殲にせり、爾來國家變亂あれば、像の總身必ず汗を生じ、佛掌中の白蓮花、其色を失ふ、若し又天下太平なる時は、佛身澤澤として美彩を放つ、是れ豈に世界無比の靈佛に非ずやと

吉倉は此靈佛を奠ねんが爲めに、廻り道せんことを同志に提議せり、然れども同志皆朝來の暑熱に疲勞を感じて復た行を共にせんと云ふ者なし、獨り日下の好奇心に驅られて諾を謂ふあるのみ、日下等黃昏山畔に登り、像下に立つて之を熟視する者旣に久し、乃ち後庭より去らんとして突如復た像畔に返り、俄然足を擧げて像を蹶り、勵聲罵つて曰ふ、爾ぢ身の丈五丈五尺の大軀、其顔容を見れば誠に大慈大悲の本願ある者に似たり、然るに今、箕封陸沈、李氏の宗廟將に血食せざらむとす、聞く汝昔唐兵を鏖殺して、一旦國家の危急を救濟すと汝何爲れぞ今に於て非望ある、牙山の淸兵を赤滅し以て人道の危急存亡を輓回せざる、汝若し其靈驗なくんば、豈に獨り傲然として諸人の三拜九拜を受納するを得んや、嗚呼天下無用の長大物、汝に過ぎたるは莫し、汝夫れ吾輩の言ふ所を聞て、果して如何の感をかなすと。罵聲怒號、其狀殆んど狂者の如し、半白の寺僧椽端より之を望み見、啞然として制する所を知らず

新橋夜泊一夜を茶番に明かす

十四個の英雄、宿を定めてセイタル(新橋)の村端に在り、客房内極めて不潔、乃ち蓆を河岸に敷き、而る後村中の濁酒を徴集して戦後久久の夜宴を開かんとす、月明天に在り、清流眼下を走る、巷歌は沈沈たり、砧聲は愁然たり夜烟茫茫として秋色畫くが如し、一行之に對して心氣慘然たり、醉來日下例に依り、劍を抜き起つて胡兒曲を舞んと欲す、田中之を制して曰く、暫く待て、此夜の風色陰然として頗る望鄉の感に耐　えざるわるを覺ふ、然るに今悲壯の古詩を賦して、更に其情を深からしむるは人の忍び得る所に非ず、若し之より茶番のオドケを演じて、各十分に日頃の鬱悶を遣り、且つ死地幾回の生還を祝せんと。衆皆之に同じ、各自智恵を悉して和漢東西各般の滑稽を案出し、而る後器用不器用相混じて、頻りに腕を幾番の喜劇に振ひ、此くして歡歌。抃舞する者徹宵、一行復た晝來の疲勞を說く者無し、復た身の殊域に流浪するを感ずる者なく、更に復た己れが大功名心の犧牲として輾轉反側するを回顧する者無し。漸く歌舞に倦んで各各宿房に返らんとすれば、殘月滴露、人の袂を潤ほし曉風面を拂ふて爽然たり

百三十度の燒熱地獄を走る

次日は朝來暑氣蒸すが如く、到處綠陰の日光を遮るあらず、前程後程、見渡す限り赤色の荒野にして、水と見ゆるは腐水の泥沼のみ、一行於是渴を呼ぶ者甚し、乃ち路傍の民家に就てムル

を乞へば、其與ふる所臭氣粉粉、然らざれば孑孑浮沈して容易に喉を下すべからず、止を得ず勇を鼓し、戸外に出で、寒溫計を驗すれば、空氣の熱度は旣に百三十度に上れり、一行相顧みて喪然たる者久し、旣にして又進み、次第に敬天驛に近かんとす、署氣益益猛烈、眼眩し、頭痺れ、肉爛れ、骨緩み、足掌亦地熱の爲めに糜爛して、終に步を進むべからざる者の如し、蓋し一行踏む所の者は朝鮮の所謂シンにして其質極めて丈夫なる草鞋なれども、砂熱は遠慮なく地面より之に徹透し、足を擧ぐる每に一步は一步より、愈愈火中に侵入するの感あり、一行是に於て皆拔き足の步法を取つて輕驅し、漸くにして敬天に着し、纔かに以て暈死を免るゝを得たり、然れども房中の暑熱は尙ほ多く戸外と相讓る所あらず、十四人乃ち赤裸裸となりて各各食床に相對へば、千萬の飛蠅、又一時に飯上に群集し來り、終に人をして蠅と飯とを分別するを得ざらしむる計りなりき

鷄籠山の籠城

俠徒は終に其一時の休安所と豫定せる鷄籠山下に到着せり、山は天下の要害名勝、大院君の所謂る王氣蒸騰して崩壞せざるべからざる所、是に於て、一行溪に從ふて山に登り、斷橋を飛過し、絶壁を逸走し、岩上を躍り、樹根を攀ぢ、終に半腹新元寺の在る所に至り、是を以て屈竟の籠城處と定む。寺は山中の巨刹、四面綠陰蓊鬱として靑潭環流し、一帶の長壁之を繞り、洞門玆に聳ち、洞を入れば廣庭あり、庭の盡る處に大雄殿あ

り、二三の佛堂僧房之に竝び、古色孰れも蒼然、而して一洞の中鳥語寂寞、虎嘯凄涼、梵音鐘聲之に交つて一も地境の幽閑なることを證ぜざる者なし。更に仰ぎて天を望めば、青山白雲相搖映し、連峯空に躍り、府瞰すれば、湖南湖西の連城連邑星點して指顧の間に聚る。山中の諸溪、皆浴すべく釣すべし、俠徒乃ち釘を曲げて針となし、溪に下つて日に鯉鰻の類を獲る者數十尾、山上には騰雲菴あり、道士太平道人、此に在つて十年無言の行をなし、東徒の亂起るに及び、終に飄飄然俗離山中に向ふて去る。寺の住持は姓を金と云ひ、長髮豐顔、肥軀巨身、職に忠淸僧兵の都護軍に居り、勅旨を以て京城出入の特許を附せらる、是を以て人に對する稍や傲慢の弊ありて自ら奉ずる極めて厚し。俠徒玆に籠居してより食ふ所の者は日日胡瓜の鹽水に漬けられたる者のみ、身は殆ど蟋蟀に似て、復た日前の美味佳肴を得ず、形容是に於て骨立し、精神是に於て困憊し、日を追ふに從ふて上京の念益益切なるを覺ふ。蓋し亦た已むを得ざるに出づる也

湖面[4]監司使を以て安を問ふ

俠徒が新元寺に着して後數日、老官人あり、數名の童僕を從へ、黃昏不意に一行を訪ひ到る、彼れ優優然轎より出でゝ堂に上り、徐ろに來意を述べて曰く、鄙官は公州の廢吏、觀察使の

4 面 : '南'의 오자로 보인다.

命を奉じ、特に諸豪傑を來り候する者なり、今諸豪傑猛暑を犯して敢然異鄉の羈旅に從ふ、或は恐る身心其困憊を極めて、寢食共に穩かならざる者あらんことを、況んや山中の荒房、佳菜なく佳肴なし、何人か是に至つて能く衰瘦を免れん、我觀察使乃ち諸豪傑の鬱悶を察し、不敬の罪を顧るの暇なく、鄙官をして玆に村酒一壺、牛肢十斤を進獻せしむ、笑納して補氣の用に充てらるゝを得ば幸甚と、序辭極めて謹嚴叮嚀なり、俠徒亦久久にて珍味に有り附得たるを悅び、厚く使者に禮し懇談して之を返へす。蓋し觀察使が斯くの如き處置に出でたる所以の者は、彼れ頃ろ俠徒が全州に於ける無敵の大飛躍を傳聞し、其容易の敵に非るを思ひ、乃ち陽に歡迎の意を表顯し、以て自家管內に於て平穩なる行動を取らしめんことを冀望したるに在らん、其統治の、手段に缺きたるは、全州の監司と何の擇ぶ所なし

半夜壇上に英雄志を語る

今や佳肴あり、好酒あり、以て大に飮み且つ食ふに足る、數日間胡瓜計りの總菜に苦められて、顔上菜色を帶び來れる俠徒は、欣欣然其酒肴を提へて半夜直に寺洞に隣れる中嶽壇に走れり、中嶽壇は閔妃の祈禱所、雞籠山神を祭る、新元寺僧之を管し、天下有數の靈場なり、其輪奐宏壯な、らずと雖も堅實雅麗、房房亦極めて淸瀟、頗る饗宴の設備に適す。俠徒乃ち石階より上つて其門扉を排し、忽ち進んで其中壇の大堂に入り、爰

に席を定め酒肴を連ね、且つ飲み且つ談ず、談の次第に佳境に進むや、俠徒盡く陶然、顔上殆ど紅を帶びざる者なし。此時一人の突然起つて衆に謀つて謂ふ者あり、曰く、我徒既に東徒と連盟す今や天下の事先づ既に定れるに庶幾し、否、朝鮮の死命は是に於て全く我徒の掌中に制せらるゝ者なり。既に其死命を制すとすれば、我徒は是より更に朝鮮に據つて天下を制する所以の道を講ぜざるべからず、何如となれば朝鮮獨立は我徒一時の手段にして天下平定は我徒多年の宿望なれば也、乃ち此良夜をして山神祠頭、共に興に大に志を談ずる亦可ならずやと衆皆之を贊す、於是田中優然其手裏の大盃を傾け盡し、先づ口を開きて曰く、我徒既に朝鮮を定めば支那と兵を交うるは必到の勢なり我乞ふ其時に及んで直ちに援兵を日本に求め、日韓兩軍相連ねて馬を鴨綠口に飲ひ、進みて遼東の野を席巻し、關を越えて、北京に入り、而る後南征、北伐、四百州を蹂躙し、四億萬の蒼生に號令し、玆に東亞三邦の聯合を全ふし、以て雄を世界に爭はん、鈴木咳一咳徐ろに席を進めて謂つて曰く、卿の期する所も亦甚だ好、唯我恐るゝ所の者は、日韓今後支那と相戰ふに方り、英が其貿易上の關係よりして、頻りに款を支那に通じ、以て日韓聯合の勢を妨害せん事に在り、故に我れ其時に臨んで歐米遊說朝鮮特派の全權大臣となり、列國樽俎の間に立つて大に折衝の技を振ひ、以て興亞の宿志を全ふするに力め、且つ東學黨政府の依託に添はんと欲す。內田曰く、我は英よりも寧ろ露國南下の勢を其間に馴致せんことを憂ふ、彼れ露は多年侵略の政策を堅守し、而して次第に鐵騎を黑龍江岸に

送り、機の熟するを竢つて突然峰火を滿蒙の間に揚げんとす、其蠻力の懼るべきは到底英の比に非ず、思ふに東方百年の深憂は必ず玆に在るべし、我故に東學政府の半島に樹立するを特ち、去つて露に遊び、而して其上下の關係、各人種の　感情を究問し、其進歩分子に交り、內より外より其革命を誘起せんことに力め、一方には日淸韓の士民に遊說して其西比利亞移住を勸諭し、以て生産的實力的に露の勢力を東方より驅逐して、之をウラル以西に封鎖せんことを期す。大原曰く、我れは東亞勃興の大策として寧ろ日本の根脚より堅立し始めんことを欲す、其法他なし、一方に於て朝鮮の獨立を擁護すると共に、他面には臺灣ヒリツピンの經略に從ひ、以て太平洋控制の勢を作り、自然日本をして支那朝鮮暹羅印度大陸一帶の地の後見たる地位に立たしむる是なり。斯の如くすれば國を泰山の安に置きて而して又道を天下に行ふに足る、誠に一擧兩得萬全の策と云ふべし。武田曰く八道の風雲旣に收つて天日復た淸明なるを得ば、我は再び樹下石上の舊身に返り、而して道德を天下に宣べ、現時器械的文明の弊害を彈明し、人類をして必ず靈性ある人類に改善せしめて止まん。

大崎曰く、朝鮮支那大陸一帶の國風は、其主朝を根底より顚覆するに非ずんば、以て革命の眞意を全ふし、且つ民心を一新して開進の實を擧ぐべからず、我乞ふ朝鮮の事を終へて直に支那に入り、兩湖兩廣の豪傑を會合して以て再び太平天國の旗幟を飜へし、胡人を冥北に追ふて玆に禹域の恢復を遂げ次で暹羅に移り、山田長政の舊圖を繼ぎて、佛人を交趾支那より

退け、更に印度に渡りて夫の國民同盟の大業に協力せん。千葉曰く、我輩別に望む處なし、然れども諸君常に我を呼んで九百と嘲る、其の意戰を好むが爲めに仙人(仙は千と通す)に百丈け欠けたる所ありと、然らば則ち我志は言はずして知るべきのみ、唯戰の存する所、是れ我が向ふ所也。日下曰く、諸君既に東學黨と相計つて一たび義兵を朝鮮に擧げ更に國際的交戰を他日に企圖して天下の平和を攪亂するとを意とせず、其志や嘉すべしと雖も暴狀は恕すべからず、之を法に擬するに、正に國事犯既遂未遂の俱發罪乎、我乞ふ日後裁判官となり必ず諸君を死刑に處せん。一坐之を聞き來り皆手を拍つて大に笑ふ、吉倉、白水、大久保、時澤、井上、西脅等、醉眼朦朧、半醒半眠の間に在りて又言ふ所を知らず、田中以下亦終に前後を知らず壇頭に醉倒して、鼾聲雷の如し

天佑俠は朝鮮革命宿年の志謀を行はんが爲めに、風臥露宿、萬里懸軍して漸く東學黨と連合の途を開き、而して久く壯絶快絶なる活動を湖南五十六州の間に試みたる後、終に一たび東學黨首領全琫準と訣別し、更らに八道第一の靈場たる雞籠山中の一古寺を尋ねて、暫く爰に籠城することゝはなれり、是れ卽ち天佑俠が天佑俠の本色を全ふし、俠徒一統百事協同的態度を取つて半島の天下に橫行闊步したる所の大體なり、是より以後、或は內田急先鋒が單驅敬天驛に於て、五百の韓人を相手に猛然激鬪を試み、九死一生の中漸く身を以て脫したる事、或は吉倉大崎が白晝日本服の儘從容自若として成歡七原素沙場の支那陣

中に出入醉臥したる事、或は同志數名が安城に於て支那兵鏖滅の大會議を開きたる事、鈴木大原の徒が江原道に於ける支那兵追攘の事、或は田中千葉が平壤中和に於て我陸軍の爲に大冒險を試みたる事等、其膽勇武略の天下後世に傳ふべき者少なからずと雖も、こは唯個個が一時氣に任じ、快を貪りたるものに過ぎずして、之を天佑俠當初の目的より見れば、何等關係の存する所なし、故に本篇は先づ筆を雞籠山の籠城に擱め、更に他日を待つて其欠漏を補ふことゝせん。

天佑俠終

南征餘錄

海浦篤彌

一行清州ニ着シ客舎ニ入ル安着ノ小宴ヲ張ント欲シ鶏一羽ヲ買フ韓人等其料理方ヲ見ントシテ庭上ニ群集ス近藤君左手ニ鶏ヲ捕エ右手ニ二寸大ノ小刀(メス) ヲ持テ椽ニ出テ鑿々刀ヲ使フ忽チニシテ骨ト肉ト相分レ一指ヲ汚サスシテ立トコロニ寸斷分截ス觀者タヽロヲ開キ目ヲ張ルノミ既ニシテ鍋ニ湯ヲ沸シ其肉ト骨トヲ投シ食鹽少許ヲ入テ「スープ」ヲ作リ更ニ藥籠ヨリ「アルコール」瓶ヲ出シ溫湯ニ數滴ヲ加エ三人相對シテ快ク飲食スル有樣ヲ視孰レモ不思議ソーナ顔ヲシテ相顧ミテ密語スルノ狀覺エス失笑ニ堪エサリキ

◆昨年暴徒ノ發生地タル報恩ニ入リ東學先生ノ消息ヲ尋ヌレトモ其後患ヲ恐ルヽニヤ邑民擧テ皆知ラスト答フ余一策ヲ案シ僞テ余等亦日本ノ道士ナリト告ク坐ニ一老翁アリ語テ曰ク我國ノ東學ヲ修ル者或ハ一日千里ヲ駛走スル者アリ或ハ口中火鐵ヲ呑吐スルモノアリ其術ノ奇ニシテ變寔ニ測リ知ルヘカラス公等言フ日本ノ道士ト知ラス何等ノ神術ヲ修メ得タル乞フ一技ヲ示スヲ獲ント一坐皆乞フテ已マスます蓋シ余等ノ道士如何ヲ疑ヘハナリ余徐ニ說テ曰ク我邦ノ道術タル道通天地有形外思入風雲變態中、拔山倒海、目千年ノ後ヲ視、耳萬里ノ外ニ聞ク神變自在得テ端倪スヘカラス千里ノ駛走口中ノ鐵何ンカ有ラン但濫リニ之ヲ施シ戲ニ之ヲ行フ神意ニ戾ル遠矣試ニ一椀ノ冷水ヲ沸騰セシメ直に化シテ鹹水トナサンカ乃チ密ニ沸騰散テ掌ニシ口中呪文ヲ唱エテ沙鉢ヲ搖一撼ス忽チニシて沸騰シ忽チニシテ鹹水トナル滿座驚キ且之ヲ異トス近藤君亦砂糖ト食鹽トヲ手ニシ

テ相左右シテ之ヲ嘗メシム甘鹹忽チ相變ス砂糖ヲ嘗ルモノ喜色面ニ溢レ食鹽ヲ嘗ルモノ號呼眉ヲ顰ム嘖々相語リテ其妙技ヲ賞讃ス眞面目ナラントスルモ豈敢テ失笑セザルヲ得ンヤ

◆ 忠淸全羅ノ界、山嶺疊重溪谷紛縫寒村落寞家ニ鷄犬ノ聲ナク野草亂蔓路ニ往來ノ人ナシ偶マ出中ノ一農家ニ憩フ家人相顧ミテ余等ヲ熟視シテ曰ク公等ハ何國ノ人ナリヤト山縣氏直ニ日本人ナリト答フ彼等又相顧ミア怪テ言フ日本トハ何處ノ國ナリヤト余徵[1]笑ヲ含ムテ告テ曰ク汝等ノ所謂倭奴ト稱スルハ卽チ日本人ノ謂ナリト衆亦相顧ミテ苦笑ス一老媼アリ遽々然トシテ來リ前ノ余等ヲ諦視スルコト之ヲ久シテ語テ曰ク吾聞ク倭奴ハ資性獰惡ニシテ人ノ民ヲ害シ人ノ國ヲ奪ウ猛獸毒蛇モ啻ナラストト今公等ヲ觀ルニ眉目淸秀手指潤澤其風貌ノ溫雅ニシテ擧作ノ重厚ナル我邦人ノ遠ク及ハサル所ナリ未タ知ラス年齡幾何、兩親ハ健在ナリヤ、兄弟幾人、子女幾人ト余與ルニ砂糖少許ヲ以テス媼曰ク是レ鹽カト余先ツ嘗ム彼見テ少シク嘗メ後人ヲ顧ミテ喜色面ニ溢ル衆ヲ提招テ少シツ·配ツ衆皆大ニ喜フ余穩ニ媼ニ諮リテ曰ク酒ヲ賣ル家無キヤ有ルヤ媼曰ク在リト欣々焉トシテ去ル少焉クシテ沙鉢三個ヲ六角膳ニ載セ鹹辛一皿ヲ挾ムテ余カ前ニ勤メ曰ク自ラ釀ス所ナリト余受テ之ヲ一氣飮了ス味尋常ニアラス媼走リテ又一鉢ヲ勸ム近藤山縣二氏余ヲ顧ミテ言フ甘哉濁酒ニシテ何スレン滋味斯ノ若クナル蓋シ

1 징(徵) : '미(微)'의 오자이다.

山間ノ地水清冽ニシテ米仍ホ精、後ハ山ヲ負ヒ前ハ溪流ニ臨ム林本自然ニ風塵ヲ避ケ人間總テ古色ヲ帶フ況ンヤ余等身嶮阪ノ上下ニ苦ミ體三伏ノ暑熱ニ倦ム神疲レ氣屈ス舌鼓ヲ打ツ何ソ渴後ノ水ニ較スヘケン尋テ其價ヲ問フ曰ク不要了ト余韓錢數十文ヲ投ス媼言フ日本ト我國ト錢ニ於テ毫モ異ナルナシ果シテ然ルカト余興ニ乘シテ銀貨三個ヲ出シ何スレソ夫レ然ラン朝鮮ノ如キ世界ノ貧國ナリ故ニ靑銅錢ヲ獲テ上下得々タルノミ我國ノ通貨ハ卽チ金ト銀トノミ宜シク就テ之ヲ見ルヘシト媼再拜謝シテ曰ク冀クハ韓錢幾十文ヨリ此銀貨一個ヲ與ヘヨト余啞然言フ所ヲ知ラス

◆沃川ヲ距ル數里一村落ヲ過キテ暫ク村畔ノ一社頭ニ憩フ村衆相踵キ來リテ余等ヲ園集シ相語テ曰ク彼三人者帶ル所ノ刀劒善ク人ヲ斬ルヲ得ヘキヤ否ヤ曰ク未タシト冷嘲謾罵交々聞ユ忽チ一壯漢アリ來リ前ンテ曰ク公等帶ル所ノ刀善ク物ヲ斫ルヤ否ヤ乞フ此棍棒ヲ斷テ其功味ヲ示セト余曰ク喝坐セ一刀汝ノ身首ヲ兩斷シテ其利鈍ヲ試ムヘシト彼首ヲ縮メテ忽チ衆後ニ隱ル又一壯漢アリ來リ前ンテ曰ク公等乞フ彼ヲ恕セヨ余等未タ日本刀ヲ見ス顧クハ鞘ヲ拂テ其中身ヲ示セト近藤君起テ大聲疾呼シテ曰ク群衆來リテ余カ前ニ進メ好シ汝等ノ爲メ目[2]本刀ヲ示サントス衆皆進ム近藤君衣ヲ褰ケ袖ヲ扼シ居合腰ニナリテ三尺大ノ長劒ヲ揮一揮ス衆瞠目駭魂相蹶テ走ル長劒已ニ鞘中ニ在リ能ク之

2 목(目) : '일(日)'의 오자이다.

ヲ見シモノナシ相顧ミテ哀號幾番、已ニシテ近藤君亦呼號シテ曰ク爾等皆來リテ余ニ敵セヨ余一人ニシテ能ク爾等ニ敵セント大手ヲ擴ケテ歩ム彼等疾走遽馳遠ク去テ遂ニ近カス

◆珍山高山ノ間山峻ク谷邃ク道路險惡一上一下身足大ニ疲ル而シテ夕陽已ニ落チ人ハ朧朦模糊ノ間ヲ牛歩ス偶マ山間ニ一草屋アリ壁墜チ軒頽陋穢勝テ言フ可ラス與暮連叫一夜ノ宿リヲ乞フ老媼出テ來リ余等ノ行裝ヲ諦視シ忽チ色ヲ變テ固ク謝シテ曰ク家人病アリ宿泊ヲ許サスト余等百方辭ヲ設ケテ彼ヲ賺セトモ媼頑トシテ動カス余忽チ一計ヲ案シ所謂家人ノ病トハ何病ナルヤ曰ク腹痛余曰ク我ニ靈藥アリ余等ヲ宿サハ直ニ之ヲ治スヘシト媼戶ヲ閉テ內ニ入リ少クシテ亦出來リテ曰ク乞フ來リ宿セト未タ族裝ヲ解カス媼藥ヲ促カスコト頻リナリ近藤君與ルニ「モルヒネ」劑一服ヲ以テス食膳ヲ給センコトヲ乞フ媼米糧ナシトテ應セス鷄卵ヲ獲ルノ道ナキヤアルヤヲ問フ酒屋三里豆腐屋五里焉クニ行テ之ヲ求メントスルカ乞フ之ヲ思ヘ强辯大ニ勖ム余前ニ家ニ入ルノ時偶マ鷄數羽ヲ飼フヲ見ル何スレソ卵ナカラン好矣策ヲ設ケテ之ヲ致サシムルニ若カスト媼眼ヲ患ウ余私語シテ曰ク我等今飢テ食ヲ獲ス若夫我等ノ爲メ能ク一壺ノ醬一簞ノ食ヲ致スモノアラハ眼疾腹痛立トコロニ之ヲ療スルヲ得ンニト媼沈思スルコト稍々久ウシテ曰ク廚帳或ハ殘飯アランヤモ量リ難シ少ラク之ヲ物色シ來ラン矣燈ヲ點セントスルモ油ナシ近藤君膏藥ヲ鎔テ油ニ代フ媼驚キ見テ之ヲ異トス既ニシテ媼食膳ヲ捧ケ來リ謝シテ曰ク吾眼ヲ患ヒ令監等ヲ以テ尋常路傍ノ

人ト做ス罪ヲ負フ甚シ家翁前ニ恵ム所ノ藥ヲ服シ腹痛忽チ癒ユ喜ヒ限リナシ乞フ吾カ爲ニ眼藥少許ヲ與ヘヨト余曰ク鷄卵若干ヲ買ヒ來ラハ之ヲ與ヘント彼逡巡亦稍々之ヲ久フシテ曰ク三個ナラハ以テ不時ノ需ニ應セント果シテ余等ノ衝中ニ墜ツ

東學黨視察日記

海浦篤彌

窮なれは則ち變す天下の事物皆然らさるはなし若し夫れ時到り時機熟せは蟻穴も尙ほ且つ大堤を決す其勢ひ遂に支ふ可らさるなり陳吳呼一呼して秦國亂繼くに亡を以てする所以のもの何そ深く怪むに足らんや顧みれは朝鮮の國たる政綱上に紊れ民心下に離れ極衰極亡の勢ひ業に已に成る宜哉道徒一たび義を古阜地方に唱ふるや上下此れか爲めに周章狼狽し忽ちにして淸兵來り忽ちにして日兵來る機一たび動けば將さに八道の山河をして硝煙彈雨の裏に埋沒し去らんとす此時に當りて道徒の一擧手一投足其關する所至大至重道徒の動靜豈に忽諸に付す可んや是れ余か自ら計らす敢て道徒視察の在を受けて辭せさる所以なり

知らず目下道徒の雌伏する所果して何れの處處忠淸道淸州報恩の地古來道徒衆しと聞く此地一たび過ぐれは或は道徒の消息を知るの端あらん而して後ち全羅道の東西南北を締[1]斷橫絶せは庶幾くは道徒の動靜を知悉するに足らん乎然らは則ち豫め覺悟せざる可らさる者あり曰く旅費の缺乏曰く途上の疾病曰く意外の災難是れなり余か友近藤君賢吉醫士にして且つ劍客是れ余か意中を語り强て君か同行を需めたる所以なり山縣氏猪之助は永く近藤君の藥局に在り少しく朝鮮語を解す一方に於て藥劑の調合をなさしめ他方に於て寒暄の通舌をなさしめんが爲め又氏を拉したり

1 체(締) : '종(縱)'의 오자이다.

七月初五

拂曉藥籠を馬に馱し刀劍を肩に荷ひ三人相携へて漢城を發し十一時四十分果川に着す果川を去る半里清人四名馬に乘りて來るに遇ふ其內二名各銃刀二柄を携ふ想ふに牙山營より使命を帶ひて漢城に赴くものならんか午後一時四十分果川を發し五時三十分水原に着し宿舍に投す

初六日

朝六時三十分水原を發す未た幾程ならず我か騎兵六騎に邂逅す曰く昨七原より到ると曰く清兵天安に在りとの說あり未た信すへからすと曰く清兵上京の消息得て知るへからすと想ふに斥候たるもの斯の如くにして可なる可きか七原と天安と相去る甚た遠からず而かも此れを是れ確むる能はずして漫然歸途に就く抑抑何の心ろや余竊かに惑ふ午後二時三十分振威に着し宋書房の宅に投宿す清兵天安にありとの說ありと雖亦未た信を措くに足らず此日馬の雇ふへきものなく未明より東奔西走して漸く之を得馱賃平日に三倍す

初七日

午前五時二十分振威を發す清兵の徵發に依り牛馬の雇ふべきものなし卽ち荷夫一名を雇ふて行く七原「ソーセー」を經間路を取り稷山の左側に出て馬日の嶮峴を越に午後八時二十分木川を去る半里程の處に宿す蓋し此の間道を取りたる所以のものは一は清兵の會合を避け一は道程の近きを求めたるものなり天熱

し路險し擔夫進む能はず途中更に擔夫壹名を雇ふ當日の艱想ひ見る可きなり

初八日

午前四時五十分擔夫二名を雇ひ宿舍を發して木川に抵る韓人の蝟集するもの始めて問ふに漢城騷亂の事を以てす且つ始めて招討使の傳令酒幕壁上に貼付するを認めたり然れども問ふに道徒のとを以てすれば皆な知らざるを以て答ふるのみ近午滿天墨を撥して雨至る雨を冒して行く雨勢愈愈甚し全身溺るるが如く泥中轉するもの屢次尙ほ勇を鼓し擔夫を呵し午後四時錦江の支流東津江を涉りて而して宿す水深く臍に到らざる僅かに三寸

初九日

雨少しく霽る午前七時三十分宿舍を發し十一時三十分淸洲に着す安着の報をなさんと欲して電信局に到る線斷て果さす此行三人共に徒步し間間藥を鬻て橫利を得ると雖とも途中人馬の賃銀日常に三倍せしより囊中稍稍空乏を告ぐ此に於て余は政廳に赴き吏員に迫り漸く銀貨五金を交換せしむ道徒の動靜を探る終に得可らす只招討使の傳令到る處に貼付するを見るのみ

初十日

午前七時始めて漸く馬二頭を雇ひ淸洲を發す峻嶺險坂層層疊疊相送りて相迎ふ午後六時報恩に着し朴書房の宅に投す此日偶偶馬を雇ふて乘ること能はず三人相顧みて失笑す想ふに客年道徒

此地より起りて俗離山に據ると云ふ俗離山は此地を去る僅がに三里偵察の方其宜きを得は或は道徒の一斑を知悉するに足らんか願みれは余等漢城より此地に至るの間一に藥商を以て名をなす若かす此より日本道士と稱するに果せる哉韓人の相集まる者竊かに告ぐるに東學先生の居處を以てす先生姓は朴名は元七五南に住すと五南は報恩を去る僅かに三里

十一日

午前十時余導夫壹名を拉し朴元七を五南に訪ふ至れは則ち壁墜ち窓壞れ主人既に去て在らす低回稍稍之を久ふす市民に就て其去處を問ふ皆知らさるを以てす或は云ふ青山に去ると未た信すへからす青山は五南を去る二里乃ち匆匆日淸兵の來意を書し併せて道學諸士に通せんことを托して歸る失望想ふへし此夜報恩を去る二里の處に東學先生黃河一なるものあるを問く又稍稍意を强ふす

十二日

午前七時余又導夫を拉し山を越にて黃河一を訪ふ家門亦已に閉つ市人に就き密かに其轉住處を探る至れは主人外に出てて在らす行く處を知らすと想ふに道徒の逮捕令所所の壁上に貼して飜飜たり道徒中少しく名ある者皆な禍を怖れて難を避くるものならんか導夫の語る所を聞けは此地邊周擧て皆な東學徒のみ曩きに全羅道の道徒に共通したる者一旦歸村したるものありと雖とも逮捕令の嚴なるより再ひ全羅道に向て去る如今家に在る

もの素と與に事を共にしたるものにあらず故に生に聊じて業を營むのみ公若し相逢ふて相語らんとするも恐くは難からんど乃ち空しく歸る此日俗離山に上らんとするの議あり其效なきを以て止む直ちに全羅道に赴かんと欲し午後二時三十分報恩を發し行くこと凡そ三里許「タ-ドン」酒幕に投宿す

十三日

午前五時宿舍を發し十一時沃川に着す擔夫足痛み歩む能はす官廳に乞ふて擔夫二名を雇ひ山岳を踏むて全羅道に入り珍山を去る一里「ヨカンウオル」酒幕に投す時に午後八時三十分招討使巡邊使の傳令到る處に貼付す道徒の動靜尙ほ且つ知悉す或は云ふ全羅道の東南順天に屯集すと

十四日

午前四時十分「ヨカンウオル」を發し午後八時高山營內「サンクヂヨン」酒幕に宿す抑も路を東南に取らずして却て故らに西南に向ひたる所以のものは一は全州に入りて道徒の消息を探り一は旅費の調達をなさんが爲めなり此日葉聶等が發せし所の令文所所に貼付するを認む

十五日

午前四時「サンクヂヨン」を發し十一時三十分全州に着す將さに東門より入らんとす沁營の兵士二十余名門戶を衛り余等の行路を遮りて曰く異邦人の全州に入らんとするものあらは直ちに

之を監營に通すへしとの命あり暫時此處に休憩せられんことを乞ふと言辭極めて叮寧卽ち待つを一時有余旣にして旗手來り問ふに公文を携ふるや否やを以てす余示すに路照を以てす彼れ字を解せす直ちに首領して余等を導き一客舍に送る旣にして又公文を監營に示さんことを求む路照法式に合はす余竊かに之を危み辭を授けて山縣氏を遣はす氏旗手と共に歸り報して曰く外務衙門發する所の公文を携帶するものにあらされは門內に出入するを許さすと速かに門外に出らんことを勸む余百方辭柄を設けて旗手を諭す旗手責の已れに及はんことを訴へて止ます余其爭ふの却て非なるを察し卽ち門を出て行くこと壹里餘藪亭里張斗植の宅に宿す當時の落膽眞に想見すへきなり斗植は藥を賣る者余等同業の故を以て相親む竊かに道徒の消息を問ふ彼れ聲を小にし語て曰く道徒の首魁姓は全名は明叔古阜に生れ全州に住し才德兼備る全州の戰遁れて目下全州以南に在りと云ふ其餘黨如今金溝に集るとの說あり金溝に赴かは略ほ其確報を得る易らんと金溝は此地を去る三里余等此に於て意氣稍稍振ふ然れとも錢文全く盡く則ち斗植をして斡旋の勞を取らしめ携ふる所の寒冷紗及剩す所の銀貨を售り漸く征途の費金を調ふ

十六日

群山に赴くを以て名となし辛ふして擔夫二名を履ひ午前八時藪亭里を發し行くこと一里金溝を過りて群山に向はんと欲し擔夫を諭して金溝に向はしむ擔夫道を誤り午後五時六里程を步行して漸く金溝に着す金溝を去る拾余町空屋軒を竝べ人影寂として

聲なし擔夫魂頻りに悸れ余等心竊かに喜ぶ金溝に至れば果して狀況常ならす縣監難を全州に避け民人跡を四方に藏め空屋累累其市民の僅かに在る者皆戰戰兢兢或は誤て憐を余等に乞ふものあり食を求むれとも飮食店なし宿を尋ぬれとも旅籠屋なし其故を問へは則ち云ふ向日道人三名殺さる何者の爲す所を知らす道人大に之を憤り縣監に追りて其死骸の引渡を請求せんとし不日大擧して此地に至るの說あり狀況故に斯の如しと■して道徒の會する所を問へは則ち此地より二三里の處にありと日將さに暮れんとす足又甚た疲る旅宿を求むるに如かすと乃ち土民を慰藉し且つ勸誘して以て此地より二拾余丁豪農張榮昌の家に到り一泊を乞ふ主人之を諾す遂に此家に宿す道徒の此地を過くるもの概ぬ此家に來り寢食をなして而して去ると云ふ此を以て倉廩甚た豊かなりと雖も道徒毫も危害を却へす謂つ可し多幸の人と性溫厚余等を遇する殆んと至らさる所なし顧みれは余等二拾有余日の間且つ食み且つ飮ふこと一日毎に三回に下らす其甘臭毎に亦同しからす然れとも未た榮昌が饗せし所の酒食の味美なるが如きあらず今に至て尙ほ牙頰の香しきを覺ゆるのみ此夜榮昌と語り大都所全明叔玉果に在り其餘黨此地を去る二里院坪に在ることを聞く知る可し此夜余等が夢る所果して如何なることを

十七日

故らに盛裝美服し午前八時眉を開て張氏の宅を辭し腕な扼して院坪の地に向ふ行くこと二里近午院坪に着す黃巾を頭に卷き火繩銃を肩にし來る者に遇ふ余招て之を呼ひ都所の居る處を問ふ

彼喜て余等を導き行く路傍一小阜あり松樹蔭をなす黄巾を纏ふ者紫巾を纏ふ者緑巾を纏ふ者大凡四五十人皆な火繩銃を携へて左右に相錯綜す銃巾を纏携せさる者又大凡百二三十余人前後に相往復す余等一行到れは道路自ら開く其一段高き處に上り三人傲然として中央に相鼎坐す先つ問ふに都所の誰なるやを以てす傍ら人あり答て曰く都所は則ち彼れと我のみ余乃ち筆を執りて書して曰く公等且らく座せ余等告くる所ありて千里を遠とせすして至ると且つ命して左右を退けしむ彼唯唯命の如くす既にして余問ふに日清兵の朝鮮に來る所以の意を知るや否やを以てす彼等善く文字に熟せす躊躇して答へす余乃ち告けて曰く清國夙に貴國を亡滅し國王を廢黜して以て清の一省となさんとするの意あり公等一たび義を古阜地方に擧くるや以爲らく此機乘すへしと袁統理世凱密かに閔惠堂泳駿を勸　誘威嚇して援兵を清國に乞はしむ清兵の來る實に一は公等を殄殺し一は貴國を亡滅せんとするの意に外ならす我國既に公等の義擧を贊助し早く清國の野心を攪破す兄弟相援け唇齒相依るの故を以て神兵數萬を漢城に送る蓋し公等と同心戮力一は以て內政の釐革をなし一は以て外敵の討伐をなさんとするのみ想ふに公等の意如何公等既に輔國安民を以て旗を樹つ知らす公等何を以て此に處せんとするか彼漸く筆を執りて答へて曰く鄙等の此處に會する所以のもの素と輔國安民の故のみ然れとも事の大小輕重に論なく皆な大都所の命に是れ從ふ公等若し告け且つ計る所あらば願くは大都所に逢ふて而して之を語れと卽ち大都所の居る處を問ふ卽今玉果に在りと云ふと雖も日日居處一ならず途次市民

に就て之を聞かば卽ち知ることを得べしと彼等余の告くる所に對し一一答をなさずと雖も理に服し義に感するの色現はれて彼等對語の中に在り彼等とは何人が趙元執及金允浩年齒共に未た四十に至らす彼等は所謂金溝會所の都所卽ち統領にして其他都察某省察某一砲某二砲某なるものあり兵員一千人是れ金溝會所が統率する所なりと云ふ擔夫四方より米麥を運び至る是れ徵發に係るものならんか俵數凡そ三拾有余余等此れより南玉果に赴かんとするの議に決し先つ午餐を喫せんとす都所令を傳へ二三子をして余等を飮食店に導かしむ食終るの後趙都所來りて送別の辭をなし午後二時道人十余名に送られて院坪を出て七時泰仁を過き一里「トクパツクリ」酒幕に投す

十八日

午前五時「トクパックリ」を發して潭陽に向ふ蓋し大都所光州に在りとの說あり潭陽に到らは庶幾くは其實を確むるに足らんと途次道徒二十余名昨和順を發し古阜に歸るものに遇ふ就て其故を問ふ彼等曰く大都所の命によりて歸村するものなりと命とは何そや曰く如今用ゆる處なし姑らく鄕里に歸て定業を務めよ若し其用あらは更らに令を傳ふへしと而して彼等の余等に對する極めて懇切何故たるを解せす午後八時潭陽に着す泰仁より潭陽に至るの間村落相續く而して土民概ね道人たらさるはなし「非道人不許入此門」の標札を門頭に揭くるもの兩三家あり余等就て大都所の居處を問且つ告くるに日淸兵の來意を以てす

十九日

午前八時潭陽を發す大都所光州より去て南平に在りと云ふ午後三時二十五分光州に着し拱北門外を過きて南平に向ふ道徒の往來冠蓋相望む其往くものは一は令を潭陽金溝に傳ふるもの一は故郷に歸りて農事を務むるもの其來るものは或は羅州地方より或は和順地方より新に來りて大都所の護衛をなすものなり午後八時二十分南平に着す聞く正午大都所此地を去りて綾州に向ふと日已に暮て途甚た近からす旅宿を求むれとも飯米なし卽ち道徒に乞ふて之れか斡旋をなさしむるに加かすと道徒相會する所に至れは何そ圖らん彼等は官廟を占領して彼等の營所に充てんとは其會するもの凡そ二百余名明朝綾州に向て去ると卽ち告くるに旅宿なきを以てす彼等は喜て周旋の勞を取り酒饌を饗し客室を與へ明朝同行を約して寢に就く

二十日

午前九時道徒等と共に南平を發し午後一時綾州に着す大都所果して綾州に在り官廳を以て本營に充て人馬相絡繹す白木綿の幔幕は門外を圍み令字縫付の旗幟を庭上に樹て威儀頗る隆なり卽ち刺を通して面會を大都所に求む直ちに余等に與ふるに客室一間を以てす

少焉して彼れより紙箋を贈りて曰く

意はさうき貴國諸位大人陋地に稅す未た知らす何に緣て遠路跋涉す之れか爲め代て良苦を問ふ幸に憊なきや否や

余此が答をなして曰く

伏して貴問を受く感悚交交至る鄙等山を踰え水を涉り千里を遠とせすして來る所以のものは卽ち實に大都所全道士明叔先生に謁し少しく教を乞はんと欲するのみ

彼又書箋を贈りて曰く

全州接戰の際全大人丸に中る今は則ち嶺外の地に在りて傷を治す曩きに貴國十四大人に向つて贈問の時靈岩地居住金奉均等承答す

當時余竊かに思らく全明叔綾州に在りとのこと獨り沿道の土民之を言ふのみならす綾州に在る所の道徒皆な之を言ふ然り而して其答ふる所斯の如し想ふに少しく戒心する所あらんか且つ十四大人とは果して何人なるや漢城出發の際少しく聞く所あり必らすや當さに釜山より新に來るの人人ならん

余乃ち答へて曰く

全大人嶺外の地に在り識荊の榮を得る能はす遺憾焉れより大なるはなし惟ふに貴所必らす當さに統領其人ある可し若し統領に謁するを得は幸甚

少間ありて四五人の從者を伴ひ余等の前に進み來るものあり年齒凡そ三十八九風采衆に卓越す彼れ筆を執りて書して曰く

公等千里を遠とせすして來る知らす何を以て鄙等に教へんとするか願くは其詳かなるを聞くを得ん

余先つ問ふに何人なるやを以てす答へて曰く金奉均余乃ち書して曰く

伏して惟ふに大祖大王至聖明德允に文允に武命を皇天に受け鼎を漢城に定む世世代代王子王孫相嗣き玆に五百有余載其間

世に盛衰あり時に隆替ありと雖政紀紊亂して吏紙錢を貪り聚斂劇甚にして民塗炭に苦む未た今日より甚しきはあらさるなり夫れ天下は天下の天下なり一人の天下にあらさるなり閔族久しく外戚の威を恃み永く政權の柄を握り社稷の存亡を慮らす闔族の盛衰を是れ憂ふ民人の日に疲弊するを顧みす私廩の月に豊富ならさるを足れ患ふ賄賂上に行はれ盜賊下に起る國家の亡びさるもの抑も幸のみ公等深く玆に慨する所あり天に代りて一たび輔國安民の義旗を古阜地方に樹つるや獨り貴國生民の簞食壺漿して之れを迎ふるのみならす世界萬國皆な之を欽仰す就中弊邦朝野と貴賤とに論なく國民擧て之を謳歌翼贊して措かざるなり但夫れ淸國獨り然らず夙に朝鮮の國勢を弱めんことを是れ計る若し夫れ一旦風雲相會するの時あらは卽ち將さに朝鮮を亡滅し國王を廢黜し朝鮮をして淸國の一省となし李中堂の義子李經芳を遣はして其總督となさんとするの志あり以爲らく此機乘すへしと李中堂密かに意を袁世凱に傳ふ袁世凱李中堂い意を承け暗に奸臣閔惠堂泳駿と結ひ泳駿をして遂に援兵を淸國に乞はしむ淸國宿志の將さに成るに垂んとするを喜び猝かに兵士三千餘名を牙山に送る此時に當り貴國の存亡機一髪の間に在り弊邦素と義勇を以て天下に鳴る況んや亦隣邦の他國に呑噬せらるるを視るに忍ひんや卽ち直ちに神兵三萬餘を貴國に送る漢城龍山揚華鎭萬里倉坡州松坡水原仁川釜山元山到る處各各其要所を扼守す隊伍整齊號令嚴肅銃器糧食共に兼ね備る沿道の士民仰て皆な風を望み心を安せさるものなし眞に王者の師なり夫の淸兵の如き兵に紀律なく令に威制なし猥りに牛馬を掠奪し

恣に婦女を姦淫す牙出[2]の邊陬家に米麥なく戸に鷄犬なし士民相怨み相號ふの狀既に公等の知悉する所ならん所謂草竊の徒にあらずして何何や事態已に斯の如し苟も朝鮮の粟を食ふもの豈に傍觀坐視す可きの秋ならんや乃ち須らく半夜鷄を聽て起ち中流楫を擊て渡り內は奸臣を黜けて以て王側を清め外は敵兵を討して以て國威を張らずんばあるべからず公等既に輔國安民を以て義擧を企つるは天下の共に深く知悉する所なり惟ふに必らす當さに令を四方に傳へ以て再ひ土を捲て來る可きは亦天下の共に確く信認する所なり然り而して未た其消息を得す此れ鄙等の晝伏し夜行き山岳を踏み河川を涉りて而して來る所以なり知らす公等の思ふ所果して如何敢て示教を乞ふ

彼れ筆を執りて答へて曰く

曩日貴國十四大人に遇ふの時公の敎ゆる所を以て亦鄙等に敎ゆ惟ふに公等亦同義の人なるか

余曰く

弊邦の十四人鄙等其誰たるやを詳かにせす想ふに未た相知らさるの人ならん未た相知らさるの人にして其陳ぶる所相同じ是れ弊邦の國論一定の徵證にあらずして何ぞや且つ夫れ更らに一步を進めて之を言はん乎我國實に此の好機に臨み此幸運に乘し公等と相結ひ相計り內外相應して以て一は內政の釐革をなし一は外敵の討伐をなし社稷をして泰山の安きに置き生民をして永く鼓腹擊壤の樂に屬かしめんと欲するのみ

2 출(出) : '산(山)'의 오자이다.

彼れ曰く

弊邦何等の前恵ありて貴國弊邦の爲めに盡瘁する一に斯の如きや聞く貴國途を弊邦に假り淸國を征せんとすと片片恰も雪の飛び來るが如し知らす果して此の事あるなきか

余曰く

貴國と弊邦と其誼一日に非らす古より旣に兄弟の國と稱す且つ夫れ貴國と弊邦と譬へは猶ほ脣齒相依るが如し貴國の存亡引て弊邦の安危に關し貴國の盛衰引て弊邦の隆替に係る前恵後酬何の間あらんや弊邦途を貴國に假りて淸國を征せんとするの說あるが如き是れ三百餘年前の昔譚のみ我兵貴國に來るの意以上已に陳述する所の如き耳

彼曰く

謹て貴敎を承く鄙等素と農を業とする者出てては則ち耒耜を執りて稼穡の業を務め入りては則ち經術を講して義理の道を修む若し夫れ我か宗社に害をなす者あれは肝腦地に塗ると雖とも止ます公の敎ゆる所已に斯如し鄙何そ敢て疑はん然りと雖とも若し公の心と公の筆と相協はさる
が如きあらば咫尺の間當さに血を濺くことを得べきのみ

余曰く

仄かに聞く貴邦人頗る猜疑心に富むと足下にして尙ほ且つ斯言あり余覺にす大息之を久ふするのみ足下若し一點の疑ふ所あらば足下が爲さんと欲する所をなせよ

彼曰く

靈犀相通し肝膽相許す尙ほ何の疑ふ所あらんや但我に在り

ては時機未た到らす暫らく秋來の候を待て再ひ事を擧けんとす其時必らす當さに通信の計をなすへし伏して乞ふ疑ふこと勿れ疑ふこと勿れ

余曰く

謹て貴示を承く余等亦當さに頭を伸べ踵を立てて以て秋風馬嘶の時を俟つべし夫れ兵の勝敗は名の順逆に由ると雖とも抑抑亦武器の鋭鈍に關すること至て大なり鄙貴兵携ふる所の銃砲を見るに多くは是れ火繩銃のみ火繩銃は旣に腐朽に雖し何れの國と雖とも之を川ひず足下若し更らに銃刀の用あらば直ちに當さに之を送呈すべし如何

彼曰く

感甚矣感甚矣今若し貶る所の銃刀を領取せは則ち恐らくは指目の煩あらん他日再擧を圖り其用ゐる所の時を以て亦當さに通信すへし願くは其時を以て惠投せよ如何

余奉均と對談する所殆んと數千言に度ると雖も其概要を摘記せは凡そ以上述ぶる所の如し奉均眉目淸秀其擧止言動蓋し尋常一樣の將校にあらす余等竊かに語りて曰く彼れ全明叔其人にあらすんば必らす帷幕帳中の張子房ならんと後ち兵士の告くる所よりて果して大都所全明叔たるを知る余等の宿志初めて達す當日の快想ひ見る可きなり此日待遇殆んと至らさる所なし夜に入れは端なく簫鼓の音嘹喨として幕中に相和す蓋し朝夕樂を奏せしめて以て心を慰むるもの想ふに全明淑は業に已に全羅道の封候たる懷あらん氣色一に何何揚揚たる

二十一日

余又明叔と昨日の談を繼き問答五六回互に通信の處を指示す明叔甚事あり今午東南の地に向いて去ると想ふに明叔が斯の如く席暖かならす突黔ならさる所のものは實に米錢の徵發に忙はしきが故のみ余竊かに以爲らく余等一面識を以て彼の全幅心を得る固と易きをにあらず彼旣に余等の說く所に服するか如しと鄙と雖も意中尙ほ或は多少の危疑心を抱く者あらん如かす先つ此より別れ更に早く一籌を運さんにはと卽ち相共に別を告く彼贐るに錢十五貫文を以てし且つ馬を出して余等一行を送らんとす余等亦贈るに長短二刀銀貨三金及藥劑二甁を以てす以て永久の交を結ぶ午前九時頃明叔自ら門外に出てて兵を營外に閱す五十余人を一隊となし五隊に分ち⊠字形に排列す巾を纏ひ銃を荷ふの狀甚た笑ふ可しと雖とも司令に應して進退をなし整然相紊れさるの心頗る愛すへき者あり繰練了る各各錢五百文を兵士に給す想ふに兵士の給料ならんか朴永浩鄙萬石金某崔某文某等は皆な明叔以下の將校なりと雖とも與に共に談すへきの材にあらす其他都省察金炳赫省察三十二人ありと云ふ午前十一時共に再會の約を結び馬に乘りて綾州を發し去て羅州管內榮山に向ふ蓋し榮山より韓舟に艤し木浦に出て汽船若くは我か漁舟に乘して以て仁川に至らんと欲するのみ別に臨み道徒より諸托を受くるもの甚た多し其重なるものは則ち日本刀六穴銃及蝙蝠傘の類のみ午後三時四十分榮山に看す舟を尋ぬれとも得す此夜下痢甚た苦む

廿二日

拂曉山縣氏を二里餘の處に派し舟を求めしむ漸くにして之を得正午榮山を發し午後二時電浦に着す十時舟に乘り離別江を下るてと三里盧中に泊す

廿三日

雨甚し船中食ふに食物なく臥するに寢室なし舟中の難陸上の難に勝ること一等

廿四日

午前八時三十分漸く木浦に着す聞く再昨及昨日を以て韓船數隻群山に向て出帆し餘す所僅かに二隻共に是れ珍島行の船のみと當時余等の落膽眞に叱喩すへからす囊裏の旅資將さに竭きんとし途上の困勞日を逐ふて加ふ然れとも事已に玆に至りて終に奈何ともすへからす乃ち共に一段の勇氣を揮ひ陸行群山に向ふに決す直ちに擔夫壹名を雇ふて木浦を發し午後七時務安を去る半里廣石店に投宿す

廿五日

旅資缺乏の故を以て携帶品を三分して各各其一を擔ひ午前四時廣石店を發し午後九時靈光を過く道徒一百余人官廳に屯す余等一行を遮りて喃喃尋ぬる所あり余等當日身體甚た勞れ日脚亦已に落つ一一問に答ふるも煩しきを以て却て大に彼等を叱咤す然れとを終に其功なし卽ち金講會所に於て告くる所を以て又彼等

に告げ漸く熱鬧卣中を遁れて去り拱北門を出て半里一農家に宿す想ふに道徒の余等を停る所以のものは蓋し外人の此地を過くるものあらば必らす其通行の理由を尋問すへき命を受くるものあるに似たり用意の周到なる寧ろ賞すへきものあり都所に遇ふ其名を逸す道徒二千余名ありと云ふ

廿六日

午前五時農家を發し茂長を經午後九時興德を去る一里「アルメアチヤン」酒幕に宿す途上道徒七八名に遇ふ興德に屯集するもの更に凡そ二百余名ありと云ふ

廿七日

午前七時「アルメアチアン」を發し午後八時扶安を過き半里余の處に宿す扶安興德共に道徒屯集すと云ふと雖とも城內に入らさるを以て共數を詳かにせす

廿八日

午前二時四十分宿驛を發し萬頃を過き午後四時群山に着す韓船の港內にある者帆檣林の如しと雖とも一隻の以て仁川に航せんとするものなし余等の心計實に茲に至りて全く盡くされとも天若し余等を棄てずんば不日必らす與ふるに一舟を以てせん加かす是れより默食靜臥して僥倖を萬一に期せんにはと計らさりき黃昏一韓奴來り語て曰く船錢の多寡により公等を仁川に送致すへしと其價錢を問へは則ち六十貫文且つ喜び且つ驚く顧

みれは嚢底一文錢なし其價の高低を論すれは彼飄然として去らんとす乃ち意を決して之を雇ふ至り視れは實に眇乎たる一小舟相顧みて呆然少焉して共に戯て曰く余等既に福島中佐を凌駕す郡司大尉豈に與みし難らんや笑ふて而して舟に乘る此夜苫席の下に無何有の夢を結ふ

廿九日

午前八時三十分小舟に櫓して群山を出帆し午後二時忠淸道庇仁馬梁浦に泊す

三十日

午前五時馬梁を發す八時遙かに軍艦六艘を海霧模糊の間に認む午後九時又軍艦二艘の間を過く何れの軍艦たるを詳かにせす後ち八艘の軍艦共に帝國軍艦たるを聞く十一時舟平薪に泊す聞く日淸艦隊一大激戰ありしと余等少しも之を信せす此日近藤君及余發熱甚た惱む

三十一日

未明平薪を發し仁川沖に泊す途中淸人二名島中に居るを聞くのみ熱發稍稍減す

八月一日

午前六時余等滿腔の愉快と全身の勇氣とを搭載して漸く舟は仁川帝國領事館の下に着す三人相顧みて與に共に海陸の無難を祝

し躍然として身を旅宿水津方に投す問ふに我兵の消息を以てす曰く二十三日我兵韓兵を敗り四十分にして王城を警衛すと曰く二十五日我か艦隊清國艦隊と牙山沖に於て相戰ひ一艘を拿捕し二艘を沈沒せしむと曰く三十日我兵成歡驛に於て清兵と相挑み五時間にして牙山營を陷入るると連戰連勝の報耳を衝て至る余覺へす喟然として歎して曰く遂に孺子をして名を成さしむるか嗚呼余等此行陸行百四十餘里海行七十餘里日を閱すること二十有九日錢を費すこと一百有余圓其の苦辛經營蓋し筆舌の能く悉くす所にぁらす會會問ふに道徒の動靜を以てする者あるも單に一場の茶談に附し去るのみ勞して功なきもの孰れか焉れより甚しきものあらんや知らず道徒が今日に於けるの價値果して斯の如くなるへきか此日水津方に宿す

二日

午前十一時陸軍御用船釜山號に便乘を乞ひ午後十時龍山に着し十一時漢城に入る滿天星斗夜沈沈

余枕に倚り獨り自ら語て曰く我兵海陸の連勝喜ぶ可きは則ち喜ぶへし未た狂して喜ぶ可きの時にあらす朝鮮政府の革新可は則ち可なり未だ寸時も心を緩ふす可きの秋にあらず聞く將卒勇に誇り俗吏功に誇ると抑も何の心ソや對清の事余暫らく措て論せす若し夫れ朝鮮政府の革新は今日果して如何の方針に由り如何の進步をなしつつあるやを知らす群小鼎を弄す餗を覆ゆささるもの古より絶て無くして稀に有る所なり惟ふに新政府は道徒を友として當さに至大の利を見るへきか若し之を

敵となさば當さに至重の害を蒙るに至らざるべきか之を敵とし之を友とす僅かに擒縱一髪の間に在り知らず新政府が道徒に對するの心算已に立や否や

義擧を企つるものは卽ち道人のみと是れ全羅道通有の情識なり故に道人たらずんば義擧に加はるを得ず所謂百有八顆の珠數を携ふるものにして始めて義擧宗の宗徒となるてとを得るのみ義擧とは何そや輔國安民のみ語を代へて言はは則ち民を濟ふに在り所謂濟民義所なる四字は卽ち彼等が用ゆる所の印章なり故に民の害をなすものは皆な彼の敵なりとす敵一にして足らす敵の敵あり敵の又敵あり彼等恐くは單に守令方伯の黜陟を以て足れりとなすものに非らず隴を得て蜀を望む是れ常情のみ且つ夫れ本澄まざれば流淸からざるに於ておや彼等若し糧足り兵充つれは則ち當さに憾天動地の活劇を演するや得て計るべからす今日に在りては余は彼等を以て彼等自身に革新黨たるを得ると言はず然れとも余は斷して言ふ尙ほ彼等をして革新黨たらしむることを得べしと全羅道全州を去る三里以南以西以東は旣に大都所全明叔の命是れ從ふ者のみにあらずや忠淸道木川以南の地道學を奉するもの十中八九或は多少性情の異なるありと雖とも旣に今回相戮力する者ぁるより之を推定せげ今後與に連絡を共にする得て難にあらず想ふに慶尙江原亦多少の道人あらん彼等は稱して吾徒一百萬人ありと云ふもの素と浮誇の辭に過ぎすと雖とも道學を奉するもの日に日に新に加ふと云ふを以て見れば其徒蓋し少小にあらさるなり

曩日羅州の牧使故なくして道人三十二人を殺害す部下の者

直ちに討て之を誅せんとす明叔之を止む蓋し思らく農は國の本なり五六月の交は則ち農事の尤も至要なる時節なり此際に當り若し一旦兵を動かす濟民の意に戻るや大なり且つ糧食を得るの法立たす加かす秋收の候を竢て事を擧けんと此れ如今明叔が各邑を輪回し一方に於ては金錢を徵發して以て他日の度支に備へ一方に於ては隱德を施敷して以て百姓の聲望を收むるに是れ汲汲たる所以なり顧みれは天下の形勢全く豹變す知らす新政府に對する彼等の情感果して如何

新政府の施設恰も坦坦水の流るるか如く行かば則ち止む苟も民の意に觸れ民の心を害し竹槍席旗の四方に起ることありとすれば恐くは道徒此れか動機となることを豫め覺悟せざるべからざるなり知らす新政府の視る所果して如何暫らく默して今後の成行を視ん時に起て窓を開けば半天雲起り夜色暗憺

右 海浦篤彌手記

日清交戦錄

1號 日清交戰錄發刊の主趣

東洋の一大禍機は破裂したり。鴨綠江の畔。渤海灣の外。日本陸海の大軍已に之に臨む。是れ此戰や堂堂大日本帝國の戰にして。東洋興廢の繫る所。決して一時の私忿に出でたる戰に非ざる也。

神功の征韓。豊太閤の征明。其迹。炳焉として千古を照らすものありと雖。我皇の赫怒。國民の公憤に發して。堂堂正正。萬里外征の大師を興せるに至ては。則ち今日を以て始と爲す。其名正。其義嚴。而して三軍の勇敢。戰陣の熟練。隊伍の整齊。器械の精鋭なるを以て。戰へは必ず勝ち。攻れば必ず取り。向ふ所前無く。終に大捷を制せんこと。日を刻して待つべき也。

然りと雖。大日本帝國の戰は。大日本帝國國民を擧て王の愾に敵せざるべからす。愛國の大感情を鼓舞して。兵の氣を興さざるべからず。是れ國民の本分也任務也。

朝鮮の獨立を護するは世界の公道也。淸國の暴橫を征するは。天下の正義也。我帝國は公道と正義とを楯として以て敵に臨む。之を以て斃れて後已むも亦一國の名譽を失はず。況んや我兵の勇武なる百戰百勝。淸京を擧ぐる。其豫じめ期する所たるに於てをや。

吾人。爰に日淸交戰錄を發刊する者。一は以て國民をして此戰鬪の東洋の興廢如何に關する所以を知らしめ。一は以て國民愛國の大感情。敵愾の大精神を鼓舞作興し。其本分を竭さしめんとするに外ならず。而して吾人も亦誓て帝國臣民たる任務を竭さんことを期する者也。

日淸交戰錄第一號

論說

日淸開戰論

東洋振興の天職を負ふものは誰ぞ。印度を看ずや。安南を看ずや。緬甸を看ずや。中央亞細亞を看ずや。滿洲の山河は舊に依て異なるなきも。社稷果して安くに在る。國家果して安くに存する又彼の暹羅を看よ。佛國の兵は境上に在るに非ずや。今の朝鮮を看よ。强隣の露鷲之を攫まんとするに非ずや。知らず東洋振興の事。誰れか之に任せんとするぞ。』

東洋に邦して。獨立の强國たる者。我日本と支那帝國あるのみ。而して東洋振興の天職を負ふもの。亦此兩國也。故に此兩國なる者。理に於ては宜しく輔車脣齒の關係あるべく。しかも睚眦相報ゆるが如き事あるべからず。 然れども勢に於ては。則ち太た不可なるものあり。何ぞや。天に二日無しと同しく。東洋亦二個の盟主あるべからざれば也。日淸の關係。我れ彼を殺さすんば。則ち彼れ將に我を殺さんとす。我れ彼を降さずんば。則ち彼れ將に我を降さんとす。是れ三十年來日淸兩國對峙の勢。決して今日に始まるものに非ず。而して今日に至て其開戰を見る。吾人は却て其遲しと言ふを憚らざる也。

元寇の難。文祿の役。今姑く言はじ。維新以來我と淸國との關係を看るに。 常に敵國の位置に立てり。 琉球は我版圖也。而して彼れ以て我屬邦なりと主張し。我琉球處分に反對したり。臺灣は彼が化外の民なりと公言せる地なり。而して我の其罪を

問ふや。彼れ口を屬邦の名に藉り之を拒みたり。朝鮮は我れ之を認めて獨立國と認めたる國也。而して彼れ亦我屬邦なりと稱し。其內治外政に干涉したり。十五年に十七年に。彼我衝突し。殆と將に開戰に至らんとせしは。我國民の恍として猶昨日の想を爲す所にあらずや。淸國は地圖より云へは我と脣齒の國たりと雖。其利害より云へば敵國たる也。

日淸の戰端は何か爲に起りたるか。世人は以て東學黨の變に基つくと爲す。然れとも是れ皮相の見のみ。淸國の兵を朝鮮に出したるは。辭を屬邦の拯難に藉ると雖、彼れは日本の勢力をして一步も朝鮮半島に加ふることなからしめんが爲なるのみ。日本の勢力をして一步も朝鮮半島に加ふること無からしめんとするは。卽ち朝鮮屬邦の實を擧けんか爲め也。朝鮮屬邦の實を擧けんとするは。東洋の覇權を占めんするが爲め也。日本は之に反して。東洋の爲に朝鮮の獨立を護し。以て淸國の勢力を朝鮮半島より滅絶せんとするに在り。而して淸國の勢力を朝鮮半島より滅絶するば。東洋の覇權を我に占めんが爲め也。然らば。則ち日淸の交戰は。東學黨の變に基つくと雖。日淸兩國三十年來勢力競爭の結果なりと謂はさるを得ざる也。

然りと雖。淸國は東洋の平和を破るの國也。彼は侵略的慾望を文雅談笑の際に藏し。機に乘して以て爲すあらんとす。朝鮮を以て我屬邦たりと公言し。兵を出して屬邦の實を擧げんとせしか如き是れなり。是れ其意の在る所。東洋の平和を保たんとするに非ずして。東洋の平和を破らんとする者。我れ安ぞ東洋の平和の爲に東洋の振興の爲に。其天職を竭さざるを得んや。

天職とは何ぞ。清國を膺懲して。其暴威を挫き。東洋の平和を保維すること是れ也。

清國は。漫然朝鮮を以て屬邦と爲し。東洋の盟主たるの慾望を懷くと雖。其國の政治家宇內の大勢に通せず。其最大多數は猶醉生夢死の中に在る也。若し彼をして萬一其慾望を達するを得せしめん乎。則ち東洋諸國は其侵略を蒙り。東洋の平和と文明とは永劫期すへからざらんとす。左れは今日我の清國と戰ふは。獨り其我に不禮なるが爲のみならず。亞細亞を拓回するの天分に於て。東邦の平和を保維するの任務に於て。萬萬已むべからざるが故なるのみ。

人は云ふ。東洋の大勢を一振して歐洲に對峙せんが爲には。日清兩國相聯合すべく。決して相爭ふべからずと。然れとも是れ太平肉食者の言のみ。相合すべくして合し。相爭ふべくして爭ふは。大丈夫の事。國も亦然り。齊しく是れ亞細亞人種なりと雖。齊しく是れ同文の國なりと雖。其平和を破る者は、安そ之を膺懲せさるを得んや。而かも況んや我の清國と戰ふや。之を膺懲するに在りて之を征略するに非ざるをや。

且つ夫れ亞細亞の大勢より之を考ふるに。清國の如く國勢分裂。施政蒙昧。國民腐敗。而かも傲慢頑陋。毫も進步作新の元氣なき國を以て。安ぞ亞細亞の振興を望むべけんや。故に我日本帝國が其天職を奉して。朝鮮を開導し、清國を膺懲し。其弱は之を扶け。其强は之を挫き。延て以て東洋進取の地盤を固くし。將來亞細亞諸國を革新せしむるもの。是れ其一大任務たらずんはあらず。而して東洋の盟主は。自ら我帝國の握中に在

らん。』 普漏士の雄を歐洲に稱するや。 必ず先つ丁抹を破り。墺國を破り。 南北獨逸を統一して其盟主と爲り以て佛國を破り。然して後歐洲盟主の權を握れり。日淸開戰の避くべからざるは、三十年前。普墺戰爭の避べからざるが如し。而して日本が淸國と戰ふは。 義戰也。 我精銳なる陸海軍が。 芝罘威海衛を衝き。天津北京を陷れ。彼をして和を我に請はしむるの日は是れ我國が東洋盟主の權を執るの時也。

朝鮮の新興と東洋の平和

朝鮮は漸く將に復活せんとす。何ぞや。朝鮮革新の機正に今日に熟すれは也。朝鮮の腐敗する者。殆と其絶頂に達したり。其國家は獨立國と稱すと雖。 獨立の元氣無く。其君主は柔懦にして宦官の爲に制せられ。其人民は愚弱にして特殊の精神氣象無く。政權分裂。 人心離散。國防全く廢弛して境上を守るの兵無く。海岸長大なりと雖。一隻の軍艦。一個の軍港を有せず。財政紊亂。其歲出入に定額無く。 國民敎育の基礎確立せず。 學校の設け無く。 鐵道航海等運輸の便。 一切杜絶して。 殖産事業更に發達せざる。是れ朝鮮の現狀なりし也。世論は朝鮮の獨立を唱へり。 知らす朝鮮其れ自ら絶て獨立の元氣無きを各國の前に示したるに非ずや。

豈啻に然るのみならんや。淸國は公然朝鮮を以て中國の屬邦なりと稱し。 彼の袁世凱なるものをして朝鮮を其掌上に弄し。縱橫自在に其政權を左右せしめ居りしに非ずや。而して朝鮮其

れ自ら清國の屬邦たるを甘んじ。其冊封を受け正朔を奉じ。大に事ふを以て主義と爲すに非ずや。朝鮮は外に對して獨立の空名を表すれとも。其實。亡國の位置に在りしにあらずや。

然りと雖。 朝鮮は東洋の關門也。 日本帝國の北面外郭也。清にして朝鮮を以て其屬邦と爲すときは。東洋の平和。清の爲に破られ。露にして朝鮮を以て其附庸と爲すときは。東洋の平和。亦露の爲に破られ。東洋列國の權力。一日も其均衡を保つこと能はざらんとす。故に朝鮮の獨立を害する者は。力を盡して之を排斥せざるべからさること。固よりなり。

宇內强國對峙して雄を爭ふや。必爭の要地あり。卽はちボスホラス海峽の黑海に於る。ジブラルターの地中海に於る。ヘラツトの中央亞細亞に於る是れなり。而して朝鮮の東洋支那海に於るか如き亦然り。故に此の如き要地は。之を守り之を占むるに十分確乎不拔なる國是と。强固なる國力とを有する國民に非されば能はず。然るに。今此の如き要地に居り。形勝を占むるの邦國にして。其紀綱全く衰頹し。其民心全く離散し。其國防全く廢弛し。 到底其獨立を保つこと能はざるものあらんには。果して如何と爲すか。其國に隣する者。安ぞ嚴格に之を保護し。其平和を保維する所以を謀らざるべけんや。

今や日本帝國は東洋の平和の爲に。兵を朝鮮に出して。清國の干涉を排斥し。其獨立を保護せんとせり。而して朝鮮政府は。我國の要請を容れて。著著。其改革に着手せり。是れ豈朝鮮復活の時にあらざらんや。

朝鮮の腐敗。其絶頂に達し。殆と獨立すること能はさるか

如くなりと雖。是れ施政其當を得さるのみ。而して其蠹毒たる閔氏一族。事大主義一派其跡を拂ひ。大院君執政と爲り。革新黨の人物。各其要路に列し。鋭意して改革に着手せるに至りたれば。統一の治。作新の政。創業の風。斯王國を建設する豈致し難からんや。日本帝國は。其改革に對し。責任を以て之を成就せしめざるべからず。何ぞや。朝鮮の革新は。東洋の平和の爲めなれば也。東洋の平和を保維するは。日本帝國の一大任務なれば也。此一大任務は。是れ日本帝國の獨立の爰に必要な。

朝鮮の獨立と東洋の平和とは。二にして一たり。朝鮮にして獨立せずんば。則ち東洋の安危測るべからず。東洋の安危測るべからずんば。則ち日本の安危も亦未だ測るべからず。故に鷄林八道の山川は。東洋の爲に之を保護し。朝鮮政府は東洋の爲に之れを革新し。東洋百年の計を定めざるべからず。而して是れ日本帝國北面の外郭を固むる所以の道也。

日本帝國は朝鮮を開導し保護し。之をして獨立の實を擧けしめざるべからず。而して朝鮮は今日自ら新興國の規模を以て政治經濟兵事一切の革新を謀り儼然東洋に獨立すべき時にあらずや。

今日朝鮮政府が、其前途に於て經營し又は擔當せざるべからざる者、內外多揆、其緊要なる者一にして足らずと雖、其特に重大なる問題は、左の如し、

（第一）王政統一の實を擧げ、大權を朝廷に收め、現在は勿論、後來と雖、一切淸國の關涉を杜絶すべき事、

（第二）國政の作新と同時に士氣の振興を謀り、外、淸國の冊封を謝絶し、內、草莽有爲の人才を拔擢し、大に弊政を打破すべき事、

（第三）日本より內外の大勢に通ぐ膽識兼優なる第一流の顧問官一人を聘し、大に內治革新の實を擧ぐべき事、

此三者を實行せば則ち其國は堂堂たる東洋の一大獨立國也、區區たる官制の改革何を以て此國を垂死の域に救ふことを得んや。

戰紀

韓京の一小戰（日韓兵の衝突）

七月廿三日。日韓の兵。韓京に於て衝突し。日本兵。韓兵を擊て之を走らす。

日新韓衝突の原因

是より先き朝鮮に於て東學黨の起るや。淸國は辭を屬邦の拯難に藉りて兵を出し。日本も亦同時に兵を出したり。蓋し淸國の意は朝鮮の內亂を奇貨と爲し。乘じて以て屬邦の實を擧けんと欲するに在り、之に反して我日本政府は與國友邦の不幸を憐み、助けて以て其弊政を改革し玆に獨立の名實を擧けしめんとし、淸國政府に照會するに左の如く申入れたり。

日淸韓三國は其土壤相接近し。其關係輔車脣齒も啻ならさるを以て朝鮮の禍亂は直に貴我兩國の利害に及ぶべし。而

して朝鮮の時事日に非にして危機一髪なるは亦貴國の知了する所ならん。仍て貴我兩國の協議に依り。韓廷に向て諸般の制度を改善せしめ。大に自治を釐正せしめ。將來の禍根を斷ち百年の大計を定めしめんことを韓廷に勸告せんと欲す。是れ我に他意あるに非ず。唯朝鮮の獨立を幇け以て東洋大局の平和を保維せんことを希ふのみ

淸國政府は此の如き眞摯懇到なる申入に對して。左の如く我に答酬し來りたり。

東學黨已に平定したり。最早互に留兵の必要無し。仍て我兵を撤回せしむべければ。同時に貴國兵をも撤回せらるべし。又韓廷に對する貴我兩國の勸告の協議には應すること能はす

是よりして我帝國政府は獨力を以て。朝鮮政府に向て改革を勸促するに至れり。而して大鳥公使が朝鮮政府に申込みたる內政革新の要領は左の如しと云へり。

第一條　中央政府、判制度以及地方制度、酌宜釐定、人材亟宜選拔事

一　有司百官の職守を申明す

凡內治外交の機務に涉るものは統て之を議政府に歸し掌理せしむること故の如し六曹判書は責を分ち職を司り世道の革新を期すと雖も舊制に遵ふ

內府の庶務と治國の庶政とは劃然區別するを要す所

屬の有司は一切の國政に關與するを得す

一 外務當局者たるものは簡一なるを要す故に權責共に重きの大臣を以て之を掌らしむべし

一 行政諸官衙必用缺くべからざるものは之を存すべし有名無實のものは之を裁せよ其他廢合務めて煩を去り簡に從ふべし

一 現時州府郡縣の區劃過多に似たり宜しく酌量併合を行ふべし但し治に害なき範圍內に於て

一 大小官吏任を分ち職を司り必ず欠くべからざるものは之を存し冗員は宜しく沙汰すべし

一 舊來の格式を破りて廣く人材を用うるの途を開くべし

一 賣官は弊端の生ずる所痛く之を禁止すべし

一 大小官吏の俸祿は時宜に因り斟酌し其額を明定して廉節を養ふべし

一 大小官吏の收賄に關する諸弊は法を設けて嚴禁すべし

一 大小官吏地方官の私利を營み情實に流るるの弊は法を設けて矯正すべし

第二條 財政宜整富、審查明確、以昭定制

一 國家の出入賦課は宜しく審查明覈して昭かに制度を設定すべし

一 會計出納の政務は正準を明かにすべし

一 貨幣制度は亟に釐定すべし

一 各道の田畓は其の數額を明らかにし租賦を釐正すべし

一 各項租稅の法を釐正し併に稅源を開くべし
一 支出の緊要ならざるものは概ね減省に從ひ其增加すべきものは力めて請求すべし
一 官道通衢宜く修繕推廣すべし併に京城と要害の口岸間には鐵道を布設し各道州縣の間は電線を通じて往來交通を便にすべし
一 各開港場の稅務は一切自國人に管理せしめ他國の干涉を容すべからず

第三條 整頓法律裁判之法、亦須酌定事
一 從來の法律時宜に適せざるものは概ね改正し或は時宜を參酌して別に法章を定むべし
一 裁判の法を釐正して司法の公正を申明すべし

第四條 兵備警察、丞宜整理以奠國內變亂、併可保持國家綏審事
一 士官の養成を爲すべし
一 從來の兵丁は概ね改革し財力の許す限り新式の兵隊を設くべし
一 警察の設立は尤も緊要に屬す京城より各道に至るまで嚴に章程を明め衛署を設くべし

第五條 學政各務宜酌定事
在ては小學校を分設し童幼を教育すべし
一 小學の設漸く端緖に就けば尙ほ規摸を擴張して中學大

學を設くべし

一 生徒中英俊なる者は撰抜して外國に分遣して遊學せしむべし

右の五大綱二十六目の改革案は七月十日第一回の改革委員會に提出せられたるものにして當日は遂に要領を得ずして閉會し更に其翌十一日を以て第二回の委員會は老人亭に開かれたり當日の提議案なるものの大要なりと云ふに

凡そ日期を限りて施行を要する者は。是亦た我政府の勸告に係る者也。其勸告に從ふと否とは一に貴政府の權內に在り

◎ 左の件件は三日內を限りて議定し十日內に準じて擬定施行すべし

一 凡そ內治外交に涉るもの。京城より要岸海口に至る鐵道電信興修の件

但し此末條鐵道電信の兩工事は十日內議定の後其工科等の畢く備はるを俟ち分別工を興すべし

◎ 左の件件は六箇月以內に議政をして施行せしむべし

一 各官署の職掌より稅務に至る件

◎ 左の件件は兩年內に準じて施行を擬定すべし

一 各區の田杳[1]より生徒中俊秀に至るの件

以上

1 묘(杳) : 답(畓)의 오자이다.

兎に角に朝鮮政府は。 大鳥公使の要請を容れ。 大體に向て承諾の意を表したれば。大鳥公使よりは更めて朝鮮政府に向ひ。然らば其旨をば別に公文を以て確答あるべし』と要請したり。然るに何そ計らん。 其十九日に至り。 朝鮮政府は我に對して其改革の要請を拒絶し來らんとは。 其拒絶の理由とする所は左の如し。

> 弊邦若し貴國の要求に從はん乎。 各國も亦た陸續兵を出して要求する所あるへし。弊邦甚た之を病む且つ貴國の兵を弊邦に駐むる民心動搖物情恟恟として。 殆んと之を鎭綏する所以を知らす。
>
> 故に願くは此際斷然貴國の兵を撤回されたし。然る上にて弊邦の改革は任意に著著實行す可し。

是れ其飜覆は卽ち朝鮮の事大黨一派が淸國の應援を恃として。我に抗せんとしたる者なり。大鳥公使は朝鮮政府の飜覆より。更に歩一歩を迫めて嚴しく手詰の談判を爲したり。其談判の要は左の如し。

> 明治十七年の條約に基き我軍隊の爲めに兵營を建築すべし
> 屬國保護の名を以て淸國兵を駐むるは獨立國たるの體面に關す宜しく撤兵せしむべし
> 若し二十二日を期し之か確答を爲さざるに於ては我より韓廷の改革を强行すべし

二十二日は是れ最後の決答期なる■。 朝鮮政府は何等の決答無

きより。翌廿三日我大鳥公使は王城に向ひ。日韓の衝突玆に起りし也。

我日本軍隊

廿二日夜。帝國公使館にては。人馬の往來織るか如く。同時に龍山に於る軍營の動靜如何と看れば。○○○○○已に結束して起たんとするものの如し。俄にして命令は軍隊に下りたり。

明廿三日午前四時より行軍すべし。

と此命令の下りたるは實に夜半前なりき。

鷄鳴曉を報し。京城の四門纔に開がれたるの頃。吶喊の聲は響けり。而して王城の四面は既に我軍隊を以て繞らされたり。恰も是れ午前五時にてありしなり。

我兵韓兵を走らす

我兵は王城內に入らんとし。分ちて二隊と爲し。橋本少佐は一隊を率ゐて正門なる光化門に當り。森少佐は後門なる彰化門に向ひたり。而して正門の一隊は先つ門前に構へたる親軍壯衛營に駐屯せし韓兵を吶喊の聲の下に逐ひ散らし。勢に乘して門壁を摩し銃床を亂敲しつつ連りに吶喊すれば後門の一隊も之に應して鯨波を作り。或は空砲を發して靠き渡れり。是より先き我兵の王城に向ふや嚴戒して曰く王城は國王殿下の居城也。妄に暴發すること勿れ。我兵は城內の韓兵を逐へば。則ち足れり。故に濫に發銃すべからず。必ず恐嚇を以て守兵を走らしむべし。

若し彼より發銃せば。則ち已むなく之に應ずべしと。因て前門後門。暫しは吶喊の聲を以て城兵を逐はんとせしなり。然れども城に據りたる韓兵は容易に退くべくもあらず。剰へ後門の守兵は我兵の敢て逼らざるを見て二三發を鳴らして我兵に挑みたりければ。『進めの號令』は此刹那に勇氣を鼓舞したり。轟轟の音は閃閃の光と相應し叫喚の聲山岳に震ふ。○○○○○○○○○○○○○○○○○○○○○○○○○○○○○○○○○○○○○。　○○○○○○○○○。尋て我兵は悉く城内に入り。守衛の韓兵を見當次第逐ひ捲くり。宮殿指して進みたり。怯懦なる韓兵は倉皇狼狽出つる可を知らず。我兵に向て少しの抵抗をも爲し得ず。銃器を狼藉したるまま西へ東へ遁走し。適ま我兵の捕るる所と爲れば合掌地上に拜伏して命を請ふのみ。我兵は大抵之を麾て城外に去らしめ。而して正門の二層樓上には早くも我大隊旗の飜へるを見るに至れりと云ふ。

我兵王城附近を鎭定す

○○○○○○○○○○○○○○○○。是に於てか我兵は四門の守衛を嚴にし其一隊を以て其附近を略定せんとし。○○○○○○○○○○○○。○○○○○○○○○○○○○○○○○○○○○○○○○○○○○○○○○○○○。逐に右營左營の韓兵をも擊て之を走らし全く京城内を鎭定したるは其日の黄昏頃にてありき。

韓兵苦戰の場所

此日の事變に韓兵の苦戰したる狀あるは三春門内を以て稍や太

甚しと爲す。門內に入りて隆武堂左右の廊廓を見るに履は階上に在り。冠は地に委して家具散亂せり。又同處には韓兵二人の死骸横はり一は鼻を貫かれ他は胸部に出血して斃れ居たりと云ふ。

交戰地

眞の交戰地と目すべきは神武門外七八町程の芝生に在りし。同處は隆武隆文の兩堂を觀豊殿の間に圍まれたる處なり。同處に屯したる韓兵は恰かも我兵の此に來るを待受けたるものの如く。我兵の廣場に顯はるるや一聲に小銃を發射せり。右の發射は我兵の側面に當りたりければ彼等に取りては非常の利益を得たるなるべし。

此交戰中に。我兵に取りて其最とも危かりしは觀稼門外に十餘人の韓兵ありて二門の大砲を動かしたるの一事なり。我兵は疾く進みて其四人を斃し十人前後を走らしたり。扨て其砲を檢するに二門とも爆裂彈にして。一門の大砲は旣に裝藥を■りたるものの如し。　若し我兵にして至ること五分間遲かりせば多少の死傷は必ず免れざりしならんとなり。

韓兵の實數

韓兵の實數は未だ詳ならずと雖。五六百以上の兵なるべし。而して其半數は戰はずして砲聲の起ると共に逸早く逃れたり。
韓兵の一半は後の山の中腹に據て暫時支へたるも其敵すべからざるを知り。銃を築て塀を乘り越て皆三角山に逃け込みたりと云ふ。

彼我死傷の數

韓兵の死せる者十七名。 負傷者六十餘名。 而して我騎兵卽死一名。 負傷は步兵二名のみに過きさりき。 又分捕の大砲十五門。小銃千挺以上なり。

機關砲ノ如キ頗フル鋭利タリ又小銃モ「レミツトン」ノ外ニ佛式クラ銃四五百アリ(此クラ銃ハ頗ル鋭利ニシテ目今佛ノ常備軍ハ此連發銃ニ携帶ス

戰勝餘聞

大鳥公使の參闕

大鳥公使は事無く王城に入り。 頓て國王の謁見を許され備さに日來の始末を奏したるに。國王には或る事情の爲に遮阻せられて貴國の好意に戻りたるを愧つ。予は弊政の改革を感する切なるを以て必ず盛意に副ふ所あるべしと陳べ。公使は誠を披き我政府の意志を致したり。

6號 日韓兩國攻守同盟

日韓同盟……とし云へば、朝鮮は、然も一大獨立王國の如くにこそ、聞ゆるなれ。 然れとも、其實は、赤子と大人との同盟に均しきのみ。大病老人と、大壯健男子との同盟に均しきのみ。是れこそ、我大日本皇國が、東洋無雙卽ち世界無比の義俠的勇武を以て、世界萬國競爭場裏に、向て、儼然として、顯はれ出でたる所の活劇第一幕の文句なれ。……其盟約文句は左の如し。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

大日本大朝鮮兩國政府は日本曆明治二十七年七月二十五日朝鮮曆開國五百三年六月二十三日に於て朝鮮國政府より淸兵撤退一節を以て朝鮮國京城駐在日本特命全權公使に委託して代辨せしめたる以來兩國政府は淸國に對し旣に攻守相助くるの地位に立てり就ては其事實を明著にし併て兩國事を共にするの目的を達せんがため下に記名せる兩國大臣は各各全權委任を奉じ訂約したる條款左に開列す

第一條 此盟約は淸兵を朝鮮國の境外に撤退せしめ朝鮮國の獨立自主を鞏固にし日朝兩國の利益を增進するを以て目的とす

第二條 日本國は淸國に對し攻守の戰爭に任じ朝鮮國は日兵の進退及其糧食準備のため及ぶだけ便宜を與ふべし

第三條 此盟約は淸國に對し平和條約の成るを待て廢罷すべし

此れがため兩國全權大臣記名調印し以て憑信を昭にす

大日本國明治二十七年八月二十六日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大朝鮮國開國五百三年七月二十六日

外務大臣 金允植

日韓兩國攻守同盟條約

日本は其兄國たり。朝鮮は之が弟國たり。兄弟同氣以て互に相援ひ相護るは、固より當然にして、怪むに足らさること勿論なり。本月十一日の官報を以て、日韓攻守同盟條約書は、之を中外に公宣せられたり。」……

惟ふに、朝鮮は、既に本年七月を以て、斷然清廷と其交を絶ち。而かも、我日本帝國に托するに其領地領海に於る清兵撤去驅除放逐の事を以てす、是れ朝鮮は固より既に支那と敵たるの事實を顯はしたる者なり。然は則假令此攻守同盟の成文條約なる者無しと雖も、實際に於ては則十分同盟たりしことは明らか也。……抑も此攻守同盟は、元と陰險蚕食的野心に出でたる者に非ず、他無し。唯是れ韓の獨立自主を、保護し。以て、永久獨立の基を鞏固にするの目的に出づるが故に苟も韓の獨立自主を鞏固にして宗國を僭稱する清の干涉を絶たば其目的や遂げたりと謂ふべし帝國の俠固より攻守同盟の名の下に保護國の實を行はんとするものに非ず誠に韓の眞に獨立自主の邦たるを欲するが爲に兵を出して力爭するのみ則ち清兵境外に退きて復た再來の勢なく從て韓の內地に干涉するの能力を失はん乎永く此條約を存して隱然保護國の任を取るの猜疑を招くの要なし。』

然れども若し之を以て清兵だに境外に逐攘せば則ち我が攻守の任足るの意なりとせん乎是れ大謬なり帝國の朝鮮の爲にする猶清兵の撤退を以て足れりとせず必ず清が再び兵力を挾みて自稱宗國の權威を振ふなきに至らんことを期す乃ち帝國の清に對する交戰的干繫に至てはたとひ彼れを覆滅せざるま

でも彼れが屈するまでは斷じて進行せざるべからず則ち清兵遠く韓疆を離れて我軍長驅之れを追ふに方りても韓は我兵の進退及び其糧食準備の爲に及ぶ丈の便宜を與ふるの義務あるや固より疑を容れざるなり第三條に於て本約廢罷の日を清兵韓境を撤退するの時と定めすして淸國に對し平和の條約成るの時としたるもの亦蓋し之が爲ならんのみ而して平和の條約なるものは素より彼れ屈して媾和したるの條約たるべきは固より喋喋を待たず。』

且つ夫れ支那は、今回北京城の陷落と共に一時大に屈服するとも、他日重て朝鮮を侵略すること、必ず之れ有らむ。故に豫め此覺悟無かるべからず。』

• 朝鮮の暴徒(二十五日午後一時廣島發)

安東ホウサンにて三千人の東徒我が偵察兵を襲へり

• 東學黨の動靜(九月二十五日午後四時二十分釜山發同七時十五分廣島着廣島)

東學黨の先鋒五十餘名竊に大邱に入込み尙ほ追追來襲の兆あることを探知せる旨の報あり

• 韓民我兵站官を殺す(釜山九月二十五日午後一時特發)

安東近傍に蜂起したる東學黨偵察の爲め派遣せられたる竹內少尉及び兵卒一名は暴徒の襲擊を蒙り竹內少尉は咽喉部を斬られ

て死亡し兵卒は暴徒に捕はれ兩手の指を悉く斷たれたるも幸にして台封に逃れ歸りたり

• 東學黨の襲撃（廿五日午後一時八分廣島發）

安東封山の東學黨は我が偵察兵を襲ひしが尙ほ聞く所に據れば安東封山は共に台封の東方にありて此の地方に三千人の東學黨起り日本軍を襲ふ目的にて台封の兵站部司令官より急報頻りなるゆゑ二十三日夜偵察を出し二十四日又台封より二里半の地まで副官を出したるに果して東學黨に襲はれたりとの急報あり依て直ちに近傍の司令部を警戒し洛東より援兵として守備兵及び工兵を繰出すことを命じたり

12號 東學黨首領訪問記

東學黨の情狀探究目的を以て去月十日同黨首領を全州に訪問したる某氏の筆記左の如し

本月二日龍山を發し廣州、利川、竹山、鎭川、淸州等を經て九日全州に着し東學黨の首領を以て世に聞えたる金鳳均を全羅監營に訪ふて翌日金の使人に導かれ布政局の後房に於て面會し三時間の筆談を爲す

金鳳均一名を全明叔といふ余面會のときは金と稱す蓋し金は實姓にして全は假性ならんか余は房に入り筆を執り姓名を通じ或友人より曾て其人物と抱負を聞き渴仰の念に禁へず今回京城より來り訪ひたる旨を告げ次で余の素志と東洋の現勢、朝

鮮の實情、眞正倫理の主義眞正經濟の主義を述べて以て今日に處する方法手段を論じ金の教示を乞ふ金も亦再三辭すれども聽かず卽ち余の渡韓以來感する所を擧げて之を語る金の語る所大抵左の如し

我等唯閔家の一族が要路に在り威權を弄し私福を擅まにするを見て慷慨に堪へず年來同志を糾合して之を斥けんと欲し屢屢政府に臻りて之を訴へしも一切採用せられず是れ閔家内に在りて我等の訴願を杜塞し殿下に達せしめざるものと思惟し遂に君側の奸を除くの名義を以て兵を起せしなり然るに我等の擧兵量らずも其媒介を爲して今日日淸の兵爭を朝鮮に見るに至りしは我等が千秋の遺憾とする所なり幸に日本高義を以て屢屢我政府に勸告し其餘力を擧げて我國の爲めに盡瘁せらるるありて旣に閔家を擯け大院君を起し弊事を改めて政法を正さんとす我等の素望多くは達す我等是に於て飜然圖を改め正業に復す可きなり然れども日本の爲す所、大院君の爲す所我等未だ其詳細を知りて心を安んずる能はざるものなしとせず故に僕は務めて同志の紛起を制すると同時に我政府の動止を知らん事を願ふなり曩日公(余を指す)の知人數輩と相會して縷縷其教諭を■り實に宿昔の迷夢を一散す今日亦公の來訪を受け大に僕の知見を增す感激何ぞ止まん

余問ふて曰く

足下は忠義の士其日本の爲す所、大院君の爲す所の詳細を知る能はざるが爲めに未だ心を安んずる能はすと云はるるは僕の實に感ずる所なり唯朝鮮今日の衰弊を致すを以て一に閔族

の所爲の如く云はるるは僕の解する能はざる所なり蓋し閔の亡ぶるは亡ぶるの日にあらず其衰ふるは衰ふるの日にあらず朝鮮の今日あるは數百年來政法の弊事頻りに起るも之を革新する者なく徒に舊株を守りて世界の大勢を達觀する能はず因襲の久しき遂に此悲むべき境遇に沈みたるなり閔族の所爲惡むべしと雖ども是れ只糞中の蛆のみ公糞を攄て之を捨つるを思はず徒に蛆を殺さんとす僕公の爲めに之を惜む

金答へて曰く

誠に貴諭の如し糞を捨つるの策僕の未だ講ぜざる所是を以て迂拙と笑はるるとも固より辭せざるなり願くば公の說を聞かん

是に於て余は更に縷縷陳述する所あり金終始默視(余の紙に書するを視るなり)し余の陳べ終るを待ち膝を進め顔色を變じて曰く貴諭の如きは臣子の口にすべき所にあらず若し之を實行せば大義を如何せん名分を如何せん

余は尙ほ金の深意を詳にせざるを以て李成珪の傳(余渡航の際諸書又は人の口傳に依りて編纂せしもの)一通を懷より出して之を示す金默讀二三行にして忽ち余に返して口を噤し座を起たんとす余其袖を惹て之を止め筆を揮て聞足下常唱王道好讀書經、殷湯周武果爲何事と大書す金再び坐に就きて熟視する少時默默復た語らず然れども其眼光自から常ならず或は余の面に注ぎ或は他を顧み昏頭微動す

是より話頭を轉じ全州覆落の時の景況又近日噂する東徒再起の眞僞を問ふ金曰く全州を遁るるは京軍に抗するに忍びざるものあるを以てなり東徒再起は僞なり彼の州縣を横行する

者は我同志の名を盜むものにして我等の關知する所にあちず云云

更に西洋の事情を問答し其饗する酒肉を喫し別を告げて門外の旅舍に歸る

十一日昧爽金余の宿に來り余の面前に於て昨夜の筆談書を裂きて火中に投じ韓錢十束許を送る余は辭して受けず午前十時全州を發す此朝亦余と筆談す事は日淸戰爭の理由と始末とに屬す

全州より龍潭に赴く釜山商人に信書を托せん爲めなり更に全州に歸り再び淸州に出で歸京の途に就かんとせ■も故ありて路を轉じ報恩化寧等を過ぎ十五日尙州綾巖里に崔時亨を訪ふ在らず金の紹介狀と一簡を遺し去る聞慶を經て馬岑を超え齒冬延豊忠州を過ぎ昨二十日午後六時京城に歸る

此行實は舍弟の消息を知らんが爲めなりしも途上にて弟の友人に逢ふて心を安んじたり金訪問の如きは第二の目的なりしも今日より之を思へば金の訪問のみの如き有樣となれり

金の風采は年齒四十許、面稍方、疎髯長く垂れ眼中一種の異采あり書するときは口中微呻を發し細に玩讀して而して後之を余に示す

智見は廣からざるも韓人には珍らしき博識者なり是れ常に好んで外人に接して之を聽けるものならん

頗る胆膽あり又事を苟くもせざるの風あり然れども普通韓人と同じく猜忌の情に深し唯普通韓人の如く之を當行に暴露せ■るのみを用ひて其弱點を隱蔽し決して之を人に示さず

君子にあらず英雄にあらず又奸物にあらず一個外冷中熱

の好男子

右記臆中より抜きて坐右に呈するものなり

九月二十一日 氏名

二伸途上僞東黨の噂往往耳に入り候得共實際目撃せしことは一回もなし全羅監司の施政其當を得は兵力を假らずして消滅すべきのみ

金の事は今少し褒め度存じ候得共有の儘を申上ぐ我政府の周旋に依りて之を登用せば韓人の幸福なるへし要するに韓人中に珍らしき男に御座候

右奉供御一覽候也

◎大院君と改革

七月二十三日王城の變後、太院君は再び出でで國政に參與する事となりたれども其後更に君の施設を見ず事情を知らざるものは皆之を訝れり抑も大院君の初めて出るや必ず期する處之ありしならんと雖ども新進の黨派は他の權勢を借り次第次第に蔓りたれば君は思ふ所を行ふ能はず而して日淸交戰の勢を察するに日本軍初めに利あるも後の失敗を免るべからず平壤の役の如き兵數の上より見ても淸兵勝つべしとの迷想は蓋し大院君の腦中にも之ありしならんと云ふ傳說未だ以て君の思想を判定するの效力に乏しと雖ども兎に角に平壤に於ける淸兵大敗北の事實を漸く愴め得て韓廷中守舊派の意向を初めて決したるは去月二十六日なるが如しといふこは平壤地方の韓吏より切

れ切れに達する報道の日本軍大勝利と云はざるものなきを見て漸く事實なりと了悟せしものの如く迂闊の極と云ふべし又大院君と東學黨の關係を考ふるに同君にしていよいよ力を新政府に致す事と決し書を移して東徒を諭さば彼の黨衆は必ず解散して復た紛擾を憂ふるの要なからんそも前便中に一寸記しおきたるが如く平壤の落城に先き立ち鄭雲鵬(太院君股肱の士)なるもの東學黨に送るべき一書を作りて許曄なるものを使として之を黨魁に致さしめんと企てたり

此の書の大意

『中華は大兵、必ず平壤に勝つべし華兵平壤に勝つて南進せば其黨は衆を聚めて入京倭軍を南北より夾撃して以て大に逞ふする處あらん』云云と云ふに在り曄は京を出でずして書を收められ雲鵬亦警務(李尹用の指圖に依る)の爲めに捕縛せられんとせしも捕吏の其家に至らざる以前既に遁逃して影を隱くせり此の書、虚實定かならずと雖ども兎に角に之を以て守舊派の心底を洞見し得べし而して李尹用は此の捕吏派遣の故を以て職を免ぜられたりと云ふ太院君の意向亦察するに難からざるなり尤も尹用は太院君の竊に疾視する新進派の徒と合して密議する處ありしかば兼てより目指され居たりしと云ふ

然りと雖も太院君如何に樞機を握りて勢威盛なるも今日は又十餘年前の天地にあらざれば反對派に對して苛刻無慘の事はなし得ざるのみならず日本に對して當初より毫も隔意なかりし由を此程は頻に辨解し居たりしとなり今後の太院君果して如何、吾人の宜しく注目すべき所なり

13號

• 東學黨四方に起る（上同）

東學黨は未だ鎭定せず昨日慶尙、忠淸、全羅の諸道に起り其中全羅、忠淸の徒黨は聯合して京城に迫らんとするの有樣にて京城近く進み來れるを以て朝鮮兵は右鎭撫の爲め同地方に赴きたるが大鳥公使は右援兵として各道に軍隊派遣の義を大本營へ請求せしにより我兵は直に應援のため同地方へ派遣せられたりといふ

• 東學黨追討（十五日午前十時十五分在釜山發電）

元山津附近の東學黨は京城を去ること十里の地を過ぎ釜山の方向に進み行くの報あるに付き京城の我陸軍兵は韓廷よりの依頼にて追討のため出發すと京城より飛信あり

日清戰爭實記

2篇

全羅道の麥作

全羅道は朝鮮第一の農業地なるが同地方にては東學黨の擾亂月餘に及び時恰も收麥挿秧の際農民皆業に就くを得ず困難を極めしことならんとは一般に想像する處なるが實際は之に反し民心收攬は東學黨が當初より慣用し來れる手段たるより秋毫も民業を妨ぐることなきのみか各邑村に於て消費する錢文は彼等に取りては餘程の多額なりし爲め商賣は俄に賑ひ麥刈も濟み植付も出來爾來氣候も順に適ひ農民は皆鼓腹し居れりと云ふ

東學黨の述懷詩

有司の專横亡狀は前述の如くなるを以て稍や氣概ある人民は時時東學黨の如き亂民と爲りて政府に抵抗するは已を得ざるなり去れば東學黨が常に唱ふる詩は左の如し

金樽美酒千人血。玉盌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歌聲高處怨聲高。

と是れ佛國人民自由の歌の如く、現政府に平らならざる者の日夕傳唱して不平を漏らすものなりと云ふ然れども能く鬱勃たる不平を行爲の上に顯はし現政府を斃して革命を行ひ以て政治の大改良を謀らんとするが如き氣概は到底朝鮮國民に望むべからさるなり

9篇

全羅道南部東徒鎭壓報告

去月三十日當釜山を發し全羅道南部へ派遣したる第四中隊長鈴木大尉より別紙の報告昨夜到着せり(別紙は去る一月十五日全羅道寶城郡を發したるものなり)

一月二十五日釜山に於て

兵站兼碇泊場司令官 伊津野千里

川上兵站總監宛

第三回報告

本日(十日)樂安郡を發し波靑驛に向ふ途鳥城院を過ぎんとする際東徒二十餘名陽に良民を裝ひて我團を運ふ其擧動頗る怪むべきものあり捕へて之を糾せば果して東徒の惡計なりし依て韓兵をして直に刑に處せしむ卽ち左の如し

吳元基(梟首) 外八名(砲殺)

夫より進んで波靑驛に到り舍營す到着少時にして李周會(李鳳榮の別名)より次の情報を傳ふ曰く日本軍及び京軍の一部は已に去る八日來長興府に向ひ東徒と同府の北方約二里の地に戰ひ大に之を破り死屍山を爲せり

本日(十一日)長興府に到らんとし早朝波靑驛を發し途上寶城郡に休憩中同地附近の東徒頗ぶる多きを聞知し遂に同郡に舍營するに決したり午後當郡の南方二里なる五柳村中に東徒の巨魁以下二十五名蟄伏すと聞き直に木下少尉を差遣はせしも該徒

は已に遁走して在村せず嫌疑者八名を縛せり內五名は無罪に付放還し他の六名は巨魁の父さるを以て暫らく當郡に捕ふ

本日(十二日)次の情報を得たり曰く過日長興附近に戰ひ敗れたる東徒の多くは當郡所管の各處に籠れりと依て中隊は當分當地に滯在し殘徒征剿に決し專ら四周を搜索せしむ

本日(十三日)次の情報を得たり曰く當郡の南方約一里半を隔る村落普春洞に徒黨五十餘名及び北方約一里を隔つる代加村に(譯者云此間に蓋し脫字あらん)庄野特務曹長を普春洞に孰れも若干の兵を付し到り■しむ然るに代加村の敵は已に遁れて在村せず普春洞も亦集團せるものなく七名の東徒及び七名の嫌疑者を縛せり本夜再び次の情報を得たり曰く當郡の東方二里餘を隔つる海倉山中東徒百名屯集せりと

本日(十四日)昨夜得たる情報に依り中隊(四分隊殘留)を率ゐ海倉山に向ふ東徒已に我軍の向を知り昨夜を以て四散し在ず僅に十一名の殘徒を縛す而て山上將に竣工せんとする家屋四戶を發見す蓋し賊徒屯集の用に供せんとする者なり依て後日を慮かり悉く之を崩壞せり

本日(十五日)當郡の四周一里乃至三里の地に下士斥候六組を派遣し合して五十一名の東徒を捕縛せり

右は日下當方面の狀況なり

去る十五日長興に向け派遣したる斥候と綾州より來れる第二中隊の斥候及び楠野少尉の書翰等に依れば第十九大隊第一中隊第二中隊の枝隊及第十八大隊白木中尉の率ゆる敎導中隊は聯合して三面より南面方位に進擊しつゝあるもの、如し而して

第二中隊は本日靈巖に向ふて綾州を發し進んで庚津、海南の殘徒を攻撃せんとする計謀なり然るに楠野少尉より受けたる書面に依れば同地方は漸次鎭靜の模様なり

第十八大隊の敎導中隊は竹川洞附近に於て三四百の敵に遭遇し之を撃破したりと、京城の韓兵百名も同隊の跡を追ひ光陽より順天樂安を經て當郡に來り已に本日綾州に向け出發したり當中隊は長興、庚津を經て海南地方に向はんとせしも前記の如く同地方は漸次鎭靜の報あり

當郡郡守以下各官吏に付嫌疑の點尠なからざると其他近村の殘徒征剿に至らざるを以て尙當分當地に滯在し充分探偵の心算なり、目下各地の狀況より察するに今後彼等と鋒を交へべきことは萬萬なかるべし

右報告に及び候也

全羅道寶城郡に於て　　第四中隊長　鈴木大尉

大隊長今橋少佐宛

19篇

對韓政策と各派

井上伯朝鮮に全權公使となりてより全力を傾盡して、韓廷の爲めに畫策し、其結果着着事實の上に效を奏して、朝鮮の面目を一新するも遠きにあらざるが如し、左りながら在野の政黨中には、當局者に違算あらんことを慮りて、多少の注文を爲すべしと主張する者と、對韓政略を質問すべしと唱ふる者あ

り、改進黨は同盟各派と交涉の上、左の對韓政策を建議案として議會に提出せんとしたるに、革新黨は其不可を論じ、國民協會も姑く當局者に一任して容喙せざるこそ得策ならんと主張したる爲めに、交涉破れたるを以て、改進黨も建議案提出を見合せたりといふ。建議案の相談は■らざりしも、政府に對韓政略を質問せんとする論者は、改進黨員外にも少なからざる由に付、不日質問書となりて現はるべしといふ、改進黨の對韓政策なるもの丶要領は、左の如し。

對韓政策

一 運輸、交通、警察、病院等の類凡そ物質的文明の利益を全國に普及せしむるを以て最先の急務とし教育、宗教、美術等凡そ精神的文明の事業は漸を追て之に着手すべし

二 帝國政府は速に朝鮮內地の叛亂を鎭定し且つ充分の軍隊を駐屯して頑民の侮慢を豫防し良民を安堵せしむる事

三 目下急要の經費は帝國之を貸與し以て朝鮮の財政を整理せしむる事

資金貸與の方法

甲 議會の協贊を得て帝國政府之を貸與す

乙 帝國政府の保證の下に我資本家をして急速に朝鮮銀行を設立せしめ該銀行をして必要の金額を貸與せしむ

但し帝國政府は韓廷を說て該銀行に紙幣發行權を許與せしむるを要す

丙 帝國政府其利子と返濟期限とを保證し我が資本家をして隨意に貸與せしむ

中央政府改良

一 宮廷と政府との區別を明にし萬機の政令は國務大臣をして悉く其責に任ぜしむる事

二 門閥を廢して人才を登用する事
但し纖巧なる官制改革の如きは方今一大禁忌たるべき事

三 軍制を定め兵士を訓練して少なくとも內亂を鎭定するに足らしむる事

四 簡明なる法律を制定し裁判所を設くる事

地方政府改良法

一 各道に三四の府縣を置き知事を以て地方長官と爲し其れより以上の官職は總て之を廢する事

二 地方長官の權限は粗ぼ我が知事と同一ならしむる事

16篇

韓山改革の風雲(承前)

初め井上公使の國王に謁見するや、當日公使は決心する所あり、朝鮮國病根の伏する所を考ふるに、改革の事到底成功の望なし、是非に念斷せざる可からずと、再三再四推返して奏上に及び、退出したるが、其の後金總理大臣を始め、他の四大臣

は、數度我公使館に來り頻りに公使の回慮を促し、其の請望の切なる殆ど強談に渉りしことあり、五大臣の誓約新條目を添へ、此の如く決心したりとて、更に烈しく迫るにぞ、公使も漸く其意の切なるを察し、之に同意を表し、改革に從事することを諾し、卽ち十二月八日に於て內謁見を請ひ、更に意衷を吐露すること丶はなりぬ。

大君主卽ち國王陛下は、大に公使の參內を喜ばれ、『我上下は、此際同心協力、以て改良に從事せんと決心し、最早斷じて動かず、幸に卿も亦た此大業を贊畫せらると聞くは、朕の誠に滿足する所なり』と、仰言ありて、陪坐の金總理、李宮內、金外務、魚度支、趙軍務等に姑く退出を命じ、公使を御側近く召さる。是に於て公使は天顏近く進み、五大臣の誓約書、竝に政府の職務權限に關する條目書を、榻上に繙き、其文字の意義に付き刪正すべき點、竝びに一項を加ふべき理由を奏上し、陛下は一一道理なれば、然すべしと御答へあり。　此謁見は、單に國王への奏聞に止まらず、王妃は國王御座の背後なる密接の一室に在り、亦親しく公使の奏言を聞かる。乃ち井上公使は、先づ『本日は充分秘密を保たれ得ることと存ずれば、本使は飽くまで赤誠を吐露仕るべし、兩陛下に於かせられても、何卒虛心平氣に御聽聞あらんことを』と陳奏し、更に言葉を續ぎて曰く、

本使熟熟王室の有樣を目擊するに、兩陛下には兎角憂心忡忡、始終何か御懸念せられ、事事物物、御疑惑の種子とな

らざるなきやと拝察せらる。(大君主王妃共に然りと宣ふ)其次第は、大院君の孫李埈鎔は、本年六月廿一日(我七月廿三日)の事變後、屢屢大鳥公使杉村書記官に向て、廢妃のことを論じ、我公使の同意を得ざりしかば、却て己の謀計を知られたるを悔い、之を相疎するの念は、一面に大院君をして、書信を送り、好みを清人に通ぜしめ、一面に東學黨を教唆して、內外相合し、日本兵を逐斥し、後己れの非望を逞しくせんと計りし證跡は、東學黨への往復書翰等に徵して、歷歷として存せるなり。去れば宮に廢妃の一事のみならず、或は世子の位を動さんとの心もありたるならん、此等の密計は、何時か兩陛下の御聞にも達し、多く聖意を惱さるべきは必然、(大君主曰く然り)又朴泳孝の歸國せし砌に行はれたる風說も、亦御驚動の種となりたらん。(大君主曰く然り然り)此の如くして兩陛下の御決意を沮喪せしむるの結果、中宮には、第一族卽ち閔氏を援いて、以て不意の災禍を避けんとせらるゝに至るものならん、畢竟するに兩陛下の御身上、孤獨の姿にして、賴み少ければ、成るべく信用するに足るべきもの、卽ち外戚に依賴すると云ふことに推移りたるならんと拝察す。(大君主中宮皆曰く然り、)御心痛は御無理と申さず、乍併閔氏が世道として、國政を主宰したる當時は、如何なりしや、閔氏は多く無辜の良民を驅て、悲慘の境に沈め、其生命財産を奪ふが如き非道を行ひたる、是れ亦事實の分明なる者にして、之を列擧すれば、其證も亦歷歷たり。(公使此

の時其事實を列擧す)兩陛下は、當時閔氏は正當の國稅に據り、宮內の需用を充すものなりと思召し玉ひしならんが、其實は皆右の如く不正に得たるもの故に、民間の感情は、直接に閔氏を怨むも、其結果は間接に宮中を怨府とするに至るなり。去れば今の時に當り此等閔氏に賴らんと欲するの御思召あらば、是れ民心をして此上にも王室に怨を深からしむるものなり。　事玆に至らば、兩陛下は何に由て、安全を得らるべきや、本使が既往に於て、屢屢奏上致したる如く、中宮には只只宮中に在して、大君主の德を輔け、內政に干與せらるゝが如きことなきに於ては、本使は飽くまで兩陛下竝に世子地位の安寧を保護し奉るべし。去ればとて本使一個人としては、何等の力あるものにあらざれども、本使は卽ち日本國を代表するものなれば、此の日本政府の有する勢力は、必ずや兩陛下をして安固ならしむるに足るべしと信ず。

大君主は之に答へて、「然り、卿の言の如し、李埈鎔の事に就ては、朕頗る疑なき能はず、彼れは六月事變後切に朕に告げて云ふ、日本公使は廢妃に意あり、且つ彼の心事測られず、或は朝鮮の國土を奪略するの意なしとすべからず、宜しく其擧動に注目し、苟も輕率の擧あるべからずと。朕は當時深く彼の奏言を怪みたれば、之に向て否日本政府は去る惡意あるものにあらず、我獨立を助けて以て富强に導かんとするものなれば何の懸念もなかるべしと語りたるに、彼れは曰く、否否、

臣公使館の內幕を察するに、隱然野心を挾むもの切望にて、餘義なく之を容れたり。同人を日本公使に任じ、駐箚せしむべしとの卿の言、尤朕の心を獲たれば、追て左樣することとせんと宣はる。

王妃は此時公使に對し、言葉を更めて左の如く仰言あり。

丙子(明治九年)和約以前に在て、兩國の情意阻隔せるを患ひ、朴定陽を暗行御使として、東萊釜山に赴かしめ、竝に朕が一族閔承鎬をして密旨を附し、慶尙道に至り情を探らしむる等、熱心に日本との交誼を溫めんとせり。然るに此等の風說は何時しか斥倭主義のものを刺戟し、終に隱謀を企てたるものありて、一夜の中に朕が家三代は火藥爆發の下に殪されたり。(記者曰く王妃の實父閔致祿父子の居室床下に火樂を爆發せしむるものありて一家之が爲め亡ぶ。)然れども丙子に江華に彼我全權の會同ありて、兩國の媾和俎豆の間に成り、朕及び朕が一族の希望も、終に達するを得たり。夫れ此の如く朕が貴國との交際を親密ならしめ、因て以て我國の富强を圖らんとせしは、一朝一夕の故にあらず、今や卿我國に就て、大に盡す所あらんとす、何の幸か之に如かん、朕は卿の奏言に從ひ、敢て內政に干與することをなさざるは勿論、朕は只管內政の改革着着歩を進め國家の隆盛に赴かんことを希ふなり。

卿が奏せし如く、我國のこと何時何等の椿事を生じ、王室に如何の危險生ずるやも知るべからざれば、常

に危懼を抱くの餘り、知らず知らず種種の疑惑を生じ、女性の淺間しさに、漸く同族の庇保を必要とするの念を起さしむるに至れり。若し王室にして萬全を得、始終安寧なるに於ては、何の要ありて外戚をして、國務を掌握せしむべきや、卿幸に之を諒せよ。

公使は王妃の仰言を承りて、更に言葉を改め、『此際御不安心の處より、閔氏に御依頼相成たしとの御考も一應去ることなれども、如何せん、貴國の臣民は、擧げて閔氏が從來慘酷なる施政の行爲を厭惡すれば、今再び閔氏を陰に王宮に引き入れ、密議を凝さるるが如きことありては人心疑懼、延て王室の安全を妨ぐるに至るべし。且つ本使が聞く所に依れば、閔氏の或者は東學黨を教唆して、既失の權力を回復せんとするものあり』とて、密に王宮に出入して、種種の手段を施すものの人名を記載したる紙片を取り、國王の御覽に供す、閔炯植、閔應植、閔泳韶、閔泳煥、閔泳達、沈相薫、李載純、李耕植[1]等の氏名、其中に在り。 公使は『其中にも閔泳韶は玄興澤、金主事、李寅榮、金學均[2]、金鴻陸等諸人を使嗾して、各公館との間を往來せしめ、又閔炯植、閔應植、沈相薫等は東學黨を教唆す』と補述す。

大君主は之を聞かせられて、『東學黨に閔氏が通じて隱謀

1 이경식(李耕植) : 이경직(李耕稙)의 오기이다.

2 김학균(金學均) : 이학균(李學均)의 오기로 보인다.

を爲すとは、不可思議なり、如何となれば東學黨の起るや、彼等は揚言して閔氏は國賊なり、之を殪さざるべからずといひ、東學黨と閔氏とは氷炭相容れざるものなればなり。此の兩者が相結托して、隱謀を逞しくせんとするが如きは、有得べき筈なきに似たり』と宣はれ、公使は之に對して『東徒の始め起るや、或は口實を此に借りたるならん、然れども本と是れ一の不平黨のみ、閔氏の一旦政權を失ふて、一門不平を抱き、野に散在するや、乃ち不平と不平と意氣相投じたるならん』と言上す。 大君主は『或は然り姑く其動靜を察せば、其手掛を得ん、而して閔泳韶は嬪殿(世子妃)と叔姪の間柄なり、閔泳煥は中宮殿と從兄妹なり、李載純は王族なり、其等の關係よりして毎に王宮に出入すること多し、乍去此等の者出入するが爲め、一般の感情を害するの恐あらば、爾今之れを止むべし』と申されぬ。(未完)

20篇

韓山改革の風雲(第十六編の續)

井上公使は十二月八日の內謁見に於て、種種意衷を吐露し、且つ閔族の王宮に出入するを止めんことを言上されしが、大君主は自今之を止むべしと申されぬ。

公使は是に於て「右樣の人物が王宮內に出入し、其探偵等を御信任あるは、終に疑惑を生ずるの種子なり。卽ち內宦の言を眞正と御聞込ありて、各大臣又公使等へ御內意を通ぜらるる

が如きは、宮廷の秘密と秩序とを保つ上に於て、甚だ害あり、一例を擧ぐれば、過日本使が入謁の際に於て、國政の改良は到底望みなしと斷言して退出したる翌日、宮中內宦の使者なりとて、或るものは英館に就き日本公使の怒氣を解くの途なきやと語りたる由、想ふに是事の如きも、大君主より御申付か、又は內宦等が御憂色を見て、自ら命を矯めて此に至りたるならん」と奏したるに、大君主は「然り其に就き思ひ合すことあり」と宣ひければ、公使は更に進みて、「之を聞く、大君主竝に中宮は、是迄入侍の主事等を、相手に各館に直接往來せしめ、外交上の事柄を密議せしめられたることありとか、若し當局者たる外務衙門を差置きて、君主自から外國使臣と公涉せん乎、是れ外國に向て、陛下が大臣に御信任なきを表白せらるるに同じ、又其事柄の次第にては、之がため一場の大困難を生すべきなり」と申上たるに、大君主は中宮と言葉を揃へ、「成程從前は左の事なきにしもあらざりしが、以來は屹度謹むべし」と御斷りあらせらる。

公使は更に奏して曰く、「今や東洋の大勢を通觀するに、支那は內部の腐敗よりして、今日の交戰に連戰連敗し、殆ど收拾す可らざる境遇に沈み、最早之に賴るも其效之なからん、果して然らば、貴國は何れに賴るべきやと云へば、我日本に賴るを最大得策とすべし、日本も亦從前よりの好意を續け、成るべく御世話をなすは、當然なり、然れども貴國に於て、終始疑惑の淵に彷徨して、却て我の歡心を失ふ如き擧動あらば、竟に日本の好意も、水泡に歸せざるを得ず、譬へば此に一女子

ありと假定せよ、其婦人は數多の男子に向つて、愛を割き媚を呈するとせんか、終に能く一男子の爲に欣はれざるべし國の事亦是れと稍相似たるものあり」と、大君主曰く、「誠に卿の言の如し我君臣上下今は唯唯貴國に依て國歩を進めんと期するのみ豈他意あらんや」と、此時王妃は何か國王に耳語せられしが、國王は語を更めて、「朕近日朴泳孝を採用するに意あり、卿の考へは如何」と言出でられしかば、公使は「朴の身上に關しては、本使より奏請する所あらんとせしに陛下より先づ寛大の御言葉ありしは幸なり」と申上げ朴が多年他國に流寓し、幾多の辛酸を嘗め、心膽を錬り、經驗を積み、其間國家を憂へて、殆ど寢食を安ぜざりしこと、歸國の際、小人に離間せられて、一頓挫したること、公使着任後、屢屢朴を招き、其意志を叩き、且つ朴は日兵を借り、王宮に入り、王妃を廢したる上に非ざれば、改良の效擧らざるべしと口外したりとの風説あり、果して眞なる乎を尋ねたるに、左様の事は神明に誓ひ口外せしことなし、何人か離間の爲に申し觸したるなりと顔容を更へて、辯解したること等を述べ、此國家多事の時に當りて、斯かる人物を採用せらるるは、頗る有益の事なりと信ずと奏したり。

大君主中宮は、大に喜ばせられて、「卿にして同人を信用すること、此の如くんば、朕亦何ぞ疑を存せんや、乃ち大臣に命じて、復爵任用の義を取計はん」と宣ひたり、公使は滿足の旨を答奏し、「將來同人が必ず王室に誠實を盡して、決して異心なきは、本使敢て兩陛下に向て、御保證仕るべし、又復爵

の上は、速に兩陛下とも謁見を賜はり、既往のことは論ぜず、自今國家の爲め、誠忠を抽づべしとの御言葉を賜はらば、同人は兩陛下の恩德に感泣して、必ず一身を擲ち、王室に盡すべし、猶甲申の事に關係ありし人人は、殘らず御赦免ありて兩陛下の寬大なる特典を仰がしむる樣に願はしく存ず」と申上ぐれば、大君主中宮は御言葉を揃へられ、「朴泳孝を赦し、復職せしむる以上は、其他も亦然せざるを得ず、又朴泳孝は國例に據るも、復爵後、肅拜を受くるの例なり、殊に同人は駙馬の待遇を享くる身分なれば、朕は早速召見すべし、又中宮には同人の幼時より親しく育長せらたる緣故もあれば、一刻も速に召見を望まるるなり、已に昨日玄興譯をして、禮服の胸牌(品位に因り差等あり)を贈與せられたるに、同人は落淚して感領せりと云ふ」と宣ふにぞ、公使は「猶充分同人に申聞すべし、兩陛下の恩遇に感泣し必ず兩陛下の安泰を計り奉るべし」と奏し、兩陛下は「今日卿の奏言は大に朕をして釋然たらしむ」と仰言ありて、猶「泳孝を採用する以上は、卿が多く同人に忠告幇助せられんことを煩す」との御依托あり、公使も亦滿足を表して退出したり。

大院君の非望野心は、一朝一夕にあらず、王妃を廢して世子に及び、愛孫李埈鎔をして、代つて世子たらしめんと企てたるや明かなり。故に我が井上公使は前日の謁見に於て、王位の繼承と王妃の安全を擔保し、又王妃が陰に陽に閔氏を庇保して、之に依賴するは、直ちに王室をして、人民を怨府たらしむべき所以を些の餘蘊なき迄に縱說橫說しければ、偖は從來暗

中摸索爲す所を知ざりし國王王妃も頓悟一番日本公使にあらざれば夜も日も明けぬと云ふ有様とはなれり。

かくて井上公使謁見の後、風雲は格別の異狀を呈せず、朴泳孝任用の事、李埈鎔氏使外の事著著歩を進たり。 朴は我公使館に來り、井上伯より厚き叡慮を承はりて感泣し、君國のため、誓て一身を犧牲にせんと述べたるよしなるが、其舊秩を復せらるるや參內して國王、王妃、世子に進謁し恩を謝し、「臣料らず 聖明の丕德を荷ひ、今日再び天顔に咫尺に拜す、死して憾なし、敢て一身を邦家に捧げ、報效を圖らんとす」と奏し、歔欷流涕、感淚止めもあへず、國王も亦其赤誠を嘉せられしとぞ。

李埈鎔は中心出て外に使臣たるを好まざるにや、將た大院君の李を外に遣すを忌む爲にや、其後李は人に向て、「予は切に日本公使たらんことを希望するも、中宮之を好ませられず」など言觸したりといひ、又た大院君は、公使謁見の節、國王と談、李の派遣に及びたるを如何にしてか漏傳し、國王に迫り、外國使臣と內輪の相談をなして、却て內輪の自分と相談するを避くるは如何など、不穩當の語氣もありしかと聞きぬ。

扨井上公使は、十二月十九日、午後二時に、又も參內して謁見を得、大君主より種種の御諮詢に預りぬ。 大君主は朴泳孝一昨日參內せりとて、其容貌の著しく從前と異なる所なきこと、久しく日本にありて、知識を弘め經驗をも積みたりと思はるること、日本語に通ずるが故に、時時召見して諮詢し、竝に公使に打合はさしむ等に、便宜大なること、其謝恩報效の

奏言、涕涙を帶び、一一赤誠より發し誠に賴母しく感ぜられしこと、從て遠慮なく直言極諫すべしと申聞けたること等を仰せられ、王妃は大君主の背後より朴の邸宅は已に準備を爲し置きたれば、何れ下賜すべしと語らる。是れ同人は前代國王の駙馬にして、其邸宅は王家より下賜するの習慣なるに因るとぞ、公使は「兩陛下が同人の前過を赦さるるさへ、寛仁の御沙汰なるに、今は却て之を厚遇せらる、同人は唯唯感泣して王家の爲に粉骨碎身すべし、兩陛下已に此の如く臣僚を優遇せらるれば、貴朝廷安ぞ忠臣なきを憂へんや、朴の氣質として巧言非を飾り、甘言媚を呈すること能はざるものなれば、或は硬直にして忌諱に觸るるを憚らざることもあらんと察せられば、兩陛下にも其思召にて、同人に充分倚信あらせられ然るべく存ず」と奏し、夫れより李埈鎔の談に移り、中宮其出でで公使たるを好ませられずと、本人の申ししよしを聞え上げたれは、中宮は以ての外なり、曾て之を拒みたる覺えなし恐らく本人の託言なるべし」と仰せあり。 大君主は右公使として派遣の事を、李の父たる宮內大臣に勸誘し、同人より轉じて大院君にも納得せしむる樣致されしと望まれ、公使は之を畏まりぬ。

是より公使は軍務衙門の組織、竝に軍隊の教育に關して、一言致すべしとて、大要左の如く奏せられしよし。

> 此度四營門を全廢し、其事務は總て軍務衙門の管轄に歸せんとするは、是れ軍事の改革上、尤も必要なりとす。凡そ一國の兵制は、一途に出で、號令の出づる所區區なるべか

らず、現今貴國の如く四營に分れて、互に其主將の爪牙となり、時に或は其陰險の術を遂ぐるの利器に供せらるるは、是れ兵の大弊にして斷じて防止せざるべからず、一國の兵權は君主大元帥として之を收攬し、他の操縱に任ずべからず、唯唯凶器なるを以て輕しく動すべからず。　陛下と雖も先づ政府の大臣に諮詢したる後にあらざれば、動かされざる樣致され度きのみ。(大君主曰く、然り勿論)

扨軍務の行政と軍隊の命令との間は、自ら相貫連すと雖ども、其事務は區分せざるべからず、軍務衙門大臣は軍隊上に關する行政事務、卽ち軍隊の編制、被服、兵器、糧食、將校の進級と云ふが如きことを管掌し、參謀官は兵士の訓練、敎育、作戰計畫の如きことを管理し、兩者相待つて軍事は完全を期すべきなり。就ては本使は此二者に對し共に適當なる人物を選び、貴政府の顧問に供へんとす。卽ち公使館附楠瀨少佐は佛、獨、露の諸國を經歷し、多く軍事上の經驗を有するものなれば、之をして軍隊の敎育、作戰上に關する方面に當らしめ、別に一人軍務上に經驗あるものを以て、軍務衙門の顧問とし、專ら編制組織に關する取調を爲さしめなば可ならんと存す。

貴國の兵隊に付て、委しくは承知せざるも、恰も日本舊藩時代の士族と、稍稍類似せるものにして、一旦兵籍に入りたるものは、之を子孫に世襲すると云ふ習慣あるに似たり。故に今般の改革に當りては、其中壯丁の合格するものを選びて、兵役に充て、其老朽用に堪へざるもの

は除かざるを得ず。而して之を罷役するには、卽ち何月分の給料を一時に支給するか、或は祿券様の者を附與すか、何にしても此等の多數が一時に飢餓に迫らざる丈の措置は施さざるべからず。而も彼等の不平心は結んで、終に他の不平黨に投じ、王家を怨望して、又一の悶着を起す種子となるべし。之に反して政府充分の措置をなしたる後、猶敢て不義を企て名分を誤るものあらんか、其時は大に懲罰を加へ、場合に依らば兵力をも用ゐべし。

陛下が全國の兵權を掌握して、國の大元帥たるべきは、前に述べたる如し。次に世子宮なり。宮は陛下萬歲の後、代て大元帥の任務に當らせらるべきものなれば、今より身體の御强壯を努めらるるは勿論、軍務上に於ける學問より實地の職務を御實踐あらせられざるべからず。(大君主曰く、貴國の近衛大將は、親王なりと聞けり)然り貴國現今の事情に於ても、近衛總督は世子自ら任に當らるること最も適當なるべし。左すれば王宮以外の宗戚、何人も自己の意思を達す爲め、兵權を操縱するの恐れなく、王室の鞏固を保つに於ても、最も適當の方法たり。凡そ軍隊の事は、士官の養成を第一とす、良士官ありてこそ勇壯活潑なる士卒も其動作をなすことなれ。淸兵は一個人として左程弱きものにあらざれども、如何せん之を率うる士官が軍事上の敎育なきと、紀律嚴肅ならざるとに歸因す、其我邦と交戰して、連戰連敗、曾て一回の勝をも得ざるもの、職として是れ之に由らずんばあらず。

大君主は篤と公使の上奏を聞召されて、實にもと存ぜられ、「軍務上に關する一切の事柄は、卿の意見に從ふべし、楠瀨少佐等を顧問たらしむる事も同意なり、又世子をして近衛總督ならしむることは、事體然らざるを得ず。 就ては世子にも來春早早より軍隊の職務に從事せしめ、士官學校の如きものを、王宮の近處に設置し、士官生徒の養成を爲さしめ、世子にも之に臨み自ら士官生徒と同樣の敎育を受けしむべし。近衛兵の組織に關する事柄に就ては、又願くは公使を煩さん、回顧すれば去る壬午の年貴國より、堀本中尉を聘し、我士官生徒及び軍隊の訓練を受けしめたることありしが、若彼時より引續き今日に至らしめなば、我軍隊も長足の進步を見しならん。纔に一歲ならずして廢止せざるを得ざる機會に遭遇せしは、返す返すも殘念なりし」と宣ひ、公使は「根柢を培はずして、枝藝の繁茂を求むるも、其竟に枯死せざるもの幾ど稀なり、軍隊の訓練亦然り、兵權は擧げて宗戚に屬し、若くは一二の武臣に委して顧ざるに於ては、軍隊の發達すればする程却て危險なり。

今陛下堀本中尉の訓練の功を半途に絶ちたるを歎ぜらるるも、彼時の兵にして精練せられたらんか、壬午の變、甲申の亂其慘毒は、何等の點に達したるやも知るべからず、此の訓練の中途にして止みたりしは、不幸中の幸なりしやも知るべからず。本使は只管國家の爲に兵權の他の操縱に委せず、必ず大元帥卽ち陛下の掌握に歸せんことを望む。

又世子宮の近衛大將として軍事に慣熟せられんことを要するの意も、陛下萬歲の後、裨益あらんことを欲し、王家百年の

計を思ふに出づるなり」と答ふれば、大君主は之を頷き玉ふ。

是れより談は宮內改革の事に及びぬ、大君主の曰く、「弊政の改革先づ宮內より始めざるべからず、因て內侍の內宦を悉く廢遣したるに、頗る不便を感じたり、內侍の職務は三殿(國王、王妃、世子宮)に近侍して、內外の使役に供するものなれば、一旦之を廢するや、忽ち使役に差支へ、藥を服せんとするも、命ずるに人なく溫突室に火を燃かんとするも、使役に供するものなく、殆ど困却し、昨夜の如きは、朕自ら出でて溫突を燒き、藥を命ずる等、君主と使丁とを兼る始末にて何とも可笑し、君主が此の如く不自由を爲すにも拘らず、大院君の處には召使も隨分多きは不權衡と思はる」と。 公使は其改革の極端なるに驚ろきたり、本使は曾て此の如く突然改革を實行せられたしとは申上げず、凡そ物には秩序と準備とあるを要す、內宦の如き多年王室の御用を勤めたるものなれば、今不用となりて直に罷職と爲し、翌日より路頭に彷徨するも顧ずとは、君主の慈仁に欠く所あるなり、宜しく在職年限等を取調べ、相當の手當を與ふべく、又之を廢すれば、是迄內宦の行ひ來りし職務は、何人に取扱はしむるか、豫め準備せざるべからず、本使が主として論じたるは、政治上に關し、內宦等中間に居りて干涉を試るが如きは、陛下と各大臣との間に親政を施さるる上に妨害ありとせしのみ。御召使の內宦を殘酷にも突然放逐すべしと云ふの意には非ず、故に御不自由ならざる丈の內宦は、姑く從前の通り御史役相成、追て宮內府の官制制定の日、內宦に代て職務を行ふものの定まる日に之を罷遣せ

らるる方、穩當なるべし。去り乍ら此內宦とても充分人物を選び、敢て宮中の秘密を保つに足るものを御殘し、相成る方然るべし」とは、其驚きて奏する所なりき。然るに大君主は、「大臣等は一日も內宦を宮中に留むべからず、是れ日本公使の存意なりと說くが故に、朕も然らんと信じ、早速斷行せしなり。今公使の奏言を聞き其意のある所を悉せり。故に今姑く內侍として十人、外部の使役として十人、都合二十人程呼び入るべし。近日宗廟に行幸の節に當ても、內宦なくしては第一衣服の着替萬端に差支を生ずることありて、心痛中なりしが、卿の說を聞て安心せり、差向今日よりは、君主の專務に復し、使丁を兼ぬるに及ばず」とて哄笑せらる。

公使も亦「廿人三十人の內侍を姑く置かるればとて、何程のことあるべき、宮內府官制の發布せられ、奉仕の職定まる迄は、其儘御使役相成るも差支なかるべし、其邊のことは、猶本使よりも宮內度支兩大臣に申入れ、改革とて去る極度に走らざる樣助言致すべし」と述べたり。

大君主は、是れより冬至日に宗廟に行幸して、誓文式を擧行したる後八道臣民に向て、右誓文を發表すると、同時に勅諭を一般に下して、新政の趣旨を示し、人心の歸向を明にしたし」とて、意見を公使に詢はる。 公使は其事の此際に是非必要なることを奏し、大君主は、弊政一新則ち開化の意に外ならざれば、當日は中宮にも輿を共にし、夫婦式場に臨み、千載唯一の禮典を擧ぐることとせば如何、との御諮詢あり、公使は「叡慮至極せり」と答へ奉りたるに、大君主は猶朝鮮國にて王室

に慶典を擧ぐるに當ては、八道に大赦を布き、無官の者には特に幾人を限り官位を授くるの慣例あることを宣はせられ、之に付て御尋ねありしが、何分事變の後とて閔氏中罪名を負ふて、謫廢中のもの東學黨に關係ある者等多く、大赦といへば、此等も亦一體に赦免せざるを得ず、而して改革の基礎未だ牢固ならざるの今日之を斷行せば、其結果亦測るべからざるものあり、幷が爲なるべし、公使は卽答を申上げず、熟慮の上に答奏せんことを申出でられぬ。

此時大君主は、榻上に於て我宮內省官制の飜譯書を開き、本使に向て外事課とは如何、文事秘書局とは如何とて、二三の御下問あり、公使一一之に奉答し、且つ宮內府官制に付ても、多少內外の事例を參酌折衷し、制定するを要すべく、之に付き然るべき人あれば御異存なくば宮內府に差出し、同大臣と協議せしめても可なりと奏し、大君主は之に同意せられ、更に語端を改め、「此後御互の間は、一家內同樣なれば、朕が不德其他何事に拘らず、卿に於て不可なりと思はるることあらば、敢て忌憚なく、直に忠告を受けたし、朕必ずや卿の諫を容れて非を改むるに吝ならざらん」と宣はるるにぞ、公使は其赤心の貫徹したるを喜び、「知て言はざるなきは、本使の天性なり、已に陛下も本使が屢屢進謁の節奏上せし所に就き、御鑑ありしなるべし」と奏し、大君主は「然り、猶將來と雖も斯く望むなり、且つ各大臣の奏上に據て、裁可すべき諸法令、其他の整理の事柄は、先づ以て卿に詢議したるや否やを確めんため、見認印にても有らば便宜ならんと思ふ。 卿の意如何」と仰

せられ、

公使は「御尤の御注意なれば、何とか各大臣と相談致すべく、各衙門大臣が其主管事務の速成を企圖し、諸法令を濫發するが如き弊ありては、各衙門事務進歩の度合に異同を生じ、或るものは非常に進み、或るものは甚しく遅くれて終に併行の進路を執る能はざるに至るも計りがたければ、諸大臣には十分注意すべし、又諸大臣より奏上裁可を請ふの事柄に付き、御了解なり難き次第もあらせられなば、何時たりとも、本使を御招き相成て御下問ありたし」と申し上げ、大君主は「今後左様致すべし」と仰せありぬ。

公使は世子宮の御健康を氣支ひ、兎角御柔弱に在すは遺憾に堪へず、充分療養を加へられ、速に強壯に渉らせらるる様致し度しと存す、就ては來春にも至らば折を見計らひ、本使の知人にて有名なる醫者も多く有之、就中橋本、ベルツと云ふが如きは、醫者中の大家なれば、其等の中一人を呼寄せ、一應診斷の上攝生法を講究せしめては如何と存じ奉ると奏し奉りしに、大君主中宮は御言葉を揃へさせ、「卿の信切斯く迄に及ばるるは兩人の深く謝するところ、然し世子は目下何の點に疾症ありとも判定しがたく、差當り藥用の如何やと懸念せらるるなり」と仰言あり、公使は醫者が診斷したればとて直に服藥せしむるの謂あらず、先づ其病源を究め、而して第一に適當なる攝生法を施さざるを得ざるなり、他日世子宮は近衛都督として、軍隊の職務を躬らせらるるに當り、身體に故障多くては到底其職務を行はせらるる能はざるべし。　又明春にもなれ

ば勇壯活潑にして、軍隊上の學問を講究せられ、他の武官の勸むべき職務竝に戰術上の事をも學ばせらるべきに付、切に同宮の御健康を望む」と奏し、兩陛下よりは「去らば何卒一回其等の大家に診斷を受けたければ是非卿の周旋を請ふ」との御言葉あり、公使も親切の漸く貫徹せるを喜びて、退出しぬ、此日の謁見には、兩陛下とも前回未曾有の御滿足にて、何事も打解けて、最と爽快に御物語ありしやに漏れ承はりぬ。（完結）

東徒討伐報告

本月八日大邱發青山附近へ派遣せし大邱守備中隊長三宅大尉より別紙の報告ありたり

一月廿五日　釜山兵站監碇泊場司令官　伊津野千里

川上兵站總監宛

一月八日午後七時大邱兵站司令官伊津野少佐より洛東兵站司令官の協議に依り永洞山間の東徒取壓の命を受け一分隊を率ゐ卽刻大邱を出發す同十日黃澗に着せしに東徒は已に青山縣に退却の旨曾て出張せし桑原少尉より報道あり下官はシウ山を經て該地を攻擊すべきに付き桑原少尉に栗溪より青山に進み攻擊すべき旨を命ぜり

同十一日青山に至りしに東徒は已に元岩方位に退却せり十二日桑原少尉の二分隊を前衛とし一分隊及び韓兵を本隊とし下官自ら率ゐ東徒を追擊し首皮（青山西北約二里）に至りしに一の東徒を見ず尙進んでテウ安（青山西北約四里）に至りしに、斥候

のみにて東徒の本隊は已に鐘谷に退却せるものの如し彼は月明に乗ぐ夜襲を以て撃破するに決せり、午後七時テウ安を發し一分隊と尙州韓兵二百名とを率ゐ本道の右側山道を進行せり午後九時各隊鐘谷附近に至るに東徒は處處に焚火し■を取り備へなきものの如し此時右翼に在る桑原少尉より東徒の集合の熾んなり依て兵を右翼に合して攻撃せんと望み來るも左翼の東徒亦熾んなり依て兵を合する能はず同少尉に兩翼各遊撃すべきを命ず、午後十時攻撃す彼れ狼狽す僅に抵抗せしのみにて北方に潰走す我兵要部を占領し戰ひつつ徹夜せり同十三日午前七時更に攻撃に轉ぐ桑原少尉の二分隊を右翼の山上に左翼の山上には韓兵廿名我兵三名を配附し中央山上に下官一分隊と韓兵百十名を率ゐ進行す前進約百メートルにして戰線背尾なる東徒は鐘谷北端の高地或は村落を全領し勢甚だ猖獗なり(其數約一萬以上)戰■なるに及び彼は我兩翼に進み殆ど包圍の形と成れり或は中央を衝かんとする數回一時勢力猛烈を極むと雖も我兵奮鬪之に當る午前九時に至り東徒は第一戰自然薄弱となるを認む依て時機を謀り我軍突進敵地を占領す時に九時半なり、敵は東北方三キよりメウバク二ドウ山頂に分れて敗走す韓兵をして之れを追撃せしむ

鐘谷は東徒亂暴狼藉を極む人民逃避我兵を給養する能はず依て報恩郡に至り兵を屯し其動靜を探偵するに北方の賊は淸川、淸安、陰城、槐山等に潰走し近傍其の跡なし十五日桑原少尉は黃澗に歸り洛東より援兵として派遣の石川軍曹の一分隊と下官の一分隊を率ゐ洛東に歸る

此役桑原少尉は左腿に微傷を負ふ又尚州韓兵一名負傷す東徒の死數百（內夜襲の際劍殺するもの數十又尚州韓兵の報告に據れば首領鄭戴俊及び仁奎洪も此役に死せりと）分捕牛馬數十武器等數多なり

洛東後備步兵第十聯隊第二中隊長

一月十七日　　三宅剛義

ㄱ
가와카미(川上) 376, 402
가토 사마노스케(加藤左馬之助) 132
고니시(小西) 131
곤도 겐키치(近藤賢吉) 314
곤도(近藤) 305, 306, 307, 308, 309, 310, 337
구사카 도라키치(日下寅吉) 223, 230
구사카(日下) 132, 133, 182, 189, 213, 242, 247, 291, 292, 300
구스노(楠野) 378, 379
구스노세(楠瀨) 394, 396
구와바라(桑原) 402, 403, 404
구즈오 슈스케(葛生修亮) 125
기노시타(木下) 377
김 외무대신 382
김 총리대신 382
김규홍(金圭弘) 95
김덕용(金悳容) 71
김문현(金文鉉) 73, 76, 95
김병혁(金炳赫) 333
김보현(金普賢) 196, 198, 201, 211
김봉균(金奉均) 326, 332, 365, 366, 368, 369
김세풍(金世豐) 75
김시풍(金始豐) 66, 67
김옥균(金玉均) 70
김윤식(金允植) 362
김윤호(金允浩) 323
김주사(金主事) 387
김학균(金學均) 387
김학진(金鶴鎭) 78, 94, 95
김홍륙(金鴻陸) 387
김환사(金煥使) 94

ㄴ
니시와키 에이스케(西脅榮助) 223
니시와키 에이스케(西脇榮助) 234
니시와키(西脇) 133, 234, 300

ㄷ
다나카 지로(田中侍郎) 125, 223
다나카(田中) 130, 133, 135, 136, 137, 139, 140, 141, 146, 152, 153, 155, 166, 182, 193, 195, 199, 208, 213, 238, 240, 241, 242, 254, 269, 272, 276, 280, 281, 292, 297, 300, 301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125, 128, 224
다케다(武田) 128, 130, 133, 187, 191, 192, 195, 209, 213, 214, 239, 240, 242, 247, 249, 299
다케우치(竹內) 364
대군주(大君主) 217, 289, 382, 383, 384, 385,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대원군 294, 349, 366, 367, 370, 371, 383, 391, 392, 393, 397
도키자와 우이치(時澤右一) 126, 223, 226, 242
도키자와(時澤) 132, 133, 135, 137, 139, 213, 227, 228, 229, 236, 237, 240, 270, 271, 272, 274, 275, 276, 277, 278, 300

ㅁ
모리(森) 357
미야케 다케요시(三宅剛義) 404
미야케(三宅) 401
미즈하라(水原) 237
민병협(閔丙夾) 95
민비(閔妃) 297
민승호(閔承鎬) 385
민영달(閔泳達) 387
민영소(閔泳韶) 387, 388
민영수(閔泳壽) 82
민영왕(閔泳王) 94
민영익(閔泳翊) 95
민영준(閔泳駿) 66, 82, 94, 95, 102, 322, 328
민영환(閔泳煥) 94, 387, 388
민응식(閔應植) 85, 94, 95, 387
민정식(閔亭植) 95
민종렬(閔種烈) 70
민종묵(閔種默) 70
민치록(閔致祿) 386
민형식(閔炯植) 387

ㅂ
박기양(朴箕陽) 95
박선오(朴善五) 128
박선칠(朴善七) 128
박영호(朴永浩) 333
박영효(朴永孝) 383, 390, 391, 392, 393
박원칠(朴元七) 317
박정양(朴定陽) 94, 385
벨츠 401
비만석(鄙萬石) 333

ㅅ
사바타 고마지로(柴田駒次郎) 125
서병학(徐丙學) 119
서병훈(徐炳薰) 85
서상룡(徐相龍) 128
서총각(徐葱角) 77
섭(聶) 204, 205, 287, 290, 319
섭(葉) 204, 205, 290, 319
섭사성(聶士成) 287
섭지초(葉志超) 287
성기운(成岐運) 95
세자 383, 384, 391, 392, 397, 401
세자궁(世子宮) 94, 101, 395, 397
세키야 오노타로(關屋斧太郎) 125, 156, 174
세키야(關屋) 130
손해중(孫海中) 119
쇼노(庄野) 378
스기무라(杉村) 383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 125
스즈키 덴간(鈴木天眼) 223

스즈키 지카라(鈴木力) 126
스즈키(鈴木) 127, 130, 132, 133, 134, 135, 136, 146, 167, 172, 182, 183, 184, 186, 187, 191, 195, 213, 238, 239, 240, 242, 249, 272, 276, 277, 278, 279, 281, 298, 301, 376, 379
시라미즈 겐키치(白水健吉) 125, 223, 230
시라미즈 나가스네히코(白水長髓彦) 146
시라미즈(白水) 130, 133, 147, 189, 230, 236, 237, 242, 300
시라키(白木) 378
신정희(申正熙) 95
심상훈(沈相薰) 387
심순택(沈舜澤) 94

ㅇ

왕비 101, 120, 383, 385, 386, 390, 391, 392, 393, 397
야마가타 이노스케(山縣猪之助) 314
야마가타(山縣) 307, 319, 333
어 탁지대신 382
어윤중(魚允中) 66
엄세영(嚴世永) 92
오사키 마사요시(大崎正吉) 125, 126, 127, 223
오사키(大崎) 129, 132, 133, 134, 187, 189, 240, 241, 242, 299, 301
오원기(吳元基) 377
오쿠다(奧田) 138
오쿠보 하지메(大久保肇) 125, 223, 231
오쿠보(大久保) 135, 189, 238, 242, 270, 300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362
오토리(大鳥) 352, 356, 357, 361, 372, 383
오하라 요시타케(大原義剛) 126, 164, 223, 231
오하라(大原) 132, 133, 135, 137, 140, 146, 147, 167, 169, 171, 182, 189, 193, 232, 233, 236, 239, 240, 242, 272, 273, 276, 299, 301
요도가와마루(淀川丸) 132
요시쿠라 오세이(吉倉汪聖) 125, 223
요시쿠라(吉倉) 129, 130, 131, 133, 134, 135, 137, 138, 151, 153, 154, 166, 169, 182, 183, 185, 186, 187, 188, 189, 191, 192, 195, 196, 200, 201, 208, 213, 237, 240, 242, 247, 249, 270, 272, 273, 274, 281, 284, 291, 300, 301
우마키 겐조(馬木健三) 135
우마키(馬木) 139, 140
우치다 고(內田甲) 223
우치다 기노에(內田甲) 125
우치다(內田) 132, 133, 134, 140,

146, 147, 151, 157, 163, 164, 166, 169, 182, 189, 195, 213, 233, 234, 235, 236, 238, 240, 241, 265, 266, 272, 276, 277, 280, 281, 298, 301
원세개(袁世凱) 97, 203, 204, 206, 219, 256, 289, 322, 327, 328, 348
원세록(元世祿) 79, 81
윤자익(尹子益) 87, 88, 119, 132
이 궁내대신 382
이경방(李經芳) 327
이경식(李耕植) 387
이경호(李景鎬) 67, 75
이노우에 도사부로(井上藤三郎) 131, 190, 223, 226
이노우에(井上) 227, 228, 229, 237, 240, 241, 300, 379, 381, 383, 388, 391, 392
이두황(李斗黃) 81
이마바시(今橋) 379
이복룡(李福龍) 123, 243, 244, 246, 278
이봉의(李鳳儀) 94
이성렬(李聖烈) 82, 84, 264
이세(李世) 77
이승오(李承吾) 94
이시카와(石川) 404
이옹(李翁) 123
이용직(李容直) 95
이원회(李元會) 92, 103
이윤용(李尹用) 371
이인영(李寅榮) 387
이재순(李載純) 387, 388
이정로(李正魯) 94
이종건(李鐘健) 94
이주회(李周會) 377
이준용(李埈鎔) 383, 385, 391, 392, 393
이중당(李中堂) 252, 327
이즈노 센리(伊津野千里) 402
이즈노 치사토(伊津野千里) 376
이즈노(伊津野) 402
이학영(李學永) 81
이홍장(李鴻章) 98, 106, 270, 287
인규홍(仁奎洪) 404

ㅈ

장두식(張斗植) 320
장영창(張榮昌) 321
전(全) 총독 210, 224, 241, 242, 243, 244, 246, 251, 256, 257, 258, 259, 260
전(全) 259, 261, 263, 265
전명숙(全明叔) 321, 326, 332, 333, 339, 340, 365
전봉준(全琫準) 115, 120, 123, 200, 201, 207, 209, 210, 212, 213, 214, 221, 222, 223, 224, 226, 237, 242, 243, 244, 246, 249, 251, 254, 255, 260, 262, 263, 264, 285, 301
정(鄭) 51, 77, 105, 118
정가(鄭哥) 51, 62

정대준(鄭戴俊) 404
정도령(鄭道令) 77, 114
정범조(鄭範朝) 94
정병하(鄭秉夏) 132
정운붕(鄭雲鵬) 371
조 군무대신 382
조병갑(趙秉甲) 52, 55, 74
조병세(趙秉世) 94
조병직(趙秉稷) 94
조병호(趙秉鎬) 95
조원집(趙元執) 323
조이직(趙秉稷) 95
조정언(曺正言) 82
조준구(趙駿九) 88
조필영(趙弼永) 95
중궁(中宮) 384, 389, 390, 391, 392, 393, 399, 401

ㅊ

최대아(崔大雅) 77
최법헌(崔法軒) 61, 68, 90
최시형(崔時亨) 119, 120, 368
최제우(崔濟愚) 114, 120, 253
치바 규노스케(千葉久之助) 125, 128, 223, 231
치바(千葉) 128, 133, 146, 189, 231, 234, 236, 238, 240, 241, 242, 300, 301

ㅎ

하시모토(橋本) 357, 401
한규설(韓圭卨) 94
허엽(許曄) 371
현흥택(玄興澤) 387, 391
호리모토(堀本) 396, 397
혼마 규스케(本間九介) 125
홍(洪) 초토사 79, 102
홍계훈(洪啓薰) 65, 72, 79
홍순형(洪淳馨) 95
홍종헌(洪鐘軒) 94
황하일(黃河一) 119, 317

ㄱ

가왕리(柯王里) 225, 229, 237
강진(康津) 379
강화도(江華島) 85, 96, 105, 116, 222, 386
강화영(江華營) 81
개성부(開城府) 96
거문도(巨文島) 106
경기(京畿) 218
경성(京城) 63, 71, 73, 80, 84, 85, 88, 92, 94, 96, 97, 98, 103, 104, 105, 106, 107, 125, 126, 215, 219, 257, 266, 267, 268, 285, 357, 359, 361, 365, 369, 372, 379
경천역(敬天驛) 294, 301
계룡산(鷄籠山) 117, 118, 285, 294, 301
고부(古阜) 53, 54, 61, 62, 63, 69, 71, 72, 82, 87, 121, 215, 216, 220, 313, 320, 322, 324, 327
고부군(古阜郡) 52, 54, 64
고산영(高山營) 318
고창(高敞) 55, 81, 86
공주(公州) 89
과천(果川) 98, 314
과천현(果川縣) 314
관가문(觀稼門) 359
관촉사(灌燭寺) 290
관풍전(觀豊殿) 359
광양(光陽) 54, 379
광주(廣州) 96, 324, 365
광한루(廣寒樓) 116, 185, 186, 187, 189, 191, 192
광화문(光化門) 357
괴산(槐山) 403
구덕산(九德山) 130
구포(龜浦) 131
구포로(龜浦路) 133
군산(群山) 71, 72, 73, 80, 85, 320, 334, 335, 336
군산항(群山港) 71
금강(錦江) 278, 316
금구(金溝) 81, 82, 320, 323, 324, 335
금장(金場) 135
길주(吉州) 119
김산(金山) 128, 134, 135
김제(金堤) 72
김해(金海) 119, 126, 131, 132
김해부(金海府) 87

ㄴ

나가사키현(長崎縣) 135
나주(羅州) 54, 68, 70, 79, 324, 333, 340
낙동(洛東) 365, 402, 404
낙안(樂安) 379
낙안군(樂安郡) 376
남문루(南門樓) 75
남원(南原) 183, 189, 226, 227

남원부(南原府) 179, 186
남원성(南原成) 182, 183
남평(南平) 324, 325
남포(藍浦) 91
내성(萊城) 235
능주(綾州) 325, 326, 333, 378, 379

ㄷ

다태고성(多太古城) 133
단성(丹城) 162, 163, 167
단촌(丹村) 162
담양(潭陽) 225, 231, 233, 324
대가촌(代加村) 378
대고(大沽) 106
대구(大邱) 364, 401, 402
대구부(大邱府) 주동(蛛洞) 128
대산면(大山面) 119
덕산(德山) 88
도쿄(東京) 126, 127, 129
독산동(獨山洞) 232, 261
동래(東萊) 385
동진강(東津江) 316
두류산(頭流山) 253

ㅁ

마량포(馬梁浦) 336
마산만(馬山灣) 133
마산포(馬山浦) 124, 126, 132, 134
마잠(馬岑) 369
만경(萬頃) 72, 335
만마관(萬馬關) 243, 244, 278
목멱산(木覓山) 104, 105
목천(木川) 315, 339
목포(木浦) 71, 333, 334
무안(務安) 334
무장(茂長) 56, 62, 77, 335
문경(聞慶) 368
문지리(文旨里) 90
밀양(密陽) 128

ㅂ

반야산(盤若山) 290
방책현(防策峴) 234, 238
방축현(防築峴) 225, 231, 235, 236
백산(白山) 54, 63, 75
백산리(白山里) 225, 231
보성(寶城) 55
보성군(寶城郡) 376, 377, 378, 379
보은(報恩) 89, 118, 305, 313, 316, 317, 318, 368
보춘동(普春洞) 378
봉산(封山) 364, 365
부민동(富民洞) 133
부산(釜山) 55, 88, 125, 126, 127, 129, 130, 132, 141, 180, 184, 187, 272, 283, 326, 328, 364, 368, 372, 376, 385
부산포(釜山浦) 87
부안(扶安) 54, 62, 82, 335
부평동(富平洞) 130
북한산(北漢山) 105
비인(庇仁) 336

ㅅ

사조(沙鳥) 90
산자수명각(山紫水明閣) 127, 133
산청(山淸) 165, 167, 168
산청현성(山淸縣城) 168, 171

삼계(森溪) 86
삼춘문(三春門) 359
상주 능암리(綾巖里) 368
상주(尙州) 402, 404
서울 50, 84, 115, 173, 184, 205, 245, 253, 255, 256, 258, 264, 285, 289, 295, 351, 354, 355, 371
성전(星田) 91
성전평(星田坪) 89, 90
성주(星州) 128
성환(成歡) 301
소사장(素沙場) 301
수두리(水頭里) 91
수원부(水原府) 65, 314
수피(首皮) 402
숙역(宿驛) 335
순창(淳昌) 116, 189, 192, 226, 234, 239, 259, 263, 264, 265, 266, 268
순천(順天) 123, 243, 318, 379
순천군(順天郡) 243
'슈'산(シウ山) 402
승두산(僧頭山) 82
신무문(神武門) 359
신원사(新元寺) 117, 294, 296, 297
신창진(新倉津) 71
쌍암리(雙岩里) 225, 232, 239, 240
쓰시마(對馬) 125

ㅇ

아산(牙山) 97, 106, 204, 205, 206, 215, 218, 219, 252, 266, 283, 292, 328, 337
아산영(牙山營) 314, 337
안동(安東) 364, 365
안동부(安東府) 51, 62
안성(安城) 301
암치촌(岩峙村) 225, 232
양산박(梁山泊) 125, 126
여산(礪山) 63
여산현(嶧山縣) 286
여원현(女院峴) 179, 180
연풍(延豐) 369
영광(靈光) 77, 82, 86, 334
영광군(靈光郡) 81
영동(永洞) 402
영산(榮山) 333
영암(靈巖) 326, 379
영주각(瀛州閣) 191, 192
오남(五南) 317
오류촌(梧柳村) 377
오사카(大阪) 126
옥과(玉果) 225, 237, 260, 266, 321, 323
옥과현(玉果縣) 260
옥과현성(玉果縣城) 230
옥천(沃川) 88, 308, 318
용담(龍潭) 368
용산(龍山) 328, 338, 357, 365
우치(牛峙) 225, 230
운봉(雲峯) 117, 178, 179, 183
운봉성(雲峰城) 177, 178
운봉현(雲峰縣) 253
운암강(雲岩江) 225, 226, 232, 237
운암동(雲巖洞) 248, 251
운암점(雲岩店) 232, 242
운암하(雲岩河) 232

원암(元岩) 402
원평(院坪) 321, 324
월평(月坪) 86
위해(威海) 106
율계(栗溪) 402
융무당(隆武堂) 359
융문당(隆文堂) 359
은진현(恩津縣) 290
은진현성(恩津縣城) 290
음성(陰城) 403
익산(益山) 85, 108
인천(仁川) 85, 103, 219, 328, 333, 335, 336, 337
임애(臨崖) 85
임피(臨陂) 108

ㅈ

장교리(長橋里) 232, 242
장성(長城) 86, 106
장안(長安) 402
장흥(長興) 123, 377, 378, 379
장흥부(長興府) 377
적성진(赤城津) 225, 227, 237
전주 감영(全州監營) 55, 63, 73, 74, 85, 86, 101, 123
전주(全州) 62, 66, 69, 70, 73, 75, 79, 85, 86, 92, 93, 102, 103, 106, 115, 160, 193, 197, 216, 232, 242, 243, 246, 251, 252, 279, 283, 285, 286, 287, 290, 296, 319, 320, 326, 339, 365, 368
전주로(全州路) 269
전주성(全州成) 101, 129, 217, 244, 252, 268, 270, 283, 284
전포(電浦) 333
절영도(絶影島) 133
정읍(井邑) 62, 82
조성원(鳥城院) 376
종곡(鐘谷) 402, 403
죽산포(竹山浦) 71
죽천동(竹川洞) 379
중악단(中嶽壇) 297
중화(中和) 119
지리산(智異山) 167, 174, 176
지쿠젠(筑前) 125
직산(稷山) 315
진산(珍山) 309, 318
진성(振城) 98
진잠(鎭岑) 89
진주(晉州) 88, 148, 150, 151, 156, 157, 159, 161, 162, 165, 166, 167, 168, 170

ㅊ

차마산(車馬山) 79
창원(昌原) 126
창원로(昌原路) 133
창원부성(昌原府城) 135
창화문(彰化門) 358
천안(天安) 314, 315
청도(青道) 128
청산(青山) 90, 162, 317, 401, 402
청산현(青山縣) 402
청안(淸安) 403

청주(淸州) 89, 305, 313, 316, 365, 368, 403
초월향(招月鄕) 147
'쵸'안(テウ安) 402
추월산(秋月山) 225, 232, 234, 239
춘천(春川) 96
충주(忠州) 369
충주 감영(忠州監營) 89
치동(齒冬) 369
칠산진(七山津) 82
칠원(七原) 301, 314, 315

ㅌ

태봉(台封) 364, 365
태인(泰仁) 81, 82, 120, 200, 324

ㅍ

파청역(波靑驛) 376, 377
평신(平薪) 337
평양(平壤) 89, 370, 371
평택(平澤) 98

ㅎ

한성(漢城) 103, 314, 315, 317, 323, 326, 328, 338
함안(咸安) 119, 126, 142, 143
해남(海南) 379
해창산(海倉山) 378
화령(化寧) 368
화순(和順) 324
황간(黃澗) 402, 404
황토산(黃土山) 81
회덕(懷德) 89, 90, 91
후쿠오카(福岡) 129
흥덕(興德) 55, 81, 335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총괄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편집	**임현진** (연구조사부)
번역	**방광석** (홍익대 교수)
천우협 중 태평가 번역	LIU YANG(동국대 국문학과 박사수료)
교감	**조재곤** (서강대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갑오조선내란시말 | 천우협 | 남정여록 | 동학당시찰일기 | 일청교전록 | 일청전쟁실기

인쇄	2023년 8월 14일
발행	2023년 8월 30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홈페이지	www.1894.or.kr
전화	063-530-9432
전송	063-538-2893
편집인쇄	흐름 (www.heureum.co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

비매품

ISBN 979-11-979477-5-9 94910
ISBN 979-11-979477-1-1 (세트)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